[제주설화 해설서]

# 이어도移御島

-탐라 2천여 년 민중사의 열매들-

장성철 저

도서출판 태한

# 표지 해설

탐라국은 1105년(숙종 10) 고려에 병합되었고, 그리고 그때 탐라국 정식 국호國號는 乇羅(모라)였다. 어쨌든, 乇羅에서의 乇는 毛(←毛)의 변형으로 역사 부침浮沈의 소산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毛(모)는 '三+乙(乚)'로 三은 탐라국(곧, 毛羅)을 창업한 고씨高氏 · 량씨良氏 · 부씨夫氏를, 乙은 을나乙那를 뜻한다. 그리고 乙那에서의 乙은 태을太乙(곧, 하나 · 처음 · 시작 · 변혁 등)을, 那는 님 · 분 따위를 뜻한다. 그러고 보면, 毛羅는 세 분, 즉 고을나 · 량을나 · 부을나가 하나(乙)가 되어 창업한 나라(羅)인 셈이다. 한편, 乇는 '二+乙(乚)+•'으로 二는 고씨(왕 직)와 량씨(왕자 직)를, 乙은 을나를, 그리고 •은 부씨(신하 직)를 뜻한다. 그러고 보면, 乇羅는 고씨와 량씨가 왕권(왕 · 왕자 직)을 맡고 부씨가 신하 직을 맡은 나라인 셈이다. 이는 부씨가 세력 변동에 따라 왕 직에서 밀려나 신하 신분인 도내都內(또는 도상徒上) 직을 맡았다는 말이다.

각설하고, 오늘날 제주 여항간에 구전되는 설화들 중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것들은 거의 다 乇羅 몰락에 뿌리가 닿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최적의 용어는 다름이 아니라 이어도移御島이다. 그래서 이어도를 제목으로 삼았다. 移御의 사전적辭典的 정의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기다'이다. 이는 '임금(곧, 주권)이 없다'라는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 제주설화 상당수(예: 국호 乇羅 · 전설 이어도 · 전설 설문대할망 등)가 탐라 2천여 년 민중사民衆史와 괴리된 채 변질(곧, 왜곡)되어 있다. 설화란 민중 삶의 소산(곧, 민중의식의 발로), 즉 일종의 민중사, 나아가서 그 열매인데 말이다.

# 일 러 두 기

Ⅰ. 이 글에서의 설화분류는 두 가지 기준을 따랐다. 하나는 한국 설화이론에 따른 3분류(곧, 신화 · 전설 · 민담)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따른 2분류(곧, 본풀이 · 옛말)이다. 물론 한국설화이론은 한국설화들에서,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주설화들에서 귀납적 방법으로 추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 본풀이는 얼추 위 신화에, 그리고 위 옛말은 얼추 위 전설에 해당된다. 그러고 보면, 제주민중 설화의식에는 민담에 상응하는 것이 없는 셈이다. 이는 아마도 지난날 제주민중이 외세의 학정 · 핍박 · 수탈 · 모멸 등에 시달리느라 좌절한 채 꿈조차 없는 암담한 삶을 간단없이 살아야 했기 때문인 듯하다. 즉, 민담의 미적美的범주範疇인 골계미滑稽美를 향유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참, 옛날이야기 · 옛이야기 · 이야기 등으로도 불린 옛말은 위 전설 외에도 속담 · 금기어 등을 내포한 개념이다. 여하튼, 민중 삶의 소산인 설화의 분류기준은 일정 공동체(곧, 씨족 · 부족 · 민족; 지역 · 국가 · 대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씨족 등의 형성과정이나 지역 등의 특수성이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 이는 희랍 · 로마 설화, 중국 설화, 일본 설화, 한국 설화, 제주 설화 등은 원론적으로는 분류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말이다.

Ⅱ. 이 글이 소재로 삼은 설화들은 출처의 측면에서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설화담당 현용준 교수와 학생들)에서 1959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여름 · 겨울 방학을 틈타 제주도 전역을 두루 돌며 채록한 설화들(본풀이들 · 옛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가 주로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1970년대 전반 무렵까지 제주도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설화들(옛말들)이다.

Ⅲ. 일제강점기였다. 일본 지식인들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제주에서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 내선일체內鮮一體 같은 정치구호 및 식민사관을 유포하기에 혈안이었다. 그러다, 일제는 패망했다. 그리고 일제가 물러난 이 땅에서는 참극(예: 6·25전쟁, 4·3사건)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제주사회는 급격한 변혁을 맞았다. 설화 분야에서도 그랬다. 설화 왜곡(곧, 조작 · 날조 등)이 그 일례이다. 내친김에 말하

면, 설화 왜곡을 주도한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나머지 예의 그 정치구호와 식민사관에 세뇌된 인사들이었다. 그러고 보면, 예의 그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설화채록의 취지는 그 인사들 및 그 추종자들에 의한 왜곡 이전 상태의 설화를 확보하려는 것, 즉 그들에 의해 왜곡된 설화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려는 것인 셈이었다.

Ⅳ. 예의 그 설화 왜곡들 중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은 설문대할망 · 오백장군 · 비양도 등에 관한 것들이다. 물론 이것들은 전술한 2분류(또는 3분류)에 의하면 명명백백한 옛말(또는 전설)이다. 그런데 예의 그 인사들 및 그 동조자들은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 즉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권 등의 식재를 위해 이 땅에 유포해 놓은 신화이론(곧, '천지분리天地分離 관련 설화, 복수複數의 해와 달 관련 설화, 거인 또는 표류하는 섬에 의한 지형형성 관련 설화는 신화이다')을 근거로 그것들을 신화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설문대할망은 거인이고, 오백장군은 설문대할망 아들이고, 비양도는 표류하는 섬이니 그것들 관련 설화는 신화라는 것이다. 아니, 왜 제주 설화를 제주민중 설화의식이나 한국설화이론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에 의거하여 분류한단 말인가? 일본은 오리지널이고, 제주는 이미테이션인가? 제주는 일본의 아류인가? 아직도 의식이 일제 식민치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니, 언어도단이다.

Ⅴ. 탐라(곧, 제주) 관련 사항은 사서史書 주장과 옛말 주장이 판이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사서(곧, 『고려사』·『탐라지』 등)는 말한다. 耽羅는 탐진耽津에서의 耽과 신라新羅에서의 羅가 결합된 말이라고. 어불성설이다. 탐라라는 지명은 탐진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또, 탐라국호 乇羅[←毛羅(←耒羅)]가 『탐라지』에는 乇羅(탁라)로, 『삼국유사』에는 托羅(탁라)로 되어 있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대체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겨났을까? 아무튼, 이 글에서는 사서와 옛말 간의 불일치들도 짚어 보았다. 아울러, 옛말들 간의 불일치들(예: 제주 말뜻을 두고 한 옛말은 '바다 건너 고을'이라 하고, 다른 옛말은 '구제해야 할 고을'이라 함)도 짚어 보았다.

# 머 리 말

Ⅰ. 설화채록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구비문학 시대가 아니라 기록문학 시대이니까. 이는 지금은 설화해석 시대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설화를 해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화를 향유하는 것인 셈이다. 즉, 설화 해석자는 곧 설화 향유자인 셈이다.

Ⅱ. 설화는 본문을 전제로 한다. 설화는 문학(곧, 구비문학)이고, 그리고 문학은 본문을 전제로 한 학문이니까. 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양식樣式으로서의 설화임을 입증해 주는 것은 오직 본문뿐이라는 말이다. 마치 <진달래꽃>(김소월)이 시詩임을, 그리고 「감자」(김동인)가 소설임을 입증해 주는 것은 각각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으로 시작하는 본문과 "싸움 (중략) 징역, 이 세상의 비극과 활극의 ……"로 시작하는 본문뿐이듯이.

Ⅲ. 설화는 민중 개개인 아닌 민중 공동체의 삶의 소산이다. 또한, 설화는 민중 공동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작(곧, 조작 · 날조)된 것이 아니라 민중 공동체 삶 속에서 저절로 생성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설화는 한 편 한 편이 다 탐라 공동체 삶의 단면인 셈이자, 나아가서 탐라 민중사요 탐라 민족정신 곳집인 셈이다.

Ⅳ. 설화는 변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민중 삶이 변하고, 민중 삶이 변하면 그 반영인 설화도 변하게 마련이니까. 물론 설화가 변한다는 말은 생목처럼 살아 있다는 말이고, 살아 있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이고, 성장한다는 말은 구체화되고 심화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구체화되고 심화된다는 말은 설화가 마치 유대교 전통에서의 희생양犧牲羊 제도(곧,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를 흠 없는 어린 숫양에게 전가하여 그 양을 불모의 사막으로 내보내어 대신 죽게 하는 속죄 의식)가 훗날 그리스도교 대속代贖 사상(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했다는 논리)으로 구체화되고 심화되었듯이 본질이나 근간은 그대로 지닌 채로 현상이나 지엽이, 나아가서 그 이면의 정신이나 꿈 등이 변모한다는 말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설화 본문이 마치 감나무가 배나무로 둔갑하듯이 변질되어서는(곧, 본질이나 근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설화 이면의 정신이나 꿈 등이 진보한다는 말이다. 그럼, 설화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설화가 구전도 해석도 되지 않는다는 말, 즉 설화가 마치 박제나 골동품처럼 죽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설화가 죽어 있다는 말은 민중이 정신도 꿈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아니 죽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정신도 꿈도 없이 산다는 말은 기실 죽어 간다는 뜻일 테니까.

Ⅴ. 미래를 위해 과거(곧, 역사)를 반추하는 것, 나아가서 망각된 역사를 되살리고 사장된 역사를 꺼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두말없이 유의미한 일이리라. 만물은 회귀하게 마련이니까.

Ⅵ. 역사는 두고두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즉, 거듭거듭 재해석되어야 한다. 한 공동체가 흡사 연어가 거듭나기 위해서 늘 고향의 강을 꿈꾸며 회귀하듯이 그 재해석들을 이정표 삼아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주, 아니 탐라 공동체에는 조망할 역사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는 당연지사이다. 탐라국은 망국이고, 그리고 망국 역사는 유기되고 왜곡되고 망각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탐라사耽羅史 조망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유의미한 창窓인 설화(예: 역사적 전설)는 꽤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탐라민중은 지금 동면하며 꿈꾸고 있는 것은 혹여 아닐까? 역사를 상실한 채 역사적 전설을 향유하고 있으니까.

Ⅶ. 설화의 오늘날 존재 의의는 그 이면에 민중사 · 민족정신 등, 즉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취지는 이 땅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설화들 이면의 역사 · 정신 등을 추출하여 이 땅의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설화 왜곡, 사서와 옛말 간의 불일치, 옛말들 간의 불일치 따위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Ⅷ. 만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 이를테면 옹달샘은 부산한 도심이 아니라 아늑한 숲속에 있을 때, 그리고 설문대할망 설화는 일본설화체계가 아니라 탐라설화체계라는 모감주 염주의 모감주 한 알 위치에 있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

**저자**

- 차 례 -

표지 설명 ····· 2

일러두기 ····· 3

머리말 ····· 5

차례 ····· 7

제1부 광의廣義의 옛말 ····· 10

<서序> ····· 11

제1장 명칭 관련 옛말
<지명[한라산, 산저천, 건입동, 제주]> ····· 13
<국호[모라, 탁라, 탐모라, 탐라, 담라, 구한지일, 동영주]> ····· 24
<칭호[성주]> ····· 51
제2장 사료史料 관련 옛말
<탐라의 백제 조공설, 백제의 탐라 병합설, 탐진> ····· 58
<섭라> ····· 64
제3장 협의狹義의 옛말(곧, 전설) ····· 66
<탐라라는 지형> ····· 67
<칠머리라는 지형> ····· 69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 ····· 72
<칠성골> ····· 78
<별도봉> ····· 83
<아흔아홉골; 백골> ····· 88
<황새왈> ····· 93

<관덕정과 솥장수> ····· 97
<산방산과 용머루> ····· 119
<김녕 뱀굴> ····· 126
<김통정과 붉은오름> ····· 131
<강정 구럼비바위> ····· 141
<당 오백 · 절 오백> ····· 146
<송당> ····· 151
<황구렁이> ····· 157
<돌하르방> ····· 164
<서불; 서복> ····· 165
<비양도> ····· 189
<날개 달린 아기장수> ····· 193
<오백장군과 고종달> ····· 196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 209
<이어도; 이여도> ····· 271

<결어結語> ····· 302

제2부 본풀이(곧, 신화) ····· 304

<서序> ····· 305

제1장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화
<삼을나(곧, 모라건국)> ····· 313
제2장 전래되어 토착화한 본풀이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 ····· 352
<삼승할망(곧, 산신産神)과 마누라(곧, 마마신媽媽神)> ····· 357
<초공(곧, 본맹두 · 신맹두 · 삼맹두 및 유씨 부인)> ····· 362
<이공(곧, 꽃감관: 할락궁이 · 사라도령 · 원강암)> ····· 368
<삼공(곧, 가믄장아기)> ····· 372

<차사(곧, 강님)> ····· 376
<멩감(곧, 사만이)> ····· 384
<세경(곧, 자청비 · 문도령 · 정수남이)> ····· 386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 정낭지신 · 측도부인 등)> ····· 393
<사신蛇神 칠성> ····· 396
<나주羅州 기민창饑民倉 조상> ····· 401
<송당(곧, 금벡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 ····· 403
<내왈당(곧, 천자또마누라)> ····· 407

<결어結語> ····· 409

발문 ····· 411

참고문헌 ····· 414

[부록]
■ 제주설화의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 416

# 제1부 광의廣義의 옛말


■ <서序>(11)

■ 제1장 명칭[지명 · 국호 · 호칭] 관련 옛말

- 지명: <한라산漢羅山; 한나산漢拏山>(13) / <산저천山底川; 산지천山池川>(14) / <건입동巾入洞; 健入洞>(15) / <제주濟州>(18)
- 국호: <모라毛羅(→毛羅), 乇羅; 탁라托羅, 乇`羅, 毛羅>(24) / <탐모라耽牟羅; 耽毛羅>(34) / <탐라眈羅, 躭羅(耽羅); 담라聃羅(聃羅), 儋羅, 擔羅>(37) / <구한지일九韓之一>(49) / <동영주東瀛洲>(50)
- 호칭: <성주星主>(51)

■ 제2장 사료史料 관련 옛말

- <탐라의 백제 조공설, 백제의 탐라 병합설, 탐진耽津>(58)
- <섭라涉羅>(64)

■ 제3장 협의狹義의 옛말(66)

<탐라라는 지형>(67) / <칠머리라는 지형>(69) /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72) / <칠성골>(78) / <별도봉>(83) / <아흔아홉골; 백골>(88) / <황새왙>(93) / <관덕정과 솥장수>(97) / <산방산과 용머루>(119) / <김녕 뱀굴>(126) / <김통정과 붉은오름>(131) / <강정 구럼비바위>(141) / <당 오백 · 절 오백>(146) / <송당>(151) / <황구렁이>(157) / <돌하르방>(164) / <서불; 서복>(165) / <비양도>(189) / <날개 달린 아기장수>(193) / <오백장군과 고종달>(196) /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209) / <이어도; 이여도>(271)

■ <결어結語>(302)

# 제1부 광의廣義의 옛말

## <서序>

Ⅰ. '제1부 광의의 옛말'에서는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류에 따른 옛말들[1][곧, 본풀이(≒신화) 이외의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Ⅱ. '제1장 명칭 관련 옛말'과 '제2장 사료 관련 옛말'에서는 왜곡된 채 기정사실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명칭과 사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濟州가 그 일례이다. 혹자는 말한다. 제주 말뜻은 '물 건너[濟] 고을[州]'이라고. 하지만 실은 치욕스럽게도 '고려의 구제救濟를 받아야 할 고을[州]'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 혹자는 제주 미래상에 관한 청사진이랍시고 '위대한 제주 건설'이란 구호를 내건다. 기막힐 노릇이다. 위대한 구제해야 할 고을을 건설하자니 말이다. 아니, 일단 치욕스러운 이름부터 불식해야 하지 않을까? 내처 말하면, 이 글에서는 제주란 말 대신 가급적 탐라란 말을 썼다. 탐라는 자랑스럽게도 '왕후지지王侯之地'(곧, '왕후가 태어나는 땅')란 뜻이니까.

Ⅲ. '제3장 협의의 옛말'에서는 한국설화이론 3분류에 따른 전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니, 실은 역사가 투영된 역사적歷史的 전설을 주로 다루었다. 물론 역사적 전설도 여타 전설도 꿈꾸며 좌절하고 좌절하며 꿈꾸는 민중의 처절한 삶의 적나라한 표출(곧, 민중의 이상과 염원, 고통과 좌절, 생활관과 가치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정신과 저항의식 따위의 소산)이다. 이는 역사적 전설도 여타 전설도 일종의 민중사民衆史라는 말이다. 참, 한국설화이론 3분류는 전설을 발생목적에 따라 역사적 전설 · 신앙적 전설 · 설명적 전설 등으로 분류한다. 한편, 민중은 민족의 뿌리이다. 지배층 · 정부 · 나라가 망해도 민중이 있는 한 민족이 망하는 법은 없지만, 민중이 결딴나면 민족은 그만 끝장나 버리고 마니까. 그러고 보면, 역사적 전설도 여타 전설도 일종의 민족사民族史인 셈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역사적 전설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그 까닭은 민족정신(곧,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민중

---

1) 여기서의 옛말이란 개념의 외연은 전설 · 속담 · 금기어 · 민중사 등임.

의식)이 여타 전설보다 역사적 전설의 이면에 보다 짙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역사적 전설과 역사는 다르다. 역사적 전설은 '사실 + 민중의 삶(곧, 꿈과 좌절)'이고, 그리고 역사는 '사실史實 + 역사가의 사관史觀'이니까. 물론 민중은 역사관歷史觀(곧, 세상사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만 꿈꾸며 좌절하며 마냥 살아갈 따름이다.

Ⅳ. 돌이켜보면, 탐라 과거사過去事는 유기되거나 왜곡되거나 망각되어 있다. 게다가, 그 뿌리인 탐라국은 망국, 즉 '액면 그대로의 망국'이다. 그 역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에 계승되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동시대의 신라 · 백제 · 고구려 등도 망국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액면 그대로의 망국은 아니다. 그것들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일단락이니까. 즉, 그것들의 역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에 계승되고 있으니까. 여하튼, 오늘날 탐라국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탐라국 관련 사료史料가 전무하다시피 한 형편이라서 말이다. 하지만 역사적 전설이 꽤 있다는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것들이 탐라국 조망이란 난관의 돌파구 노릇을 해 줄지도 모르니까. 아니, 그것들이야말로 주체적인 탐라사耽羅史 조망을 위한 유일무이한 창窓 노릇을 해 줄 것이다. 주체적인 역사란 국본國本인 민중의 시각에서 본 역사이다.

Ⅴ. '제1부'에서 다룬 명칭 · 사료 · 전설 등의 왜곡 여부는 그것들이 탐라 이야기라는 모감주 염주의 모감주 한 알이냐[곧, 탐라 민중사, 여타 탐라설화(곧, 협의의 옛말), 한국설화이론, 제주민중 설화의식 등에 어울리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였다.

Ⅵ. '제3장'에서의 옛말들은 민중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민중의식의 소산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제2부'에서의 본풀이들은 주로 신화시대의 기복신앙 · 운명론 등의 소산이다.

Ⅶ. 한국설화이론 3분류에 의하면, 신화 · 전설 · 민담 등은 설화의 하위개념들이다. 즉, 설화는 신화 · 전설 · 민담 등의 상위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류에서의 옛말과 본풀이 간에는 없다. 이는 옛말과 본풀이는 별개라는 말이다.

# 제1장 명칭[지명 · 국호 · 호칭] 관련 옛말

## <한라산漢羅山; 한나산漢拏山>

❶ **漢拏山**(한나산)은 본디는 **漢羅山**(한라산)이었다. 뜻은 전자는 '은한을 붙잡고 있는 산'이고, 후자는 '큰 벌에 있는 산'이다. 한편, 한라산에서의 한라(漢羅: 큰 벌)는 아라(我羅: 우리 벌) · 오라(吾羅: 우리 벌) · 사라(紗羅: 비단 같은 우리 벌) 등에 상응한 명칭이다.

❷ 왕조시대에 한반도 조정에서 탐라로 파견되어 온 관리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은하수가 걸려 있는, 아니 은하수를 붙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라산을 바라다보며 향수병을 달래었다. 그러다 보니, 한라산의 본디 한자어 漢羅山은 漢拏山으로 와전訛傳(곧,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옛말들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주시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것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漢羅山**에서의 漢은 '한'[뜻: 크다(大)]의 차자이다. 漢이 '크다(大)'라는 뜻으로 쓰인 또 다른 예例는 대천大川(제주시 용담동 소재)이라고도 불리는 한천漢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의 羅는 '나(또는 노 · 내 · 니 등속)'[뜻: 벌(곧, 들) · 땅 · 곳 등]의 차자이다.

**漢拏山**에서의 漢은 은한銀漢[뜻: 은하銀河(곧, 은하수)]에서의 漢이고, 그리고 拏는 '나'(뜻: 붙잡다)의 한자어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한글 '한라산'의 현용 한자어는 '漢拏山'이다. 이는 오류이다. 漢拏山의 한글 발음은 한나산이고, 한라산의 한자어는 漢羅山이니까. 물론 이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것은 방치한 채 또 다른 오류를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또 다른 왜곡이란 다름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산하 제주돌문화공원에다 세금 930억 원을 들여 위신僞神 설문대할망 신화관神話館(이는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을 건립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문득 탐라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해 온 옛말이 떠오른다. “큰 양 말앙 ᄌᆞ냥ᄒᆞ라!” 이는 큰사람인 양 허세부리지 말고 작은 사람인 양 겸손히 굴라는 뜻이다. ᄌᆞ냥(←ᄌᆞᆫ 양)에서의 ‘ᄌᆞᆫ’은 ‘ᄌᆞᆨ다’(작다, 적다)의 관형사형이다.

<산저천山低川; 산지천山池(또는 地)川>

❶ **산지천**山池(또는 地)川은 본디는 **산저천**山低川이었다.

❷ **산**(곧, 한라산) 밑[低]에는 **내창**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그 내창(하천)들 중 유독 건들개[巾入-]로 통하는 내창에만 山低(산저)(뜻: 한라산 밑)란 이름을 붙여 산저천이라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탐라국 시절 그것(곧, 건들개)이 탐라의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이 옛말들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것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 본문本文 관련 해설]

**산지천**山池(또는 地)川, **산저천**山低川. 산저천의 뜻은 ‘한라산 밑 내창’이다. 그런데 산저천山低川에서의 低가 오늘날은 ‘지池(또는 地)’로 왜곡되어 있다. 이는 오류이다. 물론 오류는 사소한 것일망정 바로잡아야 한다. 오류는 또 다른 오류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위신 설문대할망 신화관이 이 땅에 흉물스럽게 들어서게 된 것은 혹여 아닐까? 내친김에 말하면, 위신 설문대할망 신화관은 급기야는 참된 역사를 말살하고, 그리고 거짓된 역사를 부식扶植하는 우愚를 범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부끄럽게도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민족정신 · 민중사 등을 말아먹고, 그리고 일제식민사관(예: 대동아공영권 · 내선일체 등)을 이 땅에 조장하는 우를 말이다.

**산**.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탐라 토박이들은 자신들 정체성의 상징인 한라산과 산소山所는 그냥 산이라 불렀고, 그리고 오늘날 오름이라 불리는 산들은 이름(예: 사라봉 · 별도봉 등)으로 불렀다. 참, 일설은 전한다. 지난날 화전 등으로 개간 불가능한 산(곧, 한라산 · 산방산 · 두럭산 · 영주산 · 성산 및 산소)은 산이라 불렸고, 화전 등으로 개간 가능한 산(곧, 위 여섯을 제외한 것들)은 오름이라 불렸다고.

**내창**의 '내'는 작은 하천이고, '창'은 밑바닥이다. 그러고 보면, 내창은 물이 흐르지 않아 밑바닥이 드러나 있는 작은 하천인 셈이다.

**건들개** 말뜻은 '건巾을 머리에 쓴 당나라 상인들이 들어온(入) 개'이다. 부언하면, 지난날 건들개는 탐라왕궁이 곁에 있어서 탐라국 관문 노릇을 했고, 그리고 그 개 일대 해변은 탐라도읍의 해산물(곧, 염분) 공급처 역할을 했다(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건입동巾入洞; 健入洞>

**건입동健(또는 建)入洞**의 한자어는 본디는 巾入洞이었다. 이는 健(또는 建)入은 **건들개**에서의 '巾入[건들]'의 와전이라는 말이다. 한편, 건들개는 '지난날 건巾을 쓴 당나라 상인들이 드나든(入) 개(곧, 포구)'라는 뜻으로 산저천 어귀를 지칭한다. -이 옛말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것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건입동健(또는 建)入洞**은 제주시 산하 한 행정구획으로 건들개 일원을 지칭한다. 한편, 건입동의 본디 한자어는 巾入洞이다.

**건들개**는 '건巾을 쓴 당唐나라 상인이 들어온(入) 개어귀'라는 뜻으로 산저천山底川 어귀를 지칭한다. 그런데 오늘날 건들[巾入]개에서의 巾이 健(건)[또는 建(건)]으로 와전되고 있다. 이에는 악의, 즉 탐라가 지난날 해외무역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말살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탐라란 땅은 본디 절해고도絶海孤島였다는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게다가 속칭 제줏놈(뜻: 구제받아야 할 섬의 오랑캐) 주제에 해외무역은 무슨 해외무역이냐는 안하무인격의 망언을 함으로써 이 땅을 하시하려는 편협한 의도가 들어 있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건입동에서의 '건'이 巾이었음을 말해주는 증표가 있다. 사라봉(건입동 소재)과 별도봉(화북동 소재) 간 경계선 북단 해변에 위치해 있는, '票'라는 글자가 음각된 경계석境界石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오늘날 이 경계석이 건입동과 화북동 간 경계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그 두 마을 간 경계의 지표는 예전에는 소위 칠머리의 첫째 용머리(이는 후술할 <칠머리> 참조)였다. 여하튼, 그 票란 글자 밑에 "□□□ 月 日 巾入上洞漁採契中書"[□□□ 월 일 건입상동어채계중서]란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巾入上洞(곧, 건입동 윗동네) 주민들이 어채계 모임을 갖는 도중에 票라는 글자를 음각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巾入上洞의 巾이 예의 그 증표이다. 참, 현 어촌계漁村契도 그 음각된 글자들에 의하면 본디는 어채계漁採契였다. 혹자는 말한다. 어촌계는 일제가 강점기에 어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초로 조직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경계석은 이 주장을 반박한다. 어촌계는 한낱 어채계의 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 그런데 그 경계석은 어찌하여 출현하게 된 것일까? 건입동 측은 말한다. 익사한 시신들이 그 첫째 용머리 밑 바다, 즉 별도봉 밑 바다로 간혹 떠밀려 왔고, 그 시신들을 누가 치우느냐 하는 문제로 건입동과 화북동이 옥신각신했고, 그리고 세력이 보다 센 건입동이 시신 치우는 부담을 면하려고 그 별도봉 밑 바다를 세력이 보다 약한 화북동에 넘겨주고 그 경계석을 세웠다고. 하지만 화북동 측은 말한다. 그 주장에서의 화북동은 실은 곤을동坤乙洞이라고. 곤을동은 화북동 북서단, 즉 별도천 어귀 일원에 신설된 소규모 마을이다. 이 마을 중 일부는 소위 4·3사건 때 초토화되어 지금은 그 흔적(곧, 집터 이십여 기基와 물방에터 일 기)만 남아 있다. 내친김에 말하면, 일설은 전한다. 坤乙洞에서의 坤乙은 '땅(坤)에 물(乙)이 풍부하다'란 뜻이라고. 하기야,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별도봉 도처에 물이 흥건했었으니 그 동녘 기슭에 위치한 이 마을에 물이 풍부했을 것은 당연지사였으리라. 또, 일설은 전한다. 곤을동에서의 坤乙은 坤이 땅을, 乙이 하나 · 처음 · 시작 · 으뜸 등을 뜻하니 땅의 으뜸이란 뜻이라고. 그리고 그곳에 坤乙이라는 지명이 붙은 까닭은 그곳이 탐라의 으뜸 땅(곧, 칠머리의 첫째 용머리) 동쪽 기슭이기 때문이라고. / 한편, 그 경계석은 언제 출현했을까? 그것은 庚子五(경자년 5월) 또는 辛丑年(신축년)일 것이다. 예의 그 글자들 중 □□□ 부분을 그 어렴풋한 윤곽에 의해 추정해 보면 말이다. 그런데 어촌계라는 말이 일제 강점기에 생겼다는

점, 즉 일제가 강제로 어채계를 어촌계로 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경자년 하한선은 1900년이고, 신축년 하한선은 1901년일 것이다. 육십갑자에서, 경자년 다음이 신축년이다. 그럼, 그 상한선은? 생각건대, 화북동 서쪽 가장자리 해변에 새로 자리를 잡은 곤을동 주민들은 바릇(곧, 해산물)도 잡고 물질도 할 바다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화북동은 예의 그 시신들 처리를 떠맡지 않으려고 자기 구역 중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별도천 어귀 일대 바다, 즉 별도봉 밑 바다를 곤을동에 넘겨주었다. 이리하여, 건입동 바다와 화북동 바다 사이에 곤을동 바다가 생겨났다. 한편, 건입동도 그 시신들 처리를 떠맡지 않으려고 건입동 어채계의 동쪽 가장자리 바다, 즉 칠머리의 첫째 용머리 밑 바다를 곤을동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증표로 그 경계석을 세웠다. 그렇다면, 그 경계석 출현의 상한선은 곤을동 설립 직후의 경자년 5월 또는 신축년일 것이다. 어쨌든,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 경계석 출현 시기는 아마도 1901년인 듯하다. / 각설하고, 그 경계석은 지난 백여 년 이상 '작은 것'이란 인식하에 방치되면서 염분 품은 해풍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쇄석화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쇄석화의 길을 걷고 있다. 언젠가 태풍 때였다. 별도봉 북녘 기슭 도처에 산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그 경계석은 흙더미에 반쯤 파묻혔다. 그렇다면, 그 경계석은 흙속에 파묻히는 것이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른다. 풍화작용에 따른 쇄석화의 길만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 참, 필자는 그 경계석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목격하고, 그 후 수십여 년 간 그것의 보호를 거듭하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태껏 흡사 유기된 시체, 아니 모라 역사처럼 방치되어 있다. 흙더미에 파묻혀 가는 그 경계석 위로 문득 930억 원짜리 설문대할망 신화관이 겹쳐진다. / 부언하면, 지난날 탐라인들은 삶의 터전인 땅이 작은 탓에 '작은 것'(곧, ᄌᆞ냥)의 미학을 추구해 왔고, 역경에서는 '큰 것'이 탐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기며 큰 양하는 자들을 경원해 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문화관광이란 말이 난무하면서 대규모의 신화 · 역사 공원(예: 설문대할망 신화관)을 건립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럴 때면 선조들 옛말도 귓전을 울리기 일쑤이다. "큰 양

말앙 ᄌᆞ냥ᄒᆞ라!" / 참고삼아 말하면, ᄌᆞ냥의 뜻은 오늘날 좀 왜곡되어 있다. 물질적인 절약쯤으로 말이다. 일탈을 좀 하면, 올래란 말의 인식에도 왜곡이 있다. 올래는 탐라의 자생적이고 고유한 말이 아니라 한반도의 오래가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이니까[예: 졸랑말(←조랑말), 놀래(←노래), 걸름(←거름)]. 이는 『훈몽자회訓蒙字會』(최세진)에서의 '오래 문門'이 입증한다. 사실, 오래는 지난날 대문이 없던 시절에 한 동네의 여러 이웃집이 공동으로 쓰는 골목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본격적인 대문이 생기면서 공동골목 역할을 하던 오래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 등이 사라졌다. 한편, 탐라에서는 본격적인 대문 대신 간이대문(지금은 정주목 2개와 정낭 3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이 생겼지만 그것이 대문 역할을 제대로 못한 탓에 공동골목 역할을 한 올래란 말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게다가, 올래는 지칭 대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공동골목 전체가 아니라 간이대문 안쪽의 개별골목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올래는 한반도어 오래의 아류, 즉 제주어인 셈이다. 물론 제주어는 탐라의 자생적이고 고유한 언어가 아니라 한반도 언어가 제주에 유입되어 토착화한 언어이다. 그럼, 자생적이고 고유한 탐라어는? 그것은 모라 몰락을 계기로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다. 망국 언어란 으레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하긴, 망국 언어치고 살아남은 언어는 없다.

Ⅱ. 이 글의 취지는 탐라설화 이면에서 쓸모 있는 정신을 추출하여 탐라 미래를 위한 이정표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ᄌᆞ냥 정신'이야말로 가히 그 취지에 부합된 첫째 대상이라 함 직한 것이다. ᄌᆞ냥(곧, 겸손이란 미덕)은 작은 사람인 양 말하고 처신하는 것으로 지난날 탐라인들이 대대로 추구해 온 제일 덕목이었으니까. 내처 말하면, ᄌᆞ냥의 상대어는 '큰 양', 즉 오만이다. 물론 오만은 인간, 나아가서 인류의 범죄 · 타락 · 멸망 등의 화근이다.

<제주濟州>

❶ 제주 말뜻은 '물 건너에 있는 고을'이다. -이는 필자가 중학생 때(1960년

대 중엽)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교감 김봉옥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임.

❷ 고려왕이 왕후지지王侯之地(뜻: 임금과 제후가 태어나는 땅)란 뜻의 탐라를 속국 지명으로는 과분하다며 폐하는 대신에 '고려의 구제救濟를 받아야 할 일개 고을[주州]'이란 취지의 제주로 개칭했다. 그러고 보면, 제주의 뜻은 '구제해야 할 고을'인 셈이다. -이 옛말은 필자가 국민학생 때(1960년대 초엽) 김녕리에서 얻어들은 것임.

❸ 탐라는 섬나라를, 제주는 바다 건너에 있는 주州 단위의 군현郡縣을 뜻한다. 한편, 탐라는 비하된 호칭이고 제주는 격상된 호칭이다. -이는 1980년대 초엽 제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TV에 출연하여 한 말임.

❹ 제가 탐라耽羅와 제주濟州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는 역사적인 인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주라는 단어는 서기 1105년 즉 고려高麗 숙종肅宗 10년에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어 '탐라군耽羅郡'이 된 후, 한때는 탐라현耽羅縣이 되었다가(1153년), 고려가 원元의 부마국으로 만들어진(1260년) 이후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중략] 1295년에 탐라현은 제주목濟州牧이 됩니다. 제주라는 글자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고려는 탐라를 확실하게 자신의 땅이라고 선언하는 용어를 창안하여 '제주濟州'라고 개명한 것입니다. [중략] 사실 지명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正體性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했다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한 정복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략] 제주濟州라는 단어의 원뜻을 잘 살펴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당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이지요. "제주濟州", 풀어쓰면 "물 건너 있는 땅"이 됩니다. 육지에 앉아 있는 땅 임자가 "저기, 물 건너 있는 내 땅"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땅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중략] 이러한 작명은 가히 한자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제주를 복속하는 고려의 정치적 선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란 고려가 정복한 땅, 즉 식민지라는 뜻과 동의어인 셈입니다. 식민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작명된 그 단어가 구백 년이 넘도록 지켜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제주濟州"를 고집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식민지植民知(colonial knowledge: 식민지植民地의 지식知識이라는 준말)"이지요. -『탐라 · 제주의 문화인류학』, 전경수, 민속원, 2010년, 20-22쪽

❺ 김홍식(1986)은 百濟地名 '等也· 等良' 등은 'tora, tara'의 借字表記인데 제주도 지명에서의 '논다리 · 인다라'의 '다라'에 이어질 것이며 이 '다리 · 다라'형 地名은 제주도의 古名稱 '耽羅'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찰, 또 日語에서 '巨濟島'를 'クダラ島'라고 呼稱하므로 '濟'자는 'ダラ'의 借記

요 '濟州'의 '濟'도 '다라'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제주도 古名稱 '탐라'나 現名稱 '濟州'는 다같이 '다라'의 표기가 아닐까라고 논술했다. -「지명地名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耽羅言語의 원류源流」,『제주도』53호, 현평효, 1990년

❻ 938년 탐라(당시의 정식 국호: 乇羅)는 고려의 속국으로 전락한다. 이리하여, 모라국왕은 성주星主(곧, 칠성도七星圖의 주인)로, 모라왕궁은 성주청星主廳으로 격하된다. 한편, 성주로 격하된 모라국왕 고자견高自堅은 태자 말로末老를 고려 조정에 입조入朝시킨다. 이는 고말로가 기인其人이 되었다는 말이다. 참, 현재의 탐라(또는 제주) 고씨 족보에 고말로가 제1세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 기인한 것, 환언하면 역사에서 모라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 / 1105년 고려 숙종(10년)은 속국 국호 乇羅를 폐하여 모라국을 탐라군耽羅郡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이원二元(성주星主 · 지방관地方官)집정제도執政制度 실시를 위해 지방관을 파견한다. 이로써, 탐라국은 몰락하는 비운을 맞는다. / 1211년(희종 8)경 고려 조정(곧, 무신정권)은 탐라란 말은 속국의 지명으로는 과분하다며 제주로 개칭하게 한다. 생각건대, 고려 무신정권 아래서 이루어진 이 개칭은 탐라(곧, 왕후지지)를 '자의 그대로의 제주'(곧, 고려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그 무신정권 의지의 발로는 혹여 아니었을까? / 1273년 원元은 이 땅의 김통정 휘하 삼별초를 도륙한 후 이 땅은 더는 고려 속국이 아니라는 취지하에 제주를 탐라로 복원하고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둔다. / 1374년(공민왕 23) 원元이 패망하고 명明이 건국되자 고려는 명나라 허락을 받아 다시 탐라를 복속시킨 후 그 지명을 도로 제주로 개칭한다. 이는 탐라가 고려 속지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날의 이원(성주 · 지방관)집정제도를 복원시킨다. / 1402년 조선 태종은 성주星主를 도지관都知管으로 격하시킨다. 즉, 성주제도星主制度를 폐지한다. 이는 성주(곧, 고씨)가 탐라왕권에서 축출되어 한반도 일개 군郡의 관리로 전락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원(도지관 · 지방관)집정체제는 가까스로 유지된다. / 1445년(세종 25) 조선은 도지관제도마저 폐지하고 지방관 단독체제를 확립한다. 이는 고씨(곧, 탐라왕실)가 조선 조정의 관직官職에서조차 축출되었다는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도지관제도 폐지를 계기로 제주 지방관을 일명 성주로 부르게 하는데, 이는 성주 칭호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함이었다. / 여하튼, 고려 · 조선 치하에서 탐라왕권은 아주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탐라는 한반도의 뒷전으로 아주 밀리게 된다. 한편, 탐라민중은 한반도 조정의 한결같은 무단통치 탓에 갈수록 헐벗고 굶주리게 된다. 그러자 이 땅에서는 민란이 간단없이 일어난다. 이에, 한반도 조정은 민란 진압과 민란 장두 처형이라는 기조를 통상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 모라

耽羅건국 이래 이룩한 천여 년 간의 정신문화 유산도 물질문화 유산도 깡그리 초토화되고 만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땅은 문맹과 불모의 땅으로, 섬 오랑캐의 땅으로, 나아가서 절해고도絶海孤島로, 아니 '자의 그대로의 제주'(곧, '한반도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로 아주 이울어 버리고 만다. -이 내용은 필자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여기저기서 습득한 것들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구전口傳 또는 사실史實인 위 ❻은 고려 태조 21년(938)부터 조선 세종 25년(1445)까지의 탐라(곧, 현 제주) 관련 약사略史이다. 이를 여기서 언급한 것은 제주 말뜻 파악에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올바른 인식이 꼭 필요하리라 여겨져서이다.

Ⅱ. 위 ❸은 내용이 탐라는 섬나라로 비하된 호칭이고 제주는 바다 건너에 있는 주州 단위의 군현郡縣으로 격상된 호칭이라는 것이다. 이는 탐라 말뜻이 섬나라라는 논리를 편 『해동역사海東繹史』(한치윤)를 언뜻 연상시킨다(이는 후술할 <탐라; 담라> 참조). 여하튼, 자주독립국 탐라(곧, 모라毛羅)에서 타국의 일개 군현 제주로의 전락이 격상이라니, 웬 궤변인가? 생각건대, 이는 탐라후예라면 결코 못할, 그러나 제주인이라면 가히 함 직한 발언이다.

Ⅲ. 위 ❺는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학 강좌를 맡고 있던 현평효 교수가 「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제주도』 53호, 1990년)에서 제주의 옛 지명(곧, 耽羅 · 毛羅 · 耽牟羅 등)에 관한 재래의 견해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동료 국어학 교수 김홍식의 제주 말뜻 관련 견해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여하튼, 위 ❺에 의하면 김홍식 견해는 탐라에서의 耽과 제주에서의 濟가 공히 '다라'의 차기借記라는 것이다. 이는 탐라의 제주로의 개칭은 형태상의 문제일 뿐 의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현평효는 이 김홍식 견해를 언급하기에 앞서 자신의 견해, 즉 "耽羅는 '높은(耽) 땅(羅)'이란 뜻이다"를 미리 구명究明해 놓았다. 그런데 이 현평효 견해를 통해 그 김홍식 견해를 들여다보면, 그 김홍식 견해는 종주국 고려가 종속국 지명 '높은 땅'(탐라)을 '높은 고을'(제주)로 개칭했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종주국은 종속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려 드는 게 상례이니

까. 그렇다면, 김홍식 견해와 현평효 견해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에 오류가 있는 것은 혹여 아닐까?

Ⅳ. 위 ❶ · ❹는 단언한다. 제주 말뜻은 '물 건너 고을'이라고. 하지만 국어사전은 말한다. 濟州에서의 濟의 훈訓 '건너다'에는 '물(곧, 바다 · 호수 · 강 등)을 건너다'란 뜻은 없고 오직 '구제救濟하다'[예: 제민濟民(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짐), 제빈濟貧(가난한 사람을 구제함), 제생濟生(생명이나 중생을 구제함), 제세濟世(세상을 구제함)]란 뜻만 있다고. 또, 국어사전은 말한다. '물질적인 물을 건너다'에는 濟가 아니라 涉(섭)[예: 섭수涉水(물을 건넘), 도섭渡涉(물을 건넘)] 또는 渡(도)[예: 도해渡海(바다를 건넘), 도강渡江(강을 건넘)]가 쓰인다고. 그러고 보면, '물 건너 고을'은 濟州가 아니라 涉州 또는 渡州인 셈이다. 이는 濟에서의 삼수변(氵)은 저승과 이승 사이의 물로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정신적인 물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위 ❶ · ❹는 오류, 즉 와전(예: 날조 · 조작 등)이다. / 돌이켜보면, 제주 말뜻을 두고 '물 건너 고을' 운운한 첫 인물은 향토사가이며 한학자이며 유학자인 김봉옥이다. 필자가 제주제일중학교 2학년 시절(1966년)이었다. 교감 신분으로 윤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던 김봉옥 선생이 하루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濟는 '건너다'란 뜻이고 州는 고을이란 뜻이니 濟州란 말뜻은 아마도 '바다 건너에 있는 고을'일 겁니다"라고. 그런데 추측성 발언인 이 가설은 하등의 검증절차도 없이 기정사실화(곧, 정설화)되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 · 후학들 등에 의해 제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 생각건대, 제주 말뜻을 두고 사실 여부야 어떠하든 '물 건너 고을' 운운한 것은 한반도 중심적 사고의 산물로 탐라의 주인은 탐라후예가 아니라 한반도인이라는 말이다. 어불성설이다. 탐라는 단연코 탐라후예의 땅이니까. 그럼, 용어 제주, 즉 '물 건너 고을'은 이대로 방치해 둘까? 아니, 한시 바삐 불식해야 한다. 그것은 탐라가 종주국 한반도의 속지임을 천명한 낙인이니까. 게다가, 탐라후예에게는 종속적이고 의타적인 명찰이니까.

Ⅴ. 위 옛말 ❷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는 우문愚問이다. 설화는 사실事實(또는 사실史實)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 민중의 꿈'에 관한 문제이니까. 아무튼, 그 물음에 굳이 답한다면 참일 개연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란 지명의 출현 당시 역사적 상황(위 ❻)은 위 ❷가 참일 개연성에 무게를 두게 하니까. 게다가, 고려가 모라를 병합한 이후 한반도의 탐라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은 "제주는 섬 오랑캐 땅, 즉 구제대상이다"였으니까. 아니, 주권을 박탈하고 핍박을 일삼은 주체가 주권을 박탈당하고 핍박에 시달린 객체를 두고 구제대상(곧, '구제해야 할 고을') 운운하다니! 부언하면, 당시 고려에서 제도濟度(곧, 구원)를 이념으로 삼은 불교가 흥륭해 있었던 것도 "제주 말뜻은 구제해야 할 고을이다"가 참일 개연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 각설하고, 혹자는 당연하다는 말투로 "한반도는 본토이고, 그리고 제주는 변방이다"라 한다. 하기야, 이 땅은 지명이 제주(곧, '구제해야 할 고을')인 한 변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제주란 말은 변방의식과 함께 이 땅에서, 또 탐라후예들 뇌리에서 아주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본래의 이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본토의식, 아니 중심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말이다. 한편, 혹자는 피력한다. "위대한 제주를 건설하자!"라고. 뭐, '위대한 구제해야 할 고을'을 건설하겠다고? 허!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큰 제주'를 만들겠노라 떠벌리고 있다. 흥, 점입가경이다! 어쨌든, 오늘의 상황은, 아니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이 스스로 단 탐라나 모라 같은 자랑스러운 명찰은 제쳐놓고 남이 달아 준 제주라는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명찰을 가슴에 버젓이 단 채 대한민국이란 배에 편승해 있다는 것이다. 아, 이 땅은 언제쯤 패배감 · 좌절감 · 굴욕감 등의 상징인 이 굴욕적인 명찰을 떼어 버리고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의 상징인 본명을 달 수 있을까? 생각건대, 이름이란 무엇인가?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의 표상일까? 그래서 지난날 일제는 조선 땅에서 창씨개명을 실시하고, 또 조선을 이조라 칭한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국명을 남쪽은 대한제국(곧, 삼한)에 뿌리 둔 대한민국으로, 북쪽은 조선(곧, 고조선)에 뿌리 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한 것일까? 내친김에 말하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구성원 전체의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을, 나아가서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3개의 뿌리(곧, 탐라 · 삼한 · 고조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내처 말하면, 요즘 군사기지이니 국제자

유도시이니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삼라만상은 회귀하게 마련이라는데, 그것들 청사진에는 이 땅의 기점(예: 모흥 정신)과 궤적(예: 탐라후예의 염원인 이어도)이 반영되어 있을까? 아, 이어도를 그리며 빌레왓 어욱처럼 억척같이 살아온 탐라인들의 이 땅은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세계화란 미명하에 전혀 엉뚱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땅의 기점도 궤적도 망각한 채, 아니 외면한 채, 아니 "육짓놈 왐저 ᄒᆞ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쳣주!"란 속담 속 그 육짓놈들이 지난 천여 년 간 했듯이 아주 무시한 채 말이다. 언제였던가? 충무가 통영으로 복귀했다. 아니, 흡수 통합되었다. 아무튼,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 변화 · 발전 · 개선 · 진보 등을 진정 바란다면 그릇된 것은 과감히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래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 했것다. 통영시의 미래가 찬란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참, 탐진도 강진으로 개명했다. 탐라(곧, 탐라인 집단 거주지)란 색채를 털어 버리려고 말이다. 이런 판국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라는 위僞 명찰을 버젓이 단 채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를 근거로 흉물스러운 위신 설문대할망 신화관을 21세기에 건립해 놓았으니 정말이지 가관이다. 그래, '위대한' 그리고 '더 큰' 구제해야 할 고을 제주여!

<모라毛羅(→毛羅), 乇羅; 탁라托羅, 乇`羅, 乇羅>

탐라 국명으로 거론되는 온 것은 얼추 이십여 가지이다. 그런데 그것들 대부분은 논거가 불분명하다. 이는 탐라국이 망국이라서 역사가 유기되고 왜곡되고 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이십여 가지 중 다섯 가지, 즉 사서나 읍지 따위에 등장하면서 논거가 분명해 보이는 것들을 일단 살펴본다. 毛 관련 국명인 모라[毛羅(→毛羅), 乇羅]와 탁라(托羅, 乇`羅, 乇羅)가 그것들이다.

❶ 海東安弘記云九韓者一日本……四乇羅……[해동 안홍의 기록은 운운한다. "9한은 일 일본 …… 사 모라 ……"라고.] -『삼국유사』 권제1 마한

❷ 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中略) 第一層日本……第四層托羅……[해동 명현 안홍이 펴낸 『동도성립기』는 운운한다. "(중략: 신라 제27대에 여왕이 즉위했는데 도道는 있어도 위엄이 없어 구한이 침범하니 용궁남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인국 침해를 누를 수 있으리라) 제1층은 일본 …… 제4층은 탁라 ……"라고] -『삼국유사』 권3 황룡사9층탑

❸ 至十五代孫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泊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稱長子曰星主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 王令淸出胯下愛如己子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盖以來始初泊耽津故也 (中略) 各賜寶蓋衣帶遣之 (中略) 鎭山漢拏在縣南 一曰頭無岳又云圓山其嶺有大池 又有楸子島 凡往耽羅者 …… 至楸子島 …… 過斜鼠島大小火脫島 …… 至于涯月浦朝天館 (中略) 肅宗十年改乇`羅爲耽羅郡[(고을나) 15대 후손에 이르러 고후 · 고청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에 정박했다. 대개 신라가 융성한 때였다. 그때 객성이 남쪽 하늘에 나타났다. 태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이국인이 와서 내조할 상입니다." (고후 등이) 신라 조정에 이르렀다. 왕은 기뻐하며 후를 일러 성주라 하였다. 이는 그 움직이는 별의 상 때문이었다. 청은 왕자라 했다. 신라왕은 청에게 샅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처럼 사랑하여 왕자라 불렀다. 계는 도내라 했다. 읍호를 탐라라고 했다. 대개 처음으로 와서 탐진에 배를 대고 (신라에 내조한) 때문이다. (중략) 각각 보개와 의대를 주어 보냈다. (중략: 이로부터 자손이 번성蕃盛하여 공손히 국가를 섬기니 고高로 성주星主를 삼고 량良으로 왕자를 삼고 부夫로 도상徒上을 삼았다. 뒤에 량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 또 『삼국유사』에 해동안홍기海東安弘記를 실어 구한九韓을 열거하니 탁라乇`羅가 네 번째에 있다.) 진산 한라는 탐라현耽羅縣 남쪽에 있다. 일설은 두무악이라 하고 혹은 원산이라고도 한다. 그 봉우리에 큰 못이 있다. 또 추자도가 있다. 무릇 탐라에 가는 자는 …… 추자도에 이르러 …… 사서도 · 대소한탈도를 지나 …… 애월포의 조천관에 다다른다. (중략) 숙종 10년에 탁라를 고쳐 탐라군으로 하였다.] -『고려사』 권57, 지권제11 지리2 탐라현

❹ 十五代孫高厚高淸兄弟三人造舟渡海泊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及厚等至 王嘉之 稱厚曰星主以其動星象也 令淸出胯下愛如己子稱曰王子又號其 季曰徒內 邑號曰耽羅盖以來始初泊耽津故也[(고을나) 15대 손 고후 · 고청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에 정박했다. 대개 신라가 융성한 때였다. 그때 객성이 남쪽 하늘에 나타났다. 태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이국인이 와서 내조할 상입니다." 고후 등이 이르자 왕은 기뻐했다. 후를 일러 성주라 하였으니 그 움직이는 별의 상 때문이었다. 청에게는 샅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처럼 사랑하여 왕자라 칭하고 또 그렇게 불렀다. 계는 도내라 했다. 읍호를 탐라라 했으니 대개 처음으로 와서 탐진에 배를 대고 (신라에 내조한) 때문이다.] -『耽羅志』 고적

❺ 本九韓之一 或稱乇羅(安弘記列九韓乇羅居四) 或稱耽羅 或稱耽牟羅[본래

**아홉 한 중 하나**로 혹은 **탁라**(안홍은 아홉 한을 열거하여 기록하면서 탁라를 네 번째에 위치시켰음) 혹은 탐라 혹은 **탐모라**라 한다.] -『耽羅志』 제주건치연혁

❻ 耽羅 毛羅 耽牟羅 **東瀛洲**[탐라, 탁라, 탐모라, **동영주**] -『耽羅志』, 읍명

❼ **毛字乙上加三**[**글자 毛는 乙 위에 三을 가하여**] -『耽羅紀年』, 김석익, 1918

❽ 共與立石射矢卜地 仰觀**七星圖** 吩都三徒里 國號**耒羅** (中略) 按**毛興穴毛字 本耒字音三釋義三乙** 同一貫 (後略)[(삼을나는) 함께 돌을 세우고 활을 쏘아 살 자리를 택하고, **칠성도**를 우러러보아 (그 형국에 따라) 도읍을 세 개의 도리로 나누고 국호를 **모라**라 했다. (중략) **모흥혈**에서의 **毛자는 본디 耒라는 글자로 음音은 삼三, 뜻은 삼을**三乙인데 가지런히 하나로 꿰어 (후략)] -『耽羅星主遺事』, 고씨종문회총본부, 1979

[화소話素 관련 설명]

**乇羅(모라)**에서의 乇는 한자 육서 중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로 '二+乙(乚)+•'이다. 물론 여기서의 二는 3자(곧, 삼을나) 공동왕권에서의 왕(왕자 포함) 직책을 맡은 고씨와 량씨를, 乙은 을나乙那(곧, 임금)를, 그리고 •은 3자 공동왕권에서 밀려나 신하 직책을 맡은 부씨를 뜻한다. 한편, 乇羅에서의 羅는 땅(곧, 나라)을 뜻한다. 그러고 보면, 乇羅는 '고씨와 양씨가 왕 직책을 맡고 부씨가 신하 직책을 맡은 나라'인 셈이다. 부언하면, 여기서의 •은 한자부수 점주點丶가 아니라 그냥 점點이고, 乇는 탐라에서만 쓰인 탐라인 조어造語이다.

**托羅(탁라)**에서의 托은 '扌(手)+乇'이다. 물론 여기서의 扌(손수 또는 재방변)은 한자부수이다. 하지만 乇은 한자부수도 아니고 단독으로 쓰이지도 않는 자형이다(이는 후술할 乇羅 참조).

**新羅盛時[신라가 융성한 때]**란 말은 탐진(곧, 동음冬音)이 백제 멸망 이후 신라 경덕왕에 의해 개칭된 것)이란 지명과 함께 등장했으니 아마도 신라 제35대 경덕왕(재위: 742-765년) 연간을 지칭한 말일 것이다.

**王嘉之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 王令淸出胯下愛如己子故名之 季子曰都內[왕은 기뻐하며 장자를 일러 성주라 하였다. 이는 그 움직이는 별의 상 때문이었다. 이자는 왕자라 했다. 신라왕은 청에게 샅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들처럼 사랑하여 왕자라 불렀다. 계자는 도내라 했다.]**는 사실과 설화(곧, 꿈이 투영된 이야기)가 혼재된 진술일 것이다. 星主는 실은 신라왕이 하사한 관직이 아니니까(이는 후술할 <성주星主> 참조). / 季子는 막내아들이란 뜻으로 그의 이름은 잉孕이다.

**邑號曰耽羅 盖以來始初泊耽津故也[읍호를 탐라라 했다. 대개 처음으로 와서 탐진에 배를 대고 (신라에 내조한) 때문이다.]**는 사실일 리 없다. 탐라란 말이 탐진이란 말보다 먼저 쓰였으니까.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한반도 설화(곧, 신라인의 꿈)의 소산인 셈이다.

**鎭山漢拏(진산 한라)**는 관官 · 민간 등지에서 한라산을 지난날 한때 신앙대상인 진산(곧, 제주를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여겼음을 말해주는 것이다(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過斜鼠島大小火脫島[사서도 · 대소화탈도를 지나]**. 탐라후예들은 여기서의 斜鼠는 사수蛇首로, 火脫은 관탈冠脫로 부른다. 그런데 斜鼠와 蛇首, 그리고 火脫과 冠脫은 양자들 간 의미의 차이가 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아마도 탐라국이 망국이어서일 것이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한국의 사서史書들은 탐라역사에 관한 한 어쩌면 사서詐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품게 된다. / 내친김에 말하면, 사수도와 관탈섬은 파랑도波浪島(곧, 이어도)와 더불어 탐라후예에게는 바라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하기만 해도 마냥 서러운 대상들이자, 나아가서 비운의 탐라역사를 적나라하게 상기시켜 주는 매개체들(곧, 증거물)이다. 내처 말하면, 사수도는 탐라 민중이 외세(곧, 소위 육짓놈들) 핍박에 대항하여 일전을 벌인 격전지이다(이는 후슬힐 <김녕 뱀굴> 참조). 그리고 관탈섬은 탐라가 영락에 영락을 거듭하여 급기야 천형天刑의 적소謫所에 이르도록 영락했음을 알려 주는 상징적 장소로 다음과 같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날 적객謫客들은 한반도 모처에서는 자신들을 실은 배가 남해안의 섬들 사이를 요리조리 순항할 때만 해도 언젠간 기필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귀향하리란 꿈을 꾸며 의관衣冠을 의연히 매만졌다. 하지만 당시 저승길이라 불린 오늘날의 제주해협을 항해하노라면 삼킬 듯이 일렁이는 너울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집채 같은 파랑과 뱃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물보라를 가득 머금고 광란하는 바람 탓에 한 장의 낙엽 같은 배는 하늘로만 솟아오르려 하고, 그러면 적객들은 치솟는 뱃멀미에다 난파에 대한 두려움마저 겹쳐 그만 뱃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가며 귀향의 꿈도 고향의 식솔도 의관도 다 내팽개쳐 둔 채 그저 이 한 목숨만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어댔다. 그러다 보면, 수평선 너머로 한라산이 보이고, 이어서 관탈섬도 보였다. 그리고 뱃멀미도 바다도 배도 가면

갈수록 항해 처음의 다도해多島海에서처럼 가라앉아 갔다. 그런데 아무리 처음처럼 의관을 매만지며 귀향의 꿈을 꾸려 해도 웬일인지 그 꿈은 뱃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보라처럼 산산이 흩어지기만 했다. 그러다가, 배가 관탈섬 곁을 지나 저승 대문이라 불린 산저포를 시야에 둘 무렵이면 어쩌면 방금 건너온 저 저승길을 다시는 무사히 건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두려움 탓에 하릴없이, 방금 고쳐 쓴 찌그러진 자신의 관冠을 자기 손으로 벗어, 아니 벗겨(脫) 들고서 고개를 떨어뜨리며 일단 귀향의 꿈을 접었다." 생각건대, 한갓 무인도 이름을 짓는 데에 이만한 정도의 사연들이면 흡족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사연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사서를 탐라후예 입장에서 어찌 사서다운 사서라 할 수가 있겠는가?

**至于涯月浦朝天館[애월포의 조천관에 다다른다]**는 황당한 기사記事이다. 조천관은 애월포가 아니라 조천포朝天浦에 있었을 테니까.

**肅宗十年改乇`羅爲耽羅郡[숙종 10년 탁라를 고쳐 탐라군으로 하였다]**은 탐라국이 몰락했다는 말이다. 각설하고, 여기서의 乇`羅(탁라)는 乇羅(모라)의 와전이다. 물론 乇`(←'乇+丶')에서의 丶(점주)는 한자부수이고, 그리고 乇(←'乇+•')에서의 •은 한자부수가 아니다.

**九韓之一(아홉 한 중 하나)** 설명은 후술할 <구한지일>로 미룬다.

**乇羅(탁라)**에서의 乇은 한자부수도 아니고 단독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다만, 십여 개의 변邊이나 엄호(广) · 병질엄(疒) · 갓머리(宀) 등과 함께 쓰일 뿐이다. 이는 자전이 입증한다[예: 咤, 吒, 垞, 妦, 秅, 詫(이상: 타) / 扡, 託, 恗, 侂, 砣, 駄, 魠, 駝(이상: 탁) / 柝, 烗(이상: 택) / 宅(택 또는 댁) / 宊(투)]. 그러고 보면, 乇을 '탁'으로 발음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중국어에서도 乇의 발음은 '퉈'(한어병음자모 tuo¹)이다. 참, 컴퓨터 자판에서 '탁'을 치고 한자 변환키를 누르면 모니터에 한자 50개(곧, 託 · 卓 · 乇 등)가 뜨는데 그중 乇은 오류, 즉 왜곡이다. 부언하면, 국어학자 현평효는 乇羅에서의 乇을 '닥'의 음차로, 그리고 그 뜻은 '높은'으로 보았다. 한편, 사학자들은 耽羅는 『해동역사』에 의거하여 섬나라라 단언하면서도 『해동역사』가 언급하지 않은 乇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다.

**耽牟羅(탐모라)** 설명은 후술할 <탐모라>로 미룬다.

**東瀛洲(동영주)** 설명은 후술할 <동영주>로 미룬다.

**毛字乙上加三[글자 毛는 乙 위에 三을 가하여]**에 의하면, 毛는 '乙+

三'(곧, '三+乙')이다. 물론 여기서의 '三+乙'(곧, 三乙)의 뜻은 '셋(곧, 삼을나)이 하나가 되다'이다. 三은 삼을나를, 그리고 乙은 하나(또는 시작 · 처음 · 으뜸 · 개혁 · 변혁 등)를 뜻하니까.

**七星圖(칠성도)** 말뜻은 북두칠성 도형(곧, 형국)이다. 그런데 칠성도는 지난날 탐라에서는 북두칠성 형국을 본떠 축조한 일곱 기基의 사직단社稷壇(곧, 속칭 칠성단七星壇 또는 칠성대七星臺)에 대한 지칭으로 쓰였다. 내친김에 말하면, 사직단은 고대 중국 및 동북아에서 나라를 세울 때 임금이 사社(곧, 토신土神)와 직稷(곧, 곡신穀神)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쌓던 단壇이다. 신라에서는 선덕왕 4년(783)에, 고구려에서는 고국양왕 연간에, 고려에서는 성종 연간에, 그리고 조선에서는 태조 연간에 각각 축조되었다. 그럼, 탐라에서는? 후술할 <칠성골> 또는 <서불; 서복>에 의거하면, 서불徐芾의 내도來島가 계기가 되어 모라毛羅(곧, 탐라국)가 창건되면서 동시에 축조되었을 것이다.

**毛羅(모라)**에서의 毛는 한자 육서 중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로 '三+乙(乚)'이다. 물론 여기서의 三은 고씨 · 량씨 · 부씨를, 그리고 乙은 하나(또는 시작 · 처음 · 으뜸 · 개혁 · 변혁 등)를 뜻한다. 한편, 毛羅에서의 羅는 땅(곧, 나라)을 뜻한다. 그러고 보면, 毛羅는 삼을나三乙那, 즉 고을나 · 량을나 · 부을나가 하나 되어 창업한 나라인 셈이다. 이는 탐라건국 당시 국호는 탐라眈羅(또는 耽羅)가 아니라 毛羅(→毛羅)였다는 말이다. (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毛興穴(모흥혈)**은 작금의 삼성혈三姓穴 원명原名으로 여기서의 毛는 毛羅(←毛羅)에서의 毛(←毛)이다. 그러고 보면, 毛興穴 말뜻은 삼을나가 (건국하고자) 하나 되어 흥기興起한 굴窟(곧, 이른바 숨굴)인 셈이다. (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毛字 本毛字音三釋義三乙[毛자는 본디 毛라는 글자로 음音은 삼三, 뜻은 삼을三乙]**. 여기서의 毛는 본디 자형이 언급된 대로 毛였을 것이다. 毛는 毛의 후신이니까. 그리고 그 뜻도 언급된 대로 삼을三乙(곧, 三+乙), 즉 '셋이 하나가 되다'였을 것이다. 三은 삼을나이고, 乙은 태을太乙(곧, 태일太一)로 하나(또는 처음 · 시작 · 으뜸 · 개혁 등)일 테니까. 하지만 그 발음은 언급된 바와는 달리 삼sam이 아니라 모mo였을 것이다. 毛의 전신은 毛이고, 그리고 毛의 발음은 mo였을 테니까.

참, 중국어 毛의 발음도 máo(한어병음자모)이고, 그리고 일본어 モ/も(가타카나/히라가나)의 발음도 mo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인용문들(곧, ❶ ~ 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미리 언급해 둘 것들이 있다. 첫째, 어떤 인용문(위 ❸ · ❹)에는 고후 3형제가 각각 성주 · 왕자 · 도내都內(또는 徒內) 직책을, 어떤 인용문(위 ❸)에는 고씨 · 량씨 · 부씨가 각각 성주 · 왕자 · 도상徒上 직책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곧, 고후 3형제 관련 기사記事)는 사실史實일 리 없다. 그것은 한낱 신라인의 꿈에 불과한 것일 테니까. 그렇다면, 후자는 사실일 것이다. 참, 부씨가 도상(곧, 신하臣下)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씨가 삼을나 공동왕권에서 축출되었다는 말이다. 둘째,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안홍安弘)는 말한다. 乇`羅(탁라)가 '9한韓 중 하나'라고. 물론 안홍이 乇`羅(←乇羅)를 언급한 것은 乇羅(모라)가 늦어도 안홍 시절에는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안홍은 신라 제26대 진평왕(재위: 579-632년) 시절의 승려이다. 셋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91년)는 『李元鎭耽羅志解題』를 출간하면서 그 첫머리에다 읍지로서의 『耽羅志』(이원진, 1653년)의 중요성이나 영향력 따위를 부각시키고자 다음의 글을 첨부해 놓았다. "(전략) 16세기 이후에 편찬한 濟州島 관계 邑誌로는 이원진의 耽羅志를 그 효시로 들 수 있다. 효종 4년(1653)에 간행된 私撰 읍지인 耽羅志는 현전하는 최초의 읍지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세하고 정확하여 제주도의 제반 사정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편찬되는 읍지들은 官· 私撰을 불문하고 이것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는 『耽羅志』가 탐라 과거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窓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일 이 읍지(곧, 읍邑의 역사 · 지리 · 풍속 등을 기록한 책)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역으로 탐라의 역사 · 지리 · 풍속 등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말일 수도 있다. 넷째, 『삼국유사(1285)』는 『고려사(1451)』보다 166년 전에, 그리고 『고려사』는 『탐라지(1653)』보다 202년 전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고려사』는 『삼국유사』 등을, 그리고 『탐라지』

는 『고려사』·『삼국유사』 등을 참고하여 편찬되었을 것이다.

Ⅱ. 위 ❶에 의하면 毛羅는 『삼국유사』(마한)에, 위 ❷에 의하면 托羅는 『삼국유사』(황룡사9층탑)에, 위 ❸에 의하면 毛`羅는 『고려사』에, 그리고 위 ❺·❻에 의하면 毛羅는 『탐라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는 편찬연도가 가장 이른 『삼국유사』의 毛羅(모라) 또는 托羅(탁라)가 원형이고, 여타(곧, 毛`羅·毛羅)는 변형이라는 말이다. 그럼, 毛羅·托羅 중 어느 쪽이 진짜 원형일까? 그것은 毛羅일 것이다. 그것들 전신前身이 毛羅(←毛羅)일 테니까. 게다가, 후대後代의 『고려사』에 毛羅와 닮은꼴인 毛`羅가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毛는 '三+乙(乚)→ 毛(→ 毛)→ 毛'라는 변천 과정 속의 것인 셈이다. 한편, 毛의 발음은? 그것은 'mo'일 것이다. 毛가 그 전신일 테니까. 참고삼아 말하면, 중국어 毛의 발음은 máo(한어병음자모)이고, 그리고 일본어 モ/も(가타카나/히라가나)의 발음은 mo이다.

Ⅲ. 생각건대, 『삼국유사』 편자 일연一然은 처음(위 ❶)에는 탐라에서 구전되는 毛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다음(위 ❷)에는 자신으로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毛 대신 托을 사용했을 것이다. 毛는 탐라에서 만들어지고 탐라에서만 쓰인 글자라 탐라인 아닌 그에게는 낯설었을 것이고 그 발음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아니, 毛는 섬 오랑캐들의 그릇된 글자라 여겨져서 바로잡고 싶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는 왜 하필이면 托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그에게는 친소 관계에서 탐라에서의 '탐'이 '毛(←毛)을 방旁 등으로 지닌 글자들' 중 여타 글자들(예: 타吒·택宅·투秃)보다 '탁'과 더 가깝게 여겨져서, 게다가 耽羅·眈羅에서의 '탐'의 변 '耳'(귀)·'目'(눈)이 '탁'의 여타 한자들(예: 託·悅·砣·駝)에서의 변 '言'(말)·'忄'(마음)·'石'(돌)·'馬'(말)'보다 托의 변 '扌'[손(手)]과 더 가깝게 여겨져서가 아니었을까? 억측일까? / 한편, 『고려사』 편자들은 『삼국유사』의 毛羅와 托羅 중 毛羅에 주목했다. 托羅보다 毛羅가 毛羅와 더 닮았으니까. 그런데 자신들 딴에는 섬 오랑캐의 그릇된 글자를 수정한답시고 毛를 毛`으로, 즉 毛에서의 •을 한자부수인 丶(점주)로 바꾸어 놓았다. 물론 이런 터무니없는 수정이나마 가능했던 것은 『고려사』 편찬 작업이 탐라에서의 성주제도 폐지(1402년) 이전에 시작된(태조 원년, 1392

년) 덕분일 것이다. 乇와 같은 탐라역사는 성주제도 폐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사장되고 유기되고 왜곡되고 망각되었을 테니까. 이로써, 신조어 乇`이 생겨났다. 그리고 乇`은 『삼국유사』의 托羅를 따라 '탁'으로 읽혔다. 乇`은 자전에 없는 자형이고, 托은 자전에 있는 자형이니까. / 다른 한편, 『고려사』 편찬에서 202년이 흐른 다음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진은 『삼국유사』·『고려사』 등을 참고하여 『탐라지』를 편찬하다가 乇 · 托 · 乇` 등과 마주치자 그것들의 공통 부분 乇만 남기고 거추장스러운 • · 扌 · 丶 등은 삭제해 버렸다. 이로써, 또 다른 신조어 乇이 생겨났다. 그리고 乇은 『삼국유사』의 托羅와 『고려사』의 乇`羅를 따라 '탁'으로 읽혔다.

Ⅳ. 위 ❼ · ❽에 의하면, 乇(→ 毛)는 '三(고을나, 량을나, 부을나)+乙(乚)'이다. 이는 乇가 삼을나 공동왕권의 상징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乇는 훗날 2자 공동왕권의 상징인 乇[二(고씨, 양씨)+乚+•(부씨)]로 변질된다. 위 ❸(곧, 『고려사』)에 의하면, 고씨가 왕(또는 성주) 직책을, 양씨가 왕자 직책을, 그리고 부씨가 왕권에서 축출되어 도상(곧, 신하) 직책을 맡았다고 하니까. 여하튼, 乇는 언제쯤 출현하였을까? 아마도 그 상한선은 서불徐芾이 도래渡來한 기원전 220년 직후였을 것이다. 서불 도래로 3자(곧, 고을나 · 량을나 · 부을나) 공동왕권의 탐라국, 즉 모라乇羅가 태동했을 테니까(이는 후술할 <서불; 서복> 참조). 그리고 그 하한선은 늦어도 300년경이었을 것이다. 위 ❸(또는 ❹)에 의하면, 고을나高乙那 15대 후손 고후가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년)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 경덕왕 연간에서 15대를 역산逆算해 보면 모라건국은 300년경 이전의 일일 테니까. 참, 오늘날 학계에서는 탐라(곧, 모라) 건국을 70년경으로 본다. 그럼, 毛(←乇)의 乇로의 변천은 언제쯤 일어났을까? 그것은 신라 제26대 진평왕(재위: 579-632년) 연간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진평왕 연간의 승려 안홍이 편찬한 『동도성립기』에 乇`羅(←乇羅)가 등장하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毛羅가 乇羅로 바뀌고 왕이니 왕자니 신하니 하는 직책들(곧,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3자 공동왕권에서의 용어 을나乙那는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말았을 것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삼을나 공동왕권에서의 부씨 축출은 액면 그대로의 비정

한 축출은 아닌 듯하다. 즉, 양자 타협(곧,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고씨 · 양씨의 배려와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씨의 수용)으로 이루어진 일인 듯하다. 부씨가 신하 직책을 맡은 것을 보면 말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출인 것만은 분명하다.

Ⅴ. 위 ❸ · ❹에 의하면, 季가 都內(도내) 또는 徒內(도내)를, 夫氏가 徒上(도상)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전자(곧, 季 관련 기사)는 사실일 리 없다. 그것은 설화(곧, 꿈의 소산)일 테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후자(곧, 부씨 관련 기사)는 사실일 것이다. 毛의 후신 乇가 있으니까. / 한편, 위 ❸(『고려사』) 앞부분에서는 季가 都內를, 그 뒷부분에서는 夫氏가 徒上을 맡은 것으로, 그리고 위 ❹(『탐라지』)에서는 季가 徒內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맨 앞쪽(곧,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都內에서의 都가 뒤쪽에서는 徒로 변질되어 있는 셈이다. 아니, 왜 都가 徒(뜻: 섬 오랑캐 무리의 본거지)로 변질되어 있을까? 그것은 한반도 인사들(예: 『고려사』 · 『탐라지』 편자들)이 종속국 탐라 도읍을 종주국 고려 · 조선 도읍 都와 차별화하여 격하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물론 都內는 탐라도읍 一都 · 二都 · 三都의 내신內臣이라는 말이고, 徒內는 탐라도읍 一徒 · 二徒 · 三徒의 내신이라는 말일 것이다. 내신은 왕조 때 대궐에서 임금을 가까이서 받드는 신하를 이르던 관명官名이다. 한편, 도상徒上은 왕이나 왕자 직책 밑에서 탐라도읍 一徒 · 二徒 · 三徒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상신上臣, 즉 상대등上大等이라는 말일 것이다. 상대등은 신라 때의 최고 벼슬아치를 이르던 관명이다.

Ⅵ. 위 ❸ · ❹에 의하면, 고후 일행은 탐진을 경유하여 신라왕실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날 탐라가 탐진을 거점 삼아 한반도와 통상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탐라는 언제쯤 탐진에 진출했을까? 그것은 하한선이 476년(백제 문주왕 2)일 것이다. 『삼국사기』에 탐라와 백제가 476년 교류한 기록이 있으니까(이는 후술할 <탐라의 백제 조공설> 참조). 여하튼, 고후 일행은 예의 그 통상과정에서 한반도 통치체제(곧, 무력에 의한 군주정체)를 목격했을 것이다. 생각건대, 바로 이 목격이 '을나乙那란 용어의 상실'(또는 '毛의 乇로의 변동')을 유발시키

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탐라에서의 '모흥毛興 정신'(이는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상실에는 한반도 통치체제(곧, 검劍에 의한 무력통치)가 모종의 역할을 한 셈이다. 물론 권력 지향적인 인간 욕망도 모흥정신 상실에 일익을 담당했겠지만 말이다.

Ⅶ. 乇와 毛`은 자전에 없는 자형으로 전자는 탐라인 조어이고 후자는 한반도인 오기誤記이다. 그리고 乇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꼭 변邊 등과 함께 쓰이는 자형이다. / 각설하고, 모라[乇羅(→毛羅), 乇羅]는 사실이다. 한편, 탁라(托羅, 乇`羅, 乇羅)는 와전이다.

<탐모라耽牟羅; 耽毛羅>

耽牟羅는 중국인들이 자신들 필요에 따라 고안하여 자신들 사서史書에 쓴 조어이다. 물론 이는 훗날 한반도인들에게도 수용된다. 한편, 耽毛羅는 한반도인들이 耽牟羅를 '耽羅+毛羅'로 오인하여 쓴 조어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耽毛羅란 말은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❶ 平陳之歲 戰船漂至海東 **<u>躭牟羅國</u>**[진나라가 평정되던 해에 전선戰船이 표류하여 바다 동쪽 **<u>탐라국</u>**에 닿았다] -『北史』百濟

❷ 平陳之歲 有一戰船漂至海東 **<u>聃牟羅國</u>**[진나라가 평정되던 해에 전선이 표류하여 바다 동쪽 **<u>담라국</u>**에 닿은 적이 한 번 있다] -『隋書』**<u>東夷</u>** 百濟

❸ **<u>龍朔</u>**初 有**<u>儋羅</u>**者…[**<u>용삭</u>**초에 **<u>탐라</u>**가 있어…] -『新唐書』東夷 **<u>流鬼</u>**

[화소話素 관련 설명]

**<u>躭牟羅國(탐라국)</u>**에서는 한자 '躭牟'와 한글 '탐'이 대응되고 있다. 물론 躭(탐)은 정자正字 耽(탐)의 속자俗字이다.

**<u>聃牟羅國(담라국)</u>**에서는 한자 '聃牟'와 한글 '담'이 대응되고 있다. 물론 聃(담)은 정자 冉(담)의 속자이다.

**<u>東夷(동이)</u>**로는 위 ❸에서의 유귀流鬼 외에도 한국 · 일본 · 만주 일대 등지가 지난날 거론되었다. 내친김에 말하면, 중국 고대문명은 황하 중·하류, 즉 지금의 하남성 일대에서 개화했으므로 이곳을 중

화中華 또는 중국이라 부른 반면, 그 주변 사방 종족들을 이夷 · 융戎 · 만蠻 · 적狄 등으로 불러 멸시했다. 그러다, 전국戰國시대 말에서 한대漢代에 이르는 동안 그 사방 종족은 동이東夷 · 서융西戎 · 남만南蠻 · 북적北狄이란 호칭으로 고착화되었다.

**龍朔(용삭)**은 당唐나라 고종(재위: 649-684)의 연호(661-663)이다.

**儋羅(탐라)**에서는 한자 '儋(담)'과 한글 '탐'이 대응되고 있다. 이는 儋(담)이 耽(탐) 대신 쓰인 예例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중국어에서는 위 ❶에서의 躭(곧, 耽), 위 ❷에서의 聃(곧, 聃), 위 ❸에서의 儋 등이 모두 하나같이 동일한 글자로 취급된다. 물론 그것들의 중국어 발음도 모두 하나같이 '단'[dān(한어병음자모)], 아니 '단+ㅁ'(dān+m)로 동일하다(이는 곧 재론함).

**流鬼(유귀)**는 오늘날의 사할린 섬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북사北史』는 중국 이십오사二十五史의 하나로 당나라의 이연수가 북조北朝의 위魏에서 수隋에 이르는 233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수서隋書』는 중국 이십오사의 하나로 당나라의 위징이 태종의 칙령을 받들어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신당서新唐書』는 중국 이십오사의 하나로 송나라 때에 구양수 · 송기 등이 『구당서舊唐書』에서 누락된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편찬한 것이다. / 한편, 위 ❶ · ❷에 등장하는 진陳나라는 수隋나라에 병합된 남조南朝 마지막 나라(557-589)이다.

Ⅱ. 중국인들은 한자어 耽羅를 중국어 발음상의 특성 때문에 '탐라'로 발음할 수가 없어서 '단므라'로 발음한다. 이 단므라가 곧 耽牟羅이다. 그러고 보면, 耽牟羅는 한낱 耽羅의 중국어식 표기, 즉 조어造語에 불과한 것인 셈이다. 이는 한글 '탐모라'는 탐라역사 왜곡(곧, 필히 청산해야 할 오류)이라는 말이다.

Ⅲ. 중국어 음절은 '성모聲母+운모韻母'로 구성되는데 음절 첫 음소가 성모(이는 한글 초성에 해당됨)이고, 여타 음소가 운모(이는 한글 중성 · 종성에 해당됨)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음절인 한어병음자모 dān에서 'd'는 성모이고, 그리고 나머지 'ān'은 운모이다. 따라서 이때

의 ān은 두 음소 'ā+n'이 아니라 한 음소(곧, 기본운모 중 부성운모) 'ān/ㄢˉ'(한어병음자모/주음부호)이다. 한편, 중국어 운모에는 ān은 있지만 ām은 없다. 그러니, 중국어에서 ām을 발음하려면, ām에 가장 가까운 ān을 발음함과 동시에 'm'(곧, 한글 'ㅁ')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바로 이 'ㅁ'[곧, 'm/ㄇ'(한어병음자모/주음부호)]의 일례一例가 耽牟羅[dānmóuluó/ㄉㄢˉㄇㄡˊㄌㄨㄛˊ]에서의 牟[móu/ㄇㄡˊ]이다. 물론 이때의 牟는 음절 전체(곧, móu/ㄇㄡˊ)가 아니라 성모聲母(곧, m/ㄇ)에 한한다. 이상以上이 중국어에서 한자어 耽羅를 耽牟羅(발음: 단므라)로 발음하는 논거이다. 그러고 보면, 耽牟羅는 탐라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용어가 아닌 셈이다. 마치 영어 korea가 한국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용어가 아니듯이. / 참고삼아 말하면. 여기서의 牟는 哞로 대치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둘 다 '소 울음소리'란 뜻의 의성자擬聲字이니까. 하지만 동일한 글자는 아니다. 성조聲調가 다르니까. 즉, 전자(ㄇㄡˊ/móu)는 4성四聲 중 제2성인 고승조高升調(처음에는 중간 높이로 시작하지만 끝은 높게 발음함)이고, 후자(ㄇㄡˉ/mōu)는 4성 중 제1성인 고평조高平調(처음부터 끝까지 높게 발음함)이니까.

Ⅳ. 현평효(1955)는 耽牟羅에서의 耽牟를 '담'의 음차로 보고, 그 뜻은 '높은'(高)으로 구명하였다. 그러고 보면, 현평효는 耽牟가 단음절어임을 밝힌 최초 인물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김태능(1964)은 耽牟羅를 耽羅의 원형으로 보면서 "탐라 중심지(一徒 · 二徒 · 三徒)는 돌로 담을 둘렀기 때문에 이에 연유하여 '담'에 대해서는 '耽'자를, 고을의 뜻인 '모라'에 대해서는 '牟羅'를 차용한 것이니 결국 耽牟羅는 '담을 두른 고을'이란 뜻이다"라 논술했다. 이는 耽牟羅는 '耽牟+羅'가 아니라 '耽+牟羅'란 말이고, 이때의 牟羅는 마을(ᄆᆞ을)의 음차란 말이다.

Ⅴ. 오늘날 耽牟羅(탐라)는 제주에서조차 마치 乇羅가 毛羅로 오인되듯이 耽毛羅(탐모라)로 오인되고 있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오류(곧, 역사왜곡)는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 내선일체內鮮一體 등(곧, 일본이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건 자칭 대동아전쟁 당시 정치구호들)을 한반도 일대에 부식扶植시키기 위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주장을 쫓아 설문대할망(곧, '지난날 외세 핍박에 저항한 탐라민중의 상징')을 모계사회 여신女神으로

의도적으로 둔갑시켜 가며 세금 930억 원을 들여 설문대할망 신화관을 건립하는 또 다른 오류를 저질러 놓았으니, 실로 기막힐 노릇이다. 아, 탐라에서는 언제쯤 자주적이고 참된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체성 찾기가 이루어질까? "ᄌᆞ냥ᄒᆞ라, 큰 양 말앙!" 여하튼, 탐모라耽牟羅(또는 耽毛羅)는 탐라에서는 필히 청산되어야 할 그릇된 유산(곧, 탐라역사 왜곡)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제주의 지명 · 국명 관련 명칭 중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것은 오직 둘, 즉 乇羅(→ 毛羅→ 乁羅)와 眈羅(여기서의 眈은 耽이 아님)뿐이다. 그럼, 이 둘의 생성 순서는? 아마도 거의 동시에 생성되었을 것이다. 즉, 탐라는 모라乇羅건국 직전에, 모라는 모라건국 직후에 쓰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한편, 애초에는 탐라는 지명(곧, '범이 지켜보는 땅')으로, 모라는 국명(곧, '삼을나의 나라')으로 고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라乁羅 몰락 후 모라가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고 나자 탐라는 모라 대신 국명으로도 쓰였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거론되는 탐라국명들은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 위명僞名인 셈이다. 그럼, 그 위명들은 어찌하여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망국 탐라의 역사가 한동안 구전에만 의존하느라 그 지명 · 국명이 시나브로 와전되었고, 그리고 그 와전들이 훗날 사서나 읍지 등에 무분별하게 기록된 때문이었을 것이다.

<탐라眈羅, 耽羅(躭羅); 담라聃羅(聃羅), 儋羅, 擔羅>

❶ 한라산 북녘에 거인(또는 호랑이) 형국 지형이 있다. 백록담, 백골(현 아흔아홉골), 황새왈, 모흥혈, 칠성골, 칠머리 등이 각각 그 거인(또는 호랑이)의 숨골, 심장, 명치, 배꼽, 음부, 팔다리 등에 해당한다. 탐라眈羅란 말은 바로 그 거인(또는 범)이 지켜보는 땅, 나아가서 그 거인의 화신化身이 태어나는 땅(곧, 왕후지지王侯之地)이란 뜻이다. -후술할 <탐라라는 지형>에서

❷ 진나라 시황제 시절이었다. 서불은 불로초를 구해 오라는 진시황의 명을 받들고 이 섬으로 왔다. (중략) 거대한 거인(또는 호랑이) 형국을 한 지형이 한 시야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중략) 서불은 몸에 지니고 있는 『**주역**』을 족장들에게 펼쳐 놓고 (중략) **이괘**頤卦의 '육사六四 전이顚頤 길吉 호시탐탐虎視眈眈 기욕축축其欲逐逐 무구无咎' 부분을 한 자 한 자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그 뜻을 풀이해 주었다. 이어서, 서불은 그 거인에게 시선을 둔 채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다. 저 거인 시선이 마치 호랑이 시선이 탐탐眈眈하듯 탐탐하다고. 그러자 한 족장이 가슴에 새겨 두기라도 하려는 듯 가만가만 곱씹었다. "호시탐탐虎視眈眈. 호시탐탐!" (후략) -후술할 <서불; 서복>에서

❸ 고려왕은 眈羅(뜻: 왕후지지)란 말은 속국 지명으로는 과분하다며 폐하고, 그 대신에 '고려의 구제救濟를 받아야 할 일개 고을[주州]'이란 취지하에 濟州로 개칭했다. -전술한 <제주>에서

❹ **東國方言** 島謂之剡 國渭之羅羅[**동국 방언**은 도島를 섬剡이라 하고, 국國을 나라羅羅라 한다] -『海東繹史』 世紀諸小國 眈羅

❺ 眈涉儋三音 與剡相類 蓋云島國也[탐眈 · 섭涉 · 담儋 세 음은 섬剡과 비슷하니 (탐라 · 섭라 · 담라 등은) 대개 섬나라라 한다] -『海東繹史』 世紀諸小國 眈羅

❻ 이때 탐라국 **후왕厚王**은 신라의 덕화德化가 융성해짐을 듣고 청淸 · **계季**와 함께 **한선제漢宣帝 감로甘露 원년 무진戊辰**에 신라에 입조入朝하였다. **신라왕**은 크게 기뻐하고 후왕에게 **성주벼슬星主爵**을 주었으니 이는 세 형제가 신라에 입조할 때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신라왕은 (중략) 친아들처럼 사랑한다는 뜻으로 청淸에게는 벼슬 왕자직을 주었다. 계季에게는 도내직徒內職을 주었다. (중략) 국호 탐라는 **탐진眈津**과 신라新羅에서 취한 것이다. -『탐라성주유사』 탐라국왕세기 후왕

❼ 前漢 地節 元年 壬子 三月 初一日에 六部의 祖上들이 (중략) 그곳을 찾아가 보니 한 붉은 알(혹은 푸른 큰 알)이 있는데, 말은 사람을 보고 길게 울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 알이 깨고 보니 모양이 端正한 아름다운 童子가 나왔다. 驚異히 여겨 그 아이를 東泉(東泉寺는 詞腦野 北쪽에 있다)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 光彩가 나고, 새와 짐승이 따라 춤추며 天地가 振動하고 日月이 淸明한지라. 因하여 그를 **赫居世**王(아마 鄕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이다)이라 이름 지었다. -『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 **혁거세**왕

❽ **舡津**縣 本百濟**冬音縣** 景德王改名 今因之[탐진현은 본래 백제 **동음현**인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삼국사기』 권제36, 잡지 제5 지리3

[화소話素 관련 설명]

**『주역』 이괘頤卦** 설명은 후술할 <서불; 서복>으로 미룬다.

**東國 方言(동국 방언)**은 여기서는 『해동역사』 편찬 시기인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에 이르는 조선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후왕厚王, 계季**. 후왕(곧, 고후)은 모라 제15대 왕으로 아마도 신라

제35대 경덕왕 연간(742-765년)의 인물일 것이다(이는 전술한 <모라; 탁라> 참조). / 季는 막내라는 뜻이다. 전언에 의하면, 후왕 막내아우의 성명은 고잉高孕이다.

**한선제漢宣帝 감로甘露 원년 무진戊辰**에서의 감로는 전한 제10대 황제인 선제(재위: 기원전 74-49년)의 연호年號들 중 하나(기원전 53년-50년)이다. 고로, 그 원년元年인 무진은 기원전 53년이다.

**신라왕**은 여기서는 신라 제35대 경덕왕일 것이다.

**성주벼슬星主爵** 설명은 후술할 <성주>로 미룬다.

**혁거세赫居世**(재위: 기원전 57년-기원 4년)는 『삼국유사』(위 ❼)에 의하면 전한前漢 지절(기원전 69-66년) 원년(기원전 69년)에 태어났다.

**탐진耽津(躭津)**은 『삼국사기』(위 ❸)의하면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백제 시절 지명 '동음冬音'을 개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명 耽津은 경덕왕 연간에 비로소 생겨났다는 말이다.

**冬音縣(동음현)** 설명은 후술할 <탐진>으로 미룬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탐라 말뜻의 이해를 위해 미리 언급해 둘 것들이 있다. 첫째, 탐라란 말은 처음에는 지명으로 쓰였을 것이다. 국명 대한민국 대신 쓰이는 지명 한반도처럼. 그런데 국명 모라毛羅가 고려에 의해 폐지되고, 이어 모라라는 말이 사람들 뇌리에서 까맣게 잊히게 되자 지명 탐라는 국명 모라의 역할까지 도맡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사서나 읍지 따위에 쓰인 탐라에서의 '탐'에 해당한 한자어는 '躭(耽의 속자) · 耽 · 眈 등'과 '聃(聃의 속자) · 儋 · 擔 등'이다. 그런데 이 양자는 한글 발음이 다르다. 전자는 '탐'이고, 후자는 '담'이니까. 하지만 그것들의 중국어 발음은 'dān(곧, ㄉㄢ)+m'로 같다. 이는 중국어에서는 그것들이 동일어로 취급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예의 그 '耽羅 등'과 '聃羅 등'은 동일어로 취급해도 무방한 셈이다. 셋째, 眈羅에서의 '眈'은 耽羅에서의 '耽'과 뜻이 다르다. 眈은 '눈(目)에 불을 켜고 지켜보다'인데, 耽은 '귀(耳)가 늘어질 정도로 기뻐하며 즐기다'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의 한자어는 본디는 '범(곧, 왕후)이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말 眈羅였는데 점차 의미가 불분명한

말 耽羅로 변질(곧, 와전)되었다. 마치 호시탐탐의 한자어가 본디는(곧, 출전 『주역』 이괘頤卦에서는) '대신大臣이 선정을 베풀기 위해 백성을 돌아보다'라는 호의적 의미의 말 虎視眈眈이었는데, 점차 항간에서 '범(곧, 강자)이 욕망에 사로잡혀 날카로운 눈초리로 먹이(곧, 약자)를 노려보다'라는 적대적 의미의 말 虎視耽耽으로 변질되었듯이.

Ⅱ. 전설(곧, 민중)은 말한다. 탐라의 한자어는 耽羅가 아니라 眈羅라고. 흡사 『주역』 이괘에서의 호시탐탐의 한자어가 虎視耽耽이 아니라 虎視眈眈이듯이. 이는 眈羅 말뜻은 '범(곧, 왕후)이 지켜보는(眈) 땅(羅)', 즉 왕후지지王侯之地라는 말이다. 한편, 국어학자들은 耽羅는 차자표기借字表記라 말하고, 그리고 사학자들은 『해동역사』 기사記事에 의거하여 耽羅는 섬라剡羅(뜻: 섬나라)라는 뜻이라고 단언한다.

Ⅱ.ⅰ. 眈羅 말뜻에 대한 전설(곧, 민중)의 견해: 전설(곧, 위 ❷)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탐라에서의 '탐'은 『주역』 이괘頤卦에 맨 처음 등장한 虎視眈眈 중의 '眈'이라고. 이는 탐라에서의 '탐'은 차자표기가 아니라 본디부터 한자어였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은 한자에 관한 지식이 늦어도 탐라(곧, 모라乇羅)건국 시점 무렵에는 이 땅에 있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럼, 그 근거는? 그것은 탐라국호가 乇(곧, 한자 육서 중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자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면 乇를 국명으로 삼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일일 테니까. 한편, 전설(위 ❶ · ❷ · ❸)에 의하면 眈羅 말뜻은 '범(곧, 왕후)이 지켜보는 땅', 즉 왕후지지이다. 물론 왕후지지란 말 이면에는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이 바로 서 있는 땅이라는 정신이 들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전설은 말한다. 탐라는 왕후지지라고.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설화란 액면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탐라는 왕후지지이다'라는 설화說話를 허무맹랑한 설화屑話(뜻: 자질구레한 이야기) 정도로 폄훼해서도 안 된다. 說話는 민중 삶의 소산(곧, 민중의식의 발로)이니까. 생각건대, 민중 삶은 현실과 꿈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설화는 현실과 꿈의 공동작이라는 말이다. 그럼, 꿈과 현실은 별개일까? 즉, 꿈은 현실이 아닐까? 아니, 꿈도 엄연한 현실이다. 사람은 결국에는 좌절을 야기하고야 마는 현실이 아니라 늘 희망을 고

취시켜 주는 꿈 덕분에 사니까. 그러고 보면, 탐라가 본디 왕후지지란 뜻이었느냐의 여부는 설화(곧, 전설) 입장에서는 지엽적인 문제일 따름인 셈이다. 탐라(곧, 왕후지지) 관련 전설 입장에서 본질적인 것은 전설(곧, 민중의 꿈)이 탐라를 왕후지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왕후지지란 말 이면에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을 확립하려는 정신이 들어 있다는 것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바로 이런 정신이야말로 탐라란 말의 오늘날 존재 이유이고, 나아가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또는 길라잡이)이다. 그런데 탐라민중은 왜 '탐라는 왕후지지이다'라는 전설(곧, 꿈)을 구전시켜 왔을까? 그것은 모라毛羅 몰락(1105년) 이후 외세(곧, 소위 육짓놈들)의 모진 핍박에 시달리느라 항다반사로 좌절해 온 탐라민중이 그런 꿈(곧, 전설)을 꾸지 않고서는 항다반사로 거듭되는 좌절을 딛고 일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참, 탐라후예들은 1970년대 말엽에도 탐라란 말을 막연하게나마 자신들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겼다. / 참고삼아 말하면, 위 ❶에 등장하는 '거인 배꼽인 모흥혈에서 삼을나가 하나 되어 흥기한 점', '그 거인 음부에 해당하는 칠성골을 도읍으로 삼은 점' 등은 풍수지리에 관한 지식이 늦어도 모라건국 시점에는 이 땅에 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풍수지리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면 이런 점들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일일 테니까.

Ⅱ.ⅱ. 耽羅 말뜻에 대한 국어학자들의 견해: 양주동(1942)은 『고려사』 탐라현 조항이 한라산을 두고 칭한 두무산頭無山(이는 『고려사』 탐라현 조항에는 頭無岳으로 되어 있음)과 원산圓山을 공히 '둠+산', 즉 '둥근 산'이라 해독한 후 이에 의거하여 耽羅도 '둠+나', 즉 '둥근 땅'이라고 논술했다. 현평효(1955)는 耽羅에서의 '耽'은 '담'의 음차로 그 뜻은 '높은'이고, '羅'는 '나'(곧, 땅 · 곳)이니 결국 耽羅는 '높은 땅'(또는 '높은 곳')을 뜻한다고 논술했다. 그러고 보면, 현평효는 乇羅 · 耽牟羅 · 耽羅를 다 '높은 땅'(곧, '높은 곳')으로 해독한 셈이다. 최범훈(1980)은 제주의 고명古名으로 耽羅를 위시해서 이표기 20개를 열거하고, 그중 耽羅를 가장 뚜렷한 고형固形으로 보고, 고문헌에서의 지명과 전국분포의 지명들에서 '둠~두무~두미' 등의 어형을 추출해 낸 후, 耽羅에서의 '耽'을 '둠'으로 읽었다. 그리고 耽羅에서

의 '羅'는 영역 · 토지 등을 뜻하는 고구려어 '奴 · 內 · 惱', 만주어 '나', 여진어 '나' 등과 동계어同系語로 보았다. 그런 연후에, 耽羅를 '둠나'라 읽고, 그 뜻은 '둥근 땅'이라 하였다. 그러고 보면, 국어학자들은 한목소리로 '耽羅는 차자표기이다'라 주장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어학자들 주장의 논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耽羅에서의 '耽'을 두고 혹자는 '둥글다'의 차자라 하고, 혹자는 '높다'의 차자라 하니까. 참, 혹자(김태능)는 방언 동사 '다우다'(곧, 명사형 '담')의 차자라 한다. 아니, 왜 논거가 상이할까? 그것은 탐라건국에 본토박이 · 북방계(한반도 포함) · 남방계[중국(예: 서불 일행) 포함] 등이 함께했다는 점을 간과한 때문이 혹여 아닐까?(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이는 지명 탐라는 차자표기가 아니라 탐라언어가 고려어 세력권 아래 놓이기 이전(곧, 탐라건국 무렵)에 예의 그 남방계에 의해 명명된 한자어일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물론 두무악과 원산도 차자표기가 아닐 것이다. 그것들은 탐라언어가 고려어 세력권 아래 놓인 이후에 북방계(곧, 한반도) 출신 관리들에 의해 명명된 한자어들일 테니까. 즉, 두무악은 한라산 정상(곧, 머리)이었던 산방산이 떨어져 나갔다는 데서(이는 후술할 <산방산과 용ᄆᆞ루> 참조), 원산은 탐라 오름 정상들이 한반도 산 정상들처럼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데서 각각 명명된 것들일 테니까.

Ⅱ.ⅲ. 耽羅 말뜻에 대한 사학자들의 견해: 사학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해동역사』 기사(위 ❹ · ❺)에 의거하여 단언한다. 사서나 읍지 등에서 현 제주의 옛 명칭으로 거론된 탐라 · 담라 · 섭라 등의 말뜻은 공히 섬라剡羅(뜻: 섬나라)라고. 그럼, 그 단언의 근거인 위 ❹와 ❺는 참일까? 물론 위 ❹는 참이다. 동국 방언(곧, 『해동역사』 편찬 무렵의 조선어)에서 섬의 한자어는 島이고, 나라(←라라)의 한자어는 國이니까. 하지만 위 ❺는 참일 수 없다. 탐 · 담 · 섭 등이 다 섬과 유사한 자형이니 탐라 · 담라 · 섭라 등은 공히 섬라(곧, 섬나라)이다'라 말하는 것은 한낱 논리비약, 아니 억지에 불과하니까. 이는 '탐 · 담 · 섭 등'과 '섬'이 유사한 자형이라며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그 양자가 동의어라는 언어학적 근거, 이를테면 동화同化(바ᄃᆞᆯ 〉바ᄅᆞᆯ海 / ᄀᆞᆺ개 〉ᄀᆞᆺ애 〉가위 / 글발 〉글ᄫᆞᆯ 〉글월文)나 구개음화口蓋音化

(길 〉 질 / 키 〉 치 / 힘줄 〉 심줄) 따위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튼, 위 ❺는 '탐 · 담 · 섭 등은 섬과 비슷하다'라는 그릇된(곧, 참이 아닌) 전제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참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점을 세분하여 좀 더 면밀히 따져보자. 첫째, 耽과 儋은 전술한 대로 중국어에서는 동일한 글자로 취급되고 있으니 더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담 · 섭'과 '섬'의 유사성 여부가 남는 셈이다. 둘째, 섭涉의 뜻은 '물을 건너다'이다. 따라서 섭라涉羅는 자의 그대로는 '물 건너에 있는 땅(곧, 나라)'이다. 이는 섭라는 섬나라란 뜻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섬나라라 단언할 수도 없다. 물 건너에 있다고 해서 다 섬나라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계에서는 섭라涉羅를 탐라의 이칭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이는 논거가 불충분하다. 사학계가 『삼국사기』의 '섭라 관련 사료 속 마노瑪瑙 산지'를 염두에 두고 운운하는 섭라는 역사 · 지리 · 지질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면 탐라가 아니라 백령도 일대 섬들일 개연성이 크니까(이는 후술할 <섭라> 참조). 그러니, 섭라는 논외로 한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담'과 '섬'의 유사성 여부만 남는 셈이다. 셋째, 우리말 '담'(dam)은 방언 동사 '다우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인 듯하다. 이는 '담'이란 '다운 것'을 뜻하는 명사라는 말이다. 한편, '섬'은 15세기 조선어에서는 '셤'으로, 일본어에서는 'sima(고어古語: sema)'로 발음된다. 이상以上에 의거하여 변하기 쉬운 모음은 빼고 자음으로만 '담'과 '섬'을 표기하면 전자는 'd-m'이고, 후자는 's-m'이다. 그런데 'd-m'과 's-m'은 음운론에서는 위 ❺ 기사에서와는 달리 유사성을 찾을 길이 없다. 생각건대, 국어학자들이 탐라의 어원이나 어의에 대해 천착해 온 것은 『해동역사』 기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납득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을까? 맹신하면서 앵무새인 양 되뇌는 것은 학문, 곧 이성理性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 요컨대, '담'과 '섬'의 유사성에 대해 운운하려면 무턱대고 '담'과 '섬'이 비슷한 자형이라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해동역사』도 사학계도 '탐'과 '섬'이 동의어라는 언어학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친김에 말하면, 한국 사학계 일각에서는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주호洲胡’(뜻: 섬 오랑캐)를 탐라로 본다. 주호에서의 주洲가 『해동역사』 기사(곧, ‘탐은 섬과 비슷하니 탐라는 섬나라이다’)를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서가 말하는 ‘중국 동쪽 바다 위의 그 섬’, 즉 ‘지난날 주호가 살았을 법한 섬’은 중국과 한국 사이 해상에는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주호를 탐라로 보는 것은 억지이다. 참, 선비 한치윤(1765-1814)은 족형 치웅이 북경에 사신으로 갈 때 따라가서 당시 청나라에서 성했던 실사구시 등의 고증적 학술방법을 배웠고, 귀국 후 이를 조선에 소개했고, 그리고 만년에 70권으로 된 『해동역사』(1823년)를 편찬했다. / 부언하면, 사학자들은 『탐라성주유사』(1979)가 『고려사』(1451)와 『탐라지』(1653)에서 인용한 위 ❻ 말미 부분, 즉 ‘탐라는 탐진의 탐과 신라의 라에서 유래된 것이다’(필자 주: ㉠)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왜? 그것은 당나라 이연수가 사찬한 『북사』[곧, 북조北朝(곧, 위魏 · 제齊 · 주周 · 수隋) 233년 간(386-618)의 통사] 왜국 조항에 “渡百濟 行之竹島 南望耽羅國”[백제를 건너 행차가 죽도에 이르러서는 남쪽으로 탐라국을 바라보고]라는 기사가 있으니 탐라란 말은 늦어도 618년에는 통용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신라 제35대 경덕왕(재위기간: 742년~765년)이 백제 시절의 동음현을 탐진현으로 고쳤다 하니 탐진이란 말은 빨라야 742년에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탐라란 말은 탐진이란 말이 생기기 적어도 124(위의 742에서 618을 뺀 것)년 전에 이미 쓰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위 ㉠은 터무니없는 주장, 즉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인 셈이다. 고로, 사학자들이 위 ㉠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은? 그것은 탐진이 탐라로 인해 생긴 지명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당唐 신라방新羅坊이 신라로 인해 생긴 지명이듯이. 또, 탐라 관문 건들개[巾入浦]가 머리에 모자[巾] 쓴 중국 상인들이 드나들어서(入) 생긴 지명이듯이. 생각건대, 통일신라 경덕왕이 백제 지명 동음을 탐진으로 개명한 것은 그 땅이 탐라인 집단 거주지(또는 탐라국 관할지)여서가 아니었을까? 참, 1211년경 고려는 탐라를 제주로 개칭한다. 왜? 자형 탐라가 한반도 일개 변방 포구 탐진과 망국 신라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굳이 개칭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친걸음에

위 ❻에서의 “후왕(곧, 고후)은 신라의 덕화가 융성해짐을 듣고 청淸 · 계季와 함께 한선제 감로 원년 무진(기원전 53년)에 신라에 입조하였다”(필자 주: ㉡)와 “신라왕(곧, 경덕왕)은 고후에게 성주 벼슬을 주었으니”(필자 주: ㉢)를 마저 들여다보자. 위 ㉡은 ‘고후(제15대 탐라국왕)가 기원전 53년(박혁거세 5년)에 경덕왕 연간(742-765)에 생긴 탐진을 경유하여 신라 조정으로 가서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을 만났다’라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아니, 위 ❻(곧, 『탐라성주유사』)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진술을 폈을까? 그것은 아마도 『탐라성주유사』가 ‘탐라기원을 단군기원보다 4년 앞선 기원전 2,337년으로 잡고 있다는 것’과 ‘한반도 사서 · 읍지 등을 맹신한 나머지 앵무새인 양 되뇌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중국 전통은 말한다. 중국 역사가 기원전 삼천 년 전 삼황오제三皇五帝 통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나 오늘날 중국학자들은 삼황오제가 전설상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즉 후대인들이 그들을 이상화理想化하여 날조한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중국 첫 왕조라는 하夏(전통: 기원전 2,205~1,766년)도 미래의 고고학에 의해 그 진위가 드러나겠지만 아직은 증거가 없어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대商代(전통: 기원전 1,766~1,123년)에 대해서는 그 실재를 확신하고 있다. 상商(곧, 은殷)의 수도에서 발굴된 거북 껍질이나 뼈 등에 새겨진 갑골문들이 그 실재성을 입증해 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탐라후예들도 탐라기원(기원전 2337년)이니 앵무새 흉내니 하는 터무니없는 언사는 그만두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언사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수천 년 전, 아니 수만 년 전에도 사람들은 후일 탐라라 불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를 댈 때에는, 예컨대 탐라기원이 기원전 2,337년이라 주장할 때에는 그에 걸맞은 증거도 대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언사이다. 사실, 과거(곧, 역사)는 상식과 논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떠받들어야 할 상전이 아니다. 또, 과거는 현재의 상전도 아니다. 과거는 다만 현재라는 곳간에 쌓여 있는 곡식 같은 것일 뿐이다. 곳간의 곡식은 있으면 가슴 뿌듯한 것이고, 없으면 두고두고 조금씩 채워 넣으면 그만인 것이다. 중국이란 곳간에도 탐라란 곳간에도 채워 넣은 날들보다 채워 넣을 날

들이 더 많을 테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작금의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설화상의 삼황오제를 역사적 인물들로 왜곡했듯이 이번에는 역으로 역사를 설화로 왜곡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구려를 중국역사에 편입시키는 역사날조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지난 일제 35년 간 한반도 일원에서 역사날조라는 만행을 자행했다. 하긴, 한반도도 역사날조라는 만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탐라역사에 관한 한『삼국유사』·『고려사』 등은 사서史書가 아니라 사서詐書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진술마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한반도 사서라는 창窓을 통해 탐라역사를 들여다보려는 탐라후예들은 한반도 사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위 ㉢은 고후 삼 형제와 신라 경덕왕 간 상견례 관련 기사이다. 하지만 그 기사는 사실史實과 설화(곧, 신라인 꿈)가 혼재된 것일 것이다. '성주'는 경덕왕이 하사한 작위가 아니라 탐라건국 때 축조된 칠성도七星圖 관련 호칭이니까(이는 후술할 <성주> 참조). 아무튼, 이제 그 상견례 상황을 논리적 사고에 의거하여 해석(곧, 추론)해 보자. 설화 해석은 모름지기 논리적 사고를 거쳐야 하니까. "고후 3형제가 왕자 시절에 교역 · 탐험 · 항로개척 따위 중 어느 한 목적을 위해, 아니 시찰차 당시 탐라 세력권 아래 있던 동음현(곧, 본디 백제 땅으로 탐진의 전신)을 방문했다. 이어, 신라 조정으로 갔다. 이전 같았으면 백제 조정으로 갔을 텐데 통일신라시대여서 그리로 간 것이다. 이에, 경덕왕은 이국인異國人을 보자 반가이 맞이했다. 그러나 이국인 간 만남이라서, 즉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후는 손짓 · 몸짓 등을 곁들여 가며 자신들을 경덕왕에게 소개했다. 자신들은 성주星主의 아들들로 탐라국 도내都內(곧, 도읍 안)에서 왔다고." 바로 여기까지가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라 전설(곧, 한반도인 꿈의 소산)일 것이다. 이상의 추론에 의거하면, 위 ❻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고을나 15대 손 삼 형제(곧, 후 · 청 · 잉)가 탐라 세력권하의 오산鰲山, 즉 백제 동음현을 시찰차 방문했다. 때는 통일신라시대였다. 그때 객성客星(곧, 손님 신분의 성주 후계자 고후)이 내처 신라 도읍 남쪽으로 다가갔다. 신라 왕실 태사가 경덕왕에게 아뢰었다. 이국인이 찾아왔다고. 후 등이 이르자 경덕왕은 기뻐하며 후를 성주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후가 성주란 말을 설명하려고 '손짓과 몸짓'(其動)으로 '북두성 모양'(星象)을 나타낸 때문이었다. 청에게는

자기 샅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흡사 친아들인 양 왕자 취급을 했다. 잉은 후와 청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도내都內(뜻: 탐라 도읍都邑의 내신內臣)라 불렀다. 동음현을 탐진현으로 개칭한 것은 거기가 실은 '탐라인 집단 거주지'(또는 '탐라국 관할지')여서였다." 그러고 보면, 추론 과정 이전의 것인 위 ❻은 탐라의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을 여지없이 폄훼시키고 있는 셈이다. 탐라국 뿌리를 이루는 자생적 호칭들(예: 성주 · 탐라 등)을 신라왕이 하사한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써 탐라를 본디 신라 번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니까. 따라서 위 ❻은 설화를 역사왜곡의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나 『탐라지』 등의 편자들은 탐라가 한반도 속국으로 영영 남아 있기를 바라는 한반도인들이니 위 ❻과 같은 역사왜곡은 그들에게는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탐라성주유사』는 왜 『고려사』 등의 왜곡을 마치 앵무새인 양 그대로 따라 되뇌었을까? 도대체 『탐라성주유사』(곧, 탐라 고씨)의 자기 비하가 왜 이다지도 심한가? 왜?

Ⅱ.ⅳ. 탐라 말뜻 관련 견해에서 전설(곧, 민중)은 한목소리를 내고, 국어학자들은 각인각색이고, 그리고 사학자들은 『해동역사』 주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한편, 전설은 탐라 중심적인 견해를, 그리고 국어학자들과 사학자들은 한반도 중심적인 견해를 견지한다. 이를테면, 국어학자 현평효는 耽은 '담'(뜻: 높다)의 차자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탐라언어의 원류가 한반도 언어라는 전제하에 도출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면 억지일까?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에는 지난날 두 개의 어군, 즉 북부의 부여계 어군과 남부의 한계 어군이 있었다. 그런데 전자(예어 · 옥저어 · 고구려어 등)는 고구려가 흥기하면서 고구려어로 통합되고, 후자(마한어 · 진한어 · 변한어)는 백제어 · 신라어 · 가라어로 진화한다. 이어서, 부여계의 귀족 계급과 일반 유·이민의 간단없는 남하로 고구려어는 백제어를 잠식한다. 그러다, 7세기 후반 신라의 삼국통일로 신라어가 한반도 언어를 통합한다. 그리고 10세기 초 이번에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어(곧, 개성어)가 한반도 언어의 중심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하여, 이 체계가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른다. 물론 탐라의 언어는 모라가 고려 속지로 전락하면서 비로소 개

성어 세력권 아래 놓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탐라언어는 어느 어족에 속했을까? 남방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가 탐라 주변을 스쳐 지나치니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나 드라비다어족에 속했을까? 아니면, 한자 육서 중 회의를 연상시키는 耗 · 毛 등을 국명으로 썼으니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했을까? 아니, 유·이민이 사방에서 흘러들었다 하니 두어 개의 어족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은 혹여 아닐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아무튼, 현평효는 한반도 언어체계 속에서 耽은 '담'의 차자라 했다. 그런데 그는 왜 탐라언어의 원류가 한반도 언어라는 전제는 당연시하면서 그것이 한반도 언어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는 배제했을까? 하긴, 어디 현평효뿐이랴. 제주의 국어학자들과 사학자들은 매한가지이다. 아니, 왜 탐라사회 일각은 한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왜 한반도에 대한 동족의식에 그토록 집착할까? 물론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이란 다름이 아니라 938년 이래 탐라가 한반도의 핍박 등에 간단없이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그 핍박의 예로 출륙금지령 · 제주자제 등을 들 수 있다. 부언하면, 소위 4·3사건도 그 예에 속할 것이다. 참, 이어도란 꿈도 바로 그 핍박 탓에 꾸게 되었다. 아무튼, 그 핍박의 와중에 탐라에는 "육짓놈 왐저 ᄒᆞ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쳣주!"라는 기막힌 옛말(곧, 속담)이 생겨났다. 한편, 탐라후예들은 생각했다. 그 핍박은 탐라와 한반도 간 이족異族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래서 탐라후예들은 그 의식을 없애려고 부단히 안간힘을 썼다. 예컨대, 모흥혈에서의 毛가 毛羅와 乇羅를 상기시켰으므로 탐라 정체성의 상징인 모흥혈을 삼성혈로 고쳐 부르면서 고을나는 고구려계이고 부을나는 부여계라는 주장마저 서슴없이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고 보면, 지난날 탐라후예들이 한반도에 대한 이족의식을 불식하려 안간힘을 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 잠재의식(곧, 위 속담) 속 육짓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셈이었다. 생각건대, 작금의 탐라후예들도 실은 한반도에 대한 이족의식을 은연중에 직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의식을 필사적으로 부인하려 든다. 하지만 강한 부정은 긍정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그 속담 속 막연한 두려움은 그만 떨쳐버리고 동족인지 이족인지 어디 한번 허심탄회하게 따져보면 어

떨까? 그랬다가 이족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랴. 다민족 국가가 시대적 추세인 작금의 이 지구라는 별에서 말이다.

<구한지일九韓之一>

❶ 本<u>九韓之一</u>或稱毛羅(安弘記列九韓毛羅居四)或稱耽羅或稱耽牟羅[본래 **<u>9한 중 하나</u>**로 혹은 탁라(안홍은 **<u>9한</u>**을 기록하면서 탁라를 4번째 열거하였다)라 칭하고, 혹은 탐라라 칭하고, 혹은 탐모라라 칭한다.] -『耽羅志』 제주건치연혁

❷ 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 第一層 日本 第二層 中華 第三層 吳越 第四層 托羅 第五層 鷹遊 第六層 靺鞨 第七層 丹國 ……[황룡사 호법룡은 곧 나의 장자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 그 절에 9층탑을 세우면 인접국이 항복하고 **<u>9한</u>**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요, ……, 제1층은 일본, 제2층은 중화, 제3층은 오월, 제4층은 탁라, 제5층은 응유, 제6층 말갈, 제7층 단국, ……] -『삼국유사』 권3 황룡사구층탑

❸ **<u>구한</u>**九韓: 신라 이웃에 있다고 생각되던 아홉 개의 나라. 일본日本 · 중화中華 · 오월吳越 · 탁라托羅 · 응유鷹遊 · 말갈靺鞨 · 단국丹國 · 여적女狄 · 예맥濊貊으로 황룡사 9층탑은 이들 제국이 내조來朝한다는 이상理想에서 이루어졌다. 이밖에 구이九夷와 관련된 명칭에 왜인倭人 · 현토玄菟 · 낙랑樂浪 · 고려高麗 · 만식滿飾 · 부유鳧臾 · 소가素家 · 동도東屠 · 천비天鄙가 있었는데, 신라인이 좋아하는 아홉이라는 수에다 알 수 있는 나라를 제멋대로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문헌: 삼국유사]. -『증보 새국사사전』(이홍직, 교학사, 1983년)

[화소話素 관련 설명 / 본문本文 관련 해설]

위 ❸에 의하면, 9한九韓은 한낱 신라인 꿈(곧, 신라 전설)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탐라지』 편자 이원진은 위 ❶에서 9한을 사실史實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저질렀다. 왜? 전설과 역사를 구별할 안목이 없어서? 혹은, 탐라라 불리는 땅이 본디 신라 번국, 즉 한반도 속지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저의에서? 대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것다. 그러니, 이 읍지를 대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런 오류들이 적잖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원진은 사가가 아니라 관리이고, 그리고 『탐라지』는 사서가 아니라

'역사적 전설이 왕왕 역사로 취급되는 읍지'이다. 한편, 위 ❷(『삼국유사』)도 위 ❶(『탐라지』)처럼 9한을 사실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니, 실은 '위 ❶이 위 ❷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곧, '『삼국유사』가 탐라역사에 대해 저지른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전철을 『탐라지』가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탐라지』(1653년)가 『고려사』(1451년), 『삼국유사』(고려 충렬왕 11년, 1285), 『삼국사기』(고려 인종 23년, 1145) 등을 참고했을 테니까. 아무튼, 읍지 『탐라지』도 사서 『삼국유사』도 탐라를 일명 九韓之一이라 함으로써 탐라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내친김에 말하면, 작금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고려사』·『삼국사기』 등에 의거하여 '탐라 지방은 백제 문주왕 때 처음으로 조공했고(476년), 그 후 동성왕 때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498년)'라 단언하고 있다(이는 후술할 <탐라의 백제 조공설>과 <백제의 탐라 병합설> 참조).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전설(곧, 한반도의 꿈)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의 주체적인 역사나 정체성 따위는 한반도인들의 지난 천 년 간의 간단없는 역사왜곡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인들 의도대로 왜곡되고 유기되고 망각되어 온 셈이다. 이는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은 탐라 정체성에 관한 한 사서史書가 아니라 사서詐書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언하면, 『고려사』는 이씨李氏 혁명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기획되고 편찬된 것이니 그에 걸림돌이 되는 사료는 철저히 왜곡되었을 것이다. 물론 탐라 관련 사료도 그랬을 것이다.

<동영주東瀛洲>

❶ **동영주東瀛州**: 지금의 제주도濟州道의 별호. 중국 문헌에 영주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데, 제주도를 동쪽에 있는 신산神山으로 보아 동영주라 불렀는지도 모른다. -『국어대사전』(예원출판사, 1987)

❷ 삼신산三神山: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蓬萊山 · 방장산方丈山 · **영주산瀛州山**의 세 산. **동해**에 있다 하며,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가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 명을 보내어 불로불사약을 구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음. 이곳에

황금 · 백은으로 지은 궁궐이 있다고 함. 우리나라의 금강산과 지리산과 한라산을 가리키는 말이라 함.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91)

[화소話素 관련 설명]

**동영주東瀛州**에서의 '州'(고을 주)는 '洲'(섬 주)의 오기誤記이다. / 東瀛洲의 뜻은 '중국 동쪽(東) 바다(瀛)에 있는 섬(洲)'이다.

**영주산瀛州山**에서의 '州'도 '洲'의 오기이다.

**동해**는 여기서는 '중국 동쪽 바다'를 지칭한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瀛洲는 본디 중국 전설상의 용어로 탐라인의 주체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 이른바 영주십경瀛洲十景에서의 瀛洲는 탐라나 모라로 고쳐 쓰는 것이 탐라의 주체성 · 정체성 · 자긍심 등을 위해서도 참된 역사 찾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날 한국은 안타깝게도, 아니 부끄럽게도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에 흠뻑 물들어 있었다. 오늘날 미국에 대한 사대의식에 흠뻑 물들어 있듯이. 바로 그래서 동영주를 탐라에 갈음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코리아를 한국에 갈음하듯이 말이다. 생각건대, 뿌리 깊은 사대주의, 즉 노예근성이 어느덧 체질화되어 버린 것일까? 한국은 강대국을 언제쯤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될까? 꿈같은 소리일까?

<성주星主>

❶ 성주는 사직단社稷壇인 칠성도七星圖(곧, 북두칠성 형국을 본떠 조성한 일곱 기基의 축대), 즉 속칭 칠성단(또는 칠성대)를 관장하는 자(곧,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의 임금)이다. 달리 말하면, 북두칠성 주인이다.

❷ 성주란 말은 조선 후기에는 제주 지방관의 별칭으로 쓰였다.

❸ 출륙금지령은 조선 왕조 초엽부터 말엽까지 내내 실시되었다.

❹ 이른바 **칠성통 대화大火**(곧, **1434년의 속칭 '큰 불'**)는 출륙금지령에 기인한 민란의 와중에 민군民軍이 제주성을 공략하여 지른 화재이다.

-이상은 필자가 중·고등학생 시절 건입동 일대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❺ (전략) 음성의 출처는 성주바위였다. 그녀가 성주바위에게 물었다. “성주님이세요?” 그 음성이 응답했다. “아니다.” 연후에, 한 노인이 성주바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말했다. “하지만 성주를 낸 자이니, 성주라 불러도 좋다.” 이어, 그 노인은 덧붙여 말했다. “잘 들어 두어라. 나는 훗날 네 아이의 후손들에게 ‘**성주의 왕권**’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탐라를 만국의 빛이 되게 하겠다. (후략) - 후술할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에서

❻ 성주: 조선 때, ‘제주 목사’를 달리 이르던 말. -『동아 새국어사전』(1989)

❼ 탐라 및 제주의 해양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매개고리는 성주일 것이다. 성주라는 직책의 해명은 제주해양사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성주왕자 칭호를 가진 부류들이 삼국시대부터 쭉 나오는 것으로 보아 탐라왕국이 나름 대외활동을 전개하면서 존립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주왕자는 누구일까. **성주는 938년(고려 태조 21) 성주왕자란 벼슬을 주었다는 기사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대체적으로 성주란 고려 태조 21년 이후에 제주도 수령에게 붙여진 명칭이며, 1404년(조선 태종 4) 성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무려 466년이나 계속 용인되었다. (중략) 그러한 측면에서 탐라의 성주가 별자리를 이해하는 항해전문지식을 장악한 전문가였을 것이란 가설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성주를 별자리와 직결시키는 데는 역시 해결해야 할 논리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다. 고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중간단계이론의 부족 때문이다. (중략) 왜 항해에서의 별자리 전통이 구술로라도 전해오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과연 일본과 중국으로 오가던 항해전통이 기사에 충분히 등장하지만 항해 전문성에 관한 기록은 물론이고 구술전통도 없다. 문제는 유사무서有史無書이며, 구술전통과 항해술 자체가 200여 년 이상에 걸친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다. **200년이란 장기간의 출륙금지**가 가져온 결과로 정리되겠지만, 여전히 중간단계이론의 부족을 추후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가설이지만, 칠성대와 성주의 연결시킴은 가능할 것인가.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탐라문화』 제42호, 63-67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주강현, 2013) 중의 ‘Ⅳ. 해양력: **항해전문가로서의 성주에 관한 가설**’에서

❽ 출륙금지령은 인조 7년(1629)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조실록』에 ‘임금의 조상을 뜻하는 조종조 때부터 내려온 법’이라 기록되어 있어 이전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 준다. 『세종실록』에도 제주인 출륙이 인조 때보다 2백 년 앞선 1434년(세종 16)에 처음으로 금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략) 제주도민 출륙금지는 조선 초부터 취해졌던 것이다.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김순이 · 표성준, 여름언덕, 2012, 58쪽

❾ 938년(太祖 21) 탐라국이 고려에 예속되면서 왕제王制 대신 성주제도星

主制度가 실시되자 성주 고말로高末老는 선왕先王 때까지의 왕궁이었던 궁전을 성주청星主廳이라 개칭하고 이곳에서 정사를 보았다 한다. 성주청은 탐라국 도읍지인 칠성대촌七星大村(곧, 현 濟州市) 중심지에 자리잡은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고대 건축양식에 따라 크고 작은 건물들이 (중략) **1434년(세종 16) 안무사 최해산崔海山 재임 때 화제로 인하여 전소되고 말았다 한다**. 이때 탐라 역사에 관한 모든 문적文籍들이 소실되어 없어짐으로서 궁전 또는 성주청에 관한 사실史實이 전해지고 있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국을 세우고 신라와 후백제를 정복한 연후에 탐라국에 귀속되기를 요청하자 **탐라국왕 고자견高自堅은 태조 21년(戊戌 938) 12월에 태자 말로를** 고려에 보내어 입조하게 하였다. **태조는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성주'·'왕자'의 벼슬을 내리고** 특별히 예우하였다. 이때부터 고려 조정에서는 탐라령, 안무사, 부사, 방어사 등의 관리를 배치하여 고려국의 통치권 속에 영속領屬되게 하였고 탐라국에는 왕의 칭호를 없애는 대신 '성주'의 칭호를 주어 고말로의 후손에게 대대로 그 작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 **태종 2년(1402) 당시 성주 고봉례高鳳禮와 왕자 문충세文忠世가 태종조에 여쭈어 "성주, 왕자의 호號가 분수에 지나친 것 같으니 부디 고쳐 주소서!" 하고 그 인부印符와 도적圖籍을 헌납하니 성주를 좌도지관左都知官, 왕자를 우도지관右都知官으로 개칭하고 성주의 작호爵號를 제除하였다**. (중략) 1402년(태종 2) 성주 고봉례에 이르러 성주의 칭호가 좌도지관으로 개칭되면서 성주청은 도주관부都洲官符로 되었으며, **이 무렵 성주청 주변에 안무사와 목사의 동헌으로서 새로운 정각政閣들이 세워졌다고 한다**. / 그 후 성주청은 얼마동안 도주관부로 사용되다가 화재(필자 주: 예의 그 1434년 대화)로 소실되고 말았으며 **1445년(세종 27)에는 도주관 제도도 폐지됨에 따라** 점차 변모되고 말았다. / 성주청이 있었던 유지遺址에 1512년(중종 7) 좌우위랑左右衛廊이 이건移建되어 호남원병湖南援兵이 거주하다가 1620년(광해군 12) 좌위랑左衛廊(곧, 진무청鎭撫廳의 전신)과 우위랑右衛廊(곧, 영군청營軍廳의 전신)으로 개축되어 사용되었다. 그 후 조선 말엽 폐쇄되었다고 한다. / 그리고 1903년 우편취급소가 되었다가 지금은 제주우체국 기지基地가 되었다. -『탐라성주유사』(고씨종문회총본부, 1979) 중의 '성주 · 성주청 관련 부분'에서

[화소話素 관련 설명 /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❼은 **항해전문가로서의 성주에 관한 가설**을 제기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물론 가설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가설은 검증할 방도가 없다. 그 검증을 위한 자료는 어디(곧, 사서 · 설

화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테니까. 각설하고, 위 ❼에는 시비를 가려야 할 내용이 두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성주는 938년(고려 태조 21) 성주왕자란 벼슬을 주었다는 기사에서 비로소 등장한다**라는 대목이다. 이는 성주왕자 작위가 고려 태조에 의해 탐라국 태자 고말로에게 하사됨으로써 비롯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술과 전술한 <탐라; 담라>에서의 '통일신라 경덕왕이 성주 벼슬을 고말로 선조인 고후에게 하사하였다'라는 진술은 서로를 배척한다. 물론 이는 그 양자 모두의 문제점이다. 게다가, 그 양자 각각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전자의 문제점은 고려 태조가 고말로에게 고려 역사에는 전무한 관직(곧, 성주왕자 벼슬)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종주국이 종속국에 벼슬을 하사할 때에는 마치 백제왕이 탐라 사신에게 백제 관직 은솔을 하사한 것처럼 종주국의 기존 벼슬을 하사하는 것이 상례인데 말이다(이는 후술할 <탐라의 백제 조공설> 참조). 후자의 문제점은 고후 일행이 신라로 다가가자 남쪽 하늘에 별이 나타났고, 경덕왕은 그 별의 상象을 따라 고후에게 성주 벼슬을 하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시쳇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역사란 모름지기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그 양자는 공히 사실이 아니라 한반도 설화(곧, 꿈)인 셈이다. 참, 호칭 '성주왕자'는 오류이다. 성주(곧, 임금의 별칭)와 왕자는 별개이니까. 그중 다른 하나는 **200년이란 장기간의 출륙금지**라는 대목이다. 이는 조선 조정이 출륙금지령을 탐라에서 200년 간 실시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대목은 출륙금지령이 조선조 내내 탐라에서 실시되었다는 위 ❸ · ❽ 등과 괴리된다. 아니, 왜 위 ❼은 탐라 전설(곧, 피해 당사자인 탐라민중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였을까? 내친김에 말하면, 출륙금지령은 조선 조정이 탐라에 실시한 무단통치 중 최악의 것이었다. 이는 출륙금지령이야말로 이어도 전설 동인動因들 중 제일 동인이라는 말이다(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Ⅱ. 위 ❾에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탐라왕궁 후신인 성주청이) **1434년(세종 16) 안무사按撫使 최해산崔海山 재임 때 화제로 인해 전소되고 말았다 한다**란 부분이다. 물론 여기서의 화재는 위 ❹에서의 **칠성통 대화**大火(곧, **1434년의 속칭 '큰 불'**)일 것이다. 생각건대,

1434년은 조선왕조 성군聖君이라는 세종世宗이 탐라에다 천인공노할 출륙금지령(곧, 조선이 탐라에 실시한 가장 악랄한 무단통치)을 발포한(전설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또는 본격적으로 실시한) 기막힌 해이다. 내처 말하면, 한반도 조정은 모라毛羅 흡수통합(1105년) 이래 이때(1434년)까지 무단통치로 일관했다. 반면, 탐라민중은 그 무단통치에 맞서 하릴없이 민란을 거듭거듭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규모의 민란 때면 거의 매번 관아가 있는 칠성통 일대, 즉 탐라성(곧, 제주성)을 공략하여 불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조선 조정은 민란 후에는 어김없이 안무사를 파견했다. 안무사는 변란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되어 주민을 안무하던 임시직이다. 그러고 보면, 당시 상황은 최해산 재임 때에 민란과 그에 따른 대화(1434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해산이 그 민란을 안무하려고 급파되어 온 것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민중을 안무하려고 창건한 관덕정(1448년, 세종 30)은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었을까, 아니면 간단없는 민란의 안무를 위한 임기응변의 조치들 중 하나였을까?(이는 후술할 <관덕정과 솥장수> 참조) 둘째, **탐라국왕 고자견高自堅은 (중략) 태자 말로를**이란 부분이다. 여기서 고말로를 왕자라 하지 않고 태자라 한 것은 당시 양씨梁氏가 왕자 직책을 맡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태자는 왕자의 대용인 셈이다. 셋째, "**태조는 (중략) '성주'·'왕자'의 벼슬을 내리고**란 부분이다. 이는『고려사』등에서 인용한 것이겠지만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고려사』등에는 경덕왕이 하사한 벼슬로도 되어 있으니까. 내친김에 말하면,『고려사』등의 탐라 사료들은 일관성도 합리성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아니,『고려사』등은 탐라역사에 관한 한 사서詐書라는 인상마저 풍긴다. 이는『고려사』등의 탐라사료들은 종주국의 종속국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넷째, **태종 2년(1402) 당시 성주 고봉례高鳳禮와 왕자 문충세文忠世가 태종조에 여쭈어 "성주, 왕자의 호號가 분수에 지나친 것 같으니 부디 고쳐 주소서!" 하고 그 인부印符와 도적圖籍을 헌납하니**란 부분이다. 문충세(곧, 문씨)가 왕자라니 가히 충격적이라 함직한 진술이다. 물론 이는 양씨가 왕자 직책(곧, 삼을나 공동왕권)에서 축출되었다는 말이

다. 그러고 보면, 고씨 · 양씨 · 부씨의 권력 다툼으로 기울어진 집구석에 문씨마저 끼어들어 파국을 맞은 셈이다. 그런데 문충세는 대관절 어떻게 왕자가 되었을까? 당시 성주星主인 고봉례의 사위였을까? 아무튼, 이제 탐라 공동왕권은 부씨에 이어 양씨마저 축출됨으로써 아주 와해되고 만 것이다. 즉, 모흥毛興정신이 아주 상실되고 만 것이다. 실로 통탄하여 마지않을 일이다. 이로써, 탐라국 운명도 역사의 뒤안길로 아주 떠밀리고 말았다. 모흥정신 상실이야말로 탐라국 회생 불능의 근본 요인이었을 테니까. 참, 성주 · 왕자 호칭과 인부 · 도적 등을 자진하여 종주국에다 헌납했다니, 언어도단이다. 다섯째, **성주를 좌도지관左都知官, 왕자를 우도지관右都知官으로 개칭하고 성주의 작호爵號를 제除하였다**란 부분이다. 성주 작호를 제하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탐라왕실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는 뜻이다. 이로써, 탐라왕권의 마지막 상징인 고씨가 조선 조정의 일개 벼슬아치(곧, 좌도지관)로 영락해 버리고 말았다. 여섯째, **이 무렵 성주청 주변에 안무사와 목사의 동헌으로서 새로운 정각政閣들이 세워졌다고 한다**란 부분이다. 이 정각들 후신後身에 해당하는 것이 작금에 복원된 제주목관아濟州牧官衙 건물들이다. 탐라왕궁 터에다 제주목관아 건물들을 새롭게 복원하다니, 실로 비탄을 금할 길 없다. 일곱째, **1445년(세종 27)에는 도주관 제도도 폐지됨에 따라**란 부분이다. 도주관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말은 성주 고씨와 왕자 양씨(또는 문씨)가 각각 좌도지관과 우도지관, 즉 조선 조정 관직에서마저 쫓겨나 부씨처럼 한낱 토호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이다. 참, 당시의 좌도지관 별칭 성주는 이때부터 제주 지방관 별칭으로 통용되게 되었다(이는 위 ❷ · ❻ 참조).

Ⅲ. 위 ❶에 의하면, 성주星主(곧, 북두칠성 주인)는 모라도읍 칠성골에 축조된 칠성도(곧, 북두칠성 형국을 본떠 조성한 일곱 기의 사직단)를 관장하는 자, 즉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 제사장祭司長이다(이는 후술할 <칠성골> 참조). 한편, 위 ❺에서의 **성주의 왕권**은 '성주는 탐라국왕(곧, 왕권을 지닌 자)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성주는 탐라국왕의 별칭인 셈이다. 그런데 호칭 성주는 영락零落하는 탐라의 역사적 상황 아래서 탐라국왕 별칭에서 종속국 제후諸侯, 좌도지관左都知官, 지방관地方官 등의 별칭으로 거듭하여 격

하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성주란 호칭은 탐라가 자주독립국이었을 때에는, 즉 탐라가 고려에 조공하기 시작한 태조 21년 이전까지는 '칠성도를 관장하는 제사장 호칭'(곧, 탐라국왕의 별칭)으로 쓰이고, 그리고 고려 태조 21년부터 탐라국호 모라毛羅가 폐지되고 이원二元[곧, 성주 · 지방관(한반도 조정에서 파견한 소위 총독)] 집정체제가 실시된 고려 숙종 10년(1105) 이전까지는 '고려 번국 탐라의 제후 호칭'으로 격하되어 쓰인다. 바로 이 첫 번째 성주 칭호 격하를 계기로 탐라국왕이란 개념은 역사의 뒤안길로 아주 사라진다. 이어, 성주란 호칭은 이원(곧, 성주 · 지방관) 집정체제가 실시된 1105년부터 성주제도가 도주관都洲官 제도(성주는 좌도지관左都知官으로, 왕자는 우도지관右都知官으로 개칭됨)로 개편된 1402년 이전까지는 '제후란 개념의 호칭'으로도 '한반도(곧, 고려 · 조선) 관리란 개념의 호칭'으로도 쓰이는 과도기를 거친다. 그러다가, 이원(곧, 성주 · 지방관) 집정체제가 좌도지관 · 지방관 집정체제로 바뀐 1402년부터는 '조선 관리(곧, 좌도지관)의 별칭'으로 고착화하여 쓰인다. 그런 연후에, 1445년 도주관 제도마저 폐지되어 이원집정체제가 지방관 단독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는 조선왕실이 파견한(곧, 탐라왕실과는 무관한) '한반도 출신 제주 지방관의 별칭'으로 쓰인다. / 참고삼아 말하면, 고려 숙종은 1105년 탐라국호 모라毛羅를 폐하는 대신 탐라군耽羅郡을 둔다. 이것이 탐라국의 종언이다. 이로써, 성주란 용어도 점차 변질되어 고려국 탐라군의 일개 벼슬쯤으로 인식되게 된다. 그런데 조선은 이런 인식을 계승하여 성주를 고려 태조가 고말로에게 하사한 벼슬로 『고려사』에 기록하는 무리수를 둔다. 또한, 성주란 칭호는 경덕왕이 고후에게 하사한 벼슬이라는 통일신라시대의 설화(곧, 꿈)도 수용하여 『고려사』에 기록하는 무리수를 둔다. 그러다 보니, 『고려사』는 통일신라 경덕왕과 고려 태조를 동시에 '성주 칭호 하사下賜'와 결부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만 것이다.

# 제2장 사료史料 관련 옛말

여기서의 사료들은 문헌설화文獻說話라 함 직한 것들이다. / 문헌설화란 설화가 문헌에 기록되면서 구전이 단절되다시피 한 것이다.

## <탐라의 백제 조공설; 백제의 탐라 병합설; 탐진>

탐라국이 한반도에 조공한 것은 938년(고려 태조 21)부터의 일이고, 한반도가 탐라국을 병합한 것은 1105년(고려 숙종 10)의 일이다. 따라서 '탐라의 백제 조공설'(476년)과 '백제의 탐라 병합설'(498년)은 공히 사실이 아닐 것이다. / 한편, 탐진耽津은 탐라인 집단 거주지로 한때 탐라 자치령自治領이었을 공산이 크다.

❶ 二年夏四月 **躭羅國**獻方物王喜拜使者作**恩率**[**2년**(476) 여름 4월에 **탐라국**이 토산물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며 사자에게 벼슬을 내려 **은솔**로 삼았다] —『삼국사기』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文周王或作汶洲

① 百濟**文周王二年** 拜**耽羅國**使者恩率[백제 **문주왕 2년**에 **탐라국** 사자가 은솔에 배(곧, 관직에 임명됨)하였다] —『고려사』卷五十七, 志卷第十一 地理二 耽羅縣

❷ 二十年八月 以**躭**羅不修貢賦親征至**武珍州躭**羅聞之遣使乞罪乃止 (**躭羅卽躭牟羅**)[**20년**(498) 8월에 탐라가 공부를 수하지 않으므로 친히 정벌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했다. 이에 그만 두었다. (**탐라는 곧 躭牟羅이다**)] —『삼국사기』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東城王諱牟大或作摩牟

② **東城王二十年** 以耽羅不修貢賦親征至武珍州耽羅聞之遣使乞罪乃止 註云**耽羅卽耽牟羅**[**동성왕 20년**에 탐라가 공부(공물과 세금)를 修(곧, 공덕을 베풀거나 쌓음)하지 않으므로 친정하여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어 죄를 빌거늘 중지하였다. 註에 이르기를 "**탐라는 곧 耽牟羅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卷五十七, 志卷第十一 地理二 耽羅縣

❸ **文武王二年**二月六日 躭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躭羅自**武德**以來臣屬百濟故**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문무왕 2년**(662) 2월 6일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일명 도동음진)이 와서 (신라에) 항복했다. 탐라는 **무덕** 이래 백제에 신하로 속해 있어서 **좌평**을 관직으로 했다. 이때부터 항복하여 (백제의) 속국이 되었다] —『삼국사기』卷第六, 新羅本紀第六 文武王上

③ 百濟旣滅 新羅文武王元年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來降[백제가 이미 멸하매, 신라 **문무왕 원년**에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이 와서 (신라에) 항복하였다] -『고려사』 卷五十七, 志卷第十一 地理二 耽羅縣

❹ 躭津縣本百濟冬音縣景德王改名今因之[탐진현은 본래 백제 동음현이었는데 경덕왕이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삼국사기』 卷第三十六, 雜志第五 地理三

[화소話素 관련 설명]

**탐라국**躭羅國(곧, 耽羅國), **왕(곧, 문주왕**文周王**) 2년**二年, **은솔**恩率. 躭羅國에서의 '躭'은 '耽'의 속자俗字이고, 왕(문주왕) 2년은 476년이고, 그리고 은솔은 백제의 16관등 중 제3품 관직명이다.

**20년**二十年**(곧, 동성왕**東城王 二十年**)**, **무진주**武珍州, **耽牟羅**. 동성왕 20년은 498년이고, 무진주는 현 광주광역시이고, 그리고 耽牟羅는 전술한 <탐모라>에서 이미 상술하였다.

**문무왕**文武王 **2년**二年, **문무왕 원년**元年, **좌평**佐平, **무덕**武德. 위 ❸에서의 문무왕 2년(662)이 위 ③에서는 문무왕 원년(661)으로 되어 있다. 어찌된 일인가? 2년(위 ❸)이 참이고, 원년(위 ③)은 거짓(곧, 오류)일까? 전자(『삼국사기』)가 후자(『고려사』)보다 앞선 기록이니 말이다. 좌평은 백제 16품 관계官階 중 첫째 등급이고, 그리고 무덕武德은 당 고조唐高祖 이연李淵의 연호年號(618-626)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❶ · ①의 내용은 '476년 탐라국이 토산물을 바치자 백제가 탐라국 사신에게 은솔 벼슬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일까? 물론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탐라국은 액면 그대로의 탐라국이 아니라 탐진, 즉 위 ❹에서의 탐진현耽津縣(곧, 탐라 자치령)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탐라국 사신도 탐진 사신일 것이다.

Ⅱ. 위 ❷ · ②의 내용은 '액면 그대로의 탐라국, 즉 탐라 본국本國이 공부貢賦를 수修하지 않자 백제 동성왕은 탐라 본국을 친정親征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고, 그리고 탐라 본국은 사신을 무진주로 보내어 사죄를 빌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일까? 생각건대, 백제 동성왕이 도읍 웅진(곧, 현 공주)을 출발하여 무진주에 이르는 단기간에

바다 건너의 탐라 본국 사신이 어떻게 무진주에 당도할 수 있었을까? 당시는 전화도 비행기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럼, 신라방新羅坊(곧, 지난날 중국 연안 지대에 있었던, 신라의 상인들과 유학승들의 집단 거주지) 같은 탐라인 집단 거주지가 한반도 남해안 어딘가에 있었던 것은 혹여 아닐까? 물론 탐진(곧, 현 강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역사란 모름지기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일', 즉 '제정신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고집스레 주장해댄다면, 그것은 위사僞史나 설화 취급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탐라국은 탐라 본국이 아니라 탐진인 셈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사신도 탐진 사신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498년(동성왕 20) 무렵은 삼국(곧, 고구려 · 백제 · 신라)이 첨예하게 각축하던 시절이었다. 아니, 고구려의 장수왕 · 문자명왕이 남하정책으로 백제의 문주왕 · 동성왕을 거세게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그런데 백제 동성왕이 국운이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한 이런 비상시(곧, 전시戰時)에,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을 북쪽 고구려군은 제쳐놓은 채로 한낱 공부貢賦를 받기 위해 남쪽 바다 건너 탐라 본국을 친정親征하려 했다니, 과연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납득이 가는 주장일까? 물론 탐진 원정이라면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뒷문 단속 차원에서의 꼭 필요한 일이었을 테니까. / 한편, 위 ❷ · ②에는 **탐라는 곧 耽牟羅이다**라는 주註가 달려 있다. 아니, 왜 이런 註가 사족처럼 쓸데없이 달렸을까? 그것은 어쩌면 진상(곧, 여기서의 탐라가 탐진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려는 일종의 계략인지도 모른다. 이는 그 註의 이면에는 탐라 자치령이어서 탐라라고도 불리는 탐진과 중국인들이 耽牟羅라고도 하는 탐라 본국을 동일시함으로써 탐진 공부를 탐라 본국 공부로 간주하려는, 나아가서 탐진에 대한 종주국 지위를 탐라 본국에 대한 종주국 지위로까지 확장하려는 백제인(곧, 한반도인)들의 저의(곧, 꿈)가 들어 있다는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훗날 통일신라 경덕왕이 동음冬音을 탐진으로 개명한 것(위 ❹ 참조)도 고후 3형제가 탐진을 방문한 것도 공히 탐진이 탐라 자치령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Ⅲ. 위 ❸ · ③ 당대의 한반도 상황은 신라는 태종무열왕 · 문무왕

으로 이어지면서 삼국통일이라는 흥륭의 길을 걷고 있었던 반면, 백제는 무왕 · 의자왕으로, 그리고 고구려는 영류왕 · 보장왕으로 이어지면서 망국이라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Ⅲ.1. 위 ❸ · ③에서의 탐라국주耽羅國主의 主는 왕王의 대용일 것이다. 그럼, 왜 王이라 하지 않고 主라 했을까? 그것은 탐라국을 한반도(곧, 신라)의 제후국으로 격하시키려는 저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탐라 본국의 왕이 아니라 탐라 자치령 탐진의 총책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 도동음률徒冬音律(일명 津)에서의 가운데 두 음절 冬音은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탐진으로 개칭하기 이전(곧, 백제 시절) 지명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음절 律(일명 津)은 문맥상 직명職名(곧, 총책)일 것이다. 그럼, 그 첫째 음절 도徒는? 『삼국유사』[2]에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適韓國 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후한서에 진한의 기로가 말하되 진의 유망인이 한국에 오매 마한이 동계의 땅을 베어 주고 서로 불러 '徒'라 했다고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의 徒가 바로 그 徒일 것이다. 물론 이 徒는 '노 · 내 · 닉 · 나 등'(뜻: '땅 · 곳 · 영토 · 나라 등')의 차자일 것이다. 그런데 백제와 신라가 등장하여 주변의 78개[3](마한 54개, 진한 12개, 변한 12개) 徒, 즉 나라(國)를 하나씩 병합하면서 점차 큰 규모의 나라로 성장해 가자 徒冬音律에서의 徒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小國)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개 徒인 '탐라 자치령 冬音 지역'을 제외한 모든 徒가 백제와 신라에 흡수되고 나자 결국 徒는 동음 지역에 대한 고유명사로 고착화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서 탐라국에 대한 별칭으로도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徒는 신라와 백제를 지칭하는 國과 그것들의 도읍을 지칭하는 都가 확고히 정립하게 되자 결국 비칭卑稱의 색체도 띠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徒冬音律(일명 徒冬音津)은 '소국小國 동음(곧, 탐진)의 총책'인 셈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위 인용문 ❸이 실려 있는 『삼국사기』 전권全卷(곧, 총 50권) 편찬이 완료된 것은 1145년(고려 인종 20)이다. 이는 『삼국사기』는 탐라국호 모라毛羅 폐지(1105년) 이후의 작作이라는 말이다.

---

2) 『三國遺事』 卷第一 辰韓조

3) 『三國遺事』, 앞의 책, 卷第一 七十二國조 / 七十二는 七十八의 오기임.

그렇다면, 『삼국사기』는 탐라 관련 사료에 대해서는 고려(곧, 한반도) 구미에 맞게 변조도 하고 날조도 했을 것이다. 망국(또는 속국) 역사란 수탈(곧, 왜곡)당하기 마련이니까.

Ⅲ.2. 위 ❸(③ 포함)은 내용이 '문무왕 2년(662)에 탐진 총책인 탐라국주(곧, 백제 관직 좌평을 겸한 도동음률)가 신라에 와서 항복했다'(필자 주: ㉠)와 '탐라 본국은 무덕(618-626) 이래 백제에 신하로 속해 있어서 좌평을 관직으로 했고, 그리고 이때(곧, 무덕 시절)부터 항복하여 백제의 속국이 되었다'(필자 주: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 ㉠을 보자. 신라 문무왕 2년(662)의 한반도 상황은 백제는 패망(660) 직후였고, 고구려는 패망(668) 직전이었다. 즉, 신라가 삼국통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660년 망한 백제의 관직 좌평을 겸하고 있는 탐라국주가 662년 신라로 가서 항복한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즉, 위 ㉠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이 항복을 두고 작금의 사학계는 탐라 본국이 신라에 항복한 것으로 곡해한다. 그럼, 그로부터 80년 남짓 지난 신라 경덕왕 연간(742-765)에 고후 3형제가 탐진을 거쳐 신라 조정에 들르자 신라 조정에서는 왜 이국인異國人이 왔다고 했을까? 속지인屬地人이란 사실을 암시하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말이다. 이는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아니, 왜 사서의 탐라 관련 내용이 이다지도 허술한가? 그것은 탐라국을 폄훼함으로써 탐라 종족을 한반도에 굴종하는 족속으로 전락시키려는 저의 아래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한 때문일 것이다. 이제 위 ㉡을 살펴보자. 물론 그 ㉡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탐라 본국과는 무관한 진술일 테니까. 이는 여기서의 탐라 본국은 탐진의 오류(곧, 의도적인 왜곡)라는 말이다. 그럼, 그 의도적 왜곡이란 전제하에서의 위 ㉡의 진위는? 그중 전반부[무덕(618-626) 이래 백제에 신하로 속해 있어서 좌평을 관직으로 하였고]는 얼추 사실일 것이다. 탐진 총책 탐라국주는 무덕 무렵 백제 신하가 되어 좌평이란 관직을 지냈을 테니까. 하지만 그중 후반부[이때(곧, 무덕 시설)부터 항복하여 백제의 속국이 되었다]는 단연코 사실이 아닐 것이다. 탐라의 백제 조공설(476)과 백제의 탐라 병합설(498)에 의하면, 탐진은 무덕 시절 훨씬 이전부터 백제에 속해 있었을 테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은 고후 형제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문주왕 2년(476), 동성왕 20년(498), 무덕 연간(618-626), 문무왕 2년(662) 등의 상황에 관해 왜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았을까? 또, 고려는 왜 태조 21년(938)에 위 사실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새삼스레 탐라에 조공을 요구했을까? 탐라 본국이 백제와 신라의 속국으로 지냈다면 여전히 조공을 바치고 있었을 터인데 말이다. 왜 이렇듯 의문투성이인가? 그것은 역사가 왜곡되고 날조된 때문일 것이다.

Ⅳ. 이상에 의하면, 위 ❶ · ①, 위 ❷ · ②, 위 ❸ · ③ 등에 등장하는 耽羅, 耽羅國, 躭羅, 躭羅國 등은 모두 하나같이 탐라 본국이 아니라 탐라 자치령인 탐진에 대한 지칭일 것이다.

Ⅴ.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탐라 관련 사항이 단 하나 실려 있다. 그것은 '탐라 지방은 백제 문주왕 때(476) 처음으로 조공하였고, 동성왕 때(498) 백제 영토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탐라(곧, 현 제주)를 오늘날도 여전히 한반도 속지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왜곡된 역사를 전면에 내세운 채 참된 탐라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476년 탐라의 백제 조공설과 498년 백제의 탐라 병합설은 이제는 참된 역사 찾기 차원에서 각각 938년 탐라의 고려 조공설과 1105년 고려의 탐라 병합설로 수정되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476년경에서 498년경에 이르는 백제의 정치적 · 군사적 상황은 실로 최악이었다. 고구려 장수왕(413-491) · 문자명왕(491-519)의 남하정책, 즉 영토 확장정책에 밀려 백제는 수도를 북쪽 위례성에서 남쪽 웅진으로 천도했고, 또 문주왕의 부친 개로왕도 장수왕의 공격에 전사당하기까지 했으니까(475). 아니, 이렇듯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한 백제가 바다 너머 탐라국의 조공과 병합에 대해 운운했다니! 실로 어불성설이다.

Ⅵ. 탐라는 망국이다. 그래서 탐라역사는 참담하게도 여지없이 유기되고 왜곡되고 망각되었다. 그러니, 이 점을 탐라후예들은 늘 명심해야 한다. 물론 탐라가 망국이라는 말은 고구려 · 신라 · 백제 등이 망국이라는 말과는 전적으로 다른 말이다. 전자는 종언終焉인 반면, 후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일단락이니까. 즉, 탐라역사는 한반도 역사에서 배제되어 있는 반면,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의 역

사는 한반도 역사에 승계되고 있으니까.

Ⅶ. 탐라후예들은『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등에서 탐라 관련 기록을 대할 때에는 고구려 · 신라 · 백제 등의 관련 기록을 대하듯이 곧이곧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즉, 왜곡되고 변조되고 날조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과거를 직시할 수 있도록 말이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의 이정표나 길라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다. 물론 그릇된 과거인식은 그릇된 미래를 낳게 마련이다. 그러니, 올바른 역사인식이 꼭 필요하다. 탐라후예의 염원인 이어도를 위해서도 말이다.

Ⅷ. 탐진은 강진으로, 충무는 통영으로 개명했다. 그럼, 이 땅은 언제쯤 남이 달아준 제주라는 치욕스러운 명찰을 떼어 버리고 탐라나 모라라는 자랑스러운 본디 명찰을 가슴에 버젓이 달 수 있을까?

Ⅸ.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식인들이 한반도의 일본화日本化를 위해 주입해 놓은 일본식 신화이론', 즉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를 근거로 위신僞神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세금 930억 원을 들여 지어 가며 '위대한 제주' · '더 큰 제주' 등을 만들겠노라고 떠벌여대는 얼빠진 소리들이 들려온다(이는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아울러, 탐라의 옛 할망들 훈계도 그 소리들 사이사이로 떠오른다. "요놈들아, 큰 양 말앙 ᄌᆞ냥ᄒᆞ라! 쩍!"

<섭라>

十三年夏四月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芮悉弗曰「(前略) **珂**則涉羅所産 (中略) 涉羅爲百濟所幷 (下略)」[13년(504) 여름 4월 사신을 **위나라**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세종**이 그 사신 예실불을 동당으로 불러 만났다. 예실불이 말했다. "(전략) **가珂**는 섭라에서 나는 것인데 (중략) 섭라는 백제에 병합되어 있습니다. (하략)"] —『삼국사기』卷第十九, 高句麗本紀第七 文咨明王一云明治好王

[화소話素 관련 설명]

**위魏나라**는 중국 남북조 시대(439-589)의 북조北朝 첫 왕조로 선비족의 후위後魏, 즉 북위北魏(386-534)이다. 북위는 서위(535-557)와 동

위(534-550)로 분열된 후 각각 북주(557-581) · 북제(550-577)를 거쳐 다시 수隋나라(581-618)로 통합되었고, 그리고 589년에는 한족漢族의 남조南朝마저 경략하여 재차 중국대륙을 통일하였다.

**세종**世宗은 북위 제7대 선무제宣武帝 각恪(499-515)이다.

**가**珂(곧, 흰[白] 마노瑪瑙)는 석영石英의 일종으로 지난날은 주로 말굴레를 치장하는 데에 쓰였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위 인용문에서의 섭라涉羅를 탐라의 이칭으로 보는 것이 지난날 사학계의 중론이었다. 이는 "탐耽 · 섭涉 · 담儋은 공히 섬剡과 비슷하므로 다 섬나라를 뜻한다"라는 『해동역사』(한치윤)의 주장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섭라는 오늘날의 제주가 아니라 백령도 일대 섬들일 공산이 아주 크다. 위 인용문에서의 예실불의 말(곧, '고구려가 섭라에서 받아 위나라로 보내던 가珂를 백제의 섭라 병합으로 인해 확보하지 못했다')에 의하면 말이다. 사실, 백령도 일대 섬들은 지질 성분상 마노 산지라 할 수 있지만 탐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또,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고구려와 백제가 다툴 수 있는 곳도 백령도 일대이지 탐라가 아니다. 또한, 위 조공 시점(504) 무렵[곧, 고구려 문자명왕 연간(491-519)]의 한반도의 정치적 · 군사적 상황도 문제의 섭라가 백령도 일대임을 암시한다. 내처 말하면, 당시는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었다. 즉, 조부祖父 장수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문자명왕은 남하정책을 계속 추진하였고, 북부여를 쳐서 항복을 받음으로써(494) 고구려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켰다. 반면, 백제 동성왕(479-501) · 무녕왕(501-523)은 생존을 위해 자국 방위에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웃나라 신라는 물론이고, 중국 남조[송宋(420-479) · 제齊(479-502) · 양梁(502-557)]와도 통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백제로서는 탐라국을 병합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다. 그렇다면, 백제의 섭라(곧, 백령도 일대 섬들) 병합은 생존을 위한 방어 차원의 것, 즉 고구려가 서해를 통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 제3장 협의狹義의 옛말(곧, 전설)

제주민중 설화의식에는 본풀이(≒신화)와 옛말(곧, 본풀이 아닌 이야기들 / 예: 전설 · 속담 · 금기어 등)이 있다. 이는 제주민중에게는 한국설화이론 3분류에서의 신화는 본풀이로, 그리고 전설은 옛말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제주민중 설화의식에는 예의 그 3분류에서의 민담은 없는 셈이다. /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전설은 진실성眞實性을 추구하는 설화로 그 증거물證據物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예: 오름, 한라산)이고, 그리고 그 미적美的 범주範疇는 비장미悲壯美(곧, 비극미悲劇美)를 지향한다. 한편, 신화는 신성성神聖性을 추구하는 설화로 그 증거물은 포괄적인 것(예: 이 세상의 모든 산)이고, 그리고 그 미적 범주는 숭고미崇高美를 지향한다. /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 지역적 전설과 이주적移住的 전설로 이분된다. 지역적 전설은 일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고, 이주적 전설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탐라에는 이주적 전설이 아주 드물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전설과 망부석 전설 정도가 고작이니까. 그러고 보면, 탐라 전설들은 거의가 다 지역적 전설인 셈이다. 한편, 전설은 발생목적에 따라 설명적 전설, 역사적 전설, 신앙적 전설로 삼분된다. 설명적 전설은 증거물(곧, 사물 · 사람 등)을 설명한 것이고, 역사적 전설은 역사가 투영된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 전설은 신앙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전설은 둘 이상의 발생목적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설명적 전설인 동시에 역사적 전설일 수 있다. 참, 탐라 전설 중 신앙적 전설의 주요 소재는 뱀(곧, 황구렁이)과 풍수지리이다. / 각설하고, 이 '제3장 협의狹義의 옛말(곧, 전설)'에서는 역사적 전설을 주로 다루었다. 그 까닭은 첫째는 역사적 전설들이야말로 가히 탐라 전설의 백미라 함 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역사적 전설 중 상당수는 탐라의 미래사회를 위한 이정표나 길라잡이 따위가 될 민족정신(곧, 민중의식)을 이면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역사적 전설은 탐라 전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역사적 전설은 망국이라 거의 전해지지 않은 탐라국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창 노릇을 톡톡히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역사적 전설은 탐라 민중사民衆史, 즉 주체적인 탐라역사(곧, 국본國本인 민중의 족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록: 제주설화의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중의 'Ⅲ. 전설' 참조)

## <탐라라는 지형>

한라산 북녘에 거인(또는 호랑이) 형국을 한 지형이 있다. **백록담**白鹿潭, **백골**百骨, **황새왈**, **모흥혈**, **칠성**七星**골**, **칠**七**머리** 등이 각각 그 거인(또는 호랑이)의 숨골, 심장, 명치, 배꼽, 음부, 팔다리 등에 해당한다. 탐라란 말은 바로 그 거인(또는 호랑이)이 지켜보는 땅, 나아가서 그 거인의 화신이 태어나는 땅, 즉 **왕후지지**王侯之地라는 뜻이다. / 일설은 말한다. 훗날 때가 차면 '그 거인의 화신化身' 또는 '그 거인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자', 즉 의인義人이 출현하여 이 땅의 정의正義를 실현시키리라고.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1960년대 말엽)에 제주시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백록담**白鹿潭은 한라산 정상의 화구호火口湖로 한라산 신선神仙들이 노닐 때 타던 백록白鹿의 터전이란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백**百**골**은 현 아흔아홉골이다(이는 후술할 <아흔아홉골; 백골> 참조).

**황새왈**(일명 황사평黃蛇坪) 설명은 후술할 <황새왈>으로 미룬다.

**모흥혈**은 현 삼성혈三姓穴의 원명이다(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칠성**七星**골**은 본디는 탐라도읍 일도 · 이도 · 삼도를 지칭했고, 훗날은 성안[城內: 탐라성(곧, 제주성) 안], 나아가서 모관(←목牧 안[內]: 제주목濟州牧 안)을 지칭했다(이는 후술할 <칠성골> 참조).

**칠**七**머리**는 제주시 화북동, 아니 곤을동 해변(정확히는 별도봉 북녘 기슭)에서 건입동 해변을 거쳐 용담동 해변(정확히는 용두암 일대의 구릉)에 이르는 지역의 형국을 두고 지난날 여항간에서 일컫던 용어이다. 부언하면, 작금에 행해지는 칠머리굿堈에서의 '칠머리'란 용어도 바로 이에서 유래했다. (이는 후술할 <칠머리> 참조)

**왕후지지**王侯之地의 사전적 정의는 '황제와 제후가 태어나는 땅'이

다. 그런데 여기서의 황제 · 제후를 자의 그대로만 해석하려 드는 것은 설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민중 삶이 변하고, 그리고 민중 삶이 변하면 민중 꿈인 설화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서의 황제 · 제후는 맥락에 따라서는 탐라후예가 추구해 온 '위대한 정신'(예: 즈냥정신, 모흥정신, 장두정신)일 수도 있고 '평화의 섬'(또는 이어도)일 수도 있다. 물론 설화가 변한다는 말은 설화의 근간(곧, 본질)이 변질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엽枝葉(곧, 현상現象)이 변모한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설화 이면의 정신(곧, 꿈)이 구체화되고 심화된다는 말이다.

**이 땅의 정의正義**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어도移御島이다(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옛말은 '본本풀이[解] 아닌(곧, 굿에 쓰이지 않는) 이야기의 통칭'이고, 본풀이는 굿하는 동안 구송口誦되는 이야기로 신神의 근본(곧, 출생 · 행적 등)을 설명한(곧, 늘어놓은) 내력담來歷談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當該 설화는 옛말인 셈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전설은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고 미적 범주가 비장미를 지향하고, 그리고 신화는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이고 미적 범주가 숭고미를 지향한다. 그러고 보면, 당해 설화는 전설인 셈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한라산 북녘의 거인 형국 지형')이니까. 게다가, 미적 범주가 비장미를 지향하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당해 설화 화소인 '왕후지지'(곧, 탐라) · '이 땅의 정의'(곧, 이어도) 등이 이면에 '탐라민중의 외세 핍박에 대한 저항 내력'(곧, 수난사受難史)을 품고 있어서 당해 설화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悲哀感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탐라라는 일정 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이는 당해 전설은 '탐라 밖에서 이주해 온 것'(곧, 이주적移住的 전설)이 아니라 '자생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

설이다. '한라산 북녘의 거인 형국 지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당해 전설 화소인 '왕후지지'(곧, 탐라) · '이 땅의 정의'(곧, 이어도) 등이 탐라민중 수난사의 소산이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당해 전설 화소인 '백록담, 백골, …, 칠머리 등이 각각 그 거인(또는 호랑이)의 숨골, 심장, …, 팔다리 등에 해당한다'는 탐라 신앙적 전설의 주요 소재인 풍수지리에 관한 것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당해 전설은 풍수지리설이 이 땅에 싹튼(또는 이식移植된, 곧 전래되어 토착화한) 연후에 발생한 것일 것이다. 풍수지리설이 없다면 백록담을 '거인(또는 호랑이) 숨골'로 보는 식의 발상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테니까.

Ⅳ. 당해 설화에서의 화소 '탐라(곧, 왕후지지)'는 어쩌면 '한라산 북녘의 거인 형국 지형'(곧, '명당자리')이 탐라(곧, 모라毛羅)건국 터전이란 것, 게다가 '그 거인 음부에 해당하는 칠성골'(곧, '위 명당자리의 중심부')이 탐라도읍이란 것을 외세 · 탐라민중 양자 모두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외세의 핍박에 항거도 하고 탐라민중의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도 고취하여 결국에는 망국 탐라를 독립자존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칠머리라는 지형>

여기서의 칠머리는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바로 그 칠머리[곧, 한라산 북녘의 거인(또는 호랑이) 팔다리 형국에 해당된 지형]이다.

한라산 정북쪽 해안에 속칭 **칠머리**라 불리는 지형이 있다. 그것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흡사 '일곱 마리의 용의 머리들' 또는 '머리 일곱 개 달린 용'이 탐라 북녘 수평선을 향해 내닫는 것 같은 형국을 하고 있어서이다. 그 일곱 개의 머리를 동쪽에서부터 차례로 열거하면, **첫째 용머리**는 '별도봉 북녘 기슭의 소위 애기업은여자바위 있는 구릉'이고, 둘째 용머리는 '사라봉 북녘 기슭의 소위 **구릉굳**'이고, 셋째 용머리는 '산저천 어귀'(곧, 건들개)이고, 넷째 용머리는 '**탑동 먹돌왈 샘터** 일대'이고, 다섯째 용머리는 '병문천

어귀'(곧, **벌랑포**伐浪浦)이고, 여섯째 용머리는 '한천 어귀'(곧, **대옹포**大翁浦)이고, 그리고 일곱째 용머리는 '**용두암**龍頭巖 일대의 구릉'이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1960년대 말엽)에 제주시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칠머리**는 지금은 거의 다 헐리거나 파묻혀 버렸다. 다만, '첫째 용머리' 부분만이 가까스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첫째 용머리**는 아마도 탐라 설화상의 명소名所들 중 으뜸일 것이다. 후술할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가 그 위에 얹혀 있으니까.

**구릉굳**에서의 굳을 두고 혹자는 곶串의 와전이라 한다. 하지만 실은 '끝'과 '굽'의 결합에 따른 산물일 것이다. 지난날 이곳 토박이들(곧, 건입상동巾入上洞 주민들)이 지칭하던 구릉굳은 '그 구릉 끝의 절벽'에서부터 '그 절벽 밑(곧, 굽)의 해변'까지였으니까. 각설하고, 이 구릉 일대는 얼마 전 항만개발에 밀려 허물렸고, 지금은 흔적조차 가뭇없다. 참, 한때 그 구릉굳 상단에 있던 칠머리당堂도 바로 이때 현재의 위치, 즉 사라봉과 별도봉 사이 기슭으로 이전되었다.

**탑동 먹돌왓 샘터**는 일제 강점기에 탐라인의 저항정신을 꺾기 위한 혈穴 · 맥脈 차단의 일환으로 일제日帝에 의해 메워졌다. 내친김에 말하면, 그때 칠머리 도처에서 혈 · 맥 차단을 위해 암반에는 쇠꼬챙이가 박혔고, 구릉은 헐렸고, 그리고 샘터는 메워졌다.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를 능가하는 만행이 해산물(곧, 염분)의 보고寶庫(이는 탐라도읍 칠성골의 주요 입지 조건이었음)인 이 샘터 일대에서 이번에는 탐라사회 일각의 동조 아래 저질러졌다. 아니, 탐라사회 일각이 물욕에 눈먼 한반도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탐라도읍의 해산물 공급처였던 그 먹돌왓, 즉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탐라국 유적遺跡을 매립하여 없애 버렸다. 실로 가슴을 치며 통탄하여 마지않을 일이다. (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벌랑포**는 지금은 예전의 포구 모습을 거의 다 상실했다.

**대옹포**는 지금도 포구로서의 명맥만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용두암**은 당해 전설과는 무관한 것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칠머리라고 불리는 지형')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탐라라는 일정 지역에서만 구전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칠머리라 불리는 지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모라毛羅도읍(곧, 칠성골)의 입지 조건(예: 해산물 산지)에 관한 것이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구릉 셋 · 포구(곧, 내창 어귀) 셋 · 샘터 하나를 용머리 일곱으로 묘사한 당해 설화 화소는 탐라 신앙적 전설의 주요 소재인 풍수지리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모라도읍형성(곧, 모라건국) 무렵에는 탐라에도 풍수지리설이 있었던 셈이다. 풍수지리설이 없었다면 그런 화소들은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 할 일이니까. 그런데 혹자는 단언한다. 이 땅의 모라건국 무렵은 풍수지리설은커녕 한자도 없던 문맹의 시대였다고. 하지만 이 단언을 입증할 근거는 어디(예: 문헌, 설화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에 대한 반증(예: 회의자 𠂹 전신前身인 毛)은 있다.

Ⅳ. 최근 '첫째 용머리' 일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언뜻언뜻 불길한 예감을 자아낸다. 돌이켜보면, 이 구릉(곧, 첫째 용머리) 위에 얹혀 있는 별도봉은 지난날은 도처에 샘물이 있던 오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오름 어디에서도 샘물을 찾아볼 수 없다. 지하수의 수위 저하로 용천湧泉들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즉, 이 오름은 예전에는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싹 메말라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이 오름 북녘 기슭에 산사태가 잦다. 그 산사태로 말미암아 이 구릉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않는다. 부언하면, 이 구릉 근처 바다에서 요즘 항만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항만을 위한 방파제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그 바다는 이미 죽음의 바다로 변해 버렸다. 이를테면, 미역 · 톳 · 청각 같은 해초도 소라 · 보말 · 오분작 같은 패류도 새우 · 게 같은 갑

각류도 가뭇없이 사라져 버렸다. 물론 이 바다의 초주검됨을 전적으로 항만공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 바다는 그 공사 이전부터 서서히 죽어갔으니까. 즉, 이 바다는 그 일대 해변의 용천들이 말라감과 거의 동시에 죽어가지 시작했으니까. 이는 바다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과 질이 바다의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탐라 근해는 조만간 폐허화의 지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혈안이 된 지하수 개발 탓에 갈수록 바다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도 감소하고 그 질도 저하되고 있으니까. 생각건대, 지난날의 탐라 선조들에게는 물(곧, 내창 · 샘터 · 수맥 등)과 구릉은 '뛰어난 무엇'(예: 용龍)을 의미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탐라후예들은 물도 구릉도 한낱 탐욕을 위해 마구 훼손하고 있다. 대관절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

여기서의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는 전술한 <칠머리라는 지형>에서의 첫째 용머리 위에 얹히거나 박혀 있는 암석들이다.

**외세**外勢 만행이 극심하던 어느 해였다. 어부이자 칠성골 토박이인 한 젊은이가 **장두**狀頭가 되어 그 외세의 학정에 항거했다. 하지만 그 봉기는 진압되었고, 그 젊은이는 잡혀 처형당했다. 그러자 그 젊은이의 아내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 결국 공출 대상, 즉 **공녀**貢女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에, 그녀는 그 공출을 피하려고 갓난것을 업고 칠머리 해변을 따라 동쪽으로 달아나 별도봉 북녘 비탈의 구릉, 즉 이른바 '칠머리의 첫째 용머리' 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녀는 더는 외세 추격병들을 따돌릴 수가 없어서 그 구릉 밑의 바다로 아이를 업은 채 투신하려 했다. / 그런데 때마침 한 음성이 들렸다. "네가 서 있는 곳은 탐라의 성지聖地이니, 너와 네 아이의 피로 그 성지를 부정 타게 해선 안 된다. 하지만 꼭 죽으려거든 네가 서 있는 동쪽으로 **저승길**을 열어 줄 테니 그리로 투신하여라." 그 음성의 출처는 '**성주**星主**바위**'(곧, 소위 돌하르방처럼 생긴 바위)였다. / 그녀가 성주바위를 향하여 물었다. "성주님이십니까?" / 그 음성이 응답했다. "아니다." 연후에, 한 노인이

성주바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성주를 낸 자이니, 성주라 불러도 좋다.” /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성주님! 저는 죽어도 좋지만 이 아인 죽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이 아일 살려 주십시오.” / 그 노인이 대안을 제시했다. “내가 너와 네 아이를 돌로 만들어 두었다가 때가 차는 날 소생시켜 줄 테니, 너는 오늘부터 **칠머리지기**가 되어 그날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리고 향후 한동안 너처럼 투신하려는 여자들이 이리로 올 테니, 이 성지가 피로 부정 타지 않게끔 너는 그들에게 아까 내가 널 위해 열어 준 그 저승길로 투신하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들을 저승 안식처로 인도하겠다.” 이어, 그 노인은 덧붙여 놓았다. “잘 들어 두어라. 나는 훗날 네 아이의 후손들에게 성주의 왕권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탐라를 **만국萬國의 빛**이 되게끔 하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후손들은 외세에 시달리며 하릴없이 **이어도**를 꿈꾸게 될 것이다.” / 그녀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예, 말씀을 받들고 명심하겠습니다.” / 그리하여, 그녀는 애기를 업은 채로 돌이 되었고, 그 노인은 그 돌, 즉 ‘**애기업은여자바위**’(곧, 애기 업은 여자 상반신 형국의 돌무더기)를 통하여 땅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주시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외세外勢**는 여기서는 1273년 6월부터 1374년 8월까지의 101년 두 달 간 탐라를 핍박한 몽골인[蒙古人]들이다. 하지만 지난날 탐라인들은 한반도는 육지로, 그리고 한반도에서(또는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오는 자는 한반도인 · 몽골인을 불문하고 다 외세(곧, 육짓놈 또는 육짓것)로 칭했다. 물론 육짓놈(또는 육짓것)은 침입자 · 수탈자 등의 뜻을 내포한 적대적 감정의 산물이다. 다음 옛말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육짓놈 왐저 ᄒᆞ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쳣주!” 내친김에 말하면, 모라乇羅 몰락(1105년) 이후의 탐라 역사는 ‘육짓놈들의 핍박’과 ‘탐라 토박이 민중의 저항’(곧, 민란)으로 점철된 비운의 역사였다. 그러고 보면, 탐라국이 고려에 조공朝貢하기 시작한 938년(고려 태조 21)이야말로 탐라후예들에게는 통한痛恨의 해인 셈이다.

**장두**狀頭의 사전적 정의는 ‘연명으로 된 소장訴狀의 첫머리에 적힌 사람’이다. 하지만 한반도 · 몽골 치하 탐라의 지난 천년 역사에 등장하는 장두는 실은 ‘민란 선봉’이었다. 따라서 장두는 민란이 수습

되고 나면 어김없이 반란죄로 참수되었다. 참, 탐라사회 일각에서 한때 스승 역할을 했던 김봉옥은 자신의 제자 · 후학 등에게 '장두정신'에 대해 종종 설파했다. 가히 숙고해 봄직한 정신이다.

**공녀貢女**. 혹자는 말한다. 몽골 침략자들은 과부와 미혼녀를 공녀라 하여 공출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옛말은 전한다. 그 육짓놈들은 탐나는 유부녀가 있으면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과부로 만들어 공출하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저질렀다고.

**저승길**은 비탈진 골짜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저승길 하단下端은 벼랑에 닿아 있고, 그 벼랑 밑은 바다(곧, 속칭 '칠머리 앞바다')이다. 그런데 그 저승길 때문일까? 아니, 실은 해류 때문이리라. 지난날 익사한 시신들이 간간이 그 벼랑 밑 바다로 떠밀려 왔다. 바로 이 시신들이 전술한 <건입동>에서의 '사라봉과 별도봉 간 경계석' 관련 시신들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그 저승길 서편 하단 가장자리께의 벼랑 위에 암석(이는 당해 전설과는 무관한 무명無名의 바위임)이 하나 돌출되어 있다. 그런데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한국 산업화의 여파로 육지(곧, 한반도)에서 쫓기다시피 떠밀려온 여자들(곧, 주로 '레지'라 불리던 다방 종업원들)이 위 전설 속 저승 안식처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여차여차한 사연 탓에 삶이 고달파서인지 자살하려고 흰 고무신은 벗어 그 바위 위에 가지런히 얹어놓고 연분홍 치마는 다소곳이 뒤집어쓰고 이 바위에서 간혹 투신했다. 흡사 화창한 봄날 낙화하는 복사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 바위는 '자살바위'라 불리면서 흡사 전설 증거물 같은 취급을 받았다. / 내처 말하면, 별도봉 산책길 표지판에 한때 '자살바위'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산책 나온 코흘리개들이 그 글자들을 무심코 입에 담았다. 이에, 필자는 그 표지판 관리자에게 말했다. 그 표지판에서 그 글자들을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며칠 후 전설 증거물 같은 그 글자들이 지워졌다. 그러자 전설 같은 '자살바위 관련 이야기'도 사람들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전설은 증거물을 먹고 산다'라는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다.

**성주星主바위**는 기존 삼을나 왕권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당해 전설 속 노인(곧,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거인의 화신化身')이 성주

바위를 버리고 애기업은여자바위(곧, 민중 주권의 상징)에 몸담은 것은 그 노인이 기존 탐라왕실에 실망한 나머지 탐라민중에게 탐라미래 건설(곧, 이어도 구현)의 역할을 맡겼다는 뜻이다. 사실, 지난날 이 땅의 기득권층(또는 상류층)은 통상 육짓놈들과 한통속이 되어 놀아났다. 그럼, 작금의 기득권층은? 매한가지가 아닐까? 『탐라성주유사』(고씨종문회총본부, 1979년)가 "고씨 가문의 성주가 몽골 치하 탐라총관부에서 제2대 다루가치를 지냈다"라며 자랑처럼 떠벌리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성주유사』는 탐라사를 조명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그것을 왜곡시키는 데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 한반도인들이 한반도를 위해, 또한 탐라의 역사 · 정신 · 정체성 등을 말살하기 위해 써 놓은 것들을 아무런 숙고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으니까. 탐라 고씨 가문에서 마치 제주 고씨 가문에서나 냄 직한 이런 한심스러운 책을 내다니, 실로 기막힐 따름이다.

**칠머리지기**는 속칭 칠머리 앞바다(곧, 지난날의 탐라 관문)와 속칭 칠머리 해변 일대(곧, 탐라도읍 칠성골 주민들의 터전)의 지킴이, 즉 '탐라의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만국萬國의 빛**은 탐라민중의 이어도 구현 의지의 발로 중 일면一面일 것이다. 물론 탐라후예가 요즘 추구하는 '평화의 섬'도 그 일면일 것이다. 여하튼, 어떤 나라가 만국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작금의 미국일까? 아니면, 중국? 아니, 오늘날의 미국도 중국도 만국의 빛을 지향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고 있다. 즉, 양자가 공히 제국주의 야욕에 눈멀어 있다. 그럼, 어떤 나라, 아니 어떤 사회가 만국의 빛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이타利他주의가 생활화된 사회라면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건대, 인류사人類史에서의 이타주의 전범典範은 대속代贖사상(곧, 하느님 예수가 인류를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 보혈寶血로 만민의 죄 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그리스도교 교의)이고, 그리고 그 맹아는 유대교의 희생양犧牲羊 의식이다. 그렇다면, 탐라 대속사상의 맹아는 후술할 <관덕정과 솥장수>(당해 전설에 의하면, 관덕정은 젊고 순박한 솥장수의 죽음의 대가로 창건되었다고 함)에 등장하는 바로 그 솥장수의 희생정신이 혹여 아닐까? 아니, 그 맹아는 어쩌면 후술할 <이어도>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어

도 전설에 의하면, 이어도는 '있는 자의 있음이 넘침 없고 없는 자의 없음이 모자람 없는 세상'이라 하니 말이다. 하기야, 이런 세상이라면 대속사상(예: 대속적代贖的 사랑, 이타주의)이 생활화된 사회, 즉 만국의 빛이 되기에 손색없는 사회일 것이다. 참, 이런 맹아를 탐라민중의 꿈의 표출이며 열망의 발로인 역사적 전설 이면에서 찾아내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부언하면, 지배자(예: 정치인)가 제시하는 이상은 만국의 빛이 될 수 없다. 지배자란 민중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자기 지배권을 확보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탐욕가이니까. 이는 탐라를 만국의 빛(곧, 이어도)으로 만들 수 있는 자는 오직 민중뿐이라는 말이다. 예의 그 노인이 성주바위에서 나와 애기업은여자바위로 들어간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이어도**는 탐라민중 꿈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탐라민중은 근 천 년 간 외세와 외세 협력자들의 핍박에 시달리며 오매불망 이어도를 그렸다(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애기업은여자바위**는 미래의 탐라 왕권(곧, 이어도 구현具現 주역인 탐라민중 주권)을 상징한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예: 애기업은여자바위)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여자와 아이가 죽어 돌이 되는 것'은 당해 설화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탐라라는 일정 지역에서만 구전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성주바위 · 애기업은여자바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몽골군 만행, 즉 탐라민중 수난사에 관한 것이니까.

Ⅳ. 지난날 탐라민중은 지배층(곧, 외세와 그 협력자들)의 불의한 처분에 맞서 종종 민란을 일으켰다. 이 장章에서 다루는 역사적 전설

들 대부분은 바로 그 민란들이 투영되어 있는 것들이다.

Ⅴ. 전설이론은 말한다. 전설의 전범典範이자 이상理想은 '꿈 있는 비극'이라고. 이는 전설다운 전설은 '꿈 있는 비극'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설발생 동인動因인 인간 삶이란 한편 꿈꾸는(곧, 꿈으로 좌절을 극복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비극이니까. 물론 여기서의 비극은 단순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일상적 의미의 용어가 아니라 비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미학적 의미의 용어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은 가히 전설의 전범이자 이상이라 함직한 것인 셈이다. '주인공 여자와 아이가 함께 죽어 돌이 되는 것'은 '민중의 좌절 · 패배 등', 즉 비극(이는 말초적 비극이 아니라 원초적 비극임)이고, '그 여자와 아이가 때가 차는 날 소생하는 것'은 '민중의 구원 열망', 즉 꿈이니까.

Ⅵ. 전설이론은 또 말한다. 전설은 증거물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이는 당해 전설 존립 여부는 그 증거물 '애기를 업은 것 같은 형국의 돌무더기' 존립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애기업은여자바위(곧, 일여덟 개의 돌덩이로 된 돌무더기) 일대의 잦은 산사태로 그 바위 존립이 위태로워 보인다. 그럼, 탐라의 꿈, 좌절, 정신 및 민중사가 어려 있는 그 바위와 그 바위 관련 전설이 조만간 산사태로 흡사 망국 탐라 역사처럼 가뭇없이 소실되어 버리는 것은 혹여 아닐까? 불현듯 930억 원짜리 위신僞神 설문대할망 신화관이 뇌리를 스친다. 아울러, 선인들 꾸짖음도 뇌리를 스친다. "ᄌᆞ냥 ᄒᆞ라, 큰 양 말앙!" 부언하면, 당해 전설은 어떤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창작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창작된 이상 그 사실史實에 연연하지 않는다. 즉,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 전설은 역사가 아니라 문학, 게다가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말로 된 것, 즉 구비문학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설에서의 핵核(곧, 불변부분인 핵심 화소)마저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전설에서의 핵은 증거물에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증거물은 당해 전설의 본질이니까. 이는 핵이 없으면 과육이 있을 수 없듯이 증거물이 없으면 전설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증거물이 사라지면 전설도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말이다. 그러

고 보면, 전설 구전口傳이란 전설에서의 핵을 제외한 과육(곧, 가변부분인 여타 화소)을 풍부하게 해 주는 창작 행위이자, 나아가서 전설 이면의 정신을 심화시키고 구체화시켜 주는 창작 행위인 셈이다.

Ⅶ. 당해 전설의 오늘날의 존재의의는 그 이면의 두 가지 정신(곧, 장두 정신과 민중주권 사상)이다. 생각건대, 이 두 정신은 전술한 주냥 정신, 그리고 후술할 솥장수 정신 · 모흥毛興 정신 · 이어도 정신 등과 더불어 가히 탐라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내세움직한 것들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장두정신은 1900년대 중엽에 탐라사회 일각에서 스승 역할을 한 김봉옥이 맨 처음 제시한 용어이다. 그는 틈만 나면 장두정신을 왕조시대 탐라민중이 외세와 외세 협력자의 핍박(곧, 불의 · 부당 등)에 항거한 정신이라며 자신의 제자 · 후학 등에게 피력하곤 했다. 내처 말하면, 탐라설화 중에서 장두정신을 가장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이다. 그리고 설문대할망 말뜻은 '설만두고雪曼頭姑'(뜻: 서럽게 이끄는 여자)이고, 세명뒤할망 말뜻은 '사만두고沙曼頭姑'(뜻: 억척스럽게 이끄는 장두 여자)이다. 이는 설문대할망(곧, 세명뒤할망)은 '민란 선봉'(곧, 장두)이자, 나아가서 '핍박받는 탐라민중의 상징'이라는 말이다(이는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부언하면, 설문대할망(곧, 세명뒤할망)을 두고 모계사회 여신女神 운운하는 자들은 말한다. 설문대할망 말뜻은 '미상未詳'이라고. 아니, 주인공 설문대할망의 말뜻도 모르면서 어찌 설문대할망 설화를 신화라 단언한단 말인가? 참, 설문대할망 설화(곧, 전설)를 신화라 왜곡하는 것은 설화를 왜곡함으로써 민중사(곧, 탐라민중의 참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칠성골>

여기서의 칠성골은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 · <칠머리라는 지형>에서의 바로 그 칠성골이다.

❶ 칠성七星골은 본디는 '**탐라도읍 一都(또는 徒) · 二都 · 三都**'를 지칭했

다. 환언하면, '칠머리 중심부인 넷째 용머리(곧, 탑동 먹돌왈 샘터 일대) 인근 남쪽 지대'를 지칭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칠머리의 셋째 용머리(곧, **산저천**)와 다섯째 용머리(곧, **병문천**) 사이에 구축된 **탐라성**耽羅城(곧, 훗날의 제주성) 안', 즉 '성내城內'를, 이어 '제주목濟州牧 안', 즉 '모관(←목牧 안)'을 지칭했다. 그러다가, 훗날은 지칭 지역이 확대되어 3군(곧, 제주군 · 정의군 · 대정군) 체제, 즉 제주목濟州牧 체제하에서의 제주군을 지칭하기도 했다. / 한편, 칠성골에서의 '칠성'은 북두의 일곱 별 형국을 본떠 축조해 놓은 **칠성도**七星圖(곧, 일곱 기의 **사직단**社稷壇) 또는 그 이칭異稱들(곧, 속칭 **칠성대**七星臺 · **칠성단**七星壇)에서 유래되었다. / 다른 한편, '칠성골을 다스리는 자'(곧, 탐라국 임금)는 북두칠성 상징인 사직단 일곱 기의 주관자主管者란 의미로 성주星主(곧, 북두칠성의 주인)라 불리기도 했다.

❷ 삼을나는 자신들이 용출聳出한 모흥혈을 하늘의 북극성으로 보고 자신들 터전인 칠성골에다 북두성 형국을 본떠 칠성도를 쌓았다.

❸ 모흥혈은 북극성에, 그리고 칠성골은 북두성에 해당한다.

❹ 묵은 푹낭(팽나무)이 칠성골의 칠성도(곧, 사직단) 일곱 자리마다에 한 그루씩 있었고, 그리고 지신과 곡신을 위한 제향(곧, 국가 의식)이 바로 그 푹낭들 밑에서 매년 칠석을 전후한 보름 동안 거행되었다.

❺ 칠성골의 칠성도는 오늘날의 지번으로는 일도동에 4기基, 이도동에 1기, 그리고 삼도동에 2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상은 필자가 중학생 시절에 제주시 일도2동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탐라도읍 一都(또는 徒) · 二都 · 三都**에서의 '一 · 二 · 三'은 한자어이고, '都(또는 徒)'는 고유어 '내, 닉, 노, 나 등'(뜻: 땅, 곳, 영토, 나라 등)의 차자借字이다. 그러고 보면, '一都 · 二都 · 三都'(곧, '한자어+차자')는 본디의 '고유어+고유어'(예: '첫째 내 · 둘째 내 · 셋째 내')가 '한자어+고유어'(예: '一내 · 二내 · 三내')를 거쳐 등장한 것인 셈이다.

**산저천**에서의 '저底'는 오늘날은 '지池'(또는 '지地')로 와전되고 있다. 이런 사소한, 아니 결코 사소하지 않은 와전들로 인해 탐라의 역사 · 정체성 등이 와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부언하면, 작금의 탐라후예들은 걸핏하면 그럴싸해 보이는 청사진(예: '위대한 제주', '더 큰 제주')에 대해서 운운한다. 하지만 자기 족적(예: '제주 말뜻')은 외면한 채 그럴싸해 보이는 미래만 추구하는 것은 혹여 사상

누각이 아닐까? 삼라만상은 회귀하게 마련이라 했것다. 불현듯 선인들 말씀, 즉 "큰 양 말앙 ᄌᆞ냥 ᄒᆞ라!"란 가르침이 떠오른다.

**병문천** 하류 동안東岸은 지난날은 탐라성 서편 성벽과 인접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성벽도 그 곁의 병문천도 간곳없다. 즉, 그 성벽은 지난날 일제가 자신들 침략의 장애물이었다며 치워 없앴고, 그리고 그 내창은 위대한 제주를 건설하겠다는 작금의 제주인들이 주차장으로 쓰려고 복개해 버렸다. 뭐, 위대한 제주? 역사에 대한 의식마저 없는 사회가 위대성에 대해 운운하다니, 어불성설이다!

**탐라성**耽羅城은 제주성 전신이다. 이 성이 언제 · 왜 축조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니까. 생각건대, 그 축성築城은 아마도 탐라건국 초기인 모라毛羅 시절부터 조금씩 이루어졌을 것이다. 삼을나 신화가 들려주는 목축(곧, 우마)과 농경(곧, 오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즉 돌 많고 바람 거센 자연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다가, 왜구침입이 잦아진 14세기경부터 왜구침입에 대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1481), 『탐라지』(1653), 『증보탐라지』(1954) 등에 이 성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석축石築으로 높이는 11척, 둘레는 4,394척인데 1565년 개축 후에는 둘레가 5,498척이 되었다', '성城 출입구로는 동문 · 서문 · 남문이, 그리고 수구水口로는 남수구(가락쿠물 근처) · 북수구(산저물 근처)가 있었다', '1565년 이전에는 동문이 산저천 서안에 있어서 성문을 닫으면 가락쿠물(←가락굶물 / '굶'은 '구멍'임)과 산저물이 성 밖에 위치하게 되어 성안 사람들은 식수난에 처했다[예컨대, 을묘왜란乙卯倭亂 때(1555년) 왜구와 사흘 밤낮에 걸쳐 전투를 하느라 동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성안 사람들은 식수난에 허덕였음]', '을묘왜란 후 가락쿠물과 산저물을 성안에 두려고 기존 동문 일대 성벽을 산저천 동쪽의 고릉高陵(곧, 속칭 배부른동산) 일대로 옮겼고, 그리고 그 기존 성벽 자리에는 산저천 범람을 대비해 길이 551보步 · 높이 9척의 간성間城을 쌓는 동시에 사람들 통행을 위해 그 간성의 가락쿠물 근처와 산저물 근처에다 각각 소민문蘇民門과 수복문受福門을 두었다', '1847년에 수복문을 중인문重仁門이라 개칭했다' 등이 그 기록들이다. 한편, 일설은 전한다. 제주성 성벽은 오현단을 기점起點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환상環狀으로 되어 있었다고. "오현단 남쪽→ 남수각南水閣→ 구舊 영락교회 남쪽→ 일도교 북쪽→ 신산ᄆᆞ루→ 동문파출소→ 측후소→ 산지교→ 해직굴→ 구舊 코리아극장→ 송

신소 남쪽→ 북초등학교 북벽→ 진성동陳城洞→ 무근성[곧, '묵은(오래된) 성'] 네거리→ 서문로 네거리→ 서부교회 앞→ 구舊 현대극장 앞→ 구舊 도립병원 남쪽→ 남문 로터리→ 오현단 남쪽" 여하튼, 일제 강점기였다. 일제가 그 성벽 철거의 기치를 내걸자 제주민중이 저마다의 집 · 밭 등을 단장하겠다며 그 성벽의 돌들을 야금야금 가져가 버렸다. 그리하여, 오늘날 그 성은 '오현단 일대', '동문통東門統 주택가' 등지의 약간씩을 제외하고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칠성도七星圖**.『탐라지』[4]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七星圖 在州城內 石築遺址 三性初出分占三徒 倣北斗形築臺 分據之因名七星圖"[칠성도는 주성(곧, 탐라성) 안에 있는데 석축 흔적이 있다. 삼성(곧, 삼을나)이 처음 나와 3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칠성 형국을 따라 대(곧, 석축 일곱 기)를 구축했다. (그리고) 나누어 거처하니 칠성도라 일컬었다.] 이는 삼을나가 탐라국(곧, 모라毛羅)을 창건할 때 사직단으로 칠성도(곧, 북두성 형국을 본뜬 돌 제단 7기基)를 축조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모라건국 당시 탐라도 절해고도가 아니라 중국을 비롯하여 인접 지역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교류를 입증하는 것은 바로 회의자會意字 毛(←'三+乙')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에서 보다 뚜렷이 보이는 별들(곧, 큰곰자리의 허리 · 꼬리 부분에 해당된 별 일곱 개)로 국자 형국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두칠성을 이분하여 앞쪽 넷을 괴魁(머리), 뒤쪽 셋을 표杓(자루)라 한다. 내처 말하면, 괴 부분의 앞쪽 상 · 하 것은 천추天樞 · 천선天璇, 그 뒤쪽 상 · 하 것은 천기天璣 · 천권天權이라 하고, 그리고 표 부분의 첫째 · 둘째 · 셋째 것은 요광瑤光 · 개양開陽 · 옥형玉衡이라 한다. / 일설은 말한다. 훗날 불교가 전래하자 칠성도 일곱 기에는 칠원성군이 한 분씩 모셔졌다고. 칠원성군은 불교에서 이르는 북두北斗의 일곱 성군星君으로 그 이름이 국자 머리 형국의 네 별은 탐랑貪狼 · 거문巨文 · 녹존祿存 · 문곡文曲이고, 국자 자루 형국의 세 별은 염정廉貞 · 무곡武曲 · 파군破軍이다. / 얼마 전이었다. 유서 깊은 속칭 칠성통七星統 상가에 '차 없는 거리'가 하나 조성되었다. 그런데 그 입구에는 기막히게도 '濟州七城路'란 현판이 내걸렸다. 아니, 탐라국의 초석(곧, 근본)들 중 하나인 '七星'이란 용

4)『耽羅誌』古跡條, 김두봉, 1933년

어를 '七城'으로 오기誤記해 놓다니!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지해서?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 치하 근 천 년 간 한반도인들이 탐라에서 해 버릇한 탐라 역사 · 정체성 등의 왜곡 · 말살 등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무튼, 기가 찰 노릇이었다.

**사직단**社稷壇은 지난날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건국 때 사社(곧, 지신地神)와 직稷(곧, 곡신穀神)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쌓던 제단이다.

**칠성대**七星臺 · **칠성단**七星壇은 예의 그 칠성도를 두고 여항간에서 일컫던 이칭異稱들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예: 칠성골)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탐라라는 일정 지역에서만 구전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칠성골 · 성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탐라도읍 칠성골, 탐라국왕 별칭 성주 등에 관한 것이니까.

Ⅳ. 위 ❷ · ❸ 이면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 있는 것이 혹여 아닐까? 탐라선조들이 모라건국 때 칠성골을 모흥혈 근처에 일정거리를 두고 조성한 것은 북두성이 북극성 주위를 일정거리를 두고 원을 그리며 도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는 암시 말이다. / 위 ❺를 두고 혹자는 말한다. 당해 지번들을 상대로 실측을 해 보니 북두칠성 형국과는 딴판이었다고. 생각건대, 그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가 아닐까? 여타 설화는 물론이고 역사적 전설도 역사가 아니라 문학이니까. 즉, 설화란 실증을 요하는 학문이 아니라 꿈을 추구하는 학문이니까. 그러고 보면, 그 실측은 부질없는 짓인 셈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혹자는 칠성도 · 성주 등에서 본격적인 천문학(또는 점성술) 따위를 연상한다. 지난날 탐라에 천문학 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일 따름이

다. 탐라가 고려 속국으로 전락한 938년 이후 근 천 년 동안의 탐라역사는 외세 핍박과 탐라민중 저항으로 점철된 비운의 역사라서 탐라후예들로서는 생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천문학 따위는커녕 민담조차 향유할 여력이 없었으니까.

<별도봉>

여기서의 별도봉은 전술한 <칠머리라는 지형>에서의 첫째 용머리 위(곧, 정수리 일대)에 얹혀 있는 오름이다.

❶ **칠머리 중 첫째 용머리**의 정수리 부분에 얹혀 있는 별도봉은 본디는 **정상에 왕관 형국의 분화구를 이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날 사람들은 이 오름을 탐라 제일의 영봉靈峰으로 여겼다. / 어느 해였다. 외세(곧, 육짓놈들)의 시새움과 해코지로 그 영봉의 북서쪽 비탈, 즉 그 첫째 용머리 한쪽 부분과 그 왕관 형국의 분화구 절반 이상이 바다로 무너져 내려서 별도봉은 그만 **영봉의 겉모양을 잃고 말았다**.

❷ 이른바 '**당 오백 · 절 오백**'이 짓밟히던 어느 해였다. **해마다 칠석七夕이면 칠성골의 칠성도(곧, 사직단)에서 거행하던 제향祭享**을 반군이 별도봉 북서쪽 비탈(곧, **성주바위 · 애기업은여자바위** 경내境內)에서 거행했다. 이에, **관군**은 그 **반군**을 일거에 몰살시키려고 별도봉 북서쪽 굽을 파헤쳐 산사태를 일으켰다. 바로 그 산사태가 빌미가 되어 별도봉은 갈수록 **영봉의 모습을 잃어 갔다**.

❸ 일설은 말한다. 지난날 **성주**가 승하昇遐하면 그 넋은 속칭 **칠머리 앞바다를 수호하려고** 그 영봉 북녘 벼랑 위의 성주바위 일대에 깃들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봉을 성지聖地, 즉 '성별聖別된 산'이란 의미로 별도봉別刀峰이라 불렀다. 별도봉에서의 별도別刀의 뜻은 '(성스러운 일에 쓰려고) 특별히 칼로 자르다'이다.

—이상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주시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칠머리 중 첫째 용머리**는 <칠머리라는 지형>에서 상술했다.

**정상에 왕관 형국의 분화구를 이고 있었다**란 말의 진위眞僞, 즉

별도봉 정상에 분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설과는 무관하다. 전설은 증거물(여기서는 '별도봉 정상')의 지난날 형국이 아니라 현재 형국에 관한 것이니까. 따라서 당해 전설에 관한 한 현재의 별도봉 정상 형국이 지난날 분화구가 있었던 듯이 보이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이 의도하는 바는 증거물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증거물에 의거하여 민중의 꿈을 표출하려는 것인 셈이다. 전설이란 궁극적으로는 현상現象(곧, 사실 · 역사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곧, 민중의 꿈 · 좌절 등)에 관한 것이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오늘날 혹자는 별도봉을 '말굽형 오름'으로 분류한다. 그 정상 형국이 말굽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이다. 생각건대, 오늘날 오름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같이 지난날은 정상에 분화구를 갖고 있었던 것이 혹여 아닐까? 작은 규모의 것이든 큰 규모의 것이든 말이다. 그러다, 장구한 세월 동안의 비바람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그 분화구들이 허물어지고 쓸리고 깎여서 오늘날 어떤 것들은 '말굽 형태'를 이루게 되고, 어떤 것들은 '솔박(일종의 바가지)을 엎어놓은 것 같은 봉곳한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닐까?

**<u>영봉의 겉모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u>**, **<u>영봉의 모습을 잃어 갔다</u>**. 전자는 위 ❶의 화소이고, 후자는 위 ❷의 화소이다. 그리고 전자의 동인動因으로는 '외세의 시새움과 해코지'가, 후자의 동인으로는 '관군이 일으킨 산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동인 구별은 어쩌면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른다. 탐라역사에서 이 땅의 관은 늘 외세의 수탈 창구 노릇을 하면서 토박이 민중을 간단없이 핍박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영봉의 모습을 잃다'란 화소에는 꿈을 잃어버린 민중의 좌절이 투영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당해 전설들은 '꿈을 상실한 비극'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당해 전설 속 민중은 왜 꿈을 잃고 좌절해 버린 것일까? 돌이켜보면, 탐라는 고려 태조 21년(938) 한반도에 조공하기 시작했고, 고려 숙종 10년(1105) 국호 모라毛羅를 상실했다. 그리고 고려 희종 8년(1211)경 '탐라'(곧, 왕후지지)라는 자주적인 명찰 대신 '제주'(곧, 고려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라는 굴욕적인 명찰을 달게 되었다. 게다가, 조선 세종 27년(1445) 도주관부 폐지로 탐라 자주독립 상징인 '성주'라는 칭호마저 한반도 출신 제주지방관

별칭으로 쇠락해 버리고 말았다. 한편, 제주인으로, 아니 제줏놈(곧, 무지몽매한 섬 오랑캐)으로 영락해 버린 탐라후예들은 한반도 조정의 무단통치(예: 출륙금지령 · 제주자제 등) 탓에 삶이 곧 고통인 나날을 죽지 못해 견뎌내야만 했다. 바로 그래서 이 땅의 토박이들은 꿈을 잃고 좌절해 버린 것이다. / 참, 시간이 흐르면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인간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인간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민중의 삶과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민중의 삶과 꿈이 달라지면 그 반영인 전설도 으레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동일 공동체 내부에서 위 ❶ · ❷ · ❸처럼 '동일한 증거물을 소재로 한 유사한 전설들'이 전승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당 오백 · 절 오백**은 <당 오백 · 절 오백>에서 상술한다.

**해마다 칠석七夕이면 칠성골의 칠성도(곧, 사직단)에서 거행하던 제향祭享**은 일설에 의하면 조선조 억불숭유정책을 계기로 탐라성(곧, 제주성) 밖 두 지점, 즉 '건입동 고릉高陵(곧, 후술할 <칠성본풀이>에 등장하는 속칭 배부른동산)의 현 제주지방기상청 근처'와 '용담동 한천[大川] 하류의 용연 근처'로 옮겨 한두 번씩 거행되었고, 이어 '별도봉 북서쪽 비탈'(곧, 속칭 성주바위 · 애기업은여자바위 경내)로 옮겨 한두 번 거행되다가 김녕리 뱀굴을 경유하여 송당 일대로 옮겨 한동안 거행되더니 예의 그 반군 소멸과 더불어 소실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는 이 제향이 조선조 억불숭유정책의 표적이 되어 탄압을 받았다는 말이다. 제주성 밖, 나아가서 산간 오지로 거듭하여 밀려났다 하니 말이다. (이는 후술할 <김녕 뱀굴> 참조)

**성주바위 · 애기업은여자바위**는 <성주바위와 애기업은여자바위>에서 상술하였다. 참, 이 두 바위는 서로 등을 돌린 채로 자리 잡고 있다. 마치 기득권층과 민중이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맞서듯이. 한편, 성주바위는 소위 돌하르방처럼 생긴 암석 1기基로 가파른 벼랑에 위태롭게 돌출되어 있고, 그리고 애기업은여자바위는 예닐곱 개의 돌덩이가 흡사 민중인 양 일체(곧, 한 덩어리)를 이룬 채 예의 그 벼랑 근처 동남쪽 빌레왈(곧, 암반 지대)에 단단히 박혀 있다.

**반군**은 후술할 <김녕 뱀굴>에 등장하는 반군(곧, 승려 · 무격巫覡을 중심으로 한 민중)일 것이다.

**관군**은 후술할 <김녕 뱀굴>에 등장하는 관군(곧, 유림儒林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일 것이다.

**성주**는 <성주>에서 상술하였다.

**칠머리 앞바다를 수호하려고**는 '탐라국을 수호하려고'이다. 칠머리 앞바다는 지난날은 외세가 드나들었던 탐라 관문이었으니까.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별도봉)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별도봉이 영봉의 모습을 잃은 것'은 당해 설화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탐라라는 일정 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별도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관군과 반군'(또는 '외세와 토박이')의 투쟁사鬪爭史에 관한 것이니까.

Ⅳ. 마치 쌍봉인 양 나란히 솟아 있는 별도봉과 사라봉은 탐라도읍 칠성골(곧, 일도 · 이도 · 삼도) 형성 때부터 1950년대까지의 근 이천 년 간 출(꼴)로 온통 뒤덮인 출왈(꼴밭)이었다. 즉, 칠성골 일대 우마를 위한 출 공급지였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0년대 초엽부터 산림녹화를 한다며 초·중등학생들을 동원하여 그 두 오름에다 수차에 걸쳐 소나무를 심어 놓았다. 하지만 식재만 해 놓고 가꾸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출왈은 오늘날은 소나무 · 잡목 · 가시덤불 · 덩굴식물 등이 마구 뒤섞여 있는 볼품없는 야산으로 변모해 있다. 참, 출왈 흔적이 지금도 별도봉 북동쪽 기슭에 드문드문 남아 있다. 흡사 탐라국 흔적인 양. 내친김에 말하면, 그 두 오름은 지난날은 물이 많은 탓에 질퍽질퍽한 부분이 많아서 제철만 되면 어김없이 두루미 · 해오라기 같은 철새들이 찾아들어 일대 장관을 이루곤 하던 철새 도래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풍부했던 물이 가뭇없

이 말라 버렸다. 그래서 요즘은 그 철새들도 발길을 끊었다. 돌이켜 보면, 이 오름들 일대 용천(곧, 지하수)이 마르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였을 것이다. 그 정권은 일제의 지하수 개발정책을 이어받아 이 땅의 지하수 개발을 지나칠 정도로 적극 권장했으니까. 이를테면, 지하수 주인인 주민들은 오염된 빗물마저 사용하는 판국인데 외화外貨 절약이라는 미명하에 사기업(곧,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이 땅의 지하수를 팔아먹도록 허락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작금의 한반도 정부도 왕조시대 한반도 정부가 그랬듯이 탐라후예를 '제줏놈'(곧, 한반도 구제를 받아야 할 열등한 섬 오랑캐)으로 하시하며 핍박하고 있는 셈이다. 부언하면, 지난날 탐라도읍 칠성골 주민을 위한 해산물(곧, 염분) 공급처였던 소위 탑동 먹돌왈도 한반도 기업에 의해 매립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가뭇없다. 그러고 보면, 한반도는 왕조시대 내내 견지해 온 '칠성골 흔적 지우기', 즉 '탐라국 역사 지우기'를 요즘도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탐라후예들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곧, 탐라후예가 오매불망 그려 온 이어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숙고하며 처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그런 작태에 어리석고 비굴하게도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Ⅴ. 지난날 탐라의 외세는 '육짓놈'이었다. 하지만 지구촌이 하나가 된 지금 탐라의 외세 개념은 그만 달라져야 한다. 즉, '밖에 있는 자'가 외세라는 개념은 이제는 불식되어야 한다.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듯이 처신하는 자도 그 역逆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로, 탐라의 외세는 이제는 탐라의 자연 · 설화(곧, 설화 이면의 이상 · 민중의식 · 민중사 등) 등에 역행하는 자여야 한다. 물론 탐라민중은 탐라에 순행하는 자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역행하는 자는 지난날의 그 적대감으로 초지일관 저항하고 배척해야 한다.

Ⅵ. 무릇 지금은 통합의 시대이다. 그러니, 외부를 향해 활짝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미구에 반드시 대재앙이 닥칠 것이고, 이어 분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울러, 지구상 도처에서 공동체들 간에 생존을 위한 투쟁이 치열히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탐라 공동체도 타他 공동체들처럼 하릴없이 생존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탐라후예들에게 그 결속의 구심

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탐라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설화'(곧, 삼을나 신화 · 역사적 전설들 등)일 것이다. 탐라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설화 이면에는 탐라민중 공동체의 동질성 확보 · 유지 등을 위한 민중사 · 민중의식 · 이상(곧, 꿈) 등이 들어 있으니까.

<아흔아홉골; 백골>

여기서의 아흔아홉골(곧, 백골)은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거인(또는 호랑이) 심장'에 해당하는 아흔아홉골(곧, 백골)이다.

❶ 한라산 북북서 비탈에 **백골** 또는 **아흔아홉골**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 지역 안의 기봉奇峰들 · 골짜기들이 멀리서 보면 흡사 무수한 밭이랑 · 밭고랑 같은 형국을 하고 있어서이다. / **외세** 압제가 극심하던 어느 해였다. 탐라국 재건(곧, 독립)에 뜻을 모은 **저항세력이 외세를 탐라에서 몰아내려고 들고일어나 황새왈에 집결했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전열을 갖춘 후 모흥혈을 경유하여 칠성골로 진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외세에 밀려 한라산으로 퇴각했고, 급기야 백골에서 포위되어 섬멸되었다. 바로 이때 골짜기 하나가 그 시신들로 메워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골은 아흔아홉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❷ 일설에 의하면, 아흔아홉골의 골짜기는 본디 백 개였고, 그리고 그때 한라산에는 범 · 곰 · 사자 등등 갖은 맹수가 들끓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몽골국 사신이 탐라로 건너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맹수를 없애어 줄테니, **대국大國 동물대왕 입국入國**이라고 외치시오." 이에, 사람들은 맹수를 없애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외쳤다. 그러자 어찌된 영문인지 맹수들이 백골의 한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한편, 그 사신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서둘러 그 맹수들에게 호령했다. "탐라를 떠나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을 없애리니 다시는 여기에는 얼씬거리지 마라.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을 멸하리라**." 연후에, 그 사신이 주문을 외자 그 맹수들은 그 골짜기와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리하여, 탐라에는 더는 **맹수가 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백골**은 **아흔아홉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상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주시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백골**, **아흔아홉골**. 위 ❶에서의 백골의 '백'도 아흔아홉골의 '아흔아홉'도 공히 '무수히 많음'을 뜻한다. 한편, 위 ❷에서의 백골의 '백'은 '주권 · 임금 · 완전함 등'을, 아흔아홉골의 '아흔아홉'은 '아쉬움 · 모자람 · 주권 상실 등'을 뜻한다. 참, 지난날 탐라인들은 골짜기도 구릉 · 내창 따위처럼 '위대한 무엇'(예: 용龍) 취급을 했다.

**외세**는 여기서는 몽골군이다.

**저항세력이 …… 황새왈에 집결했고 …… 모흥혈을 경유하여 칠성골로 진격했다**. 지난날 탐라에서 민란이 나면 저항세력(곧, 민군民軍)은 일단 황새왈에 집결한 후 모흥혈을 경유하여 칠성골(곧, 외세와 그 협력자들의 근거지인 제주성)로 진격했다. 이는 바로 "황새왈은 하늘의 중심이요 모흥혈은 북극성이요 칠성골은 북두성이다" 또는 "황새왈은 뿌리요 모흥혈은 줄기요 칠성골은 가지 · 잎 · 열매이다"라는 구전 때문이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근간을 먼저 밟고 나면 지엽은 보다 쉽게 밟을 수 있으리라는 민중의식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탐라국호 모라를 폐한(1105년) 한반도 조정은 탐라에서 무단통치로 일관했다. 그러다, 탐라민중의 잦은 민란 탓에 출륙금지령 공포(1434년, 세종 16) 14년 후인 1448년(세종 30) 한반도 조정은 마지못해 무단통치 종식을 표명하고 문화정치 실시 징표로 관덕정을 창건했다. 하지만 일단 고착화된 무단통치는 좀처럼 불식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방관 수탈이 관례화되어 있어서였다. 한편, 탐라민중은 그 무단통치 탓에 삶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그래서 탐라민중은 살 길이란 민란뿐이라 여겨 종종 들고일어나 황새왈으로 집결했고 모흥혈을 경유한 연후에 외세 수탈 창구 노릇을 하는 칠성골(곧, 제주성)로 진격했다. 그리고 제주성을 공략하여 간혹 불바다로 만들었다. 참고삼아 말하면, 탐라에서 '황새왈 집결→ 모흥혈 경유→ 칠성골(곧, 관아 소재지인 제주성) 공략'의 과정을 밟은 맨 마지막 민란은 속칭 '이재수의 난亂(1901년)', 즉 신축교난辛丑敎難이다.

**대국大國 동물대왕 입국入國**에서의 '대국'은 몽골제국(곧, 원元)이고, '동물대왕'은 몽골왕(곧, 원 황제)이고, 그리고 '입국入國'은 탐라 점령

(곧, 접수)이다. 물론 여기서의 동물대왕은 세조 쿠빌라이일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을 멸하리라**는 '만일 탐라인들이 또 항거하면 탐라인이란 종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뜻이다.

**맹수가 살지 않게 되었다**는 '몽골에 저항하는 자가 더는 출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백골 · 아흔아홉골)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백골이 아흔아홉골로 된 것'은 당해 설화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백골(곧, 아흔아홉골) 형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몽골 침입으로 말미암은 탐라민중 수난사에 관한 것이니까.

Ⅳ. 위 ❶과 ❷는 본문 내용이 언뜻 달라 보이지만 실은 동일한 전설들이다. 양자의 증거물이 백골(곧, 아흔아홉골)로 동일하니까. 게다가, ❶에서의 저항세력이 곧 ❷에서의 맹수들이니까. 그런데 하나의 전설이 왜 이렇듯 상이한 형태로 구전되고 있을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민중이 처한 '삶의 자리'(Sitz-im-Leben)[5], 이를테면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황 따위가 때로는 ❶과 같은 직접적인(곧, 직설적인) 표현을, 때로는 ❷와 같은 간접적인(곧, 함축적인) 표현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중 공동체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지배층의 압제로 각박해지면 지배층의 감시를 일단 모면하려고 함축적인 표현을,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지배층의 압제 완화로 한결 윤택해지면 내친걸음에 지배층의 감시에서 아주 벗어나려고 직

5) 『성서비평사전』, 정태현 편역, 성서와 함께, 1993년, 96-97쪽

설적인 표현을 요구하기도 하니까. 참, 화자의 문학적 소양 · 상상력 · 성향 등도 상이한 형태의 동일한 전설을 산출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청자였던 성인 화자가 전설을 구술할 때에는 통상 자신이 지난날 얻어들은 줄거리(예: 핵심화소 등)에다 자신의 삶의 자리나 연륜 따위를 덧붙여 재구성(곧, 창작)하려 들 테니까.

Ⅴ. 위 ❶ · ❷는 전설의 전범이며 이상인 '꿈 있는 비극'이 아니라 '꿈을 상실한 비극'이다. '백골'이 '아흔아홉골'로 불리게 되었으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외세는 탐라인의 꿈을 박탈하려고(예: 탐라독립에 대한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갖은 농간을 다 부렸다. 이를테면, 탐라국이 자주독립국이었음을 부정하면서 탐라는 예로부터 절해고도였다고 강변하기도 하고, 또 탐라는 탐진의 '탐'과 신라의 '라'에서 유래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또한, "망아지는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 "제주에서 나긴 뭐가 나?", "제주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린다!", "제주 남자는 좁쌀영감이다!", "제줏놈이 하긴 뭘 해?" 따위의 멸시나 조소 어린 악담도 서슴없이 뇌까렸다. 참, 외세(곧, 소위 육짓놈들)는 출륙금지령이나 4·3사건 같은 핍박도 거듭거듭 저질렀다. 한편, 제줏놈들은 육짓놈들의 그런 핍박 아래서 갈수록 절망감 · 패배감 · 좌절감 · 자괴감 등에 휘말렸고, 급기야는 불안감 · 공포심 · 열등의식 · 자기 비하 · 의타심 등에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툭하면 자조적인 냉소를 흘리며 불쑥불쑥 내뱉곤 했다. "제줏놈은 안 돼!"라고. 참, "육짓놈 왐저 ᄒᆞ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쳣주!"라는 한 맺힌 넋두리도 뇌까리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제줏놈들은 육짓놈들의 의도대로 꿈을 상실한 채 자의 그대로의 제줏놈(곧, 구제해야 할 고을의 섬 오랑캐)으로 아주 영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튼, 당해 전설은 '꿈을 잃은 비극'이다. 이는 당해 전설 향유 공동체인 탐라민중이 꿈을 상실해 버렸다는 말이다. 전설이란 일종의 민중사民衆史(곧, 꿈꾸며 좌절하고 좌절하며 꿈꾸는 민중 공동체의 삶의 기록)이니까.

Ⅵ. 전설은 해석을 요한다. 아니, 기다린다. 전설이 해석을 기다리는 것은 요즘처럼 거의 모든 전설이 문헌화(곧, 화석화)되어 버린 시대에는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 문헌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즉, 화석화 상태(곧, 죽어 딱딱해진 껍질)에서 되살아나고 싶어서. 나아가서, 영원히 미완성인 채로 끊임없이 자라나는 말로 된 것이라는 자기 특성을 구현시키고 싶어서 말이다. 한편, 전설 해석이란 민중이 기존 전설에다 '자신들의 삶의 진수', 즉 '꿈과 좌절'을 투영시켜 놓는 일종의 창작 행위이다. 그런데 전설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설을 해석한답시고 증거물(또는 핵심화소)을 첨삭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증거물(또는 핵심화소)은 가변요소가 아니라 불변요소(곧, 전설의 근간 또는 본질)이니까. 물론 증거물이 상이한 전설은 동일한 전설일 수 없다. 이는 증거물 첨삭(곧, 조작 · 날조 등) 전후의 양 전설은 동일한 전설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여하튼, 전설 해석에서 증거물 첨삭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혹자는 어리석게도 증거물을 첨삭한다. 이를테면, '오름 형성'이라는 제하의 설문대할망 전설에서 증거물은 오름인데 혹자는 설문대할망 전설을 신화화하려는 일념 아래 한라산도 증거물(곧, 오름)에다 포함시킨다. 즉, 한라산을 오름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짓이요 천부당만부당한 짓이다. 설화란 민중의식의 발로인데 '한라산을 오름으로 취급하는 것'은 당대 제주 민중의식에 반하는 처사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 항간에서는 개간 불가능한 산인 한라산 · 산방산 · 영주산 · 두럭산 · 성산 및 산소山所는 산이라 불렀고, 그리고 위 여섯을 제외한 산들(곧, 개간 가능한 산)은 오름이라 불렀으니까.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작금의 설화연구가들에 의한 왜곡(곧, 오류)인 셈이다. 물론 설화는 설화연구가들 연구의 소산이 아니라 민중 집단의식의 소산이라서 결단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는 오류를 범한 설화는 설화연구가들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날조된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증거물이 한라산인 설문대할망 이야기(곧,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증거물이 오름인 설문대할망 전설(곧, 설문대할망이 오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과는 달리 설화說話가 아니라 한낱 설화屑話에 불과한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한때 제주민중은 '화전火田으로 쓸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거하여 산과 오름을 구별했다. 즉, 화전으로 쓸 수 없는 것(곧, 위 여섯 개의 산)은 산으로, 그리고

화전으로 쓸 수 있는 것(곧, 위 여섯 산 이외의 산들)은 오름으로 불렀다. 내처 말하면, 출륙금지령 실시 당시 화전은 탐라민중에게는 생존을 위한 제일 터전(곧, 삶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었다. 출륙금지령 실시 이전에는 바다가 제일 터전이었고, 화전은 부차적인 터전에 불과했었는데 말이다. (이는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황새왈>

여기서의 황새왈은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거인(또는 호랑이) 명치'에 해당하는 바로 그 황새왈이다.

**황새왈**은 예전에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마치 누런 빛깔의 깁을 펼쳐 놓은 것처럼 누렇게 마른 억새로 뒤덮이는 황량한 벌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벌판을 '누런 깁의 왈', 즉 '황사黃紗의 왈'이란 의미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황새왈의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황새왈은 **탐라국조 삼을나 선조들 터전**이었다. 즉, 탐라 선조들은 황새왈 한복판의 샘터가 **천중天中**에 상응한다고 보고서 **그 근처에 굿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일월성신과 황구렁이를 섬기며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벌판을 '황구렁이黃蛇의 왈'이란 뜻으로 '황새왈'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이래로 사람들은 그 벌판을 성지聖地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탐라국이 멸망했다. 그러자 탐라후예들은 날로 외세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종종 외세에 항거하여 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외세와 한통속이 되어 동족을 수탈하는 자들을 나포하여 **그 벌판으로 끌고 가 효시했다**. 그러다 보니, 흰 모래땅이던 그 벌판, 아니 '성역聖域 표시로 흰 모래를 깔아 놓은 그 벌판 굿당 일대'가 피에 찌들어 누렇게 변해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 벌판을 '누르스름한 모살왈', 즉 '황사黃沙의 왈'이란 뜻으로 '황새왈'이라 불렀다. 일설에 의하면, 황새왈은 뿌리이고, 모흥혈은 줄기이고, 그리고 칠성골은 가지 · 잎 · 열매 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란이 나면 민군民軍은 일단 황새왈에 집결한 후 모흥혈을 경유하여 칠성골로 진격하는 관행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주시 일도2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황새왙**(일명 황사평黃蛇坪)에서의 '왙'은 밭['밭>뱥>왙'(ㅂ>ㅸ>오/우) / 예: 꼴밭>촐왙, 모래밭>모살왙]이고, 그 뜻은 들[野]이다. 혹자는 '왙'을 '왓'으로 쓴다. 이는 잘못이다. "촐왙의(꼴밭에) 감저(간다)"에서의 '촐왙의(꼴밭에)'의 발음은 '촐와싀'가 아니라 '촐와띄'이니까.

**탐라 국조 삼을나 선조들 터전**. 탐라건국 시점의 상한선은 아마도 진秦나라 방사方士 서불徐芾, 즉 서복徐福이 동남동녀 수백(또는 수천) 명을 거느리고 이 땅에 도래한 기원전 220년경일 것이다. 한편, 그 무렵 이 땅에는 다수의 씨족 집단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단들 중 하나가 황새왙을 터전 삼아 살았을 개연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이때의 서불 일행에 의해 한자 · 풍수지리설 · 점성술 등이 이 땅에 전래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때 전래된 한자가 밑거름이 되어 국호(곧, 耒) · 성씨(곧, 高 · 良 · 夫) 등이 움트게 되었을 것이다.

**천중**天中의 사전적 정의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하늘의 한가운데'이다. 아무튼, 여기서의 천중은 "황새왙은 하늘의 중심에, 모흥혈은 북극성에, 그리고 칠성골은 북두성에 상응한다"라는 옛말에서의 '하늘의 중심'일 것이다. 참,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은 전한다. 한라산 북녘 비탈에 거인(또는 호랑이) 형국 지형이 있는데 황새왙은 바로 그 거인의 명치에 해당된다고.

**그 근처에 굿당을 지어 놓고 거기서 일월성신과 황구렁이를 섬기며 살았다**. 나라(곧, 모라)를 창업하면서 북두칠성 형국을 본떠 칠성도를 구축한 것은 아마도 일월성신日月星辰 신앙의 소산일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에서의 황구렁이의 호칭이 칠성七星인 것도 뱀(곧, 황구렁이) 신앙 · 일월성신 신앙 등의 소산일 것이다(이는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 참조). 내처 말하면, 지난날 한때 이 땅에 소위 '칠성 신앙'이란 것이 있었다. 물론 칠성 신앙도 일월성신 신앙 · 황구렁이 신앙 따위의 흔적일 것이다.

**그 벌판으로 끌고 가 효시했다**의 또 다른 사례로 다음 구전을 들 수 있다. "탐라에서의 왕조시대 맨 마지막 민란(곧, '이재수의 난') 때에 민군이 천주교도 십여(?) 명을 '법국法國 연놈', 즉 '외세 앞잡이'란 낙인을 찍어 놓고 이 벌판으로 끌고 와 효시했다."

**민란이 나면 민군民軍은 일단 황새왈에 집결한 후 모흥혈을 경유하여 칠성골로 진격하는 관행이 생겨났다고 한다**. 민란 때 민군이 일단 황새왈에 집결한 것은 뿌리에 해당하는 황새왈을 먼저 밟으면 줄기에 해당하는 모흥혈을, 나아가서 가지 · 잎 · 열매 등에 해당하는 칠성골을 밟는 것이 보다 수월하리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칠성골, 즉 제주성으로 진격한 것은 그 안에 관아(곧, 외세 통치 창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 일설은 전한다. 민란은 탐라국 멸망(1105년) 후의 탐라에서는 항다반사였다고. 부연하여 설명하면, 소규모 것은 2·3 년을 두고, 대규모 것은 7·8 년을 두고 반복되었다고. 여하튼, 위 진격 경로를 밟은 민란의 일례로 탐라에서의 왕조시대 맨 마지막 민란인 속칭 '이재수李在守의 난亂'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봉기를 민란이라 하는 데에는 어폐가 있다. 대정군수 채구석이 주동자였고, 대정향청 좌수座首 오대현과 대정군 관노官奴 이재수가 각각 그 봉기의 동군東軍과 서군西軍 선봉장이었으니까. 즉, 관官이 주도한 사건이었으니까. 따라서 이 사건 명칭은 민란 성격의 '이재수 난'보다 관 주도의 '채구석 난亂', 아니면 순교 성격의 신축교난辛丑敎難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봉기를 '신축년(1901) 박해', 즉 신축교난이라 한다. / 내친김에 말하면, 대정군에서 들고일어난 관 주도하의 그 민군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각각 한라산 동쪽과 서쪽의 해안 마을들을 돌며 세를 불렸고 마침내 황새왈에 집결했다. 그리고 이내 천주교도 십여 명(?)을 나포하여 황새왈 내 창 근처로 끌고 가 효시했다. 죄목은 '천주교도'였는데, 천주교도란 말은 당시에는 법국法國 연놈, 즉 외세 앞잡이라는 뜻이었다. 생각건대, 천주교도라는 사실은 당시 상황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천주교도들은 조선의 신분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했고, 여타 신앙 일체(곧, 유교 · 불교 · 무속 등)를 우상숭배라며 배척했으니까. 사실, 천주교의 이런 노선은 당시 제주사회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노선이,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노선이 그렇듯이 말이다. 참, 예의 그 천주교도 십여 명(?)이 효수된 자리 근처에 오늘날 천주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 내처 말하면, 그 봉기세력은 황

새왈을 거점으로 삼았고, 모흥혈로 이동했고, 그리고 모흥혈에 소위 예비대를 남겨놓고 재차 동군과 서군으로 편성되었다. 이어, 오대현이 이끄는 동군은 당시 군사 훈련장인 연무정演武亭(곧, 현 동초등학교 일원)으로, 이재수가 이끄는 서군은 속칭 향갯동산(곧, 향교鄕校가 있는 동산인 서문로터리 동편 비탈 일대)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그런 연후에 동군은 제주성 동문을, 서군은 제주성 서문을 공격했다. 그런데 관官은 한편 수성守城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천주교도들에게 수성할 의사가 있으면 수성하라며 관의 무기고를 천주교 측에 개방했다. 이에, 천주교는 수성의 전위前衛를 맡아 악착같이 방어했다. 그래서 그 동군 · 서군 공격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 와중에 이재수가 심방(곧, 무녀)과 기녀 각각 몇 명씩을 야음을 틈타 은밀히 개구멍으로 성안에 침투시켰고, 그리고 그들의 선동과 협박에 내몰린 성안 주민들의 소요로 성문은 결국 천주교 측에 의해 마지못해 열렸다. 이리하여, 관덕정 광장에서 이틀(양력 5월 28일 · 29일, 즉 음력 4월 11일 · 12일) 밤에 걸친 참극(곧, 삼백여 명의 천주교도 도륙)이 야음을 틈타, 아니 교교한 달빛 아래서 어처구니없게도 벌어졌던 것이다. (이는 후술할 <관덕정과 솥장수>에서 계속 서술함)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황새왈)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당해 설화의 민란 · 효시 관련 화소 등이 당해 설화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황새왈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탐라 선조들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일월성신 신앙 · 황구렁이 신앙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니까.

<관덕정과 솥장수>

여기서의 관덕정은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거인(또는 호랑이) 음부'인 칠성골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대각臺閣이다.

**1448년**(세종 30) 어느 날 한 노인이 제주 **안무사按撫使**에게 궁도장弓道場이 있는 **성안 광장**의 서쪽 가에다 **관덕정觀德亭**을 창건하여 궁사弓士들의 학문 수련장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의 의도는 궁도弓道가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관觀하여 덕德을 이루는 일이듯이 문무文武란 둘(곧, 별개)이 아니라 하나이니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문무를 고루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안무사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 그 광장에다 남향(곧, 관아 건물들이 향한 한라산 방향)으로 정자 하나를 세우게 한 후 '觀德亭'이라 쓴 현판을 달아 놓고 **상량식上梁式**을 하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닭의 모가지를 쳐 그 피를 뿌리며 "상량!"이라 외치자 그 정자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웬일인지 그 정자는 복구해 놓고 상량식을 하려고만 하면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하루는 목수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도인道人이 그 곁을 지나치며 혼잣말했다. "허, 또 무너질 집에다 웬 공을 저리도 들인담?" 안무사가 그 도인을 모셔 들여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도인은 두 가지 사항을 발설했다. 그중 하나는 관덕정과 산저천山底川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본디 제주성(곧, 탐라성)은 탐라도읍 칠성골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된 성채이고, 칠성골은 일곱 칠성도에 기반을 둔 고을이다. 그리고 **일곱 칠성도가 벌여 있는 모양은 흡사 북두칠성처럼 국자 형국이다**. 그런데 성안에서 그 국자로 산저천 물을 퍼 올리기 위해 그 자루를 잡으려면, 그 정자 터에서는 남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 서야 한다. 그러니, 그 정자는 동향으로 창건되어야 한다.' 이어, 도인은 부언했다. "**칠성골(곧, 탐라)이 어떤 가뭄에도 고사하지 않으려면 산저천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그리고 도인은 그 두 사항 중 나머지 하나에 대해 탄식조로 말했다. "**모름지기 나라란 정의正義라는 초석 위에 서 있어야 하거늘, 요즘에는 만연한 불의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사회의 중추가 될 저 정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후에, 도인은 가만가만 귀띔했다. "하지만 방도는 있습니다. 닭 · 돼지 따위

의 짐승 상량식 대신 **사람 상량식**을 하십시오." 안무사가 소스라치며 난감해했다. 이에, 도인은 이번에는 귀엣말로 속삭였다. "오는 음력 4월 보름날. **정자 서녘 솔밭**에 병사들을 숨겨 두었다가 **비단벌** 위로 둥근달이 솟거들랑 그들로 하여금 '상량'이라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젊고 순박한 솥장수** 하나가 그 소리에 걸려 넘어져 죽을 것이니, 그를 제물 삼아 상량식을 치르십시오. 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애초에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방도도 그것뿐이니 하릴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안무사는 그 날짜에 맞추어 정자를 동향으로 짓게 했다. 그리고 음력 4월 보름이 되자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한 후 산저천 동쪽 비단벌 위로 둥근달이 뜨기만을 기다렸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아니나다르랴 과연 도인의 말대로 솥장수 하나가 솥발 셋 달린 커다란 가마솥을 머리에 인 채 비단벌 어스름을 뚫고 다가와 **동문東門**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그 정자 곁으로 다가들려는 찰나 둥근달이 **사라봉** 위로 불끈 솟아올랐다. 그러자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다. "상량!" 솥장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솥전에 목이 찍혀 그만 즉사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의 피의 대가로 관덕정은 완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해마다 **음력 4월 보름경**이 되어 하얀 둥근달이 관덕정 지붕 위를 지날라치면, 달은 일순간 요동치며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한 사나흘 되풀이되었다. 백성들이 그 도인에게 그 까닭을 묻자, 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의 조화는 하늘이 그 솥장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가 넘어져 죽은 자리에다 효수대를 세워 놓고 **불의한 자들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효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훗날 때가 차면 **하늘이 한 의인義人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는 그 일을 그치지 마십시오. 그 의인이 오면, 그는 이 땅의 정의를 토설吐說하다가 적대자들의 모함을 받아 악인인 양 그 효시대에 매달려 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덕에 이 땅에서는 마침내 불의가 정화되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참, '솥'의 한자어는 鼎(정)이고, 鼎은 '솥발이 셋 달린 솥'입니다. 이런 솥은 바로 서 있게 마련입니다. 고로, **솥은 정의를 상징합니다**." 이튿날이었다. **효시대** 하나가 그 솥장수가 넘어져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관덕정 앞뜰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1448년**(곧, 관덕정 창건) 무렵의 탐라 상황은 한편 한반도 문화의

탐라로의 이식(곧, 주입)이 본격화한 시기, 즉 탐라의 한반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속민屬民인 탐라민중이 종주국 조선 조정 관하管下의 관官을 상대로 한 저항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기였다. 그럼, 여기서 일단 938년부터 1448년까지의 탐라의 역사적 또는 정치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938년(태조 21) 탐라는 고려 속지屬地로 전락한다. 즉, 왕 · 왕궁은 성주星主 · 성주청星主廳으로 격하되고, 탐라국 태자 고말로高末老(마지막 탐라왕 고자견高自堅 아들)는 기인其人이 되고, 그리고 이때부터 탐라는 고려에 조공朝貢한다. 1105년(숙종 10) 고려는 탐라 국호 乇羅(모라)를 폐하는 대신 탐라군耽羅郡을 두고, 그리고 탐라로 지방관을 파견하여 이원집정체제二元執政體制(성주 · 지방관 공동통치)와 더불어 징세를 실시한다. 이는 탐라국 몰락을 뜻한다. 그런데 이원집정체제는 '이중 징세'(곧, 성주와 지방관이 따로 징세함), 즉 혈세를 야기한다. 게다가, 고려 조정이 파견한 지방관들은 절원조정絶遠朝廷이란 실정實情을 악용하여 십상팔구 자손 대대로 먹고살 재물을 긁어모으는 데에 혈안이 된다. 1211년(희종 8)경 고려 조정(곧, 최씨 무신정권)은 '탐라'를 종속국 지명으로는 과분하다며 '제주'로 개칭한다. 1273년(원종 14) 몽골(곧, 원元)은 김통정 휘하 삼별초를 진압한 후 탐라는 더는 고려 속국이 아니라는 취지하에 제주를 탐라로 복원한다. 당시 성주는 고인단高仁旦이었다. 1374년(공민왕 23) 원元이 패망하고 명明이 건국되자 고려는 명나라 허락을 받아 다시 탐라를 복속시킨 후 그 지명을 도로 제주로 개칭한다. 이는 탐라가 고려 속지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1402년(태종 2) 조선은 성주제도를 폐지하여 제후 신분의 성주를 관리 신분의 도지관都知官으로 격하시킨다. 이는 탐라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는 말이다. 『고려사』에 "태종 2년 성주 고봉례高鳳禮와 왕자 문충세文忠世가 태종조에 그 인부印符와 도적圖籍을 헌납하면서 "청컨대 분수에 지나친 성주 · 왕자 호號를 고쳐 주소서!" 하니, 성주 · 왕자를 각각 좌도지관左都知官 · 우도지관右都知官으로 개칭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물론 이것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종주국 사서에서 종속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다반사이니까. 게다가, 『고려사』는 쿠데타에 기반 둔 조선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니까. 1434년(세종 16) 조선 조정은 세원稅源(곧, 납세자) 감소(곧, 유출)를 막기 위해, 즉 무단통치에 시달리다 지친 나머지 이어도를 그리며 탐라를 이탈하여 인국隣國으로 도피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곧, 특정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본격적으로 탐라 전역에 선포한다. 이로써, 조선 조정의 무단통치가 극에 달한다. 출륙금지령은 뱃일(곧, 민중의 생업)을 금

지하는 것과 진배없는 법적 조치였으니까. 이에, 대규모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제주성(곧, 외세 수탈 창구인 관아 소재지)이 민중에 의해 공략당하여 불바다가 된다. 이것이 이른바 '제주성 불바다' 운운하는 그 구전口傳 속 대화大火이다. 이때 탐라 왕궁, 성주청, 도주관부都洲官府로 차례로 쓰여 온 건축물들은 물론이고 서고의 서적 · 문서 등등 탐라국 관련 사료 일체도 전소된다. 1445년(세종 27) 조선은 탐라국 흔적을 말소하려고 도지관 제도를 폐지하여 이원집정체제를 종료시킨다. 즉, 지방관 단독체제를 확립한다. 이리하여, 탐라왕권의 마지막 보루인 고씨는 자신이 축출한 부씨와 양씨처럼 탐라왕권에서 축출되어, 게다가 한반도 관직에서조차 쫓겨나 일개 호족으로 영락한다. 자업자득이라면 과언일까? 참, 이때부터 호칭 성주는 제주지방관(곧, 목사 · 부사 · 안무사 등)의 별칭으로 쓰인다. 1448년(세종 30) 탐라민중이 관官의 핍박 탓에 또다시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킨다. 이에, 안무사가 그 봉기의 진무鎭撫를 위해 파견되고, 그리고 관덕정이 기존 궁도장의 서녘 가장자리에 창건된다. 그런데 기존 궁도장(곧, 무단통치의 상징)에다 관덕정(곧, 문화정치의 상징)을 창건한 조선 조정의 취지는 고려의 탐라 병합 이래 견지해 온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여, 아니 탐라민중을 교화敎化(실은 진무)하여 항다반사로 반복되는 탐라민중 봉기를 근절시키려 함이었다. 그러고 보면, 관덕정은 938년 이래 외세의 수탈 · 핍박 · 모멸 등과 탐라민중의 저항으로 점철된 탐라민중 수난사受難史의 소산이자, 나아가서 상징인 셈이다." 다음은 관덕정 창건(1448년) 무렵을 전후하여 탐라가 한반도화韓半島化의 길로 내몰리는 과정의 일단一端을 간추린 것이다. "1402년 탐라국 유산인 성주제도가 폐지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탐라궁궐 후신인 성주청 시설들이 조선 조정 관하管下의 관아 시설로 전용된다. 즉, 탐라궁궐 터 후신인 성주청 터(곧, 지금의 관덕정 터 일대)가 조선 조정 관하의 관아 터로 탈바꿈한다. 그러고 보면, 관덕정 터 일대는 모라毛羅 건국(기원전 2세기경)에서 모라毛羅 폐지(1105년)까지의 천 이백여 년 동안은 '탐라궁궐 터'로, 그리고 그 후 성주제도 폐지(1402년)까지의 298년 동안은 '성주청 터'로 쓰인 셈이다. 이는 성주청은 탐라궁궐이 조선 조정 관하의 관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단계라는 말이다. 관덕정 터 일대가 성주제도 폐지(1402년)로부터 대한제국 몰락(1910년 8월 29일)까지의 509년 동안 조선 조정 관하의 관아 터로 쓰였으니까. 아무튼, 관덕정 창건 무렵을 전후하여 예의 그 성주청 시설들이 조선 조정의 관아 시설로 전용되고, 나아가서 새로운 관아 시설들이 관덕정 터 근처에 신축된다. 이를테면, 제주목濟州牧 동헌東軒인 연희각延曦閣과 객사 대청客舍大廳인 영주관瀛洲館이 1395년경 각각 구舊 도청道廳(1917년 신설) 자리

와 현 북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다. 하지만 1434년 대화大火로 관덕정 일대의 모든 시설이 전소全燒된다. 그런 연후에, 그 폐허(곧, 전소)를 딛고 제주군 동헌인 홍화각弘化閣이 1435년 구舊 법원法院 자리에, 진무청鎭撫廳인 좌위랑左衛廊과 영군청營軍廳인 우위랑右衛廊이 1620년 우체국(1903년 신설) 자리에, 그리고 군기좌기청軍器坐起廳인 세병헌洗兵軒이 1651년 구舊 경찰서警察署 자리에 들어선다. 그런데 그 관아 시설들은 실은 탐라 민중의 우려대로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지방관들의 탐라민중 수탈 창구로 쓰인다. 그래서 민란이 나면 애꿎게도 탐라성은 그 안에 그 시설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군의 일차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내친김에 말하면, 다음은 예의 그 1434년 대화로 탐라국 사료 일체가 전소하게 되는 과정을 들려주는 전언이다. "지난날 민란 때면 탐라성이 종종 민군 수중에 놓인다. 그래서 성주청에서는 조선 조정에다 간청한다. 성주청 서고의 사료를 조선 조정으로 옮겨 보관해 달라고. 하지만 한반도 조정은 종주국이 종속국 사료를 보관하는 부담을 질 수 없다며 번번이 거절한다. 그러다가, 칠성골 대화로 탐라국 사료 일체가 성주청 서고書庫와 함께 전소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이 그 사료들의 전소를 내심 바랐던 것은 혹여 아닐까? 내처 말하면, 다음은 왕조시대 한반도 치하의 제주 지방관 수탈에 관한 전언이다. "설령 제주 지방관이 정사는 제쳐놓고 주색잡기에 탐닉했을망정 극심한 수탈만 하지 않았다면 이임移任하여 출륙出陸할 때에는 어김없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줄 정도로 지방관에 의한 극심한 수탈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예의 그 민란 · 방화 등을 두고 제주민중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인 셈이다. 부언하면, 지난날 수탈 창구 노릇을 했던 예의 그 관아 시설들이 얼마 전에 제주목관아지濟州牧官衙址 재건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이 복원되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제주인들이 그 복원에 호응하여 희희낙락거리며 기와 헌납식獻納式을 했다. 격세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다. 하긴, 또 모를 일이다. 세월이 또다시 격세지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흐르고 난 연후에 그 복원된 시설들이 철거되고 탐라궁궐 시설들이 새로이 복원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꿈같은 이야기일까? 한편, 얼마 전에 '星主遺址'(성주 유지)라 음각된 표석標石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 제주목관아지 근처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는 민망한 일이었다. 그 터의 근본은 성주청이 아니라 탐라궁궐이니까. 게다가, 낯부끄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城主遺址는 문법적으로 오류를 범한 표현이니까. 즉, 星主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遺址는 사람 · 관직 · 신분 등에는 붙일 수 없는 말이니까. 따라서 성주 유지는 참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필히 성주청(또는 탐라왕궁) 유지로 수정되어야 한다. / 생각건대, 지금 탐라는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예: 제주라는 치욕스러운 명찰을 가슴에 버젓이 단 채) 한반도 변방으로 이울어 있다. 또한, 주체적인(곧, 탐라 중심적인) 역사는 제쳐놓고 종속적인(곧, 한반도 중심적인) 역사에 매몰되어 있다. 왜? "육짓놈 왐저 ᄒᆞ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쳣주!"라는 옛말에 여전히 주눅 들어 있어서는 혹여 아닐까?

**안무사**按撫使는 지난날 변란이나 재난이 발생한 곳에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하던 임시직 지방관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의 배경은 '민란'인 셈이다. 안무사 · 사람 상량식 · 효수대 등이 등장하니까. 이는 관덕정 창건은 민란 수습책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성안**은 '제주성 안'이다. 지난날 외세는 성안에 체류했다. 한편, 당시 성안 주민 상당수는 기득권층으로 친親외세 성향을 띠었다. 게다가, 그들 중 일부는 외세 앞잡이 노릇도 마다지 않았다. 그래서 민란이 나면 성 밖 주민으로 구성된 민군은 일단 제주성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당시는 민란 표적이 다름이 아니라 외세와 그 앞잡이였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평상시 성 밖 주민에게는 성안 주민이 미움 ·시새움 · 부러움 등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광장**은 지난날은 연병장 · 군사 훈련장 · 놀이마당 · 향회鄕會 장소 등으로 쓰였다. 그런데 오늘날은 광장 흔적이라곤 가뭇없다. 도로로 전용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로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관덕정**觀德亭에서의 觀德은 '마음을 관觀하여 덕德을 이루다'라는 뜻을 함축한 말이다. 한편, 관덕정은 궁도장 터에 건립되었다. 그러고 보면, 관덕정 건립에는 '문무文武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상량식**上梁式은 기둥에 보[梁]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린(上) 연후에 상량신神인 성주를 위해 드리는 의례로 이때 지난날의 제주에서는 닭 피가 집터 일대에 뿌려졌다. 성주(곧, 집 지키는 가신家神)와 터주(곧, 집터 지키는 지신地神)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 각설하

고,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 의하면 관덕정 터 소재지인 칠성골은 한라산 북녘 거인 형국 지형에서의 음부에 해당한다. 그러고 보면, 관덕정 성주(또는 터주)는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그 거인인 셈이다. 이는 <관덕정과 솥장수>에서의 솥장수와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그 의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즉, 그 솥장수가 다름이 아니라 그 의인의 화신化身이라는 말이다. 나아가서, <관덕정과 솥장수> 이면 정신(곧, 관덕정 상량식 이면 정신)은 <탐라라는 지형> 이면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말이다.

**일곱 칠성도가 벌여 있는 모양은 흡사 북두칠성처럼 국자 형국이다**는 사실일까? 혹자는 자신의 실측 결과를 들어 그것이 사실임을 부정한다. 생각건대, 전설은 진실성을 추구한다지만 실은 사실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꿈과 좌절에 관한 것이다. 물론 꿈과 좌절은 사실(예: 실측)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 실측은 부질없는 짓인 셈이다. / 아니, 그 실측 결과의 불일치는 어쩌면 칠성도 일곱 기基의 위치들 중 일부가 잘못 전해진 때문이 혹 아닐까? 흡사 모라毛羅가 탁라毛羅로 잘못 전해진 것처럼 말이다.

**칠성골(곧, 탐라)이 어떤 가뭄에도 고사하지 않으려면 산저천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산저천이 마르면 탐라는 지하수 고갈 같은 물 관련 재앙에 직면하리라는 일종의 예언(곧, 의미심장한 경고)은 혹여 아닐까? 사실, 산저천山底川은 산젓물[山底泉]을 제외한 나머지 용천들, 즉 가락쿠물(←가락쿳물 ←가락굶물[嘉樂泉])을 비롯하여 그 천변의 여타 용천들이 상류에서부터 차례차례 고갈되어 온 탓에 오늘날은 건천乾川의 지경에 처해 있다. 가락쿠물은 가락천변嘉樂川邊의 커다란 바위 밑 구멍(<굶)에서 솟는 샘물이다. 어쨌든, 산젓물 고갈이 탐라의 재앙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않는다. / 돌이켜보면, 산저천은 칠성골에 접하여 흐르는 내창으로 지난날은 탐라도읍 칠성골의 젖줄이었다. 물론 그 천변의 수량 풍부한 용천들 덕에 건천이 아니었다. 참, 산저천변의 용천들 중 산젓물과 가락쿠물은 칠성골 주민의 식수食水 공급처였다. / 내친김에 말하면, 산저천 하류의 일부 지역(곧, 오현단 동쪽 벼랑 밑의 가락쿠물 근처)에 한때는 건들개(곧, 외항外港인 산저포山底浦)를 통해 진입한 당唐나라 상선들이 정박하던 내

항內港 고령포高齡浦가 있었다. 그때는 그 무역항(곧, 고령포) 일원의 산저천을 일명 가락천嘉樂川이라 불렀다. 가락천이란 이름은 경치가 아름다운(嘉) 천변에 조성된 무역을 위한 유흥가에서 풍월을 읊고 음주 · 가무 등을 즐기는(樂) 풍경이 펼쳐진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가락천 · 고령포 · 가락쿠물 등에 대한 향수는 꿈같은 이야기일 따름이다. 아마도 개발 논리를 앞세워 '숨굴 · 곶자왈 매립' · '지하수 개발' 등에 광분해 온 때문일 것이다. 숨굴의 뜻은 '지신地神이 숨을 쉬는 굴窟'이지만 실은 수로水路, 즉 빗물 유입구流入口이다. 참, 오늘날 혹자는 숨굴을 숨골이라 한다. 이는 오류이다. 숨골은 연수延髓(곧, 후뇌와 척수를 연락하는 부분)이니까. 곶자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아마도 '곶串의 왈(<밭)', 즉 '곶을 닮은 들'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는 곶자왈은 목본木本 지대(곧, 곶자왈)가 초본草本 지대(곧, 출왈)로 뻗은 모습이 흡사 해변의 코지(곶)가 바다로 뻗은 모습과 닮아서 붙여진 명칭이라는 말이다[곶의 왈>곶ᄋᆡ 왈>곶지왈(예: 벚이→ 벚지→ 버찌)>곶재왓>곶자왓>곶자왈(예: 톳→ 톨, 손짓→ 손질)]. 물론 곶자왈도 일종의 숨굴, 즉 무수한 구멍을 지닌 대규모의 빗물 유입구이다. / 아무튼, 물 관련 재앙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곶자왈 · 숨굴 등이 마구 훼손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를 뽑아 팔아먹어 가며 날로 낮아져만 가는 지하수 수위 회복을 위한 방도로 관정管井을 통한 빗물 강제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땅의 정화작용을 거치지 않은 불량한 빗물로 오랜 세월 동안 땅의 정화를 거친 우량한 지하수를 오염시키겠다는 망언이니까. / 생각건대, 지하수 수위저하는 해수海水 침투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그리고 빗물 강제투입은 오염원汚染源에 의한 본격적인 지하수 오염을 필경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탐라는 1272년 · 1273년 가뭄 같은 혹독한 가뭄이 들면, 아니 조만간 하릴없이 물 관련 재앙에 직면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작금의 탐라후예들, 즉 소위 제줏놈들은 '소위 육짓놈들 핍박'과 '물 부족'이 탐라인 삶의 양대 악조건이었다는 과거사過去事를 아주 망각해 버린 것일까? 아울러, 망각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기필코 야기하고야 말리라는 교훈마저 아주 망각해 버린 것일까? / 부언하면, 탐라의 지하

수 층은 지표면을 떠받치는 일종의 지지支持 기반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날로 지하수 수위는 낮아져만 가고 건축물 밀집화密集化에 따른 하중은 커져만 가니 약간의 충격(예: 약진弱震)에도, 아니 이렇다 할 충격 없이도 지표면이 함몰되는 것은 혹여 아닐까?

**모름지기 나라란 정의正義라는 초석 위에 서 있어야 하거늘, 요즘에는 만연한 불의로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 사회의 중추가 될 저 정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정의正義는 사전적 정의定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면에 '탐라 독립자존'을 내포한 말일 것이다. 당시 탐라인 삶의 악조건 중 첫째는 외세 핍박이라는 불의不義였으니까. / 여기서의 불의도 사전적 정의에 국한되지 않고 이면에 '탐라에 대한 외세 핍박'을 내포한 말일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조 숙종 연간에 한반도 출신 제주목사濟州牧使 이형상은 숭유崇儒라는 미명하에 탐라에서 불교와 무속을 탄압했다. 물론 이형상은 정의를 위한답시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억불抑佛숭유 정책은 탐라민중 대다수에게는 천부당만부당한 일, 즉 불의로 여겨졌을 것이다. / '한 사회의 중추가 될 저 정자'는 유림儒林의 관점에서는 지당한 표현일 것이다. 관덕정은 무속과 불교가 성행한 탐라에서 유교식儒敎式 교육이 최초로 실시된 시설이니까. 한편, '정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사회질서가 혼란한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것이다.

**사람 상량식**은 일종의 인신공희人身供犧일까? 후술할 <김녕 뱀굴>에도 처녀를 제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럼, 지난날 탐라에 인신공희가 있었을까? 아무튼, 관덕정 창건은 당시 탐라민중에게는 사람 상량식을 해서라도 성사시켜야 할 정도로 간절한 일이었던 듯하다. 그러고 보면,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이 당대 탐라민중의 절박한 염원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람 상량식은 어쩌면 민란 주역, 즉 장두狀頭에 대한 처형식處刑式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한반도 조정이 민란을 진무하려고 관덕정 창건(곧, 무단통치의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공언公言함과 아울러 장두를 처형했다는 말이다. 사실, 탐라에서의 민란은 1105년 이래 항다반사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반도 조정은 개선改善(곧, 민군 요구사항의 수용)을 공언함과 동

시에 민란 주역인 장두를 처형했다. 하지만 그 공언은 늘 공언空言으로 귀결되었다. 그렇게 지난날의 한반도 치하 탐라에서는 불의하고 가혹하고 암울한 역사가 간단없이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정자 서녘 솔밭**은 지금도 수십여 평쯤 남아 있다. 참, 이 솔밭은 신축교난辛丑敎難 때 관덕정 광장에서의 본격적인 천주교도 집단 학살을 앞두고 천주교도 몇 명을 살해한 장소로도 전해지고 있다.

**비단벌**은 사라紗羅의 이칭으로 제주성 동문(곧, 구舊 동문파출소) 앞에서 오늘날 ᄀᆞ으니ᄆᆞ루라 불리는 곳까지를 지칭했다. ᄀᆞ으니ᄆᆞ루 뜻은 '고운('곱다'의 관형사형) 마루(언덕 · 등성이 · 들판 등)' 또는 '(송사訟事하러 관아 소재지인 제주성을 향해 급히 가파른 별도천 동안東岸을 올라 비단벌로 들어서노라면 숨이 차서) ᄀᆞ읏거리게(헐떡거리게) 되는 마루'이다. 비단벌 측면에서는 전자가, 자형 측면에서는 후자가 적합해 보인다(이는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 참조). 참, 별도천 동안은 지금은 다리가 놓여 전날의 가파른 비탈 모습은 간곳없다.

**젊고 순박한 솥장수**는 지난날의 참담한 탐라에서 정의를 위해 결연히 불의에 맞서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소위 장두(곧, 민란 선봉)의 효시嚆矢였을 것이다. 참, 이 구절은 『구약성경』의 '흠 없는 어린 숫양'(곧, 희생양) · '의인義人'(곧, 야훼의 종) 등을 연상시킨다.

**동문東門**은 1448년 당시에는 산저천 서안西岸에 있었다. 이곳이 탐라성(곧, 제주성) 동문의 처음 위치이다. 그런데 을묘왜란乙卯倭亂 때(1555년)였다. 사십여 척의 병선으로 바다를 건너온 왜병倭兵 천여 명이 화북포에 상륙하여 탐라성 동문을 3일 간 공격해댔다. 그러자 칠성골 방어를 위해 동문이 잠정폐쇄되었고, 그 바람에 산저천(곧, 성안 사람들 주요 식수인 산젓물)이 왜병 수중에 놓였고, 그래서 성안 사람들이 식수난에 시달렸다. 내친김에 말하면, 왜병들은 사흘 밤낮을 산저천을 넘나들며 동문 일대를 공격했지만 성안 사람들의 완강한 방어와 반격에 참패하여 결국 단 한 명도 성벽을 넘어 보지 못하고 퇴각했다. 내처 말하면, 일본인들은 14세기부터 육백여 년 간 탐라를 상대로 간단없는 노략질을 했다. 물론 단 한 번도 탐라성을 공략하지는 못했다. 여하튼, 을묘왜란으로부터 10년 후인 1565년이었다. 성안 사람들은 산젓물(곧, 산저천)을 성안으로 편입시키려고 동

문과 동문 일대 성벽을 산저천 너머 동녘 들판, 즉 높은동산(곧, 고릉高陵)이라고도 하는 속칭 배부른동산(이는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 참조)으로 이건移建했다. 부언하면, 그로부터 수백여 년이 지난 일제강점기였다. 일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탐라성 성문들과 성벽 일부를 철거해 버렸다. 그러자 뜻밖의 일, 아니 기막히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졌다. 칠성골 일대 주민이 집채 · 울타리 · 밭담 등에 쓰려고 잔존殘存 성벽의 돌들을 야금야금 가져가 버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탐라 2천여 년 모진 풍상을 묵묵히 지켜본 탐라성(곧, 제주성)은 흡사 망국 탐라 역사처럼 사람들 뇌리에서 까마득히 멀어져 갔다.

**사라봉**에서의 사라는 사라紗羅(곧, 비단벌)에서 유래된 것이다.

**음력 4월 보름경**이라는 날짜와 관덕정이라는 장소가 설화나 민중사 따위에서 함께 등장한 경우는 당해 전설과 신축교난에서뿐이다. 그럼, 당해 전설과 신축교난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혹여 아닐까? 신축교난은 제주 전역에서 천주교도 7·8백여 명이 피살된 사건으로 그중 3백여 명은 1901년 음력 4월 11일 · 12일 밤에 관덕정 광장에서 살해되었다. / 돌이켜보면, 모라毛羅 건국(상한선: 기원전 200년경 / 하한선: 기원 70년경) 이후, 아니 모라 몰락(1105년) 이후 탐라에서는 두 차례의 사회상社會相의 대변혁이 있었다. 하나는 관덕정 창건으로 인한 사회 변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축교난으로 인한 사회 변혁이었다. 전자는 탐라사회를 폐쇄적인 사회로 몰아갔다. 이를테면, 반상班常의 차별 같은 유교식 신분제도로 사람들을 옭아맸다. 유교 교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맹신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거듭나도록 종용하긴 했지만 말이다. 후자는 탐라사회를 개방적인 사회로 이끌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식 만민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유교식 신분제도의 타파를 주창했다. 그리스도교 교의가 그리스도교도들로 하여금 독선(또는 독단)으로 흐르도록 종용하긴 했지만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신축교난은 신흥 그리스도교(곧, 천주교)가 전교傳敎를 위해서 기존 유교(곧, 기득권 세력)와 맞섬으로써 야기된 사건이다. 물론 종교란 예외 없이 세월이 흐르면 기득권화하기 마련이다. 즉, 어떤 참신한 신흥 종교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낡아빠진(곧, 타락한) 기존 종교의 전철을 밟게 마련이

다. 종교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라 시대변천에 따라 시대착오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필연성을, 게다가 인간 삶의 소산이라 타성에 젖어 탐욕이나 나태 따위에 빠진 집단으로 변질될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관덕정 창건과 신축교난은 탐라사회 발전 도상에서의 두 전환기를 마련한 사건이다. 그럼, 관덕정 창건을 '1448년 이어도 찾기'로, 그리고 신축교난을 '1901년 이어도 찾기'로 명명하면 어떨까? 모라 몰락 이후의 한반도 왕조시대 치하 탐라 민중사의 골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어도 찾기(곧, 모라 건국이념으로 돌아가지)일 테니까(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 참고삼아 말하면, 탐라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신화 · 역사 · 언어 등은 모라 몰락을 계기로 축출이 시나브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관덕정 창건을 계기로 그 축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망국(곧, 종속국)의 신화 · 역사 · 언어 등은 으레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축출되기, 즉 사장되고 유기되고 왜곡되고 망각되기 마련이니까.

**불의한 자들의 목을 베어**에서의 '불의한 자'에는 사회질서를 범한 자는 물론이고 민란 장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기득권층인 유림의 눈에는 민란 장두(곧, 그 솥장수)도 불의한 자로 비쳐졌을 테니까.

**하늘이 한 의인義人을 내려 보낼 테니**에서의 의인은 독립자존 정신을 탐라사회에 부식扶植할 인물일 것이다. 당해 전설이 탐라의 정의는 독립자존이고, 탐라의 불의는 탐라에 대한 외세 핍박이라 하니까. 물론 당대 조선 조정이라면 이 정의(곧, 탐라 독립자존)를 두고 으레 모반(곧, 불의) 운운했을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에서의 의인은 이어도 전설 이면의 정신을 부식할 인물일 것이다. 그럼, 작금의 탐라후예들이 그리는 의인은? 아니, 그들에게는 의인 운운은 꿈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처참한 선대先代 역사 속 인물 설문대할망(곧, 장두의 상징)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로부터 주입받은 일본신화이론'(곧, 일제잔재)에 의거하여 모계사회 여신女神 운운해대며 너스레 떠는 판국이니 말이다. / 참, 오늘날 당해 전설에서의 독립자존 정신을 액면 그대로만 이해하려 드는 것은 설화 해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설화 이면 정신은 시대가 달라지면, 그래서 민중의 삶이 달라지면 의당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의 죽음 덕에 이 땅에서는 마침내 불의가 정화되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는 언뜻 그리스도교 대속代贖 사상을 연상시킨다. 참,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도 의인 관련 화소話素, 즉 "'그 거인의 화신化身' 또는 '그 거인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자'가 출현하여 이 땅의 정의正義를 실현시키리라 한다"가 있다. 생각건대, 이런 화소들로 인해 당해 전설들은 전설의 전형이며 이상인 '꿈 있는 비극'이 되고 있다.

**솥은 정의를 상징합니다**에 의하면, 당해 전설에서의 솥장수는 의인, 즉 '정의의 사도使徒'일 것이다.

**효시대**. 1960년대에도 "신축교난 당시 효시대 하나가 관덕정 인근 남동 지점에 박혀 있었다"라는 구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관덕정)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솥장수의 죽음에 관한 화소가 당해 전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관덕정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한반도 조정의 탐라에서의 무단통치와 문화정치(곧, 탐라민중 수난사)에 관한 것이니까.

Ⅳ. 당해 전설은 전설의 전형이자 이상인 '꿈 있는 비극'이다. 젊고 순박한 솥장수의 죽음이라는 비극(곧, 희생)의 대가로 관덕정 창건이라는 꿈(곧, 일종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 이면에는 '구원은 희생의 대가라는 정신'(곧, 일종의 대속 사상)이 들어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런 유용한 정신을 전설 이면에서 찾아내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참, 오늘날 전설의 존재 의의는 그 이면에 미래를 위한 길잡이가 될 이런 정신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Ⅴ. 생각건대, 인류 정신사精神史에서 "구원은 곧 희생의 대가이

다"란 유類의 사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유대교 전통인 희생양犧牲羊 제도에서 발아하여 야훼의 종을 거쳐 성장한 그리스도교 대속代贖사상일 것이다. 희생양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흠 없는 어린 숫양에게 전가轉嫁하는 의식을 치른 후 그 양을 들판(곧, 불모의 사막)으로 몰아내어 자신들 대신 죽게 함으로써 사죄赦罪(곧, 구원)를 얻는 속죄贖罪 제도이고, 야훼의 종은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자와 신약성경의 예수를 연결시켜 주는 징검돌 같은 존재(곧, 의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대속사상은 하느님 아들 예수는 아무 죄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온갖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그리스도교 교의敎義의 핵심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대속사상은 로마가 세계제국 시대(기원전 27년 ~ 기원 285년)를 구가하던 기원 40년을 전후하여 로마 동쪽 변방의 하잘것없는 속지屬地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선포되었다. 즉, 대속사상은 처음에는 지역적 · 특수적 성격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적 · 보편적 제국 로마로 전파되면서 세계적 · 보편적 성격을 띠더니, 급기야 중세유럽 정신사精神史의 중추가 되었다. 아울러, 그것은 현실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도, 즉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강자인 신神 예수가 약자인 인간을 위해 희생했듯이 강자가 약자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제시되었다. 사실, 인류 구원의 필요충분조건은 오직 강자의 자진自進 희생이다. 혹자는 만민평등을 말하고, 혹자는 상생, 아니 공생을 말한다. 그러나 평등이니 공생이니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약육강식 본능이 있는 한 한낱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참, 상생은 오행설五行說에서 금金은 수水를, 수는 목木을, 목은 화火를, 화는 토土를, 그리고 토는 금을 나게 한다는 사상이다. 고로, 상생과 공생은 별개이다. 어쨌든, 원시적 형태의 보잘것없는 희생양 제도에서 움튼 대속사상은 로마라는 개방된 사회를 통해 성장하여 오늘날 서양 정신사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보면, 정신(곧, 사상)이란 역사 속에서 움터 흡사 생목生木처럼 자라나는 것인 셈이다. 그럼, 탐라의 자생적 정신인 '젊고 순박한 솥장수의 희생정신'(곧, 관덕정

창건 이면 정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 속에서 하나의 본격적인 희생정신(예: 이타주의利他主義)으로 성장했을까(혹은, 성장 중일까)?

Ⅴ.1. 연전의 일이었다. 한 관광객이 관덕정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산책 중인 필자에게 물었다. "신축교난에 관한 비碑 하나 없네요?"라고. 이에, 필자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역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윽고, 필자는 당혹감을 가까스로 감추고 그에게 말했다. 신축교난 희생자(곧, 순교자) 비碑를 관덕정 경내에 건립하지 못하는 까닭은 '신축교난 가해자 후손들', '몇몇 인사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사실, 그 후손들은 자신들이 대정 지역에 건립한 삼의사비三義士碑가 무색해지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인사들은 소위 '이재수의 난'을 동학혁명東學革命과 궤를 같이하는 혁명으로 보려는 터무니없는 편견 때문에,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은 신축교난 전모 파악 결여로 인한 판단 착오 때문에 그 비의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저간의 실정이다.

Ⅴ.2. 여기서 신축교난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자. 전술한 <황새왈>에서의 동군 선봉장 오대현과 서군 선봉장 이재수가 수하들과 함께 제주성을 장악하게 되자 오대현은 제주군 겸 제주목 관아에, 이재수는 강우백을 대동하고 그 관아 입구께의 관덕정에 자리를 잡았다. 날짜는 1901년 5월 28일(곧, 음력 4월 11일)이었다. 그런데 대정향청 좌수인 오대현은 훗날이 두려워서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하지만 그는 자기 수하인 대정군 관노 이재수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배후에 자기 상관인 대정군수 채구석이 있어서였다. 아니, 통제하기커녕 이재수의 고압적인 자세에 눌려 급기야는 이재수 명령에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성안은 이재수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과 그 이튿날 밤에 천주교도 3백여 명이 관덕정 광장에서 그들 무리에 의해 돌멩이 · 작대기 세례로 무참히 살해되었다. 당시 제주천주교 총책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프랑스인 신부 라크루(P. Marcel Lacrouts, 곧 한국식 성명 '구具마실')가 당시 대한제국 천주교 총책인 주교 뮈텔(Mgr. Mutel, 곧 한국식 성명 민덕효民德孝)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이재수는 관덕정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 자기 수하들로 하여금 천주교도들을 하나씩 자

기 앞으로 끌고 와 꿇어앉히게 했다. 그런 연후에, 그는 그들에게 일일이 천주교도냐고 물었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ᄂᆞ리라!"("내리쳐라!", 곧 "죽여라!")라 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물럿거라!"("물러나라!", 곧 "살려 보내라!")라 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그의 수하들(곧, 주로 대정사설상무사 회원들)이 끌고 가 돌멩이 · 작대기 등으로 쳐 죽였고, 후자의 경우는 방면했다. 이것이 이재수 재판의 전모였다. 그러고 보면, '천주교도라는 사실'이 곧 죄목인 셈이었다. 물론 당시 천주교도란 말의 이면에는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반체제사범反體制事犯', 즉 '죽어 마땅한 중죄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 내친김에 말하면, 봉기 막후 실력자인 대정군수 채구석을 비롯하여 그의 수하 3인(곧, 이재수 · 오대현 · 강우백)은 봉기 수습의 일환으로 대한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즉, 그들은 봉기 두 달 열흘 후인 1901년 7월 18일에 서울로 압송되었고, 동년 10월 8일의 심리를 거쳐 동년 11월 9일에 사형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날 밤 서울 형옥 뒤뜰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다만, 채구석은 형 집행이 미루어졌다가 이듬해 8월 4일에 방면되었다. 채구석이 교수형을 면한 것은 민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때문이었다. 법국공사 플랑시(V. Collin de Plancy, 곧 한국식 성명 갈림덕葛林德)는 채구석이 배상해야 한다고 대한제국 외부外部에다 주장했고, 외부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수감 중인 채구석은 제주민 전부에게 그 배상금을 균등배분하게 해 달라고 법부에 간청했다. 때마침 제주인 고승관高昇觀 등과 채구석 아들 채수응蔡洙應도 그렇게 해 달라고 법부에 청원했다. 참, 그들은 두 법국 신부, 즉 라크루와 뭇세(P. Mousset, 곧 한국식 성명 문제만文濟萬)가 민란 중에 화를 면한 것은 채구석이 보호해 준 덕분임을 강조하여 마지않았다. 이는 채구석이 봉기 막후실세라는 실토였다. 아무튼, 갈림덕으로부터 배상금 독촉에 시달리던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이 청원에 반색했다. 그래서 채구석은 석방되었고, 그 배상금 총액 '6,315원元 21전錢 2리里 4모毛'는 제주목 관하 3군(곧, 제주군 · 정의군 · 대정군) 주민 약 4만 명에게 고루 부과되었다. 즉, 주민 일인당 '15전 6리 2모'씩 할당되었다. / 다음은 신축교난 주동자 4인의 재판실기裁判實記에 관한 것이다. ❶ 이재수에 관하여: "그

는 제주난의 폭동의 두목으로서 그의 손으로 거의 95명의 교인을 학살했다고 고백했다. (중략) 그는 상무사商務社 회원會員이었고, 집사執事 역할과 아울러 실제로는 폭도 두목이 되었고 '교인 대大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중략) 이재수는 사형에 선고함." ❷ 오대현에 관하여: "오대현은 상무사의 부사장副社長과 민란 폭도들의 두목이었다. 그는 명사장明社長이라고 고백하였다(이것은 상무사의 큰 권한을 가졌다). 그는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마을에 사람을 파견했다. 그를 폭도들은 우두머리에 놓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사촌 오을길吳乙吉과 합세하여 여러 명의 교인을 죽였다. 폭도들의 두목들인 오대현과 강우백은 교인들을 그들에게 데려왔을 때 그들이 "ᄂᆞ리라"하면 그것은 죽음의 체포가 되었고, 그들이 "물럿가라"하면 그것은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한마디 말로써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이다. 오대현은 사형에 선고함." ❸ 강우백에 관하여: "그는 백성들을 통하여 폭도들의 한 두목처럼 되었다. (중략) 그는 많은 교인들에 의해 고소되었다. 또 그의 부하들은 그가 교인을 학살했다고 고등법원(평리원) 앞에 8월 3일에 고백했다. 황사평 평원에서 5명의 교인들과 동부 해안 앞에서 70명의 교인들과 제주 성안에서 3명의 교인을 학살했다. 그는 그 사살들은 자신을 따르는 군중의 소행이라고 항변한 반면, 그 폭도들은 단지 강우백과 오대현이 "ᄂᆞ리라"라는 선언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했다. 강우백은 사형에 선고함." ❹ 채구석에 관하여: "그는 사설 상무사의 설립자였다. 이 비밀 회사에서는 교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란 폭도들을 배후에서 조종했고 매번 국가에서 내보내는 조세관이나 조세에 대해서 혹은 교인들에 대해서 반대와 선동을 일삼았다. (중략) 그러므로 채구석은 '지하의 두목'으로 불렸던 것이다. 폭도들은 그의 눈짓 · 몸짓 하나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래서 나는 채구석에게 사형의 중형을 언도한다." / 다음은 제주군수 겸 제주목사 김창수金昌洙가 재판 증인 신분으로 진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봉기 서막은 대정군수 채구석이 대정군 이름으로 표명한 선언이라는 것', '채구석은 백성을 선동하기 위해 대정사설상무사를 조직했다는 것', '채구석은 봉기 선봉대 격인 대정사설상무사 사장(곧, 분사장)이라는 것', '대정향청 좌수 오대현은 대정사설상무사 부사장(곧, 명사장)으로 민군 두목이라는 것', '대정군 관노 이재수는 대정사설상무사 회원으로 민군 부두목이라는 것', '강우백은 소위 무술민요戊戌民擾[곧, '방성칠의 난'(1898년)] 지휘부 중 일

인으로 대정사설상무사 회원이라는 것' 등.

V.3. 돌이켜보면, 천주교(곧, 그리스도교)는 태생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띠었다. 이는 이 세상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불완전한 세계'로 보는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여하튼, 그리스도교는 본디 개혁적인 성향을 띠었다. 그리고 바로 이 개혁적인 성향 때문에 발상지 이스라엘에서부터 핍박당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교 근원인 예수Ἰησοῦς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 정체성의 진수인 율법律法(곧, 토라תּוֹרָה)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고 있다며 간혹 격렬히 비판했다. 그러고 보면, 예수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개혁하려고 서슴없이 자신의 노선을 폄으로써 사회기반을 흔들어 놓은 셈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기존 사회체제를 옹호하는 집단에 의해 신성모독죄(곧, 토라의 신성성을 범한 죄)로 죽임을 당했다. 초기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하등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추종(곧, 신앙)한다는 죄목으로 핍박당했다. 한편,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는 교의적敎義的인 측면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지역적 · 특수적 성격에서 벗어나 보편적 · 세계적 성격을 띠었다. 이는 로마제국의 이념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로마제국의 신들(곧, 기존의 로마 신들, 로마 속지의 신들 및 로마 황제들)에 반反하여 신은 오직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하느님' 야훼יְהוָה[6]뿐이라고 주장했

6) 오늘날 개신교 일각에서 쓰이는 호칭 여호와יְהוָה는 야훼יְהוָה의 와전, 즉 '자음 · 모음 결합상의 문제'로 말미암은 오류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성서 용어인 히브리어는 본디는 자음만으로 된(곧, 모음 없는) 언어였다. 그래서 성서는 본디는 자음(예: יהוה)만으로 쓰여 있었다. 한편, 히브리인(곧,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의 명에 따라 불경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야훼란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에는 야훼라는 자음(곧, יהוה)의 외부(곧, 상하)에다 아도나이אֲדֹנָי(뜻: 나의 주님)라는 낱말의 외부모음 ָ◌ָ◌ָ(곧, a-o-a)를 첨가해 놓고 '야훼'를 그 모음을 따라서 '아도나이'라 읽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개신교 일각이 '야훼 자음 + 아도나이 모음'인 יְהוָה를 액면(곧, 자의) 그대로, 즉 '여호와'로 읽었다. 이리하여, 야훼는 여호와로 와전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하느님 이름 여호와는 개신교에 의한 조어인 셈이다. 참,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한 번 지성소至聖所(곧, 성막聖幕)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 야훼의 어원은 히브리어 동사 '존재하다היה'이고, 그리고 그 뜻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이다.

다. 그리고 이 주장은 실생활에서는 우상숭배 척결 차원의 징세거부로 표출되었다. 세금은 신에게만 바치는 것이라 믿어 마지않았으니까. 즉, 로마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황제를 신으로 여긴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로마 그리스도교도 마치 예수가 이스라엘 사회의 피지배층을 파고들면서 토라 비판을 통해 기존 사회기반을 흔들어 놓았듯이 로마사회의 피지배층을 파고들면서 징세거부 운동을 통해 기존 사회기반을 흔들어 놓은 셈이었다. 이에, 로마정부 당국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다. 아울러, 희랍신화에 익숙한 로마 지배층(곧, 기존 사회체제를 옹호하는 집단)도 그리스도인들을 튀에스테스Thyestes적的 식사와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는 패륜을 범하는 인간말짜라며 모함해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곧, 성체聖體인 빵)과 피(곧, 성혈聖血인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미사예절에서 튀에스테스적 식사를, 교인 상호간에 형제 · 자매라 부르는 데에서 근친상간을 연상했던 것이다. 튀에스테스(곧, 펠롭스Pelops의 아들로 아트레우스Atreus의 동생)는 죽은 자기 자식들을 손님들 식탁에 올려놓은 희랍신화 속 인물이다. 다른 한편, 신축교난 무렵의 제주 천주교도들은 신분사회 조선 치하에서 그리스도교식 만민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신분제도를 배척하면서 교인들끼리는 반상班常이나 귀천 따위를 불문하고 형제 · 자매라 불렀고,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는 혈연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교제交際조차 가급적 단절했다. 이는 당시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써 죽어 마땅한 중죄였다. 또, 그들은 당시 제주사회의 주도적 신앙인 유교를 비롯하여 불교 · 무속 같은 여타 신앙일체도 우상숭배라고 무시하며 배척했다. 예컨대, 유교의 금과옥조인 제사도 단호히 거부했다. 이 또한 반사회적 행위로써 죽어 마땅한 중죄였다. 또한, 그들은 천민 · 과부 · 빈자貧者 같은 하층민을 파고들었다. 이는 천주교 선교 노선, 즉 자신은 '길 잃은 양羊'(곧,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서의 죄인이란 '유대인(곧, 선민選民)이 아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등등 소외된 자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그런데 그 노선은 기존 유교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중·상류층에게는 불안심不安心을, 즉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 왕실이 파견한 봉세관封稅官 강봉헌이 도래渡來하여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소위 특별징세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징세는 민관民官 모두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자 강봉헌은 궁리궁리 끝에 묘안을 떠올렸다. 그것은 천주교도들을 징세요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 무렵 천주교도들은 관아에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니까. 즉, 지난날 조선 조정의 박해를 경험한 천주교는 대한제국 정부의 박해를 원천봉쇄할 양으로 프랑스 정부의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강봉헌은 천주교에 입교도 했고, 천주교도들 중에서 징세요원을 선발하겠다는 공언도 했다. 그러자 먹고살기에 급급한 빈민 수백여 명이 징세요원이 되려고 일시에 천주교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주로 그들과 제주목 각 관아(곧, 제주군 · 정의군 · 대정군) 아전들에 의해 그 징세가 집행되면서 징세비리가 야기되었다. 이리하여, 제주 천주교도들은 처음에는 봉세관 일당 · 궂당 파괴범 도당(이는 천주교에 적을 둔 자 중 몇몇이 궂당 일대를 아전을 앞세워 헐값에 사들인 후 타 용도에 쓰려고 불태운 데서 생긴 용어임) 등으로, 또 영성체領聖體 때문에 인육人肉을 먹는다는 모함과 남녀 교인 간 친교親交 때문에 음탕한 짓을 한다는 모함을 받아 인면수심 · 패륜아 집단 등으로 불리다가 종내는 천주교도(곧, 반체제 사범)란 이유로 살해되었다. 그러고 보면, 신축교난의 근본요인도 여타 그리스도교 핍박의 근본요인이 그리스도교의 개혁적 성향 때문이었듯이 제주 천주교의 개혁적 성향 때문인 셈이었다.

Ⅴ.4. 혹자들은 말한다. '이재수의 난'을 두고 '의인들의 의거義擧'이며 '동학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구국救國 운동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의사義士 · 의인義人 등의 의거란 약자를 핍박하지 않는, 아니 약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동학혁명은 외세와 한통속이 되어 민중을 수탈한 관官(곧, 강자)에 대한 약자인 농민(곧, 민중)의 저항운동이었다. 그런데 삼의사비三義士碑의 인물들은 천주교도란 이유로 수백여 명의 타인, 즉 동족을 살해했다. 그것도 강자인 외세(곧, 봉세관 강봉헌과 프랑스인 신부 2인)는 보호하고 약자인 토박이 민중(곧, 주로 하층민)만을 돌멩이 · 작대기 등으로 잔혹하게 쳐 죽였다. 이것이 의거이며 동학혁명 정신이란 말인가? 설령 이웃

들이 과오를 저질렀다 해도 그들을 일거에 도륙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아니, 탐라후예가 언제부터 이토록 잔학무도해졌단 말인가? 참, 이재수 일당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하고 사형집행을 한단 말인가? / 부언하면, 위 혹자들은 1105년 이래 탐라 민중사가 이어도 찾기(곧, 외세 핍박과 토박이 저항으로 점철된 역사)란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이 봉기를 두고 동학혁명 운운하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탐라를 고려에 복속시킨 한반도인을 계승하여 탐라 민중사를 한반도 민중사에 복속시키고자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 각설하고, 이쯤에서 신축교난에 대한 갑론을박은 그만두자.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것은 문제해결의 첩경이 아니니까. 즉, 과거사 해결에 결코 이롭지 못한 소모적 논쟁이니까. 그럼, 어찌할까?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한 채 마냥 방치해 둘까? 아니,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러니, 일단 '화해와 용서의 비碑'를 세우자. 4·3사건을 생각하면 평화란 낱말이 연상되듯이 신축교난을 생각하면 화해와 용서란 두 낱말이 연상되도록 말이다. 그런 연후에, 이 사건에 관한 정의를 이 비의 취지에 걸맞게 내리자. 가령 '1901년 이어도 찾기'라면 어떨까? 4·3사건을 '1940년대 말엽 이어도 찾기'라 할 수 있듯이(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참, 그 비는 의당 예의 그 솥장수 · 천주교도들 희생 장소인 관덕정 경내에, 나아가서 가급적 예의 그 효시대 근처에 건립되어야 한다.

V.5. 여하튼, 관덕정 광장은 관덕정 창건 때에는 '젊고 순박한 솥장수'가, 신축교난 때에는 '천주교도들'이 희생된 장소이다. 한편, 관덕정 창건은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곧, 당대 탐라의 정의正義)을 위한 것이었고, 신축교난은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의 전환'(곧, 당대 탐라의 정의 / 예: 신분제도 타파, 종교관 · 세계관 확대 등)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관덕정 창건과 신축교난은 공히 당대 탐라의 정의를 위한 일련의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라毛羅 몰락(1105년) 이후 왕조시대의 일관된 탐라 정의(곧, 탐라 후예의 꿈)는 '이어도 찾기'이고, 그리고 이어도 찾기는 '모라毛羅의 건국이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이는 관덕정 창건과 신축교난은 이어도 찾기라는 한 직선 위 두 지점의 사건들

이라는 말이다. 즉, 탐라민중 과제인 이어도 찾기의 구체화 · 심화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의 자생적 정신인 예의 그 솥장수의 희생정신(곧, 정의), 즉 관덕정 창건 이면의 정신은 신축교난에서의 천주교도들 순교정신(곧, 정의)을 거쳐 탐라 후예의 궁극적 이상理想인 이어도(곧, 정의) 구현을 향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인 셈이다.

Ⅵ. 이어도? 돌이켜보면, 탐라후예들은 1105년 이래 한반도 치하에서 한반도 처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고, 때로는 짐승 취급받으며 짐승인 양 사육되어 왔다(예: 출륙금지령). 그래서 죽지 못해, 아니 인간답게 살기 위해 오매불망 이어도를 그렸다. 참고삼아 말하면, 만물은 회귀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호칭 삼한은 호칭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호칭 조선(곧, 고조선)은 호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회귀했다. 그럼, 호칭 탐라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호칭 제주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내친김에 말하면, 근본도 없고 치욕스럽기도 한 호칭 제주는 어떻게 할까? 그대로 달까, 혹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만 떼어버릴까? 물론 정체성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의 조건이다. 자아自我를 파악해야 비아非我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참, 탐라에서의 정체성 · 개방성 찾기는 일종의 이어도 찾기이다. 부언하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탐라 · 한 · 고조선'에서 비롯하여 '탐라 · 백제 · 신라 · 고구려', '탐라 · 발해 · 통일신라', '탐라 ·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 등을 차례로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물론 지금은 통합의 시대이다. 그러니, 때가 차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합의 날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때가 차면 이번에는 분열의 시대가 닥칠 것이다. 통합과 분열(곧, 흥망성쇠)은 역사(곧, 삶)의 이치이니까. 그렇다면, 탐라후예들은 지난날 모라 몰락 때에 내렸던 결단(곧, 탐라국처럼 독립자존을 할 것이냐, 혹은 한반도 부속도서로 그냥 빌붙어 있을 것이냐)을 조만간 또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그 결단을 위한 역량을 기를 때인 셈이다. 탐라민중 꿈인 이어도의 실현을 위해서.

Ⅶ.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에 가서는 자아실현이자 이타利他,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救援일 것이다. 그럼, 구원이란? 그것은

개체의 폐쇄성에서 탈피하여 완전한 개방성을 지향함으로써 획득되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를테면, 인간이 자아自我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방성 자체인 신神과 일체화함으로써 삼라만상과 맞대면하게 되는 상태 같은 것 말이다. 그렇다면, 탐라후예들은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한반도 치하에서 고착화된 폐쇄성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 모라 건국 시점의 개방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서, 로마제국의 개방성 같은 개방성도 획득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탐라사회가 개방성 실현을 통해 로마 같은 제국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모라 몰락 이래로 꾸어 온 꿈(곧,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설화들 이면의 꿈)을 열린 안목으로 날로 구체화하고 심화시켜서 이어도(예: 만국의 빛, 평화의 섬 따위)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산방산과 용머루>

❶ **옥황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베고 낮잠을 즐기던 시절이었다. **용 백 마리가 한라산 땅속에 깃들이며 승천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 마침내 승천일이었다. 용 하나가 승천하려고 머리를 봉우리 근처로 내밀며 꿈틀거렸고, 그 바람에 한라산이 몹시 요동쳤다. 이에, 때마침 낮잠에 빠져 있던 옥황상제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엉겁결에 베고 있던 그 봉우리를 손바닥으로 탁 쳐 버렸다. 그래서 **그 용은 그 봉우리와 함께 한라산 남서쪽 기슭으로 떨어져 각각 지금의 용龍머루와 산방산山房山이 되었다**.

❷ 산방산 바로 곁에, 흡사 용이 머리를 쳐들고 바다로 첨벙 뛰어들려는 형국을 한 구릉이 있다. / **진나라 시황제** 시절이었다. 탐라에 왕후지지王侯之地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진시황**은 풍수와 술법에 능한 **고종달**을 탐라로 파송하면서 명했다. 왕후지지의 혈과 맥을 꼭 잘라 화근을 아주 없애어 버리라고. 이에, 탐라로 잠입한 고종달은 '그 용 형국의 구릉'인 용머리와, '그 꼬리 끝에 해당되는 부분을 깔고 앉아 있는 **오름**'인 산방산을 목격하고서 먼저 그 꼬리 끝 부분을 잘라 용머리와 산방산을 분리시킨 연후에 **용머리의 승천**을 막으려고 그 양 겨드랑이 부분에 구멍을 냈다. 그러자 그 훼손 부분들에서 피가 솟구쳤고, 산방산이 한동안 드르륵 울었다. 이리하여, **맥을 잘린 그 왕후지지는 영영 왕후를 낼 수 없게 되었다**.

ㅡ이는 필자가 중학생 시절에 선친(고향: 안덕면 서광리)에게서 전해들은 옛말들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옥황상제**는 도교 최고신最高神이다. 그런데 위 ❶은 옥황상제가 주역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아닌 전설로 분류된다. 그 까닭은 한국설화이론 3분법이 설화의 신화 · 전설 분류를 신神이 주역(또는 조역)으로 등장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증거물 등의 여하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증거물이 포괄적인 설화는 신화로,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설화는 전설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예: 이 세상의 모든 산, 이 세상의 모든 구릉)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예: 한라산, 산방산, 용ᄆᆞ루)인 당해 설화는 신화가 아니라 전설로 분류된다. / 한편,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류는 굿巫에 쓰이는 설화는 본풀이(≒신화)로, 굿에 쓰이지 않는 설화는 옛말(≒전설)로 취급한다. 따라서 굿에 쓰이지 않는 당해 설화들(위 ❶ · ❷)은 본풀이가 아니라 옛말로 분류된다.

**용 백 마리가 한라산 땅속에 깃들이며 승천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에서의 용은 '왕후'를, 백은 '충분히 많음'을 뜻한다. 이는 위 ❶에는 '한라산은 왕후지지이다'란 탐라민중 꿈이 투영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탐라민중 꿈인 용의 승천 중 첫 승천은 옥황상제 실수로 좌절된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좌절일 뿐이다. 용 백 마리 중 아흔아홉 마리가 여전히 한라산 땅속에 깃들여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위 ❶은 '꿈 잃은 비극'일 수도 '꿈 있는 비극'일 수도 있다.

**그 용은 그 봉우리와 함께 한라산 남서쪽 기슭으로 떨어져 각각 지금의 용龍ᄆᆞ루와 산방산山房山이 되었다**는 지층地層생성순서에 의하면 사실일 수 없다. 용ᄆᆞ루가 하부下部지층이고, 산방산이 상부上部지층이니까. 이는 용ᄆᆞ루가 산방산보다 먼저 생성된 지층이라는 말이다. 나아가서, 산방산 · 용ᄆᆞ루 · 한라산 등은 각기 별개의 지층들이라는 말이다. 그럼, 탐라민중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곧, 거짓말)를 꾸며냈을까? 그것은 전설이란 궁극적으로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면서도 일단은 사실 아닌 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전경前景(곧, 표면의 그럴싸한 또는 허황된 이야기)

아닌 후경後景(곧, 그 이면의 정신이나 역사 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역사적 사실 등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물 형국(곧, 현상現狀)이 그럴싸해 보이기만 하면, 즉 민중의 관심을 끌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배층의 통제 아래서 구전되려면 이런저런 수사법修辭法을 구사驅使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설이란 잊히지 않고 영구히 구전(곧, 보존)되기 위해서는 유한한 인간 기억記憶이 아니라 영구적이라 할 기존 증거물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민중이 거짓을 꾸며댄 것이 아니라 당해 전설(곧, 위 ❶ · ❷)의 영속永續을 위해 기존 산방산 · 용ᄆᆞ루 형국을 원용援用한 것일 뿐인 셈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늘 증거물(예: 산방산 · 용ᄆᆞ루)은 선행先行하고 전설(예: 위 ❶, ❷)은 후행後行한다. 이는 전설이 증거물에 의탁한 채 증거물을 먹고살면서 증거물과 생사를 함께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전설이란 증거물이 사라지면 뒤따라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인 셈이다.

**용ᄆᆞ루**는 '용 형국의 마루(<ᄆᆞ루 / 뜻: 언덕 · 구릉 등)'이다.

**산방산**은 당해 전설로 인해 '한라산 머리' 취급을 받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파견되어 온 관리들은 한라산을 두무산頭無山(곧, 머리 없는 산)이라 했다. 참, 그들은 한라산을 원산圓山이라 하기도 했다. 그 정상이 한반도 산 정상들처럼 뾰족하지 않고 둥그스름했으므로.

**진나라 시황제**에서의 시始황제는 '황제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진秦나라 제31대 왕 영嬴정政은 중국대륙 통일이라는 위업을 최초로 달성한 연후에 최초로 자칭自稱 황제라 했다.

**진시황 · 고종달**은 탐라전설에 등장하는 해외 인물들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서불徐芾 · 한고조漢高祖 · 한무제漢武帝 · 칭기즈 칸[成吉思汗] 등도 탐라전설에 등장하는 해외 인물들이다. 진시황은 중국대륙을 처음으로 통일(기원전 221년)하여 강력한 국가를 수립함으로써 주변 세계(예: 탐라 · 한반도 등)를 요동치게 했다. 즉, 그의 중국통일은 모라毛羅 건국과 고구려 · 백제 · 신라 정립鼎立을 유발시켰다. / 일설은 전한다. 고종달高綜達은 실존인물 호종단胡宗旦으로 '호'는 성姓이 아니라 몽골인(곧, 북방 오랑캐란 뜻의 호적胡狄)을 지칭하는 글자이고, '종단'은 실존 몽골인 이름이라고. 하지만 고종달은 실존인물

이 아니라 허구적인 인물일 것이다. 전설 주인공이란 모름지기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흡사 진시황처럼 비범한 인물(곧, 전설 주체인 민중을 좌우할 만큼 탁월한 인물)이어야 하니까. 물론 고종달의 실존인물 여부는 전설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전설이란 궁극적으로는 진실성을 지향하나 일단은 꿈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이는 고종달이 허구적 인물이라 해서 그가 등장하는 전설을 낳은 삶의 자리(예: 역사적 · 정치적 상황 등)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당해 전설 이면의 정신이 하등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다른 일설은 말한다. 고종달은 탐라 서쪽 바다를 건너고 탐라 북동쪽 종달리 포구를 통해 입도入島한 쿠빌라이(곧, 원나라 세조) 밀사이자 원 황실 지관地官이라고. 그리고 고종달이란 이름도 쿠빌라이가 하사한 것으로 '탐라 왕가인 고씨高氏를 종언終焉에 달達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고 보면, 고종달이 쿠빌라이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탐라인의 저항을 근절시키기 위해 탐라의 혈穴 · 맥脈 등, 즉 민족정기를 끊는 것'인 셈이다. / 방사方士 서불, 즉 서복은 탐라건국에 자극제 역할을 했다. 아니, 탐라건국의 기폭제 노릇을 할 정도로 이 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이는 후술할 <서불: 서복> 참고). / 한고조와 한무제는 진시황을 대신하여 때로는 고종달을 탐라에 보내어 왕후지지의 혈과 맥을 끊게 한 인물로, 때로는 동남동녀童男童女 오백(또는 오천) 쌍을 탐라에 파송하여 불로초不老草를 찾게 한 인물로 탐라전설에 등장한다. 부언하면, 진秦나라 신흥세력인 한고조 유방劉邦(기원전 247~195년)은 농민 출신으로 기원전 206년 전한前漢을 창건했고, 기원전 202년 진나라 귀족 출신 항우項羽와 더불어 진나라를 멸하고 한漢나라를 창건했다. 한무제(기원전 140~87년)는 중국문화를 집성했다. 이로써, 한자漢字 · 한문漢文 · 한족漢族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 칭기즈 칸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임으로써 결국 탐라를 전화戰禍에 휩싸이게 한 원흉元兇이다. 물론 탐라 침입의 장본인은 그의 손자이며 제5대 칸[汗] 쿠빌라이이다. / 그런데 이상에서 거론한 중국인들은 거의가 다 탐라건국 시점 상한선(기원전 2세기) 무렵 인물들이다. 그럼, 그 시절의 탐라와 중국 간에 모종의 교류가 있었던 것은 혹여 아닐까? 또는, 전국시대戰國時代(기원전 403~221년)의 망국

유민遺民 중 일부가 탐라 서쪽 해상 일대를 표류하다가 탐라로 유입되었던 것은 혹여 아닐까? 흡사 서불이 두 차례(기원전 220년, 219년)에 걸쳐 탐라에 도래했던 것처럼 말이다.

**오름**은 탐라에 있는 3백 수십여 개의 측화산을 일컫는 명칭으로 탐라 해변의 소위 코지(곶)와 더불어 탐라 경관의 쌍벽을 이룬다. 그런데 오늘날 코지는 개발논리에 밀려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그럼, 코지란 말 자체가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오름이란 말은 어떨까? 영속永續될까? 참, 오름이란 말은 몽골어에 근원을 둔 것으로 몽골 치하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전언도 있다. / 각설하고, 당해 전설에서 산방산을 오름이라 한 것은 오류이다. 구전에 의하면, 지난날 한때 제주민중은 화전으로 개간 불가능한 것들(곧, 한라산 · 산방산 · 성산 · 영주산 · 두럭산 및 산소)은 산으로, 화전으로 개간 가능한 것들(곧, 위 여섯 산 이외의 것들)은 오름으로 불렀다 하니까. 그럼, 산방산을 오름이라 한 전언은 화전이 실생활에서 덜 소중해진 뒤의 소산은 아닐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출륙금지령이 완화(또는 해제)되어 민중 삶의 주요 터전이 화전에서 바다로 원상회복됨으로써 화전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뒤의 소산 말이다.

**용머리의 승천**에서의 용머리는 탐라의 독립자존을 이끌 인물의 상징이고, 그리고 용머리의 승천은 그런 인물의 출현일 것이다. / 탐라에는 용머리라 불리는 지형지물이 꽤 있다. 그중 일부는 용ᄆᆞ루[용부龍阜](阜: 언덕 부)의 와전이고, 여타는 자의 그대로의 용머리[용두龍頭](예: 오늘날 용두암이라 불리는 제주시 용담동 해변의 암석)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에서의 용머리는 용ᄆᆞ루의 와전인 셈이다.

**맥을 잘린 그 왕후지지는 영영 왕후를 낼 수 없게 되어 버렸다**에는 꿈을 상실한 탐라민중의 좌절이 투영되어 있다. 산방산과 용ᄆᆞ루가 왕후지지라는 것은 꿈이고, 산방산과 용ᄆᆞ루가 맥을 잘려 영영 왕후를 낼 수 없게 된 것은 좌절(곧, 비극)이니까. 그러고 보면, 위 ❷는 위 ❶과는 달리 '꿈 잃은 비극'인 셈이다. / 각설하고, 꿈이란 현실일까, 비현실일까? 물론 잠속에서 꾸는 꿈은 비현실이다. 아니, 그것도 현실일 수 있다. 그것 또한 잠처럼 삶이란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한편, 생시에 꾸는 꿈은 엄연한 현실이다. 생시

의 꿈이야말로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니까. 그러고 보면, 꿈을 추구하는 전설은 삶의 원동력의 곳간인 셈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산방산 · 용ᄆᆞ루)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옥황상제 실수와 용ᄆᆞ루 혈 · 맥 차단이 당해 전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한라산 · 산방산 · 용ᄆᆞ루 등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진시황 · 고종달 등, 즉 외세의 탐라 핍박에 대해 운운하니까(위 ❷).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용ᄆᆞ루의 혈 · 맥 차단을 운위하니까(위 ❷). 풍수지리설은 황구렁이와 함께 탐라의 신앙적 전설에 압도적으로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에는 신앙적 전설이 꽤 있다. 이는 지난날 탐라민중 삶은 신앙적 색채를 짙게 띠었다는 말이다. 환언하면, 탐라민중 삶은 왕왕, 아니 간단없이 극한상황에 부딪혔다는 말이다. 신앙이란 극한상황에서 가장 치열해지기 마련인 것이니까. 사실, 왕조시대의 탐라후예들은 제주인(곧, 속지인屬地人)으로 영락에 영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종 극한상황(곧, 처참한 삶)에 시달렸다.

Ⅳ. 위 ❶은 '꿈 있는 비극'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탐라는 왕후지지이니 독립자존을 쟁취해야 한다는 꿈, 즉 중심의식을 가지고 자주 · 도전 · 저항 등의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염원이 들어 있다. 한편, 위 ❷는 '꿈 잃은 비극'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탐라는 왕후지지 맥이 끊겼으니 독립자존을 포기해야 한다는 좌절, 즉 변방의식을 가지고 속지 제주(뜻: 한반도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라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패배의식이 들어 있

다. 그러고 보면, 탐라사회에는 '탐라는 왕후지지이다'란 전언과 '탐라는 왕후지지 맥이 끊겼다'란 전언이 동시에 구전되어 온 셈이다. 아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상반된 전언이 동시에 구전하게 되었을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탐라가 고려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938년 이래 탐라민중은 외세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탐라는 왕후지지라 외치며 외세에 저항해댄 반면, 외세는 탐라민중의 기氣를 꺾으려고, 즉 망국민의 패배감 · 무력감 · 좌절감 등을 조장함으로써 저항의지를 근절시키려고 탐라후예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끈인 왕후지지의 혈 · 맥 등을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차단해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모라 몰락(1105년) 이후의 탐라 비사秘史, 즉 민중사를 간직한 역사적 전설이 외세 핍박과 토박이 저항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육짓놈 왐저 ᄒᆞ민,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쳣주!"란 기막힌 전언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탐라사회에 구전되고 있었다. 물론 여기서의 육짓놈은 외세(곧, 한반도인 · 몽골인 등)이다. 아니, 지난날 소위 육짓놈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굴었기에, 그리고 탐라후예들이 육짓놈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증오했기에 이런 전언이 생겨났을까? 물론 이른바 4·3사건 당시 종주국의식(이를 입증하는 것은 당시 한반도인들이 제주인들을 '섬놈의 새끼들'이라 칭한 것임)을 지니고 있던 한반도인들이 속지인인 제주민중에게 가한 핍박을 생각하면 위 전언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고 보면, 위 전언은 속지에서의 종주국 핍박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인 셈이다. / 내처 말하면, 혹자들은 제주사회의 배타성에 대하여 운운한다. 그런데 그 배타성의 뿌리는 혹여 예의 그 두려움이나 증오 따위가 아닐까? 이는 그 배타성은 혹자들이 단언하는 '섬이라는 닫힌 공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지난날 탐라란 섬 일원은 쿠로시오 해류가 있어서 오늘날의 인식과는 달리 주변 세계로부터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었다. 그 해류가 주변의 사람이나 문물 따위를 간단없이 실어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토박이 탐라인들은 동아시아 유·이민과 함께 화합 · 협의 · 공평 등을 기반으로 한 모라毛羅를 세울 수 있었으니까[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그러고 보면, 탐라후예들 뇌리의 배타성을 청산하는 첩경

은 어쩌면 그들 피 속에 들어 있을 예의 그 육짓놈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증오 따위를 걷어내는 것인 셈일지도 모른다.

<김녕 뱀굴>

김녕리金寧里에 사굴蛇窟, 즉 뱀굴이란 굴이 있다(필자 주: ❶). 옛날 그 굴 속에 크기가 다섯 섬들이 항아리만한 황구렁이가 살았다(필자 주: ❷). 사람들은 매년 그 뱀을 위하려고 **한 명의 처녀를 제물로 삼아 큰굿을 벌였다**(필자 주: ❸).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 굿을 거르면 그 뱀은 곡식밭들을 결딴내어 버렸다(필자 주: ❹). / 조선조 **중종** 연간이었다. 서연이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왔다. 이어, 그는 **그 뱀을 죽이려고 육지로 원군을 청했고**, 그리고 자기 심복 이삼만이 원군을 이끌고 **성새개**를 통해 뱀굴 근처로 잠입하자, 그는 **심방** 차림을 하고 그 굴 앞으로 나가 굿을 벌였다. 그러다, 그 뱀이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이삼만과 합세하여 창검으로 그 뱀을 찔러 죽인 연후에 피신하려고 제주성으로 말을 몰았다(필자 주: ❺). 그런데 그가 제주성 동문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뜻밖의 피비[血雨]가 내렸고, 그는 그 비를 맞자 그만 낙마하여 죽고 말았다(필자 주: ❻). 한편, 이삼만은 서연과 협공한 후 예의 그 원군을 이끌고 퇴각하여 성새개에서 배를 타고 **추자도**로 향했다. 하지만 이삼만 일행이 사서코지 곁에 이르렀을 때였다. 뒤따라온 그 뱀 넋의 조화로 그들도 결국 수장을 당했다(필자 주: ❼). 이리하여, 그때부터 김녕리 어부들은 **사서코지** 근처를 항해할 때는 그 뱀 넋을 위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풍습이 생겨났다. —이는 필자가 1960년대 초엽인 국민학생 시절에 북제주군 김녕리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한 명의 처녀를 제물로 삼아 큰굿을 벌였다**라는 화소의 이면에는 당해 전설 해석의 실마리가 들어 있다(이는 아래 [본문本文 관련 해설] IX에서의 '❷ · ❸ 관련 해석' 참조). / 여하튼, 일설은 전한다. 위 화소에서의 제물로 주로 간택된 처녀는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해 천민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무격巫覡의 어린 딸, 즉 이른바 제비祭備(곧, 제의祭儀 준비準備를 하는 수습 무녀)였다고.

**중종**의 재위기간은 1506년부터 39년 동안이다.

**서연**은 일설에는 서린徐鄰으로 되어 있다.

**그 뱀을 죽이려고 육지로 원군을 청했고**에서의 육지는 전라감영全羅監營이다. 물론 제주인들은 지난날 한반도를 통상 육지라 칭했다. 여하튼, 전라감영으로 원군援軍을 청한 것은 당시는 제주관아가 전라도 행정조직에 속해 있어서였고, 게다가 제주관아 소속 관군이 태부족한 상태여서였다. 내친김에 말하면, 조선 조정은 제주 독립을 차단하기 위해, 아니 원천봉쇄하기 위해 제주 토박이 관군 수효를 가급적 줄였다. 따라서 민란이 나면 관아 소재지인 제주성은 번번이 민군 수중에 들어갔다. 한편, 외세(곧, 왜구) 침입에 대한 방호防護 책임은 수백여 년에 걸쳐 으레 주민들 몫이었다.

**성새개**에서의 '새'는 '사이'의 축약縮約이다. 그러고 보면, 성새개는 '성 사이의 갯가'를 줄여서 쓴 호칭인 셈이다. 이는 그 갯가 양쪽에 성(곧, 이른바 환해장성環海長城)이 축조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심방**은 신방神房(곧, 신의 형방刑房)의 자음동화(~n-p~ > ~m-p~) 결과이다(예: 한박꽃[大朴花] > 함박꽃). / 제주 본풀이에서는 굿을 주재하는 이승 무격도 저승차사(곧, 강님)도 공히 신의 형방 취급을 했다.

**추자도**는 사서코지(곧, 사서도蛇嶼島)와 함께 지난날은 김녕리金寧里 일대(곧, 제주도)에서 탐진耽津 일대(곧, 한반도)로 가는 해로상의 두 표지 역할을 했다. 이는 추자도 · 사서도 일대는 당시는 제주도 어부들의 생활영역이었다는 말이다.

**사서코지**에서의 '사서'의 한자어가 『고려사』에는 斜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斜鼠가 아니라 蛇嶼가 쓰인다. 물론 코지는 곶이다. 그러고 보면, 사서코지의 한자어는 蛇嶼串[뱀섬곶]인 셈이다. / 김녕리 어부들은 지난날 이 코지(곧, 섬[島]) 근처를 항해할 때는 꼭 사신蛇神을 위해 이 코지에다 돼지머리(首)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다(이는 아래 [본문本文 관련 해설] IX에서의 '❼ 관련 해석' 참조). 바로 여기서 오늘날의 사수도蛇首島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는 제주인들은 이 코지 있는 섬을 斜鼠島가 아니라 蛇首島라 불렀다는 말이다. / 참, 출륙금지령 때였다. 탐라후예들은 맑은 날 문득 이어도가 그리울라치면 한라산이나 오름 등지에 올라 수평선 위로 함초롬히 드러

나는 사수도나 추자도 같은 섬들을 바라다보곤 했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김녕 뱀굴)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인신공희人身供犧나 등장인물들 죽음 따위가 당해 전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김녕 뱀굴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민군과 관군의 공방전에 대해서 운운하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황구렁이(곧, 다섯 섬들이 항아리만한 뱀)가 소재로 등장하니까. 물론 여기서의 황구렁이는 민군民軍의 상징이다. 참, 지난날 한때 황구렁이는 탐라(곧, 제주)의 토템(totem)이었다.

Ⅳ. 모라 몰락 이전의 탐라신화를 포함한 탐라무속은 아마도 장구한 세월 동안 동아시아 도처에서 유입되어 정착하고 토착화한 것일 것이다. 유·이민이 쿠로시오 해류 덕에 열린 공간인 바다를 통해 간간이 탐라 주변 지역에서 탐라로 흘러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모라 몰락 이후 종주국 한반도와 제주 유림儒林은 탐라문화를 막무가내 오랑캐 문화라 하시하면서 제주를 한반도화하려 들었다. 이를테면, 유교문화를 앞세워 제주에서의 굿 문화를 타파하려 들었다. 하지만 쓴웃음을 짓게 하는 것은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축출된 무격들이 살길 찾아 제주로 흘러드는 바람에 그들에 의해 유입된 한반도 신화들(곧, 본풀이들)이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듯이 기존 탐라신화들을 몰아내고 제주본풀이란 이름으로 탐라에 정착하여 토착화했다는 것이다[이는 '제2부 본풀이(곧, 신화)' 참조]. 그러고 보면, 작금의 제주본풀이들은 한반도 본풀이들이 기존 탐라신화들을 밀어내고 정착하여 토착화된 것인 셈이다. 이는 탐라의 본디

(곧,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화들은 <삼을나(곧, 모라건국)>를 제외하면 거의 다 소멸되어 오늘날은 그 흔적만 어렴풋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물론 나라가 망하면 망국(곧, 종속국)의 신화 · 역사 · 언어 등은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축출되게 마련이다. 그럼, 지난날 한반도나 제주 유림 등은 탐라전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제주의 굿 문화를 대하듯 하시하면서 섣부르게 대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당해 전설에 대해서도 '사악邪惡한 뱀 퇴치'에 관한 것이라는 섣부른 견해를 내놓은 것일까? 물론 그 퇴치 운운은 당해 전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이면을 무시하고 표면에만 의거하여 민중 꿈인 설화說話를 한낱 기담괴설(곧, 설화屑話)로 한정시켜 놓았으니까. 이는 설화 표면에만 의거한 설화 해석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설화 표면(곧, 전경) 너머의 이면(곧, 후경)을 삶의 자리(Sitz-im-Leben)라는 프리즘을 통해 들여다보는 설화 해석이 가급적 지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Ⅴ. 전설 해석은 마땅히 민중의 삶의 자리(예: 당대 생활상生活相)에 의거해야 한다. 이는 전설, 특히 역사적 전설의 해석을 위해서는 마치 빛의 분석에 프리즘이 필요하듯이 삶의 자리라는 여과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전설의 표면과 이면은 투명한 빛과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판이하듯이 판이할 수 있으니까.

Ⅵ. 한 편의 역사적 전설은 민중사民衆史(곧, 피지배층 삶의 기록)의 한 단면斷面이다. 그런데 약자인 피지배층의 역사는 강자인 지배층의 역사 때문에 액면 그대로는 전달될 수가 없다. 그래서 피지배층 역사인 역사적 전설은 구전을 위한 일 방편으로 하릴없이 이런저런 문학적 표현법(예: 비유법 · 과장법 · 반어법)에 의탁하게 된다.

Ⅶ. 전경前景인 역사적 전설 낱낱은 저마다의 이면(곧, 후경後景)에 들어 있는 정신이나 역사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窓이다. 물론 그 정신이나 역사 등은 당해 설화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만 여실히 드러난다. 참, 설화 이면에 정신이나 역사 등이 들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설화의 오늘날의 존재 의의意義이다.

Ⅷ. 참고삼아 말하면, 혹자들은 말한다. 탐라문명 중추인 탐라무속의 발원지는 송당松堂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아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송당 지역은 탐라문명 중추인 탐라무속의 발원지가 될 수 없는 곳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문명이란 오랜 역사를 두고 누적된 일종의 집적물集積物인데 송당 일대는 역사가 집적될 만한 여건이 전무한 곳이니까. 이를테면, 이렇다 할 내창 하나 없는 산간 오지이니까. 따라서 탐라무속의 발원지는 마치 여타 문명들 발원지가 모두 하나같이 하천 유역이듯이(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가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듯이) 수량 풍부한 산저천 유역(곧, 탐라도읍 칠성골)일 수밖에 없다. 이는 칠성 본풀이가 입증한다(이는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 참조).

IX. 이제 <김녕 뱀굴>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은 한반도에서는 다만 사회 몇몇 분야에서의 불교세력 축출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무속과 불교의 말살양상은 물론이고 탐라의 문화유산이나 저항세력 따위의 말살양상도 띠었다. 이를테면, 억불숭유책의 표적이 된 제주의 굿당들과 사찰들, 즉 이른바 '당 오백 · 절 오백'(이는 후술할 <당 오백 · 절 오백> 참조)은 탐라 독립을 꾀하는 저항세력의 근거지로 간주되어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는 탐라 정신문화인 무속과 불교가 초토화되는 비운을 맞았다는 말이다. 이에, 조선의 식민통치하에서 이어도를 그리던 탐라민중은 참다못해 봉기했다. 봉기의 도화선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굿당 파괴였다. 굿당 파괴는 탐라민중에게는 선조들 넋의 화신인 칠성님(곧, 소위 부군신령府君神靈으로 불린 황구렁이)을 유린하는 짓인 동시에 굿당 중심인 마을 공동체의 지주를 무너뜨리는 짓으로 여겨졌으니까. / 각설하고, 김녕리는 동굴이 많아 저항세력의 근거지로는 최적지였다. 동굴 속으로 숨어 버리면 감쪽같이 종적을 감출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억불숭유정책에 반기를 든 민군은 김녕 뱀굴 일대로 모여들었다.(←위 ❶에 대한 해석) / 예의 그 민군의 주역은 무격과 스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군기軍旗는 다섯 섬들이 항아리만한 대통기였다. 대통기는 굿할 때 신목神木인 큰대(곧, 장간長竿)에 달아놓는 '커다란 원통형 기旗'로 칠성님 화신인 황구렁이(또는 황룡黃龍)의 상징이다. 물론 다섯 섬들이에서의 다섯은 '오방五方(곧, 탐라 도처)에서 민군이 몰려든 것'에 대한 상징이다.(←위 ❷에 대한 해석) / 예의 그 큰굿은 실은

‘저항대열에 새로 가입하는 자들의 서약식’ 겸 ‘그들에 대한 환영식’이었고, 그리고 그 큰굿은 마을 단위로 행해졌다. 한편, 인신공희人身供犧를 연상시키는 제물은 희생물犧牲物이 아니라 실은 주례主禮(곧, 굿을 집전하는 심방)였고, 그리고 그 주례 역할은 주로 각 마을 굿당을 관장하는 무녀, 아니 그 차세대 무녀인 제비(곧, 수습 무녀)에게 맡겨졌다.(←위 ❸에 대한 해석) / 그런데 예의 그 민군은 군기(곧, 다섯 섬들이 항아리만한 대통기)를 앞세우고서 그 큰굿을 외면하는(곧, 저항대열에 가담하지 않은) 마을들의 곡식밭을 결딴내어 버림으로써 봉기에 동참하도록 방관자들에게 경계하기도 했다.(←위 ❹에 대한 해석) / 하루는 제주판관 서연이 심방(곧, 예의 그 주례들 중 하나)으로 위장하고서 그 큰굿에 참석했다. 그리고 자기 심복 이삼만이 이끄는 호남(곧, 전라감영) 원병과 협공으로 그 뱀을 죽이고(곧, 저항군에 치명타를 가한 후 대통기를 불사르고) 제주성을 향해 신속히 퇴각했다.(←위 ❺에 대한 해석) / 하지만 서연 무리는 민군들이 피투성이 몸으로 추격하여 퍼부은 피투성이 화살 세례(곧, 피비[血雨])를 맞아 죽었고(←위 ❻에 대한 해석), 이삼만 무리는 그 뱀의 넋(곧, 피투성이 몸으로 추격한 반군)에 의해 사서코지 앞바다에 수장되었다(←위 ❼에 대한 해석). / 내처 말하면, 그 후 잔존 민군은 관군의 차후 기습에 대비하여 김녕리 인근 오지, 즉 제주성에서 가급적 먼 오지인 송당리 일대로 물러났다. 이리하여, 이 땅의 뱀 신앙을 비롯한 온갖 무속은 송당리 일대를 터전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송당리 일대는 탐라문명 중추인 탐라무속의 근거지(나아가서, 발상지)로 취급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 뱀 신앙을 위시한 온갖 무속은 관官의 감시가 소홀한 틈(예: 임진왜란 · 병자호란 같은 혼란기)을 타 김녕리 일대로, 이어서 칠성골 일대로, 나아가서 제주 전역으로 도로 퍼져 나갔다.

<김통정과 붉은오름>

❶ 몽골 침입 때였다. **김통정**金通精은 **패잔병 수백여 명**을 이끌고 **탐라 동쪽 포구로 상륙하여** 그 근처의 **오름**에다 진치고 축성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오름과 포구는 각각 성산城山과 성산포城山浦라 불렸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오름은 일출봉日出峯이라 불리고 있고, 그 오름 이름 성산은 그 오름 소재지 마을 이름이 되었다.

❷ **삼별초**三別抄가 **항파두리**缸坡頭里에서 **축성**하던 해였다. 삼별초 병사들과 주민들은 너나없이 자신이 싼 똥을 집어 먹으며 축성했다. **극심한 가물**로 기근이 들어서였다. / 김통정은 내성內城인 석성石城과 외성外城인 토성土城을 두른 후 그 복판에다 궁궐을 짓고 **해상왕국**海上王國이란 현판을 내걸었다. / 김통정은 적이 공격해 오면 재 뿌려 놓은 성안 공터로 꼬리에 빗자루 매단 말들을 몰아댐으로써 연막을 쳐 적을 물리치곤 했다. / 몽·여 연합군이 항파두리 성채를 점령하기 직전이었다. **김방경**은 그 성채가 철옹성이라 하릴없이 그 둘레만 맴돌았다. 그런데 한 **애기업개**가 그에게 말했다. 성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름이 아니라 그 성채의 성문을 만든 대장장이였다. 이에, 김방경은 그를 잡아들여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다. 그러자 그가 마지못해 털어놓았다. 성문 앞에 풀무를 걸어 놓고 풀무질해대면 그 철문이 녹아내릴 거라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길은 오직 그 길뿐이라고. 이로써, 김방경은 승기를 잡게 되었다. / 결국 **김통정은 용사 70여 명을 데리고 붉은오름으로 가서 자결했다**. 한편, 일설은 말한다. 김통정은 70여 명의 용사와 함께 붉은오름 정상에 배수진을 치고서 몽·여 연합군을 상대로 최후의 일전을 벌인 끝에 장렬히 전사했다고. / **붉은오름에서의 '붉은'은 그때 그들이 흘린 피가 그 오름을 붉게 물들인 데에서 유래했다**.

—이상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1960년대 말엽)에 항파두리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다음은 당해 전설(곧, 민중사)에 관한 사서史書 기록들이다.

○ 원종元宗 12년(1271) 말에 몽골은 국호를 대원大元이라 일컫고 익년에 연경燕京을 대도大都라 하였는데, 이때 원세조는 (중략) 고려를 굴복받은 후 탐라도로써 남송南宋 및 일본日本 정벌征伐의 요충要衝을 삼으려 함에 주의主意하였다고 한다. -『한국사 중세편』, 이병도, 을유문화사, 1961, 598쪽

○ 5월(1271년)에 몽골 · 고려 연합군은 (중략) 진도에 쳐들어가 반란군을 격파하니 사로잡힌 남녀가 만여 인이었다 한다. 승화후는 홍복원 아들인 홍다구에게 살해되고 배중손도 전사했는지 그 후 소식이 묘연해졌다. 그러자 살아남은 삼별초군은 김통정 지휘하에 탐라도(제주도)로 들어가 해상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에, 국호를 원元이라 바꾼 몽골과 고려 정부는 탐라도 정

토군을 일으켜, 고려군은 김방경이, 원군은 흔도와 홍다구 등이 지휘하여 병선 160척, 수륙군 1만으로 제주 상륙을 감행하여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하여, 김통정은 부하 70여 인을 이끌고 한라산으로 들어가 자결했고, 그 밖의 수령은 잡혀 죽었으며 1300여 명의 반도들은 항복했다. 삼별초 반란이 이처럼 평정된 것은 원종 14년 4월이었고, 원은 6월에 탐라도에 탐라국초토사招討司를 두고 그 후 군민도달로화적총관부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라 개칭하더니, 또 후에 군민 안무사按撫使라 고쳐 몽골의 직할지로 삼았다. -『한국사대관 3, 고려사』, 심현, 일중당, 1978, 125쪽

○ 이리하여 고려 · 몽골 연합군은 1271년 진도珍島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이때 삼별초는 그간 연합군과 싸워 번번이 이겨 왔고, 또 몽골의 회유적인 태도에 방심하여 방비를 소홀히 한데다가, 몽골군이 사용하는 화기火器 공격을 받아 하릴없이 진도를 잃고 말았다. (중략) 탐라로 옮긴 삼별초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진용을 재정비하고 차츰 기세를 되찾게 되었다. 그들은 제주에 내성과 외성을 마련하고, 해안에 장성長城을 쌓아 방어시설을 튼튼히 하면서 위세를 떨쳤던 것이다. 이리하여, 남해의 여러 섬을 휩쓸고, 조운선漕運船을 탈취하며, 합포合浦 · 거제현巨濟縣 등 군사 요지를 습격하여 전함을 불사르고, 지방관을 납치 또는 죽이는 등 줄기찬 항거를 계속하였다. -『한국사대계 4, 고려』, 민병하, 삼진사, 1983, 163~164쪽

[화소話素 관련 설명]

**김통정金通精**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그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니까. 아니, 왜 그의 기록이 전무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서史書에서 그의 기록들이 그의 반군 경력 때문에 삭제되어 버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그가 배중손 휘하 삼별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막막하다.

**패잔병 수백여 명**. 배중손 · 노영희 등이 이끄는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퇴각한 후 예닐곱 차례의 전투에서 매번 몽골 · 고려 연합군을 격퇴했다. 하지만 원元세조 쿠빌라이의 특명을 받고 파견된 홍다구가 가담한 1271년 5월 전투에서 참패하여 와해되었다. 그 참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홍다구 휘하 화포火砲부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화포는 당시의 삼별초에게는 가공할 최신식 무기였을 테니까. 한편, 이 전투의 와중에 삼별초가 왕으로 옹립한 승화후 온溫과 그의 아들 환桓은 홍다구의 칼에 시해되

었다. 그리고 배중손을 비롯하여 삼별초 수뇌부도 모두 하나같이 행방이 묘연해졌다. 모두 전사한 것일까? 아니면, 잠적한 것일까? 여하튼, 이 전투로 삼별초는 종언을 고했다. 물론 몽골 · 고려 연합군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김통정 휘하 삼별초가 등장했던 것이다. 그럼, 이 삼별초는 진도에서 퇴각한 패잔병 집단일까, 아니면 진도에서의 마지막 전투 이전부터 탐라에 머물러 있던 예비대(곧, 잔류 부대)일까? 생각건대, 김통정은 패잔병을 이끌고 탐라로 왔을 개연성보다는 잔류부대 지휘관일 개연성이 훨씬 크다. 그 마지막 전투 이후 진도 삼별초 수뇌부 행방이 묘연해졌으니까. 즉, 그 수뇌부 중 단 한 명도 탐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아니, 어떻게 지휘관 없는 패잔병 집단이 당시 저승길이라 불린 험난한 현 제주해협을 작정하고(곧, 훗날을 도모하려고) 건너올 수가 있었겠는가? 이는 김통정 휘하 삼별초는 더는 진도 삼별초가 아니라 탐라 삼별초(곧, 탐라인이 주축이 된 군대)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진도에서 퇴각한 잔병 수효는 지엽적 문제인 셈이다. 물론 당해 전설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잔병 수효는 당해 전설의 불변화소(곧, 핵核)가 아니라 가변화소들 중 하나(곧, 한 점 과육果肉)에 불과하니까.

**탐라 동쪽 포구로 상륙하여**. 일설은 전한다. 삼별초 상륙 지점은 속칭 '군항軍港이'(뜻: 군대가 입항한 곳), 즉 '애월읍 동귀리 포구'라고. 그렇다면, 진도 삼별초는 군항이로 드나들었을 것이고, 진도 잔병은 성산포(곧, 탐라 동쪽 포구)로 들어왔을 것이다. 참, 군항이는 항파두리에서 가장 가까운 포구라서 진도 삼별초가 교두보로, 그리고 탐라 삼별초가 전진기지로 썼을 것이다. 한편, 성산읍(일출봉 소재지)에도 애월읍(항파두리 소재지)에도 삼별초의 축성으로 인해 생긴 지명 고성리古城里가 있다. 그런데 삼별초는 왜 성산을 버리고 항파두리를 최후의 보루로 삼았을까? 그것은 항파두리 일대가 성산보다 물도 풍부하고 땅도 비옥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성산은 지형이 코지[串]라서 물도 부족하고 땅도 척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름**. 성산을 오름이라 한 것은 오류이다. 출륙금지령하의 제주민중은 성산城山(일명 청산靑山)을 오름(곧, 화전으로 개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산(곧, 화전으로 개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을 테니까.

**삼별초**三別抄에서의 별초別抄는 고려시대에 정규군 이외에 특별히 조직된 군대로 야별초夜別抄(곧, 무신武臣정권의 최우崔瑀가 도둑 단속 같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1174년인 명종 4년에 창설한 사병私兵조직)가 그 시초였다. 야별초는 뒤에 기능과 인원이 늘어 좌별초左別抄와 우별초右別抄로 양분되었고, 그리고 이 좌·우별초, 즉 '야별초의 좌우대左右隊'는 고종 때 신설된 신의군神義軍(곧, 몽골로 잡혀갔다가 도망쳐 온 병사들)과 함께 삼별초로 통합되었다.

**항파두리**缸坡頭里에서의 앞쪽 두 음절인 항파缸坡는 '항아리 언덕'이라는 뜻이고, 뒤쪽 두 음절인 두리頭里는 '드르(>들)'[野]의 방언이다. 물론 여기서의 頭里는 '두리'의 차자借字이다. 제주어濟州語에서 알드르(또는 알뜨르)는 '아래쪽 들'을, 웃드르(또는 웃두리)는 '위쪽 들'을 뜻하니까. 그러고 보면, 항파두리의 뜻은 '항아리처럼 생긴 언덕[坡] 형국의 들'인 셈이다. / 한편, 항파두리는 지난날 항간에서는 '항드르(뜻: 항아리 형국의 들)' 또는 '항파缸坡드르(뜻: 항아리처럼 생긴 언덕 형국의 들)'로 불렸다. 그러다가, 항파缸坡드르는 몽골 침입 이후부터는 항파缸破드르[뜻: 몽·여 연합군이 항아리(곧, 철옹성 같은 삼별초 성채)를 파破한 들] 또는 항파抗波드르(뜻: 삼별초가 파랑波浪처럼 밀려드는 몽·여 연합군에 항거抗拒한 들)로 불렸다. 물론 전자는 친몽親夢세력(곧, 성주청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용어였을 것이고, 후자는 반몽反夢세력(곧, 탐라민중)의 용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설이 말하는 '항파'의 한자어는 전자(곧, 缸破)는 아니었을 것이다. 전설이란 민중 꿈의 소산이니까. 그런데 항파缸破는 어순이 '목적어+동사'(곧, '항缸+파破')로 전도顚倒되어 있다. 이는 '파破+항缸'(곧, 동사+목적어)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어 어순은 '동사+목적어'이니까. / 각설하고, 일설은 전한다. 항파두리 일대 주민을 비롯한 탐라민중 대부분이 삼별초에 동조했고, 또 그들 중 일부(약 천여 명)가 삼별초에 가담하여 성주청과 몽·여 연합군을 상대로 일전을 불사했다고. 이는 당연지사였으리라. 당시 탐라민중은 이원집정체제(곧, 성주 · 지방관 공동집정체제)하에서 혈세(곧, 이중二重징세)에 시달렸을 테니까. 또, 고려 조정은 시종 탐라 토박이들을 섬 오랑캐라 하시하면서 무단정치로 일관했을 테니까. 반면, 삼별초는 탐라독립을 연상시키는 해상왕국(곧, 이어도)을

천명했으니까. / 참, 제주어? 그 말뜻은 '구제해야 할 고을의 언어'이다. 여하튼, 모라 몰락(1105년) 이후 한반도 언어가 탐라로 유입되면서 시나브로 탐라어를 몰아내고 정착하여 제주어로 토착화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망국(곧, 종속국)의 언어 · 신화 · 역사 등은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축출되기 마련이니까. 그러고 보면, 제주어는 작금의 제주인들 생각과는 달리 탐라 고유어(곧,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언어), 즉 자랑스러운 탐라문화 유산이 아닌 셈이다.

**축성**. 항파두리에서의 삼별초 축성은 아마도 배중손 휘하 진도 삼별초 시절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기습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을 성주청이 배후에 있었으니까.

**극심한 가물**. 일설은 전한다. 두 해(1272년 · 1273년)에 걸친 극심한 가물로 탐라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싼 똥을 정신없이 집어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에 허덕였다고.

**해상왕국海上王國**. 일설은 전한다. 이원二元(지방관 · 성주星主)집정체제하의 제하의 제주에서는 먼저 지방관이 주민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은 연후에 성주가 그 잔여 절반 중의 절반을 다시 세금으로 걷었다고. 그렇다면, 이 이중二重징세(곧, 혈세)는 삼별초에게는 탐라민중 포섭을 위한 호재好材였을 것이다. 게다가, 예의 그 2년에 걸친 극심한 가물로 인해 탐라민중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였다는 것도, 또 당시는 탐라국호 모라乇羅가 폐지된 지 불과 166년밖에 지나지 않은 터라 탐라민중의 가슴속에 독립자존 열망이 다소 남아 있었다는 것도 삼별초에게는 탐라민중 포섭을 위한 호재였을 것이다. 생각건대, 그 무렵 탐라민중의 심정은 아마도 이판사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삼별초는 탐라민중을 동조세력으로 만들려고 한편 탐라독립(곧, 이어도)을 연상시키는 해상왕국이란 현판을 내걸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축성도 마치고 전열도 재정비하고 나자 군량미와 주민 식량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남해안 · 서해안 등지를 누비며 조운선(곧, 세미稅米 등을 운반하는 배)도 털고 관아 곳간도 털었을 것이다.

**김방경**은 신라 왕손이었고, 한때는 몽골군과 맞서 싸운 우국지사였고, 그리고 허다한 전투 경력을 지닌 명장이었다. 그런데 그는 행영중군병마원수 신분으로 홍다구(몽골에 귀화한 고려인) · 흔도(몽골인)

등과 더불어 탐라 삼별초를 진압하려고 1273년 음력 4월 몽·여 연합군 만여 명(고려인 6천, 몽골인 2천, 한인漢人 2천 등)을 160여 척의 병선에 태우고 탐라 원정길에 올랐다. 그때 그의 나이는 육십이었다. 참, 위의 세 사람은 2년 전인 1271년 5월에 진도 용장산성에서 배중손 휘하 삼별초를 대파했다. 그런데 김방경은 진도에서도 탐라에서도 명목뿐인 원수元帥였고, 실권은 홍다구에게 있었을 것이다. 김방경은 종속국 무관이고, 홍다구는 종주국 무관이니까. / 내친김에 말하면, 홍다구는 오늘날 고려시대 최악의 매국노로 거론되는 아비 복원의 관직 관령귀부고려군민총관을 계승하여 군사를 이끌고 봉주 땅에 들어와 둔전총관부를 세웠다. '다구'는 아명이고, '준기'가 본명이다. 몽골인들은 그를 '찰구이'라 불렀다. 그의 성격은 포악하고 비정하고 다혈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용맹하고 날쌘 장수였다. 참, 그는 어린 나이에 종군하여 쿠빌라이 휘하로 중국 대륙을 누비며 성장한 장수였다. / 내처 말하면, 그의 선조는 당나라 때 대륙에서 고려로 이주해 왔다. 그리고 그의 할아비 대순은 몽골이 강동성에 침입했을 때 자진 항복하여 몽골군 앞잡이 노릇을 했다. 또 그의 아비 복원은 1231년 몽골 침입 때 살례탑 휘하 몽골군에 투항했고, 몽골군이 돌아간 후 1233년 서경낭장 신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북계병마사 민희 · 최이 등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도주하여 몽골로 가 동경총관이 되었다. 그 후 그는 몽골이 고려를 칠 때마다 앞잡이 노릇을 하며 갖은 횡포를 부렸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무는 개'라 불렸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훗날 원元 황제 묵인 아래 고려 조정이 밀파한 자객 십여 명에게 몽둥이찜질당해 죽었다.

**애기업개**는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을 늘 업고 다니며 돌보아 주던 여아女兒를 지난날 지칭하던 말이다. 그런데 애기업개가 당해 전설에 등장했다는 것은 몽·여 연합군이 삼별초를 타도하기 위해 주민들을 어떤 형태로든 징발했다는 것일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삼별초와 몽·여 연합군 간 틈바구니에서 시달렸다는 말이다. / 부언하면, 주민들은 시종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을 삼별초와 성주청 간 틈바구니에서도 시달렸을 것이다. 당시 제주에서는 고려 조정이 파견한 지방관 제주도호부사濟州都護府使와 성주星主(당시 성주는 고인단高仁旦이었음)

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이원집정체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니까.

**붉은오름**은 정상의 흙빛이 주톳빛을 띤 오름으로 한라산 북서 기슭에 위치해 있다. 내친김에 말하면, 붉은오름이란 명칭의 산山(곧, 오름)이 탐라에는 두어 개 더 있다. 그것들은 그 정상에 소위 '송이'(곧, 화산송이)라는 주톳빛 자갈이 드러나 있어서 붙여진 것이다. / 부언하면, 혹자는 한라산이야말로, 혹자는 탐라야말로 붉은오름(뜻: 피로 물든 땅)이라 한다. 일리 있는 말들이다. 국호 모라毛羅가 폐지된 1105년 이래 탐라 천년 역사(곧, 외세 핍박과 토박이 저항으로 점철된 비운悲運의 약소민족 역사)를 곰곰이 반추해 보면 말이다.

**김통정은 용사 70여 명을 데리고 붉은오름으로 가서 자결했다**는 당해 전설을 '꿈 잃은 비극'이 되게 한다. 이는 삼별초 몰락이 탐라 민중에게는 꿈을 상실할 정도의 깊은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설은 전한다. "김통정은 70여 명의 용사와 함께 붉은오름 정상에 배수진을 치고서 몽·여 연합군을 상대로 최후의 일전을 벌인 끝에 장렬히 전사했다"라고. 생각건대, 이 일설은 민중이 좌절(곧, 김통정 일행이 막다른 골목에서 체념하여 자결함)을 딛고 일어나 다시 꿈(곧, 죽기까지 사력을 다해 저항함)을 꾸려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일설은 '꿈 잃은 비극'을 '꿈 있는 비극'이 되게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켜 놓은 것인 셈이다. 저항의 이상이란 승패 여부와는 상관없이 맞서는 것, 나아가서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결연히 맞서는 것일 테니까. 물론 이런 이상은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 고유의 특질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한국전설이론은 말한다. 전설이란 일단은 증거물(예: 붉은오름)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이는 증거물 아닌 것에 대한 설명(예: 김통정 일행의 자결이나 전사 여부)은 전설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전설이란 꿈꾸며 좌절하고 좌절하며 꿈꾸는 민중의 삶의 소산이다. 이는 민중의 삶이란 좌절과 꿈의 간단없는 반복, 즉 마치 당해 전설이 자결이란 좌절을 딛고 장렬한 전사라는 꿈을 꾸듯이 숙명적인 좌절들을 의지적인 꿈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전설 입장에서는 '증거물 아닌 것에 대한 설명'도 때로는 '증거물 설명'에 못지않게 유의미한 것인 셈이다. 내처 말하면, 구비문학

(예: 전설)은 기록문학(예: 소설)과는 달리 흡사 생목生木처럼 미완성의 것, 즉 완성을 향해 자라나는 것이다. 물론 전설이 자라난다는 것은 민중의 꿈(곧, 미래)을 위해 구체화되고 심화된다는 것이다. 마치 당해 전설에서의 자결이 장렬한 전사로 변모되듯이. 그러고 보면, 전설 본문 · 이면 정신 등의 구체화 · 심화도 전설 입장에서는 예의 그 증거물 아닌 것에 대한 설명처럼 때로는 유의미한 것인 셈이다.

**붉은오름에서의 '붉은'은 그때 그들이 흘린 피가 그 오름을 붉게 물들인 데에서 유래했다**는 당해 전설의 핵심화소이다. 당해 전설 증거물인 붉은오름에 관한 것이니까. 물론 이는 당해 전설의 운명은 증거물 붉은오름의 존립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당해 화소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붉은오름의 흙은 본디 붉은빛이었을 것이고, 김통정 일행의 피는 차후에 그 흙에 뿌려졌을 테니까. 하지만 민중은 생각한다. 그 오름 흙의 붉은빛은 김통정 일행 피 때문이라고. 그러고 보면, 이는 붉은오름의 붉은빛을 대할 때마다 김통정 일행 자결(또는 전사)이, 나아가서 탐라 삼별초 항거가 연상되게끔 하기 위해서인 셈이다. 바로 이런 연상으로 인해 전설은 세대를 거듭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설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증거물이고, 그리고 그 보조 동력은 연상 작용이라는 말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붉은오름 등)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탐라 삼별초 몰락과 김통정 일행 죽음이 당해 전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붉은오름 · 성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몽·여 연합군 침략과 탐라 삼별초 몰락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으니까.

Ⅳ. 몽·여 연합군은 1273년 음력 4월 속칭 항파두리 등지에서 김통정 휘하 삼별초를 멸했다. 그리고 원나라는 그로부터 두 달 후인 그해 6월에서 원나라가 패망한 1367년에 이르는 94년 간, 아니 탐라 주둔 몽골군이 탐라 민군과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 휘하 고려군, 즉 탐라 · 고려 연합군에게 애월, 새별오름, 한라산 동녘 등성이, 범섬 등지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하여 마침내 섬멸당한 1374년 8월에 이르는 101년 2달 동안 탐라민중을 상대로 갖은 만행 · 핍박 · 수탈 등을 저질렀다. 그런데 오늘날 탐라에서 칭기즈 칸이란 자가 영웅시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해 마지않을 일이 아니랴. 사실, 아무리 억만년 광음이 흐르고 또 흐른다 해도 칭기즈 칸은 탐라에서는 한낱 탐라를 침략하여 유린한 원元세조 쿠빌라이의 뿌리로 전범자 · 살인마 · 침략자 · 전쟁광이자, 나아가서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 군국주의자들 못지않게 인간을 살육하고 인간성을 파괴한 인면수심의 원흉일 뿐이다. 참, 칭기즈 칸이 탐라인처럼 몸에 몽고반蒙古斑이 있다는 이유로 영웅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라사회가 아직 의식이 덜 깨어 있어서 미성숙한(곧, 비이성적 · 비합리적) 사회임을 말해 주는 증좌일 것이다. 여하튼, 칭기즈 칸을 영웅시하는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려 든다. 물론 명분상 정의를 위한 전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치고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을 수 없다. 전쟁은 필히 무력(곧, 폭력)을 수단으로 하니까. 나아가서, 무력은 무력을 부르고 결국은 주체할 수 없어서 상호충돌을 야기하고야 마는 것, 즉 암 같은 것이라 제거하지 않으면 필히 죽음(곧, 파괴)을 초래하고야 마는 것이니까. 참, 오늘날 탐라는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를 염원하면서 전쟁광을 예찬하는 것은 모순이다. 평화는 질박한 협의 · 공생 · 평등 · 이타 등의 소산이고, 전쟁광은 무력을 우선시하는 자이니까. / 각설하고, 전설이 오늘날 의미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정신이 들어 있어서이다. 그럼, 당해 전설 이면에는 어떤 정신이 들어 있을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탐라와 군대는 상극이다”란 정신이 아닐까? ‘삼별초와 몽·여 연합군’[이는 탐라에서의 첫 군대(곧, 무력)임]이 유입되자 이 땅에 붉은오름(곧, 피투성이 땅)이란 전설이 생겨났으니까. 그런데 탐라가

군대와 상극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탐라는 무력이 아니라 비무장 평화를 늘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라국조 삼을나가 무력이 아니라 비무장 평화에 의거하여 모라毛羅를 창건했듯이. 이는 탐라의 작금의 평화의 섬 또한 지난날의 모라건국처럼 그 이면 정신이 비무장 평화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 이면에 들어있는 궁극적인 정신은 바로 비무장 평화인 셈이다.

## <강정 구럼비바위>

삼별초가 항파두리에서 한창 축성築城할 때였다. 사람들은 타는 목과 주린 배를 움켜쥐어 가며 축성해야 했다. **두 해에 걸친 가뭄** 때문에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어서였다. / 그 무렵 항파두리 북서쪽 **고내**高內라는 마을에 한 아이가 병약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단 하나의 소원은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것이었다. / 어느 날 아이는 난리도 피할 겸 아버지의 지병도 치유할 겸 강정江汀 마을로 터전을 옮겼다. 강정은 물이 좋아서 병 따위는 없다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 하지만 강정 마을도 그 혹독한 가물 탓에 물이 바싹 말라 있었다. / 그래도 아이는 아버지의 지병을 고쳐 보겠다는 일념으로 좋은 물을 찾아 마을 안팎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다, 하루는 바닷가 **구럼비나무** 숲 근처에서 **용천**湧泉 하나를 발견하고 그 샘물을 떠다가 아버지께 드렸다. / 아버지는 그것을 마시더니 병이 다 나은 것 같다며 환히 웃으셨다. / 아이는 매우 기뻤다. 그래서 아이는 날마다 그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렸다. / 그런데 하루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샘이 바싹 말라 있는 것이었다. / 아이는 낙담한 나머지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막대기로 땅바닥을 툭툭 두드리며 구럼비나무 숲을 향해 쉼 없이 물어댔다. “구럼비야, 구럼비야, 왜 샘이 말라 버렸어?”라고. / 그렇게 한나절을 땅바닥을 두드리며 하소연해대자 지신地神이 마지못해 응대했다.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다 그러렴.” / 이에, 아이는 하늘에다 대고 하소연했다. / 하지만 하늘은 갈수渴水의 책임을 땅 탓으로 돌렸다. 아무리 비를 퍼부어도 땅이 가두어 두지 않고 땅속으로 바다로 마구 흘려보내서 그런 거라고. / 아이가 생각해 보니 그도 그럴 법한 말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다시 땅바닥을 두드려 가며 졸라댔다. 땅속에 있는 물을 **내창**으로라도 좀 흘려보내어 달라고. / 아이가 하도 조르기에 땅이 마지못해 말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땅

속 물줄기를 바꾸려면 희생물이 필요해. 그리고 그 희생물은 닭이나 돼지 따위의 짐승은 안 되고 꼭 사람이어야 해." / 아이는 효심이 지극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희생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땅이 말했다.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일ㅡ 강정江汀, 이ㄴ 무릉武陵**'이라고 외치라고. 그러면, 온 섬의 물줄기가 이곳 강정으로 통할 테니 이 섬에 물이 단 한 방울이라도 있는 한 강정 내창은 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 하지만 아이는 무릉이라는 마을을 몰랐다. 그래서 아이는 무릉을 자기 고향 고내로 바꾸어 외쳐댔다. "일 강정, 이 고내! 일 강정, 이 고내! …." / 그러자 바닷가 빌레왈이 요동치더니 쩍 갈라져 양분되었고, 아이는 그 갈라진 틈새로 순식간에 쓸려 들었다. 그리고 그 틈새가 도로 닫혔을 때는 그 맞붙은 부분이 마치 아이의 입술인 양, 아니 이 섬의 입술인 양 도톰하고 기다랗게 불거졌다. 게다가, 한동안 그 바위 속에서 "구럼비야! 구럼비야! …." 라는 그 아이의 애틋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삼킨 빌레왈, 아니 바위를 '**구럼비바위**'라고 불렀다. / 한편,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강정 내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 철철 넘쳐흘렀다. 그리고 그 내창은 그날 이후로 어떤 가물에도 마르는 법이 없었다. '강정'이란 마을 이름은 바로 이렇게 강江가, 즉 강정江汀처럼 물이 풍부해져서 붙여진 것이다. / 일설에 의하면, 요즘도 온 섬이 혹독한 가뭄에 시달릴 때 그 마을 아이들이 그 바위에 귀를 들이대면 간혹 "구럼비야! 구럼비야! …."라는 그 아이의 애틋한 음성이 아련히 귓전을 맴돈다고 한다. ㅡ이는 필자가 대학생 시절(1970년대 초엽)에 강정 마을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두 해에 걸친 가뭄**은 전술한 <김통정과 붉은오름>에서의 '두 해(곧, 1272년과 1273년)에 걸친 가뭄'일 것이다.

**고내高內**는 항파두리 북서쪽 해안 근처의 마을로 당시는 김통정 휘하 삼별초의 세력권 아래 놓여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마을 주민들도 항파두리 인근 주민들처럼 삼별초 축성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에서의 아이와 아버지가 강정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난리를 피해 피난을 간 것인 셈이다.

**구럼비나무**는 까마귀쪽나무(학명: Litsea japonica)이다. 그 열매인 구럼비는 지역에 따라 구름비 · 구릉비 · 구렁비 등으로도 불린다. 참, 구럼비는 주꾸리(직박구리)가 즐겨 먹는 열매이다. 주꾸리는 '주

꾸는 새'이고, 그리고 '주꾸다'는 '거칠게 짖어대다'이다.

**용천**湧泉은 지난날은 탐라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물로 숨굴과 더불어 주민 터전의 양대 조건이었다. 용천은 '물을 길어 오는 곳'이고, 숨굴은 '물을 버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마을들은 필히 용천 근처에 자리 잡았고, 가옥들은 저마다 숨굴을 하나씩 차지하여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 흔하던 용천이 오늘날은 드문 풍물이 되고 말았다.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사기업 한진에서 뽑아 팔아먹고, 수십여 골프장에서 뽑아 잔디에 뿌려대고, 그리고 사업장들(곧, 호텔 · 공장 · 농장 등)에서 뽑아 사용한 탓에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수세水勢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탐라에서의 지하수 고갈이란 재앙은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가 아닐까? /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은 조간대潮間帶 용천에서 솟아난 질 좋고 차가운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조류와 어패류의 생존에 최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바다가 늘 풍성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도 감소되고 질도 악화되면서 해조류와 어패류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악화된 수질 · 수량 탓에 먼저 해조류가 죽어가면서 소위 바다 사막화沙漠化 현상이 일어났고, 이어 어패류가 그 현상에 따른 서식환경 급변으로 급격히 사라져갔다. 그럼, 탐라 근해의 황폐화란 재앙도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가 아닐까? 내처 말하면, 간과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고갈 상태의 조간대 용천 구멍들을 통해 역류해 드는 해수가 탐라 생명수인 지하수를 야금야금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지하수의 염분에 의한 오염도 그 오염으로 인한 토양 황폐화도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가 아닐까?

**내창**은 지하수 개발 이전인 20세기 초엽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건천乾川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무분별한, 아니 무자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용천 고갈로 몇몇 내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내창이 건천이 되고 말았다. 물론 그 몇몇 내창의 건천화乾川化도 발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일 것이다.

**일ㅡ 강정**江汀**, 이ㄴ 무릉**武陵에서의 무릉은 탐라 서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 무릉리武陵里가 아니라 실은 <도화원기桃花源記>(도연명陶淵明)

에서의 무릉도원武陵桃源, 즉 이상향理想鄕일 것이다. 이는 '일 강정'은 무릉도원을 능가하는 이상향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일 강정'은 강정 마을을 이상향 중의 이상향으로 만들겠다는 강정 주민들 염원의 표출인 셈이다. 전설이란 민중 꿈의 산물이니까.

**구럼비바위** 일대의 빌레왈(곧, 암반 지대)은 지하수 저장고의 보호막保護幕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해군기지를 구축하겠다며 이 빌레왈을 폭파시켜 버렸다. 이는 탐라 생명수의 고갈을 재촉하는 작태이다. 지하수가 그 폭파 지점에서 하염없이 빠져나갈 테니까. 물론 지하수는 그 폭파 순간만이 아니라 예의 그 빌레왈 일대 지하수가 바닥날 때까지 간단없이 빠져나갈 것이다. / 한편, 예의 그 폭파는 탐라민중을 짓밟는 만행이다. 그 폭파 대상인 바위가 전설 증거물(곧, 민중의식이 들어 있는 그릇)이니까. 생각건대, 민중 삶의 소산인 전설마저 작살내어 가며 구축하는 해군기지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한반도 방어? 그럼, 탐라는 언제까지 한반도의 밥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돌이켜보면, 탐라는 모라乇羅 몰락 이래로 내내 한반도의 밥이었다. / 내친김에 말하면, 전설 존망은 증거물 존망에 달려 있다. 이는 당해 전설은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가뭇없이 사라진 구럼비바위(나아가서, 그 이면의 민중의식)를 위해 비석이라도 건립할까? 물론 그것은 당해 전설 향유자인 강정 민중의 몫이다. / 내처 말하면, 대한민국 최후 방에다 구축한 해군기지가 과연 국민, 아니 민중을 위한 시설일까? 혹여 해군 휴양을 위한 시설은 아닐까? 모름지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도 군대도 민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궁극적으로 수호하는 것은 정부도 군대도 아니라 민중이니까. 사실, 민중이 있는 한 정부와 군대가 없어도 민족은 건재하나, 민중이 소멸되면 민족도 국가도 그만 소멸해 버리고 만다. / 요컨대, 민중정신의 곳집인 전설 증거물을 폭파하다니, 실로 언어도단이다.

**강정 내창**이 건천이 되면, 탐라는 지하수 고갈 · 오염 등과 근해 황폐화란 재앙에 어김없이, 아니 하릴없이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기온상승에 따른 재앙을 공언公言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물론 그 공언은 결코 공언空言으로 끝나지 않

을 것이다. 인간 욕망과 증오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재앙을 목전에 두고도 국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온갖 전쟁놀이에 광분하는 전쟁광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생각건대, 조만간, 아니 미구에 대재앙은 기필코 닥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아니, 생존 욕망에 사로잡힌 채 발악하며 발버둥질 치다가 하릴없이 죽어갈 것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강정 구럼비바위)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주인공 아이의 죽음이 당해 전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강정 구럼비바위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물 부족과 난리(곧, 외세 핍박)에 시달린 탐라민중 생활상(곧, 민중사民衆史)이 당해 전설에 투영되어 있으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물 부족과 외세 핍박은 모라 몰락 이후의 탐라후예들에게는 삶의 양대兩大 악조건이었다.

Ⅳ. 당해 전설은 전설의 이상이며 전형인 '꿈 있는 비극'이다. 주인공 아이의 자진自進 희생은 비극이고, 그리고 강정 내창으로 물이 흘러든 것은 꿈(곧, 구원)이니까.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은 말하고 있는 셈이다. 자진 희생이야말로 구원의 전제조건이라고.

Ⅴ. 설화는 액면(곧, 전경前景) 그대로는 한낱 기담괴설에 불과하다. 그래도 오늘날 탐라는 설화로 눈을 돌린다. 그것은 설화 이면에 무엇(곧, 미래를 위한 이정표인 역사 · 정신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설화의 구전이나 해석 등은 탐라가 미래를 위해 꾸는 오늘의 꿈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지금 탐라는 비무장 평화지대와 세계평화 중심지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분통터질 일은 지난날

한반도 조정이 줄기차게 핍박하고 멸시해 온 이 땅을 오늘날은 한반도 정부가 한반도 방위를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처 말하면, 한반도 정부가 제주를 미국 군사기지로 내주려 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이는 제주(뜻: 속지)를 사실상의 미국 속지로 넘겨주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탐라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쩌면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치욕스러운 명찰 제주(뜻: 한반도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를 탐라로 고쳐 달 수 있는 호기 말이다. 참, 또 모를 일이다. 훗날 한반도 정부가 상황에 떠밀려 제주를 중국의 군사기지(곧, 속지)로 내줄지도. 지난날 몽골제국의 속지로 내주었듯이. 그런데 제주가 미국이나 중국의 속지로 제공되는 것을 두고 한반도 정부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탐라후예들이 모라몰락 이후의 처참한 탐라역사, 아니 제주역사를 아주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하여, 제주를 배척하기커녕 기꺼이 수용하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자생적인 탐라어(곧, 박힌 돌)를 밀어내고 토착화한 제주어(곧, 굴러온 돌)를 자신들 정체성의 상징인 양 여기고 있으니까. / 각설하고, "제주를 관광과 국방의 메카로 만들자!"라며 설쳐대는 무리가 있다. 언어도단이다. 아니, 왜 탐라가 생명을 살리는 농업 · 목축업 · 수산업 등은 제쳐놓고 하필이면 재앙에 취약한 관광산업과 결국은 재앙을 야기하고야 말 국방산업에 매달려야 한단 말인가?

<당 오백 · 절 오백>

옛날 제주에는 당堂과 절[寺]이 각각 **5백**씩 있었다. 어느 해였다. **육지** 출신 **이李 아무개**가 제주목사로 부임해 오더니 당과 절을 일일이 찾아가 당해 심방에게 신령한 기운을 보이라고 하명했다. 예컨대, **큰대**를 굿당 한복판에 눕혀놓고 **신령한 기운**만으로 그것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한나절을 기다린 후, 이렇다 할 기운을 보여 주지 못하는 굿당들은 여지없이 허물고 불살라 버렸다. 이리하여, 당 오백 · 절 오백은 초토화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는 필자가 중학생 시절(1960년대 중엽)에 김녕리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5백**에서의 5는 오방五方(곧, 동 · 서 · 남 · 북 · 중앙), 즉 도처到處를, 그리고 백은 충분함을 상징한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오백은 '(당堂과 절[寺]이) 제주 도처에 충분히 있음'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후술할 <오백장군과 고종달>에서의 오백도 '(장군감이) 도처에서 충분히(곧, 많이) 모여든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전술한 <김녕 뱀굴>에서의 다섯 섬들이의 다섯도 '(민군이) 오방(곧, 제주 도처)에서 모여든 것'에 대한 상징이다.

**육지**라고 한반도를 일컫는 제주인들 습관은 불식되어야 한다. 그 이면에 한반도는 중심이고 탐라는 변방이란 의식이 들어 있으니까. 생각건대, 지구 표면 어디에도 변방(또는 중심)은 없다. 그러니, 탐라 후예는 이제 그만 변방의식을 떨쳐버리고, 아울러 자신이 있는 곳이 곧 중심이란 의식과 신념을 품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李 아무개**. 『증보탐라지』[7]에 "조선조 숙종 때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삼읍三邑 음사淫祠와 불우佛宇 백 삼십여 소를 분소焚燒하고 무격 사백여 명으로 각기 귀농歸農케 하다"라는 글이 있다. 그럼, 여기서의 '이 아무개'는 이형상(1653년~1733년)일까? 이형상은 사서 · 읍지 등에는 훌륭한 목민지관牧民之官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대 지배층(곧, 관리 · 유림 등)의 관점에서는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속 · 불교 등을 신봉한 당대 탐라민중의 관점에서는 어불성설이었을 것이다. 당대 탐라민중은 그를 악惡의 화신쯤으로 여겼을 테니까.

**큰대**는 신목神木이다. 신목은 굿할 때 초청받은 천상계天上界 신들이 딛고 내려오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늘을 향해 높이 세워 놓는 장간長竿, 즉 대나무이다. 바로 이 신목에서 제물이 진설된 제상祭床까지 신神줄이 연결되는데, 신목을 딛고 내려선 신들은 이 신줄을 타고 제상으로 내려와 진설陳設된 음식을 흠향歆饗하게 된다.

**신령한 기운**은 초자연적 현상이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갈구하는 것은 지난날 신앙의 특질이며 사명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현상을 갈구하는 신앙은 시대착오적 신앙(곧, 미신迷信)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물론 타 신앙을 미신으로 매도罵倒하는 그리스도교도 이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일까? 지난날 초자연적 현상을 갈구

7) 『增補耽羅誌』, 淡水契 편, 1954, 466쪽

해 온 그리스도교는 오늘날은 그런 현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자연적 현상도 하느님 소산이고, 그리고 자연적 현상의 자연스러운 운행도 하느님 섭리라고 가르친다. 한편, 초자연적 현상을 갈구하면서 그런 현상을 우선시하는 자기 내부 일각을 의심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한다. 그들이 행여 이단異端으로 흐르는 것이 아닐까 해서 말이다. 여기서의 '이단'이란 이 세상(예: 자연적 현상)을 악惡의 화신들 농간으로 얼룩진 악한 것으로 보고 적대시하는 경향을 뜻한다. 아무튼, 이형상이 신령한 기운을 운위하며 당과 절을 파괴한 것은 부당하다. 억불抑佛을 위해 신령한 기운(곧, 불가능)을 요구한 것이니까. 물론 이형상의 그 억지(곧, 신령한 기운 요구)에는 제주 무속 · 불교 등의 자업자득인 면도 분명 있다. 제주 무격 · 승려 등이 자신들을 신령한 기운의 도구로 자처하여 마지않았으니까.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제주의 당 오백 · 절 오백)이니까. 또한,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종교 박해(곧, 당 · 절 초토화)가 당해 전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애감을 자아내게 하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지난날 제주의 당 오백 · 절 오백에 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억불숭유정책 실시에 관한 것이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신령한 기운 · 당 · 절 따위에 관해 운운하니까.

Ⅳ. 일설은 전한다. "제주에서의 글 읽는 소리는 성안 오현단에서 맨 처음 들렸고, 그리고 그것은 적객謫客인 다섯 현인賢人(곧, 김정 · 송인수 · 김상헌 · 정온 · 송시열 등)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그런데 오늘날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바로 이 글 읽는 소리 들린 날(16세기경)을 탐라가 비로소 문맹에서 깨어난 날로 여긴다. 하지만 이는 편견이다. 무속 · 불

교 등은 안중에 없는 처사이니까. 게다가, 단견이다. 모라 건국과 몰락 당시 국호들인 耒羅 · 仝羅(여기서의 耒와 仝는 한자 육서 중 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들로 각각 '三+乙'과 '二+乙+•'임)조차 안중에 없는 처사이니까. 아니, 16세기 이전이 문맹상태라면 어찌 이런 글자들이 쓰일 수가 있었겠는가. 따라서 예의 그 그날은 이 땅이 문맹에서 깨어난 날이 아니라 유교문화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이식되기 시작한 날, 즉 탐라의 한반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날이라 해야 한다.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제주 유림 일각은 한반도인과 한통속이 되어 탐라후예를 무지몽매한 섬 오랑캐라며 비아냥거렸고 업신여겼다. 즉, 자조적인 망언을 일삼았다. 오늘날 친일파가 일제를 찬양하고 조선을 비하하듯이 말이다.

Ⅴ. 탐라에서 이른바 신앙信仰이 본격적으로 핍박받은 경우는 세 번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에 의거한 불교 · 무속 탄압이었다. 이 탄압은 조선조 이전에 형성된 정신적 · 물질적 탐라문화유산을 깡그리 말살시켜 버릴 정도로 대대적인 것이었다. 아마도 바로 이때 탐라국 초석인 칠성도七星圖(곧, 일곱 기의 사직단)를 비롯하여 탐라성(곧, 제주성) 안의 모든 불교 · 무속 시설이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외세 척결 차원, 아니 실은 기존 질서체제인 유교식 신분사회 유지維持 차원에서의 천주교 탄압이었다. 이 탄압은 신축辛丑년(1901) 음력 4월의 일이었고, 그리고 이때 천주교도 7·8백여 명이 관官에 선동된 민중사회 일각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오늘날 이 사건을 두고 양측(곧,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어쩌면 역사 발전과정에서의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당시 조선사회는 신분제도에 반反하는 자는 극형의 적용도 서슴지 않았던 사회였고, 그리고 당시 천주교도 집단은 신분제도의 타파를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지 않았던 집단이었으니까. 아울러, 그 사건은 어쩌면 천주교 신앙 역사에서의 필연적 결과, 즉 제주 천주교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시려는 하느님 야훼의 섭리 소산인지도 모른다. 그 세 번째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의한 탄압으로 소위 새마을운동이라는 미명하에 구습 타파의 기치를 내걸고 전개한 무속 추방운동과 소위 4·3사건 원혼을 위한 해원

解寃굿의 금지였다. 그런데 전자는 무속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고, 후자는 무속 자체(곧, 해원굿)가 아니라 4·3사건을 겨냥한 것이었다.

Ⅵ. 무속이 오늘날 사회 일각에서 구습(곧, 우상숭배 · 미신 등)으로 치부置簿됨과 동시에 타파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변화를 모른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사실, 무속은 일단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나자 그만 안주하고(곧, 고착화되고) 말았다. 주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착오적 정신으로 전락해 있다. 물론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이고, 결국에는 사멸하고야 말 것이다. / 부연하여 설명하면, 이 세계는 살아 있다. 예컨대, 뱀은 탈바꿈하고 나무는 자란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하고, 인간 정신은 그에 걸맞게 진보한다. 이는 삼라만상은 간단없이 변모하면서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제주 무속은 흡사 골동품이나 화석처럼 변화를 등지고 있다. 그래서 여타 신앙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를 들면, 무속의 사후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저승이다. 저승은 신화적 개념인 동시에 사차원적(곧, 시·공간적) 개념이다. 그런데 과연 이 우주 안에 자의 그대로의 사차원적인 저승이 존재할까? 이는 회의적이다. 아니,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속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속은 시종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라는 시쳇말만 지껄여대면서 신령한 기운이나 찾고 있다. 진정한 신앙은 맹신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理性이 허락하는 데까지 간 연후에 직관直觀을 넘어 다다르게 되는 신념이며 태도이며 행위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이기를 바란다. 마냥 비합리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러니, 비합리적인 말인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라는 말은 그만 버리고 "좋은 것이 우리 것이어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말로 대체해야 한다. 물론 신령한 기운 타령도 집어치우고 말이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것은 버리고, 시의적절한 것은 누리고, 당대에 앞선 것은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 요컨대, 무속은 손색없는 신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니 적어도 미래 사회의 걸림돌이란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먼

저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나아가서 시대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 세계적 신앙으로 성장한 그리스도교의 사후세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쉐올(לוֹאשׁ)이었다. 쉐올은 일종의 저승, 즉 '땅 아래 있으면서 흑암으로 차 있고(또는 희미한 불빛이 흐르고) 사자死者들이 함께 모여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쉐올은 그리스도교가 주변 세계(곧, 조로아스터교 · 플라톤 철학 등)와 교류하면서 천국 · 연옥 · 지옥 등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작금의 그리스도교 일각에서는 이것들을 한낱 신화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소위 천국이란 모든 영적靈的 존재들이 하느님과 일치된 상태라는 견해를, 그리고 소위 지옥이란 그 존재들이 그분과 단절된 상태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개진한다. 혹자는 말하기도 한다. 사후세계란 4차원(곧, 시공時空차원)을 넘어선 차원의 세계라고. 부언하면,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서도 창조론을 경원하면서 유대계 프랑스인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창조적 진화(L'Évolution Créatrice)를 경청한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계라는 것, 삼라만상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 어떤 정신도 시의時宜적절한 시대정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멸하고야 만다는 것 등을 늘 염두에 두고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셈이다.

<송당>

**송당**松堂이라는 마을은 여신女神 **금백주** · **세명주**, 그리고 남신男神 **소천국**(곧, **소로소천국**)이 각각 관장하는 웃上송당 · 샛中송당 · 알下송당으로 되어 있다. / 일설에 의하면, 소천국과 금백주는 부부였다. 그들은 아들 18명과 딸 28명을 생산했다. 그리고 거기서 **손자 378명**이 태어났다. 바로 **이 손자들이 제주의 각 마을로 이주하여 본향신**本鄕神**(곧, 각 마을을 관장하는 굿당들의 신)이 되었다**. —이는 필자가 중학생 시절에 김녕리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송당**松堂은 처음은 당堂집 칭호로, 훗날은 마을 칭호로도 쓰였다.

**금백주 · 소천국**(곧, **소로소천국**)은 당해 설화의 전거典據인 후술할 <송당 · 궤눼깃당> · <내왓당> 등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즉 본풀이 신적 존재들이다. 하지만 당해 설화에서의 금백주 · 소천국은 본풀이 주인공들이 아니라 옛말 주인공들이다. 당해 설화가 본풀이가 아니라 옛말이니까. 물론 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해서 당해 설화가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는 한국설화 분류이론 3분법이나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법에 의거하니까. / 내친김에 말하면, 신명神名은 때로는 당해 신화의 이면 정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해 준다. 흡사 <창세기בראשית> 주인공 이름 야훼יהוה[곧, 히브리어 동사 '하야היה'(존재하다)에서 파생된 명사]가 <창세기> 이면 정신(이는 야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創造主임)을, 그리고 <삼을나(곧, 모라건국)> 주인공 이름 을나乙那[곧, 하나(乙)가 되신 분(那)]가 <삼을나(곧, 모라건국)> 이면 정신(이는 셋이 하나가 됨)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해 주듯이. 그런데 금백주와 소천국을 비롯하여 제주본풀이 신명들(예: <사신 칠성>에서의 세변도원수 · 개로육서또 · 고첨지영감 · 고망할망 · 박씨할망 등) 대부분은 당해 설화(곧, 신화)들의 이면 정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단초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 까닭은 그 신명들이 아마도 고망할망(고망: 구멍)이나 고첨지영감(첨지: 나이 많은 남자를 낮추어 가볍게 부르던 호칭)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기 때문이거나, 또는 설화들과 분리된 채 해외(곧, 주로 한반도)에서 따로따로 유입된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언하면, 신명이 당해 신화의 이면 정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단초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본풀이가 지닌 단점들 중 하나이다. (<송당 · 궤눼깃당>, <내왓당>, <삼을나(곧, 모라건국)>, <사신 칠성>은 후술할 제2부 참조)

**세명주**는 설문대할망 전설 주인공 세명뒤 · 설문대 등의 이칭으로 전설에는 등장하지만 신화(곧, 본풀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제주본풀이 어디에도 세명주 관련 내력담來歷談(곧, 본풀이)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세명주 관련 내력담이 없다는 것은 세명주는 본풀이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본풀이 신은 오직 본풀이(곧, 내력담)를 통해

서만 등장하는 것이 본풀이의 철칙(곧, 화법)이니까. 한편, 본풀이 신은 모두 하나같이 직능신職能神이다(이는 후술할 제2부 참조). 이는 본풀이 신에게는 일정한 직능이 꼭 주어져 있다는 말이다. 삼승할망에게 잉태란 직능이, 자청비에게 농경이란 직능이 주어져 있듯이. 하지만 세명주에게는 아무런 직능도 주어져 있지 않다. 이는 세명주는 본풀이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 본풀이 신은 모두 하나같이 본풀이에서 주연(또는 조연)으로 등장한다(이는 후술할 제2부 참조). 하지만 세명주는 결코 본풀이에서 주연(또는 조연)으로, 아니 단역으로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전설에서 주연으로 등장할 뿐이다. 이는 세명주는 본풀이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명주가 본풀이 신神 금백주 · 소천국과 더불어 당해 설화(곧, 전설)에 등장해 있다. 즉, 세명주가 금백주 · 소천국과 함께 동류의 본풀이 신인 양 취급되어 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생각건대, 금백주와 소천국은 송당 마을이 웃송당과 알송당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절, 즉 샛송당이 없던 시절의 본향신本鄕神들이었을 것이고, 훗날 여차여차한 이유로 그 두 당 사이에 샛송당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샛송당 관계자(예: 무격)가 궁리 끝에 전설상의 세명주를 그 샛송당 본향신으로 끌어들였을 것이다. 즉, 세명주를 궁여지책으로 본풀이 신神인 양 왜곡(곧, 조작 · 날조 등)해 놓았을 것이다. 물론 이 왜곡은 마땅히 바로잡혀야 한다. 설화란 민중 공동작이지 개인작이 아니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설화에서의 왜곡은 한둘이 아니다. 그중 최악의 것은 역사적 전설인 설문대할망 전설과 오백장군 전설의 신화화神話化이다(이는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 <오백장군과 고종달> 참조). 내처 말하면, 설화(특히 역사적 전설) 왜곡은 설화가 개인작(곧, 무격이나 설화연구가 같은 개개인의 의식적인 소산)이 아니라 공동작(곧, 민중 공동체 삶의 무의식적인 소산)이라는 한국설화이론을 범하는 섣부른 짓인 동시에 당해 설화 이면의 민중사 · 민중의식 · 민족정신 · 민족 정체성 등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작태이다.

**손자 378명**이 암시하는 것은 당시 제주의 자연적 단위마을이 얼추 378개였다는 것일 것이다. 굿당이 단위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을 테니까. 각설하고, 당시 제주인들은 그 378개 굿당 본향신들이 자신

들 삶을 관장하는 절대적 존재라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그 본향신들은 단위마을별로는 강한 결속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단위마을들 상호간에는 지난날 탐라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깊은 단절(곧, 분열)을 조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는 각 마을 본향신과 각 마을 주민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한 각 마을 붙박이 무격이 자신의 활로(예: 호구지책)를 위해 자기 마을과 여타 마을 간의 단절을 유도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격들이 탐라사회의 단절을 유도한 것을 두고 그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 단절의 근본 원인은 제주무속(곧, 제주본풀이)이 탐라사회의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주변 세계 여기저기서 거듭거듭 흘러들어 여러 층으로 두서없이 누적된 것이라는 것, 즉 일관된(곧, 통일된) 체계(예: 신들 상호간의 지위체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 때문일 테니까. 물론 제주본풀이가 일관된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제주본풀이 이면에는 일관된 정신이 없다는 말이다. 사실, 제주본풀이 이면에는 유감스럽게도 일관된 정신이라고는 한낱 기복신앙과 운명론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기복신앙과 운명론은 제주본풀이가 지닌 단점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복신앙은 욕망에 떠밀려 생명을 도외시하게 하고, 운명론은 갖은 구속이나 제약 따위에 얽매여 자유의지를 등지게 하니까.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에는 탐라미래(곧, 이어도)를 위한 이정표로 삼을 정신이 없는 셈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제주무속사회 일각에서는 피력한다. 무속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굿을 미화하여 “굿은 맞이 · 놀이 · 풀이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는 굿이란 신을 맞아 신과 더불어 놀면서(곧, 대화하면서) 잘못된 관계를 푸는 과정(곧, 원한 · 가난 · 병마 등을 해결하는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제주무속 중 영등굿에서의 영등할망(영등의 뜻: 영靈, 곧 신神이 물에서 뭍으로 오르다[登])은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려는 시기인 음력 2월 전반기에 물(곧, 바다)에서 뭍으로 올라와 온갖 씨앗을 뿌려놓고 돌아가는 신령인데, 이 굿에서 사람들은 영등할망을 맞아들여 함께 대화하면서(곧, 놀면서) 그에게 온갖 생명의 씨앗을 뿌려 달라고, 즉 잘못된 관계인 겨울(곧, 일종의 죽음이라는 현상)에 갇혀 있는 만물의 생명을 살려내어 달라고 간구

한다. 그렇다면, 이 굿의 이면 정신은 '생명이란 신에게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물론 이는 대부분의 신앙이 추구하는 깨달음(곧, 신神의 의지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에 해당된다. 그런데 영등굿은 이 진부한 깨달음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지만 현대적 신앙은 그 막을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신에게서 비롯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곧, 예의 그 깨달음을 지향한) 행동, 예컨대 백화현상으로 바다가 황폐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자연보호 활동을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작금의 제주 굿과 현대적 신앙의 차이점이다. 여하튼, 예의 그 미화(곧, 그럴싸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과 운명론에 얽매인 굿 전반은 오늘날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와는 달리 이기적인 기복이 아니라 이타적인 희생에 의해서, 아울러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정의(곧, 구원)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 부언하면, 현대적 신앙은 신에게서 유래된 생명의 존엄성보다 여타를 앞세우는 언행을 우상숭배로 간주한다. 그런데 작금의 제주 굿은 만사 차치물론하고 오직 기복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작금의 제주 굿은 현대적 신앙에 의해 우상숭배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손자들이 제주의 각 마을로 이주하여 본향신本鄕神(곧, 각 마을을 관장하는 굿당의 신)이 되었다**는 송당이 탐라무속의 발상지라는 주장이다. 「제주도 연말상주인구 조사보고서」(1962년 12월 1일 당시)에도 "송당계 당신화松堂系堂神話란 제주도 신당의 원조元朝라고 구전되는 구좌면 송당 신화와 동일 종류의 신화들로서 주로 제주시, 조천면, 구좌면 일대에 분포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송당이 탐라무속의 발상지라느니 신당神堂의 원조라느니 하는 주장은 한낱 단견일 뿐이다. 송당은 인간 입지조건이 열악한(예컨대, 변변한 내창 하나 없는) 오지奧地이니까. 따라서 송당이 탐라인 삶의 요체(곧, 당대 정신문화의 총체)였을 무속의 발상지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탐라무속 발상지는 탐라문명 발상지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무속은 탐라 도읍 칠성골(곧, 칠성도를 품은 산저천 · 병문천 일대)을 배경으로 발생(또는 유입)되어 성장(또는 토착화)한 것인 셈이다. 마치 그리스도교 모태인 유대교가 이집트 문명(곧, 나일강)과 메소포

타미아 문명(곧, 티그리스강 · 유프라테스강)을, 힌두교가 인도 문명(곧, 인더스강 · 갠지스강)을, 유교 · 도교 등이 중국 문명(곧, 황허강 · 양쯔강)을 배경으로 발생하여 성장한 것이듯이. 그렇다면, 송당이 탐라 신당의 원조라는 주장은 어떤 역사적 사건(곧, 전술한 <김녕 뱀굴>에서의 민란)을 계기로 송당이 한때 칠성골 칠성도 지위를 대신했다는 말일 것이다. / 부언하면, 제주무속도 발생(또는 유입) 당시에는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신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 후 여태껏 시시각각 달라지는 주변 세상을 외면한 채 탈바꿈하기를 등한시한 탓에 오늘날은 사회 일각에서 시대착오적인 신앙, 즉 혹세무민하는 미신 취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무속은 이제라도 변화를 수용하여 거듭나야 한다. 무속이 제대로 된 신앙 노릇을 하려면 말이다. 아니면, 신앙이란 탈을 벗고 종합예술의 길로 아주 선회하든지. / 대저 시간이 흐르면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바뀌게(곧, 진보하게) 마련이다. 이는 변화(곧, 진보)를 모르는 것은 이미 죽은 거나 진배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그런 것은 마치 고사목이 전정되듯이 전정되고야(곧, 도태당하고야) 말 것이다. 오늘날 지구촌에 군림하는 종교들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그리스도교도 이 변화와 도태라는 자연의 순리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송당)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송당리松堂里의 본향신 · 굿당 등에 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송당을 제주 굿당들의 원류로 내세움으로써 억불숭유정책과 그에 따른 민란의 역사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으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송당리의 본향신 · 굿당 등에 대해 운운하니까.

Ⅳ. 후술할 <송당(곧, 금벡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8) ["웃손당 당신 금벡주와 알손당 당신 소천국이 부부가 되어 (중략) 소천국은 제주섬에서 솟아나고, 아내 금백주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하략)"](이는 후술할 제2부 참조)은 여기서의 <송당>과는 달리 옛말이 아니라 본풀이이다. 그 본문이 옛말이 아니라 본풀이이니까. 이는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는 당해 설화 본문 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즉, 설화연구가의 주장에 달려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누가 손가락으로 밤하늘을 가리키며 "달이야!"라고 주장했을 때 그 대상이 달인지의 여부는 그 손가락(곧, 주장)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지향 지점의 것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여하튼,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를 판별해 주는 것은 당해 설화 본문이다. 마치 <감자>(김동인)가 소설이라고 판별해 주는 것이 당해 작품 본문이듯이.

<황구렁이>

옛날 **황새왈**(일설에 의하면, **사라봉 남쪽의 소위 구렁이굴 있는 밭**)에 노부부가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하반신을 못 쓰는 불구자여서 기어 다니며 집 안팎의 일을 했다. 예컨대, 그는 기어 다니며 곡식밭의 참새 떼를 쫓았고, **고팡**의 쥐를 잡았다. 어느 해 농번기였다. 그는 돌연 죽어 묻혔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커다란 황구렁이 하나가 난데없이 나타나 곡식밭의 참새 떼를 쫓고 고팡의 쥐를 잡았다. 이에, 아내는 그 뱀을 위해 뒤뜰 귤나무 밑에다 **칠성七星눌**을 지어 놓고 마치 **부군신령府君神靈**에게 공양을 드리듯 조석으로 음식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도 죽어 황구렁이로 환생했고, 그리고 고팡에 깃들이며 곡식을 축내는 쥐 · 참새 따위를 잡았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일도2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황새왈**에서의 '새'가 '사'와 '의'의 축약이니, 황새왈은 '황사黃蛇의 왈', 즉 '황구렁이 왈(<밭<밭)'이다. 한편, 전술한 <황새왈>에서의 황새왈은 고유명사이고, 여기서의 황새왈은 보통명사이다. 그러고 보

8) 『濟州島神話』, 현용준, 서문당, 1976년, 226 · 239쪽

면, 여기서의 황새왙은 위 본문 중의 '사라봉 남쪽의 소위 구렁이굴 있는 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셈이다. 이는 황새왙이라 불리는 밭(또는 들)이 지난날 탐라에는 다수였다는 말이다. / 부언하면, 위 두 전설과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에 등장하는 황구렁이는 공히 사람(곧, 탐라 선조들 넋)의 화신化身이다. 그럼, 예의 그 설화들은 지난날 탐라의 토템이 황구렁이였음을 암시하는 흔적이 혹 아닐까?

**사라봉 남쪽의 소위 구렁이굴 있는 밭**은 사라봉 근처 영락교회 북서쪽 이십여 미터쯤 되는 지점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숨굴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숨굴을 구렁이굴이라 불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밭 일대가 주택가로 변하여 그 숨굴은 흔적조차 가뭇없다. / 내친김에 말하면, 숨굴은 지신地神이 숨을 쉬는 굴이다. 혹자는 숨굴을 숨골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숨골은 연수延髓로 뇌수의 아래쪽 끝에 있으면서 척수의 위쪽 끝으로 이어지는 신체의 일부이니까. 여하튼, 숨굴은 오늘날은 신앙적 측면은 아주 망각되었고, 다만 지하수와 관련하여 인구人口에 오르내리고 있을 뿐이다. / 내처 말하면, 지난날 탐라후예들은 도처에 있는 숨굴 중 일부를 구렁이굴이라 불렀다. 황구렁이가 동면하려고(또는 쥐를 잡으려고) 숨굴을 드나들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숨굴은 지난날은 초가집(예: 초가지붕 · 고팡 등지)에 버금가는 황구렁이 삶의 터전인 셈이었다.

**고팡**[庫房]은 지난날의 제주 초가집에서 곡식 항아리들을 놓아두던 '부엌에 딸린 칸살'이다. 이는 초가지붕 속에 둥지를 틀고 겨울을 나던 황구렁이들에게는 쥐를 잡을 수 있는 사냥터이기도 했다.

**칠성七星눌**에서의 칠성은 억대부군신령億代府君神靈(곧, 조상 대대 부군신령)의 화신인 황구렁이이고, 눌은 가리의 일종이다. 그러고 보면, 칠성눌은 일종의 터줏자리, 즉 집터 지키는 지신인 터주를 모시는 신단인 셈이다. 한편, 칠성이란 뱀신 이름은 칠성굿 동안 구송되는 후술할 <사신 칠성> 속 황구렁이들이 탐라건국 초석인 칠성도와 결부된 데서 비롯했다. 즉, <사신 칠성> 속 황구렁이 여덟 마리가 터전을 잡은 일곱 개의 지점이 공교롭게도 그 칠성도 일곱 기基의 울안인 데에서 유래했다. (이는 후술할 <사신 칠성> 참조)

**부군신령**府君神靈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선대의 할아버지를 높여 일

컫는 말이다.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島中可畏者無過於蟒蛇 無論冬夏到處有之至於夏日 (中略) 必以精米淨水酒而祈之切不殺害 若或殺之其人必有殃不旋踵死云"[섬 안에서 두려운 것은 구렁이와 뱀이다. 겨울 · 여름을 막론하고 도처에 있는데, 여름날 풀이 무성하고 습할 때는 규방 · 집 · 처마 · 마루 밑 · 자리 아래로도 파고든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잠이 깊이 들었을 때는 비록 조심하고 또 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으니 이것이 제일 무섭다. 섬사람들은 대망[蟒] · 뱀[蛇]을 막론하고 보기만 해도 부군신령이라 하여 정미精米와 정수淨水를 뿌리면서 빌고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만약 죽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앙화가 내려 발꿈치를 움직이지 못하여 죽게 된다고 한다.] 이건은 선조의 제7남 인성군人城君의 셋째아들이다. 인성군은 인조 6년(1628) 정월에 광해군 복위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진도로 유배되었고, 동년 5월에 41세의 나이로 사사賜死를 당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때 이건의 나이는 15세였다. 인조 13년(1635)에 인성군의 혐의가 풀려 그의 가족은 귀양살이를 청산하게 되었다. 인조 15년에 이건은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졌다. 그는 자신의 시문詩文을 『규창집葵窓集』으로 엮었는데, 그 제5권에 위 「제주풍토기」가 실려 있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법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 3분법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곧, 이 세상의 모든 황구렁이)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지난날 탐라의 황구렁이)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탐라의 황구렁이에 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지난날 한때 황구렁이가 탐라의 토템이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으니까. 또한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황구렁이를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

Ⅳ. 후술할 <사신 칠성>은 황구렁이가 탐라의 사社(곧, 지신地神)와 직稷(곧, 곡신穀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내력담來歷談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황구렁이를 토템으로 지닌 종족이 해외(곧, 외부)에서 유입되어 이 땅에 토착화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그런데 위 <사신 칠성>에 따르면 일곱째 딸이 억대부군칠성으로 좌정한다. 즉, 일곱째 딸(여자)이 남신인 부군신령(남자)이 된다. 이(곧, 여자가 남신이 되는 것)는 신화 세계에서도 이례적인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신 칠성>이 장기간에 걸쳐 거듭거듭 덧붙여진 여러 화소로 형성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뱀 토템을 지닌 유·이민의 유입에 관한 화소, 어미 황구렁이가 딸 일곱을 낳았다는 화소, 곡식은 어머니의 화신이, 집터는 아버지의 화신이 지킨다는 화소 따위가 처음에는 따로따로 구전되다가 일원화된 것 말이다.

Ⅴ. 당해 전설, 예의 그 「제주풍토기」 인용문, 전술한 <김녕 뱀굴>, 후술할 <사신 칠성> 등은 지난날 탐라의 뱀 토테미즘 흔적이 혹여 아닐까? / 참고삼아 말하면, 1980년대까지만 해도 토산 · 송당 · 김녕 등지의 사람들은 걸핏하면 말하곤 했다. 혼기 찬 처녀가 시집을 갈 때는 혼기 찬 칠성(곧, 뱀) 하나가 머리카락으로 변신하여 그 처녀의 치맛자락에 달라붙어 함께 터전을 옮긴다고.

Ⅵ. 후술할 <사신 칠성>에 의하면, 탐라의 뱀 신앙은 해외에서 표류해 온 것일 것이다. 이는 뱀 토템을 지닌 남방계 종족이 탐라로 흘러들었다는 말이다. 뱀이 북방계 종족(곧, 추운 지방)의 토템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굴러온 돌인 뱀 신앙은 탐라의 어떤 삶의 자리(예: 농경의 자연적 악조건) 탓에 무난히 토착화하면서 탐라민중의 중심적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 뱀이 탐라의 토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마치 곰 · 범 등과 말 · 닭 · 까치 등이 각각 한반도 북부와 남부의 토템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Ⅶ. 삼을나三乙那의 용출종지聳出從地(뜻: 땅에서 솟아나다) 화소도 남방계 종족의 탐라로의 유입 흔적일 것이다(이는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이 화소는 탐라 남쪽 지역(곧, 동남아 · 중국 남부 · 타이완 · 오키나와 · 규슈 등지)에는 흔한 것이지만 탐라 북쪽 지역에는 전무한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탐라국은 토박이들과 유·이민(곧,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 · 중국 · 일본 · 유구 · 동남아 등지로부터 흘러든 무리)이 함께 이룩한 다多민족 국가인 셈이다. 요즘 탐라후예들은 비무장 평화와

세계 평화 중심지를 꿈꾸고 있다. 그럼, 탐라국이 다민족 국가란 점은 그 꿈 구현의 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Ⅷ. 유서 깊은 곳에는 인간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특정 동물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날은 정령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황구렁이야말로 탐라의 특정 동물(곧, 토템)이었을 것이다. / 돌이켜보면, 지난날 이 땅에는 들녘의 잡다한 뱀들보다 더 굵고 긴 황구렁이들(곧, 속칭 집뱀이라 불린 영물靈物들)이 집터의 울안 도처, 아니 울안의 은밀한 곳들(예컨대, 곳간 · 부엌 · 뒷간 근처의 은폐된 곳, 뒤란이나 덤불 · 담불 속, 돌담장 틈새, 초가지붕 속 등지)에 터전을 마련하고서 집 안팎을 들락거리는 쥐, 지붕에 둥지 튼 참새, 음지에 기거하는 양서류, 텃밭의 곤충 등등 갖은 미물을 잡아먹으며 서식했다. 한편, 사람들은 황구렁이를 곡신 · 지신 · 수호신 등으로 여겨 칠성님이라 부르며 살았다. 그리고 황구렁이를 위해 집터 울안에다 보금자리인 칠성눌을 만들어 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 기꺼이 칠성눌을 만들어 놓았다. 칠성눌은 탐라후예들에게는 자신들 삶의 문제(곧, 생사 · 무병 · 장수 · 부귀 · 다산 · 풍작 · 풍어 따위)와 직결된 것으로 여겨졌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지난날 잡다한 뱀들이 이 땅의 수호신인 양 대우 받았던 것은 사람들 신앙 대상이 되어 사람들의 비호와 공양을 받으며 사람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한 황구렁이 덕분인 셈이었다.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인들은 해마다 칠석을 전후한 반삭 동안 칠성도에 제물을 진설해 놓고 성주星主 주례로 곡신 · 지신 · 일월성신 및 조상님들께 대사大祀(곧, 큰굿)를 올렸다. 그런데 그러노라면 십상팔구 황구렁이가 나타나서 그 반삭 내내 칠성도 주변을 맴돌며 제물들이 부정 타지 않게끔 온갖 미물의 범접을 막아 주었다. 이에, 사람들은 은연중에 황구렁이는 조상 넋의 화신이라는 생각을, 나아가서 성주는 붕어하시면 그 넋이 칠성도에, 그리고 평민은 죽으면 그 넋이 자손 집 칠성눌에 깃들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황구렁이(곧, 칠성)는 결국 조상님으로, 특히 칠성도에 깃들인다는(즉, 칠성도를 관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성주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칠성신앙(곧, 뱀 신앙)과 조상숭배가 동일시되기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내처 말하면, 칠성신앙은 실생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

다. 예컨대, 지난날 탐라후예들은 어느 가문의 몰락은 그 가문 사람들에게서 홀대받은 칠성이 분을 참지 못해 해코지한 결과이니 그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키려면 푸진 칠성굿을 벌여 토라진 칠성을 달래야 한다고 여겼다. 또한, 그들은 칠성들도 사람들처럼 분가分家한다고 여겼다. 즉, 칠성을 모시는 집의 여아가 성장하여 시집을 갈 때면 역시 혼기 찬 칠성 하나가 머리카락으로 둔갑하여 새색시 치마에 달라붙어 함께 터전을 옮긴다고 여겼다. 그러니, 그런 새색시를 맞아들이는 집에서는 그 머리카락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수용 여부와는 별도로 칠성굿을 벌여 그 머리카락(곧, 칠성)을 달래야 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은연중에 삶의 온갖 불상사를 칠성(곧, 뱀)과 결부시켜 놓기에 이르렀다. 이는 칠성이 자신의 직능(곧, 영역)을 본디 곡신이며 지신인 동시에 칠성눌 · 칠성도 수호신에서 온갖 인간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칠성굿이 탐라에서 두고두고 반복되면서 탐라 토박이들 삶의 요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과 뱀의 공생관계 속에서 이 땅은 갈수록 뱀으로 뒤덮여 갔고, 사람들은 갈수록 뱀 신앙(곧, 칠성신앙) 속으로 빠져든 셈이었다. 부언하면, 소위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굴묵(온돌) 덕에 겨우내 따스한 초가지붕 속을 터전 삼아 동면도 않고 겨울을 나던 집뱀들은 초가지붕이 슬레이트로, 난방 재료인 말똥 · 검불 등이 연탄으로 바뀌는 바람에 슬레이트의 한기와 연탄의 유독가스를 견뎌내지 못해 터전을 인가人家에서 마을 근처 숨굴로 옮겼다. 그때 칠성신앙에 눈멀어 있던 제주인들은 한기와 유독가스 탓에 초가집을 빠져나와 돌담장을 넘는 집뱀들을 바라다보며 탄식조로 중얼거렸다. “요 집은 이젠 망ᄒᆞ엿져, 조상님이 등져시난!”이라고. 한편, 칠성신앙은 새마을운동에 떠밀려 탐라후예들 삶에서 점차 멀어지더니 제주에서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탐라후예들 뇌리에서조차 까맣게 잊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땅의 황구렁이는 멸종되는 비운을 맞았다.

IX. 신앙이란 인간 능력이 무력해지는 한계상황에서 가장 치열해지는 것일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극한상황이 탐라 토박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칠성굿에 몰입하게끔 만들었을까? 생각건대, 이 물음

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아마도 칠성이 본디 곡신이며 지신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탐라후예들은 사냥 · 어로 · 목축 · 농경 등을 병행하며 살았다. 그런데 억새밭에는 사냥감이, 바다에는 해물이, 오름에는 목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사냥 · 어로 · 목축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보았지만, 농경만은 그렇지를 못했다. 사실, 탐라에서의 농경은 강은 없고 돌은 많은 탓에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 지난날 탐라후예들에게는 날마다 곡식을 야금야금 먹어대는 쥐 · 참새 · 곤충 따위는 윤택한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존재로, 반면 그것들을 잡아먹는 뱀은 상서로운 영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특히 황구렁이들, 즉 고팡에 은밀히 숨어 살면서 쥐들로부터 양식을 지켜 주는 칠성들이야말로 탐라후예들에게는 집안을 보우해 주시려고 저승과 이승 사이를 부단히 들락거리시는 조상님들, 예컨대 살아생전에 고팡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며 부족한 양식 탓에 애태웠을 이 땅의 어머니들 넋의 화신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여하튼, 지난날 탐라후예들은 지형 · 토질 · 한발 · 해일 · 풍수해 · 병충해 등등 농경상의 제반 악조건을 극복해야만 했다. 한편, 그들은 생각했다. 곡신이며 지신인 칠성의 능력을 빌린다면 자연적 재난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리하여, 그들은 칠성을 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곧 칠성굿이 그들 삶의 요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칠성굿이야말로 곡식 부족에 시달렸을 그들의 비애 · 소망 등의 산물이며 삶의 역경을 극복하려 했던 그들의 의지 · 피땀 등의 결정체인 셈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농경을 힘겹게 만든 용수 부족'과 '모라毛羅 몰락 후 외세 치하 관官의 간단없는 수탈'도 탐라후예들로 하여금 칠성굿에 몰입하게끔 하는 데 톡톡히 한몫했을 것이다. 전자는 농경이 시작된 탐라건국 무렵부터 지하수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군부독재 시절 이전까지의 탐라 후예들 고통의 양대 요인 중 하나였고, 그리고 후자는 모라 폐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직전까지의 탐라후예들 고통의 양대 요인 중 나머지 하나였으니까.

<돌하르방>

❶ 돌하르방은 지난날 성안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성城 입구나 마을 어귀 등지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는 돌하르방은 **일종의 수호신**(예: 사귀邪鬼나 악인惡人의 범접을 막는 지신地神의 상징象徵 또는 모상模像)인 동시에 신들 상호간의 영역을 구별하는 일종의 관할지管轄地 표지라는 말이다.

❷ 일설에 의하면, 돌하르방은 외세 치하 탐라후예들이 **탐라의 통치자는 외세가 아니라 성주星主임을 천명하려고 성주의 상반신(곧, 이른바 칠머리 중 첫째 용머리에 얹혀 있는 속칭 성주바위)을 본떠 조각하여**, 외세 통치의 창구 노릇을 하는 탐라성 삼문三門(곧, 동문 · 서문 · 남문) 앞에 야음을 틈타 몰래 갖다 놓은 데에서 비롯했다고 한다.

—이상은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일도2동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일종의 수호신**은 한반도 장승의 역할에서 유추된 것일 것이다. 여하튼, "돌하르방은 일종의 수호신이다"란 주장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돌하르방이 탐라신앙 체계 속에서의 신적神的 존재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 증거는 제주 본풀이(곧, 굿)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생각건대, 탐라후예들에게는 한반도에 대한 맹신이나 추종(곧, 굴종) 따위의 성향, 게다가 한반도에 대한 열등의식 · 변방의식 · 아류의식 등이 있다. 삼을나 중 고씨와 부씨는 각각 고구려와 부여의 후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그 대표적 일례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후예들은 '제주'의 본의本義인 '고려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은 외면한 채 날조된 의미인 '바다 건너(濟) 고을[州]'에 흡족해하며 "위대한 제주를 건설하자!"라느니 "더 큰 제주를 만들자!"라느니 한다. 물론 제주에서의 '濟'의 삼수변(곧, 氵)은 이승의 물(예: 바다 · 강)이 아니라 망인 혼령이 저승으로 넘어가기 위해 건너는 이승과 저승 간의 물을 뜻한다. 이는 '제濟'는 '구제하다'란 뜻의 글자라는 말이다. 내처 말하면, 정말 가관인 것은 오늘날 선거철이 되면 탐라후예들이 속칭 영남당과 호남당으로 갈려 멱살잡이마저 마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탐라후예들은 왜 이다지도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을까? 하긴, 탐라후예들의 주체성 결여는 어쩌

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고려 · 조선 치하 천여 년 간 내내 외세(곧, 소위 육짓놈들)로부터 "제줏놈이 뭘 해!", "제주에서는 망아지나 키울 것이지!", "제주자제 주제에!", "섬놈의 새끼들아!"라는 따위의 모멸과 천시 어린 언사도 듣고 제줏놈은 한반도의 구제 대상이라는 세뇌도 받은 나머지 한반도에 굴종하게끔 길들여졌으니까.

**탐라의 통치자는 외세가 아니라 성주星主임을 천명하려고**는 탐라 민중이 돌하르방을 앞세워 지배 세력(곧, 외세와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관官)에 항거했다는 말일 것이다.

**성주의 상반신(……)을 본떠 조각하여**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초기 돌하르방의 전형적인 모습(예컨대, 커다란 몸집 · 구부정한 상체 · 부리부리한 눈 · 뭉툭한 코 · 두툼한 입술 등)과 용출종지聳出從地 설화를 향유하는 탐라 주변 종족들 모습의 대비對比를 통해 탐라건국 주역의 정체正體를 간파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삼을나三乙那가 용출종지 방식으로 설화에 등장했으니 말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들은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들은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돌하르방)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당해 전설들은 설명적 전설이다. 이 땅의 돌하르방에 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위 ❷는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민중저항에 관해 운운하니까. 또한 위 ❶은 신앙적 전설이기도 하다. '일종의 수호신' 운운하니까.

<서불; 서복>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 시절이었다. **서불**徐芾은 **불로초**를 구해 오라는 **진시**

**황 명을 받들고서** 탐라로 왔다. 그런데 **당시(기원전 220년) 탐라에는 나라와 인군人君(곧, 임금)이 없었다**. 하지만 세 부족이 **훗날 칠성골(또는 황새왈) · 정의골 · 대정골이라 불릴 지역들에 정립鼎立한 채** 온 섬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불은 그 세 부족의 족장들에게 입도入島 허가를 요청했다. 족장들은 흔쾌히 승낙했다. 이에, 서불은 오늘날의 **조천포朝天浦**로 상륙하여 그 족장들과 함께 불로초를 찾아 온 섬을 누비고 다녔다. 참, 조천朝天은 서불이 이 땅에 아침(朝)에 상륙하여 하늘(天)을 바라보며 안도한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 어느 날 서불은 훗날 **별도봉別刀峯**이라 불릴 오름이 영봉靈峰이라는 말을 듣고 그 정상에 올랐다가 그만 소스라쳤다. **거대한 거인(또는 호랑이) 형국을 한 지형**이 한 시야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훗날 사라봉이라 불릴 오름이 그 거인의 아랫도리를 가리고** 있었다. 이에, 서불은 사라봉 정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거인 모습이 완연히 드러났다. / 서불은 그 거인 형국 지형을 일일이 살펴 나갔다. 오늘날 **삼성혈**이라 불리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였다. 서불은 **세 개의 큼직한 숨굴**을 보고 의아해하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아니, **배꼽**이 셋인 거인이라니?" 잠시 후, 서불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다. "**셋을 하나로 꿰어야 해**. **그냥 두면 요절할 테니까**." / 이어서, 서불은 자신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주역**周易』을 그 족장들 앞에 펼쳐놓고 처음에는 <**혁괘**革卦>의 '**천지혁**天地革**이사시성**而四時成 **탕무혁명**湯武革命**순호천**順乎天**이응호인**而應乎人 **혁지시**革之時**대의재**大矣哉' 부분을, 다음에는 <**이괘**頤卦>의 '**육사**六四**전이**顚頤**길**吉 **호시탐탐**虎視眈眈**기욕축축**其欲逐逐**무구**无咎' 부분을 한 자 한 자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그 뜻을 풀이해 주었다. / 그런 연후에, 서불은 시선을 그 거인 형국 지형으로 돌려놓고 바라다보며 말했다. **저 거인의 시선이 마치 호랑이의 시선이 탐탐眈眈하듯 탐탐하다고**. 그러자 한 족장이 가슴에 새겨 두기라도 하려는 듯 가만가만 곱씹었다. "호시탐탐. 호시탐탐. 호시탐탐." / 그날 이후였다. 서불은 간간이 대을大乙의 은殷나라 창건에 얽힌 이야기들을 그 족장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어김없이 "대을이야말로 인군 중의 인군이지요"라는 찬사를 덧붙여 놓았다. / 서불은 오늘날 정방폭포라 불리는 폭포 근처의 암석에다 **徐芾過之(서불과지)**라는 글을 새겨 놓고 배를 타고 **서쪽, 즉 본국 진나라로 돌아갔다**. / 그런데 **이듬해** 그는 다시 이 섬으로 왔다. 이번에는 한 척의 배가 아니라 대규모의 선단을 거느리고 이 땅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훗날 **온평리溫坪里라 불릴 마을의 포구**로 다가들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번과는 달리 잠시 체류하다가 일행 중에서 더는 여행을 못할 만큼 병든 사람들, 지난번 유숙에 대한 사례로 미리 준비해 온 처녀 몇 명 · 가축 · 곡

식 등, 그리고 서로 기억하자는 언약을 이 섬에 남겨두고 그 선단을 거느려 일본日本, 즉 **벽랑국碧浪國**으로 떠났다. 참, 서불은 알고 보니 진시황의 대신大臣이었고, **방사方士**였고, 그리고 **중원中原** 제일의 **지관地官**이었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시황제始皇帝**는 일명 진시황秦始皇으로 중국 대륙에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다. 그는 진秦나라 제31대 왕으로 성姓은 영嬴이고 이름은 정政이다. 기원전 259년 태어났고, 기원전 247년 13세의 나이로 부친 장양왕莊襄王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기원전 238년 친정親政을 하게 되자 여불위呂不韋를 축출하고 이사李斯를 등용하여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였다. 그 후 16년 동안에 걸쳐 여러 나라(즉, 한韓 · 위魏 · 초楚 · 연燕 · 조趙 · 제齊 등)를 야금야금 삼켰고, 기원전 221년 중국대륙 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왕이란 칭호를 황제로 고치고 자신을 '황제의 시작'이란 의미로 시황제始皇帝라 자칭했다. 봉건제도를 폐지하여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수립하였고, 화폐 · 문자(곧, 한자) · 도량형 · 의관 · 달력 등을 통일하고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함으로써 통일제국의 기초를 확고히 다졌고, 그리고 만리장성을 구축하였다. 통치에 대한 일체의 판단도 금지하고 엄단하였고, 법가사상에 입각하여 사상통제도 실시하였고, 천인공노할 분서갱유焚書坑儒마저 단행했다. 기원전 210년 병사病死했다.

**서불徐芾**[xúfú]은 일명 서복徐福[xúfú]이다. 그는 한때는 진시황의 대신大臣이었다. 그리고 방사方士였다. 방사는 훗날의 음양가陰陽家, 즉 무의巫醫 · 복서卜筮 · 술수術數 · 점성占星 등의 전문가이다. / 자전에 의하면, 徐芾에서의 芾의 중국어 발음(곧, 한어병음자모)은 fèi 또는 fú이고, 한국어 발음은 비 또는 패 또는 불이다. 이는 중국어 발음 fèi는 한국어 발음 비 또는 패에, 중국어 발음 fú는 한국어 발음 불에 대응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徐芾에서의 芾이 fèi와 fú 중 fèi(곧, 한국어 발음 비 또는 패)가 아니라 fú(곧, 한국어 발음 불)로 읽힌 것(곧, 徐芾이 xúfèi가 아니라 xúfú로 발음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徐福에서의 福의 중국어 발음(곧, 한어병음자모)이 fú였기 때문이다. 참,

徐芾이라는 이름은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 내친김에 말하면, 진시황은 통일제국 달성 이전에는 측근 대신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대륙통일 후에는 그들의 간언을 통치 비판으로 간주하고서 일체의 간언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간하는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이에, 서불은 자신의 목숨도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해 있음을 직감하고 중국 탈출이란 자구책을 강구했다. 즉, 그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선약仙藥을 구해 오겠다며 감언이설로 진시황을 속여 기원전 220년 도피처에 대한 답사를 하고, 그 이듬해인 기원전 219년 동남동녀 5백 쌍 · 곡식 · 가축 및 갖은 생필품을 대규모의 선단에 잔뜩 싣고서 중국을 아주 등졌다. 그리고 일본 구마노우라熊野浦에 정착하여 왜족倭族의 조상이 되었다. / 내처 말하면, 서불은 이주 도중에 두 차례나 탐라에 들렀다. 하지만 정착하지 않고 떠났다. 그 까닭은 아마도 하나는 농경사회 출신인 그에게는 강과 평야가 빈약한 탐라는 농경의 적지敵地(곧, 자신 삶의 터전)가 아니라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급적 진시황(곧, 중국대륙)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불로초不老草** 관련 구전口傳, 즉 "중국 동쪽 해상의 삼신산三神山[봉래산蓬萊山(곧, 금강산) · 방장산方丈山(곧, 지리산) · 영주산瀛洲山(곧, 한라산)]에 불로초가 있다"라는 전설이 지난날 중국에 있었다. 그러고 보면, 서불은 바로 이 전설을 진시황을 속이는 데 이용한 셈이다. 참, 이 전설은 중국인들이 서불 이전이나 이후에도 탐라로 도래했다는 증거가 혹여 아닐까? 일설은 전한다. 한무제漢武帝(기원전 140-87년)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남동녀 수천 명을 탐라로 보냈다고. 물론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모종의 사건의 흔적일 수는 있다.

**진시황 명을 받들고서** 서불이 탐라로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서불이 탐라로 왔는지는 당해 전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해 화소는 부차적 화소이지 핵심화소가 아니니까. 또한, 오늘날 전설에서의 주안점은 전경前景이 아니라 후경後景(곧, 이면 정신)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당해 전설의 이면 정신 중 제일은 '통치統治에 관한 양육養育 사상'이다(이는 곧 재론함).

**당시(기원전 220년) 탐라에는 나라와 인군人君(곧, 임금)이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진시황의 중국통일이 동북아를 요동치게 함으로써 탐라(곧, 모라)를 비롯하여 고구려 · 백제 · 신라 · 왜倭 등의 건국을 자극했을 테니까. /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건국 시점에 대한 설은 다음의 여섯 가지가 있다. ① "삼을나三乙那가 용출한 때는 後漢明帝永平八年(후한 명제 영평 8년)이다"[9], ② "김풍부 조순이 이르기를, 양을나가 한라산 석굴 속에서 태어나 단군과 같은 때에 개국했다고 하였다[金楓阜祖淳曰 良乙那生于漢拏山石窟中 與檀君同時開國]"[10], ③ "고씨 가보에 이르기를, 삼신이 솟아난 것이 한선제 오봉 2년 을축이라고 하였다[高氏家譜曰 三神湧出在漢宣帝五鳳二年乙丑]"[11], ④ "택리지에 이르기를, 한명제 영평 8년 을축에 자기가 남쪽 바다에 떠올랐으니 삼성의 출생이 혹 그때가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擇里志曰 漢明帝永平八年乙丑紫氣浮於南溟 三性之出疑其時歟]"[12], ⑤ "지지에 이르기를, 삼성의 출생이 9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地志曰 三性之出正當九韓之時]"[13], ⑥ "탐라의 기원은 단군기원보다 4년 앞선 기원전 2,337년이다"[14] 등. 그런데 위 ② · ⑥은 설득력이 없다.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과 동시대 인물인 탐라국 제15대 왕 고후高厚를 기점으로 하고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 역산逆算해 보면, 초대 탐라국왕(곧, 삼을나) 연간과 단군기원(기원전 2333년)과는 간극이 너무 크니까. 즉, 천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위 ⑤도 설득력이 없다. 9한九韓은 역사상의 나라들이 아니라 실은 신라新羅 전설상의 나라들이니까. 그렇다면, 탐라건국은 위 ③에서의 '전한 선제 오봉 2년'(기원전 56년) 무렵과 위 ① · ④에서의 '후한 명제 영평 8년'(65년) 무렵 사이의 어느 시점時點(곧, 서불 일행의 탐라 도래渡來로부터 160여 년쯤 뒤인 한漢나라 시절 어느 날)의 일일 것이다. 생각건대, 서불 일행 도래는 탐라 선조들에게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는 그 도래가 모라건국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칠성골(또는 황새왈) · 정의골 · 대정골이라 불릴 지역들에 정립鼎立**

---

9) 『편례초編禮抄』(작자 · 연대 미상)
10) 『耽羅紀年』(註), 金錫翼, 1918년
11) 『탐라기년』, 앞의 책
12) 『탐라기년』, 앞의 책
13) 『탐라기년』, 앞의 책
14) 『탐라성주유사』, 고씨종문회총본부, 1979년

**한 채**라는 화소의 사실 여부는 당해 전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화소는 당해 전설의 핵심화소가 아니라 부차적 화소이니까. 또한, 전설이란 역사(곧, 사실의 기록)가 아니라 구비문학(곧, 꿈의 기록)이니까. 그러니, '칠성골 · 정의골 · 대정골'은 화자 취향에 따라서는 '일도리 · 이도리 · 삼도리'로 대체될 수도 있다. 물론 전설의 주안점은 핵심화소이다. 그 이면에 정신이 들어 있으니까.

**조천포朝天浦**. 생각건대, 당해 설화에서의 서불 일행은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에서의 '일본국(또는 벽랑국) 사신 일행'일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신 일행(곧, 서불 일행)의 입도入島 지점은 『고려사』에 실린 <삼을나(곧, 모라건국)>에는 동해빈東海濱(곧, 탐라 동쪽 바닷가)으로, 「영주지瀛洲誌」에 실린 <삼을나(곧, 모라건국)>에는 금당金塘 해변으로 되어 있다. 물론 동해빈은 연혼포延婚浦, 즉 현 온평리溫坪里(곧, 열운리閱雲里) 포구일 것이고, 금당 해변은 현 조천리 포구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에서의 조천포는 금당 해변인 셈이다. 그런데 서불 일행은 과연 당해 전설의 진술대로 기원전 220년에는 금당 해변으로, 기원전 219년에는 동해빈으로 입도入島했을까? 아니, 서불 일행이 <삼을나(곧, 모라건국)>에서의 세 왕녀를 데리고 온 곳은 금당 해변이고, 그들을 두고 간 곳은 동해빈이 아니었을까? 이는 올 때는 매번 금당 해변을, 갈 때는 매번 동해빈을 통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출입 지점이 어디냐는 당해 전설에서는 한낱 부차적 문제일 따름이다. 핵심화소가 아니니까.

**별도봉別刀峯**은 전술한 <별도봉>에서의 바로 그 별도봉이다.

**거대한 거인(또는 호랑이) 형국을 한 지형**은 전술한 <탐라라는 지형>에서의 바로 그 지형이다.

**훗날 사라봉이라 불릴 오름이 그 거인의 아랫도리를 가리고**는 별도봉 정상에서 그 거인 형국 지형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그중 음부陰部(곧, 관덕정 일대)와 팔다리(곧, 칠머리) 일부에 해당한 곳이 사라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한 표현일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사라봉은 예로부터 탐라십경耽羅十景 중 하나인 사봉낙조紗峯落照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사봉낙조는 실은 지난날 한반도로부터 부임해 온 한반도 출신 관리들에게는 관기官妓들과 더불어 사라

봉 정상에 올라 음주 · 가무를 즐기며 바라보던 그야말로 기막히게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반면, 칠성골 일원의 토박이 민중에게는 바라보고는 싶어도 차마 바라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기막히게 서러운 풍광이었다. 그 관리들 · 관기들의 음주와 가무는 바로 자신들 고혈膏血 덕분이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날 사봉낙조는 희희낙락하며 바라볼 수만은 없는 그야말로 기막힌 풍광인 셈이다. 한편, 작금의 사봉낙조는 안타깝게도 예전의 그것이 아니다. 즉, 볼품없다. 중국 공업화로 인한 매연이 날마다 탐라 수평선 일대를 뿌옇게 가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넘이 때면 찬란한 노을이 어린 채 일렁이던 사라봉 바로 밑 바다가 항만 개발로 인해 매립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국 공업화 이전의 사봉낙조는 그야말로 기막혔었다. 맑은 날이면 날마다 소위 '오메가(Ω) 형 일몰'을 볼 수 있었으니까. / 내처 말하면, 사라봉이 오늘날도 예전처럼 사람들 이목을 끌려면 사봉낙조 대신 다른 무엇(곧, 당해 전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삼성혈**三姓穴의 본디 명칭은 모흥혈毛興穴이다. 모흥혈은 셋이 하나가 되어 모라를 건국한 삼을나의 혈穴이라는 뜻이고, 삼성혈은 삼성三姓, 즉 세 씨족(곧, 고씨 · 량씨 · 부씨)의 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모흥혈은 어쩌다가 삼성혈로 변질되어(곧, 전락하여) 버린 것일까? 그것은 탐라국호 모라가 고려 숙종 10년 고려 조정에 의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모라 몰락 이후 외세(곧, 한반도인들)와 그 협력자들이 탐라국은 본디 자주독립국이 아니라 한반도 번국(뜻: 제후의 나라)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려고(곧, 건국신화인 삼을나 신화를 씨족신화로 격하시키려고) 모흥혈을 삼성혈로 왜곡해 놓았다는 말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 아무런 거리낌도 수치심도 없이 삼성혈이란 말이 탐라후예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고을나 · 부을나 뿌리는 각각 고구려 · 부여라는 주장마저 버젓이 해대는 제주인들이 생겨났다. (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세 개의 큼직한 숨굴**이 현 삼성혈(곧, 모흥혈)의 애초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는 모흥혈이 다름이 아니라 소위 숨굴(곧, '지신이 숨을 쉬는 굴' 또는 '탐라 토템인 황구렁이가 드나드는 굴')이었다는 말이다. 물론 그것이 숨굴 여부는 발굴해 보면 판명 날 것이다.

**배꼽**은 배꼽점, 즉 천원天元이다. 천원은 '만물이 자라는 근원' 또는 '임금'을 뜻한다. 참,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에서는 삼을나가 바로 이 배꼽(곧, 그 '세 개의 큼직한 숨굴')에서 용출聳出했다 한다.

**셋을 하나로 꿰어야 해**. 셋三을 하나一(곧, ㄴ)로 꿰면(三+ㄴ) 곧 ㅒ(→毛)가 된다. 이 毛가 바로 毛羅(모라)와 毛興穴(모흥혈)에서의 毛이다. 그리고 이 毛는 훗날 毛羅(모라)에서의 毛로 바뀐다.

**그냥 두면 요절할 테니까**는 셋(곧, 고씨 · 량씨 · 부씨)이 각자도생하면 셋 다 꿈도 제대로 펴 보지 못한 채 쇠락한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삼을나는 하나가 되어 탐라국, 즉 毛(←ㅒ ←'三+ㄴ')羅를 창건한다. 그런데 고씨와 양씨가 결탁하여 보다 열세인 부씨를 탐라왕권에서 축출하고 국호를 毛(←ㅐ ←'二+ㄴ+•')羅로 개칭한다. 이어, 고씨는 문씨文氏(곧, 고씨의 사돈집)의 지원을 받아 양씨를 탐라왕권에서 축출한다. 하지만 고씨도 결국 외부 세력(곧, 고려 · 조선)에 의해 탐라왕권에서 축출된다. 이로써, 탐라왕권은 아주 몰락한다. 그러고 보면, 모라 몰락의 주요인은 권력 투쟁에 따른 분열인 셈이다.

**주역**周易은 일설에 의하면 중국 상고上古시대(곧, 신화시대)의 복희伏犧(곧, 포희庖犧)가 그린 8괘八卦에서 비롯했다고 한다. 이는 8괘가 중국설화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복희가 중국 설화상의 인물이니까. 한편, 일설에 의하면 周易에서의 易은 '선線(곧, 효爻)의 조합을 바꾸다(易)'란 뜻이라 하고, 周는 易이 주周나라 때 대성했기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주역에서의 주는 군더더기인 셈이다. / 여하튼,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위 설화상의 8괘를 총설하여 64괘사卦辭를 만들고, 이어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동생인 주공周公, 즉 주나라 출신으로 노魯나라의 공公으로 봉해진 희姬단旦('희'는 성, '단'은 이름)이 위 64괘사의 각 6효六爻를 세설細說하여 384효사爻辭를 만든다. 그런 연후에, 공자[기원전 551(?)~479(?). 노나라 출신]가 위 384효사에 심오한 원리를 붙여 십익十翼, 즉 『역전易傳』(이는 단전彖傳 上 · 下, 상전象傳 上 · 下, 계사전繫辭傳 上 · 下, 문언전文言傳,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 등으로 구성됨)을 만든다. / 내친김에 말하면, 역易(또는 『역전易傳』)에서는 하나의 선(곧, ㅡ 또는 --)을 효爻라 하고, 각 효의 뜻을 풀이한 글을 효사爻辭라 한다. 그리고 효 세 개

씩을 포개어 놓은 것(예: ䷀, ䷁)을 괘卦라 하고, 각 괘의 뜻을 풀이한 글을 괘사卦辭라 한다. 괘는 도합 8개이니 8괘가 된다. 또한, 8괘를 2개씩 포개어 놓은 것 64개를 64괘, 64괘의 각 효 384개를 384효, 그리고 64괘와 384효의 뜻을 풀이한 글을 각각 64괘사와 384효사라 한다. / 내처 말하면, 역易은 위의 64괘사와 384효사로 우주의 모든 도道를 나타낸다. 이는 점占에 의해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계사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역易에는 태극이 있는데(易有太極) 이것이 양의兩儀[곧, 양(⚊)과 음(⚋)]를 낳고(易生兩儀), 양의는 사상四象[곧, 태양(⚌) · 소음(⚎) · 소양(⚏) · 태음(⚍)]을 낳고(是兩生四象), 사상은 8괘[곧, 건乾(☰, 하늘 상징) · 태兌(☱, 못 상징) · 이離(☲, 불 상징) · 손巽(☴, 바람 상징) · 진震(☳, 우레 상징) · 감坎(☵, 물 상징) · 간艮(☶, 산 상징) · 곤坤(☷, 땅 상징)]를 낳고(四象生八卦), 8괘는 길흉을 결정하고(八卦定吉凶), 길흉은 대업을 낳는다(吉凶生大業). 그리고 역이란 것은 상징이다(易者象也)." 그러고 보면, 역易에서 말하는 우주의 모든 도道는 상징으로 구체화되는 셈이다. 이는 역의 상징은 우주 자체에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주와 그 안의 사물에 관한 진술이라는 말이다. 이를테면, "역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라는 역의 상징에 관한 진술과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道라 한다"라는 우주에 관한 진술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곧, 동전의 양면 같은 것)라는 말이다.

**혁괘**革卦는 64괘의 하나로 8괘 중 태괘兌卦(☱)와 이괘離卦(☲)를 상하로 포개어 놓은 것이다. 이는 상멸相滅 관계(예: 폭군을 제거하는 혁명)를 상징한다. 상부의 태괘(곧, 못의 물)는 흘러내려 하부의 이괘(곧, 불)를 끄려 하고, 그리고 하부의 이괘(불)는 타올라 상부의 태괘(물)를 말리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니까. 생각건대, 전쟁터에서의 동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폭군 진시황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직면한 방사 서불에게는 아마도 혁괘(예: 혁명革命의 상징)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천지혁**天地革**이사시성**而四時成의 해석은 '천지가 바뀌어 4계절이 이루어진다'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천지는 음陰(곧, 밤)과 양陽(곧, 낮)을 서로 바꾸어 날을 바꿈으로써 춘하추동 사시가 이루어지는 혁

革(곧, 변혁 · 혁신 · 혁명 등)을 한다'이다.

**탕무혁명**湯武革命**순호천**順乎天**이응호인**而應乎人의 해석은 '탕왕과 무왕의 혁명은 하늘의 명에 순종함으로써 백성의 바람에 호응한 것이다'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하夏나라 걸왕桀王이 포악한 정치를 하여 백성의 원성을 사자 탕왕湯王(곧, 대을大乙이라고도 하는 성탕成湯)이 칼을 뽑아 들어 하나라를 멸하고 은殷나라를 세운 것, 그리고 은나라 주왕紂王이 폭정을 하여 백성의 원성을 사자 무왕武王이 칼을 뽑아 들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周나라를 세운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한 성군聖君의 혁명으로 하늘의 명에 순종함으로써 사람(곧, 백성)의 바람에 응應(곧, 호응 · 응대)한 것이다'이다.

**혁지시**革之時**대의재**大矣哉의 해석은 '혁명의 때가 크다(곧, 중요하다)'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하늘의 명에 순종하고 백성의 바람에 호응한 혁명이 아니면 혁명이라 할 수 없으니 혁명은 때(곧,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 혁명은 누구든지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이다.

**이괘**頤卦는 64괘의 하나로 8괘 중 간괘艮卦(☶)와 진괘震卦(☳)를 상하로 포개어 놓은 것이다. 이는 양육養育(예: 대신大臣이 백성을 양육하는 정도正道)을 상징한다. 頤卦에서의 頤는 턱(또는 '턱을 움직이다')을 표현한 것이니까. 즉, 간괘(곧, 산)는 위턱을, 진괘(곧, 우레)는 아래턱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간괘의 맨 위쪽 효와 진괘의 맨 아래쪽 효는 각각 위턱 · 아래턱의 뼈를, 나머지 두 개씩의 효들은 각각 위턱 · 아래턱의 치아를 표현한 것이니까. 물론 사람은 양육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은 위턱과 아래턱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을 씹을 때는 위턱은 산山(곧, 간괘)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고 아래턱은 우레(곧, 진괘)처럼 움직여야 한다. / 생각건대, 서불은 진시황의 폭정을 숨죽여 관망하면서 혁괘(곧, 혁명)와 함께 이괘(곧, 백성 양육)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육사**六四**전이**顚頤**길**吉의 해석은 '육사는 엎드려서 기르나 길하다'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육사(곧, 대신大臣)가 자세를 낮추어 백성을 돌보는 모습은 보기에 좋다'이다. 이는 대신의 정도正道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인자한 자세로 백성을 대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호시탐탐虎視眈眈기욕축축其欲逐逐무구无咎**의 해석은 '범이 노려보듯이 탐탐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 살피는 의욕이 축축하면(곧, 꾸준하면) 허물(咎)이 없다(无)'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대신은 백성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잘 양육하려고 호시탐탐 백성을 살펴야 한다. 그러면, 사납고 악하게 굴지 않아도 위엄스러워 보여서 백성도 경거망동을 삼간다. 또한, 대신은 범이 먹이를 노려보듯이 곁눈질도 없이 오직 백성을 위해 기욕축축 골몰해야 한다. 그러면, 백성이 잘살게 되니 나라가 태평해지고, 세금도 많이 걷히니 혈세(곧, 가혹한 조세)도 없어지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도 사라져 모두가 평안해진다'이다. 물론 여기서의 眈眈(뜻: 웅크려 노려보는 모습)과 逐逐(뜻: 기어이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은 의태어擬態語이고, 그리고 无는 無의 고자古字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변邊이 목目인 眈(目+冗)과 변이 이耳인 耽(耳+冗)은 오늘날 같은 글자 취급을 하고 있지만(곧, 항간에서도 학계에서도 아무런 구별 없이 쓰이고 있지만) 실은 상이한 글자이다. 뜻이 전자는 '노려보다' · '흘겨보다' 등이고, 후자는 '과히 즐겨하다' · '너무 즐기다' 등이니까. 그러고 보면, 虎視耽耽(곧, 강자가 약자를 덮치려고 노려봄)을 주역에서의 虎視眈眈(곧,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려고 노려봄) 대신 쓰는 것은 잘못인 셈이다. 물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주역에서의 虎視眈眈은 호의적인 의미에, 그리고 虎視耽耽은 적대적인 의미에 써야 한다는 말이다.

**저 거인의 시선이 마치 호랑이의 시선이 탐탐眈眈하듯 탐탐하다고**에서의 眈眈의 眈은 탐라眈羅에서의 탐眈과 일맥상통한 데가 있다. 일설에 의하면, 탐라는 왕후지지王侯之地[곧, 한라산 정북 방향에 위치해 있는, 거인(또는 호랑이)이 탐탐 지켜보는 형국 지형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는 왕후의 땅(羅)]이니까. / 참고로 말하면, 이 땅의 정식 국호는 탐라가 아니라 실은 모毛 또는 모라毛羅(→毛羅→乇羅)였을 것이다. 이는 탐라란 명칭은 모라란 명칭이 사람들 뇌리에서 망각되기 이전에는 국명이 아니라 다만 지명에 불과했다는 말일 것이다. 마치 대한민국 대신 쓰이는 한반도처럼. 그러고 보면, 지명 탐라는 모라 망각 후부터 여태껏 탐라인의 조어造語요 탐라 정체성의 상징인 毛 · 乇를 망각이란 봉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하는 봉인封印 노릇을 해 온 셈이다.

**대을**大乙은 은殷나라를 창건한 성탕成湯, 즉 탕왕湯王이다. 그런데 은나라 왕 30명(제1대 대을 ~ 제30대 제신帝辛) 중에서 乙이란 글자를 칭호로 쓴 왕이 무려 5명(곧, 제1대 대을 · 제13대 조을祖乙 · 제21대 소을小乙 · 제27대 무을武乙 · 제29대 제을帝乙)이나 된다. 대체 乙이 한 왕조에서 왜 이렇듯 거듭 쓰였을까? 혹시 乙이 어떤 사상 · 개념 등의 상징象徵이라서, 이를테면 革(곧, 혁명 · 혁신 · 개혁 등)의 상징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는 지난날 글자 乙은 국가를 창건하거나 국가를 거듭나게 만든(곧, 국가 기반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한) 군주의 칭호로 쓰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乙은 근원이 '乀'(곧, 초봄이 되어 풀이 움트는 모습을 상형한 것)으로 '최초의(또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글자이니까. 참, 중국 철학에서의 태을太乙은 태일太一(곧, 천지 만물의 출현 또는 성립의 근원이나 우주의 본체)과 동의어이다. 이 또한 乙은 '시작' 또는 '하나(곧, 일체一體)'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글자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乙과 '一'은 일맥상통한 글자인 셈이다.

**은殷나라**. 중국 설화는 말한다. 중국은 반고盤古가 개천開天했다고. 『삼오역기三五歷紀』(서정徐整)에 "반고는 만 팔천 세를 누렸고, 하늘이 높아지거나 땅이 두터워지면 그에 맞추어 키가 달라졌다, 그의 머리와 사지는 오악 즉 동쪽의 태산, 서쪽의 화산, 남쪽의 형산, 북쪽의 항산, 중앙의 숭산이 되었고, 그의 피와 눈물은 강물이 되었다. 그의 눈이 해와 달이 되어 뜨면 낮이요, 감으면 밤이었다. 모발은 초목이 되었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봄과 여름이요, 다물고 있으면 가을과 겨울이 되었다. 그가 기뻐하면 맑은 날이요, 화내면 흐린 날이 되었다."라는 설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설화는 반고 개천 뒤에다 삼황三皇을 위치시킨다. 삼황은 '천天황 · 지地황 · 인人황' 또는 '복희福犧(곧, 포희庖犧) · 신농神農 · 축융祝融' 또는 '신농 · 유소有巢 · 여왜女媧 · 수인燧人 · 복희 중 임의로 셋'이다. 복희씨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잡는 방법과 사냥하는 방법을, 신농씨는 농사를 짓는 방법을, 수인씨는 불을 발견하여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그리고 유소씨는 혈거穴居를 면하게 하려고 나무로 집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어, 삼황 뒤에다 오제五帝를 위치시킨다.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오제는 황제黃帝(또는 소호少昊) · 전욱顓頊 · 제곡帝嚳 · 요堯 · 순舜이다. 중국인들은 황제를 신농씨 후예이

자 자신들 조상으로, 또 문자 · 농기구 · 역법 · 도량형 등을 발명한 인물(곧, 현군賢君)로 여겨 칭송한다. 황제 다음의 현군은 요와 순이다. 요와 순은 중국 전통적 정치사상의 이상적인 군주이며 역대 제왕諸王의 모범으로 추앙된다. 위『사기』에, 요는 황제의 현손玄孫(곧, 손자의 손자)이고 순은 그의 8대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설화에서는 거의 동시대同時代의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의 시대는 기원전 2357년에서 기원전 2184년(곧, 중국의 첫 고대국가인 하왕조보다 170여 년쯤 앞선 연대임)까지이다. 요堯는 인자하고 후덕한 인물로 백성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 임금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제위帝位를 순에게 선양했다. 바로 이 점이 후세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으뜸 요인이다. 참, 요순시대는 당우시대라고도 한다. 요가 처음에 도陶에 살다가 당唐으로 이주했으므로 요를 도당씨 또는 당요라 했다. 한편, 순舜의 조상이 우虞에 살았으므로 순을 우씨 또는 우순이라 했다. 그래서 '당우'란 말이 생겨났다. / 중국 고대국가는 설화시대가 끝나고 170여 년쯤 후에 하夏(기원전 21~16세기경)에서 비롯하여 은殷(기원전 16세기~1100년경)을 거쳐 주周(기원전 1027~256년)로 이어졌다. 하왕조는 1970년대 이전에는 설화상의 국가로 취급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고고학의 연구에 힘입어 실존했던 국가로 인정받는 경향이 짙어졌다. 일명 상商이라고도 하는 은왕조는 은허殷墟의 발굴로 명실 공히 역사시대로 인정받고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하고 등장했다. 이상의 세 왕조를 삼대三代라 한다. / 주나라는 기원전 9세기경부터는 국력이 약화되면서 춘추전국시대와 병행하게 되었다. 즉, 춘추시대(기원전 770~453년)에는 제후들이 주왕의 권위를 빌어 행세했으므로 그나마 주나라의 권위가 유지되었으나 전국시대(기원전 452년 이후)에는 주왕의 권위가 영락하여 주나라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했다. 그러다, 결국 기원전 256년(진시황의 나이 3살 때) 제후국 진秦에 의해 멸망당했다. / 진나라(진시황)는 전국시대의 모든 제후국을 누르고 중국대륙 통일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기원전 221년). 그런데 이는 이웃 지역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즉, 모라 · 고구려 · 백제 · 신라 및 왜倭라는 국가들의 태동

을 야기했다. 하지만 진은 기원전 207년(통일 14년 후) 항우와 제휴한 유방에 의해 멸망당했다. /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기원전 202년) 한漢나라가 유방에 의해 창건되었다. / 참고로 말하면, 중국 은나라와 탐라국의 사회상社會相에는 유사점이 있다. 그것은 양자가 공히 씨족 연합체 국가라는 점, 은나라는 각처 씨족마다 왕자 제도를 두었고 탐라국은 처음에는 공동왕권체제였다가 나중에는 고씨 · 량씨 · 부씨가 각각 왕 · 왕자 · 신하의 직책을 나누어 맡은 점, 은나라는 농경중심사회이고 탐라국은 건국과 동시에 농경 · 목축을 시작한 점, 은나라 왕실은 주변의 나라나 종족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탐라왕실은 벽랑국의 세 왕녀를 국모國母로 맞아들인 점 등이다.

**徐芾過之(서불과지)**의 번역은 '서불이 지나가다'이다. 그런데 암벽에 음각되어 있는 이 '네 글자'는 장구한 세월 동안의 풍화작용 탓에 지금은 그 형태를 도무지 알아볼 수 없다. 대관절 그것은 어떤 서체(예: 대전 · 소전 · 예서 등)의 글자였을까? / 은殷 문화권의 상商 민족에 의해 창제된 상형문자(한자의 기원), 즉 갑골문자는 금문金文(곧, 동기銅器 같은 금속에 새겨진 명문銘文)으로 발전하면서 은 문화권의 여러 종족으로 전파되어 공통 문자로 쓰인다. 이어서, 한자의 가장 초기 모습으로 간주되는 이 금문은 서주西周(주나라는 기원전 771년의 동천東遷을 계기로 그 이전을 서주, 그 이후를 동주라 함) 후기부터는 중국 각지로 전파되어 공통문자로 쓰인다. 그런 연후에, 이 금문은 장족의 발전을 하여 전서篆書, 즉 대전大篆[대전이 완성을 본 것은 주周 왕조의 선왕宣王(기원전 828~782년) 때 태사太史 주籒에 의해서였음]의 형태를 띠고, 대전은 진시황의 문자통일 정책에 힘입어 승상 이사李斯에 의해 소전小篆으로 간소화되고, 그리고 소전은 진나라 정막程邈에 의해 다시 예서隸書라는 자형으로 거듭난다. 예서는 소전보다도 간소화된 서체라 실용문자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초서草書라는 자형이 한漢(기원전 206년 ~ 기원 220년) 말기에 나타난다. 하지만 이 자형에는 표준형이 없다. 그래서 모범적인 자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해서楷書의 시작이다. 해서는 예서에서 나온 것이다. / 여하튼, 대전(곧, 주周 왕조의 태사太史 주籒의 업적) · 소전(곧, 이사의 업적) · 예서(곧, 정막의 업적)는 진秦나라 때까지의 서체이고,

초서 · 해서는 진나라 이후의 서체이다. 그렇다면, 예의 그 네 글자는 대전이나 소전이나 예서로 음각되었을 것이다. 서불 시대의 서체는 이 셋이 전부였으니까. 아니, 어쩌면 서불은 이사의 업적業績인 소전을 버리고 대전이나 예서로 그 글자들을 음각했을지도 모른다. 음양가陰陽家인 서불이 진시황을 등진 데에는 법가法家 일각(곧, 이사李斯 같은 진시황 측근들)의 전횡도 한몫 했으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서불이 진시황을 등진 결정적인 원인은 진나라가 통일 전에는 육가를 두루 포용하다가 통일 후에는 법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반면, 여타 오가五家(곧, 유가 · 묵가 · 도덕가 · 명가 · 음양가)는 배척한, 아니 핍박한 사실(예: 분서갱유) 때문이었으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한비자는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법가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했다. 한편, 진나라는 한비자의 도道를 운용하여 주변 제국諸國을 정복했다. 그런데 한비자는 진나라에서 옥사獄死를 당했다. 그 옥사의 원인은 친구요 동료 대신인 이사의 정치적 모함이었다. 이사는 진시황이 한비자를 총애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그를 모함했던 것이다. 『사기』에 "이사와 한비자韓非子는 순자荀子의 문하에서 수업했는데 이사는 늘 자신이 한비자만 못하다고 여겼다"라는 내용이 있다.

**서쪽, 즉 본국 진나라로 돌아갔다**에서 지명 서귀포西歸浦의 '서귀西歸'가 유래했다.

**이듬해**는 기원전 219년이다.

**온평리溫坪里라 불릴 마을의 포구**는 지난날 한때는 열운리閱雲里 포구로, 한때는 연혼포延婚浦로 불렸다.

**벽랑국碧浪國**을 두고 혹자는 일본국日本國이라 하고, 혹자는 설화상의 나라(또는 상상想像의 세계)라 한다. 하지만 벽랑국이 일본국이냐 설화상의 나라이냐는 당해 설화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설화는 역사가 아니니까. 게다가, 설화의 오늘날의 존재 의의는 이면의 정신이니까. 사실, 설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산방산을 한라산 머리(곧, 봉우리)라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산방산은 한낱 한라산의 360여 개 기생화산 중 하나일 따름이니까. 그런데 왜 설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까? 그것은 설화가 민중 삶(곧, 꿈)의 소산, 즉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민중의 열망 · 의지

등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강자인 지배층의 핍박이나 수탈 따위를 감내해야 하는 약자인 민중의 처절한 몸부림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설화는 지배층의 감시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반어법 같은 수사법상의 표현을 도입하기도 한다(예: <김녕 뱀굴>). 그렇다면, 설화는 표면과 이면이 흡사 투명한 빛과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판이하듯이 판이할 수 있다. 이는 설화 이해에는 '삶의 자리'(Sitz-im-Leben)라는 여과기가 마치 빛의 분석에 프리즘이 필요하듯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설화는 삶의 자리(곧, 사회적 · 정치적 ·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 셈이다. 그러니, 설화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삶의 자리에 의거한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연후에, 그 이면 정신이 추출되어야 한다. 그럼, 당해 전설의 벽랑국 이면에서는 어떤 정신을 추출해 낼 수 있을까? 무릇 탐라국모國母 고향인 벽랑국은 외세이다. 한편, 탐라후예들은 모라 몰락 이후 천여 년 간 외세의 수탈 · 핍박 · 모멸 등에 시달렸다. 그러고 보면, 벽랑국은 탐라후예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제難題인 셈이다. 하지만 탐라후예들은 자신들이 지금 지향하는 '평화의 섬'을 위해서라면 지난 천여 년 간의 외세에 대한 악감정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대해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적개심을 품은 채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게다가, 유의미한 무엇을 얻으려면 유의미한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니까. 즉, 세상을 얻으려면 자신을 버려야 하듯이 '평화의 섬'을 얻으려면 적개심 따위는 버려야 하니까. 이는 벽랑국 이면에서는 용서나 화해 같은 평화의 정신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참, 외세의 작금의 이기적(또는 적대적) 태도는?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자. / 각설하고, 벽랑국의 실체는? 그것은 실은 별것 아니다. 벽랑국은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즉, '푸른(碧) 물결(浪) 너머 나라(國)'란 뜻의 보통명사이니까. 생각건대, 탐라 선조들은 오늘날의 일본을 일본이나 왜倭라는 호칭이 생기기 전에는 혹여 벽랑국(곧, '푸른 물결 너머 나라')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벽랑국은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방사**方士. 봉건제도가 확고한 주대周代 초기의 귀족 가문에서는 세

습적으로 술수術數를 행하는 전문가를 전속專屬으로 두고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와 상의하였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주周 왕실의 봉건제도가 붕괴되자 세습적 지위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져 민간에서 술수를 행하게 되었다. 바로 그들을 당대인들은 방사(곧, 훗날의 음양가)라 칭하였다. 방사의 소관사所關事는 술수術數를 행하는 것이다. 중국 철학에 의하면, 술수는 전통적으로는 천문天文 · 역보歷譜 · 오행五行 · 시귀蓍龜 · 잡점雜占 · 형법刑法으로 구분된다. 천문은 28수二十八宿의 순서를 정하고, 오성五星과 일월日月의 진행을 주목하여 길흉의 상象을 기재하는 일이다. 28수는 일월 및 행성들의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황도를 중심으로 나눈 천구의 28자리이고, 오성은 세성歲星(목성: 동쪽), 형혹熒惑(화성: 남쪽), 태백太白(금성: 서쪽), 진성辰星(수성: 북쪽), 진성鎭星(토성: 중앙) 등으로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알려진 5행성에 대한 통칭이다. 역보歷譜는 사시四時의 위치를 질서 있게 배열하고, 춘분(또는 동지)과 추분(또는 하지)의 절후를 바르게 하고, 일월과 오성의 주기가 일치되는 때를 계산하여 추위와 더위, 그리고 살리고 죽이는 사실을 고찰하는 일이다. 사시는 한 해의 네 계절인 봄 · 여름 · 가을 · 겨울, 한 달 가운데의 네 때인 삭朔(초하루) · 현弦(이레) · 망望(보름) · 회晦(그믐), 그리고 하루의 네 때인 단旦(아침) · 주晝(낮) · 모暮(저녁) · 야夜(밤) 등이다. 오행은 오상五常의 형기形氣로 만물을 생성하고 만상萬象을 변화시키는 5가지 원소인 금金 · 수水 · 목木 · 화火 · 토土이다. 한편, 오상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이다. 그리고 인仁은 목木이며 동東이고, 의는 금이며 서이고, 예는 화이며 남이고, 지는 수이며 북이고, 신은 토이며 중앙이다. 그런데 사람은 오사五事(곧, 태도 · 언론 · 시력 · 청각 · 사상)에 경건하게 종사함으로써 오상(또는 오행)을 이룰 수 있다(예: 군주가 엄숙하면 때를 맞춘 비가 내림). 그리고 오사에 경건하게 종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행의 질서도 혼란해지고 오상의 변화도 일어난다(예: 군주가 미치면 장맛비가 그치지 않음). 환언하면, 오행의 질서가 혼란해져 있으면 오상도 오사도 문란한 상태이고(예: 장맛비가 그치지 않으면 군주가 미친 상태임), 오행의 질서가 잡혀 있으면 오상도 오사도 올바른 상태이다(예: 때를 맞춘 비가 내리

면 군주가 엄숙한 상태임). 요는 오행의 질서를 관찰함으로써 오상과 오사의 상태를 점칠 수 있다는 말이다. 시귀蓍龜는 점치는 대표적 매개물이다. 蓍는 엉겅퀴과에 속하는 가새풀인데 그 줄기로 점을 쳤고, 龜는 거북이 껍질인데 역시 점치는 데에 쓰였다. 간혹 소의 어깨뼈도 점에 쓰였다. 『서경書經』에는 "네 마음에 커다란 회의가 생기면 복서卜筮, 즉 점占에 모의하라"란 말이, 그리고 『역경易經』에는 "천하의 길흉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천하의 부지런함이란 것은 시귀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란 말이 있다. 그래서 지난날 중국인들은 군자가 어떤 일을 하려 하거나 할 때는 먼저 시귀점부터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잡점은 자의 그대로 잡다한 점이다. 형법에는 관상술은 물론이고 풍수설도 포함된다. 풍수설은 인간이 우주(또는 천지)의 소산이라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풍수설은 주택住宅(곧, 생자의 집)도 유택幽宅(곧, 사자의 집)도 자연의 힘인 풍수風水(곧, 바람과 물)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 참, 방사 서불은 중국 통일 이전의 진시황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 혹시 『삼국지』 등장인물 유비에게 있어서의 군사軍師 제갈량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군사는 전진戰陣에서 주장을 따르며 작전이나 계략을 모색하는 전략가이다. / 참고로 말하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방사方士 · 은자隱者 · 무사武士 · 변자辯者 · 문사文士 · 법술지사法術之士라 불리는 여섯 부류의 집단이 있었다. 이들이 훗날의 6가六家(곧, 음양가 · 도덕가 · 묵가 · 명가 · 유가 · 법가), 즉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기원이다. 사가史家 가운데 제자백가 분류를 맨 처음 시도한 인물은 사마담(?~기원전 110년)이다. 그는 『사기』를 찬술한 사마천의 아버지이다. 음양가는 우주론자 중의 일파로서 음陰과 양陽이라는 우주의 양대 원리의 화합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고 믿었다. 도덕가는 오늘날 도가道家로 통하는 학파이다. 이들은 무無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과 사회철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에 의하면, 무는 곧 도道이고, 이 도가 개체個體에 내재한 것이 바로 덕德이고, 그리고 덕은 어떤 능력이다. 묵가墨家는 묵자墨子의 영도 아래 치밀한 조직과 엄격한 기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검약한 생활을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르침을 준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명

가名家는 이른바 명名과 실實의 구분과 그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명칭의 속박을 받게 함과 동시에 진실성을 잃어버리게는 했으나 명칭(名)과 사실(實)의 관계는 확정하였다. 유가儒家에서의 儒는 자의 그대로 학자 또는 문사를 뜻한다. 물론 儒들은 무엇보다도 옛 경전에 밝은 교사들이고, 또 고대 문화유산의 상속자들이다. 공자는 이 학파의 지도자였으므로 이 학파의 창시자로 간주되어 마땅한 인물이다. 법가法家의 法은 본보기 또는 법칙을 뜻한다. 이들은 유가와는 달리 훌륭한 국가는 도덕적인 제도 대신 확고한 법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가의 주도적인 인물은 한비자韓非子이다. 그는 진시황의 정치적 · 사상적 통일을 위한 이론적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중원**中原은 당해 설화에서는 통일 진나라에 대한 지칭이다.

**지관**地官은 지사地師 또는 풍수로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따위를 가려잡는 자이다. / 탐라에서는 지관을 '정시'[뜻: 바로(正) 보는(視) 자]라 일컬었다. / 통설通說은 말한다. 풍수설은 서불 시대(기원전 3~2세기경)보다 2세기쯤 앞선 기원전 5~4세기경[춘추春秋시대(기원전 770~453)와 전국戰國시대(기원전 452~221)의 교체기 무렵]에 발생했다고.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로서의 인물 서불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서불의 행적을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서불의 행적(예: 서불의 탐라 도래, 서불의 일본 도착 등)은 일종의 역사적 사건이니까.

Ⅳ. 당해 전설의 역사적 배경은 중국에서는 최초의 통일중국 진나라 시황제 시절이고, 그리고 탐라에서는 삼을나의 모라건국 태동 직전 시절이다. 물론 이 시절의 중국은 지적知的 수준이 상당한 정도

에 이른 문명사회였다. 소위 제자백가諸子百家 성립 이후 시기이니까. 그럼, 당대 탐라 사회는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혹자는 거침없이 단언한다. 이성理性의 발아 이전 단계였다고. 즉, 당시 탐라는 미개와 야만의 사회였다고. 그러나 이는 단견 또는 편견일 것이다. 아니면, 자기비하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해로 이동이 육로 이동보다 한결 더 쉬웠을 테고, 쿠로시오(곧, 흑조黑潮)가 있어서 남방계 종족(곧, 규슈 · 유구 · 중국 남부 · 타이완 · 동남아 등) 유입이 북방계 종족 유입 못지않게 흔했을 테고, 그리고 국가 · 국경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이라 주변 세계에서 탐라로의 유·이민流·移民 유입(곧, 표류 · 망명 등)이 적잖았을 테니까. 나아가서, 그 유입들에 따른 제반 문물文物의 전래가 자연스레 이루어졌을 테니까. 그렇다면, 탐라사회의 이성도 서불 도래 시점에는 이미 깨어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한자 구성 원리(곧, 상형 · 지사 · 회의 등), 풍수지리, 주변국 흥망성쇠 따위는 인지할 수 있는 단계였을 것이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은 회의會意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 毛(모)이다.

Ⅴ. 쿠로시오(the Kuroshio Current, the Black Stream)는 북태평양 서부의 경계 해류로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한다. 그 주류主流의 유속은 3~5knot(1노트: 1시간에 1해리를 달리는 속도) 정도이고, 그리고 유속 2노트 이상의 유폭은 약 30해리海里(1해리: 약 1852m) 정도, 그 두께는 200~400m 정도, 그 유량은 307~507㎥/sec 정도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쿠로시오는 마치 거대한 검정빛 뱀이 푸른 초원 위를 거침없이 헤쳐 나아가듯이 파란 바다 위를 흑색 띠의 형국을 하고 도도히 흐른다. 그런데 이 해류는 필리핀 루손Luzon 근처, 타이완 동쪽, 중국 · 오키나와 사이를 차례로 지난 연후에 규슈九州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부근에서 양분되어 일본의 동쪽 · 서쪽으로 진행한다. 그중 서진하는 지류가 대마對馬 난류(Tsushima Current)이다. 이 난류는 탐라 · 규슈 사이를 지나고, 이어서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유입된다. 그러고 보면, 쿠로시오는 지난날은 남방계 종족의 규슈 · 탐라 · 경상도 등지로의 유입의 주된 통로였던 셈이다.

Ⅵ. 오늘날 오키나와라 불리는 유구琉球(りゅうきゅう)는 1609년 일본 사쓰마薩摩의 시마즈가島津家에 예속되면서 일본 번국으로 영락한

다. 탐라가 938년 고려 번국으로 영락했듯이. 그리고 1879년 일본 오키나와현沖繩縣으로 개칭되면서 국호 유구를 상실한다. 탐라가 1105년 고려 탐라군으로 개칭되면서 국호 모라를 상실했듯이. 그런데 오키나와는 오늘날도 일본 소외지역이다. 제주가 오늘날도 한국 소외지역이듯이. 참, 오늘날 유구 후예들은 당당히 말한다. 자신들은 오키나와인이 아니라 유구인琉球人이라고. 반면, 탐라후예들은 일말의 주저도 없이 말한다. 자신들은 제주인이라고. 이는 모라 역사와 그 후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부끄러운 노릇이다.

Ⅶ. 진시황 대신大臣 서불은 방사(곧, 음양가)라서 『주역』에 능통했을 것이다. 이는 서불이 『주역』 이괘편에서의 '호시탐탐'(곧, '위정자爲政者가 백성을 위해 민정民情을 성심껏 살피는 것')이 정치의 근본(곧, 정도正道)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호시탐탐을 실천하기커녕 백성조차 등져야 했다. 자신이 동승한 진秦나라라는 배의 선장 진시황 때문이었다. 물론 진시황은 탁월한 업적을 남긴 통치자였다. 봉건제도 폐지, 군현제도郡縣制度를 통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 수립, 화폐 · 문자 · 도량형 · 달력 등의 통일, 전국적인 도로망 건설 등을 실시함으로써 통일중국의 초석을 확고히 다졌으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시황제始皇帝라 자칭했고, 만리장성을 쌓느라 백성을 핍박했고, 법가法家 사상에 입각하여 사상통제를 실시했고, 일체의 통치비판을 금했고, 급기야 책을 불사르고 학자를 생매장하는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를 자행했다. 아무튼, 서불은 진시황의 학정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목숨도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해 있음을 직감하게 되자 백성마저 등지고 진나라를 탈출했다. 그리고 일본에 정착하여 학문 · 의술 · 농경 · 목축 등등 중국 선진 문물로 원시사회 일본을 문명사회로 변혁시켰다. 이로써, 그는 '왜족倭族 조상'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 내친김에 말하면, 서불은 진시황 생각만 하면 『주역』에서의 '백성 양육에 관한 이괘'는 물론이고 '혁명에 관한 혁괘'도 떠올랐을 것이다. 이는 서불이 백성 양육(곧, 대신으로서의 이상理想)과 혁명의 기로에서 번민했으리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는 혁명가가 아니라 대담한 이상주의자理想主義者였던 듯하다. 혁명가로 변신하여 반기를 들지 않고(또는 간신으로 변신하여 신변의 안전

을 도모하지 않고)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선약을 구해 오겠다며 감언이설로 감히 진시황을 꾀어 언뜻 노아(נֹחַ)의 방주方舟(תֵּבָה)를 연상시키는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유유히 진시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니 말이다. 생각건대, 혹여 서불은 호시탐탐虎視眈眈이란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그것을 정치의 정도正道로 구현시킬 수 있는 땅을 찾아 하릴없이 조국을 등진 것이 아닐까? 그럼, 대담한 이상주의자 서불은 자기 조국의 전설에서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불리는 영주산瀛洲山(곧, 한라산) 일대에서는 무슨 일로 소일을 했을까? 이상주의자는 꿈을 먹고사는 자이다. 그리고 틈만 나면 남이야 뭐라 말하든 자기 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자이다. 이는 서불이 탐라에서도 자신의 이상, 즉 가슴 깊이 한처럼 맺혀 있는 호시탐탐이란 정치적 신조를 구현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다. 즉, 정착지를 물색하느라 한라산 기슭 여기저기를 헤매다 마주친 이 땅의 주민들에게 농경 · 목축 · 한자 · 천문 · 풍수지리 · 중국 역사 · 국가 제도 등등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것을 들려주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두 차례의 서불 도래(기원전 220년, 219년)는 모라건국 설화의 역사적 배경인 셈이고, 삼을나三乙那에서의 乙은 대을大乙(은殷 왕조의 개국시조)에서의 乙(뜻: 하나 · 시작 · 처음 등)과 일맥상통하는 글자인 셈이고, 그리고 모흥혈毛興穴에서의 毛는 회의자會意字로 '三과 乙의 합성어'(←'三+乚')인 셈이다. / 내처 말하면, 서불은 벽랑국(곧, 일본국)으로 향하기 전에 일본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온평리 포구에서 선단을 재정비했을 것이고, 그런 연후에 쿠로시오(곧, 대마난류)가 북상하는 탐라 동쪽 바다를 건너갔을 것이다. 탐라와 인연을 계속하여 유지하려고 '처녀 셋 · 오곡 씨앗 · 우마牛馬 등'과 '이상주의자다운 권고의 말'[곧, '검(곧, 무력)이 아니라 평화(곧, 협의 등)에 의거한 이상향을 건설하라는 당부' · '정치의 정도는 호시탐탐이라는 조언' 등]을 이 땅에 남겨두고서 말이다. / 부언하면, 서불이 이 땅을 뜨고 160여 년이 흐른 뒤(곧, 기원전 56년 무렵에서 기원 65년 무렵 사이)에 이 땅에서는 검이 아니라 협의에 의거한 耒, 즉 '삼을나의 나라'가 창건되었다. 그리고 이 땅은 '호시탐탐虎視眈眈을 정치의 정도正道로 삼은 땅(羅)'이라는 뜻에서 탐라眈羅라 불리게 되었다. 이는 탐라국 창건 무렵부터 이 땅은

지명이 탐라로, 국명이 모라로 불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가 모라는 몰락했고(1105년), 그리고 그 후 국호 모라는 망각 속으로 아주 파묻혀 버렸다. 한편, 지명 탐라는 호시탐탐이란 말의 의미 변질(곧, '대신이 백성을 도우려고 노려봄'→ '호랑이가 토끼를 덮치려고 노려봄')에 따라 그 뜻이 '호랑이(또는 거인)가 지켜보는 땅'으로 변해 버렸다. 나아가서, 외세 핍박에 시달린 나머지 저항 차원에서 '왕후지지'(곧, 제왕과 제후가 태어나는 땅)란 뜻을 새로이 함축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탐라는 왕후지지이다"라 주장하는 전설의 이면에는 민중의 외세에 대한 배타심 · 적개심 등이 들어 있는 셈이다. 물론 그 악감정들은 모라 몰락 후의 외세 핍박에 대한 탐라민중의 저항의식의 발로요 주권회복(곧,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의 발로였을 것이다.

Ⅷ. 오늘날 탐라사회 일각에서는 말한다.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외세에 대한 배타심을 불식拂拭시켜야 한다고. 물론 지당한 소리이다. '평화의 섬'은 열린 사회여야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론은 이 땅의 배타심은 곧 섬사람 근성이라는 것이다. 그럼, 근성(곧, 천성)인 배타심을 어찌 불식하랴. 한편, 전설은 말한다. 탐라국(耽)은 탐라 토박이들과 탐라 주변지역 유·이민이 하나가 되어 창건한 나라라서 당대의 이 땅에는 배타심이란 의미의 말도 토박이와 외세를 구별하는 의미의 말도 없었다고. 그런데 그런 의미의 말들이 생겨난 것은 바로 모라毛羅 몰락 이후 천여 년 간의 외세 핍박 때문이었다고. 그러니, 외세에 대한 배타심을 불식시키려거든 모라건국 당시로 되돌아가라고. 즉, 당시의 모흥정신耽興精神을 오늘에 되살리라고. 모흥정신이란 '삼을나가 하나가 되어(耽) 일어난(興) 정신', 즉 '다양성多樣性이 일체가 된 정신'이다(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Ⅸ. 탐라의 외세개념은 이제는 모름지기 달라져야 한다. 즉, '밖에 있는 자'(곧, 토박이에 대응되는 외지인)가 외세라는 진부한 의식에서 그만 탈피해야 한다.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듯이 처신하는 자'가 있을 수 있듯이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듯이 처신하는 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탐라 외세는 이 땅의 환경 · 역사 · 정신 등에 역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주냥정신'에 반하여 거드름피우며 과욕을 부림으로써 이 땅의 삶의 질을 악화시

키는 탐욕주의자들(예: 이 땅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팔거나 이용하여 배를 불리는 장사꾼들), '모흥정신'에 반反하여 이 땅을 분쟁으로 몰아가는 분열주의자들(예: 선거 때만 되면 소위 호남당 · 영남당 등으로 갈려 멱살잡이도 마다지 않는 정당의 끄나풀들), '관덕정 창건 정신'(또는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 <오백장군과 고종달> 등의 이면 정신인 '장두狀頭정신') 에 반하여 이타주의利他主義를 제쳐놓음으로써 이 땅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이기주의자들(예: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을 신화로 왜곡하여 '설문대할망 신화관'을 조성해 놓고 혹세무민하는 반민족적 친일세력들) 말이다. 참, ᄌᆞ냥정신에서의 ᄌᆞ냥(←ᄌᆞᆫ 양)의 의미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의 어머니들 입에 툭하면 오르내리던 다음 옛말에 잘 드러나 있다. "큰 양 말앙 ᄌᆞ냥 ᄒᆞ라!"[큰사람인 양 거드름부리지 말고 ᄌᆞᆨ은(작은) 사람인 양 겸손히 굴어라!]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은 본의(곧, 겸손)와는 달리 근검절약으로 축소되어, 아니 변질되어 있다.

X. 설화는 변하게 마련이다. 삼라만상이란 예외 없이 변하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설화상의 탐라 의미도 조금씩 변해 왔다. 이는 그 의미가 앞으로도 간단없이 변하리라는 말이다. 물론 그 변화는 민중의 몫이다. 설화는 전적으로 민중 꿈의 역사, 즉 민중사의 단면斷面들이니까. / 여하튼, 설화는 흡사 생목生木처럼 변하는(곧, 자라는) 것이다. 이는 설화는 마치 나무가 열매, 즉 씨앗(곧, 배아胚芽)에서 시작되듯이 원형(곧, 핵심화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고, 나아가서 마치 나무가 뿌리 · 줄기 · 가지 · 잎 등을 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듯이 부차적 화소들을 거느리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설화도 나무도 새로워질 뿐이지 그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마치 열매, 즉 씨앗(곧, 배아)에서 시작한 나무가 열매를 지향하듯이 원형(곧, 핵심화소)에서 시작한 설화도 원형을 지향하니까. 물론 원형에는 마치 씨앗(곧, 배아)에 나무의 본질(곧, 생명력)이 들어 있듯이 설화의 본질(곧, 정신)이 들어 있다. 이는 설화의 본질은 흡사 나무의 본질이 생명력이듯이 설화 이면의 정신이라는 말이다.

XI. 당해 전설은 두 가지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 하나는 폭군의 학정에 맞서기 위한 혁명(곧, 저항)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위정자爲政者의 백성 양육 정도正道를 위한 호시탐탐虎視眈眈 정신이다.

<비양도>

❶ 한림읍翰林邑 한림리翰林里 앞바다에 **비양도飛揚島**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 **옛날도 아주 옛날엔 섬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섬 하나가 **대국** 쪽에서 한림읍 앞바다로 조류에 떠밀려 와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었다. / 그런데 **임신한 해녀(곧, 여자)**가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캐다가, 난데없는 큰 섬이 떠오는 것을 발견했다. 해녀는 이상히 생각하여 그 섬에 올라가 잠시 쉬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그 섬에다 그냥 **소변을 보아 버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 흐르던 섬이 그 자리에 딱 멈추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그 섬은 아무리 조류가 세어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지금의 비양도라고 한다.(1960년 1월 20일 翰林邑 水源里 下洞 김연이 提供) -『濟州島傳說』, 현용준, 서문당, 1976년, 25쪽

❷ 비양도는 본래 **육지**에 있는 섬이었는데 지금의 그 자리로 떠내려 온 것이다. 이 섬이 본래 떠내려 올 때에는 애월면涯月面 곽지리郭支里 앞에 와서 머무를까 하여 한림읍 한림리 앞바다까지 떠내려 왔다. 이때 임신한 여인이 큰 섬이 떠오는 것을 발견하고 **"야, 저기 섬이 떠 온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하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내려 오던 섬이 그만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는 것이다. (1959년 7월 29일 한림읍 한림리 玄周善[男] 提供) -『濟州島傳說』, 앞의 책, 25쪽

[화소話素 관련 설명]

**비양도飛揚島**에서의 飛揚의 뜻은 '(화산분출에 따른 화산진 · 화산탄 등이) 치솟으면서[곧, 날아오르면서(飛)] 바람에 흩날리다(揚)'이다. 이는 이 섬이 다름이 아니라 화산 분출로 생겨난 섬이라는 말이다. 사실, 비양도는 1002년(고려 목종 6)경 화산 분출로 생성되었다. / 1002년은 탐라국, 즉 모라毛羅가 고려에 예속된 지 64(=1002-938)년 되던 해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103년 뒤인 1105(숙종 10)년 탐라국은 고려에 의해 국호 모라毛羅가 폐지됨으로써 몰락한다.

**옛날도 아주 옛날엔 섬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때가 있었다**는 아마도 '지각변동에 관한 구전口傳'의 흔적일 것이다.

**대국**은 지난날 '중국'에 대한 탐라인들의 호칭이었다.

**임신한 해녀(곧, 여자)**는 지난날은 정결함을 요하는 일(예: 제사)에서는 범접 금지 대상이었다. 부정 탄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는 비양도가 표류하다 멈춘 것은 부정 탔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당대 사람들은 성교性交를 부정한 행위로 치부했던 셈이다. 임신은 성교의 결과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성교를 부정한 행위로 치부한 것은 유교문화의 소산일 것이다. 유교문화 이전(예: 신화시대)에는 성교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일하는 것과 더불어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 즉 신성한 일로 여겨졌을 테니까.

**소변을 보아 버렸다**. 임신한 여자가 소변마저 보아 버렸으니 일이 부정 타서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즉 표류하던 섬이 멈추어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떠 흐르던 섬이 그 자리에 딱 멈추어 버렸다**는 '자유롭게 표류해야 할 섬이 (임신부 배뇨로 부정 타서) 그만 멈춰 버렸다'이다.

**육지**는 지난날은 통상 '한반도'에 대한 탐라인들의 호칭이었다.

**"야, 저기 섬이 떠 온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하였다**는 '천기天機를 누설하였다'라는 뜻이다,

**떠내려 오던 섬이 그만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는 '자유롭게 표류해야 할 섬이 (천기누설 하는 바람에 부정 타서) 그만 그 자리에 멈추어 버렸다'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위 ❶ · ❷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위 ❶ · ❷는 전설이다.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예: 이 세상의 모든 섬)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곧, 비양도)이니까. / 일제강점기였다. 일본 설화연구가들은 조선에 대동아공영권 · 내선일체 등을 식재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일본식 설화분류기준(예: 표류하는 섬에 의한 국토형성 관련 설화는 신화이다)을 조선 구비문학계에 주입했다. 그런데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오늘날도 그 일본식 설화분류기준(곧, 일제잔재)을 청산하기커녕 금과

옥조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제주(곧, 한국) 전설임이 명명백백한 당해 설화(곧, <비양도>)를 신화로 취급한다. 기막힐 노릇이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인 친일행위에 여념이 없으니 말이다. 물론 표류하는 섬에 의한 국토(곧, 지형)형성 관련 설화를 두고 일본인들이 신화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시야비야할 수는 없다. 설화분류법은 지역(곧, 지방 · 국가 · 대륙 등)이나 종족(곧, 씨족 · 부족 · 민족 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지역이나 종족 등이 상이하면 민중 삶도 민중 삶 소산인 설화도 설화분류법도 상이할 수 있다.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제주라는 일정지역에서만 구전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비양도 생성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비양도의 화산 활동(1002년경)은 일종의 역사적 사건이니까.

Ⅳ.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중 삶이란 유사하게 마련이다. 어느 곳의 어떤 종족도 통상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일하니까. 이는 민중 삶 소산인 설화도 설화분류기준도 유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편, 민중 삶이란 삶의 자리(곧, 역사적 · 자연적 · 사회적 환경)에 따라 때로는 상이하게 마련이다. 마치 한국에서는 밥상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서구에서는 식탁에서 포크와 나이프로 빵을 먹듯이. 이는 민중 삶이 지역 · 종족 등에 따라 상이해지면 설화도 설화분류기준도 상이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제주와 일본 간 설화분류법이 상이한 논거이다.

Ⅴ. 일제강점기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정치구호인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 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을 식민지 조선에 부식扶植하고자 골몰했다. 한편, 일본구비문학계 인사들은 위 정치구호에 힘을 실어주려고 "동아시아는 고래로부터 문화유산을 공유했다"라는 주장과 아울러 일본식 설화분류기준[곧, "⑴ 천지분리에 관한 설화, ⑵ 복수複數의 해와 달에 관한 설화, ⑶ 국토(곧, 지형)형성에 관한 설화(① 거인에 의한 지형형성 설화, ② 표류하는 섬에 의한 지형형성 설화)는 신화이다"]을 조선인들에게 유포했다. 물론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법(이는 굿에 쓰이는 설화는 본풀이로, 굿에 쓰이지 않는 설화는 옛말로 분류함)에 의거하면 위 ⑴

과 ⑵는 굿에 쓰이는 설화(곧, 후술할 <천지개벽과 천지왕>에 해당된 것)이니 본풀이(≒ 신화)로 분류되나 위 ⑶(곧, 위 ①과 ②)은 굿에 쓰이지 않는 설화(곧,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과 <비양도>에 해당된 것)이니 본풀이가 아니라 옛말(≒전설)로 분류된다. 그리고 한국설화이론 3분법(이는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은 신화로,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은 전설로 분류함)에 의거하면 위 ⑴과 ⑵는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예: 천지개벽, 복수의 해와 달)이니 신화로 분류되나 위 ⑶(곧, 위 ①과 ②)은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예: 설문대할망, 비양도)이니 신화가 아니라 전설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구비문학계의 극소수 '맹목적인 친일세력'[15]은 위 일본식 설화분류기준(곧, 일제잔재)을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금과옥조인 양 떠받들고 있다. 이를테면,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은 거인의 지형형성 관련 설화이니 위 ⑶의 ①에 따라, <비양도>는 표류하는 섬 관련 설화이니 위 ⑶의 ②에 따라 전설이 아니라 신화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는 위 일본식 설화분류기준을 옹호(또는 추종)하기 위해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법과 한국설화이론 3분법을 유린하는 작태이다. 아니, 왜 일본설화이론을 위해 한국설화이론을 희생시켜야 한단 말인가? 일본설화는 오리지널이고 한국설화는 이미테이션인가? 한국설화는 일본설화의 아류인가? 아직도 의식이 일제 식민치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니 언어도단이다. 참, 일본설화이론은 일본설화들로부터, 그리고 한국설화이론은 한국설화들로부터 귀납적 방법에 의해 추출된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이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 <오백장군과 고종달> 등을 왜곡해 놓고 그 왜곡된 것들을 근거로 대담하게도, 아니 기막히게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세금 930억 원을 끌어들여 속칭 제주돌문화공원에다 설문대할망신화관神話館)을 건립하게끔 했다. 실로 개탄하여 마지않을 노릇이다. / 내처 말하면, 위 맹목적인 친일세력의 장단에 놀아나는(곧, 반민족적 친일행위에 동조하여 막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관절 어느 나라 산하 지방자치단체인가? 일본국 제주특별자치도인가? 문득 제주의

15) 이는 '이성적인(곧,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친일세력'의 상대어임.

말뜻 '구제해야 할 고을'이 연상된다. 아, 지난날 모라(또는 탐라)라 불렸던 이 땅은 언제쯤 치욕스러운 명칭 제주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아니, 그 불식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어리석게도 친일親日을 위해 역사적 전설(곧, 민중사)마저 왜곡하는 판국이니 말이다.

## <날개 달린 아기장수>

**지금부터 약 130년 전**, 제주시 외도이동外都二洞에 밀양 박씨密陽朴氏 부부가 살고 있었다. / 나이가 40이 넘도록 슬하에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없어 허허 탄식하였다. 여기저기 정성을 드려 돌아다녔는데 그 덕인지 부인이 포태를 했다. / 집안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태기가 있어 10삭 만에 아이를 낳으니 아들이었다.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몸이 컸다. **삼승할망**助産巫이 아이를 받아 내어 목욕을 시키다 보니, 아이 겨드랑이에 병아리 날개만큼 한 날개가 돋친 것을 발견했다. 삼승할망은 일순간 놀랐으나, 말이 번지면 위험한 일이므로 모른 척하고 가 버렸다. / 아이는 날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날개도 날로 커 가서 아이가 앉고 기고 할 때가 되니 큰 새 날개만큼 되었다. 부모의 걱정은 날로 커져 갔다. **날개 돋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다**. / 아이는 나서 서너 달이 채 못 되었는데, 제 발로 바깥을 뛰어다녔다. / 어느 날 아이는 어머니가 없는 틈에 혼자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머니는 가만히 아이 뒤를 밟았다. 아이는 그 마을에 있는 "나라소"라는 큰 소沼에 가서 날개를 벌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갔다 날아왔다 하는 것이었다. 아마 날기 공부를 하는 성싶었다. 어머니는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이가 잠든 새에 옷을 벗겨 보았다. 과연 커다란 날개가 겨드랑이에 돋아 있었다. **아버지는 얼른 인두를 달궈서 아들의 날개를 지져 버렸다**. / 그 후 아이는 다소 기운이 떨어지고 얌전해졌지만 성장하여 감에 따라 힘이 장사요 머리가 남달리 총명하였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장차 나라를 바로잡을 일꾼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 그러나 날개를 지져 버린 자국이 아물지 못하고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조약(곧, 조제한 약)을 써 보았지만 효험이 없어, 결국 스물아홉 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지금 그 무덤은 외도1동外都一洞에 있는데, 그 자손이 벌초伐草하러 갈 때마다 이 조상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한다.(1959년 8월 濟州市 外都洞

朴龍河[男] 提供) -『濟州島傳說』, 현용준, 서문당, 1976년, 171~173쪽

[화소話素 관련 설명]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은 조선조 순조 · 헌종 교체기인 1830년대 무렵이다. 당해 설화 채록시기가 1959년이니까. 물론 1830년대 무렵에도 제주에서는 여느 때처럼 크고 작은 민란이 그칠 줄 몰랐다.

**삼승할망**助産巫. 당해 전설에서의 삼승할망은 조산무助産巫(곧, 산파産婆 역할을 하는 무녀)이다. 이는 삼승할망은 지난날 제주에서는 산파를 지칭하기도 했다는 말이다. 참, 삼승할망에서의 삼승은 산신産神의 와전이다. / 각설하고, 후술할 <삼승할망(곧, 산신産神)과 마누라(곧, 마마신媽媽神)>[16]에 의하면 잉태(곧, 생명)를 관장하는 삼승할망은 노파가 아니라 실은 나이 어린 소녀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노파는 쇠락 · 죽음 · 좌절 등을, 소녀는 젊음 · 삶 · 꿈 등을 연상시키니까. 아울러, 설화란 민중 공동체가 좌절이 아니라 구원(곧, 삶)을 위해 꾸는 꿈이니까. 그렇다면, 위 <삼승할망과 마누라>에서의 할망이란 용어는 물론이고 제주설화에서의 할망이란 용어들도 모두 하나같이 나이 표현이 아니라 존칭 표현이 아닐까? (이는 후술할 <삼승할망과 마누라> 참조)

**날개 돋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할 게 분명하다**에서의 날개는 지난날 민중에게는 구원救援의 상징이었고, 지배층에게는 역모逆謀의 상징이었다.

**아버지는 얼른 인두를 달궈서 아들의 날개를 지져 버렸다**라는 화소는 당해 설화를 전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당해 설화 향유자의 마음속에 비장미悲壯美(곧, 비극미悲劇美)를 불러일으키니까. 나아가서, 당해 화소는 당해 전설을 전형적인 전설, 즉 '전설의 전형'(곧, '꿈 있는 비극')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탄생'은 당해 전설의 꿈이고, 그리고 '날개의 상실'은 당해 전설의 좌절(곧, 비극)이니까. / 부언하면, 당해 전설은 지난날 민란이 주로 장두狀頭(여기서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 측근(여기서는 '삼족의 멸문을 막으려는 부모')의 배신으로 막을 내렸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16) 『濟州島神話』, 앞의 책, 25~36쪽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는 전설이다. 증거물인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무덤이나 나라소沼 따위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니까. 또한, 미적美的범주가 비장미에 속하니까. 즉, 아기장수의 날개 상실이 당해 설화 향유자들로 하여금 비극적 감정을 느끼게끔 하니까. 참, 한국설화이론 3분법은 말한다. 숭고미를 자극하는 것은 신화이고, 비장미를 자극하는 것은 전설이고, 그리고 골계미를 자극하는 것은 민담이라고.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당해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 아니라 이주적移住的 전설이다. 그것은 탐라만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구전되니까. 하지만 이주적 전설이 이주에 의한 것인지 자생적인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구비문학계의 중론衆論이다. 당해 전설의 배경인 민란도 구원 상징인 날개의 출현(예: 『신약성경』에도 날개 달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목이 있음)도 상이한 곳에서 공히 자생적일 수 있는 일이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배경은 민란이니까. 부언하면, 민란은 지난날 제주민중사(또는 '모라 몰락 이후 생성된 역사적 전설')의 주요 소재였다.

Ⅳ. 당해 전설의 원제原題는 <날개 돋친 밀양 박씨>[17]이다. 그런데 당해 전설은 항간에서는 일쑤 <날개 달린 아기장수>란 제하題下에 구전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를 제목으로 삼았다. 전설이란 귀에 익숙한 것이 결국 살아남게 마련이니까.

Ⅴ. 구전은 말한다. 왕조시대 근 천 년 간 제주에서는 민란이 길게는 칠팔 년을 주기로, 짧게는 이삼 년을 주기로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 민란은 전통적 · 통상적 선봉인 소위 장두가 관에 잡혀 처형

17) 『濟州島傳說』, 현용준, 서문당, 1976년, 171~173쪽

당하는 것으로 늘 막을 내렸다고. 그래서 민중은 관에 잡혀 죽지 않고 자신들을 지배층 핍박에서 구원해 줄 '날개 달린 아기장수'(곧, 새로운 형태의 민중 지도자)를 지난날의 장두 대신에 원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민중이 꾼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꿈도 결국은 삼족의 멸문을 막으려는 부모의 손에 의해 날개가 잘림으로써 지난날의 장두 꿈처럼 허무하게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지만 민중은 그 좌절을 딛고 또다시 꿈을 꾸었다고. 가진 것이 전무한 민중으로서는 꿈마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도리가 없으니까. 그리하여, 제주민중은 이번에는 '한라산만큼 키가 큰 사람'(예: 설문대할망) 또는 '전문적인 무사武士 집단'(예: 오백장군)의 꿈을 꾸었다고. 한라산만큼 키가 큰 사람이라면 관에 잡혀 죽는 일은 없을 테고, 그리고 전문적인 무사 집단이라면 수탈이나 일삼는 오합지졸 관군에게 패배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설문대할망도 오백장군도 끝내는 죽음(곧, 좌절)으로 끝장나 버리고 말았다고. 그런데 이번 좌절의 원인으로는 지난번 같은 지배층 핍박(곧, 수탈 등)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각박한 삶의 여건(예: 척박한 땅이나 농업용수 부족 따위로 인한 생활고)도 단단히 한몫했다고. 그러고 보면, 제주에서의 구원이란 때로는 인력人力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인 셈이었다고. (이는 후술할 <오백장군과 고종달> ·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 <오백장군과 고종달>

❶ **칭기즈 칸** 시절이었다. 칭기즈 칸은 천하 지리도地理圖를 살펴보다가 흠칫 놀랐다. 탐라에 **왕후지지王侯之地**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에, 칭기즈 칸은 **탐라의 물혈[水穴]**을 끊게 하려고 **고종달高終達**을 파송했고, 그리고 고종달은 탐라 북동쪽 해안으로 상륙했다. 이 해안이 속한 마을 이름 **종달리終達里**는 바로 고종달 이름 '종달'에서 유래한 것이다.

❷ 한라산 남서쪽 비탈에 영실靈室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 지역 안의 기암괴석奇巖怪石들이 멀리서 보면 흡사 **한 무리의 신령(또는 신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암괴석들은 실은 고종달高終達이 영실의 물혈을 끊는 바람에 **영실靈室의 정기精氣**를 받고 태어나

평천하平天下를 꿈꾸며 수신修身하던 '**장수 오백여 명**'**(이른바 오백장군五百將軍)** 또는 '**괸당 오백여 명**'이 고사枯死하여 된 것이라 한다.

—이상은 필자가 중학생 시절에 김녕리에서 얻어들은 옛말들임.

❸ **외세 수탈이 극심하던 시절** 탐라 임부姙婦들은 산産달이 다가오면 태중의 아이가 사내아이가 아닌가 하여 걱정이 태산이었다. 왜냐하면, 아들(남자)이 딸(여자)보다 더 가혹한 혈세와 부역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 시절 적잖은 임부들이 한라산 오지로 숨어들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가 딸이면 곧장 하산시켰고, 아들이면 대여섯 살 무렵까지 키운 후 여장 차림으로 하산시켰다**. / 어느 날이었다. **한 어머니(곧, 임신부)가 한라산 남서쪽 비탈의 영실로 숨어들어 몸을 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태어난 것은 아들 오백 명이었다. 게다가, 더더욱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시작하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뽑아 검술 흉내를 내고, 바위를 팔매치고, 그리고 한라산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맨손으로 짐승을 때려잡았다. / 한편,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날부터 그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느라 날마다 일쑤 밤잠을 걸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사냥 간 아들들을 위해서 끓인 좁쌀죽의 간을 보다가 부족한 잠에 겨워 깜박 조는 바람에 그만 그 죽 솥으로 거꾸러져 들어 죽고 말았다**. / 그리고 저녁 무렵 사냥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너무 허기진 나머지 만사 제쳐놓고 맏이부터 차례로 허둥지둥 그 죽을 먹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차례인 막내가 죽을 뜨려고 솥 안을 들여다보더니 별안간 사색이 되면서 비명을 질렀다. 솥 바닥에 조금 남아 있는 죽 위로 어머니의 모습이 완연히 드러나 있어서였다. 이에, 막내는 겁결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차귀도 근처 바다에 빠져죽어 바위가 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를 '장군바위' 또는 '막내바위'라 불렀다. 형들도 겁결에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바위가 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바위들을 오백 명의 장군감이 굳어서 된 것이라 하여 '오백장군'이라 불렀다. —이는 필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건입동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칭기즈 칸**. 위 ❶에서의 칭기즈 칸은 실은 쿠빌라이 칸일 것이다. 몽골의 탐라 침략은 쿠빌라이 칸 때 시작되었으니까. 그럼, 왜 칭기즈 칸이라 했을까? 그것은 당해 전설 향유자인 탐라민중에게는 칭기즈 칸이 쿠빌라이 칸보다 더 익숙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즉, 칭기즈 칸이라 하는 것이 탐라민중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칭기즈 칸이냐 쿠빌라이 칸이냐 하는 것은 역사의 문제일 뿐

전설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즉, 애초에 거론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칭기즈 칸은 당해 전설의 증거물이 아니니까. 그럼, 위 ❶에서의 증거물은? 그것은 종달리(←고종달)이다. 참, 제5대 칸(Khan, 한汗)인 원元세조 쿠빌라이는 칭기즈 칸의 손자이다.

**왕후지지**王侯之地는 당해 전설에서는 '탐라 물혈 중 하나인 영실靈室의 정기精氣를 받은 왕후王侯가 태어나는 땅'이라는 뜻이다.

**탐라의 물혈[水穴]**을 당해 전설에서 거론한 것은 당해 전설 향유자인 당대 탐라민중이 탐라 물혈을 '탁월한 무엇'(곧, 왕후지지 근원)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한편, 탁월한(실은 악명 높은) 칭기즈 칸이 탐라 물혈을 끊게 하려고 고종달을 파견한 것은 칭기즈 칸 역시 탐라 물혈을 '탁월한 무엇'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물혈은 실은 수맥, 즉 지하수 줄기이다. 그런데 지난날의 탐라인들은 그것을 왕후지지 근원으로 본 반면, 오늘날의 제주인들은 그것을 한낱 축재蓄財(곧, 탐욕)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이, 그리고 후자는 자본주의 사상이 곧 신앙信仰인 시대의 소산이다. / 내처 말하면, 인간은 땅의 자식이다. 즉, 땅은 인간의 어버이이다. 이는 지하수 줄기는 땅(곧, 어버이)의 골수이며 핏줄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제주에서는 탐욕을 위해서 패역무도하게도 땅, 즉 어버이 몸에다 구멍까지 뚫어가며 골수와 피를 마구 뽑아대고 있다. 실로 개탄하여 마지않을 노릇이다.

**고종달**高終達. 민중의식의 발로[곧, 민중 공동체 삶(곧, 꿈과 좌절)의 소산]인 전설은 위대한(곧, 탁월한) 것이다. 민중의식(곧, 민중 공동체 삶)이란 탁월한(곧, 위대한) 것이니까. 이를테면,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니까. 고로, 전설이 추구하는 바는 탁월한 인물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전설 주인공은 탁월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전설(또는 전설 주체인 민중)은 역사(또는 역사가)와는 달리 세상사世上事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만 꿈꾸며 좌절하며 마냥 살아갈 따름이다. 이는 전설(곧, 역사적 전설)은 역사와는 달리 일단 성립되고 나면 자신을 있게 한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역사적 전설과 역사는 다르다. 역사적 전설은 '사실史實 + 민중 삶(곧, 꿈과 좌절)'의

소산이고, 역사는 '사실事實 + 역사가 사관史觀'의 소산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민중 개개인은 미미한 존재이다. 이는 비극적 상황이다. 그래서 민중 개개인은 이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아울러 자신들 공동체의 꿈을 이루려고 흡사 물방울이 뭉쳐 위대한 폭포수로 거듭나듯이, 또 모래 알갱이가 모여 위대한 사막으로 거듭나듯이 위대한 민중 공동체(곧, 탁월한 존재)로 거듭난다. 그런 연후에, 전설 주체(곧, 향유자)로서의 민중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걸맞은 탁월한 인물을 자신들 대리인(곧, 전설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물론 탁월한 전설 주인공도 인간이므로 끝내는 비극적 결말(곧, 죽음)을 맞는다. 인간이란 예외 없이 숙명적으로 비극적인 존재이니까. 참, 죽음이란 좌절 중의 좌절(곧, 비극 중의 비극)이다. / 각설하고, 혹자는 고종달을 실존인물 '호胡[곧, 호적胡狄(뜻: 오랑캐)] 종단宗旦'의 와전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고종달은 실존인물 호종단일 수 없다. 전설 주인공은 탁월한 인물이어야 하는데 실존인물 호종단은 탁월한 존재가 아니니까. 즉, 탁월한 칭기즈 칸이나 탁월한 탐라 물혈(예: 탐라 왕통)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니까. 그렇다면, 당해 전설에서의 고종달은 '(탁월한 탐라 물혈 소산인) 고씨高氏 왕실을 종언終焉에 달達하게 하다'란 의미의 가명假名일 것이다. 이는 여기서의 고종달은 탁월한 칭기즈 칸의 사자使者요 탁월한 탐라 물혈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라는 말이다. 부언하면, 고종달이 설령 실존인물 호종단이라 하더라도 일단 전설에 편입된 이상 더는 실존인물 호종단일 수는 없다. 전설의 세계란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꿈의 세계이니까. 즉, 전설 주인공은 사실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전설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인물이니까.

**종달리終達里**는 당해 전설의 증거물이다. 따라서 종달리란 마을 이름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고종달이란 인명도, 나아가서 당해 전설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 증거물은 전설의 핵심화소, 즉 뿌리이니까.

**한 무리의 신령(또는 신선)**은 일설에는 '한 무리의 나한羅漢'으로 되어 있다. 아라한阿羅漢(<범어>arhat)의 준말인 '나한'은 소승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끊고 사제四諦(곧,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이치를 깨달아 열반의 경지에 이른 성자聖者을 일컫는 호칭이다. 참, 일설은 말한

다. “대승불교가 한반도를 거쳐 탐라에 전래되기 훨씬 이전에 소승불교가 남쪽 바다 너머로부터 전래되었다”라고. 어쨌든, 전설에 편입된 신령(또는 신선)과 나한은 각각 도교와 불교가 당해 전설 향유 민중사회에 토착화한 결과일 것이다. 부언하면, 탐라에서는 지난날은 무속 · 풍수지리 · 도교 · 불교 · 유교라는 여러 신앙이 전래하여 토착화했고, 오늘날은 그리스도교가 도래하여 기존 신앙들과 충돌하면서 토착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토착화한(곧, 전설에 편입된) 신앙들에서 ‘유의미有意味한 정신’(예: 풍수지리에서의 ‘물혈은 왕후지지의 근원이다’라는 사상)을 찾는 것 또한 이 글 취지의 일단一端이다.

**영실靈室의 정기精氣**에서의 靈室의 사전적 정의定義는 ‘사자死者의 영위靈位를 모셔 두는 영궤靈几와 그에 딸린 물건을 차려 놓은 방’이다. 이는 위 ❷에서는 기암괴석이 곧 영궤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 일련의 기암괴석(곧, 영궤)은 영실靈室(곧, 경사진 구릉)에 늘어서 있다. 이는 그 기암괴석들이 바로 그 영실이라는 구릉에 응축되어 있거나 그 속을 흐르고 있는 정기精氣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위 ❷에서는 구릉을 왕후지지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풍수지리와 황구렁이는 탐라전설에 흔한 소재素材이다. 한편, 풍수지리를 소재로 한 전설의 취지는 두 가지, 즉 ‘구릉 · 샘터 · 내창 · 골짜기 등은 왕후지지의 근원이라는 것’과 ‘그 왕후지지의 혈穴 · 맥脈 등이 끊겼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는 탐라민중 꿈(곧, 자주독립 열망)의 흔적이고, 후자는 그 꿈 좌절의 흔적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날의 탐라후예들에게는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이 꿈(곧, 주요 관심사)이었던 셈이다.

**장수 오백여 명(이른바 오백장군五百將軍)**에서의 五百은 탐라설화에 종종 등장하는 숫자로 五는 오방五方(곧, 중앙과 사방四方)을, 그리고 百은 ‘완전함 · 충분함 · 많음 등’을 상징한다. 이는 당해 설화에서의 오백(5×100)은 ‘오방(곧, 도처)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상황’에 대한 상징이라는 말이다. 참, 당해 전설(위 ❷)에서의 ‘고종달이 영실(곧, 오백장군)의 물혈을 끊다’라는 화소는 전술한 <아흔아홉골; 백골>에서의 ‘몽골 사신이 백 개의 골짜기 중 하나를 없애다’라는 화소,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에서의 ‘명주 백 통 중 하문

부분에 댈 한 통을 구하지 못해 다리 놓기를 중단하다'라는 화소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당해 전설들(위 ❷ · ❸)에서의 백은 '백골에서의 백' · '명주 백 통에서의 백' 등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전설들에서의 오백장군도 전술한 <아흔아홉골; 백골>에서의 저항세력도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 뒤할망>에서의 설문대할망 일행도 공히 무단통치에 반하여 지배세력에 항거하고자, 즉 탐라독립을 꿈꾸며 외세에 항거하고자 집결한 세력의 상징인 셈이다. 여하튼, 탐라전설에서의 숫자 오백은 당대 탐라민중 구원 열망의 소산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탐라후예들은 이 땅의 신의 수효는 '일만 이천'(4×3×10×100)이니 '일만 오천'(5×3×10×100)이니 했다(여기서의 4와 5는 각각 사방과 오방의 상징이고, 3과 10과 100은 완전함 · 충분함 · 많음 등의 상징임). 물론 그 뜻은 양자 공히 '신이 이 땅의 도처에 충분하리만큼 많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제주 무속사회에서는 무슨 대단한 자랑이나 하듯이 이 땅 신의 수효는 '일만 팔천'(6×3×10×100)이나 된다며 떠벌려대고 있다. 유치하기 그지없는 행태이다. 여기서의 '일만 팔천'의 인수들 중 하나인 '6'은 상징과는 전혀 무관한 숫자이니까. 사실, 신은 다다익선인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신은 적을수록 좋다. 아니, 유일신이 가장 이상적이다. 유일신이야말로 하나의 민족을 결속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 주니까. / 내처 말하면, 설화가 유의미한 것(예: 이정표 · 길잡이 등)으로 남아있게 하려면 설화연구가는 설화 이면의 것(예: 정신 · 역사 등)을 추출하는 데만 진력해야 한다. 딴전 부리지 말고 말이다. 딴전 부리기[예: 제주본풀이에서의 신의 수를 일만 팔천이니 이만 일천(7×3×10×100)이니 하는 것]는 결과적으로는 본풀이를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나아가서 무속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니까. 부언하면, 이 땅의 일만 이천여 신적 존재에 대한 계보를 작성하려 드는 것도 역시 일종의 딴전 부리기이다. 물론 혹자들의 그런 노고는 필경 도로에 그치고야 말 것이다. 제주본풀이에 등장하는 신적 존재 거의 대부분은 외부(주로 한반도)에서 체계 없이, 즉 따로따로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들이니까. 이는 오랜 세월을 두고 탐라로 유·이민이 간단없이 흘

러들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제주 본풀이는 제주 옛말과는 달리 탐라 고유 색채는 거의 없고 외세 흔적 일색이다. 그러고 보면, 신의 계보 따위는 제주 본풀이에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인 셈이다. 참, 탐라 고유의 신화는 모라毛羅 몰락과 더불어 가뭇없이 축출되어 버렸을 것이다. 국가가 망하면 망국(곧, 종속국)의 언어 · 역사 · 신화 등은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축출되게 마련이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본풀이(신화)를 제주 고유 사상(곧, 신앙)으로 확립함으로써 제주사회 일치의 구심점으로 삼자는 혹자들의 무모한 주장이 있다. 물론 일치를 위한 구심점이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그 주장은 신화와 신앙을 혼동한 한갓 단견일 뿐이다. 신화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구비문학)의 문제이니까. 참, 현대의 신앙도 신화학神話學도 탈신화화脫神話化의 여정에 있다. '탈신화화'란 신화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론적 차원에서 신화를 재해석하는 것을 뜻한다.[18] 어쨌든, 신화를 신앙화信仰化하면서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주장은 헛공론에 그칠 것이다. 작금의 탐라사회는 다신앙 사회여서 동조세력을 얻지 못할 테니까. 아니, 도리어 애먼 신화 자체만 곤경에 빠뜨려 외면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테니까. 본풀이는 허무맹랑한 괴담이며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신앙이라고 낙인찍히게 함으로써 말이다. 요는 신화는 신화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신앙인 양 가장하지 말고. 생각건대, 탐라사회의 구심점을 굳이 설화에서 찾는다면 신화에서가 아니라 전설, 나아가서 역사적 전설에서 찾아야한다. 역사적 전설에는 탐라인의 뿌리 · 족적, 꿈 · 좌절, 그리고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이 여타 설화에 비해 유독 짙게 어려 있으니까. 게다가, 역사적 전설은 본풀이와는 달리 신앙과도 무관하니까. 즉, 어떤 신앙의 비위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참, 탐라전설의 존재 의의는 그것이 탐라민중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괸당 오백여 명**에서의 괸당黨은 뜻이 '사랑하는 무리'로 오늘날은 부계혈족을 지칭한다. 물론 '괸'은 '괴다(사랑하다)의 관형사형'이다.

---

18) 『성서비평사전』, 정태현 편역, 성서와함께, 1993년, 258쪽

한편, 지난날 탐라에서 손윗사람은 누구나 다 삼촌이었고, 손아랫사람은 누구나 다 조카였다. 이는 연배年輩는 누구나 다 형제라는 말이다. 탐라건국 주역 삼을나께서 의형제이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괸당은 본디는 부계혈족이 아니라 탐라인이란 종족 전체, 즉 겨레(곧, 서로 사랑해야 할 무리)에 대한 지칭이었을 것이다. 참, 혹자는 괸당을 권당眷黨의 와전이라 한다. 권당은 친척(곧, 친족과 외척)을 이르는 말로 '돌아보고 돌보고 그리워해야 할 무리'라는 뜻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작금의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괸당 문화'라는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 가며 괸당이라는 말을 불식拂拭해야 할 유산, 즉 폐습쯤으로 폄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한낱 정치판 따위에서 싸잡아 매도당할 만큼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탐라후예라면 너나없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그 의미를 거듭거듭 곱씹어 보아야 할 주옥같은 탐라문화 유산이다.

**외세 수탈이 극심하던 시절**은 지난날 탐라에는 따로 없었다. 극심한 외세 수탈은 모라毛羅 몰락 후 이내 관례화되었고, 그리고 늘 한결같았으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민란은 길게는 칠팔 년을 주기로, 짧게는 이삼 년을 주기로 두고두고 반복되었다"라는 구전이다.

**그 시절 적잖은 임부들이 한라산 오지로 숨어들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가 딸이면 곧장 하산시켰고, 아들이면 대여섯 살 무렵까지 키운 후 여장 차림으로 하산시켰다**. 구전은 전한다. 지난날 한때 탐라 산부産婦들이 한라산 오지로 숨어들어 해산했고, 그리고 아들(남자)이 딸(여자)보다 더 가혹한 혈세와 부역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으므로 딸이면 곧장 하산하여 관아에 출생신고를 했지만 아들이면 산속에서 장기간 양육한 후 여장女裝하게 하고 하산시켜 여아女兒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호적에서의 남아男兒는 가물에 콩 나듯 드물었다고. 바로 이것이 소위 삼다三多 중 여다女多의 내막이다. 여하튼, 지난날 한때 탐라 공동체 여인들은 하릴없이 관아 몰래 한라산 오지에서 남아들을 공동으로 양육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 남아 공동양육이 탐라민중으로 하여금 '무단통치로 일관하는 관官에 대적할 무사 집단(곧, 오백장군) 양육의 꿈'을 꾸게 한 것은 혹여 아닐까? 이는 <오백장군과 고종달>은 지배층 핍박에서 벗어나려는 탐라민중

구원 열망의 발로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오백장군은 지난날의 탐라민중에게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나 '설문대할망' 같은 일종의 구원자상救援者像(곧, 민란에서 민중을 이끄는 장두의 상징)인 셈이다.

**한 어머니(곧, 임신부)가 한라산 남서쪽 비탈의 영실로 숨어들어 몸을 풀었다**에서의 '한 어머니'를 모某 인사가 몇 년(곧, 1964년 무렵부터 1968년 무렵까지)에 걸쳐 자신의 편저 『신화와 전설』(1959년 초판, 1964년 재판, 1968년 개정판 등)에서 '설문대할망'으로 왜곡(곧, 조작)해 놓았다.[19] 이로써, 설문대할망은 졸지에 '오백장군 어머니'로 둔갑하게 되었다. 한편, <비양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그 맹목적인 친일세력은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곧,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신격화神格化')을 위해서 예의 그 왜곡에 대한 구비문학계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 수용했다. 물론 위의 왜곡 · 수용 등은 당해 설화(곧, <오백장군과 고종달>)는 물론이고 후술할 <설문대할망; 세명 뒤할망>의 배경 역사(곧, 모라耗羅 몰락 이후의 탐라 민중사)를, 나아가서 그 두 전설 이면의 정신을 말살하는 몰지각한 작태인 동시에 일제잔재(예: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권 등)를 부추기는 반민족적 망발이다. 여하튼, 예의 그 인사는 한 어머니를 설문대할망으로 왜곡해 놓았다. 그러자 고민거리(곧, 모순)가 생겼다. 그 모순이란 다름이 아니라 죽 솥에 빠져죽어야 할 설문대할망이 이미 화구호 물장오리에 빠져죽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사는 그 모순을 해소하려고 이번에는 유치하게도 '설문대하르방'을 날조해 놓고 그로 하여금 죽 솥에 빠져죽게 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부른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예의 그 인사는 예의 그 책에다 "설문대할망은 여신 신분으로 한라산을, 나아가서 제주도를 만들었다"란 진술과 함께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 딸이다"란 진술을 덧붙여 놓았다. 그럼, 이 두 진술은 참(곧, 민중 공동작)일까, 거짓(곧, 개인작)일까? 생각건대, 설문대할망이 여신 신분으로 한라산(또는 제주도)을 창조했다면, 설문대할망은 모계사회 인물일 것이다. 여신의 창조(곧, 천지분리 · 지형형성 등)는 모계사회 소산이니까. 한편,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딸이라면, 설문대할망은

19)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 『영주어문』 제24집, 현승환, 2012, 91~118쪽

도교 신적 존재로 부계사회 인물일 것이다. 옥황상제가 도교 최고신으로 부계사회 소산이니까. 그러고 보면, 위 두 진술은 서로를 부정하는 셈이다. 설문대할망을 두고 한 번은 모계사회 인물이라 하고, 한 번은 부계사회 인물이라 하니까.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물론 민중 집단의식의 소산인 설화는 결코 모순(곧, 오류)을 범하지 않는다. 이는 오류를 범한 설화는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곧, 개인에 의해 조작된 위僞 설화)이라는 말이다. 참, 도교는 톈타이(天台)산맥 일대 민간신앙이 도가道家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한나라(기원전 202 - 기원 220) 말에 성립된 종교이다. / 내처 말하면, 당해 전설은 한 어머니가 설문대할망으로 왜곡되어도 전설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증거물이 첨삭되지 않았으니까. 즉, 전설 증거물인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 증거물 첨삭을 통해 포괄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또, 전설의 미적 범주에 속하는 비장미가 숭고미로 바뀌지도 않았으니까. 물론 전설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놓는다 해서 그 합合이 신화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는 증거물이나 미적 범주 따위 여하에 달린 문제이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예의 그 인사에게는 설화이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설화는 민중 공동작인데 개인적인 조작을 부단히 하고 있으니까. 또, 설화이론 3분류(곧, 설화는 유類개념이고 신화 · 전설 · 민담은 종種개념이라는 것)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위 『신화와 전설』에다 「제주도 전설집」이라는 부제副題를 달아 놓았으니까. 아니, 어떻게 전설집에다 신화를 포함시켜 놓는단 말인가? 또, 상식마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설문대할망을 두고 한라산(곧, 제주도)을 만든 모계사회 여신인 동시에 옥황상제 딸이라 했으니 말이다. 아니, 어떻게 모계사회 인물이 부계사회 인물(곧, 옥황상제)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 딸일 수가 있단 말인가? 또한, 도교의 핵심 교리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설문대할망을 옥황상제 딸이라 하면서 설문대할망이 한라산(또는 제주도)을 만들었다(곧, 창조創造했다) 하니 말이다. 사실, 도교는 창조創造 문제에서는 모계사회 소산인 '천지분리天地分離 이론'(곧, '달라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신적神的 존재의 힘에 의해 분리된다는 이론')을 배척하고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즉 '동動(움직임)과 정靜(고요해짐)의 상

호작용'(예: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따른 천지개벽天地開闢 이론을 견지한다. 이는 최고신 옥황상제도 천지개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아니 못한다는 말이다. 물론 도교의 이 원칙은 철칙이라서 이른바 '2차 창조'(또는 '유사類似 창조')에 해당하는 지형형성(예: <비양도>에서 언급한 '거인' 또는 '표류하는 섬'에 의한 지형형성)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은 <태극도설> 중 음양오행설 관련 부분이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而生火水木金土,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陽을 낳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하여지고, 고요하면 음陰을 낳는다.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움직임으로 되돌아간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그 뿌리가 되어 음으로 갈리고 양으로 갈리니 곧 음과 양이 성립하게 된다. 양의 변화와 음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화수목금토火水木金土가 생겨난다. 오기五氣가 순조롭게 퍼져 사계절이 순행한다. 오행五行은 하나의 음양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이 생성되면 각각 그 독특한 본성을 가지게 된다. 무극의 참된 본체[眞]와 음양 · 오행의 정수가 묘하게 결합하여 응결된다. 건도乾道는 남자가 되고 곤도坤道는 여자가 된다. 이기二氣(곧, 음양)가 서로 감응되어 만물을 생성한다. 만물은 생기고 또 생기어 끝이 없다. (하략)] -『朱子全書: 1卷』" / 요컨대, 예의 그 인사는 설문대할망을 오백장군 어머니로 왜곡함으로써(곧, 당해 전설들을 일체화함으로써) 그것들 이면의 민중사(곧, 모라 몰락 이후의 외세 핍박과 제주민중 저항으로 점철된 역사) · 정신(곧, 장두정신) 및 꿈(곧, 구원 · 자주독립 등)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타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그 왜곡된 설화屑話를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조선에 주입한 일본식 신화이론(곧, '거인에 의한 지형형성 설화는 신화이다')으로 포장함으로써 예의 그 두 전설을 아주 분탕질해 놓았다. (이는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u>어느 날 어머니는 사냥 나간 아들들을 위해서 끓인 좁쌀죽의 간을 보다가 부족한 잠에 겨워 깜박 조는 바람에 그만 그 죽 솥으로 거꾸러져 들어 죽고 말았다</u>**. 만일 여기서의 어머니가 여신女神 설문대할망이라면, 즉 모계사회(곧, 수렵시대) 소산이라면, 그녀가 죽 솥에 빠져죽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솥은 부계사회인 청동기시대(곧, 농경시대) 또는 철기시대 이후 소산이니까. 아니, 모계

사회 인물이 어떻게 청동기시대(또는 철기시대) 이후 소산인 죽 솥에 빠져죽는단 말인가? 이는 불합리(곧, 모순)이다. 물론 설화는 민중집단의식의 산물이라서 결코 모순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모순은 왜곡(곧, 조작)된 설화의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 부언하면, 제주 본풀이(≒신화) 세계에서는 신神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본풀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죽음은 미적 범주가 본풀이의 것인 숭고미에 해당되지 않고 옛말(≒전설)의 것인 비장미에 해당되니까. 사실, 제주본풀이에서의 신은 통상 죽지 않는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선善한 본풀이 주역이나 조역은 결코 죽지 않고(또는, 만일 죽게 되면 반드시 환생하여) 신으로 좌정하고, 악惡한 본풀이 주역이나 조역은 반드시 죽어서 신으로 좌정한다.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은 악한 인물도 아닌데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으니 신적 존재(곧, 신화의 인물)가 아니라 전설상의 인물인 셈이다.

**차귀도 근처 바다에 빠져죽어 바위가 되었다**에서의 바위, 즉 장군바위(곧, 막내바위)는 당해 전설의 증거물이다. 그런데 이 바위가 애석하게도 시야(곧, 차귀도 근해)에서 가뭇없이 사라졌다. 풍문에 의하면, 어떤 선박이 그 바위에 밧줄을 걸어 선체를 고정시킨 채 모종의 작업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 동강내어 버렸다는 것이다. 실로 기막힐 노릇이다. 여하튼, 증거물이 사라졌으니 조만간 당해 전설도 흡사 뿌리 잘린 나무처럼 고사해 버리고 말 것이다. 증거물은 설화의 뿌리이니까. 아, 탐라 민중사民衆史의 흔적 하나가 또 이렇게 허망하게 지워지다니!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동강난 장군바위는 방치해 둔 채 엉뚱하게도 제주의 위대한 역사 운운해 가며 930억 원을 들여 제주돌문화공원에다 오백장군 신상神像들을 세우고 있다. 즉, 본분은 방기한 채 거드름을 부려 가며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문득 선조들의 옛말이 스쳐 간다. "ᄌᆞ냥 ᄒᆞ라, 큰 양 말앙!"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위 ❶, ❷, ❸은 다 옛말(≒전설)이다. 그것들이 무격사회가 아니라 일반민중사회에서 구전되니까. 즉,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으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위 ❶ · ❷ · ❸은 전설이다.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위 ❶의 증거물은 종달리(←고종달)이고, 위 ❷의 증거물은 영실의 기암괴석들(곧, 오백장군)이고, 그리고 위 ❸의 증거물은 장군바위(곧, 막내바위)와 오백장군(곧, 영실의 기암괴석들)이니까. 또한, 당해 설화들의 미적 범주도 모두 하나같이 신화의 미적 범주인 숭고미가 아니라 전설의 미적 범주인 비장미, 즉 비극미悲劇美(곧, ❶에서는 '탐라 물혈의 끊김' / ❷에서는 '오백장군의 고사' / ❸에서는 '어머니는 솥에 빠져죽고 아들들은 죽어 돌이 됨')에 해당되니까.

Ⅲ. 한국구비문학 전설이론에 의하면, 위 ❶, ❷, ❸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오늘날의 제주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종달리라는 마을 이름, 영실의 기암괴석, 장군바위(곧, 막내바위) 등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당해 전설의 배경이 지배층인 외세(또는 관)의 핍박과 피지배층인 민중의 저항이니까. 물론 관의 핍박과 민중의 저항은 지난날은 제주 민중사의 주요 소재였다.

Ⅳ. 오백장군은 후술할 설문대할망과 더불어 모라 몰락 이후 제주 민중사에서의 장두(곧, 구원을 위한 영도자)의 상징이다. 이는 오백장군 전설과 설문대할망 전설은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오백장군 전설과 설문대할망 전설에 대한 자의적인 일체화 · 신화화 따위를 획책하고 있다. 오백장군은 설문대할망 아들들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대며 말이다. 물론 이는 설화를 왜곡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Ⅴ. 신화는 신화시대(곧, 선사先史시대) 산물이고, 그리고 신화시대는 인간이 스스로를 신성하고 위대한 자연에서 신성하고 위대한 삶을 영위하는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로 여기던 시절이다. 그런데 제주사회가 신화시대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흐른 21세기 지금 오백장군 전설(아울러,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획책하고 있으니 실로 어불성설, 아니 언어도단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에서의 신화시대는 고려가 탐라에 무단통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1105년(곧, 국호 모라 폐지)에서 고려가 지명 탐라(곧, 왕후지지)를 제주(곧, 구제해야 할 고을)

로 개칭한 1211년경에 이르는 동안에 막을 내렸을 것이다. 예의 그 무단통치 탓에 탐라인의 신성하고 위대한 삶이 제주인의 축생畜生 같은 삶으로 전락해 버렸을 테니까.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①『上古有一神女 號曰沙曼頭姑 身長幾與天齊 手倚漢拏山頂 足躡滄海而弄波 常自言曰此土ᄀᆞ人 製我一衣則我必連陸橋於大陸 使徒步往來云而以一島之力 終不能製其衣 橋果不成 州東新村有巨人跡印在巖石上 至今稱曼姑足跡云』[아주 오랜 옛날 한 신녀가 있었다. 이름은 사만두고라 불렸다. 키는 커서 거의 하늘과 가지런했다. 손으로는 한라산 정상을 짚었다. 발로는 창해를 밟고 파도를 희롱했다. 평소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인이 나에게 한 벌의 옷을 지어 주면 내가 필히 대륙(곧, 육지)까지 다리를 연결하여 걸어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온 섬의 능력이 끝내 그 옷을 만들 수 없었다. 다리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 동쪽 신촌의 암석(곧, 빌레) 위에 찍힌 거인 발자국이 있다. 지금도 만고 발자국이라 한다.] -『耽羅誌草本』 卷二 奇聞조, 李源祚, 1843년경

②『雪漫頭姑傳說: 넷적에 한 神女 잇스니 俗稱 설만두할망(本島方言)이라 하고 일홈은 娑麻姑婆라 하니, 그 長身이 거의 하날에 다을 듯하다. 한대, 손으로 漢羅山을 집고 발로 蒼海의 물결을 희롱하며, 土壤을 옴겨 峰을 만드니 그 爲人이 長大함은 可想이라. 恒常 말하여 曰 이 섬사람이 나를 爲하여 一着衣를 지여주면, 그 報酬로, 내가 반다시 이 섬에서 대륙싸자 連橋하야 徒步로 往來케 하고 航海하는 困難을 免케 하리라 하며, 용기를 쏨내니 하마하트면 다리를 노홀 번 하엿스나, 애처로운 것은 그 時 島人이 力拙하야 要求한 一着衣를 報酬키 不能하엿슴으로, 다리 問題는 마참내 進捗이 못되고 말엇다. 그러나 朝天串이 其時 作橋하랴는 痕迹이라 한다. 邑東新村巖石上에 巨人의 발자취가 잇으니 俗에 설만두할망 捉跡이라 稱하고 그 外에도 傳會의 說이 만타.』 -『濟州島實記』 第十四章 傳說(金寧堂外各傳說)조, 金斗奉, 濟州實跡研究社, 오사카, 1932년

③『上古에 有一神女하니 號曰 雪曼頭姑라. 身長이 與天齊하여 手倚漢拏山頂하고 足躡滄海而弄波하여 常 言曰此土人이 製我一裈則我必連橋於大陸하여 使徒步往來云而以一島之力으로도 終不能製其衣裈하여 橋梁不成이러라. 州東新村에 有巨人跡이 印在巖石上하니 至今稱曼姑足跡云이라.』 -『增補耽羅誌』 附 奇聞·傳說조, 淡水契 편, 1954년

[화소話素 관련 설명]

**신녀**神女의 뜻은 '신과 같이 숭고한 여자'이다. 탐라설화 중 삼을나(곧, 모라耄羅건국) 설화에 등장하는 신인神人(곧, 삼을나)의 사전적 정의定義가 '신과 같이 숭고한 사람'(곧, 신적 존재)이니까(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물론 이는 신녀와 신인은 한 모감주염주의 두 모감주 같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한편, 신적 존재(곧, 신녀 · 신인)는 설화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는 신화 주인공일 수도 전설 주인공일 수도 있다. 여하튼, 위 ① · ② · ③에서의 주인공은 신녀이다. 이는 설화 화자話者들이 당해 설화 주인공을 신적 존재로 여겼다는 말이다. 당연지사이다. 사만두고(또는 설만두고)는 당해 설화 화자인 제주민중의 선조이고, 그리고 선조 영혼은 예외 없이 신적 존재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신위神位란 용어도 생겼으니까. 그럼, 당해 설화 주인공이 신적 존재이니 당해 설화는 신화일까? 아니, 설화 주인공이 신적 존재라 해서 당해 설화가 반드시 신화인 것은 아니다. 마치 주인공이 옥황상제(곧, 도교 최고신)라 해서 전술한 <산방산과 용ᄆᆞ루>가 신화인 것은 아니듯이. 사실, 제주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는 주인공의 신적 존재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제주민중 설화의식(곧, '설화 본문이 굿에 쓰이는 본풀이냐'의 여부)과 한국설화 분류기준(곧, '증거물이 포괄적인 것이냐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냐'의 여하나 '미적 범주가 숭고미에 해당하느냐 비장미에 해당하느냐'의 여하 따위)에 달려 있다. 그러고 보면, 위 ① · ② · ③은 신화가 아닌 셈이다.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따르면 굿에 쓰이는 본풀이가 아니니까. 또, 한국설화 분류기준에 따르면 증거물(곧, 만고 발자국)도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고 미적 범주도 숭고미가 아니라 비장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부언하면, 제주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는 설화 화자 주장에 달려 있지도 않다. 누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초승달이야!"라 했을 때 그것이 초승달인지의 여부는 그 손가락 지향 지점에 있는 달의 모습 여하에 의거해 판명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이나 손가락에 의거해 판명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한국설화 분류기준은 말한다.

신화와 민담의 증거물은 포괄적인 것이라고. 단, 민담은 증거물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신화의 미적 범주는 숭고미에, 민담의 미적 범주는 골계미에 해당된다고. 한편, 전설의 증거물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고, 전설의 미적 범주는 비장미에 해당된다고.

**사만두고**沙曼頭姑(약칭 曼姑)에서의 沙의 뜻은 '꺼칠꺼칠하다, 목소리가 쉬다, 억척스럽다 등'이고, 曼의 뜻은 '이끌다, 앞장서다 등'이고, 頭의 뜻은 장두狀頭이고, 그리고 姑의 뜻은 여자(혼인 여부나 노소 여부 불문)이다. 그러고 보면, 사만두고 말뜻은 '억척스럽게 이끄는 장두 여자'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사만두고 뜻은 당해 설화 본문을 해석하는 데에, 나아가서 당해 설화 이면의 역사나 정신 따위를 추출하는 데에 열쇠 노릇을 해 준다. (이는 곧 재론함)

**설만두고**雪漫頭姑/雪曼頭姑. 여기서의 漫(뜻: 질펀질펀하다, 넘쳐흐르다, 흩어지다, 어지럽다 등)은 曼(뜻: 이끌다, 앞장서다 등)의 와전(곧, 오류)이다. / 각설하고, 여기서의 雪은 '섧다'의 관형사형 '설운'에서의 '설'의 차자借字이고, 그리고 나머지 '만두고'는 전술한 사만두고에서의 '만두고'와 동일하다. 그러고 보면, 설만두고 말뜻은 '서럽게 이끄는 장두 여자'인 셈이다. 생각건대, '억척스럽게 이끄는 장두 여자'와 '서럽게 이끄는 장두 여자'에서의 '억척스럽게'와 '서럽게'는 일맥상통하는 낱말일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사는 것'은 곧 '서럽게 사는 것'일 테니까. (이는 곧 재론함)

**설만두할망(本島方言)**에서의 本島方言은 '-할망'에 국한된 부기附記이다. / 각설하고, 지난날 당해 설화 향유자인 제주인은 실생활에서는 할망을 婆(뜻: 할머니)의 예사말로도 높임말로도 썼다.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제주에서는 예사말과 높임말이 제대로 분화되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왕조시대 근 천 년 동안 가혹한 무단통치 아래서 축생畜生 같은 삶을 억척스럽고 서럽게 살아 내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 지난날 제주인은 엉뚱한 짓을 하는 여아女兒를 향해 질책조로 "저 할망 보라! 저 할망!"이라 하기도 했다. / 한편, 제주민중은 설화에서는 실생활에서와는 달리 할망의 한자어로 婆가 아니라 姑를 썼다. 설만두할망 한자어가 雪曼頭婆가 아니라 雪曼頭姑이니까. 그럼, 제주설화에서의 할망, 즉 姑의 뜻은? 姑는

자전적字典的 정의가 '미혼 여자 통칭, 고모 · 백모 · 숙모, 시누이, 시어머니 등'이다. 물론 여기서의 시어머니는 婆일 수도 婆가 아닐 수도 있다. 시어머니는 연령 표현이 아니라 가족관계 표현이니까. 게다가, 지난날 여자는 나이 40줄에는 대부분 시어머니가 되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제주설화에서의 할망(곧, 姑)의 뜻은 여자(혼인 여부나 노소 여하 불문), 즉 '여자에 대한 통칭'인 셈이다. 환언하면, '여자에 대한 일종의 제유법적 표현'인 셈이다. 마치 빵이 식량에 대한 제유법적 표현이듯이. 사실, 제주본풀이에서는 할망이 婆로 쓰인 경우는 없고 오직 여자(곧, 姑)로만 쓰였다. 이를테면, 본풀이 인물 삼승할망(곧, 명진국 따님아기)과 저승할망(곧, 동해 용왕 따님아기)은 공히 노파가 아니라 '(어린) 여자'[20]로, 그리고 조왕할망은 노파가 아니라 '(중년) 여자'[21]로 쓰였다. 그런데 혹자들은 제주설화에서의 할망을 姑(여자)가 아니라 婆로 본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부언하면, 여기서의 할망은 여자에 대한 높임말이기도 할 것이다. 설만두할망(설만두고)은 제주민중의 선조(곧, 영적靈的 존재)이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제주본풀이는 도교 영향권 아래 있고, 그리고 도교 교의에 의하면 신적 존재(예: 신선)는 젊은 나이에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후 선약을 먹고 신의 반열에 오른 자이다.

**토인**土›人. 위 ①에서의 '土›人'은 위 ②에서는 '이 섬사람'으로, 위 ③에서는 '土人'으로 되어 있다. 고로, '土›'(←'土 + ›')는 土이고, 그리고 토인의 뜻은 붙박이 주민일 것이다.

**一衣(한 벌의 옷)**. 위 ①에서의 一衣는 위 ②에서는 一着衣로, 그리고 위 ③에서는 一裲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것들 뜻은 셋 다 '한 벌의 속곳'일 것이다.

**漢羅山**(한라산)은 오늘날은 漢拏山(한나산)으로 와전되어 쓰이고 있다. 한라산은 '큰 벌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고, 한나산은 '은하수를 붙잡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산'이라는 뜻이다.

**土壤을 옴겨 峰을 만드니**에서의 峰은 오름이다. 돌이켜보면, 제주 여항간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화전 등으로 개간開墾 불가능한

20) 『濟州島神話』, 앞의 책, 25~36쪽
21) 『濟州島神話』, 앞의 책, 91~140쪽

산(곧, 한라산 · 성산 · 산방산 · 영주산 · 두럭산 및 산소)은 그냥 山이라 불렸고, 그리고 개간 가능한 산(곧, 앞에서 거론한 여섯 산 이외의 것들)은 오름(곧, 峯)이라 불렸다. 그러고 보면, 당해 설화(곧, 위 ②) 편찬 시기인 일제강점기에는 '설문대할망이 한라산(나아가서, 제주도)을 만들었다'라는 구전은 없었던 셈이다. 한라산(제주도 포함)은 당시는 峰(곧, 오름)이 아니라 산이라 불렸으니까. 이는 예의 그 구전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조작되거나 날조된 것이라는 말이다.

**만고족적**曼姑足跡, **만고의 발자국**, **설만두할망 足跡**, **제주 동쪽 신촌 빌레 위에 찍힌 거인 발자국**(곧, 州東新村有巨人跡印在巖石上, 邑東新村巖石上에 巨人의 발자취, 州東新村에 有巨人跡印이 在巖石上)은 당해 문헌설화들의 증거물이다. 그런데 이 증거물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채록된 설문대할망(또는 세명뒤할망) 전설에서는 '신촌과 조천 바닷가의 빌레 · 코지 · 여 등'으로 대체되어 있다. 아니, 왜 이런 대체가 일어났을까? 그 까닭은 당대 민중에게는 '만고 발자국'보다 '신촌과 조천 바닷가의 빌레 · 코지 · 여 등'이 다리 놓기 증거물로 더욱더 그럴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즉, 후자가 전자보다 다리를 놓다 만 상황을 훨씬 더 실감나게 연상시켜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양자는 공히 빌레(곧, 암반 지대)를 기저基底로 한 것이란 점에서는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바로 이런 대체(곧, 변모)가 설화는 흡사 생목처럼 자라나는 것이라는 논리의 전형일 것이다. 생목이 자라난다는 말은 둔갑한다는 말이 아니라 변모한다는 말이니까. 이를테면, 복숭아나무가 자라난다는 말은 배나무나 사과나무로 둔갑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숭아나무라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변모한다(곧, 구체화하고 심화한다)는 말이니까.

**그 外에도 傳會의 說이 만타**에서의 傳會(전회)는 '전설 구전을 위한 화자 · 청자 모임'이란 뜻일 것이고, 그리고 傳會의 說(설)은 '그런 모임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란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外에도 傳會의 說이 만타'는 당해 이야기(곧, 다리 놓기란 제하題下의 설문대할망 설화 본문) 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들(예: 오름 형성이란 제하의 설문대할망 설화 본문 등)이 있다'란 뜻일 것이다. / 여하튼, 위 대목(곧, 위 ②)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편찬된 『제주

도 실기』에 실린 것이고, 그리고 위 ①은 1843년경 조선에서 편찬된 『탐라지 초본』에, 위 ③은 1954년 제주에서 편찬된 『증보 탐라지』에 실린 것이다. 그런데 위 ① · ③에는 위 ②에서와는 달리 다리 놓기란 제하 본문 이외의 또 다른 설문대할망 전설 본문들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주에서 구전되는 설문대할망 전설 본문들 중 다리 놓기란 제하의 본문을 제외한 여타 본문들은 일제강점기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거인巨人설화가 발달한 일본의 거인설화 화소들이 제주로 하나씩 유입되어 토착화한 것일 개연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소위 재일在日 교포들, 즉 재일 제주인들의 일본 · 제주 간 왕래가 적잖았을 테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설문대할망 설화의 뿌리가 다리 놓기란 제하의 본문이라는 말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설문대할망 설화 중 다리 놓기란 제하의 본문은 일차적인 것인 동시에 자생적인 것(곧, 지역적 전설)이고, 그리고 여타 본문들(예: 오름 생성이란 제하의 본문 등)은 이차적인 것인 동시에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곧, 이주적 전설)이라는 말이다. 물론 여기서의 이주적 전설 운운은 단언이 아니라 추측성 발언이다. 이주적 전설(곧, 상이한 지역이나 종족에서 유사한 형태로 구전하는 전설)이라 해서 반드시 이주移住에 의한 것(곧,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은 아닐 테니까. 즉, 지역이나 종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간(곧, 민중) 삶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한 전설이 각각 자생할 수 있을 테니까.

**雪漫頭姑傳說**(설만두고 전설)은 위 ②의 것, 즉 『제주도 실기』의 것이다. 그런데 雪曼頭姑에서의 둘째 음절 曼(뜻: 이끌다, 앞장서다 등)이 여기(곧, 雪漫頭姑傳說)에서는 漫(뜻: 질펀질펀하다, 넘쳐흐르다, 흩어지다, 어지럽다 등)으로 되어 있다. 물론 漫은 曼의 와전(곧, 오류)이다. 위 ②가 제주사회와 격리된 오사카의 제주 출신 재일교포들 구전[곧, 재일 제주인들에 의해 왜곡(곧, 변질)된 위작]을 채록한 것일 테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조선왕조의 무단통치에 시달리며 이어도移御島[22]를 그리던 탐라후예 상당수가 일제강점기에 살길 찾아 도항선渡航船을 타고 일본 오사카 등지로 피신을 갔다. 제주출신으로 『제주

22) 移御島 말뜻은 '임금이 떠난 땅', 즉 '임금(또는 주권) 없는 섬'이다.

도 실기』를 편찬한 김두봉도 그 피신 행렬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어, 4·3사건으로 인한 연좌제에 시달리던 탐라후예 상당수가 활로 찾아 이번에는 밀항선密航船을 타고 오사카 등지로 피신을 갔다. 바로 이런 피신들이 오늘날 제주출신 재일교포가 흔한 까닭이다.

**娑麻姑婆**(사마고파)는 위 ②의 것, 즉 『제주도 실기』의 것이다. 그런데 沙曼頭姑에서는 첫째 음절 沙가 여기(곧, 娑麻姑婆)에서는 娑(곧, 범어梵語 Sa의 우리나라 한자어)로 되어 있다. 물론 娑(뜻: '호화찬란한 옷이 춤추듯 너풀거리다')는 沙(뜻: '꺼칠꺼칠하다, 목소리가 쉬다, 억척스럽다 등')의 오류일 것이다. 위 '雪漫頭姑傳說 관련 설명'에 의하면, 위 ②가 위작이니까. 한편, 娑麻姑婆의 둘째 · 셋째 음절 麻姑와 끝 음절 婆는 더불어 쓰일 수 있는 낱말들이 아니다. 양자의 의미가 배치되니까. 즉, 일본 도교 전언에 의하면 麻姑는 소녀(곧, 18세 소녀 신분으로 도교 신선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고,[23] 그리고 婆는 노파이니까. 이는 娑麻姑婆에서의 麻姑婆(곧, 마고 노파)는 오류라는 말이다. 물론 민중 공동작(곧, 민중 공동체 삶 또는 의식의 소산)인 설화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아니,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오류를 범한 설화는 개인작(곧, 개인에 의해 왜곡된 위작)이니까. 부언하면, 일본 도교 전언은 말한다. 선녀 麻姑는 선계에서 속계로 하강할 때에는 늘 너풀거리는 호화찬란한 옷을 착용했다고. 그러고 보면, 娑麻姑婆 말뜻은 '너풀거리는 호화찬란한 옷을 걸친 마고 노파'인 셈이다. 이는 娑麻姑婆는 일본 도교 색체가 덧씌워진 호칭, 즉 제주민중 꿈의 소산인 사만두고나 설만두고와는 이질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마고와 설문대할망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마고는 도교 선녀로 호화찬란한 옷을 입은 소녀이고, 설문대할망은 헐벗고 굶주리다가 물장오리에 빠져죽은 여자이니까. 물론 마고와 설문대할망을 동일시하게끔 한 일차적인 매개체는 바로 여기서의 娑麻姑婆이다. / 내처 말하면, 호칭 娑麻姑婆를 맨 처음 거론한 것은 『제주도 실기』(김두봉)이고, 그 호칭을 제주사회에 본격적으로 유포한 것은 『신화와 전

23) 『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기』, 구보 노리타다(窪德忠), 뿌리와이파리, 2004, 186-188쪽

설』(진성기)이다. 그런데 『제주도 실기』 편자는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인사이고, 『신화와 전설』 편자는 1930년대(곧,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학교 교육, 즉 일제강점기 식민교육을 받은 인사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지론(곧, 동아시아는 고래로부터 문화유산을 공유했으니 자칭 대동아전쟁 정치구호인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권 등을 조선반도에 부식扶植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좇아 한국설화의 일본설화에로의 종속화從屬化를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얼마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전언에 의하면, 조선인의 일제 치하에서의 친일 행위는 항다반사였다고 하니까. 생각건대, 김두봉이 『제주도 실기』에다 일본 색채가 덧씌워진 娑麻姑婆를 실은 것도 진성기가 『신화와 전설』을 통해 娑麻姑婆를 제주사회에 본격적으로 유포한 것도 일종의 맹목적인 친일행위라고 단언한다면 과언일까?

朝天串은 '조천코지'이다. 곶串을 제주에서는 '코지'(< 고지 < '곶+이')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변 마을 朝天은 '설문대할망 다리 놓기' 제하 전설에서는 이웃 해변 마을 新村으로 대용되기도 한다. 아마도 양자의 해변이 공히 코지가 발달한 지형이어서일 것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① · ② · ③은 1950년대 이전 문헌들에 실려 있는 유일한 설문대할망(세명뒤할망) 관련 설화로 셋 다 오늘날 '설문대할망 다리 놓기'라는 제하에 구전되는 전설이다. 여기서 1950년대를 기준선(곧, 문헌설화 인용의 하한선)으로 잡은 것은 제주에서의 설화 채록(또는 문헌화文獻化)이 1960년대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Ⅱ. 위 ① · ③에 등장하는 주인공 沙曼頭姑와 雪曼頭姑는 세명뒤할망(설문대할망)의 말뜻, 세명뒤할망(설문대할망) 전설 본문의 해석, 세명뒤할망(설문대할망) 전설 이면의 정신이나 역사 따위를 이해(곧, 추출)하는 데 열쇠 노릇을 해 준다. 이는 설화 주인공 이름의 뜻은 때로는 당해 설화를 해석하거나 당해 설화 이면의 정신 등을 추출하는 데 열쇠 노릇을 해 준다는 말이다. 마치 삼을나三乙那의 뜻[곧, '셋(三)이 하나(乙)가 되신 분(那)']이 삼을나(곧, 모라耒羅 건국) 신화를 해

석하거나 그 이면의 정신 따위를 추출하는 데 열쇠 노릇을 해 주듯이. 그리고 야훼[יַהְוֶה(Yah-weh)]의 뜻(곧,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창세기(בראשית)를 해석하거나 그 이면의 정신 따위를 추출하는 데 열쇠 노릇을 해 주듯이. 야훼는 고유명사로 그 어원은 히브리어 동사 היה[haya](존재하다)이다. 아무튼, 위 ① · ② · ③에서의 왜곡되지 않은 이름들, 즉 왜곡된 娑麻姑婆 · 雪漫頭姑를 제하고 난 沙曼頭姑와 雪曼頭姑는 설문대할망(세명뒤할망) 전설을 해석하거나 그 이면의 정신 따위를 추출하는 데 열쇠 노릇을 해 준다.

Ⅲ. 문헌설화는 한국설화이론에서는 기록문학(예: 소설)으로 취급된다. 설화는 흡사 생목처럼 성장(곧, 변모)하는 것인데 문헌설화는 화석(곧, 기록문학)처럼 더는 변모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문헌설화는 설화의 변모(곧, 성장)를 밝혀 주는 자료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 준다. 마치 위 ① · ② · ③이 설화 변모(곧, '만고 발자국'의 '조천과 신촌 해변의 빌레 · 코지 · 여 등'으로의 성장)를 밝혀 주는 역할을 해 주듯이. 물론, 위 ① · ② · ③에서의 '(거인의) 다리 놓기' 중단 증거물로는 '조천과 신촌 해변의 빌레 · 코지 · 여 등'(곧, 직접적인 것)이 '만고 발자국'(곧, 간접적인 것)보다 더 그럴싸해 보인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변모가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런 변모가 설화는 '생목처럼 자라나는 것'(곧,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것')이라는 설화 이론의 참뜻일 것이다. 참, 옛(곧, 가지치기 된) 화소는 새 화소에 밀려 축출되면 당해 설화 향유자들 뇌리에서도 종적을 감추게 마련이다. '만고 발자국'처럼.

Ⅳ. 위 ① · ② · ③은 동일한 문헌설화이다. 그런데 그것들 주인공 이름이 沙曼頭姑 · 雪漫頭姑(또는 娑麻姑婆) · 雪曼頭姑로 각기 다르다. 이는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에서의 주인공 이름이 1950년대 전반기 이전에도 오늘날처럼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물론 처음에는 그 이름이 하나[곧, 『탐라지 초본』(1843년경)의 沙曼頭姑에 상당한 것]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어째서 그 주인공 이름이 여럿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나는 그 이름이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고유명사가 아니라 흡사 장두처럼 어떤 특정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통명사여서일 것이다. 장두

의 사전적 정의는 지난날 연명으로 된 소장訴狀의 첫머리에 적힌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의 사물 명칭 상당수가 일정한 권역별(곧, 제주의 북부 · 남부 · 동부 · 서부)로 조금씩 다르게 불린 것과 동일한 이치에서일 것이다. 마치 까마귀쪽나무 열매가 제주의 일정 권역별로 구릉비 · 구렁비 · 구름비 · 구럼비 등으로 다르게 불리듯이. 물론 제주 사물 명칭이 권역별로 다르게 불린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지난날 사회 통제수단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무속신앙(곧, 본향당신 심방)이 마을별로는 강력한 결속을, 그리고 마을들 간에는 엄격한 단절을 요구했을 테니까.

Ⅴ. 위 ① · ② · ③(곧, 설문대할망 전설들 중 '다리 놓기' 제하의 전설)에는 당해 전설 향유 민중의 꿈과 좌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다리 놓기'는 꿈이고, '다리 놓기 중단'은 좌절(곧, 비극)이니까. 이는 당해 전설은 '꿈 있는 비극', 즉 '전형적(곧, 이상적)인 전설'이라는 말이다. 물론 당해 전설이 전형적인 전설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여타 설문대할망 전설들의 근간(곧, '일차적인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한편, 설문대할망 전설들 중 '다리 놓기' 제하의 전설을 제외한 여타 전설들은 꿈과 좌절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즉, 어떤 것은 꿈과 좌절이 어렴풋이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꿈과 좌절 중 어느 일방만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꿈과 좌절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는 그것들은 설문대할망 전설의 지엽(곧, 일차적인 것에서 파생된 이차적인 것)이라는 말일 것이다. 물론 이차적인 것은 일차적인 것에 반해서는 안 된다. 설화는 본질을 간직한 채 변모하는 것이지 본질을 달리해 가며 둔갑하는 것이 아니니까.

Ⅵ. 설화는 문학(곧, 구비문학)이고, 그리고 문학은 본문을 전제로 한 학문이다. 이는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를 판별해 주는 것은 오직 본문뿐이라는 말이다. 마치 <진달래꽃>(김소월)이 시詩임을 말해 주는 것이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으로 시작하는 본문뿐이듯이.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가 아니라 전설인 셈이다. 전설임을 입증해 주는 본문(예: 설문대할망 다리 놓기 제하의 전설, 설문대할망 물장오리 익사 제하의 전설)만 있고 신화임을 입증해 주는 본문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설문대할망 전설을 신화라 주

장하는 자들은 말한다. 애초에 신화였던 설문대할망 설화가 망실되었다가 훗날 전설로 되살아났다고. 어불성설이다. 신화가 전설화했다는 말은 본질이 달라졌다는 말이니까. 즉, 증거물도 미적 범주도 달라졌다는 말이니까. 물론 본질이 다른(또는 달라진) 두 설화는 동일 설화일 수 없다. 부언하면,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해서도 본풀이(≒신화)가 아니다. 굿에 쓰이지 않는 것이니까. 또, 한국설화이론에 의해서도 신화(≒본풀이)가 아니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고 미적 범주가 비장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Ⅶ. 이상에서, 1843년경부터 1954년까지의 백여 년 간 제주에 구전된 설문대할망 관련 문헌설화(곧, 다리 놓기 제하의 본문)를 살펴보았다. 생각건대, 이 본문은 작금의 설문대할망 설화 본문들의 뿌리(곧, 근간)일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 본문을 제외한 여타 설문대할망 설화 본문들은 다 이 본문에서 돋아난 지엽들이라는 말이다. / 각설하고,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를 전후하여 제주 여항간에서 구전된 설문대할망 전설 본문들(곧, 제주민중 공동작들)을 살펴보려 한다. 그런 연후에, 설문대할망 설화를 신화라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거론되는 것들, 즉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해 놓은 몇몇 위작(곧, 개인작)과 아울러 그 위작들을 위한 몇몇 논리도 마저 살펴보려 한다. 참, 늘 명심해야 할 점은 설화란 민중 공동체에 의한 공동작이지 개인에 의한 개인작(예: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소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❶ 옛날 한 할망(할머니)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설명대할망**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몸(곧, 키)이 커서 빨래를 할 때면 관탈섬**과 **성산**을 딛고 **한라산**을 깔고 앉아 **소섬(또는 두럭산)**을 팡돌(빨랫돌) 삼아 빨래를 했다.

❷ **선문대할망**은 **늘 헐벗고 굶주린 탓**에 배불리 먹는 것과 명주 속옷 한 번 입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❸ 한라산에는 **오름**이 수없이 많다. 그것들은 **쒜명듸할망**이 **치마로 흙을 나를 때 흙이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조금씩 흘러내려서 된 것**이다.

❹ **설문대할망**은 하루는 **명주 백 통(1통= 50필)**으로 속곳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마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속곳 만들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도 다리 놓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문下門 부분에 댈 명주 한 필', 즉 '**처지 한 조각**'(곧, 속곳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대는 마름모꼴 천 조각)을 구하지 못해 속곳 만들기를 중단했다. 이에, 그녀도 다리 놓기를 중단했다. **신촌과 조천 해변의 빌레 · 코지 · 여등**은 바로 그녀가 다리를 놓던 흔적이다.

❺ 곽지라는 마을에 솥발같이 정립해 있는 **바위 셋**이 있다. 이는 **세명주할망**이 **솥을 걸어 놓고 밥을 해먹던 솥덕(화덕)**이다.

❻ **소섬**은 본디 **성산이라는 마을**과 접해 있었다. 그런데 소섬은 **설명두할망**이 **식산봉**과 **일출봉(곧, 성산)**을 딛고 앉아 눈 오줌에 땅이 패어 그만 성산 마을에서 떨어져나가 섬이 되고 말았다.

❼ 한라산 기슭에 화구호 **물장오리**가 있다. **세명뒤할망**은 **그 수심을 알아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섰다가 그만 빠져죽고 말았다**.

❽ 성산(곧, 일출봉)의 기암奇巖들 중에는 높이 솟은 바위에 큰 바위가 얹혀 있는 형국을 한 기암 일습一襲이 있다. 이는 **설명지할망**이 **길쌈(또는 바느질)을 할 때** 관솔불을 올려놓던 등잔용 바위들인데, 등잔용으로 썼다 하여 **등경돌[燈檠石]**이라 한다. 일설에 의하면, 처음에는 높이 솟은 바위 하나만 있었는데 불을 켜 보니 높이가 좀 낮아 바위를 하나 더 얹어놓았다 한다.

위 ❶ ~ ❽은 『濟州島傳說』(현용준, 서문당, 1976년)에 수록된 설문대할망 관련 전설 총 19편 중 의미 있는 것들(곧, 이면에 정신 · 민중사 · 생활상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 간추린 것이다. 물론 위 19편은 1960년대를 전후한 제주에서 구전된 것들(곧, 제주민중 공동작들)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위 『제주도 전설』은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얼추 1959년 무렵부터 1975년 무렵까지 매년 여름 · 겨울 방학을 틈타 제주 전역에 걸쳐 채록한 전설들을 수록해 놓은 전설집이다. 생각건대, 당시 제주에서 구전된 전설은 아마도 거의 다 이때의 채록에 망라되었을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제주도 전설은 거의 다 위 책에 수록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또는 세명뒤할망) 전설도 당시에는 예의 그 19편이 전부였던 셈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질적인(곧, 본질을 달리하는) 설문대할망 관련 설화 본문들이 난데없이 불거져 나와 난무하고 있다. 그것도 신화란 이름하에 말이다. 아니, 설문대할망 전설이 신화라니! 어불성설이다.

[화소話素 관련 설명]

**설명대할망**은 '설雪(곧, 설만두고雪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설문대할망 · 선문대할망 등과 동종同種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❶)은 오늘날은 '설명대할망 팡돌(또는 빨래하기)'이라는 제하題下에 구전되고 있다.

**몸(곧, 키)이 커서 빨래를 할 때면**에서의 키와 관련하여 전술한 문헌설화는 말한다. 설명대할망은 키가 '하늘과 거의 가지런했다(또는 '하늘에 닿을 듯했다')'라고. 한편, 일설은 말한다. 설명대할망은 키가 '한라산만 했다'라고. 물론 이 양자는 동일한 의미의 말이다. 제주민중 설화의식의 발로인 <산방산과 용ᄆᆞ루>에 의하면, 한라산은 하늘의 옥황상제가 깜짝 놀라 휘두른 손바닥에 맞아 봉우리가 떨어져 나간 산, 또는 옥황상제가 불의에 엉덩이를 찔리곤 한 산이니까.

**관탈섬 · 성산 · 한라산 · 소섬(또는 두럭산)**은 물론이고 설명대할망 전설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들은 탐라 여인들 상징인 설명대할망의 생활영역 표시이다. 이는 지난날 탐라 여인들이 이 영역들 안에서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삶을 영위했다는 말이다. 참, 성산은 지난날은 청산靑山이라 불렸다 하고, 그리고 두럭산은 실은 산도 오름도 아니라 김녕리 해변의 커다란 암석인데 오늘날은 종적이 묘연해졌다 한다. 한편, 관탈섬 · 성산 · 한라산 · 소섬(또는 두럭산)은 위 ❶의 증거물들이다. 물론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들이니 전설 증거물들이다. 고로, 위 ❶은 전설이다. 즉, 신화가 아니다. / 각설하고, 전설이란 민중의 꿈과 좌절의 기록인데 위 ❶에는 향유자(곧, 민중)의 꿈과 좌절이 없다. 이는 위 ❶은 '이차적인 것'(곧, '일차적인 것에서 파생된 것') 또는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된 것'이라는 말이다.

**선문대할망**은 '설雪(곧, 설만두고雪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설문대할망 · 설명지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❷)은 여타 선문대할망 설화들과는 달리 부제副題가 없다. 이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이다.

**늘 헐벗고 굶주린 탓**은 선문대할망이 신神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신의 속성은 자급자족인데 자신의 의식衣食조차 해결

못한다는 표현이니까. 여하튼, 선문대할망(곧, 탐라 여인들 상징)은 늘 헐벗고 굶주렸다. / 각설하고, 위 ❷에는 증거물이 없다. 이는 위 ❷는 전설도 신화도 아니라는 말이다. 전설과 신화는 필히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사실, 설화는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지려면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설화는 증거물을 먹고 사는 것이니까. 이는 증거물 없는 설화는 소멸해 버리고 만다는(곧,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위 ❷는 '이차적인 것' 또는 '왜곡된 것'인 셈이다. 부언하면, 위 ❷에는 다행히도 전설 속성인 꿈('배불리 먹음'과 '명주 속옷 한 번 입어 봄')과 좌절('늘 헐벗고 굶주림')이 있다. 이는 위 ❷로 하여금 전설 흉내를 내게끔 해 주는 것이다.

**쒜명듸할망**은 '사沙(곧, 사만두고沙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세명뒤할망 · 세명주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❸)은 오늘날은 '쒜명듸할망 오름 형성'이라는 제하에 구전되고 있다.

**오름**은 쒜명듸할망(곧, 탐라 여인들 상징)이 지난날 화전도 일구고 땔감도 구하고 우마도 기르던 곳이다. 제주 민중사에 의하면 지난날 탐라인들은 개간 불가능한 산[곧, 한라산 · 산방산 · 성산(곧, 청산) · 영주산 · 두럭산]과 산소山所는 산이라 불렀고, 그리고 개간 가능한 산(곧, 위 다섯 산과 산소를 제외한 여타 산)은 오름이라 불렀다 하니까. / 한편, 오름은 위 ❸의 증거물이다. 그리고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전설 증거물이다. 고로, 당해 본문(곧, 위 ❸)은 전설이다. 즉, 신화가 아니다. 내친김에 말하면, 오름은 하나가 아니라 삼백 수십여 개나 된다. 하지만 그래도 한라산 일대의 오름이라는 한정성(곧, 특정성) 때문에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참, '모든 산'은 포괄적인 것으로 신화(또는 민담)의 증거물이다. 그러고 보면, 증거물이야말로 전설과 신화(또는 민담)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금석인 셈이다. 내처 말하면, 오늘날 혹자들은 한라산을 오름 취급하면서 쒜명듸할망이 한라산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왜곡이다. 탐라 민중사에 의하면 한라산은 오름이 아니니까. / 각설하고, 위 ❸에는 설화 향유 공동체(곧, 민중)의 생존을 위한 억척스러움과 서러움은 있는데 정작 전형적인 전설에 있어야 할 꿈과

좌절은 없다. 이는 위 ❸이 이차적인 것, 즉 파생되었거나 왜곡된 것이라는 말이다.

**치마로 흙을 나를 때 흙이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조금씩 흘러내려서 된 것**은 제주 여인들이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흘린 흙이 오름을 이룰 정도로 몹시 헌 옷을 입고 오름에 들어 화전을 일구던 모습을 과장법을 빌려 묘사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위 ❸은 '오름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제주 여인들의 헐벗음과 굶주림'에 관한 것(곧, 위 ❷와 관련된 것)인 셈이다. 그런데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그 과장법적 표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쒜명듸할망이 오름들은 물론이고 한라산과 제주도도 만들었다고 우격다짐한다. 하지만 이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수사법修辭法을 표현 기법으로 삼는 설화를 문학으로 보지 않고 역사쯤으로 보는 처사이니까.

**설문대할망**은 '설雪(곧, 설만두고雪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선문대할망 · 설명지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❹)은 오늘날은 '설문대할망 다리 놓기'라는 제하에 구전되고 있다.

**명주 백 통(1통= 50필)**에서의 백은 <오백장군과 고종달> · <아흔아홉골; 백골> 등에서의 백처럼 '완전함 · 주권 · 임금 등'을 상징하는 숫자이다(이는 전술한 <오백장군과 고종달> 참조).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마고 사람들에게 말했**다에서의 '육지'는 지난날 탐라후예(곧, 1211년 이후의 제주인)[24]가 한반도 · 몽골 · 중국 등지를 지칭한 용어이다. 한편, 여기서의 '다리'는 외세(곧, 한반도 조정)의 탐라국에 대한 종주국 지위를, 그리고 '사람들'은 설문대할망(곧, 토박이 탐라 여인들 상징) 상대역인 외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처지 한 조각**. 탐라 민중사는 말한다. 성주星主가 한반도 조정이 파견한 지방관에게 밀리면서부터 탐라민중은 외세(곧, 한반도 조정)의 무단통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외세의 갖은 핍박에 시달리느라 하릴없이 좌절감만 감내해야 했고, 그리고 이어도 꿈 외에는 꿀 수 있는 꿈이 없게 되었다고. 그러고 보면, 처지 한 조각의 이면에는 탐라후

24) 1211년경 '탐라'가 '제주'로 개칭되었으니 주민 호칭은 그 이전을 '탐라인'으로, 그 이후를 '제주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인 설문대할망 아들이 탐라국왕 후신인 성주(곧, 종속국 제후)로 복위復位되어야 한다는 탐라민중 꿈이 들어 있는 셈이다. 이는 위 처지 한 조각은 설문대할망 아들의 상징이라는 말이다. 처지는 '속곳 사타구니 부분에 붙이는 마름모꼴 형태의 천 조각'이니까.

**신촌과 조천 해변의 빌레 · 코지 · 여 등**은 위 ❹의 증거물이다. 그리고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전설 증거물이다. 이는 위 ❹는 전설이라는 말이다. / 각설하고, 위 ❹에는 설문대할망(곧, 탐라 토박이 민중)의 꿈(곧, 속곳 만들기)과 좌절(곧, 속곳 만들기 중단)은 물론이고 외세(곧, 설문대할망 상대역)의 꿈(곧, 다리 놓기)과 좌절(곧, 다리 놓기 중단)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위 ❹는 '꿈 있는 비극', 즉 전형적인 전설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위 ❹는 설문대할망 전설 본문들의 근간根幹(곧, 일차적인 것)인 셈이다. 이는 여타 설문대할망 전설 본문들은 다 이 근간에서 돋아난 지엽들이라는 말이다.

**세명주할망**은 '사沙(곧, 사만두고沙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세명뒤할망 · 쒜명듸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❺)은 오늘날은 '세명주할망 솥덕(화덕)'이라는 제하에 구전되고 있다.

**바위 셋**은 위 ❺의 증거물이다. 그리고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전설 증거물이다. 고로, 위 ❺는 전설이다. 물론 전설이란 증거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증거물이 전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설이 증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증거물이 앞서가고 전설이 뒤따른다는 말이고, 그리고 증거물이 사라지면 전설도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위 ❺는 당해 '바위 셋'의 필요에 부응한 것인 셈이다. / 각설하고, 위 ❺에는 향유자(곧, 민중)의 꿈과 좌절이 없다. 이는 위 ❺는 일차적인 것에서 파생된 이차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솥을 걸어 놓고 밥을 해먹던 솥덕(화덕)**에서의 솥은 청동기시대(또는 철기시대) 이후의 산물이다. 이는 세명주할망 설화가 청동기시대 이후(곧, 부계사회) 소산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세명주할망 설화를 두고 모계사회 소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설명두할망**은 '설雪(곧, 설만두고雪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설문

대할망 · 선문대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❻)은 오늘날은 '설명두할망 소섬 분리'라는 제하에 구전되고 있다.

**소섬 · 성산이라는 마을 · 식산봉 · 일출봉(곧, 성산)**은 위 ❻의 증거물이다. 그리고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전설 증거물이다. 고로, 위 ❻은 전설이다. 한편, 위 ❻의 미적 범주는 전설의 미적 범주인 비장미에 해당된다. 소섬이 설명두할망 오줌발로 인해 성산 마을에서 분리된 것은 경작지 부족에 시달리는 성산 주민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일(곧, 경작지 망실)이니까. 이 또한 위 ❻이 전설이라는 말이다. / 각설하고, 위 ❻에는 좌절(곧, 소섬 분리)은 있지만 꿈이 없다. 아니, 실은 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소섬 분리(곧, 좌절) 이면에 꿈(곧, 경작지에 대한 염원)이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렴풋이(곧, 묵시적으로)나마 들어 있으니까. 여하튼, 위 ❻은 꿈이 명시적이지 않으니 일차적인 것에서 파생된 이차적인 것이다.

**설명두할망이 식산봉과 일출봉(곧, 성산)을 딛고 앉아 눈 오줌에 땅이 패어 그만 섬이 되고 말았다**에서의 설명두할망 배뇨排尿 운운을 들어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당해 본문(곧, 위 ❻)을 본래 신화였던 설명두할망 설화가 민담화民譚化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명두할망 배뇨 운운은 민담의 미적 범주에 해당하는 골계미(곧, 희극미)를 불러일으키는 것(곧,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스갯소리' 또는 '비속화卑俗化한 이야기')이라 우격다짐해 가며 말이다. 아니, 생존을 위한 배뇨가 웃기거나 비속화한 이야기라니! 정말이지 유치하기 그지없는 단견이며 인생에 대한 안목 없는 편견이다. 취식 · 배변배뇨 · 성교性交 등은 신화시대에는 쾌락의 시대인 오늘날과는 달리 인간 삶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곧, 성스러운 자연에서 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성스러운 인간 행위)로 여겨졌을 테니까. 생각건대, 위 ❻을 두고 민담 운운한 것은 첫째로는 한국설화이론에 대한 무지 또는 단견을 드러낸 것이다. 당해 본문의 증거물 소섬은 민담 증거물인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전설 증거물인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당해 본문의 전승범위(곧, 분포)는 민담 분포인 세계가 아니라 전설 분포인 일정 지역(곧, 제주도)이니까. 게다가, 설화란 본질을 달리해 가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모하는 것인데 미적 범주가 비장미(또는 숭고미)에서 골계미로 달라졌다는 것은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이니까. 둘째로는 성산 마을 공동체의 생활 여건에 대한 무지 또는 단견을 드러낸 것이다. 성산 마을 공동체는 당시는 생활 여건이 더할 나위 없이 각박한 나머지 골계미 향유 따위는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으니까. 사실, 성산 마을의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지형이 바다로 돌출된 곶串이라 농지農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 제주에서는 반농반어半農半漁가 아니면 삶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산 주민들은 곶 저편, 즉 고성(곧, 동남)까지 억척스럽게 드나들며 농사(곧, 소작小作)를 지었다. 내친김에 말하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산 좀수(해녀)들은 물질하러 바다로 향하다가 소섬(곧, 성산과는 달리 농지가 빈약하지도 않고 주민이 많지도 않은 섬)이 눈에 띄면 간혹 누군가가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늘어놓곤 했다. "저 섬이 이디 딱 붙엉 잇이민 ……, 후유!" 그러면, 때로는 농담 아닌 농담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물질ᄒᆞ멍 오좀덜 좍좍 ᄀᆞᆯ겨 부는디 어떵 그냥 붙엉 잇어지크라." 물론 이 넋두리와 농담에는 짙은 비애감, 즉 '염원과 한恨'(곧, '꿈과 좌절')이 어려 있다. 이는 당해 본문(곧, 위 ❻)은 골계미(곧, 희극미)가 아니라 비장미(곧, 비극미)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다. 참, 위 넋두리와 농담은 1960년대에 필자가 외할머니(성산 마을 상上좀수) 댁에서 방학을 보내던 중 얻어들은 것이다. 여하튼,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위 ❻을 두고 '신화의 비속화에 따른 민담'이라 한다. 뭐, 신화가 비속화했다고? 돌이켜보면, 신화는 선사시대(곧, 신화시대)의 역사이자 당해 종족(곧, 씨족 · 부족 · 민족 등)의 주체성 · 정체성 · 자긍심 등의 발로이다. 따라서 신화의 비속화는 종주국이 종속국을 멸시하려는 의도(또는, 전장에서 적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 아래서나 있을 법한 만행이며 작태이다. 그러고 보면, 설명두할망 배뇨 행위를 두고 외세들이 비속화 운운하는 것은 탐라후예를 무지몽매한(곧, 신화의 비속화란 말의 함의조차 모르는) 섬 오랑캐라 욕하는 것과 진배없는 가증스러운 짓이고, 탐라 토박이들이 그러는 것은 누워 침 뱉기인 동시에 선조들을 희롱해대는 패륜 행위인 셈이다. / 각설하고, 한 인사가 "설명

두할망 설화는 애초(곧, 모계사회 시절)에는 신화였었는데 장기간 망실되었다가 파편화되어 소생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설과 민담 형태로 구전되고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가설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 가설은 실은 일본에 거인 관련 신화들이 있으니 제주 거인설화인 설문대할망 전설도 예전에는 신화였을 것이라는 일제 치하의 종속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일본설화는 오리지널이고 한국설화는 이미테이션(곧, 설문대할망 전설은 탐라후예들 삶의 소산이 아니라 일본신화의 모조품)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어쨌든, 바로 이 가설이 설문대할망 신화(또는 민담) 운운한 첫 사례이다. 물론 가설이란 어설픈 검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야 정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럼, 그 가설은 검증다운 검증을 거쳤을까? 아니, 그 인사는 그 가설의 정설화를 위해 검증을 한답시고 제대로 된 논거는 제시하지 않고, 아니 못하고 다만 논리비약 · 억측 · 궤변 따위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학들, 즉 '설문대할망 전설을 신화(또는 민담) 취급하는 한국구비문학계 일각'[25]은 추가적인(곧, 보완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그 섣부른(곧, 흠결 있는) 가설을 그대로 수용하여 버젓이 기정사실화(곧, 정설화)했다. 나아가서, 그 가설을 금과옥조인 양 떠받들면서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또는 민담화)를 위한 자신들 논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제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예의 그 가설의 정설화를 위해 타국설화가 아니라 한국설화(곧, 설명두할망 전설 본문들)의 분석을 통해 '설문대할망 설화가 본디 신화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본문', '그 본문이 망실된 까닭과 시기', '그 망실 본문이 파편화되어 전설(또는 민담)로 소생한 까닭과 시기', '소섬 분리에 관한 본문이 민담이라는 명확한 근거(곧, 한국설화이론에 의거한 것)'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위 가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곧, 정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니,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다. 설명두할망은 억척스럽고 서럽게 삶을 영위한 당대 탐라 여인들의 상징이니까. 즉, 설명두할망 설화는 모라乇羅 몰락(1105년) 이후 종주국으로 명실 공히 군림한 외세(곧, 한반도)의 무단통치(곧, 가혹한 핍박)와 그

25) 이를 이하에서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라 한다.

에 대한 망국민 제주민중의 처절한 저항이라는 역사적 상황의 와중에 움터 성장한 전설이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에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저의 3가지가 들어 있다. 하나는 설문대할망 전설을 오늘날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모계사회 신화로 만듦으로써 한민족도 일본 민족처럼 유서 깊은 민족이라고 떠벌리려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저의이고, 하나는 동아시아는 고래로부터 동일문화권에 속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등을 조장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저의이고, 하나는 종주국 고려 · 조선 치하의 무단통치로 말미암은 종속국(곧, 속지) 제주의 참담한 수난사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저의이다.

**세명뒤할망**은 '사沙(곧, 사만두고沙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세명주할망 · 쒜명듸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❼)은 오늘날은 '세명뒤할망 물장오리 익사溺死'라는 제하에 구전되고 있다.

**물장오리**는 장長오五리里물, 장우리물('우'는 '오'의 와전), 물장오리물, '창(곧, 밑창) 터진 물'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물장오리 뜻은 '물장[水長: 수심水深] 五 里(5리는 약 1965m임)'이고, 물장오리 함의는 '물장오리 수심(곧, 탐라가 처한 역경)이 한라산 높이(약 1950m)만큼 큰 세명뒤할망(곧, 탐라 여인들 상징)을 익사시킬 정도로 깊다'이다. 여하튼, 물장오리는 위 ❼의 증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니 전설 증거물이다. 한편, 위 ❼은 전설의 미적 범주인 비장미를 불러일으킨다. 물장오리 익사는 비극(곧, 좌절)이니까. 죽음은 좌절 중의 좌절이다. 그러고 보면, 위 ❼은 영락없는, 즉 명명백백한 전설인 셈이다. / 각설하고, 위 ❼에는 꿈(곧, 물장오리 수심을 알아보는 것)과 좌절(곧, 익사)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는 위 ❼은 위 ❹처럼 일차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❹가 먼저 생겨났고, 이어서 ❼이 생겨났을 것이다. 주인공 죽음은 통상 이야기 대미이니까.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 설화는 ❹ 형태로 움터 '❹ + ❼' 형태를 거친 연후에 여타(곧, ❹ · ❼ 이외의 것들)가 두서없이 첨가된 형태로 자라나 오늘에 이른 것일 것이다.

**그 수심을 알아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섰다가 그만 빠져죽고 말았**

**다**에서의 '그 수심을 알아보려고'는 '(탐라 여인들이) 지배층 핍박에 기인한 삶의 한계상황을 해결하려고'라는 뜻이고, '그 안으로 들어섰다가'는 '결연히 맞서 싸우다가'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만 빠져죽고 말았다'는 '끝내는 비장한 좌절을 맞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세명뒤할망이 자신의 키만 한 한라산(곧, 삶의 극한상황의 한계점 이하)은 감당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키보다 큰(곧, 깊은) 물장오리(곧, 삶의 극한상황의 한계점 이상)는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한라산은 '(지배층 핍박에 기인한) 탐라민중 삶의 극한상황의 한계점 이하'를, 그리고 물장오리는 '그 극한상황의 한계점 이상'을 상징한 것인 셈이다. / 각설하고, 혹자는 말한다. "일본설화에 거인 발에 밟혀 생긴 호수가 있는 것을 보면, 물장오리는 본디는 설문대할망이 익사한 호수가 아니라 설문대할망 발에 밟혀 생긴 호수일 것이다"라고. 아니, 제주설화를 일본설화 모조품 취급을 하다니! 어불성설이자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발언이 나왔을까? 제주설화(곧, 한국설화)와 일본설화를 일체화하려는(또는 제주설화를 일본설화에다 종속시키려는) 저의에서? 아니면, 설문대할망 신격화 과정에서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할 신이 물장오리 익사로 생을 마감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저의에서? 여하튼, 이 발언은 거짓(곧,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이 또 다른 거짓(곧, '물장오리는 설문대할망이 익사한 호수가 아니라 그녀 발자국이다')을 부른 사례이다.

**설명지할망**은 '설雪(곧, 설만두고雪曼頭姑) 계열'에 속한 것으로 설문대할망 · 선문대할망 등과 동종의 명칭이다(이는 곧 재론함). 한편, 당해 화소가 들어 있는 당해 본문(곧, 위 ❸)은 오늘날은 '설명지할망 등경돌[燈檠石]'이라는 제하에 구전되고 있다.

**등경돌[燈檠石]**은 위 ❸의 증거물이다. 물론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전설 증거물이다. 이는 위 ❸은 전설이라는 말이다. / 각설하고, 위 ❸에는 꿈과 좌절이 없다. 이는 위 ❸이 일차적인 것(곧, 위 ❹)에서 파생된 이차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길쌈(또는 바느질)을 할 때**. 혹자는 주장한다. 여기(곧, 위 ❸)에서의 바느질은 '여신의 바느질 관련 타국他國 신화'(줄거리: 여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땅이 하늘보다 더 커서 여신이 하늘과 땅의 크기를 맞추

려고 땅을 주름을 잡아가며 바느질하는 바람에 산과 계곡이 생겨났다)에서의 바느질 흔적일 것이라고. 고로, 설문대할망 설화는 본디는 신화였을 것이라고. 어불성설이다. 위 타국 신화와 위 ❽은 별개이니까. 즉, 발생목적이 위 타국 신화는 '이 세상의 모든 산과 계곡'(이는 포괄적인 것으로 신화 증거물임)의 생성 유래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위 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일출봉의 등경돌'(이는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으로 전설 증거물임) 모습을 설명한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설문대할망 바느질을 위 여신 바느질과 연관 짓는 것, 즉 증거물이 판이한 전설과 신화(곧, 본질이 다른 두 설화)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학이 말하는 이른바 '조급한 개괄의 오류'[26]를 범한 것인 셈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바느질이라는 외면적인 유사점에 의거하여, 아울러 논리비약 · 억측 · 궤변 등에 의거하여 성급히 개괄한 것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설화는 민중 삶의 소산이다. 이는 제주설화의 분석(또는 해석)은 제주민중 삶에 의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국 민중 삶의 소산인 자국 설화를 타국 민중 삶의 소산인 타국 설화에 의거하여 재단하는 것은 섣부른 처사이다. 아니, 왜 의식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가? 걸핏하면 일본을 앞세우던 일제 치하의 식민지 의식에서 21세기인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다니 언어도단이다. 내처 말하면, 타국 설화의 본문이나 이론 따위는 자국 설화의 분석이나 해석 따위를 위한 참고자료일 수는 있으나 필수자료일 수는 없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위 ❶ ~ ❽은 옛말(≒전설)이다. 굿에도 본풀이로도 쓰이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Ⅱ.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위 ❶ ~ ❽은 전설이다. 증거물들도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뿐이고, 미적 범주들도 비장미(곧, 비극미悲劇

26) 『論理學槪論』, 강영계 · 송병옥 공저, 박영사, 1986년, 149쪽 / 조급한 개괄의 오류(fallacy of the hasty generalization): 충분하지도 정밀하지도 못한 관찰이나 실험을 가지고 어떤 총괄적인 단정을 내린다거나 혹은 외면적인 유사점에 의거하여 성급히 개괄하는 오류.

美)에 해당되는 것뿐이니까.

Ⅲ. 한국전설이론에 의하면, 위 ❶ ~ ❽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이다. 일정지역(곧, 제주도)에서만 구전되니까. 한편, 발생 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이다. 위 ❷를 제외하고는 다 증거물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역사적 전설이기도 하다. 외세(또는 관) 핍박과 민중 저항의 소산이니까. 물론 외세(곧, 관) 핍박과 민중 저항은 지난날 탐라 민중사의 주요 소재이다.

Ⅳ. 위 ❶ ~ ❽ 중 ❹(곧, '설문대할망 다리 놓기' 본문)는 설문대할망 설화의 근간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애초에는 위 ❹뿐이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여타(곧, 위 ❶ · ❷ · ❸ · ❺ · ❻ · ❼ · ❽)는 ❹라는 근간에서 생겨난 지엽들인 셈이다. / 한편, 위 ❹에서의 비장미와 장두정신(곧, 저항 · 도전 · 개척 · 희생 따위의 정신)이 위 ❼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즉, 한층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어 있다.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곧, 지배층 핍박으로 인한 삶의 한계상황 너머)로 뛰어들어 장렬히 익사했다 하니까. 이는 설화란 '성장하는 것'(곧,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것)이라는 논리의 한 사례일 것이다. / 각설하고, 장두정신은 설문대할망 설화의 이면 정신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해 설화의 오늘날의 존재 의의이다. 부언하면, '장두정신'은 김봉옥이 1960년대 무렵에 자기 제자들(예: 제주제일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이면 간혹 피력해댄 것이다.

Ⅴ. 위 ❹에서의 '다리 놓기 / 속곳 만들기'와 위 ❼에서의 '물장오리 수심 측정'에는 꿈이, 위 ❹에서의 '다리 놓기 중단 / 속곳 만들기 중단'과 위 ❼에서의 '물장오리 익사'에는 좌절이 투영되어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전설은 전설의 전형이며 이상인 '꿈 있는 비극'이라는 말이다. 물론 여기서의 비극은 말초적 의미의 비극이 아니라 비장미를 불러일으키는 미학적 의미의 비극이다. 설문대할망이 애증후박 때문에가 아니라 생사 관련 극한상황 때문에 좌절하니까.

Ⅵ. 위 ❶ ~ ❽에 대한 일련의 해석: 구전口傳에 의하면, 모라毛羅(곧, 삼을나 나라인 탐라)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던(예: 부자가 넘침 없고 빈자가 모자람 없는) 공동체였다. 그런데 乇羅(←毛羅←毛羅)가 망하자 탐라는 외세의 무단통치하에 놓였고 탐라후예들은 외세 핍박에 시

달렸다. 이에, 탐라 여자들은 𠀋羅를 그리며 분연히 일어나 외세에 맞섰다. 아울러, 그들은 갈수록 움츠러드는 망국亡國 남자들(곧, 패배감 · 좌절감 · 무력감 등속으로 빠져드는 탐라 남자들)을 일으켜 세워 저항일선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의협심 강한 남자를 장두로 삼았다. 하지만 번번이 저항은 실패했고, 장두는 참수되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남자들은 뒷전으로 물러서게 되었고, 여자들은 앞장서게 되었다. 사실, 탐라 여자들은 억척스럽고 거칠었다. 음성도 컸다. 하기야, 바람 거센 빌레왈 · 바다 등지에서 뒹구노라면 억척스러워지고 거칠어지고 음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설움의 무게를 이겨내려고 바락바락 악쓰며 살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한 떼의 여자가 외세에 저항하느라 바람 거센 빌레왈을 박차며 아우성치는 모습, 그것은 외세의 눈에 간간이 띄는 탐라의 한 풍경이었다. 따라서 외세에게는 탐라 여자들이 마치 바람이나 돌 따위처럼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환언하면, 탐라야말로 여자 · 바람 · 돌 등의 나라로 여겨졌다(이것이 이른바 삼다三多의 실상이다). / 각설하고, 탐라 여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물질 · 농사일 · 집안일 등을 했다. 예컨대, 그들은 화전을 일구려고 오름에 올라 터진 치마로 토석을 날랐다[←위 ❸의 해석]. 또, 그들은 한가로이 앉아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할 겨를이 없었다. 빨래는 발탕발탕 해치워야 했다. 따라서 빨랫방망이질도 으레 거칠어져서 물이 사방팔방으로 마구 튀었다. 과장해 말하면, 빨래 한 번에 한라산이 다 젖을 정도였다. 관탈섬과 성산(곧, 일출봉)을 딛고 한라산을 깔고 앉아 소섬(또는 두럭산)을 빨랫돌 삼아 빨래를 한 것처럼[←위 ❶의 해석]. 하기야, 그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 울화가 조금은 가시렷다. 그런데 그런 고된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지배층(곧, 관)의 수탈로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늘 모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는 것'과 '명주 속곳 한 번 입어 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여 마지않았다[←위 ❷의 해석]. 하지만 특히 후자는, 터진 구멍으로 흘린 흙이 오름을 이룰 정도로 헌 옷을 입고 사는 처지이고 보면[←위 ❸의 해석], 육지까지 다리를 놓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도, 그들은 그 소망(곧,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외세(곧,

지배층)에게 제안했다. 명주 백 통으로 속곳을 만들어 주면 육지(곧, 한반도)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그리하여, 외세는 속곳 만들기를, 그리고 그들은 다리 놓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외세는 '처지 한 조각'을 구하지 못해 속곳 만들기를 중단했다. 이에, 그들도 다리 놓기를 중단했다. 그런데 실은 '명주 백 통'에서의 '백'과 '처지 한 조각'은 각각 '완전함 · 주권 · 임금 등'과 '설문대할망의 아들'을 뜻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제안(곧 요구사항)은 자신들의 속곳으로 감싸 키운 사람을 탐라국왕 후신인 성주星主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 셈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요구사항의 수락 없이는 비록 헐벗고 굶주릴망정 외세와 타협(곧, 외세 식민정책인 무단통치에 순응하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 놓기'(곧, 한반도에 대한 순응), 즉 '외세의 종주국 지위 유지'를 거부한 것이었다[←위 ❹의 해석]. 아무튼, '지난날의 탐라 여자들'은 저항운동에서도 일상사에서도 적극적이고 억척스러웠다. 죽음을 무릅쓰고 물장오리로 뛰어들 정도로 말이다[←위 ❼의 해석]. 참, 그들은 각박한 현실을 각자도생으로는 도무지 헤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좁쌀 한줌도 나누어 먹었다. 즉, 취사炊事(곧, 화덕) · 길쌈(또는 바느질) · 농경 · 바릇잡이(해산물 채취) 등도 공동으로 했다[←위 ❺ · ❽ · ❻의 해석].

Ⅶ. 세명뒤할망(설문대할망)과 그 이칭異稱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두 부류, 즉 '사만두고沙曼頭姑 계열'(곧, 사沙 계열)과 '설만두고雪曼頭姑 계열'(곧, 설雪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 |
|---|---|
| 사沙(沙-曼頭姑) 계열 | 세-명뒤(또는 쒜-명듸, 세-명주)할망 |
| 설雪(雪-曼頭姑) 계열 | 설-문대(또는 설-명두, 설-명대, 설-명지)할망 |
| | 선-문대할망 |

위 표 중 沙曼頭姑에서의 첫째 음절 沙는 '꺼칠꺼칠하다, 목소리가 쉬다, 억척스럽다'란 뜻으로 세명뒤할망 · 쒜명듸할망 등에서의 첫째 음절 '세 · 쒜 등'(뜻: 세다, 기질 따위가 강하다)의 차자借字이고, 雪曼頭姑에서의 첫째 음절 雪은 '서럽다(←섧다)'란 뜻으로 설문대할망 등에서의 첫째 음절 '설'[곧, '섧다'의 관형사형 '설운(〈 설ᄇᆞᆫ 〈 설븐)'에서의 '설']의 차자이다. 부언하면, 선문대할망에서의 첫째 음절 '선'은

위 '설'의 자음동화 결과이다. / 한편, 沙曼頭姑 · 雪曼頭姑에서의 둘째 음절 曼은 '이끌다, 앞장서다'란 뜻으로 세명뒤할망 · 설명두할망 등에서의 둘째 음절 '명命'(명령하다)에 상응하는 것이다. 부언하면, 설문대할망 · 선문대할망에서의 둘째 음절 '문'은 '섧다'의 관형사형 '설운'에서의 '운'(ᄉᆞᆯᄫᆞᆫᄉᆞᆫ) 대신 쓰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 등에서의 '설문'은 '설븐'의 자음동화 결과인 셈이다. / 한편, 沙曼頭姑 · 雪曼頭姑에서의 셋째 음절 頭는 장두狀頭란 뜻으로 세명뒤할망 · 쒜명듸할망 · 설명두할망에서의 '뒤 · 듸 · 두'이다. 부언하면, 세명주할망 · 설명지할망에서의 셋째 음절 '주 · 지'는 위 '뒤 · 듸 · 두'의 구개음화 결과이고, 그리고 설문대할망 등에서의 셋째 음절 '대'는 大(크다, 위대하다)로 위 '두'의 대용이다. / 한편, 沙曼頭姑 · 雪曼頭姑에서의 넷째 음절 姑는 세명뒤할망 · 설문대할망 등에서의 넷째 이하 음절 '할망'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는 여기서의 할망의 뜻은 노파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통칭이라는 말이다. 姑의 뜻이 여자(혼인 여부나 노소 여하 불문)에 대한 통칭이니까.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할망은 여자에 대한 일종의 제유법적提喩法的 표현인 셈이다. 마치 빵이 식량에 대한 제유법적 표현이듯이. / 이상에 의하면, 세명뒤(쒜명듸 · 세명주)할망은 '억척스럽게 명령하는(이끄는) 장두 여자'(沙曼頭姑)라는 뜻이고, 그리고 설명두(설명지)할망은 '서럽게 명령하는(이끄는) 장두 여자(雪曼頭姑)', 설문대(선문대)할망은 설명두할망 이칭으로 '서러운 큰(위대한) 여자'(설만두고), 설명대할망은 '설명두할망+설문대할망'으로 '서럽게 명령하는(이끄는) 큰(위대한) 여자'(설만두고)라는 뜻이다. 이는 세명뒤할망(설문대할망) 등은 모라毛羅 몰락 이후 외세 핍박에 항거하면서 서러운 삶을 억척스럽게 산 제주여인의 상징이라는 말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沙曼頭姑에서의 曼頭가 세명두할망에서의 명두命頭로 뜻이 장두와 상통하니, 초공본풀이 주인공 3형제(곧, 본本맹두 · 신新맹두 · 삼三맹두)에서의 맹두(←명두)도 뜻이 장두와 상통한 것일 것이다. 그들 3형제는 무조신巫祖神이니까.[27] 그러고 보면, 만두 · 명두(맹두) · 장두 등은 지난날 제주

27) 『濟州島神話』, 앞의 책, 36~64쪽

에서는 민란 선봉이란 의미로도 핍박이나 질곡 등에서 해방시켜 줄 영도자(곧, 구원자)란 의미로도 쓰였던 셈이다.

Ⅷ. 참고삼아 말하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도모한 대표적 인사는 진성기 · 장주근 · 송기조 등이다. 진성기는『신화와 전설』에서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한 본격적인, 아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설화 왜곡(곧, 조작 · 날조 등)을 시도했다. 이를테면, 자신이 자의적으로 날조한 설문대하르방을 설문대할망 남편으로, 그리고 설문대할망을 옥황상제 말잣딸(막내딸) 또는 오백장군 어머니로 왜곡해 놓았다. 한편, 장주근은『한국의 신화』(성문각, 1961)에서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주입한 논리(곧, 거인의 국토형성 설화는 신화라는 일본식 신화이론)를 들어 처음으로 '설문대할망 전설은 본디 신화였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기했고, 나아가서 그 가설에 대한 검증으로 '설문대할망은 선마고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한편, 송기조는 자신이 제보한 설문대할망 관련 설화, 즉 소위 '송기조 제보 설화'(곧, 김영돈 · 고재환 등이 1980년 11월 23일 오라동 동카름에서 채록한 '오라동 설화 23')에서 일본신화 화소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설문대할망 전설을 왜곡하기도 함으로써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에 뒤늦게 동참했다. 그런데 진성기(1930년대 생)와 송기조(1900년대 생)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교육에 노출된 인사들이고, 장주근(1930년대 생)은 일본 도쿄대에서 사회학박사학위를 받은 인사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일본식 신화(예: '거인의 지형형성 설화는 신화이다')에 물든 인물일 개연성이 크다. 이는 그들이 설문대할망 전설에서 일본의 '거인에 의한 국토형성 신화'를 연상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제주민중 소산인 제주설화를 한국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두고 일본민중 소산인 일본설화이론이나 일본설화 따위에 의거하여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와 일본은 삶의 여건이 분명 달랐을 테니까. 이를테면, 속지라는 환경에서 장기간을 보낸 제주민중의 삶과 그렇지 않은 일본민중의 삶은 상이점이 있었을 테니까. 부언하면, 그들은 어쩌다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란 오류(곧, 왜곡)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 생각건대,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통해 제주설화와 일본설화를 일원화하려는(또는 제주설화를 일본설화에로

종속시키려는) 그들 저의 때문은 혹여 아닐까? 자주독립을 맞이하고도 일제 치하의 식민지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니 실로 기막힐, 아니 안타까울 노릇이다.

IX. 위 ❶~❽에서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제주 항간에 구전된 설문대할망 전설들(곧, 민중 공동작들)을 살펴보았다. 그럼, 아래 ①~⑦에서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해 내세우는 설화 본문들 · 논거들 중 그들이 확신하며 내세우는 것 몇 개씩을 골라 살펴본다. 물론 그것들에 대한 반론도 가급적 함께 제기한다. 그러니, 그 반론에 대한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반론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신화화를 계속 옹호한다면 말이다. 참, 그들의 그 반론은 한국설화이론(또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반하는 것도 그들이 이미 제시한 것 같은 섣부르고 터무니없는 것도 변죽만 울리는 비본질적인 것도 아니어야 할 것이다.

① <『표해록漂海錄』(장한철)에서의 '선마고'> 訛麻姑或起拜向漢拏而祝曰白鹿岙子活我活我訛麻岙婆活我活我盖耽羅之人諺傳仙翁騎白鹿遊于漢拏之上又傳瀛古之初有訛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故今者所以祈活於訛麻白鹿者無所控訴而然也[혹은 (승선 중인 상인 일부가)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이르기를 "**백록선자**께서는 (저희를) 살려줍서, 살려줍서! **선마선파**께서는 (저희를) 살려줍서, 살려줍서!"라 축원한다. 대저 탐라인의 옛말에 **선옹**이 백록을 타고 한라산 위에서 놀았다 하고, 또 아득한 옛날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옛말(곧, 옛날 옛적 일)이니 이제 선마와 백록에게 살려 달라 아무리 빌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은 당연지사이다.] -『漂海錄』 1771년 정월 초닷새.

[화소話素 관련 설명]

**백록선자**白鹿岙子 · **선옹**仙翁 ; **선마선파**訛麻岙婆 · **선마고**訛麻姑. 백록선자(또는 선옹)에서의 白鹿은 백록담 전설(줄거리: "신선들이 흰 사슴을 타고 백록담 일대를 노닐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한 사냥꾼이 백록담 근처에서 무심코 짐승 하나를 향해 활을 쏘았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화살을 맞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흰 사슴이었다. 이에, 그 사냥꾼은 부복하여 살려 달라며 신선들에게 읍소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에서의 흰 사슴이고, 岙子는 신선이다. 그리고 岙子에서의 岙은 '산에 살면서 산 위를 날아다니다'라는 뜻을 내포한 말이다. 그

러고 보면, 백록선자는 흰 사슴을 타고 한라산 위(곧, 백록담 일대)를 날아다니는 신선인 셈이다. 물론 백록선자 약칭인 선옹에서의 翁은 늙은이란 표현이 아니라 선대 인물로서의 남자에 대한 존칭 표현이다. 신선은 젊은 나이에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후 단약丹藥을 먹고 신의 반열에 오른 자이니까. 한편, 선마선파 또는 선마고에서의 첫째 음절 '선詵'은 '설다'의 관형사형 '선'(예: 선-밥, 선-무당)의 차자借字로 뜻이 '말[言]이 앞서다(先), 말이 많다'(곧, '설익다, 어리다')이고, 둘째 음절 '마麻'는 도교 선녀 마고麻姑에서의 '마'(이는 이름 또는 성씨임)이고, 셋째 음절 선仙(곧, 선파仙婆에서의 仙)은 '산에 살면서 산 위를 날아다니다'란 뜻을 지닌 말이고, 그리고 선마선파 · 선마고에서의 끝 음절 婆와 姑는 마치 열사 유관순 할머니에서의 할머니가 그렇듯이 늙은이란 표현이 아니라 선대 인물로서의 여자에 대한 존칭 표현이다. 물론 선녀도 신선처럼 젊은 나이에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후 단약을 먹고 신의 반열에 오른 자이다. 그러고 보면, 선마선파의 뜻은 '어린 마麻라는 이름(또는 마씨 집안)의 선녀 아가씨'인 셈이고, 선마고의 뜻은 '어린 마(또는 마씨 집안) 아가씨'인 셈이다. 이는 선마선파(곧, 선마고)는 도교 발원지 중국 천태산 선녀 마고라는 말이다. 요는 선마고(곧, 선마선파)와 설문대할망은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주장대로 동일인물이 아니라 그들 주장과는 달리 별개라는 말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 백록선자(약칭: 선옹)는 위 백록담 설화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선마선파(약칭: 선마고)는 제주설화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 까닭은 아마도 선마선파가 백록선자와는 달리 당해 설화 증거물인 백록담에서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전설은 증거물을 먹고산다. 이는 증거물이 사라지면 당해 전설도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말이다. 한국설화이론도 말한다. 증거물이 전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증거물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즉, 증거물이 전설에 선행先行한다고. 여하튼, 선마선파는 왜 백록선자와는 달리 증거물 백록담에서 분리되어 버린 것일까? 그것은 선마선파(곧, 여자)가 백록선자(곧, 남자)와 더불어 한라산 백록담 일대에서 유유자적하는 것이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 유교사회(곧, 조선사회)에서는 수용

될 수 없는 일이어서였을 것이다. / 내처 말하면, 위 백록담 설화는 주인공이 백록선자(곧, 신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화로 분류되지 않고 전설로 분류된다. 마치 옥황상제(곧, 신적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산방산과 용ᄆᆞ루>가 그렇듯이. 이는 증거물 백록담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설화이론은 말한다. 신화 증거물은 포괄적인 것이고, 전설 증거물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라고. / 부언하면, 신적 존재인 백록선자와 선마선파는 신앙(곧, 종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신적 존재 취급을 받지만 본풀이(곧, 문학)에서는 소정의 전제조건하에서만, 즉 본풀이에서 주연 또는 조연으로 등장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신적 존재 취급을 받는다. 그러고 보면, 주연 또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본풀이를 갖고 있지 못한 백록선자와 선마선파는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참, 본풀이에서의 주연 또는 조연만이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제주본풀이의 화법(곧, 철칙)이다.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初有詵麻姑步涉西海而來 한라산에서 놀았다**遊漢拏라는 대목의 전반부(곧, 처음으로 선마고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로 하여금 선마고가 한라산만큼 키 큰 존재(곧, 설문대할망)가 아니라면 제주 서해를 첨벙첨벙 걸어 건너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발상을 하게끔 했다. 하지만 이 발상은 도교 신선에 대한 무지 또는 단견의 소치이다. 도교 신선은 중력을 받지 않는 존재라서 물을 건널 때에는 첨벙첨벙 걸어 다니지 않고 수면을 가벼이 밟고 걸어 다니거나 수면 위를 마치 스키를 타듯이 미끄러져 다닐 테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그 전반부는 실은 중국 도교의 탐라로의 전파 경로를 암시한 것일 것이다. 이는 중국 도교 소산인 마고 관련 전언이 한말漢末(220년 무렵) 이후 한반도나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탐라 서해를 통해서 직접 탐라로 전래되었다는 말이다. 도교는 중국 천태산맥 일원의 토착신앙이 한말漢末에 도가道家와 불교(불교는 도교 성립 이전에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래됨)의 영향을 받아 거듭난 종교이고, 그리고 종교란 교의가 확립된 연후에야 비로소 타지로 전파되는 법이니까. 참고삼아 말

하면, 도가와 도교는 다르다. 『중국철학사』(풍우란馮友蘭 저, 정인재 역, 형설출판사, 1989, 21쪽)에 "도가사상에서, 철학으로서의 도가는 '자연을 따르라는 설'(노자와 장자: 생명이 다하면 죽음이 온다)을, 반면 종교로서의 도교는 '자연에 역행하는 설'(근본 교리: 불로장생술)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있다. 참, 중국 도교는 한말漢末 이후 동중국해를 통해서 오늘날의 일본(곧, 유구琉球 · 규슈九州 등지)으로도 전파되었다. / 한편, 위 대목의 후반부(곧,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선마고가 제주 서해를 건너오기 이전에 이미 한라산(또는 제주도)이 존재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단언한다. "선마고(곧, 설문대할망)가 한라산(또는 제주도)을 창조했다"라고. 그러고 보면, 전자(곧, 위 후반부)와 후자(곧, 위 단언)는 상호 모순된 것들(곧, 서로를 배척하는 것들)인 셈이다. 전자는 선마고 도래 이전에 한라산이 이미 있었다 하고, 후자는 선마고가 한라산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럼, 그 모순의 요인은 전자일까, 또는 후자일까? 물론 후자이다. 전자는 출처가 『표해록』의 문헌설화(1771년)로 분명한 것인데, 후자는 출처가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1960년대 초엽 이후 주장뿐으로 불분명한 것이니까. 아니, 선마고(곧, 설문대할망)가 한라산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처음으로 탐라 서해를 건너온 선마고가 존재하지도 않은 한라산에서 놀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선마고(곧, 설문대할망)의 한라산 유희遊戱는 한라산 창조 이후의 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 참,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설문대할망은 곧 선마고(곧, 날아다니는 도교 선녀)이다"라 하면서 동시에 "거인 설문대할망은 곧 모계사회(만 년 전 ~ 오천 년 전) 여신女神이다"라 한다. 아니, 모계사회 소산인 거녀巨女를 도교 선녀(곧, 부계사회 소산)와 동일시하니! 어불성설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위 ①(곧, 『표해록』의 선마고 관련 부분)에 의거하여 단언한다. "『표해록』의 선마고와 설문대할망 이칭인 선문대할망은 동일인물이다. 그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즉, 양자가 공히 '선'으로 시작하니까"라고. 어불성설이다. 선마고에서의 '선'은 詵(뜻: 어리다)이고, 선문대할망에서의 '선'은 이칭 설문대할망에서의

‘설’의 차자 雪(뜻: 서럽다)이니까. 아니, 설문대할망 설화에 의하면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에 빠져죽은 거인이고, 그리고 도교 전언에 의하면 선마고는 한창 나이에 불로장생의 비법을 터득한 후 단약丹藥을 먹고 산 채로(곧, 늙어 죽지 않고) 신선(곧, 신神)의 반열에 오른 소녀인데 어떻게 선문대할망(곧, 거인)과 선마고(곧, 중력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한라산 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는 선녀)를 동일시한단 말인가? 나아가서, 모계사회 여신(이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주장임)과 부계사회 선녀를 동일시한단 말인가? 참,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선마고 뜻도 설문대할망 뜻도 미상未詳이라 한다. 그럼, 뜻 미상의 상이한 두 이름을 동일시하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 부언하면, 설화 주인공이 신적 존재라 해서 당해 설화가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화의 신화 여부는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증거물 · 미적 범주 등의 여하에,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설화가 굿에 쓰이느냐(곧, 본풀이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까.

Ⅱ. 『표해록』은 장한철張漢喆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려고 제주 산저포에서 상인 이십여 명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파에 떠밀리는 바람에 유구琉球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귀향하여 쓴 회고록이다. / 각설하고, 위 ①의 취지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인용 취지와는 달리 그 상인들이 유구에서 귀향하던 중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낸 한라산을 보게 되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백록선자와 선마선파에게 축원하는 것을 두고 저자 장한철이 부질없는 짓이라 여겼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장한철은 유림에 속했고, 그리고 지난날 유림은 설화를 괴담이설로 여겨 배척했다. 그러니, 장한철이 그 상인들 축원을 부질없는 짓이라 여긴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Ⅲ. 톈타이(천태天台)산맥은 중국 도교 발상지이다. 하지만 천태산맥이 널리 알려진 것은 불교 때문이다. 즉, 불교 승려 지의智顗가 576년 이 산맥을 근거지로 삼으면서부터이다. 불교 천태종宗도 이 산맥 이름에서 유래했다. 부언하면, 천태산맥 일부인 천태산은 저장성(절강성浙江省) 톈타이현縣에 있다. 즉,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늘날의 오키나와와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도교도 불교도 동중

국해를 통해 유구(곧, 현 오키나와)로, 나아가서 규슈로 전해졌다.

Ⅳ.『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기』[구보 노리타다(와덕충窪德忠), 2004, 뿌리와이파리, 186-188쪽]에 "마고의 아버지는 성격이 악독하여 일꾼들을 부려 공사를 할 때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일꾼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다. 이에, 마고는 일꾼들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닭 울음소리를 흉내 내어 닭 울음을 유도했다. 그래서 닭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리고 일꾼들은 일찍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실이 들통 났고, 마고 아버지는 마고를 채찍으로 마구 때렸다. 그래서 마고는 집에서 도망쳤고, 산속에서 수행한 후 근처 다리 위에서 승천했다. 그 후 대문 앞에 커다란 회화나무('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으로 옥수玉樹라고도 함)가 있는 집 주인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왕관 쓴 선녀가 나타나 그에게 그 나무를 달라고 했고, 그 주인은 그 나무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벼락이 치고 비가 내렸는데 회화나무는 어느 틈엔가 마고묘(곧, 사당祠堂) 앞에 쓰러져 있었다. (중략) 7월 7일에 기묘한 음악이 들리면서 대규모의 동료와 함께 왕원(마고의 오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중략) 잠시 후 마고가 왔는데 18세 정도의 절세미녀로 틀어 올리고 남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다. 입고 있는 옷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취해 한동안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 마고는 (중략) 쌀을 집어 들어 땅에 뿌렸다. 그러자 쌀은 불로장수약인 단사丹砂가 되었다. 마고의 손톱은 마치 새의 발톱처럼 변해 있었다"(필자 주: ①)라는 내용이 있다. 또, 위 책(143-144쪽)에 "선녀 마고는 손톱이 새 발톱과 닮아서인지 간혹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서왕모西王母[『산해경山海經』 2권에, 옥산玉山에 사는 서왕모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표범 꼬리가 달려 있고, 이는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풀어헤친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비녀를 꽂고 있고, 큰소리를 잘 치고, 천재天災와 오형五刑을 담당한다고 씌어 있는데 (중략) 남선南仙을 담당하는 동왕부東王父에 호응하여 여선女仙을 지배했다]로 오인되기도 한다"(필자 주: ②)라는 내용이 있다.

Ⅴ. 한반도 전설에 '청태산 마고할미'란 거인이 있다. 마고할미의 사전적 정의는 '전설에 나오는 신선 마고' 또는 '노파의 이칭'이다. 여하튼, 여기서의 청태산은 천태산의 와전이고, 마고는 천태산 선녀 마고이고, 그리고 할미는 아름답고 어린 탓에 연약해 보이는 마고의 이미지를 서왕모 이미지(곧, 강건 · 위엄 등)로 변모시키려고 첨가한 것이다. 물론 그 이미지 변모를 통해서 도교 선녀 마고는 한반도에서는 거인 노파(곧, 마고할미)의 면모를 띠게 된다. 그러고 보면, 청

태산 마고할미는 위 ①에서의 마고도 위 ②에서의 서왕모도 아닌 셈이다. 이는 청태산 마고할미는 한반도 민중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Ⅵ. 제주본풀이에 '청태국(또는 청태산) 마구할망'이 등장한다. 물론 청태국 마구할망은 한반도의 청태산 마고할미가 탐라로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일 것이다. 탐라는 938년(고려 태조 21)부터 한반도 속지였으니까. 그런데 제주본풀이에서의 청태국 마구할망은 한반도 전설에서의 청태산 마고할미와는 달리 거인 모습이 아니라 여느 제주본풀이 등장인물들처럼 보통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 게다가, 본풀이 주역이나 조역이 아니라 단역으로만 등장한다. 이는 청태국 마구할망은 전설에서의 거인도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청태국 마구할망은 한반도의 청태산 마고할미가 탐라로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곧, 한반도 민중의 소산이 아니라 제주 민중의 소산)인 셈이다. 다음은 제주본풀이에서의 청태국 마구할망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뒷집 청태국 마구할망이 ……"[28], "청태국 마구할망을 불러들였다. 마구할망은 과양생이 처 허리를 내리쓸어 보았다. 아이는 벌써 머리를 돌려 있었다."[29], "청태산 마구할망이 불을 빌러 들어왔다"[30] 등. 물론 여기서의 청태국도 천태산이다. 청태국에서의 '청'은 '천'의 와전이고, '국國'은 제주본풀이에서는 통상 땅이나 산山 따위를 뜻하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 선사시대의 자생적 신화들은 모라牟羅 몰락(1105) 이후 한반도에서 유입된 신화들에 밀려 축출되었을 것이다. 물론 언어나 역사도 그랬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민족 정체성의 뿌리인 신화 · 언어 · 역사 등은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으레 축출되기 마련이니까. 그러고 보면, 작금의 제주본풀이 대부분은 실은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한반도로부터 유입되어 토착화한 것들인 셈이다. 마치 청태국 마구할망처럼. 부언하면,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중 혹자는 말한다. "중국도교 선녀 마고의 영향 아래서 형성된 한반도 마고할미가 제주로 전래되어 설문대할망으로 토착화했고, 그리고 설문대할망이 일본 규슈 등지로 전파

28)『濟州島神話』, 앞의 책, 100쪽
29)『濟州島神話』, 앞의 책, 101쪽
30)『濟州島神話』, 앞의 책, 203쪽

되어 일본거인설화 주인공으로 토착화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는 도무지 수긍이 안 간다. 설문대할망 말뜻 · 마고할미 말뜻 · 일본설화 주인공 이름들(예: 다이다라봇치だいだらぼっち) 말뜻 간에 유사한 구석이 전무하니까. 또한, 제주 설문대할망 전설 · 한반도 마고할미 전설 · 일본 거인신화 간의 유사성이 전파(곧, 이주)에 의한 것인지 자연발생적인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니까. 즉, 상이한 지역들에서도 인간(곧, 민중) 삶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설화가 나타날 개연성은 늘 열려 있으니까.

Ⅶ. 참고로 말하면, 설령 설문대할망이 신적 존재(곧, 신선)인 선마고와 동일인물이라 해서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화의 신화 여부는 등장인물의 신적 존재 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니까. 즉,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해 설화의 증거물 · 미적 범주 등의 여하에, 그리고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당해 설화가 굿에 쓰이느냐(곧, 본풀이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으니까.

[2] <옛말(곧, 전설)에서의 '샛中송당 당신堂神 세명주'> 송당松堂이라는 마을은 여신女神 **금백주** · **세명주**, 그리고 남신男神 **소천국(곧, 소로소천국)**이 각각 관장하는 웃上송당 · 샛中송당 · 알下송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필자가 중학생 시절(곧, 1960년대 중엽)에 구좌면 김녕리에서 얻어들은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금백주**. 위 전설(곧, 위 [2])의 등장인물인 금백주는 본풀이(곧, 후술할 <송당 · 궤눼깃당>) 주연(또는 조연)으로도 등장한다. 이는 금백주는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라는 말이다.

**세명주**는 위 전설(곧, 위 [2])과 또 다른 전설(곧, 전술한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에 등장한다. 하지만 본풀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세명주는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소천국(곧, 소로소천국)**. 위 전설(곧, 위 [2])의 등장인물인 소천국은 본풀이(곧, 후술할 <송당 · 궤눼깃당>) 주연(또는 조연)으로도 등장한다. 이는 소천국은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라는 말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설문대할망 신화론자 중 일부는 위 ⑵에 의거하여 단언한다. “설문대(할망) 이칭인 세명주(할망)가 샛송당 당신堂神으로 되어 있으니 세명주는 본풀이 신이다. 마치 웃송당 당신 금백주와 알송당 당신 소천국이 본풀이 신인 것처럼. 고로,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의 흔적이다”라고. 하지만 이는 단견 또는 무지의 소치이다. 세명주가 신적 존재이니 세명주할망(곧,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의 흔적이라는 주장은 제주설화의 신화 여부가 설화 등장인물이 신적 존재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고 한국설화이론 3분법(곧, 증거물이나 미적 범주 따위의 여하)이나 제주민중 설화의식[곧, 설화가 굿에 쓰이는 것(곧, 본풀이)이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니까. 또한, 세명주가 샛송당 당신이라는 주장도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된 것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니까. 생각건대, 금백주와 소천국은 송당 마을이 웃송당과 알송당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절(곧, 샛송당이 없던 시절)의 본향당신本鄕堂神들이었을 것이고, 훗날 여차여차한 이유로 그 두 당 사이에 샛송당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예: 본향당 심방)이 궁리궁리 끝에 전설상의 세명주를 그 샛송당 본향당신으로 끌어들였을 것이다. 즉, 궁여지책으로 세명주를 본풀이 신적 존재인 양 왜곡(곧, 조작 · 날조)해 놓았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세명주가 제주본풀이(곧, 주연 또는 조연이 대단원에서 신으로 좌정하는 내력담來歷談) 어디에서도 주연이나 조연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세명주가 본풀이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본풀이 화법(곧, 철칙)에 의하면, 본풀이 신은 오직 본풀이를 통해서만 출현(곧, 존재)할 수 있으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본풀이 화법은 또 말한다. 본풀이 신은 모두 하나같이 직능신職能神이라고. 이는 본풀이 신에게는 반드시 본풀이를 통해서 일정한 직능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흡사 <삼승할망(곧, 산신産神)과 마누라(곧, 마마신媽媽神)>를 통해 삼승할망에게 잉태란 직능이 주어지듯이. 그러고 보면, 세명주처럼 본풀이를 통해 직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인물은 본풀이의 신이 아닌 셈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제주설화에서의 왜곡(곧, 조작 · 날조)은 비일비재하다. 그중 최악의 것은 설문대할망 전설과 오백장군 전설의 신화화神

話化이다. 물론 설화에서의 왜곡은 설화가 개인작(곧, 무격 · 설화연구가 같은 개인의 의식적 소산)이 아니라 공동작(곧, 민중 공동체의 무의식적 소산)이라는 한국설화이론을 범하는 섣부른 짓인 동시에 설화 이면의 민중의식 · 민중사 등을 짓밟는 반민족적 작태이다.

3 <표선리 해신당海神堂의 '여신 당개할망'> **당개할망은 아들이 일곱 성제우다**. **당개할마님이 저바당한집과 부베간인디**, **옛날옛적 할로영산에서 솟아나** 귀신이 아닌 생인으로 **한 가달은 성산면에 걸치고, 한 가달은 한라산 꼭대기에 걸쳐놓아 연서답을 ᄒᆞ는디**, **멩지 아흔아홉 동 페와 속옷을 만들었는데 강알을 가릴 한 통이 모자라 물멩주 한통을 당하면 부산, 목포 더레 다릴 노켄허난 그땐 인간에 멩주가 어디십니까. 우리 인간엔 그때 멩주가 개 어시난 우리 죽으믄 죽어도 멩주 ᄒᆞᆫ 필 내놓을 수 엇댄 허난 부산과 목포 물 막은 섬이 되어비엿주**. 그때는 천지개화기우다. **아들이 일곱성젠디 다섯 성제는 할로영산 오백장군 오백선생 거두잡고**, 아들 ᄒᆞ나는 할망이 그때 시절에 **가매에 물앚젼 죽을 쑤랜 핸 간 오란 보난 족은아덜이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젼 죽어 부렀어**. 게난 족은아덜은 너무 부정이 만만ᄒᆞ다. 너는 애 몰르고 목이 탈 테니 **소섬을 츠지ᄒᆞ라**. 할망이 파처시켜도, 다섯 성제가 할로영산 오백 선생 거두잡으난 수덕이 좋은 겁주. **여기 표선리 한 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거**. 아들을 보내고 뒷녁날 아칙은 좌정처를 찾아 산터 보듯이 돌아보난에 그디(곧, 당개)가 앚아 좋댄ᄒᆞ난 좌정허여, **나고드는 상선 중선 만민자손 천석궁 만석궁 공자 맹자 다 거두잡고 줌녀들랑 거부케 ᄒᆞ는 할머님**. -『표선리 향토지』, 표선리원로회, 1996, 154-155쪽

[화소話素 관련 설명 / 본문本文 관련 해설]

**당개할망은 아들이 일곱 성제우다**에서의 당개할망을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설문대할망 이칭이라 한다. 한편, 위 3을 그들은 '당개할망 본풀이' 또는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신海神堂神 설맹디할망 설화'라 한다. / 각설하고, 위 대목에 의하면 설문대할망 아들은 일곱 성제(형제)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통상 말한다. 설문대할망 아들은 오백장군이라고.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아니, 설문대할망 아들의 수효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설문대할망 아들에 대해 운운하는 것도 실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설문대할망

설화에는 원래 아들이 없으니까. 여하튼, 설화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해 설화의 화자 주장이 아니라 당해 설화의 본문 내용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위 ③을 계속 들여다보자.

**당개할마님이 저바당한집과 부베간인디**에서의 '저바당한집'(저 바다의 한집)의 '한집'은 후술할 <송당(곧, 금벡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에 등장하는 '궤눼깃한집'("궤눼깃한집은 마흔 여덟 상단골, …")[31]을 모방한 것일 것이다. 제주(곧, 표선 · 토산 · 김녕 · 조천 등지) 굿당의 원류는 송당이라는 것이 제주 무격사회의 중론이니까. 참, 궤눼깃한집은 송당에 좌정한 소천국과 벡주또(곧, 금백주)의 여섯째아들로 좌정 장소는 김녕리 궤눼깃당이다.[32] / 한편, 당개할망이 저바당한집과 '부베(부부) 간'이라 하니,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 내세우는 설문대하르방(곧, 설문대할망 남편)과 저바당한집은 어떤 관계일까? 동일인일까? 아니면, 당개할망(곧, 설문대할망)을 사이에 둔 연적戀敵 관계일까? 여하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는 당개할망이 거인 설문대할망이라면, 당개할망 본풀이는 제주본풀이일 수 없다는 것이다. 도교 영향권 아래 있는 제주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는 모두 하나같이 도교 신선처럼 평범한 인간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개할망은 거인으로 평범한 모습의 인간이 아니니까.

**옛날옛적 할로영산에서 솟아나**는 삼을나三乙那가 할로영산(한라영산漢羅靈山, 곧 한라산) 기슭 모흥혈毛興穴에서 용출聳出했다는 '삼을나 신화(≒본풀이)'를 모방한 것일 것이다.[33] 그런데 위 대목대로 당개할망(곧,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에서 솟아났다면,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창조했다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주장은 거짓임에 틀림없다. 설문대할망이 자신이 창조한 한라산에서 솟아날 수는 없으니까.

**한 가달은 성산면에 걸치고, 한 가달은 한라산 꼭대기에 걸쳐놓아 연서답을 ᄒᆞ는디**는 설문대할망 전설 중 '설문대할망 빨래하기'라는 제하의 본문 일부를 모방한 것일 것이다. 그 '빨래하기' 제하 본문(곧, 주절+종속절)에서 종속절만 도용한 것 말이다.

---

31) 『濟州島神話』, 앞의 책, 249쪽
32) 『濟州島神話』, 앞의 책, 247쪽
33) 『濟州島神話』, 앞의 책, 22~24쪽

**멩지 아흔아홉 동 페와(펼쳐) 속옷을 만들었는데 강알(사타구니)을 가릴 한 통이 모자라 물멩주 한통을 당하면 부산, 목포더레 다릴 노켄허난 그땐 인간에 멩주가 어디십니까. 우리 인간엔 그때 멩주가 개 어시난 우리 죽으믄 죽어도 멩주 혼 필 내놓을 수 엇댄허난 부산과 목포 물 막은 섬이 되어비엿주**는 설문대할망 전설 중 '다리 놓기' 제하의 본문 일부를 모방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위 대목에는 그 '다리 놓기' 제하의 본문에 꼭 있어야 할 증거물(곧, '다리 놓던 흔적')이 빠져 있다. / 한편, 더더욱 민망한 것은 그 '다리 놓기' 제하 본문에서의 육지가 위 대목에서는 부산 · 목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지난날 탐라 민중은 주로 탐진(곧, 현 강진)을 통해 한반도를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 시절 그들은 한반도는 어디를 막론하고 다 습관적으로 육지라 불렀다. 그러고 보면, 한반도 특정 지명(곧, 목포 · 부산)이 민중 공동작인 설화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이는 여기서의 부산 · 목포는 당개할망 본풀이가 지난날 탐라 민중에 의해 산출된 공동작이 아니라 오늘날(곧, 1960년대 초엽 이후) 개인(또는 극소수 집단)에 의해 조작(또는 날조)된 위작僞作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여기서의 부산 · 목포는 왜곡(곧, 오류)이라는 말이다. 돌이켜보면, 탐라에서의 설화 왜곡은 1960년대 초엽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도되었다. / 다른 한편, "부산, 목포더레 다릴 노켄허난 그땐 인간에 멩주가 어디십니까"도 오류이다. 이 땅의 명주明紬는 부산 · 목포라는 지명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으니까. 물론 오류를 범한 설화는 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된 것이다.

**그때는 천지개화기우다**에서의 천지개화기는 무슨 뜻일까? 天地開化期? 아니면, 天地開花期? 아니, 천지개벽天地開闢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천지개벽 시절에 무슨 다리를 놓는단 말인가? 그 때는 오늘날의 제주해협이 육지였을 터인데 말이다.

**아들이 일곱성젠디 다섯 성제는 할로영산 오백장군 오백선생 거두잡고**는 설문대할망(곧, 당개할망) 아들은 일곱이고, 그리고 그중 다섯은 오백장군을 거두잡았다(곧, 부하로 거느렸다)는 말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설문대할망이 오백장군을 낳았다고 주장

한다. 그럼,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쪽이 거짓일까? 물론 양자 다 거짓이다. 1960년대 무렵까지의 설문대할망 전설에는 설문대할망이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러고 보면, 위 대목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 즉 오류인 셈이다.

**가매에 물앚젼 죽을 쑤랜 핸 간 오란 보난 죽은아덜이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젼 죽어 부렀어**에서의 시점은 당해 본문에 의하면 천지개화기이다. 아니, 천지개화기에 가매(가마솥)라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 가매는 철기시대 이후 소산이 아닌가 말이다. / 한편,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중 일부는 설문대할망이, 일부는 설문대하루방이, 그리고 위 대목에서는 죽은아덜(작은아들)이 솥에 빠져죽었다 한다. 대체 뭘 하자는 수작인가? 오류를 범한 것은 설화일 수 없다.

**소섬을 ᄎᆞ지ᄒᆞ라**는 예의 그 <송당(곧, 금백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 소섬 모살내기로 올라 예물에 와서 영기를 세우고 소섬을 둘러보니 ……)"[34]에서 착안한 것일 것이다.

**여기 표선리 한모살도 설맹디할망이 날라다 쌓은 거**는 당개할망을 설문대할망으로 왜곡하려고 삽입해 놓은 것이다. 주인공 당개할망이 위 대목에서만 설맹디할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는 이 대목을 들어내야만 위 ③은 문맥이 제대로 통한다는 말이다. 물론 여기서의 '한모살'도 특정하거나 개별적 것으로 전설 증거물이다.

**나고드는 상선 중선 만민자손 천석궁 만석궁 공자 맹자 다 거두잡고 줌녀들랑 거부케 ᄒᆞ는 할머님**. 제주본풀이 속성은 '공리적功利的 기능'(곧, 직능)과 '일정 구조'이다. 공리적 기능은 향유자의 축원 사항 성취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일정 구조는 '본풀이 주인공이 혈통은 고귀하고, 탄생은 기이하고(또는 비정상적이고), 유년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역경에 처하여 투쟁하고, 의인과 조우하고, 그 의인의 도움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여 승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극복한 역경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속성들에 의하면 당해 본문(곧, 위 ③)은 제주본풀이일 수 없다. 공리적 기능도 일정 구조도 불분명하니까. 이는 위 ③은 본풀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본풀이는 민중 소산이라 상류

34) 『濟州島神話』, 앞의 책, 246~247쪽

층(곧, 유림 · 양반 등)과는 통상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상극 관계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상류층(곧, 상선 중선 만민 자손 천석궁 만석궁 공자 맹자)은 거느리고 하류층인 민중(곧, 줌녀들)은 거부한다고 되어 있다. 아니, 해신당 신이라는 존재가 상류층과는 교류하고 하류층인 해녀들과는 단절하다니!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민중 소산인 설화가 민중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이는 이 대목은 왜곡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당해 본문(곧, 위 ③)이 본풀이가 아니라 '맹목적인 심방'(곧, 본풀이의 정체도 본질도 모른 무늬만 무격인 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곧, 여항간에서 주워들은 화소들을 짜깁기하여 만든) '상류층을 위한 일종의 축문'(곧, 개인 또는 극소수 집단에 의해 왜곡된 기도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인 셈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본풀이(곧, 신화)에는 신앙적 측면과 문학적 측면이 있다. 물론 신앙적 측면(곧, 맹신적인 민간신앙)은 무격의 소관사항이고, 문학적 측면은 설화연구가의 소관사항이다. 이는 신화연구가는 맹신적인 무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신화연구가는 무격의 맹신은 버리고 모름지기 이성理性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연후에 직관直觀에 의탁해야 한다.

④ <설문대할망 남편으로서의 '설문대하르방'> 큰 키에 걸맞은 짝을 구하지 못한 설문대하루방은 어느 날 설문대할망을 만난다. 결혼하면 고기를 실컷 먹게 해 주겠다며 청혼하여 둘은 부부가 되었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남국의 민담』, 진성기, 형설출판사(6판), 1982, 85-87쪽

[본문本文 관련 해설]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대부분은 1980년대에 난데없이 나타난 위 ④를 설문대할망 전설이 지난날 신화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오늘날 버젓이 내세운다. 여하튼, 위 ④는 『남국의 민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이 위 ④를 민담으로 여겼다는 말이다. 하지만 위 ④에는 한국설화이론에서의 민담형식(곧, '서두 · 결말 형식'이나 '진행 · 반복 · 대립 형식' 따위)도 미적 범주를 판단할 만한(곧, 골계미를 자아낼 만한) 화소(또는 대목)도 민담 증거물인 포괄적 증거물

(물론 민담에서 증거물은 없을 수도 있음)도, 게다가 심지어는 설화(곧, 민중 공동체 삶의 소산)임을 입증해 줄 내용도 없다. 그러고 보면, 위 ④는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個人作, 즉 설화說話가 아니라 한낱 설화屑話(뜻: 자질구레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 셈이다. 돌이켜보면, 위 책 편자는 자신이 펴낸 또 다른 책(곧, 예의 그 『신화와 전설』)에서 오백장군 어머니인 '한 어머니'(이는 오백장군 전설의 화소임)를 '설문대할망'으로 교체(곧, 왜곡)시켜 놓았다. 그러자 물장오리에 빠져죽은 설문대할망이 또 다시 그 '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오백장군이 먹을 죽을 쑤는 솥에 빠져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물론 설문대할망의 두 번의 죽음(곧, 물장오리 익사와 죽 솥 익사)은 모순이다. 즉, 오류이다. 그래서 그 편자는 그 오류를 해소하려고 궁여지책으로 설문대하루방을 날조해 놓고 그로 하여금 '한 어머니' 대용인 설문대할망 대신 죽 솥에 빠져죽게 했다. 어불성설이다. 아니, 민중의식의 발로인 설화를 3류 소설을 긁적이듯이 마구 긁적여대다니! 설화이론 · 민중의식 · 민중사 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요는 『남국의 민담』에 수록된 위 ④는 제주민중 공동체 의식의 소산인 설화가 아니라 한낱 개인작에 불과한 위작僞作이라는 말이다. 참, 1970년대 초엽까지만 해도 제주에는 민담이 없었다. 버거운 삶의 무게 탓에 골계미를 즐길 여력이 없었으니까. 부언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민중 상당수는 이어도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중 적잖은 이들(특히 4·3사건 연좌제로 발목을 잡힌 이들)이 그 꿈 실현의 한 방편으로 도항 도중의 객사를 무릅쓰고 일본행 밀항선에 이판사판으로 몸을 실었다. 물론 그 도항 중 객사하는 자들도 있었다.

⑤ <옥황상제 말잣딸(셋째 딸)>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 말잣딸**이었다. (중략)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섰다**. 그러자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이가 금세 두 쪽으로 벌어지면서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 제각기 트였다. / **이 사실(곧, 천지분리)을 안 옥황상제는 진노하였는데**, 그 이유는 땅의 세계가 **옥황상제 권역 밖에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잣딸인 설문대할망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땅의 세계로 쫓아내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 설문대할망은 **속옷 챙겨 입을 겨를도 없**

**이 오직 바깥 세계를 갈라놓을 때 퍼놓았던 흙만을 치마폭에 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 할망은 옳다구나 하며 곱게 **치마를 내리자 치맛자락의 흙은 타원 모양으로 내려앉았고, 그곳이 바로 제주도가 된 것이다**. (하략) - 『신화와 전설』, 진성기, 태화인쇄사, 제주민속연구소, 2001년 20판, 27-28쪽

[화소話素 관련 설명]

**옥황상제 말잣딸**. 말잣딸은 제주 항간에서는 통상 말째똘(곧, 막내딸 또는 셋째 딸)이라 한다.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제주에서는 딸이 셋인 집안에서 첫째는 큰똘, 둘째는 족은똘, 그리고 셋째는 말째똘이라 불렀다. / 뭐,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딸이라고? 아니, 설문대할망을 한편으로는 모계사회 소산(이는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주장임)이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계사회 소산인 옥황상제의 딸이라 하다니! 그러고 보면, 위 대목(곧, 화소)은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된 것, 즉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인 셈이다.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섰다**. 천지왕 본풀이[35]에 의하면, 옥황상제는 아들 둘(곧, 대별왕 · 소별왕)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들 세 부자에게 주어진 역할(곧, 직능)은 혼란한 질서(곧, 자연 또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창조는 그들 세 부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도교 교의에 의하면 창조는 신적 존재(곧, 인격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양오행설(예: 주돈이의 태극도설)[36]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옥황상제 딸(곧, 설문대할망)이 어찌 도교 체제하의 제주설화에서 도교 교의에 반하여 창조(예: 천지분리)에 관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왜곡된 것(곧, 민중 공동작 아닌 개인작)인 셈이다.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는 후술할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에서의 "…… 갑자년甲子年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子方으로 열리고, 을축년乙丑年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35) 『濟州島神話』, 앞의 책, 11-21쪽
36) 『중국철학사』, 앞의 책, 334-335쪽

땅 사이는 금이 갔다) ……"[37]를 모방한 것일 것이다.

**이 사실(곧, 천지분리)을 안 옥황상제는 진노하였는데**. 도교 체제하에서의 천지분리는 옥황상제 같은 신적 존재(곧, 인격신)의 힘(곧,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천지분리는 옥황상제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는 옥황상제 딸의 천지분리는 옥황상제가 진노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왜곡된 것(곧, 오류)인 셈이다.

**옥황상제 권역 밖에 되었기**는 '옥황상제 권한(또는 권능)을 무시하고 옥황상제 허락 없이 천지분리를 하였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대목은 천지분리가 옥황상제의 소관사항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천지분리는 옥황상제 권역과는 무관한 것이다. 천지분리는 음양오행설 소산이니까.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된 것, 즉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인 셈이다.

**속옷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는 설문대할망 전설들 중 '설문대할망 다리 놓기' 제하의 본문(곧, 속곳 관련 대목)에서 착안한 것일 것이다. 여하튼, 이 대목(곧, 화소)은 뜬금없는 소리, 즉 서사문敍事文에서의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범한 것이다. 위 본문(곧, ⑤)에는 속옷이 등장할 하등의 까닭이 없으니까. 이는 이 대목은 예의 그 '다리 놓기' 제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된 것, 즉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인 셈이다.

**오직 바깥 세계를 갈라놓을 때 퍼놓았던 흙만을 치마폭에 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비논리적인 주장, 즉 억지이다. 처음에는 '맞붙었던 하늘과 땅(곧, 바깥세계)을 (양손으로 밀어) 두 개로 갈라놓았다'라 해 놓고 나중에는 '바깥세계를 갈라놓을 때 (삽 따위의 도구를 사용하여) 퍼놓았던 흙'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왜곡된 것인 셈이다.

**치마를 내리자 치맛자락의 흙은 타원 모양으로 내려앉았고, 그곳이 바로 제주도가 된 것이다**. 도교 교의는 말한다. 창조(예: 천지분리

37) 『濟州島神話』, 앞의 책, 11쪽

나 지형형성 따위)는 신적 존재(곧, 인격신)의 능력이 아니라 음양오행설(예: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의거한다고. 따라서 이 대목은 도교 체제하의 제주본풀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도교 최고신 옥황상제조차 지형형성에는 관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녀 신분인 옥황상제 딸이 제주도 지형형성에 관여한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이 대목은 왜곡된 것, 즉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인 셈이다.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혹자는 단언한다. 위 본문(곧, ⑤)이야말로 후술할 '송기조 제보 설화'(곧, 아래 ⑥)와 더불어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 화자話者 단언으로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는 화자 주장 여하가 아니라 설화 본문 여하에 달려 있으니까. 물론 설화 본문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다.

Ⅱ. 위 ⑤의 출처는 전술한 『신화와 전설』이다. 그런데 이 책은 왜곡으로 얼룩져 있다. 이를테면, 설문대할망을 오백장군 어머니 또는 옥황상제 딸로, 그리고 자신이 날조한 설문대하루방을 설문대할망 남편으로 왜곡해 놓았다. 또, 沙曼頭姑 · 雪曼頭姑 대신 왜색倭色이 투영된 娑麻姑婆를 제주사회에 퍼뜨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 책의 내용들은 편자 개인적 창작의 소산이거나 일본 설화를 모방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위 ⑤는 물론이고 이 책 내용들은 민중 공동작인 설화 자료로는 부적절한 것인 셈이다. 사실, 그 책을 읽노라면 제주 토박이인 필자로서는 그 내용들이 개인작이거나 일본 설화 모작模作이라는 느낌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다.

Ⅲ. 도교 교의에 의하면, 창세創世(예: 천지분리)는 신적 존재(곧, 인격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양오행설(예: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 ⑤(곧, 설문대할망 천지분리)는 부계사회 소산인 도교 영향권하의 제주본풀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위 ⑤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생각건대, 위 본문 전반부 중 앞부분(곧,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 힘차게 일어섰다")은 일

본신화를, 그리고 그중 뒷부분(곧, "그러자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어리가 … 제각기 트였다")은 천지개벽과 천지왕 본풀이 중 "갑자년甲子年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子方으로 열리고, 을축년乙丑年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는 금이 생겨났다"[38]를 모방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위 본문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어쩌다 일본신화를 모방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일제의 신화 관련 교육도 받고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도 암송하며 자란 일제강점기 조선의 젊은 세대가 일제가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권 등의 유포를 위해 조선에 주입한 일본신화를 마치 조선신화인양 수용한 데서, 나아가서 그 젊은 세대 중 일부가 설문대할망을 일본신화 주인공들과 동류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39] 물론 위 ⑤가 실린 『신화와 전설』 편자도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태어나 자라면서 일본식 교육에 물든 인사이다.

Ⅳ. 위 ⑤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이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주장대로 모계사회 소산이라면 어찌 설문대할망이 부계사회 소산인 옥황상제의 할머니나 어머니도 아닌 딸일 수가 있단 말인가? 여하튼,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딸이라면 옥황상제가 평범한 인간 모습을 하고 있으니[40] 설문대할망도 평범한 인간 모습의 선녀여야 하는데 어찌 거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딸, 즉 선녀라면 설문대할망은 도교 교의에서의 음양오행설 소산에 불과한 존재인데 어찌 음양오행설을 거슬러 천지분리도 하고 한라산 · 제주도 창조도 한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이 옥황상제 딸이라는 주장은 왜곡(곧, 오류)인 셈이다. 물론 설화는 민중 집단의식의 발로라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는 오류를 범한 설화는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 즉 일개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왜곡된 것이라는 말이다.

---

38) 『濟州島神話』, 앞의 책, 11쪽

39)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태어나 일본인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필자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학생 대다수는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권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한다. 그래서 일본인 교사들이 주입하는 일본신화도 제주본풀이인 양 여겨 당연히 받아들였다 한다.

40) 『濟州島神話』, 앞의 책, 122쪽

Ⅴ. 위 ⑤에 의하면 천지분리가 신적 존재(곧, 인격신)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고, 후술할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에 의하면 천지개벽이 음양오행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다. 이는 전자와 후자는 서로를 부정한다는 말이다. 그럼,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그 양자 중 어느 쪽이 참일까? 물론 후자가 참이다. 전자는 제주본풀이가 아니고 후자는 제주본풀이이니까. 부언하면,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은 제주본풀이 근간(또는 밑바탕)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주본풀이 신들은 거의 다 옥황상제로부터 직능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러고 보면, 전자를 주장하는 것, 즉 후자를 부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주본풀이 기반을 부정하는 것인 셈이다.

Ⅵ. 위 ⑤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는 것은 본풀이(≒신화)이고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지 않는 것은 옛말(≒전설)인데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지 않는 위 ⑤가 마치 제주본풀이(곧, 신화)인 양 가장假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본풀이 화법(곧, 철칙)에 의하면 제주본풀이는 모두 하나같이 도교 체제(또는 교의)하에 있어야 하는데 도교 체제하에 있지 않은, 즉 도교 교의(또는 체제)를 범犯한(이를테면, 창세를 음양오행설이 아니라 인격신 능력의 소산으로 취급하는) 위 ⑤가 마치 제주본풀이인 양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⑥ <송기조 제보 설화에서의 '키 큰 사람'(또는 '아주 힘세고 키 큰 사람')> [원문] 김영돈: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어떵ᄒᆞ영(어떻게 해서) 만들엇댕(만들었다고) ᄒᆞᆸ니까? / 송기조: 요전이 아으덜(아이들)이 전설을 써 주시오 ᄒᆞ기에 써 줘신디(주었는데), 뭐엔(무어라고) 써줘싱고(써 줬는고) ᄒᆞ니, 엿날에는 여기가 하늘광(하늘과) 땅이 부떳다(붙었다). 부떳는디 '큰 사람'이 나와서 떼여 부렷다(버렸다). 떼연(떼어서) 보니, 여기 물바닥이라 살 수가 읎으니 깃디로(가로) 물을 파면서, 목포(木浦)ᄁᆞ지 아니 파시민(팠으면) 그냥 내불테인디(버릴 터인데) 그ᄁᆞ지 파부니(파버리니) 목포도 끊어졋다. 그것은 그때에 여기를 육지 맨드는(만드는) 법이 잘못ᄒᆞᆫ 거쥬. 기연디(그런데) '설문대할망'이 흑(흙)을 싸다가, 거길 메울려고 싸다가 걸어가당(걸어가다가) 많이 떨어지민 큰오롬이 되곡, 족게 떨어지믄 족은 오름이 뒈엿다, 그건 엿말입니다. / 김영돈: 어떵마씸? / 송기조: 치매(치마)에, 치매에 흑(흙)을 싸다가 많이 떨어

지민 한라산이 뒈곡, 족게(적게) 떨어지민 도둘봉이 뒈엿다, 그건 엿날 전설이곡. 저 생각으론 '이 제주도를 맨드는 분'이 잘못 생각ᄒᆞ엿어. ᄉᆞ방으로 흑을 지쳐시민(위로 던졌으면) 바다는 바다대로 가곡, 육진 돌라져시민(도려내졌으면) 뭘 건디, 웨 육지레(육지로) 가는디 파부럿느냐, 나 ᄀᆞ뜨민(같으면) 파지 맙셍(마시라) ᄒᆞ컬(할 걸). / 김영돈: 육지ᄒᆞ곡 부떳당은에(붙었다가는)…? / 송기조: 부뜬(붙은) 게 아니고 전부 물바다로 보아서 하늘광 땅이 부떳는디 천지개벽ᄒᆞᆯ 때 아미영ᄒᆞ여도(아무리 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게가 열렷느냐 ᄒᆞ민 '아주 키 크고 쎈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레(위로) 가게 ᄒᆞ고 땅을 밋트로(밑으로) ᄒᆞ여서 ᄒᆞ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읍으니 ᄀᆞᆺ드로(가로) 돌아가멍 흑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엇다 ᄒᆞ는디 거 다 전설로 ᄒᆞ는 말입쥬.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오라동 설화 23(제보자: 송기조 남 · 74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714쪽

위 [원문]은 소위 '송기조 제보 설화', 즉 '오라동 설화 23'(1980년 11월 23일 채록, 오라동 동카름, 김영돈 · 고재환 조사, 송기조 남男 · 74세 제보)으로 김영돈 질문과 송기조 답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제주 방언으로 중언부언되어 있고 문장이나 표현 따위가 아주 난삽하다. 그래서 필자가 위 [원문]을 다만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래 [본문]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위 [원문]에서 군더더기인 김영돈 질문은 빼어 버리고 송기조 답변 중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 표준어로 바꾸고 간추려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해 놓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다만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위 [원문]이나 아래 [본문] 중 적절한 쪽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문] 옛날에는 이곳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는데 '**큰 사람**'이 출현하여 떼어놓았소. 떼어놓고 보니, 여기가 물바다(곧, 물이 질퍽질퍽한 곳)라 (사람들이) 살 수 없었소. 그래서 (그 '큰 사람'이) 가장자리로 물길을 낸다는 것이 (엉뚱하게도) **목포**木浦까지 파 버렸소. 그래서 목포와도 단절되고 말았소.(필자 주: ⓐ) / 그런데 '설문대할망'이 그곳(곧, 그 '큰 사람'이 파 버린 물바다)을 메우려고 (치마에) 흙을 싸서 걸어가다가 (치마의 흙이) 많이 떨어지면 큰 오름이 생겨났고 작게 떨어지면 작은 오름이 생겨났소.(필자 주: ⓑ) / **치마에서 많이 떨어진 흙은 한라산(곧, 큰 오름)이 되었고, 조금 떨어진 흙은 도두봉(곧, 작은 오름)이 되었소**.(필자 주: ⓒ) / **(육지와)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곳**

**제주도는) 전부 물바다라서** (육지와는 달리)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형편이었소. (여하튼,) 천지개벽 때(곧, 붙어 있는 이곳 하늘과 땅을 뗄 때) 이러니저러니 해도 '**연(곧, 뗀)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오. 그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키 크고 힘센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오. 바로 그 '아주 키 크고 힘센 사람'이 (하늘과 땅을) 딱 떼어서 하늘은 위로, 땅은 밑으로 가게 해서 보니 물바다라 살 수가 없었소. 그래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흙을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단 말이오.(필자 주: ⓓ)

[화소話素 관련 설명]

**큰 사람**, **연(곧, 뗀) 사람**, **아주 키 크고 힘센 사람**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에 해당된다. 물론 신명神名이 보통명사인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명사인 신명은 구전이 용이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위 호칭들은 신명으로는 부적절한 것인 셈이다. 이는 위 호칭들은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일 수 있다는 말이다.

**목포木浦**가 제주설화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주설화에서 한반도는 어디를 막론하고 통상 '육지'로 불렸으니까. 이는 제주설화에서 한반도를 육지라 한 것은 민중의식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물론 설화도 민중의식의 소산이다. 따라서 위 ⑥이 제대로 된 설화라면 목포는 육지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치마에서 많이 떨어진 흙은 한라산(곧, 큰 오름)이 되고, 조금 떨어진 흙은 도두봉(곧, 작은 오름)이 되었다**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을 범한 발언이다. 한라산을 '큰 오름'이라 했으니까. 사실, 지난날 제주민중은 한라산을 오름이라 부르지 않았다. 또한, 화전으로 개간 불가능한 것들(곧 한라산, 산방산, 성산, 영주산, 두럭산, 산소들)은 산으로, 그 밖에 화전으로 개간 가능한 것들은 오름으로 불렀다. 그러고 보면, 위 대목은 왜곡된 것, 즉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인 셈이다.

**(육지와)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곳 제주도는) 전부 물바다라서**. 설화는 민중 집단의식의 소산이라 결코 오류(곧, 왜곡)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대목은 왜곡(곧, 조작 · 날조)된 것, 즉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일 것이다. 지난날 제주 일대(곧, 동아시아)는 하나의 땅덩어리였을 테니까. 즉, 제주 · 한반도 · 중국 · 일본 등지는 오늘날처럼 바다로 분리되지 않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을 테니까.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혹자는 단언한다. 위 ⑥이야말로 전술한 ⑤와 더불어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 화자話者 단언으로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설화의 신화(또는 전설) 여부는 화자 주장이 아니라 설화 본문 여하에 달려 있으니까. 물론 설화 본문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다. 부언하면,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 위작僞作인 그 ⑥ · ⑤를 두고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것들'이라 단언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을 입증해 줄 설화 본문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현존하는 설문대할망 설화 본문은 모두 하나같이 전설 본문뿐이다. 물론 이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전설이라는 말이다.

Ⅱ. 위 ⑥은 제주설화에서는 이질적인 것이다. 창세創世가 제주설화에서는 음양오행설에 의거하는데 위 ⑥에서는 신적 존재(곧, 인격人格신)의 힘(곧, 능력)에 의거하니까. 그럼, 위 ⑥의 출처는?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전술한 ⑤가 실려 있는 『신화와 전설』일 것이다. 아니, 그 책에서 착안한 것일 것이다. 송기조가 위 ⑥을 제보한 1980년 무렵 그 책 편자는 간혹 언론 매체(곧, 주로 라디오)에 출연하여 설화說話 · 설화屑話 등을 가리지 않고 늘어놓았으니까. 참, 창세의 주체가 위 ⑥에서는 '큰 사람'이고, 전술한 ⑤에서는 '설문대할망'이다. 어느 쪽이 거짓일까? 물론 양자가 공히 거짓일 것이다.

Ⅲ. 위 ⑥ 중의 [본문]은 위 ⓐ · ⓓ(곧, 송기조가 일본 모계사회 신화를 접하는 가운데 알게 된 화소들)[41]와 위 ⓑ · ⓒ(곧, 송기조가 예의 그 『신화와 전설』 편자를 통해 알게 된 화소들)로 구성(곧, 이분二分)되어 있다. 한편, 위 ⓐ · ⓓ의 내용은 '큰 사람'(곧, '연 사람' · '아주 키 크고 힘센 사람')이 이곳(곧, 제주도 일대)의 하늘과 땅을 떼었다는 것이고,

41) 일제강점기를 산 송기조는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가운데 일본신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일본신화를 얼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 ⓑ · ⓒ의 내용은 설문대할망이 오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위 [본문] 내용은 큰 사람이 이곳의 하늘과 땅을 뗀 연후에 엉성하게 제주도를 만들었는데 설문대할망이 흙을 날라다 오름들을 만들어 보완했다는 것이다. 즉, 위 ⑥의 요지는 천지분리도 하고 제주도 창조도 한 것은 '큰 사람'이고, 오름 형성을 한 것은 '설문대할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설문대할망 전설을 신화로 조작하려는 일념 아래 여기서의 큰 사람과 설문대할망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아니, 주어가 위 ⓐ · ⓓ에서는 큰 사람이고, 위 ⓑ · ⓒ에서는 설문대할망인데 어찌 양자가 동일인물일 수 있단 말인가? / 부언하면, 위 ⓐ · ⓓ는 제주본풀이에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제주본풀이는 도교 최고신 옥황상제 영향권 아래 있고, 도교 교의에 의하면 창세는 신적 존재(곧 인격신)에 의거하지 않고 음양오행설에 의거하니까. 한편, 위 ⓑ · ⓒ는 굿에 쓰이지 않는 것들이니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본풀이(≒신화)가 아니라 옛말(≒전설)이다. / 참, 위 ⑥이 채록된 1980년 무렵은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이다.

Ⅳ. 위 ⑥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는 것은 본풀이(≒신화)이고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지 않는 것은 옛말(≒전설)인데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지 않는 위 ⑥이 마치 제주본풀이(곧, 신화)인 양 가장假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본풀이 화법(곧, 철칙)에 의하면 제주본풀이는 모두 하나같이 도교 체제(또는 교의)하에 있어야 하는데 도교 체제하에 있지 않은, 즉 도교 교의(또는 체제)를 범犯한(이를테면, 창세를 음양오행설이 아니라 인격신 능력의 소산으로 취급하는) 위 ⑥이 마치 제주본풀이인 양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⑦ <설문대할망 아들로서의 '오백장군'> 이에 관한 것은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전술한 <오백장군과 고종달>로 대신한다.

위 ①~⑦에서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 당연시하는 견해들 중 중

요한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에게는 그런 견해들에 앞서 표명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있다. 첫째, 그것들 중 하나는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설화 본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화는 구비문학(곧, 문학)이고, 그리고 문학은 본문을 전제로 한 학문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설문대할망 전설이 본디 신화였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오늘날(곧,2020년대)까지의 60여 년 동안 이렇다 할 설문대할망 신화 본문을 제시한 바 없다. 내친김에 말하면, 최근에 한 인사가 위 ⑤와 위 ⑥을 그런 본문이라며 제시했다. 어불성설이다. ⑥은 ⑤를 한낱 모방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⑤는 제주민중 공동체 삶의 소산이 아니라 그 제공자 개인의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의 소산이니까. 참, 설화 본문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둘째, 그것들 중 다른 하나는 '설문대할망(세명뒤할망)과 그 이칭들에 대한 말뜻'을 이제는 그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의 그 60여 년 동안 설문대할망 말뜻은 '미상未詳'이라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 얼버무려 왔으니까. 아니,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해 미상이라며 기만해 왔으니까. 사실, 『탐라지 초본』(이원조, 1843년경)과 『증보 탐라지』(담수계 편, 1954년)는 말한다. 세명뒤할망(설문대할망)은 모라 몰락(1105년) 이후 종주국 한반도의 핍박과 속지 제주의 항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겨난 '민란 장두'를 뜻한다고.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는 마치 『고려사』가 "탐라는 탐진의 '탐'과 신라의 '라'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역사를 왜곡했듯이 역사를 왜곡한 파렴치한 작태인 셈이다. 셋째, 그것들 중 또 다른 하나는 '설문대할망과 마고(곧, 마고할미 · 선마고 · 서왕모 등)를 동일시하는 견해'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문대할망과 마고 등은 아무 연관 없는 인물들이니까. 즉, 기존의 그 견해는 터무니없는 것이니까. 부언하여 설명하면, 도교 소산(곧, 부계사회 소산)인 마고 등을 매개체로 모라 몰락 이후의 민란 장두 설문대할망을 모계사회 여신으로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넷째, 그것들 중 또 다른 하나는 '설화가 민중 삶의 소산(곧, 민중의식의 발로)이라는 점', 즉 '제주설화 낱낱이 제주설화라는 한 모감주염주의 낱개 모감주들이라는 점'을 명

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낱 타지 신화 본문 · 설화이론 등에 의거하여 제주설화인 설문대할망 설화를 재단(또는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타지 설화 본문 · 이론 등은 제주설화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일 수는 있으나 필수자료일 수는 없으니까.

※ 설문대할망 설화의 이해를 위한 도움말:

⑴ 설화는 문학(곧, 구비문학)이고, 그리고 문학은 본문을 전제로 한 학문이다. 이는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를 밝혀 주는 것은 오직 본문뿐이라는 말이다. 흡사 <진달래꽃>의 시 · 소설 여하를 밝혀 주는 것이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으로 시작되는 본문뿐이듯이. 그러고 보면, 본문 이외의 것들(곧, 가설 · 검증 등)은 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를 밝히는 데에는 군더더기인 셈이다.

⑵ 설화는 결코 오류(곧, 모순)를 범하지 않는다. 설화는 민중 삶의 소산, 즉 민중의식의 발로이니까. 그러고 보면, 오류를 범한 설화는 민중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곧, 위僞 설화)인 셈이다.

⑶ 설화는 생목生木처럼 자라나는 것이다. 물론 생목이 자라난다는 말은 본질을 달리하며 변질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모한다는 것이다. 마치 귤나무가 자라나 다른 과일이 아니라 귤을 맺듯이.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 신화가 전설로 변질될 수는 없는 셈이다. 그 변질은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 이를테면 증거물 · 미적 범주 등이 달라졌다는 것이니까. 물론 본질이 달라진(또는 다른) 두 설화는 동일 설화일 수 없다. 그런데도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말한다. 설문대할망 전설은 예전에는 신화였다고. 어불성설이다. / 부언하면, 설령 작금의 설문대할망 전설이 지난날 신화였다 하더라도 지난날의 그것(곧, 설문대할망 신화)은 오늘날은 설화일 수 없다. 흡사 고사枯死한 가지나 잎이 생목일 수 없듯이.

⑷ 제주인들은 설화에 대한 편견, 즉 신화는 위대한 것이고 전설은 하찮은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단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 전설을 신화로 왜곡해 왔다. 섣부른 처사이다. / 한편, 제주인들은 제주설화들을 작은 것(곧,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의 일체화를 통해 보다 큰 것(곧, 대규모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래서 설문대할망 전설과 오백장군 전설을 일체화해 왔다. 섣부른 처사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는 땅이 작다. 그러니, 설화도 어쩌면 소규모의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작은 것이 제 몸에 꼭 맞는 옷일 테니까. 내처 말하면, 탐라후예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 · 위대함 · 소중함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 "ᄌᆞ냥ᄒᆞ라, 큰 양 말앙!"이라는 선인들 가르침도 고이고이 그리고 길이길이 간직해야 한다.

⑸ 신화와 신앙은 다르다. 신화는 본문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고, 그리고 신앙은 신앙 대상을 전제로 하는(곧, 본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종교이니까. 이는 신화란 본문을 꼭 요하지 않는 신앙과는 달리 본문을 꼭 요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신화의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신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본문을 지니지 못한 인물은 신앙상의 인물일 수는 있으나 설화(곧, 신화)상의 인물일 수는 없다.

⑹ 설화가 오늘날 유의미한 것은 이면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정표로 삼을 민중사(곧, 피지배층인 민중의 생활상 등) · 민족정신 · 민중의식 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설화(또는 제주설화)에서 귀납적 방법으로 추출된 한국설화이론(또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놓고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에 주입한 일본설화이론(곧, 일본민중 설화의식)에 의거하여 제주설화를 재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제주의 민중사 · 민족정신 · 민중의식 등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작태인 셈이다. 아울러, 일제식민사관(예: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권)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인 셈이다.

⑺ 혹자는 말한다. 제주에서의 설화분류는 설화연구가들 견해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나 이는 제주설화에 대한 단견 또는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제주에서도 설화분류는 타지에서처럼 설화생성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즉, 후행後行하는 설화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행先行하는 민중 삶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제주에서는 옛말(≒전설)은 일반민중 사이에, 본풀이(≒신화)는 특수민중(곧, 무격사회) 사이에 구전되었다. 그리고 옛말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을 설명하는 것으로 민중 공

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본풀이는 직능신職能神(예: 삼승할망 · 자청비 · 가믄장아기)에게 축원하는 것으로 삶의 갖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고 보면, 제주에서의 옛말과 본풀이는 지난날은 별개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내처 말하면, 지난날 제주에는 한국설화이론 3분법에서의 민담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민중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처참한 나머지 골계미를 향유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 그럼, 제주민중 설화의식 2분법이나 한국설화이론 3분법에 따른 설문대할망 설화의 하위분류는 전설일까, 신화일까? 물론 전설(≒옛말)이다.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따르면 그것은 무격사회에서가 아니라 일반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니까. 즉, 축원사항 성취를 위한 굿에는 쓰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국설화이론 3분법에 의하면 포괄적인 증거물이 아니라 특정적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숭고미가 아니라 비장미를 자극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이 한국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놓고 일본설화이론(곧, 일본민중 설화의식)에 의거하여 '일본에서는 거인설화를 신화로 취급하니 설문대할망 설화도 애초에는 신화였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설은 오늘날 그들 후학들에 의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니, 여태 일본설화이론과 일본설화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니! 부연하여 설명하면, 21세기인 지금도 의식이 일제식민치하에 머물러 있는 자들(곧, 일제식민사관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니 언어도단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선봉에 선 『한국의 신화』 저자도 『신화와 전설』 편자도 <송기조 제보 설화(곧, '오라동 설화 23')> 제보자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학교교육을 받은 세대에 속한 인사들이다. 참, 설화이론은 일본에 토착화한 서양이론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한반도로 이식되었다.

⑻ 탐라(곧, 모라)는 망국이라 그 역사는 망각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제주(곧, 구제해야 할 고을)는 외세, 즉 한반도(고려 · 조선) · 몽골 등의 속지라 그 역사는 외세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기록(곧, 왜곡)되었다. 따라서 탐라후예의 주체적인 역사는 하릴없이 구전되었다.

즉, 구비문학의 모습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그 대표적 예가 설문대할망 설화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설문대할망 설화는 빌레왈(암반 지대) 어욱(억새)처럼 억척스럽고 서러운 제주 여인들 생활상을, 나아가서 암담한 제주 민중사의 진수를 소재로 한 역사적 전설이다. 아울러, 가히 제주문학(곧, 탐라문학)의 백미라 함 직한 것이다.

⑼ 설화의 오늘날 존재 의의는 표면(곧, 전경前景)의 기담괴설이 아니라 이면(곧, 후경後景)의 정신 · 역사 · 생활상 등이다. 그럼, 설문대할망 전설 이면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정신 · 역사 등일까? 생각건대, '장두 정신'(곧, 개척 · 도전 · 저항 · 희생 · 애향愛鄕 정신) · '망국 탐라 민중 수난사受難史' 등일 것이다. 그렇다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神話化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 있을까? 생각건대, 오늘과 내일의 제주 이정표인 예의 그 장두정신 · 수난사 등을 말살하려는, 아울러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따위를 유포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들어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탐라후예들, 즉 '무지몽매한 섬 오랑캐들'(이는 지난날 외세가 제주인들을 일컫던 용어임)은 외세 장단(곧, 설문대할망 전설은 본디 신화였다느니 설문대할망은 한반도에서 도래한 신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허언)에 현혹되어 기막히게도 덩달아 흔쾌히 춤추고 있다. 신화는 전설보다 위대한 것이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지껄여대어 가며 말이다.

⑽ 지난날 일본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기치 아래 태평양전쟁(곧, 자칭 대동아전쟁)을 일으켰고, 한반도 · 중국대륙 등지를 침략했고, 그리고 끝내는 패전의 고배를 맛보았다. 그런데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참회는커녕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한 꿈을 요즘도 꾸고 있는 듯하다. 일본 설화연구가들이 자국 설화와 중국남부 · 한국 등지 설화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고래古來로부터 동아시아는 동일문화권에 속했다"라는 주장(이는 대동아공영권 등을 염두에 둔 것임)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니까. / 각설하고, 한민족이 유서 깊은 민족임을 입증해 줄 여신(이는 모계사회 소산임) 관련 설화를 갈구해 온 한반도 구비문학계 일각, 즉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인 교사들로부터 학교교육을 받은 세대에 속한 한국 설화연구가 집단 일각에서는 거인의 지형형성 관련 설화는 신화라는 일본인들 주장(곧, 설문대할

망이 여신이라는 취지의 견해)에 고무되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에 전력을 경주했다. 이를테면, 그 신화화의 일환으로 '중국도교 선녀 마고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마고할미가 되고, 마고할미가 제주로 유입되어 설문대할망이 되고, 그리고 설문대할망이 규슈九州를 통해 일본으로 유입되어 일본신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주장(곧, 가설)을 제기했다. 나아가서, 그 가설을 철저한 검증도 없이 기정사실화(곧, 정설화)했다. 물론 그 가설의 정설화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표해록』(장한철)의 선마고를 선문대할망과 동일시함으로써 그 가설의 정설화를 시도했으니까. 아니, 부계사회 소산인 도교 선녀 선마고가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 모계사회 여신으로까지 등장(곧,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 참, 마고가 한반도와 제주를 차례로 통과하여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도 문제이다. 지난날 중국 문물(곧, 도교 · 불교 등)은 한반도와 제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통상 오늘날의 동중국해와 오키나와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을 테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한국설화이론(또는 탐라설화들)은 제쳐놓고 일본설화이론(또는 일본설화들)을 예의 그 정설화의 논거로 삼았을까? 한민족을 유서 깊은 민족으로 만들어 줄 모계사회 여신이 필요해서? 설문대할망 전설 이면의 후경(곧, 외세 핍박과 토박이 저항으로 점철된 처참한 제주역사)을 덮어 버리고 싶어서? 의식 속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축에 기여하고 싶어서? / 한편, 제주에서는 예의 그 『신화와 전설』 편자가 위 한반도 설화연구가들(곧,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 주장에 호응하여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해 선봉에 나섰다. 이를테면, 위僞 설화(곧,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주장, 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 어머니라는 주장, 설문대할망 남편은 설문대하루방이라는 주장 따위)를 퍼뜨렸다. 이리하여, 설문대할망 전설은 신화로 둔갑(곧, 변질)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임을 입증해 줄 참된 설화 본문'이나 '설문대할망 설화가 지난날 신화였음을 입증해 줄 참된 논거' 따위를 여태껏 전혀 제시한 바 없다. 내친김에 말하면,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금 930억 원을 들여 제주돌문화공원에다 설문대할망 전시관(곧, 신화관神話館)을 건립했다. 실

로 통탄하여 마지않을 일이다. 설문대할망 전설을 일본설화이론과 일본설화들에 의거하여 신화로 왜곡해 놓고, 그 왜곡된 것에 의거하여 신화관을 건립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신화관이 향후 일본 신사神社의 아류(또는 유사품)로 부상되거나 한국에서의 일제 대동아공영권 확산을 위한 선전매체로 악용되거나 하는 것은 혹여 아닐까? 이면의 알토란같은 민중사나 민족정신마저 상실한 채로 말이다.

⑾ 다음 표는 제주본풀이(≒제주신화)와 일본식 신화(곧, '일제가 조선에 주입한 신화')를 대조해 놓은 것이다.

| | |
|---|---|
| 제주본풀이 | a. 천지개벽天地開闢과 천지왕(곧, 옥황상제) 본풀이<br>b. 삼을나三乙那 본풀이<br>c. **직능신職能神** 본풀이 |
| **일본식 신화** | α. 천지분리天地分離 신화<br>β. 복수複數의 해와 달 신화<br>γ. 국토형성(거인巨人에 의한 지형형성 / 표류하는 섬에 의한 지형형성) 신화 |

위 표에서의 a · b · c는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는 것들이다. 즉, 축원사항 성취를 위한 굿에서 구송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a와 b는 c를 위한 것, 즉 직능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용도로 쓰여 온 것들이다.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의 핵심은 c인 셈이다(이는 후술할 '제2부 본풀이' 참조). / 위 표에서의 **직능신職能神**은 고유한 직능職能(예: 자식 점지, 병 치유, 축재, 풍작, 풍어, 액막이 등)을 지닌 신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위 표에서의 α(천지분리)는 위 a(천지개벽)와 설핏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양자는 실은 판이한 것이다. α는 '거인이 맞붙어 있는 하늘과 땅을 자신의 힘(곧, 인격신의 능력)으로 분리시킨 것'이고, 그리고 a는 '동動(움직임)과 정靜(고요해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예: 주돈이의 <태극도설>)이니까. / 위 표에서의 β는 위 a에서의 천지왕(곧, 옥황상제) 본풀이 중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다. / 위 표에서의 γ는 제주본풀이(≒제주신화)와는 무관한 것이다. 즉, 제주본풀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제주설화에서는 γ(곧, 지형형성 설화)를 본풀이가 아니라 옛말로 취급한다는 말이다. 물

론 ɣ는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전설이다. 증거물이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니까. 부언하면, 제주설화에서 '거인에 의한 지형형성 설화'로는 설문대할망 전설을, 그리고 '표류하는 섬에 의한 지형형설 설화'로는 비양도 전설을 들 수 있다. / 위 표에서의 **일본식 신화**를 일제로부터의 광복 이후 제주설화와 관련하여 맨 처음 거론한 한국인은『한국의 신화』저자 장주근이다. 이는 장주근이 위 일본식 신화를 수용했다는 말이다. 그럼, 그는 한국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놓고 일본설화이론과 일본민중 설화의식을 우선시한 것일까? 즉, 제주설화는 이미테이션으로, 일본설화는 오리지널로 간주한 것일까? 여하튼, 그는 왜 위 일본식 신화를 수용했을까? 혹시 설문대할망 설화를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모계사회 설화로 만들고 싶어서? 모계사회 신화를 당해 민족이 유서 깊은 민족임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여겨서? 제주와 일본은 고래古來로부터 동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등에 동조하고 싶어서? / 내친김에 말하면, 장주근은 '한반도의 거녀 마고할미 설화가 탐라(곧, 한반도 속지 제주)로 건너와 설문대할망 설화가 되고, 그리고 설문대할망 설화가 규슈九州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거인설화들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맨 처음 했다. 게다가, '작금의 설문대할망 전설은 애초(곧, 모계사회 시절)에는 신화였는데 망각되었다가 파편화되어 전설과 민담으로 되살아났다'라는 가설도 맨 처음 제시했다. 이어서, 장주근은 그 가설에 대한 검증(곧, 논거)을 한다며 '『표해록』(장한철, 1771년)에 등장하는 선마고詵麻姑가 곧 설문대할망이다'라는 발언, 부연하여 설명하면 선마고와 설문대할망(일명 선문대할망) 자형字形들이 서로 비슷하니 양자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발언도 맨 처음 했다. 하지만 이 주장 · 가설 · 발언 등은 참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의 후학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되뇌고 있다. 참, 장주근은 처음에는 마고할미를 한반도의 모계사회 여신으로 버젓이 내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고할미 전설 내용이 너무 미미한 탓에 하릴없이 속지 제주의 설문대할망을 끌어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 내처 말하면,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에 선봉 노릇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주근과

진성기(『신화와 전설』 편자)를 들 수 있다. 그중 전자는 주로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한 이론을 제공했고, 후자는 그 이론에 호응하여 이런저런 위僞 설화들을 제공했다. 그 위僞 설화들 중 하나는 설문대할망을 오백장군 어머니로 왜곡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현승환, 2012년)가 그 왜곡을 지적했다. 그러자 참을 추구해야 할 설화연구가들이 거짓을 말한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도리어 참을 말한 「설문대할망 설화 재고」를 공격해댔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사전적 정의: '이야기하기' 또는 '거짓말하기')에서 설문대할망을 오백장군 어머니로 취급하고 있으니 그 왜곡을 수용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 오류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거짓을 위해 참을 버리라니 기막힐 노릇이다. 사실, 설화는 민중 삶의 소산, 즉 민중 공동체 의식의 발로이다, 이는 설화는 '1차 사료史料'라는 말이다. 아니, 일차 사료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 스토리텔링 운운하는 자들은 설화를 설화屑話쯤으로, 아울러 스토리텔링을 거짓말하기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은 문학 영역에서는 필히 구축驅逐되어야 한다. 문학은 여타 학문이 그렇듯이 거짓이 아니라 참을 추구하는 학문이니까.

⑿ 설문대할망 전설 · 오백장군 전설 등의 신화화神話化와 일체화一體化는 희랍신화의 웅대한 규모에 매료된 제주사회 일각(곧, 구비문학 이론의 문외한들 또는 섣부른 설화연구가들)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다. 물론 희랍설화와 제주설화의 규모 면에서의 크고(웅장하고) 작은(왜소한) 차이는 당해 종족의 창작능력 차이가 아니라 '삶의 자리' 차이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이는 한 사회의 정신적(또는 예술적) 풍요는 통상 그 사회의 물질적 풍요에 기인한다는 말이다. 사실, 희랍설화는 희랍사회가 세계제국 건설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시절, 나아가서 희망 · 꿈 · 열정 등으로 충만한 시절에 거듭거듭 윤색되어 보다 풍부해진 것인 반면, 제주설화는 제주사회가 장구한 세월 동안 외세의 갖은 핍박 아래서 먹고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방치되고 또 방치되어 보다 빈약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바야흐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제주사회가 설화의 윤색 · 변조 등을 시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신화시대가 아니라 탈신화화

脫神話化 시대이다. 탈신화화란 신화의 제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론적 차원에서 신화를 재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어쨌든, 지금은 신화를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라 설화 이면의 정신을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키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이정표로 삼아야 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가 마치 신화 중독증 탓에 이성이 마비된 집단처럼 어리석게도 시대착오적인 처신을 섣불리 계속해댄다면, 예컨대 신앙(곧, 종교)이 아니라 문학인 신화를 신앙화해대거나 선사시대 산물인 신화의 변조를 공공연히 도모함으로써 그에 따른 역사 왜곡을 저질러댄다면 외세(곧, 소위 육짓놈들)는 그들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을 향해 그랬듯이 우리를 향해 멸시조로 내뱉어댈지도 모른다. "무지몽매한 섬놈의 새끼들!"이라고. 그리고 덧붙여 놓을지도 모른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지!"라고. / 부언하면, 예의 그 신화화 · 일체화와는 별도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은 제주돌문화공원이 아니라 증거물들이 있는 조천 · 신촌 해변, 물장오리, 영실 등지에 있어야 제격이라는 것이다. 흡사 옹달샘이 부산한 도심이 아니라 아늑한 숲속에 있어야 제격이듯이. 참,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증거물 소재지인 물장오리 등지를 전설지傳說地(뜻: 전설이 깃든 곳)라 한다. 뭐, 전설지? 한편으로는 설문대할망 설화를 신화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증거물 소재지를 전설지라 하다니, 삼척동자가 코웃음을 칠 일이다.

⑬ 설문대할망은 망국 후예라는 설움을 간직한 채 탐라국(곧, 이어도)을 그리며 세상을 향해 처절히 몸부림치다 장렬히 숨져 간 탐라 여인들의 전형이다. 이는 설문대할망은 탐라 구원을 염원하며 탐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 즉 늘 탐라에 눌어붙어 살며 탐라 고통에 동참한 인물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은 탐라 구원을 위한 구원자상救援者像을 여실히 예시해 주는 인물인 셈이다. 부언하면, '전설 주인공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이란 여성상이 여타 여성상 못지않게 위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여성상이야말로 탐라 미래(곧, 이어도) 건설의 원동력이란 것을 작금의 제주인들은 알기나 할까?

⑭ 인간의 불행은 어쩌면 지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는 구속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날개 달린 천사를 꿈꾸는 것일

까? 여하튼, 피지배층인 제주민중은 지배층의 핍박에서 벗어나려고 지난날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꿈을 꾸었다. 날개 달린 장수라면 관군에 잡혀 죽는 일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 아기장수의 날개는 역모逆謀를 우려한 부모의 손에 의해 그만 잘리고 만다. 그래서 민중의 그 꿈은 끝내 무산되고 만다. 그러자 민중은 이번에는 한라산만큼 큰 거인, 즉 설문대할망을 꿈꾸었다. 그런 거인이라면 관군에 잡혀 죽는 일은 결단코 없을 테니까. 게다가, 지상의 온갖 질곡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설문대할망은 다름이 아니라 제주민중 구원자상救援者像의 일면인 셈이다.

⑮ 지금은 구비문학 시대가 아니라 기록문학 시대이다. 그러니, 신화를 윤색하는 것도 전설을 신화화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짓이다. 신화는 신화시대 소산이고, 그리고 전설의 신화화는 전설 이면의 민중사 · 민족정신 · 생활상 등을 유린하는 짓이니까. / 생각건대, 설화 윤색을 굳이 고집한다면 그 대상은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어야 한다. 전설은 신화와는 달리 신화시대 같은 생성시대에 구속받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지금 강정 마을 주민 일부는 제주민중 삶을 끝내는 황폐화시키고야 말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전쟁반대 기치 아래 치열히 저항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역사적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역사적 전설 이면에는 정신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 정신은 역사와 함께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들의 그 반대투쟁 이면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정신일까? 그것은 장두(곧, 저항 · 개척 · 도전 · 희생 · 애향) 정신(이는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 구현의 정신(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만국의 빛을 지향하는 정신(이는 전술한 <애기업은여자바위와 성주바위> 참조), 자주 · 자존 · 자립 및 평화의 정신(이는 후술할 <이어도; 이여도> 참조) 등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야말로 탐라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고통도 마다지 않고 헌신하는 참된 탐라후예(곧, 삼을나 · 설문대할망 등의 후손)이고, 나아가서 이어도 실현의 참된 주역인 셈이다. / 참, 전쟁과 군대는 필요악, 아니 불필요한 해악이다. 그래서 삼을나는 무력이 아니라 협의 · 공평 등에 기반을 둔 평화를 탐라건국 방편으로 삼았고, 그리고 탐라후예도 삼

을나의 평화 정신에 기반을 둔 이어도를 줄기차게 꿈꾸어 왔다.

<이어도; 이여도>

**이어도移御島**는 **파랑도波浪島**이다. ―이는 필자가 철들면서부터 제주 도처에서 두고두고 들어온 옛말임.

[화소話素 관련 설명 / 본문本文 관련 해설]

**이어도移御島**에서의 移御의 사전적 정의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옮김'이다. 이는 탐라 왕좌가 비어 있다는 말이다. 즉, 탐라는 망국이라서 임금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어도는 '임금 없는 섬(곧, 상실한 주권)'의 상징인 셈이다. 나아가서, '주권상실로 말미암아 핍박받게 된 주권상실 이후 탐라(곧, 제주濟州)'의 상징인 동시에 '주권상실에 따른 핍박 때문에 동경하게 된 주권상실 이전 탐라(곧, 모라毛羅)'의 상징인 셈이다. / 각설하고, 기록문학(예: 시 · 소설)에서의 이어도는 개인작, 즉 개인(예: 시인 · 소설가) 의식의 소산이고, 그리고 구비문학(예: 민요 · 전설)에서의 이어도는 공동작, 즉 민중 공동체 의식의 소산이다. 그러고 보면, 전자와 후자는 별개인 셈이다. 아니, 전자는 후자의 와전인 셈이다. 물론 이 글(곧, 설화집)이 다루려는 이어도는 전자(곧, 개인작)가 아니라 후자(곧, 공동작)이다.

**파랑도波浪島**는 섬이 아니라 실은 간만干滿에 따라 출몰하는 여(곧, 암초)로 마라도 남서쪽 바다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그 여 일대에는 늘 파랑波浪이 인다. 물론 어부들과 좀수潛嫂(곧, 해녀)들은 그 파랑은 그 여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 여는 파랑도라 불리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 암초와 파랑은 지난날은 왕왕 난파의 원인이었다. 참, 오늘날 그 여에는 한국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 있다.

① 『**변방인의 세계**』(김영화,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년)는 이어도를 평론 형식으로 다룬 것이다. 다음은 그 책의 이어도 관련 부분 중 이어도 정체 파악을 위해 '의의意義 있다고 여겨진 부분들'과 '이론

異論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 부분들'을 발췌한 것이다.

1. '**이여도**'란 무엇인가: 1995년 11월 하순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2·3학년 학생들**에게 백지를 내주고 제주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여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 보라고 했다. **(中略)** 21명의 학생, 50% 이상이 이여도를 '이상향'으로 보고 있다. /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이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또는 파라다이스는 이미 하나의 공간구조空間構造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의 기억과 이미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민요, 전설, 문학작품에서는 이여도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2. 민요와 전설 속의 이여도: 제주도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한 최초의 학자는 일본인 高橋 亨이다. 그는 1929년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민요를 조사했다. (중략) 高橋 亨은 그 민요를 소개하고,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에 따른 전설이 있다고 했다. 전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시대, 몽골(원)이 제주도를 지배할 때 제주도 사람들은 소, 말 기타 토산물을 중국(몽고)에 진상해야 했다. 중국을 향하던 배들은 이상하게도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도와 중국 사이에는 이허도離虛島라는 섬이 있고, 중국을 향해 떠난 배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 이허도에 가 버렸기 때문이다. / 어느 강씨라는 사람이 공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뒤에 남은 아내는 "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되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섬 여인들의 정서적 공감을 얻어 불리게 되었다**." (중략) 결국, **이여도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제주도 사람들은 저승 세계도 이승 세계처럼 섬이라는 공간을 상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설 속의 이여도**: (전략) 이시형, 정한숙, 이청준, 김석범의 소설들에 나타난 이여도는 이상향이다. 이 점은 민요나 전설과 다른 점이다. 그것은 이여도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인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이상향으로 설정했다.

4. **시 속의 이여도**: (전략) 현대시에서도 이여도는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5. 이여도의 공간구조: (전략) 인간은 현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이상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현세의 고통을 잊었다. 그것이 문학작품으로 나타난 것이 서양에서는 토마스 모어(Sir T. More, 1478~1535)의 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이고, 동양에서는 **도연명陶淵明**(365~427)의 시 **「도화원기桃花源記」**이다. (중략) **중국 · 한국 · 일본은 동아시**

**아 문화권에 속한다**. 그런 만큼 그들은 감각이나 정서, 나아가 사상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도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유토피아보다 도연명이 생각한 무릉도원에 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도연명의 작품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하나의 톱포스(하나의 구상의 바탕에 여러 가지 문학적 모티프의 배치)로 작품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중략) 5세기 초에 씌여진 것으로 보이는 도연명의 「도화원기」가 동아시아 문인, 화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것을 톱포스로 작품을 쓰거나 그리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 · 한국 · 일본 모두 농경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런 문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향이 이 작품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시(「도화원기」)를 읽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다. 언어예술인 시를 읽고 화가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시적, 상상적 공간구조가 이 작품에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를테면 **농경민의 꿈과 이상이 있는 곳, 그곳이 무릉도원이다**. 이 작품에는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 생활이 있으며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독자나 후대의 독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여도는 어떤가? (중략) 그러나 너무 단조롭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활이 없다**. **그림으로 그린다 해도 추상적이어서 화가마다 제멋대로 그릴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인간의 생활이 묘사되고 그것이 현대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어야 한다. / 민요의 후렴구에 나오는 **"이여, 이여, ……"는 의미가 없는 어조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여도라는 섬이 있고, 그것을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것이 제주도 문화의 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여도는 제주문화사濟州文化史의 소산일 수 있다**. / **이 시대의 작가의 과제는 이여도의 공간구조를 개척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해양 문화, 도서 문화, 나아가 섬사람들의 상상 공간과 이상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 ① 관련 풀이]

『**변방인의 세계**』의 부제副題는 「제주 문학론」이다. 그럼, 이 땅(곧, 제주)은 변방이고, 그리고 이 땅의 문학은 변방문학이란 말인가? 물론 지명 제주 말뜻이 '고려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이니, '제주=변방'이라는 관계식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어도를 변방의식의 산물쯤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

어도는 폐쇄성 · 변방 · 지명 제주 등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의식의 발로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중심 의식을 갖지 못하고 늘 변방 의식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내처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중심은 모두 하나같이 다만 상대적인 중심에 불과하다. 마치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지만 우주의 중심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 탐라후예들은 이제 그만 뇌리에서 '탐라는 변방이다'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 자신이 있는 곳이 곧 중심이라는 중심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탐라후예들이 탐라 미래인 이어도의 건설을 위해서 늘 유념해야 할 제일 과제이다.

**이여도**는 오늘날은 '이어도'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여도에서의 '여'는 어쩌면 이어도에서의 '어'의 변형(곧, 선행 '이' 모음에 의한 음운 변화)의 결과(곧, 이어>이여)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 글에서는 그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칭(곧, 동일한 낱말)으로 취급한다.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2·3학년 학생들**은 이어도 민요 · 전설 등과 관련하여 대표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적절한(곧, 현상을 왜곡시킬 수 있는) 표본일 것이다. 문학작품(예: 시 · 소설)에 의해 구축된 이어도(예: 이상향)에 이미 길들여진 표본일 테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럼, 이어도 민요 · 전설 등과 관련하여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본은? 생각건대, 노년층 해녀 · 농부 등이 아닐까?

**(中略)**에는 '기록문학 관점하의 이어도에 초점을 두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기록문학(곧, 소설 · 시 등)에 등장하는 이어도는 모두 하나같이 이상향이다. 그러고 보면, 위 책(곧, 『변방인의 세계』)은 '이어도는 이상향이다'라 예단豫斷해 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어도는 결단코 오늘날의 기록문학이 말하는 이상향이 아니다. 이어도는 구비문학 소산(곧, 지난날 지배층 핍박에 시달리던 제주민중의 참담한 삶의 소산)이니까. 이는 이어도 정체正體의 파악은 기록문학이 아니라 구비문학(곧, 전설 · 민요 등)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이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또는 파라다이스는 이미 하나의 공간구조空間構造를 이루고 있고**라는 대목은 이어도가 무릉도원 · 유토피

아 및 파라다이스와는 달리 공간구조 구축을 못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생각건대, 이어도는 제주민중이 자신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들 터전을 뜨려는 데서 생긴 것이다. 이는 이어도는 개인에 의한 개인작이 아니라 민중 공동체에 의한 공동작이라는 말이다. 한편, 무릉도원은 유학 · 노장老莊 등에 정통한 지식인 도연명(곧, 시인 · 교육가 · 군인 · 관리였음)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고안해 낸 것이고, 유토피아(곧, 이상향 · 지상낙원, 이상적 정치체제 · 공상적 완전 사회조직 등)는 정치가(영국 헨리 8세의 총리대신)이며 인문주의자이며 저술가인 토마스 모어가 서양 사상의 연속성에 현저한 단절이 초래된 과도기(곧, 중세와 근세의 교체기)에 이상적 사회의 한 모형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 이는 무릉도원과 유토피아는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어도는 이어도가 아니라 당면한 삶의 자리에, 그리고 무릉도원과 유토피아는 당면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무릉도원과 유토피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셈이다. 즉, 주안점이 전자는 현실(곧, 현재)에, 후자들은 꿈(곧, 미래)에 두어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듯 상이한 양자를 공간구조 구축이라는 동일한 마름자로 마르는 것, 즉 근본적으로 다른 두 현상을 겉으로 드러나는 유사성에 의거하여 유추하는 것은 '오류유추誤謬類推(false analogy)'나 '조급한 개괄槪括의 오류(false of the hasty generalization)'를 범하는 것으로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참, 파라다이스는? 중동지방의 신화들은 신들의 생활상을 현세 권력자들의 생활상을 본떠 묘사했다. 즉, 신들이 현세 권력자들처럼 생명의 물이 흐르고 생명의 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묘한 나무들이 자라는 정원으로 둘러싸인 궁전에서 흥청거리며 사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משה가 이런 화소들을 받아들여 『구약성경』의 「창세기」(בראשית)에서 간גן-에덴עדן(גן: 정원 / עדן: 기쁨 · 환희 · 즐거움 등), 즉 '기쁨의 정원'(곧, 에덴동산)이라는 용어로 형상화해 놓았다. 이어서, 『구약성경』의 다른 낱권 「전도서」(קהלת)가 2장 5절에서 '간'(정원)과 '파르데스פַּרְדֵּס'(공원)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고, 그리고 희랍어 역본 『(70인 역) 구약성경』이 히브리어 '간-에덴'(기쁨의 정원)

대신 희랍어 파라데이소스παράδεισος[←히브리어 파르데스(공원)]를 사용했다. 그래서 희랍어 파라데이소스(공원) 역어인 영어 파라다이스 paradise는 결국 '기쁨의 정원'(곧, 에덴동산)과 동일시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파라다이스는 개인작인 무릉도원 · 유토피아나 민중 공동작인 이어도와는 달리 공동작(곧, 메소포타미아 · 페르시아 등지의 신화)에 기반을 둔 개인작(곧, 『구약성경』 저자들 소산)인 셈이다. 게다가, 파라데이소스 역어인 영어 파라다이스는 실은 서양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중동문화의 산물이기도 한 셈이다. 히브리어 파르데스가 페르시아어 파이리다에자를 거쳐 희랍어 파라데이소스로, 나아가서 영어 파라다이스로 되었으니까. 아무튼, 이어도는 참담한 현실에서의 탈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제주민중 삶의 소산이다. 따라서 공간구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설계할 필요도 없었다. 물론 그럴 여력도 겨를도 없었다. 외세 핍박에 따른 민중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말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그리스도교(곧, 『신약성경』)에서는 하느님 야훼의 거처를 파라다이스(곧, 천국)로, 그리고 하느님(곧, 빛)과 단절된 곳(곧, 천국과 대립된 장소)을 지옥으로 칭한다. 한편, 『구약성경』의 내세관은 쉐올שאול(뜻: 지하 어둠세계, 모든 사자死者의 거처, 저승 등)이다. 『구약성경』은 말한다. 쉐올은 땅의 밑바닥, 지하 심연 저편, 깊은 암흑이 지배하는 곳,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 덮인 곳, 그믐밤같이 어둠만 깔리고 깜깜한 가운데 온통 뒤죽박죽이 된 곳, 칠흑 같은 암흑만이 빛의 구실을 하는 곳 등등이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쉐올로 간다고.

**사람들의 기억과 이미지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대목은 이어도가 무릉도원 · 유토피아 · 파라다이스 등과는 달리 사람들의 기억과 이미지 속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곧, 비난), 부연하여 설명하면 분포(곧, 전승범위)도 협소하고 그 협소한 분포(곧, 제주사회) 안에서조차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처럼 들린다. 하지만 분포가 협소하다는 지적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이어도는 전설 소산이고, 그리고 전설 분포는 종족 측면에서는 씨족일 수도 민족일 수도 있고, 지역 측면에서는 단위 마을일 수도 단위 국가일

수도 있으니까. 한편, 제주사회 안에서조차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이어도는 탐라후예들의 골수에 한恨인 양 사무쳐 있고, 또 제주사회 밑바탕에 앙금인 양 침전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어도를 비롯하여 이어도 산실産室인 탐라 구비口碑 전반은 지금 풍전등화의 지경에 처해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구비가 문헌으로 박제剝製되어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는 제주사회에서 길이길이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이어도는 탐라사회가 줄기차게 지향해 온 궁극적인 이상이니까. 아울러, 기록문학이 망망대해를 여행하는 연어라면 구비문학은 그 연어가 세대교체 순간마다 하릴없이 되돌아가야 하는 고향의 강이니까.

**고려 시대, 몽골(원)이 제주도를 지배할 때 …… 처지에 있는 섬 여인들의 정서적 공감을 얻어 불리게 되었다**에 관한 설명은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아래의 [위 ② 관련 풀이]로 미룬다.

**이여도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 이승 세계처럼 섬이라는 공간을 상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에 관한 설명은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아래의 [위 ② 관련 풀이]로 미룬다.

**소설 속의 이여도** / **시 속의 이여도**. 작가가 이어도 관련 작품을 그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도화원기」(곧, 무늬만 이어도인 이상향 무릉도원) 아류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 작가는 이어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한 연후에 그것을 작품 소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작품은 무릉도원 아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특수성과 보편성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다. 내친김에 말하면, 이어도가 이상향과 결부된 것은 무릉도원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결부의 선봉에 선 이들은 실은 이어도 관련 전설 · 민요 등의 향유자인 탐라 토박이들이 아니라 이어도 내막은 모른 채 무릉도원에만 익숙한 한반도인들이었다. 물론 이어도는 동아시아적인 무릉도원도 서양적인 유토피아도 중동적인 파라다이스도 아니다. 그러고 보면, 이어도는 지금 이상향이라는 명찰을 단 채 저 멀리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흡사 쿠로시오에 실려 까마득히 흘러가는 한 척의 테우처럼.

**도연명陶淵明**(곧, 「도화원기」 작가)은 동진(東晋, 317~439)의 원훈元勳 도간의 증손이다. 그는 '손은孫恩의 난' 때에는 진군참군鎭軍參軍이

되어 종군했고, 그리고 환현桓玄의 막하幕下에도 한때 있었다. 그 후 향리로 돌아갔다가 405년 평택 현령이 되었는데 겨우 80일 만에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고 귀농했다. 그는 유가적 · 노장적 기질이 다분히 있었다. 오늘날 그는 전원시인 또는 은일시인隱逸詩人의 으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참, 동진은 진晉[위魏의 권신權臣 사마염司馬炎이 삼국, 곧 위魏 · 촉蜀 · 오吳를 평정하여 중국을 통일한 서진西晉(265~316)]이 북방 5호五胡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자 양쯔강 이남으로 옮겨 가 난징南京을 도읍으로 삼은 중국 남부의 국가로 남북조시대의 남조南朝 전신前身이다. / 생각건대, 그의 본향인 중국 북부는 당시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할거割據로 인한 전화戰禍 탓에 농지가 황폐해지고 유·이민이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서 사회 전반이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로 이것이 「도화원기」 출현의 동인動因이었을 것이다.

**「도화원기桃花源記」**. 아래 「도화원기」 본문은 위 『변방인의 세계』가 『陶淵明』(장기근 편저, 태종출판사, 1975, 331~334쪽)에서 인용한 것 중 일부를 재인용한 것이다. "진나라 태원년간에, 무릉 사람으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물길을 따라갔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모를 무렵, 홀연히 복숭아꽃 숲이 눈앞에 나타났다. 양쪽 강을 끼고 수백 보 거리에 온통 복숭아나무뿐이며, 다른 잡목은 하나도 없었다. 또한 향기로운 풀들이 싱싱하고 아름답게 자랐고, 복숭아 꽃잎이 펄펄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다. 어부는 이상히 여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그 복숭아 숲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자 했다. 숲은 강 상류에서 끝났고, 그곳에 산이 있었으며, 산에는 작은 동굴이 있고 그 속으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어부는 즉시 배에서 내려 동굴 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동굴은 처음에는 몹시 좁아 간신히 사람이 통과할 수 있었으나, 수십 보를 더 나가자 갑자기 탁 트이고 넓어졌다. 토지가 평평하니 넓고 집들이 정연하게 섰으며 기름진 논밭과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사방으로 길이 트였고 닭과 개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마을에서 오락가락하며 농사를 짓는 남녀의 옷차림은 다른 고장 사람들과 꼭 같았으며,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들 즐거운 듯 안락하게 보였다. 어부를 보자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어부가 자세히 대답하자, 그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내고 닭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 마을 사람들도 어부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와서 저마다 물었다. 집주인이 말했다. "우리 선조가 진(秦)나라 때의 난을 피해 처자와 마을 사람을 이끌고 이 절경으로 와 다시 나가지 않았으

므로 결국 바깥세상 사람들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냐고 묻는 것을 보니 그가 한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 뒤로 위나라, 진나라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듯했다. 어부가 지난 역사를 자세히 얘기해 주자 모두들 놀라며 감탄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어부를 초대해 가서 술과 밥을 대접했다. 어부는 며칠을 묵은 후 작별하고 떠났다. 그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부는 마을을 벗어나 배를 얻어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군데 표식을 했다. 읍에 이르자 태수를 찾아 그대로 보고를 했다. 태수는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어부가 표식을 한 곳을 찾아가게 했으나, 결국 길을 잃고 도화원으로 통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남양의 유자기는 고결한 은사였다. 그 소리를 듣고 기꺼이 몸소 나섰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다. 그 후로는 뱃길을 찾는 사람이 다시는 없었다."[晉太元中 武陵人捕魚爲業 (中略) 後遂無問津者]

**중국 · 한국 · 일본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물론 탐라도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어도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에 점철되어 있는 약소민족(곧, 피지배 민족) 수난사受難史로서의 탐라 민중사에 관한 문제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세계도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유토피아보다 도연명이 생각한 무릉도원에 더 마음이 끌렸다**. 유토피아보다 무릉도원이 그들(곧, 동아시아인들) 마음에 더 끌렸다는 점을 들어 이어도를 이러쿵저러쿵 재단(또는 평가)하는 처사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릉도원과 이어도는 별개이니까. 즉, 무릉도원은 액면 그대로의 미래 지향적인 것(곧, 이상향)이고, 이어도는 과거 지향적인 것(곧, 있는 자의 있음이 넘침 없고 없는 자의 없음이 모자람 없는 세상 모라耄羅)과 현재 지향적인 것(곧, 죽지 못해 사는 세상 제주)을 동시에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것이니까. / 내친김에 말하면, 왜 작금의 탐라 토박이 예술가들은 자기 정체성의 뿌리인 탐라국을 작품 소재로 삼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향이라는 위僞 이어도에 편승하여 마치 백일몽을 꾸며 잠꼬대하듯 실없는 허언들이나 늘어놓을까? 하기야, 탐라후예들 수난사가 철저히 사장되고 왜곡되고 유기되고 망각되어 있는 마당에 어찌 어느 누구를 탓하랴.

**농경민의 꿈과 이상이 있는 곳, 그곳이 무릉도원이다**. 무릉도원이 농경민의 꿈과 이상이 있는 곳이라면, 이어도는 농경민의 비애 · 절

망 · 한 · 체념 · 저항 · 분노 · 염원 따위만이 있는 곳이다. 사실, 지난날 제주에서의 농경은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이 못 되었다. 농경이 있는 곳에 가혹한 수탈이 따랐으니까. 아니, 농경만이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이 그랬다. 그래서 제주민중은 가급적 수탈을 피하려고 어로 활동에 치중했다. 해산물은 농산물 · 축산물 · 임산물 따위와는 달리 과세대상이 되기 전에 현장(곧, 바닷가)에서 관아 몰래 감쪽같이 먹어 치울 수 있었으니까. 아무튼, 지난날 제주에서의 경제활동에는 극심한 수탈(곧, 관官의 혈세나 토호들의 횡포 따위)이 수반되었다. 그래서 제주민중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암담하고 끔찍하기만 해서 오매불망 이어도를 그렸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은 결국 불모의 땅, 아니 외세의 구제를 받아야 할 고을, 즉 자의 그대로의 제주濟州로 영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여도는 어떤가? (중략) 그러나 너무 단조롭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활이 없다**는 "이어도는 이상향이다"라는 허상을 전제로 한 단견이다. 사실, 이어도에는 '처참하고 암울한 삶의 자리' · '한계상황' 및 '그 자리나 상황 따위에 처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몸부림'이 들어 있다. 바로 그래서 지난날의 제주민중은 단 한 수의 이어도 관련 민요에도 소위 카타르시스를 겪었던 것이다.

**그림으로 그린다 해도 추상적이어서 화가마다 제멋대로 그릴 가능성이 있다**에서의 추상성抽象性과 자의성恣意性은 이어도 허상을 다룬 작품들이 필연적으로 띠게 되는 경향일 것이다.

**"이여, 이여, ……"는 의미가 없는 어조사일 수도 있다**라고 혹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이어도의 실상實像을 오인한 데서 온 단견일 것이다. 생각건대, 의미 없는 한낱 어조사 "이여, 이여, ……"가 지난날 제주민중의 심금을 어찌 집단적으로 울릴 수가 있었겠는가? 이는 "이여, 이여, ……"에서 이여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은 이여도에서 "이여, 이여, ……"가 나왔다는 말이다.

**이여도는 제주문화사(濟州文化史)의 소산일 수 있다**는 지당한 견해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니 본질적으로는 이어도는 피지배 민족 수난사受難史로서의 제주 민중사의 소산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작가의 과제는 이여도의 공간구조를 개척하는 일이다**

는 이어도가 이상향이라는 오인에 기인한 편견이며 단견일 것이다. 아니, 이어도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망국 모라毛羅와 구제해야 할 고을 제주에 기반을 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새로운 공간구조를 더 필요로 한단 말인가? 그러니, 이 시대의 탐라 토박이 작가는 이어도의 공간구조가 아니라 이어도의 정체 파악에 천착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학에서의 이어도는 무릉도원 · 유토피아 · 파라다이스 등의 아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어도 전설 · 민요 이면의 모라 · 제주 역사나 정신(곧, 민족정신 · 민중의식) 따위를 와전하는 오류도 면할 수 있다.

[2] 아래의 이어도 관련 내용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466~468쪽)에서 발췌한 것이다.

**想像의 섬** '이여도': 濟州島 民謠 중 대부분의 勞動謠 후렴에는 '이여이여 이여ᄒᆞ라', '이여이여 이여도방애'와 같이 '이여도'라는 어휘가 나올 뿐 아니라, 歌詞의 본문 중에도 '이여도'라는 말이 나타난다.

**[謠1] 이엿 문은 저싱 문이여 / 이여도 질은 저싱 질이여 / 가난 올 충 몰르더라 / 신단 보선에 볼받아 놓곡 / 입단 옷에 풀ᄒᆞ여 놓앙 / 애가 카게 지들려도 / 다신 올 충 몰르더라.**

**[謠6] 이여ᄒᆞ난 나 눈물난다 /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 / 이여도가 반이옌 ᄒᆞᆫ다.**

**[謠7] 이여도 문은 이문이여 / 이문 뒤엔 방축이여 / 방축 뒤엔 연꼿이라라 / 연꼿 귀경 좋아라마는 / 연꼿 귀경 ᄒᆞ젠 ᄒᆞ난 / 못 돌아오더라.**

이 '이여도'에 대해서 전승이 있으니, "**이여도란 濟州島 南西海 중 중국으로 가는 航路에 있다는 섬으로 濟州島의 進上船이 中國으로 가던 도중이 섬의 波浪으로 難破되는 일이 흔했었다고 전해 오는 섬**"이다. (중략) 上例의 謠를 음미해 보면 이별의 섬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요, 죽음의 섬이라는 성격을 추출할 수 있다.

[謠1]은 '이여도'의 길은 저승길이라 하여 애타게 기다려도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이라 했다. 물론 破船으로 인해 다시 못 돌아오는 것임을 노래한 것일 수도 있으나, 濟州島의 男丁들이 中國에 進上 가다가 破船당한다는 사

실은 後代的인 일이요, 그 이전에 죽음의 섬의 觀想이 있고, 이 想像島에 進上 航海 중 破船事實이 결부된 것이라 볼 것이다. / [謠6]은 이여도의 위치를 江南과 海南의 중간이라 하고 눈물의 섬임을 노래했다. / [謠7]은 '이여도'는 연꽃이 만발한 낙원 같은 것으로서 그 꽃구경 때문에 못 돌아온다고 노래하고 있다. 연꽃이 만발했다는 이 이미지는 불교의 저승, 극락의 모습을 전입시켜 부른 것이라고 보인다.

종합하면, **'이여도'는 아득히 먼 해상에 있는 섬으로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별의 섬이요, 눈물의 섬이며, 저승과 대등한 死後의 나라이다. 이 觀念은 古代 他界觀의 잔존이리라**. 이것이 後代의 進上 도중 破船의 悲哀와 결부되어 변형 설화되고 民謠로까지 부르게 된 것이라 본다.

[위 ② 관련 풀이]

**想像의 섬**과 '전술한 ①에서의 이상향'은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사전적 정의가 '상상의 섬'에서의 想像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미루어 생각함'이고, '이상향'에서의 理想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이니까. / 각설하고, 위 대목(곧, '상상의 섬')은 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가 이어도를 상상의 섬으로 전제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어도는 상상의 섬이 아니다. 이어도는 망국후예인 제주민중의 삶의 소산이니까. 그러고 보면, 위 ②는 논리학이 말하는 '선결문제요구의 오류'(petitio principii), 즉 '부당가정의 오류'(fallacy of undue assumption)를 범한 것인 셈이다. 증명되지 않은 결론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제로 받아들인 경우의 오류 말이다.

**[謠1]** · **[謠6]** · **[謠7]**. 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가 제시한 이 민요 3수는 『제주도 민요 연구 · 상』(김영돈, 일조각, 1984, 4~6쪽)에 실려 있는 이어도 관련 민요 7수 중 첫째 것 · 여섯째 것 · 일곱째 것이다. / 그것들 설명은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다.

**이여도란 濟州島 南西海 중 중국으로 가는 航路에 있다는 섬으로 濟州島의 進上船이 中國으로 가던 도중 이 섬의 波浪으로 難破되는 일이 흔했었다고 전해 오는 섬**(이하: 전설B). 한국설화이론은 말한다. 전설은 증거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는 전설이 자기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증거물을 끌어대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이 자기 존재

를 드러내려고 전설을 꾸며내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증거물이 선행하고 전설이 후행한다는 말이다. 한국설화이론은 또 말한다. 전설은 증거물을 먹고산다고. 이는 전설은 증거물을 꼭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즉, 전설은 증거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설화이론은 또한 말한다. 전설 증거물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 즉 확정적인 것이라고. 이는 확정적인 증거물 없는 전설은 전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럼, 현실적(예: 시각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전설 증거물이란 있을 수 없을까? 아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증거물은 '불안정한 증거물'이다. 기억이 사라지고 나면 그와 관련된 증거물도 하릴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테니까. 그러고 보면, 확정적인(곧,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이야말로 전설의 전제조건(또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 각설하고, 이어도 전설 향유자인 제주민중은 '위 대목'(곧, 전설B)에서의 '濟州島 南西海의 섬'을 파랑도(곧, 이어도)라 불러왔다. 이는 이 섬(곧, 파랑도)이 다름이 아니라 전설B의 증거물이라는 말이다. 한편, 제주민중은 위 전설B에서의 '濟州島의 (중국행) 進上船'에 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그 진상선도 전설B 증거물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 진상선은 불안정한 증거물이다. 그것은 그와 관련된 기억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릴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테니까. 물론 기억이란 유한하여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위 전설B는 위 『제주도 민요 연구 · 상』 4쪽에 첨부된 註를 위 『무속신화와 문헌신화』가 인용한 것이다. / 위 전설B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래 대목'(이하: 전설A)과 대비해 가며 마저 한다.

**고려 시대, 몽고(원)가 제주도를 지배할 때 제주도 사람들은 소, 말 기타 토산물을 중국(몽고)에 진상해야 했다. 중국을 향하던 배들은 이상하게도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도와 중국 사이에는 이허도(離虛島)라는 섬이 있고, 중국을 향해 떠난 배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 이허도에 가 버렸기 때문이다. / 어느 강씨라는 사람이 공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뒤에 남은 아내는 "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되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섬 여인들의 정서적 공감을 얻어 불리**

**게 되었다**(이하: 전설A). 이 대목(곧, 전설A)은 전술한 ①에서의 『변방인의 세계』가 高橋たかはし 亨きょう(이하: 다카하시)의 이어도 관련 채록採錄(1929년)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전술한 [위 ① 관련 풀이]에서 일단 설명을 유보해 두었던 것이다. / 각설하고, 이어도 전설 향유자인 제주민중은 위 전설A에서의 '이허도離虛島'가 제주도와 중국 사이 어느 지점의 어떤 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전설 증거물은 확정적인(곧,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이허도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 이허도는 전설A 증거물일 수 없는 것인 셈이다. 한편, 제주민중은 제주의 (중국행) 진상선에 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전설A의 진상선도 전설A 증거물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 진상선은 전설B에서의 진상선처럼 관련 기억이 사라지면 하릴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불안정한 증거물이다. 그러고 보면, 전설A는 실은 전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 셈이다. 확정적인(곧,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이 전무하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전설A 후반부(곧, '어느 강씨라는 사람' 이하)는 고조선古朝鮮 노래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를 설핏 연상시킨다. 이는 공무도하가에 익숙한 사람이 이 전설을 윤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아니, 그 후반부와 공무도하가의 유사함은 어쩌면 민중의 삶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제 전설A 증거물들과 전설B 증거물들을 대비한 아래 표에 의거하여 이어도의 정체正體(곧, '이어도 원형原形'과 '이어도 실상實像')를 파악해 보자.

| | | |
|---|---|---|
| 전설A | 이허도(제주도와 중국 사이의 섬, 곧 ?) | 제주도 진상선 |
| 전설B | 이여도(제주도 남서해의 섬, 곧 파랑도) | 제주도 진상선 |

위 표에 의하면, 전설A에는 불안정한 증거물(곧, 중국행 진상선)은 있지만 전설 존립기반인 확정적인 증거물(곧, '전설B에서의 파랑도에 상당하는 것')이 없다. 이는 전설A는 전설일 수 없다는 말이다. 확정적인 증거물이 전무하니까. 따라서 전설A에서는 이어도의 정체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럼, 확정적인 증거물(곧, 파랑도) 있는 전설B로 눈을 돌리자. / 위 표에 의하면, 전설B에서는 제주의 (중국행) 진상선이 제주 남서해 방향으로 항행했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는 오류(곧, 모순)이다. 쿠빌라이(원세조元世祖)는 도읍을 난징南京에서 대도大都(곧, 현 북경)로 옮기고 대도에서 내몽고 상도上都에 이르는 지역 일대를 중앙정부의 직할지로 삼아 1271년 원元 왕조를 열었고, 그리고 제주도의 중국행 진상선은 원 왕조가 탐라에 탐라국초토사를 둔 1273년 6월부터 주원장이 원을 멸하고 명明 왕조를 세운 1368년 1월 이전까지의 얼추 95년 동안 탐라 북서쪽 항로를 통해 대도 동쪽의 산뚱반도 일대 연안으로 항행했으니까. 즉, 당시 제주의 중국행 진상선은 탐라의 남서 방향(곧, 파랑도 쪽)이 아니라 북서 방향(곧, 산뚱山東반도 쪽)으로 항행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전설B는 대립된 두 화소(곧, '제주 남서쪽에 위치한 파랑도'와 '제주 북서쪽으로 항행한 진상선')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럼, 그 당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증거물인 중국행 진상선을 제거해 버리자. 전설 존립기반인 확정적인 증거물 파랑도를 제거해 버릴 수는 없으니까. / 그런데 전설B에서의 중국행 진상선 화소는 어찌 생겨난 것일까? 생각건대, 그것은 전설A에서 온 것이 혹여 아닐까? 그럼, 전설A에서의 중국행 진상선 화소는? 그것은 어쩌면 전설A 채록자 다카하시가 제주에 대한 일제 핍박을 희석시키려는 저의 아래 날조해 놓은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개연성은 열려 있다. 그가 전설A를 채록한 1929년경은 이 땅의 역사 · 정신 · 정체성 등이 일제에 의해 무자비하게 왜곡되던 맹목의 시대이자 야만의 시대였으니까. 사실, 당대 일본 지식인들은 흡사 일제 별동대인 양 한반도 일대에서 사료도 변조하고 고분도 도굴하고 지맥도 훼손했다. 그렇다면, 다카하시가 자기 조국에 대한 빗나간 사명감 · 애국심 등을 품고서 이어도 전설에서의 '모종의 화소'를 '중국으로의 진상이라는 화소'(곧, 중국행 진상선 화소)로 대체해 놓은 것은 혹여 아닐까? 모종의 화소? 돌이켜보면, 탐라가 고려에 복속된 938년 이후의 탐라역사는 외세의 핍박과 토박이 민중의 저항으로 점철된 비운의 역사였다. 이는 938년 이후 탐라후예(곧, 제주민중) 삶의 최악의 걸림돌은 외세(곧, 고려→ 몽

골→ 고려→ 조선)의 갖은 핍박이었다는 말이다. 물론 일본도 14세기 경부터 장장 육백여 년 간 제주를 상대로 갖은 만행을 저질러댔다. 하지만 시간과 망각이란 정말 묘약妙藥 같은 것이었다. 지난날의 온갖 핍박과 그로 인한 한恨을 시나브로 삭혀 주었으니까. 그럼, 다카하시가 제주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닌 1929년 무렵의 제주민중에게 '삶의 최악의 걸림돌'과 '미처 삭지 않은 한'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당면한 일제 핍박'과 '아직은 기억에 생생한 조선의 핍박(예: 출륙금지령, 제주자제濟州子弟 징발령 등)으로 말미암은 한'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면, 전설A는 무모하게도 자신의 존립 기반인 파랑도마저 희생시켜 가면서 '당면한 일제의 핍박'과 '기억도 생생하고 한도 채 삭지 않은 조선의 출륙금지령 · 제주자제 따위'(곧, '모종의 화소') 대신에 '장장 550여 년이 지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한도 푹 곰삭아 버린 중국으로의 진상'을 화소로 삼는 일대 모험을 감행한 셈이다. 그리하여, 예의 그 화소(곧, 중국행 진상선)를 전설B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출륙금지령과 제주자제? 출륙금지령은 조선왕실의 세원稅源 확보를 위해 제주인은 제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조선 조정이 내린 명령이고, 제주자제는 조선 조정이 하급무관下級武官으로 쓰려고 매년 징발한 제주 장정들이다. 부언하면, 제주자제라는 말의 이면에는 제주는 자제子弟(곧, 아들 · 동생), 즉 종속국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부형父兄(곧, 아버지 · 형), 즉 종주국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 내친김에 말하면, 전설A에서의 화소 이허도는 어찌 생겨난 것일까? 생각건대, 그것은 어쩌면 전설A에서의 본디 이어도가 일본인 다카하시의 농간에 의해 감상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이허도離虛島(곧, '이별離別과 허무虛無의 섬')로 대체(곧, 왜곡)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어도에서의 '이어移御'(곧, 상실한 주권의 상징)가 전설A 채록자 다카하시에게는 '일제에 대한 저항'을 연상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참, 일개인이 기존 전설을 왜곡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한 일이다. 결국에는 그 왜곡의 진상이 반드시 그리고 명명백백히 백일하에 드러나겠지만 말이다. 만사는 사필귀정이니까. 이를테면,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요즘 설문대할망 전설을 유치하고 어설프고 볼썽사나운 사이비 신화, 즉

제주도 형성 신화로 왜곡시켜 놓았다. 게다가, 오백장군 전설과도 결부시켜 놓았다. 이로써, 그 두 전설은 하릴없이 자기 모태인 제주 민중 삶의 자리(곧, 생활상 등)를, 나아가서 설화의 작금의 존재 의의인 이면의 역사나 정신 따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가 왜곡임은 미구에 반드시 그리고 명명백백히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 여하튼, 전설B에서 불안정한 증거물이면서 출처마저 의심스러운 중국행 진상선을 제하고 나면 확정적인 증거물 파랑도만 남는다. 여기서 "이어도=파랑도"라는 관계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바로 이 관계식이 '이어도 실상'의 실마리가 될 '이어도 원형'이다. 그럼, 이제 이 이어도 원형을 기반으로 하여 이어도 실상을 밝혀 보자. / 대관절 탐라후예인 제주민중은 왜 하필이면 파랑도를 이어도로 여기게 되었을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파랑도가 탐라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였을 것이다. 모라毛羅 몰락(1105년) 이후의 제주 민중사에 의하면, 북쪽 · 서쪽 · 동쪽은 핍박 세력인 외세(곧, 고려 · 원 · 조선 · 일본)의 본거지, 즉 닫힌(곧, 절망적인) 통로인 반면, 남쪽은 외세 없는 탈출구, 즉 열린(곧, 희망적인) 통로였으니까. 나아가서, 파랑도가 탐라 남해의 섬, 아니 만조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간조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유일한 암초여서였을 것이다. 해면 상하로 부침하며 허연 포말을 토해 내는 그 암초가 언뜻언뜻 삶의 한계상황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는 제주민중(곧, 제주)을 연상시켰을 테니까. 여기서 "이어도=파랑도=탐라 남쪽(또는 탐라 남해의 암초)"(이하: α)이라는 관계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민중이 파랑도를 이어도로 여기게 된 또 다른 까닭은 모라 몰락 후의 제주 민중사가 외세의 핍박 · 회유 등과 제주 토박이들의 저항 · 체념 등으로 점철된 비운의 역사여서였을 것이다. 그 역사가 제주민중으로 하여금 외세 핍박이나 회유 따위에 저항도 하고 체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어移御(곧, '임금이 거처를 옮김'→ '왕좌가 비어 있음')하여 형극의 속지로 전락해 버린 탐라(곧, 민중 삶이 흡사 만조에 물에 잠겨 할딱거리는 파랑도처럼 한계상황에 처해 신음하는 제주)를 직시하게끔 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주독립국 탐라(곧, 평화롭고 행복했던 탐라인의 본향 모라毛羅)를 동경하게

끔 했을 테니까. 나아가서, 핍박 세력 없는 파랑도 너머 남쪽 어딘가에 어쩌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을지도 모를 '모라를 닮은 세상'(즉, '탐라사회 일각의 본향')에 대한 막연한 향수鄕愁를 회상하게끔 했을 테니까. 여기서 "파랑도=제주"(이하: β)라는 관계식과 "파랑도=모라=모라를 닮은 세상"(이하: γ)이라는 관계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참, 탐라사회 일각의 본향? 그것은 사방에서 흘러든 유·이민이 합심하여 세운 나라 모라毛羅의 구성원 중 신적 존재가 용출종지聳出從地한다는 믿음을 간직한 채 쿠로시오에 실려 온 소위 남방계 종족이 지난날 그렸던 고향을 두고 하는 말이다(이는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 여기서 위 α · β · γ를 종합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이어도=파랑도=제주=모라"라는 관계식이 나온다. 이는 탐라 남해의 파랑도는 이어도의 상징이자, 나아가서 삶의 한계상황에 처한 제주의 상징인 동시에 꿈속에서도 그리는 모라의 상징이라는 말이다. 바로 이것이 '이어도의 실상'이다. 내처 말하면, 파랑도가 삶의 한계상황에 처한,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제주의 상징이라는 것은 제주민중 좌절(곧, 절망)의 발로이고, 그리고 파랑도가 꿈속에서도 그리는, 그래서 찾아가고 싶은 모라의 상징이라는 것은 제주민중 꿈(곧, 염원)의 발로이다. 그러고 보면, 이어도 전설은 좌절과 꿈(곧 '핍박받는 제주의 현실 인식에 따른 비애', '외세 핍박에 대한 저항 의식', '임금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곧, 독립 자존해야 한다는) 염원', '주체성 · 정체성 · 자긍심 등을 확립하려는 태도', '탐라후예들 무의식의 심연에 앙금처럼 침잠해 있는 본향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 등)이 이면에 들어 있는 '꿈 있는 비극'(곧, '전형적인 전설')인 셈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탐라후예와 한반도인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민족異民族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출륙금지령이나 제주자제 징발령 같은 냉혹한 정책들이 제주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민족 의식(곧, 탐라후예가 그리는 이어도가 북쪽의 한반도가 아니라 남쪽의 파랑도라는 인식)은 한반도 치하 탐라후예에게는 삶의 최악의 걸림돌이었다. 흡사 파랑도가 어로 도중 맞닥뜨리게 되는 최악의 걸림돌(곧, 난파 원인)이었듯이. 부언하면, 소위 4·3사건의 냉혹성 근저에도 예의 그 이민족 의식이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여도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제주도 사람들은 저승의 세계도 이승의 세계처럼 섬이라는 공간을 상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여도'는 아득히 먼 해상에 있는 섬으로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이별의 섬이요, 눈물의 섬이며, 저승과 대등한 死後의 나라이다. 이 觀念은 古代 他界觀의 잔존이리라**. 위 두 대목 중 빗금 부호 앞쪽 것은 전술한 [위 ① 관련 풀이]에서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 설명을 미뤄 두었던 것이다. / 각설하고, 위 두 대목이 공히 표명하는 바는 지난날 탐라에는 저승은 해상의 섬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관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념(곧, 타계관他界觀)의 흔적이 곧 이어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명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구비문학이 말하는 이어도는 기록문학이 말하는 이어도와는 달리 이상향도 상상의 섬도 저승도 아니니까. 게다가, 탐라에 저승도 해상의 섬이라는 관념이 있었다면 마치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에 매장 풍습을 연상시키는 용출종지聳出從地 화소(곧,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이야기)가 등장해 있듯이 제주의 민속이나 설화 등에 수장水葬 풍습을 연상시키는 용출종수聳出從水 화소(곧, 신인이 물이나 바다에서 솟아났다는 이야기)가 등장해 있을 법도 한데 그것들 어디에서도 그런 화소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니까. / 부언하면, 전술한 ①이 이어도를 한편으로는 이상향이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승의 흔적이라 한 것도 위 표명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하는 까닭이다. 이어도가 이상향인 동시에 저승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상향과 저승을 동일시한 것이니까. 아니, 이상향은 꿈(곧, 희망)의 소산이고 저승은 좌절(곧, 절망)의 소산인데 어찌 그 양자를 동일시한단 말인가? 사실, 인간은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려고(곧,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고) 꿈을 꾼다. 즉, 이상향을 그린다. 그런데 이상향을 좌절 중의 좌절인 죽음(곧, 저승)과 동일시하다니 어불성설이다. 또한, 전술한 ①이 한편으로는 이어도의 공간구조에 대해 운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어도를 저승의 흔적이라 한 것도 위 표명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하는 까닭이다. 이어도가 저승의 흔적이라면 이어도의 공간구조[곧, 죽음(곧, 사자死者)이 아니라 삶(곧, 생자生者)을 위한 자리]는 화사첨족일 테니까. / 참,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삼을나(곧, 모라건국)>에서의 벽랑국은 어쩌면 위 타계관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뭐, 벽랑국이 저승의 흔적이라고? 어불성설이다. 벽랑국은 '푸른 물결 너머 나라'라는 뜻으로 지난날 한때 일본국을 가리키던 명칭이었으니까(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 참고삼아 말하면, 소위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제주가 속지라서 제주민중은 모라 몰락에서 일제강점기 직전까지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한반도의 무단통치하에서 혹독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사실이 탄로 날까 노심초사하여 제주전설 이면의 역사 · 정신 등을 일쑤 왜곡해 왔다. 이어도를 이상향이니 상상의 섬이니 저승이니 하며 호도해 온 것도 설문대할망 전설을 신화라며 억지를 부려 온 것도 어쩌면 그런 왜곡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謠1] 이엿 문은 저싱 문이여 / 이여도 질은 저싱 질이여 / 가난 올 충 몰르더라 / 신단 보선에 볼받아 놓곡 / 입단 옷에 풀ᄒᆞ여 놓앙 / 애가 카게 지들려도 / 다신 올 충 몰르더라.** [해석: 이어도 문(예: 지난날의 제주도 관문 건들개)은 저승(곧, 죽음)으로 난 문이여 / 이어도 길(예: 제주도와 한반도 사이의 물길)은 저승(곧, 죽음)으로 난 길이여 / 가니 올 줄 모르더라. / 신던 버선은 볼 받아 놓고 / 입던 옷은 풀 먹여 놓고 / 애타게 기다려도 / (일단 가니) 다시는 올 줄 모르더라.]

[보충 해설] 이를테면, 제주자제로 징발되어 육지(곧, 한반도)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배에 실려 떠난 산저포山底浦, 즉 건들개[巾入浦]는 저승으로 난 문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사실, 제주자제 중 대다수는 제주 장정들을 거느리고 남해안 일원에서 왜구들과 대적해야 했으므로 일단 선발된(또는 징발된) 이들이 살아서 환향還鄕한다는 것은 그리 순탄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 지난至難한 일이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훗날의 징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득남得男하고도 관아에는 여아女兒로 신고하는 일이 왕왕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제주는 여다女多의 섬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여다'는 이 땅 토박이들의 피맺힌 한이 어려 있는 굴절된 역사의 산물이라는 말이다. / 부언하면, 제주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이 있다. '지난날은 여자들이 남자들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 '제주인들은 자립심이 강해서 부모와 자식이 한

울안의 안채와 바깥채에 살아도 살림만은 따로 했다는 이야기' 등이 그 예例이다. 전자는 제주라는 속지에 대한 한반도의 경영전략의 일개 잔재였다. 즉, 한반도인들은 제주 남자들의 저항의식과 독립의지를 꺾을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제주 여자는 여장부로 추켜세운 반면, 제주 남자는 좁쌀영감이라며 조롱해댔다. 게다가, 그들은 남존여비 사상에 따라 자신들이 하찮게 여겨 온 여자들에게 제주 남자들이 기생한다고 모함해댐으로써 제주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망국지민亡國之民의 패배감 · 좌절감 · 무력감 따위를 들쑤셔댔다. 후자는 한반도 치하 제주인들의 생존전략의 일개 잔재였다. 지난날 제주인들은 혈세에 시달렸다. 게다가, 부모 · 자식 가정 중 한쪽이 세금을 미납하면 다른 한쪽이 대납해야 하는 불이익도 당했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철저한 분가, 즉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선택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는 의식, 그것은 지난날 제주에서의 생존의 전제前提였다.

**[謠6] 이여ᄒᆞ난 나 눈물난다 /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 / 이여도가 반이옌 ᄒᆞᆫ다.** [해석: (네가 이 형극의 땅을 탈출하여 이어도를 찾아간다 하니, 나는 이별이 못내 서럽다. 그래서 탄식조로) '이여' 하니, 나는 (울컥) 눈물이 난다 / (그러니,) 이엿 말(곧, 이어도를 연상시키는 말)은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 (아무튼,) 강남(곧, 양쯔강 남쪽 지역)에 닿거들랑 해남(곧, 해남도海南島 쪽)을 보아라. / (탐라사회 일각의 본향) 이어도는 (해남도가) 반(곧, 중간 지점)이라 하더라.]

[보충 해설] 지난날 얼마나 많은 탐라후예가 외세의 갖은 핍박(곧, 혈세 · 출륙금지령 · 제주자제 징발령 등)에서 벗어나려고 생이별이란 뼈저린 아픔마저 감내해 가며 이어도를 찾아 떠났을까? 한편, 남은 자들은 맑은 날 수평선 위로 함초롬히 돋아난 섬들을 바라다보며 생각했으리라. 떠난 자들은 저 섬들에서 잘살고들 있을 거라고.

**[謠7] 이여도 문은 이문이여 / 이문 뒤엔 방축이여 / 방축 뒤엔 연꼿이라라 / 연꼿 귀경 좋아라마는 / 연꼿 귀경 ᄒᆞ젠 ᄒᆞ난 / 못 돌아오더라.** [해석: 이어도(곧, 파랑도) 문은 (들어가기 만만찮은 별세계) 대문이요 / (그) 대문 뒤(곧, 너머)에는 (파랑波浪, 곧 '제주의 갖은 풍파'를 막아 주는) 방죽이 있고 / (그) 방죽 뒤에는 연꽃(곧, '연꽃 세상'→ '연꽃 만발한 별세계')이 있더라. / (그런데) 연꽃 구경은 좋더라마는 / 연꽃 구경을 하려고 하니 /

못 돌아온다더라.]

[보충 해설] 출륙금지령으로 마치 가축처럼 갇혀 사육되다시피 한 제주민중에게는 이 제주란 섬은 지옥이나 진배없는 형극의 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도 안 떠날 수도 없는 이 지긋지긋한 섬에 꼼짝없이 갇힌 채 하릴없이 상상했으리라. 탐라후예가 그리는 별세계는 외세(곧, 고려 · 원 · 조선 · 일제) 없는 파랑도 너머 남쪽에 있을 거라고. / 내친김에 말하면, 출륙금지령이야말로 한반도의 탐라에 대한 결정타였다. 이로 말미암아 천혜의 땅 탐라는 자의 그대로의 제주濟州(곧 절망과 죽음, 빈곤과 기아, 질곡과 핍박, 유기와 불모, 무지와 문맹 등으로부터 구제해야 할 고을)로 영락해 버렸고, 그리고 탐라후예는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그리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출륙금지령에 기막혀하는 이들을 더욱더 기막히게 한 것은 그 금지령의 발령 원인이 탐라후예인 제주인의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서의 해적질이라는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이었다. 내막은 조선왕실 재정財政을 위한 세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이어도를 그리며 제주를 이탈한 사람들 중 한반도 남해안에 표착하게 된 자들은 입에 풀칠을 하려고 도둑질을 하기도 했다.

**※ 이어도 전설의 이해를 위한 도움말:**

⑴ 구전에 의하면, 모라耗羅(곧, 탐라국)는 구성원이 모두 하나같이 ᄌᆞ냥(←존 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있는 자의 있음도 없는 자의 없음도 지나침 없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세상이었다. 아무튼, 탐라인은 모라 건국(곧, 기원전 200년경에서 기원후 70년경 사이) 이후 마치 빌레왈(암반지대)에서도 고사하지 않는 어욱(억새)처럼 검질기게 독립자존을 지켰고, 그리고 수렵 · 어로 · 농경 · 목축 등으로 풍족한 삶을 영유하면서, 또 인접국들과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렇다면, 탐라국은 고려 · 몽골 · 조선 등에 염증을 느낀 훗날의 탐라인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그리운 본향이 아니었을까? 참, 작금의 제주인은 한반도에 염증을 느낄까, 안 느낄까? / 938년(태조 21). 고려가 탐라로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요구했다. 이에, 탐라국왕 고자견高自堅은 순순히 태자 말로末老를 고려 조

정으로 보내어 조현朝見하게 했다. / 1105년(숙종 10). 고려가 국호 모라乇羅를 폐하고 탐라군을 두었다. 이로써, 탐라국은 왕궁 · 국왕의 호칭이 각각 성주청星主廳 · 성주로 격하되었다. 이는 탐라국이 몰락했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때부터 한반도 출신 관리가 지방관으로 부임해 오면서 과도체제인 이원집정체제二元執政體制(곧, 성주 · 지방관 공동통치체제)가 실시되었고, 그리고 조공 대신 징세가 실시되었다. 한편, 고려 조정은 무단통치 · 소외정책 등으로 일관했다. 즉, 탐라를 핍박했다. / 1211년경. 고려 무신정권이 지명 탐라眈羅(뜻: 왕후지지王侯之地)를 속국의 지명으로는 과분하다며 제주濟州(뜻: 구제해야 할 고을), 즉 속지로 개칭했다. / 1273년. 고려를 정복한 몽골군이 삼별초 진압이란 명분하에 고려군을 앞세워 이 땅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그들은 삼별초를 진압한 후에도 이 땅에 눌러앉아 갖은 만행을 저질러댔다. 이를테면, 농산물 · 해산물 · 축산물 등에 대한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수탈을 자행했다. 또 여자도 공출했다. 그 대상은 처녀와 과부였다. 아니, 탐나는 유부녀가 있으면 서슴없이 그 남편을 살해해 버리고 공출했다. 또한, 왜국 정벌을 이유로 선박도 공출했다. 참, 축산물 공출에는 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자국으로 반출하기에 앞서서 밭 주변에다 방목해 놓고 그것들이 농작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밭담들을 허물어 버리기도 했다. 한편, 몽골은 탐라가 고려 속국이 아님을 천명하려고(곧, 고려의 징세를 차단하려고) 지명 제주를 탐라로 복원했다. 그 와중에 탐라인은 외세, 즉 소위 육짓놈들(곧, 고려인 · 몽골인)은 수탈자라는 의식과 아울러 외세에 대한 배타심, 나아가서 적개심을 체득하게 되었다. 게다가, 망국의 설움과 조국의 소중함도 절감하게 되었고, 정의로웠고 풍요로웠고 평등했고 안락했던 탐라국 시절을 그리며 모라 재건도 꿈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탐라인의 몽골군에 대한 본격적인 항거가 한라산 · 산방산 · 별도봉 등지에서 벌어졌다. 백골(또는 아흔아홉골) · 용ᄆᆞ루(용머리) · 애기업은여자바위 등의 제하에 전설이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리만큼 치열히 말이다. 이에, 몽골은 탐라인의 저항의식 · 독립의지 따위를 꺾기 위해 원元과 고려에서 풍수쟁이들을 끌어들여 왕후지지로 이름난 이 땅의 지맥들을 그들로 하여금 끊게 함으로써

망국민亡國民인 탐라인의 패배감 · 좌절감 · 무력감 등을 조장했다. 하지만 탐라인은 굴하지 않고 항거하여 몽골군을 몰아냈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탐라국 시절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또다시 고려의 강점强占과 핍박이 탐라후예의 꿈을 산산이 부수었다. / 1374년(공민왕 23) 원이 패망하고 명이 건국되자 고려는 명나라 허락을 받아 다시 탐라를 복속시킨 후 그 지명을 도로 제주로 개칭했다. 이는 탐라가 고려 속지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날의 이원(성주 · 지방관)집정제도를 복원시켰다. / 1392년. 조선이 탐라에 대한 고려의 강점과 핍박을 계승했다. / 1402년. 조선 태종이 제후 격인 성주를 관리 격인 도지관都知管으로 격하시켰다. 즉, 원元 치하에서도 명맥을 유지해 온 성주제도를 폐지했다. / 1445년. 조선 세종은 도지관 제도마저 폐지했다. 이는 탐라국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 버렸다는 말이다. 이로써, 이원집정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아주 사라지고 지방관 독주체제가 확립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한반도에서 파견되어 온 지방관을 비롯하여 관리 · 관속은 절원조정絶遠朝廷이라는 상황을 악용하여 본격적으로 파렴치한 수탈을 자행했다. 반면, 주민들은 참다 못해 간간이 관에 항거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은 동북아의 요충지에서 한반도의 변방으로, 동북아 역사의 전면에서 한반도 역사의 뒷전으로, 왕후지지에서 불모지로, 그리고 부서富庶(이는 탐라건국 이념임)의 땅에서 최악의 유형지로 전락해 갔다. / 내친김에 말하면, 조선 치하 제주관아에서는 매년 개화기가 되면 각 가정의 귤밭 · 텃밭 등지에 있는 귤나무 현황을 세세히 파악하여 귤나무 대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귤나무 열매들이 알밤만 해지면 나무마다의 열매 수효를 일일이 헤아려 그 대장에 기록해 놓고 그에 의거하여 수확기에 징세했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는 낙과는 생기는 족족 주워 모아 잘 간수해 두어야 했다. 안 그랬다가는 세금을 포탈하려고 수확량의 일부를 빼돌렸다 하여 가중 징세되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범법자로 구인되어 곤장을 얻어맞았으니까. 따라서 귤나무는 애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아니, 모든 농·축·임산물이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은 홧김에 그것들을 없애어 버리기도 했다. 아니, 없애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은 갈수록 빈한해지고 황폐해져만 갔다. / 내처

말하면, 한반도인들은 ᄌᆞ냥하는 탐라 남자들을 두고 좁쌀영감이라 조롱했다. 좁쌀만 먹어서인지 대범하지 못하다면서 말이다. 수탈 때문에 좁쌀로 연명하는 것도 억울한 노릇인데, 탐라후예는 업심마저 당해야 했다. 또한, 한반도인들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제주로 보내라고 거침없이 지껄여대면서 이 땅을 비하해 왔다. 탐라인의 피땀 어린 숱한 말들을 공출해 간 대가가 배은망덕하게도 모멸이었다. 아니, 조선이 이 땅에서 공출해 간 것은 한낱 망아지만이 아니었다. 조선은 이 땅의 젊은이들(예: 제주자제)도 징발했다. 주로 남해안 일대에 출몰하는 왜구를 격퇴하는데 소모품으로 쓰려고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는 탐라인의 독립의지 · 저항의식 등을 근절시키려 들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명 탐라 대신 제주를 권장했다. 아니, 강제했다. / 반면,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제주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언제까지나 마냥 쓸 수만은 없어서 '임금이 거처를 옮긴 섬'이라는 의미의 이어도移御島라는 용어를 고안해 냈다. 임금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말이다. 한편, 한반도 치하 관아의 혈세 · 징발 등에서 벗어나려고 적잖은 탐라후예가 관아 손길이 닿지 않는 한라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이웃 외지로 이주하려고 배에 몸을 싣기도 했다. / 그러자 한반도 조정은 조선 세종 이래 불문율이 되다시피 한 출륙금지령(곧, 제주인은 제주를 떠날 수 없다는 영令)을 성문화함으로써 마치 짐승을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듯이 탐라후예를 가두어 사육하려 들었다. 이리하여, 탐라후예의 인접국 왕래는 극소수 상인의 한반도 왕래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봉쇄되었다. 따라서 이 땅은 갈수록 고립되어 결국 절해고도絶海孤島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일련의 산업(곧, 무역업 · 조선업 · 수산업 등)도 몰락해 버렸고, 인접국들과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해 온 경제도 파탄지경이 나고 말았다. 그러니, 제주민중은 단 한 번의 풍수해 · 한해 · 병충해 등으로도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고, 그리고 가난을 숙명인 양 양어깨에 짊어진 채로 살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제 탐라후예는 터전 제주에서 살 수도 안 살 수도 없는 기막힌 신세에 처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맑은 날이면 수평선 위로 함초롬히 드러나는 섬들을 하염없는 시선으로 바라다보며 애틋이

이어도를 그렸다. 그런데 이 땅은 조선 세종 이후 제주에서의 본격적인 한반도화韓半島化 정책에 따라, 아울러 정치적인 이유로 한반도에서 밀려난 적객들과 억불숭유정책에 쫓겨 한반도에서 흘러든 무격들의 증가에 따라 한반도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반면, 탐라 토박이들은 갈수록 탐라국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갔다. 먹고살기에 여념이 없어서였다. 그러다 보니, 이어도마저 한반도 문화에 물들어 갔다. 즉, 이 땅의 당대 적객들과 무격들 사이에서 이상향(또는 상상의 섬)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들은 한반도로부터 축출된(곧, 현실에서 도태된), 그래서 무릉도원에 대한 애착이 각별한 이들이었으니까. 여하튼, 이제 이어도는 이상향 따위의 동의어로 간주되면서 급기야 잡다한 이야기들, 이를테면 이어도는 무릉도원이 있는 중국으로 가는 해로 위의 섬이라는 이야기, 이어도 입구의 석문石門 앞에는 마치 무릉도원 입구에 복사꽃 만발한 숲이 있듯이 연꽃 만발한 연못이 있다는 이야기, 일단 이어도로 간 사람은 그 황홀경에 정신 팔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어도는 서럽도록 맑은 날이면 선명한 수평선 위로, 아니 이어도를 그리는 자들 시야 저 멀리로 마치 곡두처럼 불쑥 불거졌다 스러진다는 이야기 등등을 파생시켰다. 한편, 탐라후예들은 외세 핍박에 시달리다 지친 나머지 차라리 죽음, 즉 저승을 원하기도 했다. 사람이란 삶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면 때로는 체념하고서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어도는 하릴없이 저승과도 결부되었다.

⑵ 모라毛羅 몰락(1105년) 이후 탐라후예들은 외세 핍박에 시달리느라 삶이 한계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릴없이 활로를 암중모색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그들은 '구제받아야 할 고을'이라는 의미의 치욕스러운 지명 제주에 갈음하려고 '임금이 자리를 뜬 섬'이라는 의미의 이어도移御島라는 명칭을 고안해 내었다. 한편, 그들은 맑은 날이면 수평선 위로 함초롬히 드러나는 섬들을 바라다보며 문득문득 모라毛羅(곧, 탐라인의 본향)를 떠올렸다. 사람은 역경에 처하게 되면 왕왕 행복했던 지난날들이 그리워지는 법이니까. 아울러, 지난날의 모라 같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필시 탐라 남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서쪽에

는 원元이, 북쪽에는 고려 · 조선이, 그리고 동쪽에는 왜가 있으니까.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 뇌리에 아련히 새겨져 있는 기억의 편린과도 조우했다. 그 편린이란 다름이 아니라 모라毛羅 건국시조 삼을나 선조 중 일부의 본향은 신적 존재가 용출종지(뜻: 땅에서 솟아남) 방식으로 출현한다는 신화가 구전하는 남방(곧, 유구 · 대만 · 중국 남부 · 동남아 등지) 어딘가에 있고, 그리고 그 길목에 암초 하나가 마치 이정표인 양 박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그들은 그 길목을 자신들 본향의 관문으로 여겨 필사의 각오로 찾아 나섰고, 끝내 그 암초(곧, 파랑도)를 찾아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얀 포말을 머리에 인 파랑을 거듭거듭 일으키며 해수면 상하로 쉴 새 없이 부침하는 그 암초 모습에서 물질을 하느라 깊은 탄식보다 더 피맺힌 하얀 숨비소리(뜻: 숨 비우는 소리)를 허공에 토해 가며 저승 같은 바다 속을 사력을 다해 들락거리는 자신들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아니 죽어가는 죽음의 섬(곧, 제주)을 연상했다. 이리하여, "파랑도는 이어도의 상징이자, 나아가서 제주의 상징인 동시에 모라의 상징이다"라는 전설이 이 땅에 구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 전설은 일제강점기에도 명맥을 이어갔다. 이 땅에 대한 외세 핍박이 일제 핍박으로 가중되었으니까. 그런데 일제 핍박에도 불구하고 탐라후예들은 '이어도행行'(곧, 파랑도 너머 남방으로의 탈출) 대신 '일본행'을 선택했다. 일본행은 지난 9백여 년 간의 지긋지긋한 외세 핍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으니까. 게다가, 젊은이에게는 신新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길이었고, 줌수潛嫂에게는 경쟁자(곧, 해녀) 없는 곳에서의 물질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다. 기미가요마루きみがとまる(곧, 군대환君가代丸)가 제주 성산포와 일본 간을 정기적으로 오갔고, 누구나 요금만 내면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자 일본은 지척지지咫尺之地로 다가든 반면, 파랑도(곧, 이어도)는 아스라이 멀어져 갔다. 한편, 일본 어패류 수집상들이 그 배편으로 성산포를 들락거리며 특히 생복生鰒 수집에 열중했다. 이에, 성산포 줌수들은 전복을 캐러 먼 바다(곧, 파랑도)까지 나갔다. 제주 근해의 전복은 강화도조약(1876년) 이후 일본 잠수기 선단의 약탈적 어로로 급격히 고갈되어 가는 형편이었으니까.

참, 성산포 상上즘수라서 일제 강점기에 파랑도로 물질을 다녔던 필자 외할머니는 당신 체험담을 어린 시절의 필자에게 들려주곤 했다. "이어도 전복은 크기가 달덩이 같은 새색시 얼굴만 한 것들도 있었다. 네 눈빛처럼 반짝이는 흑진주를 품은 것들도 있었고 말이다. (중략) 너울이 너무 심해서 물질을 할 때에는 태왁을 배에다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했지." 라고. 여하튼, 일본행으로 인해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가던 이어도는 전복으로 인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제가 패망했고, 군대환도 전복 수집상들도 성산포를 아주 등졌다. 그러자 최고가價의 이어도산産 전복은 바로 그 최고가 탓에 찾는 발길이 뜸해졌고, 그래서 파랑도에서의 물질 풍경도 자취를 감췄다. 따라서 이어도 전설도 퇴색되어 갔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민중사를 품은 설화說話가 아니라 흥밋거리(곧, 이상향 · 상상의 섬 · 저승 등) 관련 설화屑話로 왜곡되면서 와전되어 갔다.

⑶ 이어도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기록문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설 · 민요 같은 구비문학에 의해 구전되어 왔다. 이는 이어도 전설은 사상가나 예술가의 사상 · 작품 따위처럼 정형定形의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부정형不定形의 생목 같은 것(곧, 민중의 좌절과 꿈을 먹으며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즉 본질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날로 변모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흡사 화석이나 골동품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 삶의 변모에 따라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⑷ 이어도 전설은 전설 발생목적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역사적 전설이다. 물론 역사적 전설은 지배층 소유물인 역사와는 달리 피지배층(곧, 민중) 소유물이다. 그런데 역사적 전설은 지배층 통제 아래서 구전되려면 반어법 같은 수사법상 표현기법이나 가식적인 화소 따위를 통상 필요로 한다. 지배층을 현혹시켜야 하니까. 이는 역사적 전설은 표리表裏가 마치 투명한 빛과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다르듯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역사적 전설의 해석에는 모름지기 삶의 자리라는 여과기가 꼭 필요하다. 빛의 분석에 프리즘이 꼭 필요하듯이. 이는 삶의 자리와 동떨어진 역사적 전설 해석은 당해 전설 향유 공동체 역사의 왜곡을 초래하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⑸ 이어도는 모라 몰락 이후의 제주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창窓인 동시에 그 역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들(예: 제주, 아흔아홉골, 설문대할망, 오백장군, 뱀굴, 용ᄆᆞ루, 붉은오름, 애기업은여자바위)을 총괄할 수 있는 최적의 용어이다. 아니, 제주 민중사의 골자이다.

⑹ 전설의 오늘날의 존재 의의는 그 이면에 정신 · 역사 · 교훈 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어도 전설 이면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 있을까? 그것은 망국 역사는 기껏 구비에 기생하여 명맥만 어렴풋이 유지하기 마련이고, 아니 가뭇없이 소멸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망국민은 때로는 가축 취급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⑺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라는 시쳇말이 있다. 이는 맹목적인 말이므로 그만 버리고 "좋은 것이 우리 것이어야 한다"라는 합리적인 말로 대체해야 한다. 한편, 이 세상의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거나 시의 적합한 것이거나 당대에 앞선 것이므로 각각 차례로 겸허히 버리고 누리고 맞이해야 한다. 그럼, 이어도는 어떤가? 그것은 우리 것이라 맹목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버려야 할 것도 아니다. 즉, 그것은 이치에 닿아서 좋은 것이고 시의 적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 누리고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어도는 탐라사회가 계속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인 셈이다.

⑻ 이어도 찾기는 본디는 외세 핍박에 기인한 구원 열망의 소산이며 자주의식의 발로였다. 또한, 귀소성歸巢性(곧, 고향 · 뿌리 · 자아 찾기)의 표출이었다. 그러고 보면, 작금의 이어도 찾기는 본디의 그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이어도를 이상향이니 저승이니 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 땅의 정체성의 진수인 탐라나 모라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방치해 둔 채 주체성도 자존심도 없이 속지屬地 이칭異稱인 제주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을 버젓이 달고 '역사 바로 세우기'니 '위대한(혹은 더 큰, 혹은 빛나는) 제주 건설'이니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 왜곡되고 유기된 채 시나브로 스러져만 가는 이 땅의 뿌리 · 얼 · 꿈 및 민중사에 고목생화枯木生花의 기적을 일으킬 인물은 언제쯤 나타날까?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후예는 단군 할아버지가 한국의 유일한 뿌리라는 진부하고 유치한 맹신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한다. 모라毛羅도 한국의 또 하나의 뿌리이니까.

⑼ 암흑의 기나긴 터널을 바야흐로 빠져나온 탐라후예는 지금 목전의 눈부신 햇살에 정신 팔려 있다. 이어도 찾기도 망각한 채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미구에 제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이어도 찾기를 모색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향후 찾을 이어도는 과거의 그것에 의거하여 추론해 보면, 인간의 열등의식이나 보상심리 따위의 산물인 제일주의에 짓눌려 허둥지둥 살아가는 세상, 시장경제원리 · 민주주의 · 법치주의 따위의 명분에 밀려 인간 존엄성이 농락당하는 세상, 원리 · 원칙 · 제도 · 재물 · 권력 · 학식 · 신분 · 종교 · 인종 · 이념 · 사상 같은 이 세상 갖은 우상 때문에 인간이, 특히 약자가 희생되는 세상 따위가 아니라 있는 자의 있음도 없는 자의 없음도 지나침 없는 세상, 즈냥(곧, 겸손) · 모흥毛興 · 이타利他 같은 탐라의 이상들이 생활화된 세상 따위일 것이다. 이는 이어도는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속의 이상향도 저승이나 피안 같은 내세도 아니라 현세에서의 현실, 즉 실현 가능한 사회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이어도 찾기는 결코 유치한 언어유희가 아닌 셈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그것은 일류국가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물질적 풍요, 즉 한없는 탐욕을 위해 만사 제쳐놓고 매진하는 질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행보인 셈이다.

⑽ 생각건대, 탐라후예는 빌레왈 어욱처럼 고통에 단련된 종족이다. 그러니, 그들은 언젠가 고통이라는 반석 위에다 자신들의 궁극적 이상인 이어도를 꼭 구현시켜 놓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이어도는 '임금이 떠난 섬'이 아니라 '만국의 빛'이라고. 혹은 '세계 평화의 중심지'라고. 참, 이스라엘 민족은 근 이천 성상을 망국의 설움을 간직한 채 하느님 나라라는 미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의 의미를 시의 적절하게 거듭거듭 재해석해 가며, 즉 구체화하고 심화시켜 가며 타향살이를 굳건히 견디어 내더니 마침내 잃었던 고국을 되찾았다. 이는 어언 천년을 망국의 설움을 간직한 채 이어도를 그리며 외세의 핍박을 버티어 낸 탐라후예에게는 가히 귀감이 될 만한 사례이다.

⑾ 왜 사람들은 자꾸 역사로 눈을 돌릴까? 역사 속에 위대한 피가 서려 있어서일까? 혹은, 역사가 없으면 인물이 없고, 그리고 인

물이 없으면 정신도 사상도 꿈도 미래도 없어서일까? 물론 역사를 망각한 사회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흡사 탐라(곧, 모라) 역사를 망각한 채 위僞 이어도를 그리는 작금의 제주사회처럼.

⑿ 어찌된 까닭일까? 안보와 국방을 미국에 맡긴 채로 호의호식하고 가무 즐기며 흥청대는 한국사회를 바라다보노라면 망국亡國 이미지 어린 이어도가 연상되는 것은 말이다.

## <결어結語>

Ⅰ. 제주전설이 오늘날 유의미한 것은 제주민중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곧, 민중사 · 정신 등)가 그 이면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Ⅱ. 한국구비문학 전설분류 중 발생목적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전설은 역사적 전설 · 설명적 전설 · 신앙적 전설로 분류된다.

Ⅲ.「제1부 광의의 옛말」에서는 역사적 전설(곧, 민중사가 어려 있는 전설)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까닭은 그것이 문학성 측면에서 여타(곧, 설명적 전설 · 신앙적 전설)보다 뛰어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면에 어김없이 정신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정신이란 민중사(또는 역사)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Ⅳ. 제주의 역사적 전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라 몰락(1105년) 이후의 제주 민중사를 꼭 알아야 한다. 제주의 역사적 전설은 모두 하나같이 모라 몰락 이후 제주민중의 삶의 소산(곧, 민중의식의 발로)이니까. 이는 제주 역사적 전설들 이면의 민중사 · 정신 등은 일관성(곧,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흡사 하나의 모감주염주를 구성하는 일련의 모감주들처럼. 그러고 보면, 제주 민중사야말로 제주의 역사적 전설을 간파할 수 있는 창窓 또는 프리즘인 셈이다.

Ⅴ. 일제강점기 · 4·3사건 · 6·25전쟁 등을 겪고 난 1950년대 말엽부터 제주사회가 다방면에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구비문학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구비문학이 기록문학에 밀려 퇴조하면서 문헌화文獻化되어 갔고, 설화들이 관광용 스토리텔링이라는 미명하에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되어 갔으니까. 그 와중에 맹목적인 친일 인사들(곧, 일본설화를 추종하는 몇몇 한국설화연구가)은 제주전설인 설문대할망 전설 · 오백장군 전설 · 비양도 전설 등을 한국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놓고 일본설화이론(예: “거인 또는 표류하는 섬에 의한 국토형성 설화는 신화이다”), 즉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에 주입한 것으로 오늘날은 청산해야 할 일제잔재’에 의거하여 일본신화의 아류로 둔갑(곧, 왜곡)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설문대할망 전설 등을 두고 본디는(곧, 모계사회 시절에는) 신화(곧, 일본신화와 동궤同軌의 것)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가설은 터

무니없는 것이다. 설문대할망 전설과 오백장군 전설은 모라 몰락(1105년) 이후에, 그리고 비양도 전설은 1002년경 이후에 생겨난 것이니까. 즉,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은 모라 몰락 이후의 외세 핍박과 탐라민중 저항의 와중에 생겨난 인물들이고, 비양도는 1002년경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이니까. 게다가, 신화가 전설로 바뀌었다는 것은 설화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이니까. 아니, 어떻게 설화가 본질을 달리해 가며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물론 본질이 다른(또는 달라진) 설화들은 동일 설화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맹목적인 친일 인사들의 그 추종행위(곧, 일제강점기 일본 설화연구가들 가르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친일행위)는 일본설화는 오리지널이고 제주설화는 이미테이션이라는 자기비하 의식(곧, 식민시절 노예근성)의 발로요, 나아가서 일제의 정치구호(곧, 대동아공영권 · 내선일체 등)를 옹호하려는 속셈의 발로는 혹여 아닐까? 내친김에 말하면,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은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에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모자母子 관계로 취급하고 있으니 설화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화는 생목처럼 자라는 것이라는 설화이론을 범한 발언이다. 생목이 자란다는 말은 둔갑한다는 말이 아니라 흡사 복숭아씨앗이 자라나서 다른 열매가 아니라 복숭아를 맺듯이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구체화되고 심화된다는 말이니까. 게다가, 설화는 민중 삶의 소산이라는 설화이론도 범한 발언이다. 민중 삶은 스토리텔러나 설화연구가 등이 표명하는 설화 관련 이론이나 견해 따위와는 별개이니까. 물론 설화에서의 민중(곧, 주체)은 설화연구가도 스토리텔러도 아니라 '화자와 청자'(곧, 설화 본문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자들)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또는 전설)이다"라 단언하는 평자評者는 더는 설화에서의 민중(곧, 주체)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Ⅵ. 사서史書 속 제주역사는 지배층(곧, 한반도)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이는 그 역사는 피지배층인 제주민중 입장에서는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주체적인 제주역사는 제주가 속지라서 유린되고 왜곡되고 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제주민중사를 간직한 제주의 역사적 전설은 소중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 제2부 본풀이(곧, 신화)


■ <서序>(305)

■ 제1장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화
<삼을나(곧, 모라건국)>(313)

■ 제2장 전래되어 토착화한 본풀이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352)
<삼승할망(곧, 산신産神)과 마누라(곧, 마마신媽媽神)>(357)
<초공(곧, 본맹두 · 신맹두 · 삼맹두 및 유씨 부인)>(362)
<이공(곧, 꽃감관: 사라도령 · 원강암 및 할락궁이)>(368)
<삼공(곧, 가믄장아기)>(372)
<차사(곧, 강님)>(376)
<멩감(곧, 사만이)>(384)
<세경(곧, 자청비 · 문도령 · 정수남이)>(386)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 정낭지신 · 측도부인 등)>(393)
<사신蛇神 칠성>(396)
<나주羅州 기민창饑民倉 조상>(401)
<송당(곧, 금벡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403)
<내왈당(곧, 천자또마누라)>(407)

■ <결어結語>(409)

# 제2부 본풀이(곧, 신화)

## <서序>

Ⅰ.ⅰ. 구비문학은 학문이고, 그리고 학문의 도구는 신앙(또는 맹신)이나 감성感性 따위가 아니라 이성理性과 직관直觀이다.

Ⅰ.ⅱ. 설화는 구비문학(곧, 문학)이고, 그리고 문학은 본문을 전제로 한 학문이다. 따라서 설화는 반드시 본문(곧, 원론적으로는 마치 소설처럼 인물 · 주제 · 플롯 등으로 구성된 것)을 필요로 한다.

Ⅰ.ⅲ. 제주설화가 오늘날 유의미한 까닭은 그 이면에 제주민중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곧, 역사 · 정신 등)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Ⅰ.ⅳ. 한국설화이론에 의하면 설화는 신화 · 전설 · 민담으로 삼분된다(설화분류 3분법). 한편, 제주민중 설화의식에 의하면 설화는 본풀이(곧, 위 3분법에서의 신화에 상당한 것) · 옛말(곧, 위 3분법에서의 전설에 상당한 것)로 이분된다(설화분류 2분법). 이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는 위 3분법에서의 민담에 상당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 까닭은 민담은 골계미를 추구하는 것인데 모라 몰락(1105년) 이후의 제주사회는 모진 외세 핍박에 시달리느라 골계미를 추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설화분류는 인류의 보편성과 아울러 환경의 특수성(곧, 지역성)에 달린 문제인 셈이다.

Ⅱ.ⅰ. 설화의 하위개념인 신화는 신앙(곧,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의 문제이다. 이는 신화는 본문 유무有無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과는 달리 반드시 본문을 요한다는 말이다.

Ⅱ.ⅱ. 신화는 ❶ '신神이나 신적神的 존재에 관한 설화'이다. 이를테면, 그리스 신화는 본격적인 신이, 그리고 제주 본풀이는 신적 존재(곧, 초인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신처럼 여겨지는 인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이다. 물론 신이나 신적 존재가 주인공인 설화라 해서 반드시 신화인 것은 아니다. ❷ '원인론적原因論的 설화'(곧,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따위의 기원 · 질서 등을 설명한 이야기)이다. 물론 원인론적 설화라 해서 다 신화도 아니고, 신화라 해서 다 원인론적 설화도

아니다. 이를테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 <바닷물이 짜게 된 내력담> 등은 원인론적인 설화이지만 신화가 아니라 민담이고, <칠성 본풀이>(곧, 지신地神이며 곡신穀神인 사신蛇神 칠성의 내력담)는 신화이지만 원인론적인 설화가 아니다. ❸ '신성시神聖視되는 설화'이다. 그런데 이상의 셋 중 ❶은 기존의 신화 정의이고, ❷는 유럽에서의 19세기까지의 신화 정의이고, 그리고 ❸은 20세기 인류학자들이 비非유럽 세계의 광범위한 신화 자료에 접하면서 위 ❶ · ❷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은 ❸이 보다 보편타당한 신화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성시되지 않는 설화'는 오늘날은 신화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Ⅱ.ⅲ. 신화의 분포(곧, 전승범위)는 민족(또는 부족 · 씨족)이나 국가(또는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신화의 분포는 원칙적으로는 민족이나 국가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는 한韓민족은 그리스 신화를 신화로 인정하지만 그것에서 단군신화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숭고성(곧, 신성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신성성이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것이니까. 한편, 신화는 국경 · 종족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민담과는 달리 전파(곧, 이주)에 의해 타지로 확산되는 경우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화는 민족이나 국가의 뿌리이니까. 참, 신앙의 경우는 예외이다. 물론 신앙(곧, 종교)은 신화가 아니다. 부언하면, 신화의 분포는 국가나 민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를테면, 단군신화는 씨족신화로 발아하여 오늘날 민족(또는 국가) 신화로 확대되어 있고, 삼을나신화는 민족(또는 국가) 신화로 발아하여 오늘날 씨족신화로 축소되어 있다. / 참고삼아 말하면, 전설의 분포는 넓게는 국가이고, 좁게는 단위마을이다. 전설은 향유 공동체의 동질성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고 민담의 분포는 세계이다. 민담은 흥미 위주의 것이니까.

Ⅱ.ⅳ. 미적美的 범주로는 신화는 숭고미를, 전설은 비장미를, 그리고 민담은 골계미를 지향한다. / 한편, 증거물로는 신화는 포괄적인 것을, 전설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을 갖는다. 그리고 민담은 대체로 증거물이 없지만 간혹 포괄적인 것을 증거물로 갖는다.

Ⅱ.ⅴ. 신화의 신성성(곧, 숭고성)은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

원하고 근원적인 어떤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신 또는 신적 존재(예: 용감한 인간)의 '현실에서의 용감한 행위'에 반응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신성한 느낌이다. 예컨대, 탐라 · 고구려 · 신라라는 무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한 삼을나신화 · 주몽신화 · 탈해신화의 신성성은 삼을나 · 주몽 · 탈해가 각각 자신의 숙명적 시련에 맞서는 투지 넘친 용감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참, 여기서의 '용감한'은 '위대한'으로 대체될 수 있는 낱말이다.

Ⅱ.vi. 난생卵生 · 강림降臨 · 용출종지聳出從地 화소는 신화의 신성성을 위한 장치들이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던 신화시대 사람들의 자연숭배 사상의 소산이다[곧, 난생 ←태양 숭배 / 강림 ←하늘 숭배 / 용출 ←대지(또는 굴) 숭배].

Ⅲ.i. 신화시대의 사전적 정의는 '신화로만 알려진, 역사시대 이전 시대'이다. 한편, 구비문학이 말하는 신화시대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대한 자연 속에서의 위대한 행위로 여김과 동시에 자신들 중 용감하게 산 자의 넋은 죽어 소멸되지 않고 신적 존재(곧, 숭배대상으로서의 또 하나의 자연)로 환생한다고 여겼던 시대'이다. 이는 구비문학에서의 신화란 신화시대 사람들의 삶(곧,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대하고 신성한 자연 속에서의 위대하고 신성한 행위로 여겼음)과 의식[곧, 그들은 용감하게 산 자의 넋은 죽어서 숭배대상으로서의 또 하나의 자연(곧, 신적 존재)이 된다고 여겼음]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화의 밑바탕에는 신화시대 사람들의 사상이나 의식 따위(곧, 자연숭배 · 정령숭배 · 영혼불멸 등)가 깔려 있는 셈이다.

Ⅲ.ii. 탐라사회에서 신화시대가 막을 내린 것은 언제쯤일까? 그것은 탐라국호 모라가 고려에 의해 폐지된 1105년경에서 지명 탐라가 제주로 개칭된 1211년경에 이르는 동안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종주국 고려의 무단통치가 속지 탐라에서 실시되었을 테니까. 그리하여, 탐라인의 신성한(곧, 주체적인) 삶이 치욕스럽고 비참하게도 마치 축생의 삶 같은 예속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렸을 테니까.

Ⅲ.iii. 신화는 발생 초기에는 최선의 것, 즉 당대라는 몸에 꼭 알맞은 옷이었을 것이다. 흡사 배내옷처럼. 그런데 오늘날은 몸이 자란 탓에 쓸모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냇저고리가 추억을 자극하듯이 신화도 때로는 위력을 발휘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대내적으로는 결속 · 통제 등의 확립에, 대외적으로는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의 확립에 이바지한다.

Ⅲ.ⅳ. 나라가 망하면 속지屬地의 신화 · 역사 · 언어 등은 으레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축출되게 마련이고, 끝내는 망각되게 마련이다. 그것들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신화와 언어는 국가나 민족의 뿌리이고 역사는 국가나 민족의 족적이니까. 그러고 보면, 작금의 소위 제주어濟州語와 제주본풀이는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실은 고려 · 몽골 · 조선 등의 언어와 신화가 속지 제주에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인 셈이다.

Ⅳ.ⅰ. 혹자는 단언한다. 제주는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 단언은 '탐라 민중사에 대한 무지'와 '제주본풀이에 대한 이해 결여'로 인한 단견이니까. 사실, 오늘날 제주에서 운위云謂되고 있는 신들은 거의 다 고향이 외지(곧, 한반도 · 대륙)이다. 환언하면, 제주는 그 신들에게는 한낱 타향(예: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에 쫓겨 도래한 피난처)에 불과하다. 이는 제주본풀이는 무늬만 탐라의 뿌리요 꿈이라는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탐라의 참된 뿌리요 꿈은 다름이 아니라 작금의 제주의 역사적 전설들이다.

Ⅳ.ⅱ. 본풀이는 '본本'(곧, 신의 근본 · 내력 등)과 '풀이'[곧, '풀다'(解)의 전성명사]의 복합명사이다. 이는 본풀이는 신의 근본과 내력을 밝힌 설화(곧, 내력담來歷談)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의 근본과 내력을 풀이한 설화가 아닌 것은 본풀이가 아닌 셈이다. 부언하면, 제주에서 본풀이는 특수민중(곧, 무격사회) 간에, 그리고 옛말은 일반민중 간에 전승(곧, 향유)되어 왔다. 그러고 보면, 무격사회(곧, 굿)에서 전승(곧, 구송)되지 않는 것 또한 제주본풀이가 아닌 셈이다.

Ⅳ.ⅲ. 본풀이는 일정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그 구조란 다름이 아니라 '본풀이 주인공은 ❶ 혈통이 고귀高貴하고[고귀한 혈통] ❷ 탄생이 비정상적이거나 기이奇異하며 유년기幼年期가 비범하고[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逆境에 처하고[역경] ❺ 의인(곧, 조력자)과 조우하여 도움을 받고[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

養育] ❻ 그 도움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고[구원救援(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마침내 그 역경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신神으로의 좌정坐定]'라는 것이다. 고로, 본풀이는 적어도 이와 유사한 구조(또는 이런 구조의 흔적)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내친김에 말하면, 위 ❻ 단계에서 제주본풀이는 대의명분 · 종교이념 · 철학사상 등에 구애받지 않고 승리에만 진력한다. 즉, 제주본풀이는 현실주의적이라서 이상 따위는 제쳐놓고 현실에만 집착한다. 그래서 제주본풀이는 비장미보다 숭고미가 더 두드러진다. 숭고미는 투쟁에서의 숭고한 승리의 산물이다. 한편, 유럽신화는 이원론(곧, 현세는 불완전한 세계이고 내세는 완전한 세계라는 사상)에 따라 현세의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연후에 비장한 패배를 한다는 결말을 갖는다. 그래서 유럽신화는 숭고미보다 비장미가 더 두드러진다. 비장미는 비장한 패배의 산물이다. 그러고 보면, 신화에서의 미적 범주는 종족이나 지역 따위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인 셈이다.

Ⅳ.ⅳ. 제주본풀이 화법(곧, 철칙)은 ❶ 신적 존재가 사람들 축원사항 성취라는 공리적功利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 직능(예: 치유 · 축재 · 풍어)을 꼭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이런 직능들이야말로 본풀이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는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설문대할망은 이런 직능이 없다. 이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본풀이(곧, 신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❷ 본풀이 주역 · 조역은 신적 존재로 좌정하지만 단역은 신적 존재로 좌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역과 조역은 '비범한 인간'(이는 본풀이에서의 신적 존재의 전제조건임)이고 단역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말이다. ❸ 본풀이에서의 선신善神은 죽지 않고(또는 설령 죽었을 때는 꼭 환생하여) 신으로 좌정한 존재라는 것이다. 신이 살아 있어야 사람들 축원사항을 성취시켜 줄 수 있으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선한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에 빠져죽음으로써 종언을 고한다. 이는 설문대할망 설화는 신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악신惡神은 죽은 뒤에 신으로 좌정한 존재라는 것이다. '측도부인厠道婦人이 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정낭지신이 된 남선비'(이들은 후술할 <문전> 참조), 또는 '웃송당 당오름 당신이 된 벡주또'와 '알송당 고부니마를 당신이 된 소천국'(이들은 후술할 <송당 · 궤눼깃당> 참

조)처럼. ❹ 숙명론과 기복신앙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숙명론은 자유의지에 의해, 기복신앙은 이타利他주의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정신이지 조장할 만한 정신이 결코 아니다.

Ⅳ.v. 제주본풀이는 흡사 골동품처럼 변화를 모른다. 설화란 마치 생목처럼 자라나는(곧, 변모하는) 것인데 말이다. 물론 본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는 고작 쓸모없는 골동품에 비견할 만한 것인 셈이다. 이는 불변하는 정신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한낱 시대착오적인 유물留物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다. 요는 제주본풀이도 마치 제주의 역사적 전설이 변모하듯 변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기복신앙과 운명론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타주의와 자유의지를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Ⅳ.vi. 제주본풀이는 설화의 오늘날 존재의의를 충족시켜 주기커녕(곧, 제주사회 미래의 이정표가 되어 주기커녕) 기복신앙과 운명론을 조장함으로써 제주민중 전도前途에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기복신앙과 운명론이 제주본풀이가 오늘날 지니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유산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자신의 복福이 우선시되는 이기주의적인 기복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이 우선시되는 이타주의가, 그리고 운명론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시대이니까. 물론 기복신앙은 예전의 비非유기적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자기 공동체 부富의 총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그리고 운명론은 예전의 비非민주사회에서는 삶을 위한 위안을 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기복신앙은 작금의 유기적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자기 공동체 내內 타인의 부를 침해하는 역할을, 그리고 운명론은 작금의 민주사회에서는 삶을 저해하는 체념의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참, 지난날 한반도는 터무니없는 운명론(곧, 제주는 한반도 구제대상이니 제주가 한반도에 순종하는 것은 숙명이라는 논리)을 제주사회에 퍼뜨렸고, 제주민중은 그에 굴종도 하고 저항도 했다. 설문대할망 전설 중 '다리 놓기'·'물장오리 익사' 제하 본문 등이 그 와중에 생겨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Ⅳ.vii. 용출종지聳出從地 화소[예: 삼을나가 한라산 기슭 모흥혈에서 솟아난 것(이는 후술할 <삼을나(곧, 모라건국)> 참조), 소천국이 알송당 고부니마를에서 솟아난 것(이는 후술할 <송당 · 궤눼깃당> 참조)]는 탐라와 탐라 남쪽

(곧, 유구 · 대만 · 동남아 · 중국 남부 등지)에서 통상적인 것이고, 강림降臨 화소는 탐라 북쪽(예: 한반도)에서 통상적인 것이다. 이는 제주 본풀이 측면에서 볼 때 탐라 특유의 화소인 용출종지는 탐라의 자생적이며 주체적인 것이고, 강림은 한반도에서 전래되어 토착화한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한반도 강림 화소의 탐라로의 전파(곧, 이주)는 불가항력의 일이었을 것이다. 모라가 고려에 의해 몰락됨으로써 속지 탐라 신화가 종주국 한반도 신화에 밀려 축출되었을 테니까. 게다가, 한반도 출신 무격이 조선의 억불숭유정책에 밀려 대거 속지 제주로 유입되었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작금의 제주본풀이들은 삼을나 본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반도로부터 흘러든 것인 셈이다. 그것들 주인공 출현이 용출종지 화소에 의거하지 않으니까.

Ⅴ.ⅰ. 제주본풀이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濟州島神話』(현용준, 서문당, 1976)이다. 이 책은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1950년대 말엽에서 1970년대 중엽에 이르는 동안 매년 여름 · 겨울 방학을 틈타 제주 전역을 상대로 채록한 본풀이들을 편찬한 것이다. 이 책에는 현존하는 제주본풀이 중 유의미한 것이 빠짐없이 실려 있다. 참, 현용준은 당시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설화담당 교수였다.

Ⅴ.ⅱ. 위 책은 제주의 신화와 본풀이(곧, 내력담)를 '천지개벽 신화와 천지왕(곧, 옥황상제) 본풀이', '삼을나(곧, 모라개국) 신화', '일반 본풀이(곧, 일반적인 자연사상事象 · 인문사상을 차지하여 다스리는 신들 내력담)', '당 본풀이(곧,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堂神 내력담)', '조상 본풀이(곧, 집안과 씨족의 수호신 내력담)' 순서로 배열해 놓고 있다. / 내친김에 말하면, 굿에서 무격[곧, 심방(←신방神房: 신神의 형방刑房)]은 제상祭床 앞에 앉아 장구 치며 "몇 월 며칠 어느 마을 누가 무슨 사유로 굿을 시작하여 어떤 제차祭次를 거쳐 당해 본풀이 차례가 되었기에 본풀이를 올립니다"라는 노래조의 사설을 읊은 연후에 위 본풀이들을 각각 구송한다. 참, 이때 위 '삼을나(곧, 모라개국) 신화'는 문헌설화라서 '본풀이용用 설화[곧, 삼을나(곧, 탐라건국) 본풀이]'로 대체된다.

Ⅴ.ⅲ. 위 책에 수록된 본풀이는 총 28편이다. 물론 작금의 제주 본풀이는 그것들 외에도 더 있다. 하지만 본풀이로서 유의미한 것은 그것들뿐이다. 이는 위 책에는 제주의 유의미한 본풀이가 망라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유의미하다'라는 말은 설화의 오늘날 존재의의를 충족시켜 준다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제주본풀이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Ⅴ.ⅳ. 위 현용준은 자기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비문학 강의에서 간혹 무격(또는 종교인)이나 함직한 맹신적인 말투로 신화(곧, 이성적이고 직관적이어야 할 문학의 한 분야)를 논하는 일탈(곧, 과오)을 간혹 범했다. 이는 그가 20세기 말의 제주에서 시대착오적이게도 혹세무민하는 무속의 조장에 일조一助를 했다는 말이다. / 부언하면, 그는 논문이나 강의에서 서슴없이 한반도를 본토, 그리고 탐라를 변방(또는 속지)이라 일컫곤 했다. 생각건대, 지구는 하나의 구球이다. 달리 말하면, 지구 표면 어디에도 중심(또는 본토)은 따로 없다. 그러니, 굳이 따진다면 개개인에게는 각자 자신이 있는 곳이 곧 중심이다. 이는 인간사의 중심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즉, 중심은 인간 개개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는 결단코 변방이라 여기는 자에게는 본토일 수 없고, 본토라 여기는 자에게는 변방일 수 없는 셈이다.

Ⅴ.ⅴ. 여기(곧, 「제2부 본풀이」)에서는 예의 그 28편 중 14편(곧, 제주본풀이의 정체 파악을 위해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룬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먼저 「제1장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화」에서는 위 14편 중 <삼을나(곧, 모라건국)>를 살펴본다. <삼을나(곧, 모라건국)>가 오늘날 현존하는 유일무이한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제주신화'이니까. 그런 연후에, 「제2장 전래되어 토착화한 본풀이」에서는 그 14편 중 나머지 13편[곧, 개벽신화와 천지왕 본풀이(1편) · 일반본풀이(9편) · 조상본풀이(1편) · 당본풀이(2편)]을 살펴본다. 참, 그 13편에는 중국적인(예: 도교적道教的인) 요소 · 한반도적인 요소 · 탐라적인 요소 등이 혼재해 있다. 여하튼, 독자들은 위 14편을 읽노라면 제주 신화(곧, 본풀이)의 정체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설문대할망 설화 · 오백장군 설화 · 비양도 설화 등이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라는 점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제1장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화

## <삼을나(곧, 모라건국)>

**탐라현**은 전라도 남쪽 바다에 있다. **그 고기**는 말한다. **태초에 인물이 없었는데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그 주산** 북녘 기슭에 **모흥이라는 혈**이 있다. 이것이 그 땅이다). **맏이는 양을나, 버금은 고을나**, 셋째는 부을나라 불렸다. 세 사람은 황량한 두메에서 노닐며 사냥하여 가죽은 입고 고기는 먹었다. 하루는 자줏빛 진흙으로 봉해진 곳간 있는 목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떠와 동쪽 바닷가에 닿자**, 나아가 열었다. **목함 안에는 또 석함이 있었고**, **자색 옷에 홍색 띠를 맨 사신이 함께 와 있었다**. 석함을 여니, **청색 옷을 걸친 처녀 셋 및 뭇 망아지 · 송아지 · 오곡 종자가 나왔다**. (사신이) 말했다. "나는 **일본국** 사신입니다. 우리 임금이 이 세 따님을 두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산이 내린 신의 아들 세 사람**이 장차 개국하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시면서 신臣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셔 오게 하셨습니다. 부디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사신은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이**에 따라 장가들고, **샘물 달고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화살을 쏘아 터전을 정하였다**. **양을나** 터전은 **제일도**, **고을나** 터전은 **제이도**, **부을나** 터전은 **제삼도**라 일컬었다.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고, 또 마소를 치니, 날로 **부가 많아졌다**.[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 無人物 三神人 從地聳出** (**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 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 見紫泥封藏木函 **淫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靑衣處女三 乃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 生此三女 云西海中 **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 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 忽乘雲而去** 三人 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 曰**第一都** **高乙那**所居 曰**第二都** **夫乙那**所居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ㅡ『高麗史』卷五十七, 志卷第十一地理二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탐라국 정식국호는 모라毛(←耒)羅이고, 그것은 훗날 모라乇羅로 바뀐다. 그리고 乇羅 시절에 탐라국은 몰락한다(이는 전술한 「제1부 광의의 옛말」 중 '제1장'의 국호 <모라 · 탁라> 참조).

Ⅱ. <삼을나三乙那>는 모라毛羅건국(곧, 탐라건국) 신화이고, 그리고 삼을나(곧, 고을나 · 량을나 · 부을나)는 그 주역들이다.

Ⅲ. 오늘날 혹자는 <삼을나>(곧, 삼을나 신화)를 삼성三性신화(곧, 고씨 · 량씨 · 부씨의 씨족신화)라 한다. 이는 모라는 본디 자주독립국이 아니라 번국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후예가 <삼을나>를 '삼성신화'라 하는 것은 자기 비하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마치 조선인이 조선을 이조李朝(곧, 이씨 조선)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 용어 삼성신화는 이제 그만 탐라후예들 뇌리에서 불식시켜야 한다.

Ⅳ. <삼을나>에서의 용출종지聳出從地 화소는 삼을나 신화가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탐라설화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이는 곧 재론함).

Ⅴ. <삼을나> 증거물 중 대표적인 것은 국가(곧, 모라)이다. 국가는 '사회질서에 관한 것'으로 한국설화이론에서는 포괄적 증거물로 취급된다. 물론 포괄적 증거물은 신화 증거물이다. / <삼을나>의 미적 범주는 숭고미(곧, 신성미)에 해당된다. 이는 <삼을나>는 탐라후예들로 하여금 숭고(곧, 신성)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말이다. 물론 숭고미는 신화의 미적 범주이다. / <삼을나>의 분포(곧, 전승범위)는 본디는 국가(곧, 모라)였고, 오늘날은 지역(곧, 제주)이다.

Ⅵ. 위 <삼을나>는 문헌설화이다. 문헌『고려사』에 실려 있는 것이니까. 참, <삼을나>는「영주지瀛洲誌」에도 실려 있다. / 내친김에 말하면, 문헌설화는 변모하지 않는다. 즉, 박제(곧, 화석화化石化) 상태로 존재한다. 이는 살아 있지 않고 죽어 있다는 말이다. 고로, 문헌설화는 설화라 할 수 없다. 설화란 살아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 생각건대, 살아 있다는 말은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고,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시대가 바뀐다는 말이고,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민중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고, 민중 삶이 달라진다는 말은 민중 꿈이 변한다는 말이고, 민중 꿈이 변한다는 말은 설화가 변모된다는 말이고, 설화가 변모된다는 말은 설화에 윤색이 가해진다는 말(곧, 핵심화소를 제외한 여타 화소들이 첨삭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설화에 윤색이 가해진다는 말은 설화 이면裏面 정신이 구체화되고 심화된다는 말이다.

Ⅶ. 이른바 큰굿(곧, 여러 본풀이가 연달아 구송되는 규모 큰 굿)의 맨 처음 제차祭次인 초감제(곧, 제신諸神을 일제히 청해 들여 제상에 앉히고 음식을 흠향歆饗하게 한 후 기구祈求사항을 비는 제차)에서는 문헌설화인 위 <삼을나> 본문 대신 아래 본풀이가 구송된다. "영평永平 팔년八年

을축乙丑 삼월 열사흘날 ᄌᆞ시子時에는 고의왕高爲王, 축시丑時에는 양의신良爲臣, 인시寅時에는 북의면夫爲民 설립ᄒᆞ던 섬이우다. 양의왕도 왕이노라, 북의왕夫爲王도 왕이노라, 성(兄)광 아실(아우를) 골리저 ᄒᆞ옵건, 고의왕은 할로영주(漢拏瀛洲山) 어싱생(御乘生岳) 단골머리(골머리봉) 쌀(矢)을 ᄒᆞᆫ대 노니, 동이와당(東海바다) 광덕왕 진도받졌고나, 양의신내(良爲臣下) 쏘는 쌀 서이와당(西海바다) 광인왕 진도받졌고나, 북의면(夫爲民) 쏘은 쌀은 동문밧겻(東門 바깥) 사봉(紗羅峰) 넘엉 쌀쏜 거리 지엇고나. 성(兄)광 아실 골릴 때에 고의왕은 왕이 되고, 양의왕은 신내臣下되고, 북의면夫爲民은 면(民)이 설립헤여 제주절도 설립홉데다.” 그러고 보면, 삼을나 설화는 오늘날은 문헌설화 형태로도 본풀이(곧, 굿에서 구송되는 설화) 형태로도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위 본풀이는 제상祭床 앞에 앉아 장구 치며 큰굿을 주재하는 무격에 의해 개벽신화, 천지왕본풀이(곧, 옥황상제인 천지왕이 총맹부인과 배필을 맺은 후의 이야기), 삼황오제 · 단군 · 기자箕子에 관한 이야기 등이 차례로 구송된 후 구송된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디(곧, 제주의 어느 마을) 사는 누가 언제(곧, 굿 시작 시각) 어디(곧, 굿하는 당堂)에서 어떤 연유로 굿을 올린다는 내용의 구송이 이어진다. 물론 이 일련의 구송은 굿하는 사실을 제주본풀이 최고신 옥황상제 시점에서 굿하는 시점까지 두루 천명함으로써 옥황상제 및 제신諸神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삼황오제 · 단군 · 기자 · 삼을나는 물론이고 제주본풀이 최고신 옥황상제도 본풀이 직능신들(예: 일반본풀이의 신적 존재들)과는 달리 본풀이 궁극적 존재의의인 공리적 기능을 위한 구체적 직능을 갖지 않는다(또는 못한다). 이는 옥황상제 · 단군 · 삼을나 등은 직능신인 일반본풀이 신들 · 당신堂神들을 통어通御하기는 하되 그들 직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초감제에서 무격이 옥황상제 · 단군 · 삼을나 등을 거론하는 것은 그들을 참관인 격으로 굿에 초청하기 위한 것인 셈이자, 나아가서 제주본풀이가 옥황상제를 최고신으로 받드는 도교 체제하의 것이란 사실과 중국 · 한반도 등지와 모종의 관계에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암시하는 것인 셈이다. 물론 옥황상제와 삼황오제는 중국의 자생적 요소이고, 단군과 기자는 한반도의 자생적 요소이고, 그리고 삼을나는 탐라의 자생적 요소이다.

[화소話素 관련 설명]

**탐라현耽羅縣**은 현 제주도濟州道의 속지 시절 명칭들 중 하나이다. 물론 제주는 속지란 뜻이다. 그럼, 현 제주는 속지일까, 아닐까?

**그 고기其古記**는 제주성 내성內城인 무근성[여기서의 '무근'은 '묵다'(오래되다)의 관형사형 '묵은'의 연철임] 대화大火(1434년) 때 소실된 탐라 사서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왜 『고려사』는 그 서명을 밝히지 않고 '그 고기'라 했을까? 구전은 전한다. 그것은 지난날 한반도 조정이 속지 탐라 사서를 종주국 한반도 사서인 양 취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내친김에 말하면, 무근성은 망국 모라의 궁터였고, 그리고 모라 몰락 이후에는 성주청 터로, 이어 관아 터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터의 성주청 또는 관아는 민중을 일쑤 핍박했다. 그래서 무근성은 애꿎게도 민란 표적이 되어 종종 민중에게 점령당했고, 민중에 의해 불바다가 되곤 했다. / 부언하면, 조선이 위 본문 실린 『고려사』를 편찬한 취지는 이씨 혁명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그 취지를 범한 사료는 어김없이 변조되었을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료가 날조되기도 했을 것이다. 다음은 『증보 새국사사전』(이홍식, 교학사, 1998)에서 인용한 것이다. "고려사 : (전략) 이조李朝 태조가 개국 후 정도전 · 정총 등에게 명하여, 「고려 역대 실록」과 민지의 「강목綱目」, 이제현의 「사략史略」 및 이색의 「금경록金鏡錄」 등을 참고하여 편찬하였으나, 그것은 37권의 편년체編年體로 된 조잡한 것이었고, 다시 태종이 유신에게 명하여 교정케 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고, 세종 때에 와서 왕명으로 사국史局을 열어 정인지 · 김종서 등이 개찬改撰. 1451년(문종 1년)에 완성. 1454년(단종 2년) 간행에 착수. (중략) 고려사는 그 역사 서술의 이론이나 방법보다 고려 시대의 근본 사료史料에 의거해 썼다는 점에서, 고려 시대의 기록을 보존해 주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물론 관官에서 편찬한 관계로 다소 왜곡된 점이 없지 않으리라 한다. (하략)" 그렇다면, 『고려사』의 속지 탐라 관련 사료도 당연히 왜곡(곧, 조작 또는 날조)되었을 것이다. 탐라는 탐진의 '탐'과 신라의 '라'에서 유래된 지명이라는 기록, 성주星主는 고후高厚(곧, 훗날의 탐라국 제15대 왕)가 신라에 내조하자 남쪽 하늘에 별[星]이 나타났는데 신라왕(곧, 제35대 경덕왕)이 그 별에 착안하여 고후에게 하사한 관직이라는 기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탐라는 탐진보다, 그리고

성주는 경덕왕보다 앞서 쓰인 용어이다. 그러고 보면, 그 두 사례는 탐라국을 본디 한반도 번국으로 폄하시키려는 역사왜곡의 산물인 셈이다. 그러니, 한국 사서들(곧, 『고려사』·『삼국유사』 등)에서 제주 역사를 접하는 탐라후예는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그것들의 기사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참, 종속국(곧, 망국) 역사는 종주국 역사에 밀려 왜곡되고 축출되기 마련이다.

**태초에 인물이 없었는데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太初無人物三神人從地聳出는 '모라건국 이전에는 인물, 즉 큰사람(여기서의 '큰'은 '비범한'·'용감한'·'위대한' 등의 뜻임)이 없었는데 비로소 세 큰사람이 등장했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인물人物은 신인神人, 즉 신적 존재인 셈이다. 그런데 혹자는 여기서의 인물人物을 '사람과 물건'으로 풀이한다. 이는 <삼을나> 중의 '처녀 셋 및 뭇 망아지·송아지·오곡 종자'를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풀이를 하는 사람의 뇌리에는 어쩌면 탐라에 대한 비하의식(곧, 지난날 탐라는 절해고도絶海孤島라서 사람도 물건도 하잘것없는 것뿐이었다는 의식)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 한편, 위 대목에서의 '땅에서從地 솟아나다聳出'라는 화소는 한국설화에서는 탐라설화 특유의 것으로 대지大地 또는 숨굴(곧, '지신地神이 숨 쉬는 굴窟') 숭배사상의 소산이다. 숨굴? 오늘날 혹자들은 숨굴을 숨골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오류이다. 숨골은 연수延髓(곧, 척추동물에서의 후뇌後腦와 척수脊髓 사이 부분)이니까. 여하튼, 從地聳出은 탐라설화 특유의 화소이고,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한반도설화 화소는 난생卵生(예: 고구려 주몽, 신라 혁거세·탈해, 가락국 수로 등)·강림降臨(예: 고조선 환웅) 등이다. 난생 화소는 태양 숭배사상의 소산이고, 강림 화소는 하늘 숭배사상의 소산이다. 참, 단군은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고, 알지는 소아小兒 상태로 궤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종지용출 화소는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것인 셈이다. 사실, 이 화소는 탐라의 이남(곧, 유구·대만·동남아·중국 남부 등지)에는 흔한 것이지만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모라건국 설화의 주역은 소위 남방계 종족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탐라사회 일각에서는 '연륙설連陸說'(곧, 지난날은 탐라와 한반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출토된 철제검鐵製劍’(곧, 그 검이 통치 상징인 한반도 철제검과 동일계열의 것이라는 주장)을 들어 ‘남방계 종족의 탐라건국’을 일축한다. 하지만 그 연륙설이 과연 그 일축의 논거일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그 논거일 수 없다. 모라건국 시점의 탐라는 이미 섬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 증거는 『삼국유사』 마한조馬韓條[“위지魏志에 이르되 위만魏(衛)滿이 조선을 치니 왕준이 좌우궁인左右宮人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남으로 한韓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하였다 한다”] · 서불徐芾 전설[서불 일행이 기원전 220년경 금당金塘 해변(곧, 오늘날의 조천포朝天浦)을 통해서 탐라(곧, 오늘날의 제주)에 상륙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그리고 그 철제검도 그 논거일 수 없다. 그것은 모라와 한반도 간 무역 · 외교 등의 부산물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검이 통치 상징이라는 사고방식은 한반도의 것이지 모라의 것이 아니다. 모라의 통치 상징은 검(곧, 무력)이 아니라 <삼을나> 이면 정신인 모흥정신毛興精神(이는 곧 재론함)에 의거한 협의 · 공정公正 · 평화 등이니까. 그러니, 그 철제검을 들어 모라건국 주역을 북방계(곧, 한반도 후예)라 단언하는 것은 모흥정신을 범하는 작태이다. 참, 혹자들은 단언하기도 한다. 탐라건국 주역 중 고씨와 부씨는 각각 고구려와 부여의 후예라고. 즉, 고씨에서의 ‘고’는 고구려에서의 ‘고’이고, 부씨에서의 ‘부’는 부여에서의 ‘부’라고. 물론 그들에게는 종지용출과 강림(또는 난생) 간의 이질성異質性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 참고삼아 말하면, 종지용출의 한자어로는 從地聳出(『고려사』), 從地湧出(「영주지」), 從地中湧出(『장흥고씨가승長興高氏家乘』), 地中湧出(세간의 용어) 등이 쓰여 왔다. 하지만 중국어 문법 등을 고려하면, 종지용출은 용출종지로, 그리고 여기서의 湧은 聳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종지용출의 어순은 용출종지[聳出(동사 ‘솟아나다’)+從(동사나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개사介詞 ‘~으로부터’)+地(명사 ‘땅’)’]여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의 ‘용’은 湧(뜻: 물이 솟다)이 아니라 聳(뜻: 우뚝 솟다)이어야 하니까.

**그 주산**其主山은 한라산이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주산은 집터, 도읍 터, 묏자리 등의 뒤쪽에 위치하면서 좌청룡左靑龍(곧, 주산에서 왼쪽으로 갈려 나온 산줄기)과 우백호右白虎(곧,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갈려 나은 산줄기)가 갈려 나온 주主된 산을 뜻한다. 그런데 『고려사』(1454

년)에서의 '그 주산'은 그로부터 이백 년 뒤에 편찬된 『탐라지耽羅志』(이원진, 1653년)에는 '금진산今鎭山'(뜻: 지금의 진산)으로 되어 있다. 즉, 주산이 진산으로 바뀌어 있다. 진산은 도읍 · 성시城市 등의 뒤쪽에 있는 큰 산으로 지난날은 관官에서 당해 도읍 · 성시 등의 난리를 진호鎭護해 달라고 축원하던 신적神的 대상이었다. 아니, 대관절 왜 주산이 진산으로 바뀌었을까? 생각건대, 그것은 어쩌면 제주에 대한 조선 조정(또는 왕실)의 무단통치가 갈수록 도를 더해만 간 탓에 민중봉기가 빈번해진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흥이라는 혈**穴曰毛興(곧, 모흥혈毛興穴)은 위 <삼을나>의 주요 증거물, 환언하면 <삼을나>의 핵심화소(곧, 복숭아에서의 핵 같은 것)이다. 이는 <삼을나>에서의 여타 화소들은 다 이 핵 주위에 달라붙어 있는 과육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화소 모흥혈 이면에 <삼을나>의 오늘날 존재의의인 정신이 들어 있는 셈이다. 여하튼, 毛興穴의 정체는? ⑴ 毛興穴에서의 첫째 음절 '毛'는 한자 육서 중 회의자會意字에 속하는 것으로 '三+乚(乙)'이다. 그 근거는 "濟州南三里 或曰毛字乙上加三 故指三乙那所興之穴 曰毛興穴[제주 남쪽 3리. 혹자는 말한다. '모'라는 글자는 '을'이라는 글자 위에 '삼'이라는 글자를 가한 것이라고. 고로 삼을나가 일어난 곳의 혈을 가리켜 모흥혈이라 한다]"(『耽羅紀年』, 金錫翼, 1918), "肅宗(숙종) 十年(10년) 乇羅(모라)를 고쳐 耽羅郡(탐라군)으로 하였다"(『고려사』 권57, 지권제11 지리2) 등이다. 물론 乇羅는 毛羅의 변용이다(이는 곧 재론함). 여기서 위 毛를 세분하여 들여다보자. ① 毛(←'三+乚')에서의 三의 정체는? 三은 삼을나(곧, 고 · 량 · 부을나)의 상징이고, 나아가서 삼을나 각각이 속한 세 씨족(곧, 고 · 량 · 부씨)은 물론이고 그 세 씨족을 중심으로 하여 뭉친 세 개의 공동체(곧, 당대 탐라 구성원 전체)의 상징이다. ② 위 毛[←'三+乚(乙)']에서의 乙의 정체는? 乙은 자원字源이 상형象形 'ㄟ'이다. 이것(ㄟ)은 음기陰氣가 여전히 강한 초봄에 초목의 싹이 곧게 돋아나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음을 본뜬 것이다. 이는 乙이 사물의 시초(곧, 근원)를 상징한 글자라는 말이다. 흡사 중국철학에서의 태을太乙(곧, 태일太一)처럼. 물론 근원은 하나이다. 그러고 보면, 乙은 '하나'의 상징인 셈이다. 이상 ① · ②에 의하면, 毛는 '셋(三)이 하나(乚)가 되다'의 상징이다. 내처 말하면, 乇

는? 毛(←'三+乚') 중 三에서 부씨에 해당하는 一[하나]을 빼내어 •(점)으로 변형시켜 놓은 글자, 즉 '二[곧, 왕 직(왕 자리와 왕자 자리)을 차지한 고씨와 양씨]+•(곧, 신하 자리를 맡은 부씨)+乚'이다. 탐라국호 乇羅를 탐라군으로 개칭한 1105년(고려 숙종 10) 당시의 종속국 탐라의 정치적 상황은 고씨와 양씨가 각각 왕 자리와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씨가 삼을나 공동왕권에서 밀려나 신하 자리를 맡고 있었으니까. 물론 乇는 중국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일본에서도 쓰인 바 없는 것으로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조어造語이다. ⑵ 毛興穴에서의 둘째 음절 '興'은? 그것은 '창업을 위한 흥기興起'이다. 이상 ⑴ · ⑵에 의하면, 毛興은 '셋(三)이 하나(乚)가 되어 창업하려고 일어나다(興)'의 상징이다. 이는 毛興의 이면에는 '셋(곧, 다양성)이 하나 되어(곧, 일치하여) 행동하는 정신'(곧, 약칭 '모흥정신毛興情神')이 들어 있다는 말이다. 물론 모흥정신은 검(곧, 무력), 지배, 서열, 차별, 투쟁, 오만, 탐욕, 파괴 등이 아니라 일치, 협의, 협동, 화해, 평화, 평등, 공정, 겸손(곧, 주냥), 건설 등을 지향한 정신이다. <삼을나> 화법으로 말하면, '삼을나가 여자와 도읍을 공평히 나누어 차지하고 탐라의 부서富庶를 이룩한 정신'이다. ⑶ 毛興穴에서의 셋째 음절 '穴'은? 탐라에서의 혈을 연상시키는 것은 동굴 · 숨굴 · 명당 등이다. ① 혹자는 단언한다. 고씨와 부씨는 각각 고구려와 부여의 후예이니 위 혈은 의당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동굴의 반영, 즉 혈거穴居 생활의 흔적이라고. 그러나 위 혈이 동굴일 개연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모흥혈 일대는 동굴이 아니라 내창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사실, 탐라에서 내창이 발달한 지역은 동굴이 드물고, 동굴이 발달한 지역은 내창이 드물다. 이는 지난날 용암이 땅 위로 흐른 지역은 내창이, 그리고 땅속으로 흐른 지역은 동굴이 발달했다는 말이다. 아무튼, 모흥혈 일대는 동굴이 전무한 지역이다. 따라서 위 혈이 동굴이라면, <삼을나> 무대는 현 모흥혈 소재지가 아니라 동굴 밀집 지역인 한라산 북동쪽 기슭 모처某處였을 것이다. ② 지난날 탐라 도처에는 숨굴(곧, 지신地神이 숨 쉬는 구멍)과 용천이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탐라인들은 숨굴과 용천 일대를 터전으로 삼았다. 그러고 보면, 숨굴은 '지신地神의 처소'이자 '탐라인 터전의 불가결한 요소'였

던 셈이다. 따라서 위 혈은 숨굴일 것이다. 참, 탐라에서 숨굴과 용천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용천(곧, 물이 솟는 구멍)에서 길어다 쓴 물을 숨굴(곧, 물이 빠지는 구멍)로 흘려보냈으니까. ③ 전설은 말한다. 백록담에서 칠머리 해변에 이르는 한라산 북녘에 탐라 제일 지맥(곧, 거인 형국 지형)이 있고, 그리고 그 지맥 배꼽 부분에 해당된 것이 모흥혈이라고. 또한, 선인들은 생각했다. 배꼽은 '만물이 자라는 근원' 또는 '임금'의 상징이라고. 그렇다면, 위 혈은 명당일 것이다. 이상 ① · ② · ③에 의하면, 혈은 동굴이 아니라 숨굴이자 명당의 상징이다. 그러고 보면, 이상의 ⑴ · ⑵ · ⑶은 말하고 있는 셈이다. 모흥혈은 '셋(三)이 하나(ㄴ)가 되어 창업하려고 흥기한(興) 숨굴이자 명당'의 상징이라고. 참, 탐라에서의 풍수설은 서불 도래에서 비롯했을 것이다(이는 「제1부 광의의 옛말」 중 제3장의 <서불; 서복> 참조). / 각설하고, 오늘날 모흥혈은 삼성혈로, 삼을나신화는 삼성신화로 불린다. 이는 <삼을나>가 건국신화가 아니라 씨족신화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삼성혈과 삼성신화란 용어는 탐라국을 본디 한반도 번국으로 격하시키려는 저의의 발로인 셈이다. 일제가 조선을 이씨조선이라 일컬음으로써 번국으로 격하시켰듯이. 물론 이는 어불성설이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른다. 국가가 망하면 속지의 역사 · 언어 · 신화 등은 하릴없이 소멸의 길을 걷게 마련이니까. 돌이켜보면, 삼을나는 단군 · 주몽 · 혁거세 등과 진배없는 부족국가 시조였다. 그런데 왜 삼을나만 폄하되어야 한단 말인가? 물론 그것은 인종적 편견, 즉 한반도의 탐라에 대한 비하의식(예: 제주라는 의식, 제주자제에 대한 의식, 망아지는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의식 따위)의 발로이다. 사실, 한반도인들은 탐라를 제주라 개칭한 이래 그런 편협한 비하의식을 지난 왕조시대 팔백여 년 간 제주에다 부단히 주입함으로써 탐라후예로 하여금 스스로를 제주인이라 비하하며 건국신화마저 씨족신화로 여기게끔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건대, 한반도인들의 그런 비하의식은 어쩌면 한반도인은 단군의 후예라는 진부하고 맹목적인 강박관념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족(곧, 삼한 등)과 조선족(곧, 고조선 등)은 실은 동족이 아니라 이족(곧, 동아시아의 두 종족)이다. 그리고 국경 출입이 자유로웠던 시절에

는 그 두 종족이 사는 한반도로 타 종족 유입이 적잖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반도인의 단일민족 운운은 생떼인 셈이다. 아니, 설령 한반도인이 단일민족이라 한들 그것이 다민족 국가가 대세인 작금의 지구라는 별에서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요는 삼을나 신화와 모흥혈은 삼성신화와 삼성혈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리고 한반도인은 이제는 3개의 근원(곧, 탐라 · 고조선 · 삼한)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탐라인은 탐라 역사의 기점起點과 종점 사이에서 회귀라는 여행을 부단히 하며 날로 모흥정신의 완성을 꿈꾸는, 나아가서 그 정신으로 살찌는 연어이다.

**맏이는 양을나, 버금은 고을나**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라는 화소는 「영주지瀛洲誌」에는 "맏이는 고을나, 버금은 양을나"로 되어 있다. 「영주지」는 단행본이 아니라 고득종高得宗이 지은 '서세문序世文'과 여러 '고씨세보高氏世譜'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김봉옥은 『탐라문헌집耽羅文獻集』(제주도교육위원회, 1976년)에서 「영주지」를 두고 "고려 말엽 내지 조선 초엽의 저작이 아닌가 한다"라는 추론을 했다. 이는 「영주지」가 『고려사』보다 먼저 저술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양자 중 어느 것의 저술 연대가 앞서느냐 하는 문제는 양을나와 고을나 중 누가 맏이냐 하는 소위 '서열序列 문제'와 연관된 것인 듯하다. 맏이가 『고려사』에서는 양을나로, 「영주지」에서는 고을나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삼을나>에서 서열을 논하는 것은 한낱 일탈逸脫에 불과하다. 서열은 <삼을나> 핵심화소인 모흥혈 화소의 이면 정신, 즉 모흥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니까. 생각건대, 서열 문제는 욕망 탓에 모흥정신을 저버린 삼을나 후손들이 왕권을 독점하려고 각축하면서 대두된 것일 것이다. 이는 서열 관련 화소는 훗날 덧붙여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맏이와 버금의 교차交叉'는 양씨와 고씨 간의 세력 변동에 따른 결과이거나, 또는 그 두 씨족의 아전인수 격의 구전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 내친김에 말하면, 누가 맏이냐 하는 서열 문제를 두고 양씨와 고씨가 20세기 후반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 적이 있다는 전언이 있다. 만약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실로 통탄하여 마지않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모라 몰락의 제일 원인은 건국 초심인 모흥정신의 상실에 따른 탐라 구성원

결속의 와해였다. 사실, 삼을나 공동왕권의 모라는 고씨와 양씨가 각각 왕 자리와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부씨가 공동왕권에서 밀려나 신하 자리를 맡고 있던 때에, 즉 건국 주역인 삼을나 후손의 권력 쟁탈의 와중에 몰락했다. 게다가, 문씨(곧, 고씨의 사돈)마저 끼어들어 왕자 자리를 놓고 양씨와 각축했다. 그러다 보니, 모라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내처 말하면, 모라 몰락의 제이 원인은 당대 시대정신인 무속의 악영향이었을 것이다. "(전략) 성(兄)광 아실 굴릴 때에 고의왕(高爲王)은 왕이 되고, 양의왕(良爲王)은 신내(臣下)되고, 북의면(夫爲民)은 민(民)이 설립헤여 제주절도 설립홉데다. (후략)" 이는 굿의 한 초감제에서 구송되는 본풀이이다. 생각건대, 이 본풀이는 무속이 고씨 · 양씨 · 부씨를 각각 왕 · 신하 · 백성이라고 제멋대로 재단(곧, 이간질)함으로써 모흥정신 상실을 부추긴 증거일 것이다. 하긴, 탐라 무속은 일치 정신인 모흥정신을 저해할 분열적 성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다신론多神論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무속의 분열적(곧, 다신론적) 성향은 지난날 탐라사회의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했다. 그래서 탐라사회는 전체보다는 부분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즉, '하나의 본향당신'(곧, '하나의 굿당')을 중심으로 한 각 단위마을 내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결속과 일치를 도모한 반면, 단위마을들 간에는 단절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고 보면, 모흥정신 상실과 그에 따른 모라 몰락은 당연지사인 셈이다. / 부언하면, 작금의 제주무속은 제주의 신적 존재 수효가 '만 팔천'이라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 이천' 또는 '만 오천'이라 하더니 이제 '만 팔천'이라 하니까. 만 이천 또는 만 오천은 '완전함 · 충만함 등을 뜻하는 숫자들'(곧, 3 · 10 · 100)을 곱하여 얻은 '3천'에다 사방을 뜻하는 '4' 또는 오방五方을 뜻하는 '5'를 곱한 것으로 '신이 도처에 충분히 있음'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만 팔천은 오방을 뜻하는 5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6'으로 대치해 놓은 것이다. 다만, 신의 수효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다. 실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신은 다다익선인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니다. 굳이 말하면, 신은 적을수록 좋다. 아니, 유일신이 가장 이상적이다. 한 민족 결속의 구심점이 되어 주니까.

**떠와 동쪽 바닷가에 닿자**淫至于東海濱에서의 '동쪽 바닷가'는 작금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해변이다. 그런데 그 해변과 그 맞은편의 일본 규슈九州 서쪽 해변 사이로는 쿠로시오黑潮 지류인 대마난류對馬暖流가 북상한다. 그렇다면, 지난날 남방계 유·이민이 간간이 이 해류에 실려 와 그 양 해변은 물론이고 한반도 남동 해변에도 표착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한반도 남동 해변에서도 바다나 강 등에 접한 지역에서 흔히 목격되는 소위 표착漂着 화소(예: 가락국 수로왕비 허황옥許黃玉과 신라 탈해왕脫解王의 표착화소)를 볼 수 있다. 참, 규슈에서는 용출종지 화소도 볼 수 있다.

**목함 안에는 또 석함이 있었고**函內又有石函에서의 목함은 혹시 궤짝 형태 선실이 얹혀 있는 테우(뗏목)가 아닐까? 참, 테우는 『구약성서』「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方舟, 즉 תֵּבָה[tḗ·ḇāˊ, 테바(또는 테와)]와 발음이 흡사하다. 한편, 석함石函은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에서의 석함, 즉 칠성들(곧, 어미 황구렁이 한 마리와 딸 황구렁이 일곱 마리)이 실려 온 석함을 연상시킨다. 그럼, <삼을나(곧, 모라건국)>나 <사신蛇神 칠성>에서의 석함은 일종의 제주본풀이 화법(곧, 습관적으로 쓰는 관용어)일까? 아니, 제주본풀이들에서의 석함은 부석浮石에서 착안한 것일지도 모른다. 19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탐라 근해에서는 둥실둥실 물에 떠 있는 부석을 흔히 볼 수 있었으니까.

**자색 옷에 홍색 띠를 맨 사신이 함께 와 있었다**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중국인 유흠劉歆(B.C.46~23A.C.)의 『칠략·술수략七略術數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故聖王必正歷數以定三統服色之制[그러므로 성왕은 반드시 역수를 바로잡아 의복의 색깔을 세 가지로 통일하여 정하였다.]" 그럼, 위 대목에서의 사신은 혹여 서불徐芾(곧, 서복徐福)이 아닐까? 그 사신 복장의 자색과 홍색이 이 인용문에서의 의복 색깔 셋 중 둘일 수 있으니까. 아울러, 탐라건국 무렵(곧, 기원전 220년경에서 기원 70년경 사이)에 그런 차림을 했을 사신의 나라로는 탐라 주변에서는 중국이 가장 유력할 테니까. 아니, 중국이 유일했을 테니까.

**청색 옷을 걸친 처녀 셋 및 뭇 망아지 · 송아지 · 오곡 종자**青衣處女三乃諸駒犢五穀種. 서불은 동남동녀 수백 쌍, 곡식, 가축 및 갖은 생필품을 실은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탐라를 경유하여 일본 구마노

우라態野浦로 가서 왜족倭族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데 서불은 탐라에 잠시 유숙한 대가, 아니 사례謝禮로 여자 몇 명 · 우마 · 곡식 등을 남기고 떠나갔을 것이다. 여자를 남긴 것은 여자가 그때는 선린외교의 한 매개체여서였을 것이고, 우마 · 곡식 등을 남긴 것은 그것들이 농경사회에서의 필수품(곧, 가장 소중한 물품)이어서였을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여기서의 송아지, 망아지, 오곡 종자 등을 두고 혹자는 말한다. '탐라에서의 목축과 농경의 시작'이라고. 일리 있는 주장이다. 신화가 역사를 대신한 선사시대의 마지막은 청동기시대이고, 청동기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기이니까. 아울러, 서불이 도래한 기원전 220년 무렵에는 탐라에서도 청동기시대가 진행중이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을 확대해석하여 서불 전에는 이 땅에 우마도 오곡도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 땅을 비하하는 편견의 소치이다. 내처 말하면, 혹자는 위 화소의 증언에도 아랑곳없이 단언한다. 이 땅의 말은 몽골 치하에서 몽골에 의해 몽골로부터 들여온 것이라고. 물론 이 단언에는 저의가 있다. 그것은 이 땅은 말조차 나지 않을 만큼 척박한 곳이라 '육지의 구제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곳'(곧, '제주')이라는 우격다짐을 하려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처녀 셋은 혹여 서불이 중국을 뜰 때 동행한 수백의 동남동녀 중 셋이 아닐까? 그럼, 어찌하여 그들이 일본국 왕녀로 둔갑한 것일까? 생각건대, 사람의 뇌리에 각인되는 것은 만남보다는 헤어짐일 것이다. 그러니, 탐라민중에게는 서불과 만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희미해지다가 망각되었고, 그리고 서불과 헤어짐만 어렴풋이 남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탐라인들은 서불이 일본으로 간 것은 일본에서 왔기 때문이라 여기게 되었을 것이다. 만물은 회귀하게 마련이니까. 이리하여, 그 처녀 셋은 일본국 왕녀로 둔갑하게 된 것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일본에 정착한 중국인 일행'인 셈이다. 그럼, 이는 작금의 탐라 지향점인 '세계 평화의 섬' 구현에 유용하지 않을까? 그 이면에는 탐라국은 단일종족이 아니라 복수의 종족이 하나가 되어 세운 나라라는 의식이 들어 있을 테니까. / 부언하면, '탐라에서의 농경의 기원'을 두고 <삼을나(곧, 모라건국)>는 '일본국(곧, 동해 벽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 하고, 후술할 <세경(곧, 자청

비 · 문도령 · 정수남이)>은 '자청비가 옥황상제에게서 하사받은 것'이라 한다. 즉, 양자의 진술이 상이하다. 이는 <세경(곧, 자청비 · 문도령 · 정수남이)>이 외지(곧, 한반도)에서 유입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삼을나(곧, 모라건국)>가 탐라 자생의 것일 테니까.

**일본국**日本國은 「영주지」에는 '동해東海 벽랑국碧浪國'으로 되어 있다. 그럼, 위 일본국과 동해 벽랑국은 별개일까, 또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일까? 현용준은 「삼성신화연구三姓神話硏究」(『耽羅文化』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日本國과 碧浪國의 문제. 이것은 碧浪國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 본다. 日本國은 實在의 나라이지만 碧浪國은 非實在의 상상의 나라다. 조선조 英祖때 北濟州郡 涯月邑 출신 張漢喆이 지은 <漂海錄>(1771년)에 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이 있다. '日本의 對馬島는 한라산의 동북에 있고, 壹岐島는 正東에 있고, 女人國은 동남에 있다. (中略) 淸州 · 荒州는 한라산의 서북에 있다. 이상 여러 나라는 다 耽羅와 隔하여 멀리 떨어져 거리가 몇 千萬里 되는지 모른다. 그중 가장 먼 것은 東海의 碧浪國이니, 일본의 동쪽에 있고, 巨人島는 壹岐島의 동남쪽에 있다. 人跡이 통하지 않아 政敎가 미치지 못하니, 이는 隔世의 別界다.' 張漢喆은 이처럼 적고, 또 碧浪國에 대해서는 '在昔 耽羅無人物 三乙那始降 未有配耦 碧浪王 妻之以三女云[옛적 耽羅에 인물이 없을 때 三乙那가 비로소 하강했으나 그 짝이 없으므로 碧浪王이 三女를 보내어 혼인하게 했다]'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보아도 三姓神話의 碧浪國이 女人國, 巨人國과 더불어 상상의 나라임을 이해하게 된다. (중략) 그러고 보면, 日本國이라 한 것은 합리적인 思考에서 동해에 있는 실재의 나라로 比定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발췌문에 의거하면, 현용준 주장의 요지는 사서史書인 『고려사』가 「영주지」에서의 벽랑국(곧, 비실재의 상상의 나라)을 일본국으로 임의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선뜻 수용할 수 없다. 벽랑국은 비실재의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재의 나라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벽랑국은 <삼을나> 화소이고, 그리고 <삼을나>는 비실재의 상상의 소산이 아니라 실은 선사시대의 역사이니까. 물론 장한철의 위 터무니없는 진술을 논거로 벽랑국의 실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재단한 것도 선뜻 수용할 수 없다. 그의 진술은 사료史料도 신화도 아니라 자의적인 이야기, 즉 장한철 개인에 의해 조작된 한낱 설화屑話에 불과할지도

모르니까. 장한철 조작의 가능성은 그의 진술 중 '三乙那가 비로소 하강下降했으나'에서의 '하강'이 입증한다. 물론 하강(곧, 강림)은 '용출종지'여야 한다. 여하튼, 현용준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碧浪國은 본래 순 우리말로 된 이름을 한자표기한 것임에 틀림없다. '碧浪'은 변화하기 쉬운 모음을 빼고 보면 /p~r~ŋ/형이 된다. 한편, '바다(海)'의 현대 제주 방언은 '바당'이요, 15세기 중부지방어는 '바ᄅᆞᆯ'이다. '바당'은 제주방언에 흔히 붙는 /-ŋ / 접미사가 '바다'에 붙은 형태이니, 이 접미사를 '바ᄅᆞᆯ'과 같은 15세기 이전의 제주방언으로 거슬러 올려 붙여서 재구한다면, '바ᄅᆞᆼ'내지는 '바랑'과 유사한 말이 될 것이다. 현대 제주방언에도 '바릇궤기(海魚)' · '바르찹다(漁撈하다)'와 같이 '바르'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재구는 가능한 것이다. (중략) 그래서 '벽랑국'은 '바다나라' 곧 '海國'을 의미했던 말이라 추정되며, 동해상의 상상의 나라였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벽랑국이 '바다나라'인 것은 위 주장에서와 같이 굳이 어원을 따지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東海 碧浪國'을 풀어 쓰면 '탐라 동쪽(東) 바다(海) 짙푸른(碧) 물결(浪) 너머 나라(國)'이니까. 생각건대, 왜倭이니 일본이니 하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탐라인들은 현 일본을 '탐라 동쪽 바다 짙푸른 물결 너머의 나라(곧, 땅)'라 불렀는지도 모른다. 이는 일본국과 동해 벽랑국은 별개가 아니라 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고려사』에서의 일본국과 「영주지」에서의 동해 벽랑국 중 어느 것이 원형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셈이다. 물론 훗날의 문헌들[곧,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 『탐라지』(1653년) · 『동국통감』(성종 연간) · 『남환박물』(1702년) · 『해동역사』(정조 연간) · 『편례초編禮抄』(연대 미상) · 『탐라기년』(1918) · 『장흥고씨가승長興高氏家乘』 · 『탐라지』(1933년) 등]도 <삼을나>를 등재하면서 일본국과 벽랑국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했을 것이다. 『고려사』와 「영주지」가 했던 것처럼. / 각설하고, <삼을나>에서의 일본국은 지난날 한반도인과 탐라인 간에 이민족 의식을 더더욱 조장함으로써 한반도인들로 하여금 탐라인과 왜인을 동일시하게끔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탐라인을 하시하고 핍박하게끔 했을 것이다.

**큰 산이 내린 신의 아들 세 사람**嶽降神子三人에서의 '큰 산이 내린'은 '큰 산이 낳은'(곧, '한라산 정기를 받고 태어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 대목은 단군신화와는 이질적인 것이다. 단군은 강림한 천제

자天帝子 환웅桓雄의 아들이니까. 생각건대, 위 대목에는 "탐라인은 한라산의 후예이다"라는 의식이 들어 있다. 이는 탐라인들은 한라산을 매개체로 해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탐라인은 각각 별개가 아니라 '하나'(곧, 한 공동체)인 셈이다. 내처 말하면, 이런 의식에 기인하여 지난날 '괸당黨'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것이다. 괸당에서의 '괸'은 '괴다'(곧, '사랑하다')의 관형사형이다. 이는 괸당은 겨레(뜻: 사랑하는 무리)라는 말이다. 그래서 지난날 탐라인은 연배는 삼을나가 의형제인 것처럼 다 형제로, 손윗사람은 다 삼촌으로, 손아랫사람은 다 조카로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 괸당은 부계혈족 또는 권당(곧, 친척)이라는 의미로 영락해 버렸고, 그리고 탐라후예들은 다 남남으로 단절되어 버렸다. 참, 괸당 풍습은 작금에는 타파해야 할 폐습쯤으로 한낱 뜨내기 정치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기막히고 난감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업**大業은 개국開國이다. 물론 그 개국은 '진부한 개국', 즉 '진시황의 중국대륙 통일 같은 무력에 의한 개국'은 아니었을 것이다. <삼을나>에서의 사자使者가 다름이 아니라 서불(곧, 서복)이었을 테니까. 돌이켜보면, 서불은 진시황 측근으로 진시황의 중국통일 사업에 기여했다. 그러나 방사方士인 그는 훗날 진시황의 법가法家사상에 따른 사상통제로 법술지사法術之士들에게 밀려나 지방에서 은거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또한, 분서갱유라는 진시황의 병적 광기 앞에서 생존 위협마저 숨죽여 가며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서불은 진시황 생각만 하면 『주역』에서의 혁괘革卦(곧, 혁명의 도道)와 이괘頤卦(곧, 양육養育의 도), 즉 혁괘의 탕무혁명湯武革命과 이괘의 호시탐탐虎視眈眈이 떠올랐을 것이다. 탕무혁명은 은나라 탕왕(곧, 대을大乙)과 주나라 무왕이 각각 하나라 폭군 걸왕과 은나라 폭군 주왕을 넘어뜨린 혁명이고, 호시탐탐은 위정자爲政者 통치의 정도正道이다. 그렇다면, <삼을나>에서의 사신 신분의 서불은 탐라인들에게 개국을 권유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학정에 항거하여 혁명을 이룩한 대을大乙', '통치 정도를 상징하는 호시탐탐에서의 탐眈이라는 글자', '칼(곧, 무력)이 아니라 협의 · 공정 · 평화 등에 의거한 건국이라는 자신의 이상理想' 등에 대해 피력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서불이

삼을나의 모흥정신에 의거한 탐라眈羅(곧, '탐耽이라는 나라'), 즉 모라毛羅(곧, '모毛라는 나라')의 건국에 기폭제 노릇을 했다는 말이다.

**사신은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使者忽乘雲而去. 위 사신은 타고 온 배를 띄워 짙은 해무海霧를 뚫고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갔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는 신화의 화법이다. 『신약성서』「요한의 묵시록ΑΠΟΚΑΛΥΨΙΣ ΙΩΑΝΝΟΥ」 1장 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μετὰ τῶν νεφελῶν]" 물론 이런 화법은 신화의 숭고미를 한층 더 고양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나이 차이**年次는 권위적 서열이 아니라 예의禮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생각건대, 한 편의 설화는 마치 한 알의 복숭아가 하나의 핵과 주변 과육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의 핵심화소와 여타화소들로 되어 있다. 게다가, 여타화소들은 마치 복숭아 과육이 핵을 위해 핵에 덧씌워져 있듯이 핵심화소를 위해 핵심화소에 덧씌워져 있다. 그러고 보면, 여타화소들은 마치 복숭아 과육이 핵에 반해서는 안 되듯이 핵심화소에 반해서는 안 되는 셈이다. 따라서 삼을나 신화의 여타화소들 중 하나인 '나이 차이'도 핵심화소인 모흥혈(곧, 모흥정신)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삼을나 신화 해석에서는 미래를 위한 모흥정신에만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즉, 모흥정신에 반하는 일체의 요소(예: 권위적 서열)는 불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샘물 달고 기름진 곳**泉甘土肥處은 모라 도읍, 즉 칠성골(곧, 제주성, 제주성 동 · 서 ·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속칭 우리벌, 제주성 북쪽의 속칭 칠머리 해안) 일원이다. 우리벌은 4개의 내창(곧, 별도천 · 산저천 · 병문천 · 한천)이 밀집해 있는 3개의 들판[곧, 아라我羅 · 오라吾羅 · 사라紗羅(뜻: 비단 같은 우리벌) 등]을 통칭한 지명이다. 물론 내창 밀집한 들판이 있다는 것은 수질 좋고 수량 풍부한 샘물(예: 산젓물 · 가락쿳물 등)이 도처에 있어서 농경과 목축이 용이했다는 뜻이다. 한편, 칠머리 해안은 도처에 수량 풍부하고 수질 좋은 샘물 철철 넘쳐흐르는 소위 용천이 있어서 탐라국 시절은 물론이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산물(곧, 염분) 곳간 노릇을 했다. 물론 그 해안은 염분 품은 해산물이 염전을 불필요하게 할 정도로 풍부한 덕에 당시의 칠성골 주민에게는 산저천(곧, 칠성골 주민 식수원) 못지않은 젖줄(또는 터전)이

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그 해안 중심부인 소위 탑동 먹돌왈(곧, 칠머리 넷째 용머리)에서 소위 구릉굳(곧, 칠머리 둘째 용머리)에 이르는 지역이 매립되어(곧, 파헤쳐지고 파묻혀져) 예전의 그 풍요롭던 모습은 흔적조차 가뭇없다. 내친김에 말하면, 기후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인간 탐욕 소산인 그 매립지가 미구에 해수 범람으로 재앙을 맞는 것은 혹여 아닐까?

**화살을 쏘아 터전을 정하였다**射矢卜地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화살을 쏘아 터전을 정한 것'을 삼을나가 각각 어느 방위에 위치해야 <삼을나(곧, 모라건국)>에서의 부서富庶 이념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점복 행위로 보는 것이 모흥정신에 부합된다는 말이다. 참, 점술 · 점성술 · 풍수설 등의 탐라에서의 효시는 아마도 서불의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 **부을나**夫乙那. 이 호칭들의 말뜻에 관한 견해는 분분하다. 그럼, 기존 견해들 중 그럴싸한 것 4가지를 먼저 살펴본다. ❶ 『탐라기년耽羅紀年』(김석익, 1918년)은 말한다. "乙那: 或曰乙如乙豆乙巴之類 那如居西那之類 尊君之稱 又曰乙那如新羅赫居世之稱 蓋鄕言王也"[혹 이르기를, 乙은 乙豆, 乙巴와 같은 종류요, 那는 居西那와 같은 종류로서 임금을 높여 부르는 칭호라 한다. 또 이르기를 乙那는 新羅의 赫居世 칭호와 같은 것이라 하니, 모두 방언으로 임금이라는 말이다]라고. 이 견해의 요지는 乙 · 那 · 乙那가 모두 하나같이 방언으로 임금을 뜻하는 칭호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방언 운운(곧, 한반도어는 표준어이고 탐라어는 방언이라는 전제)은 좀처럼 수긍이 안 간다. 신화는 신화시대의 산물이고, 신화시대의 마지막은 청동기시대이고,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한반도인과 탐라인은 이민족(곧, 언어가 다른 민족)이었을 테니까. 게다가, 乙 · 那 · 乙那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셋 다 임금 칭호라는 것도 수긍하기 쉽지 않다. ❷ 『한국의 신화』(장주근, 성문각, 1961)는 말한다. "고을나 · 양을나 · 부을나의 '고 · 양 · 부'는 다 성씨이고, 乙那는 얼레 · 얼라 · 알라 따위와 같은 소아小兒를 나타내는 탐라의 어떤 낱말에 대한 음차音借 곧 한자표기일 것이다"라고. 경상도 방언에서의 소아를 뜻하는 얼라 · 알라 등이나 김알지金閼智에서의 알지는 중국어에서의 남아男兒를 뜻하는 兒花[érhuā, 얼화] · 兒子[érzi, 얼쯔]와 뜻이

흡사하다. 얼라(또는 알라)의 '얼'(또는 '알'), 알지의 '알', 얼화 · 얼쯔의 '얼'은 모두 하나같이 뜻이 '어리다'이고, 그리고 그것들 접미사 '라, 지, 화, 쯔'는 모두 하나같이 뜻이 '것'일 테니까. 참, 얼라 · 알라 등은 얼화와, 그리고 알지는 얼쯔와 발음도 흡사하다. 한편, <삼을나>에서의 을나는 얼라 · 알라 · 얼화와 발음이 유사한데 뜻이 상이하다. 생각건대, 발음이 유사한 것은 우연히 유사한 것이고, 그리고 뜻이 상이한 것은 을나에서의 '을'의 뜻이 '어리다'가 아니라 '하나'여서일 것이다. 을나에서의 '을'의 뜻이 '하나'임을 입증해 주는 것은 <삼을나> 핵심화소 모흥혈毛興穴에서의 '모毛'[←'三+乙(곧, 一)']이다. 요는 乙那는 小兒에 대한 借字가 아니라는 말이다. ❸『제주도 수필』(석주명, 보진제, 1968)은 말한다. "三神人名考. 李殷相氏에 依하면, 良乙那는 '올ᄂᆡ' 高乙那는 '골ᄂᆡ' 夫乙那는 '불ᄂᆡ'일 것이고 '올, 골, 불'은 神聖, 光明, 統禦의 意이고 'ᄂᆡ'는 人格을 表示하는 'ᄂᆡ'이니, 올ᄂᆡ는 올區域 卽 第一徒에 계신 분, 골ᄂᆡ는 골區域 卽 第二徒에 계신 분, 불ᄂᆡ는 불區域 卽 第三徒에 계신 분, 卽 各 區域의 統治者를 말함 (하략)"이라고. 이 견해에 의하면, 乙那에서의 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ㄹ', 즉 허사虛辭(곧, 형식형태소)이다. 하지만 이 乙은 허사일 수 없다. <삼을나> 핵심화소 모흥혈毛興穴(←'三+乙+興+穴')에서의 乙이 허사가 아니라 실사實辭(곧, 실질형태소)이니까. ❹「삼성신화연구」(현용준,『탐라문화』제2호)는 말한다. "첫째, 高 · 良 · 夫는 본래 姓일 수 없고, 이것 자체도 이름의 漢字借字表記라 본다. 선사시대에는 한자의 성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高 · 良 · 夫字가 성이 아니라면 당연히 '高乙+那', '良乙+那', '夫乙+那'의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셋째, 이 借字들이 音借냐, 訓借냐가 문제되는데, '高 · 良'字는 訓借表記로 보고, '夫'字는 音借表記로 보고, '乙'은 音借 '을' 내지 略音借 'ㄹ'로, '那'는 音借 'ᄂᆡ' 내지 '나'로 보고자 한다. '乙'은 앞의 말 '高 · 良 · 夫'의 訓音의 관형사형어미 '-을'이고, '那'는 '弗矩內'의 '內'와 같은 것으로 현대어 '우리네 · 그네 등'에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高乙那는 '높을ᄂᆡ'로 '높은 이'의 뜻, 良乙那는 '어질ᄂᆡ'로 '어진 이'의 뜻, 夫乙那는 '불ᄂᆡ' 내지는 '불ᄂᆡ'로 '밝은 이'의 뜻이 된다. (중략) 이 이름에서 '높음(崇高), 어짊(善良), 밝음(光明)'의 세 가지 가치개념을 찾아낼 수 있다. 三神人의 이름은 이러한 가치개념을 人格化시킨 것이다."라고. 이상에서 위 ❶ · ❷ · ❸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또는 반론)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니, 이하에서는 위 ❹에 대한 문제점(또는 반론)을 네 가지(곧, 아래 (1)~(4)) 제기한다. (1) "선사시대에는 한자의 성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견해에 대한 반론: 신화가 역사를 대신한 선사시대(곧, 신화시대)의 마지막은 청동기시대이고, 그리고 청동기시대는 국가성립 시기이다. 그러고 보면, 중국에서의 청동기시대는 주周(B.C.1100년경~256년)가 멸한 은殷왕조 때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청동기시대는? 통설에 의하면, 그것은 북부에서는 B.C.10세기경에, 남부에서는 B.C.4세기경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의 정립을 전후하여 막을 내리고 철기시대로 넘어갔다. 그럼, 한자는 언제 나타났을까? 중국에서의 한자는 주왕조의 선왕(B.C.828~782) 때에 태사太史 주籒에 의해 대전大篆이 만들어졌다. 이는 중국에서의 한자 성씨제도는 춘추전국시대(B.C.770~221) 이전, 즉 늦어도 진시황 등장(B.C.221) 이전에는 확립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진시황[嬴(영)-政(정)]과 그의 동시대 인물들[예: 徐(서)-芾(불), 李(이)-斯(사), 韓(한)-非子(비자)]의 '성-이름'이다. 서불은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 탐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망명한 인물이고, 이사와 한비자는 순자荀子 문하에서 가장 뛰어난 두 인물이다. 특히 후자들은 중국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사는 대전을 소전小篆으로 개량했고, 진시황의 재상이 되어 진시황과 함께 중국의 정치적 · 사상적 통일을 이루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분서갱유(B.C.213)라는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사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한비자는 법가法家의 주도적 인물로서 진시황이 원하는 중국의 사상적인(또는 정치적인) 통일을 위한 이론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중국의 한자가 한반도로 전래된 것은 언제쯤일까? 통설은 북부에서는 위만조선(B.C.195~108) 무렵으로 본다. 게다가, 『삼국유사』에 "本姓解也, 今自言是天帝子 承曰光而生, 故自以高爲姓[본래의 성은 '해'이다. 지금 자기 말로는 천제의 아들로 일광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고로, 스스로 '高'를 성씨로 삼았다]"라는 기사가 있으니 고구려 시조 주몽(재위: B.C.37~19)의 성씨 '高'는 한자임에 틀림없다. 그러고 보면, 늦어도 주몽 당대에는 한자 성씨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셈이다. 남서부에서는 온조 재위기간

(B.C.18~28A.D.) 무렵으로 본다. 백제시조 온조가 주몽의 셋째아들이라 하니까. 그리고 남동부(곧, 신라)에서는 내물왕 무렵으로 본다. 내물왕(356~402) 시절에 동진東晋(316~439)과 교류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 양梁 왕조(502~557) 정사正史인 『양서梁書』(당나라 요사렴 편찬, 629년) 신라전新羅傳에는 신라에 문자가 없음을 말해주는 기사(곧, "無文字, 刻木爲信")가 있다. 하지만 신라 내물왕 이전 인물들인 박혁거세(재위: B.C.54~4) · 석탈해(재위: 57~80) · 김알지(곧, 석탈해 양아들)에서의 朴 · 昔 · 金은 『삼국유사』의 아래 내용들에 의하면 한자 성씨임에 틀림없다. "男以卵生 卵如瓠 鄕人以瓠爲朴 故因姓朴[남자는 알에서 나왔는데, 알은 박 같았다. 향인이 박을 '朴'이라 하니, 성씨를 '朴'이라 하였다] / 以昔是吾家取他人家故 因姓昔氏 或云 因鵲開櫃 故去鳥字 姓昔氏[옛적에 내 집이라 하여 남의 집을 빼앗았으므로 성씨를 '昔'이라 하였다. 혹은 까치로 해서 궤를 열게 되었으므로 鵲字에서 鳥字를 떼고 昔氏라 하였다] / 因金櫃而出 乃姓金氏[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다]" 이는 박혁거세 당대 신라에도 한자 성씨에 관한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다. 참, "魏志云 魏滿擊朝鮮 朝鮮王準率宮人左右 越海而南至韓地 開國號馬韓[魏志에 이르되 魏(衛)滿이 朝鮮을 치니 王準이 左右宮人을 데리고 바다(海)를 건너 南으로 韓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馬韓이라 하였다]"(『삼국유사』 권1 마한), "秦의 流亡人이 韓國에 오매 馬韓이 東界의 땅을 베어 주었다"(『삼국유사』 권1 진한)라는 기사들은 서불 일행 같은 한자를 아는 유·이민 집단들이 고구려 등의 건국 이전 한반도로 흘러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각설하고, 이제 B.C.220년경에서 70년경에 이르는 동안의 탐라 상황으로 눈을 돌리자. B.C.219년, 서불은 수백 명의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탐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갔다. 그런데 만일 서불이 자기 일행 중 몇 명을 탐라에 남겨 두고 떠났다면 한자의 탐라 전파는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실, 서불이 일본으로 떠나고 난 후 탐라에서는 탐라국(곧, 모라毛羅)이 수립되었다(B.C.219~70A.D.). 물론 여기서의 毛(곧, 모라毛羅에서의 毛)는 한자 육서六書의 회의會意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는 이 毛(→毛)가 모라건국 무렵의 탐라에 한자에 관한 지식이 있었음을 웅변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고로, "선사시대에는 한자의 성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는 수긍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高 · 良 · 夫는 위 「삼성신화연구」의 견해와는 달리 본래

한자 성씨인 셈이다. ⑵ "'高 · 良'字는 訓借表記로 보고, '夫'字는 音借表記로 보고자 한다"란 견해에 대한 반론: 이 견해는 의심(곧, 오류)의 여지가 없지 않다. 논리가 일관성 없으니까. 아니, 왜 어떤 것은 훈차표기로, 어떤 것은 음차표기로 본단 말인가? ⑶ "乙은 音借 '을' 내지 略音借 'ㄹ'로 보고자 한다"란 견해에 대한 반론: 이 견해에 의하면, 여기서의 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즉 허사(곧, 형식형태소)이다. 그런데 이 乙이 허사라는 말은 '삼을나가 흥기한 혈'(三乙那興穴)의 약칭이 毛興穴[←三乙興穴(실사+허사+실사+실사)]이 아니라 三那興穴(실사+실사+실사+실사)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毛興穴이 약칭으로 쓰이는 것은 왜곡(곧, 오류)인 셈이다. 이는 "有穴曰毛興"(『高麗史』卷五十七 志卷第十一 地理二)에서의 '毛興'도 "海東安弘記云 九韓者 一日本 … 四乇羅 …"(『삼국유사』 마한條)에서의 '乇羅'도 오류라는 말이다.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 乙은 허사(곧, 관형사형 전성어미), 즉 음차 '을' 내지 약음차 'ㄹ'이 아니라 실사이다. 참, 乙那에서의 乙이 허사라면 낱말 乙那는 생겨날 수 없다. 허사가 어절의 첫 음절 자리에 놓일 수 없으니까. ⑷ "이 이름들(곧, 고을나 · 양을나 · 부을나)에서 '높음(崇高), 어짊(善良), 밝음(光明)'의 세 가지 가치개념을 찾아낼 수 있다"란 견해에 대한 반론: 통설에 의하면, 한반도의 지난날 언어는 두 갈래로 대별된다. 하나는 북부의 부여어계夫餘語系(예: 부여어, 고구려어)이고, 다른 하나는 남부의 한어계韓語系(예: 마한어, 진한어, 변한어)이다. 그런데 부여어계는 고구려가 득세하면서 고구려어로, 그리고 한어계는 신라가 득세하면서 신라어로 통합되어 간다. 그러다가, 신라의 삼국통일로 신라어가, 이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이번에는 고려어(곧, 경기 지방 언어)가 한반도 전역을 장악한다. 바로 이때 탐라가 한반도에 병합된다(1105년). 그러고 보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전에는 탐라와 한반도는 언어가 상이했던 셈이다. 따라서 한자 '高' · '良'의 고려어 해석(곧, '높음' · '어짊')을 그것들의 탐라어 해석에 그대로 원용援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부언하면, '良'이 '어짊'(善良)의 훈차표기가 아니라 본디 한자 성씨임을 암시해 주는 기록이 『탐라기년』(김석익, 1918)에 있다. 그것은 "宋尤庵時烈曰 (中略) 至新羅改良爲梁[송우암 시열이 이르기를 (중략) 신라 때에 이르러 良氏를 梁氏로 고쳤다고 했

다]"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자 梁은 원래는 발음이 '道[do:r, 돌]'이고 뜻이 '어짊'과는 무관한 '門([英] door)'이었다. 梁의 발음이 '돌(곧, 道)'이라는 것은 『삼국유사』(권1 진한)에서의 "辰韓(또는 秦韓이라고도 쓴다): (전략) 또 崔致遠은 말하되 辰韓은 본래 燕人이 避難해 온 것이므로, 涿水의 이름을 取하여 그들이 사는 邑里를 沙涿, 漸涿 等이라 한다 하였다(新羅方言에 涿의 音을 道라 하였으므로, 지금도 혹 沙梁이라 쓰고 梁을 또한 道라고 읽는다). 新羅全盛時代에는 서울에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洞), 三十五의 金入宅(富潤한 大宅을 이름이다)이 있었으니, 南宅, 北宅 (중략) 梁宅 (중략) 楊上宅(梁部의 南) (중략) 金楊宗宅(梁官寺南쪽) (중략) 沙梁宅 (중략) 楡南宅, 井下宅이었다"라는 기사가, 그리고 梁의 뜻이 '문門'이라는 것은 『삼국사기』(권44 화랑 사다함열전 전단량栴檀梁)에서의 "加羅語門爲梁云"[가야 말로 문門을 梁이라 했다]라는 기사가 입증한다. 참, 梁의 본디 뜻 '문(곧, 방문 · 대문 따위)'은 '들보 · 교량 따위'로, 그리고 門의 본디 발음 '돌'[do:r]은 門의 중국어 발음 '먼'(주음부호 ㄇㄣˊ / 한어병음자모 mén)의 영향을 받아 '문'[mun]으로 오늘날은 달라져 있다. 여하튼, 어쩌다 '良의 梁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일까? 생각건대, 그것은 어쩌면 '당대 교역 당사국인 양梁나라 글자(곧, 당대 중국어)에서 良과 梁의 발음이 공히 liáng(이는 한어병음자모 표기임)이라는 점'과 아울러 '글자 梁이 위 『삼국유사』 인용문에서 보듯이 신라에서 부윤한 대택大宅을 지칭하는 글자들 중 하나로 쓰였다는 점'이 良氏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성씨 良은 한 씨족의 근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良의 梁으로의 교체는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량을나' 정체가 '어질닉'[곧, '어진 이(또는 분)']가 아니라, 즉 良이 '어짊'의 차자표기가 아니라 한낱 한자 성씨에 불과한 것이어서였을 것이다. 참, 양梁(502~557)은 동진東晋이 몰락한 후 남조南朝의 송宋(420~479) · 제齊(479~502)에 이어 들어선 남조 세 번째 나라로 신라와 교류했을 것이다. 신라는 내물왕 때 동진東晋(316~439)과 교류한 흔적이 있으니까. 그럼, 백제도 당연히 양나라와 교류했을 것이다. 한편, 탐라도 양나라와 교류했을 것이다. 탐라는 백제와 교류한 흔적이 있으니까(476년, 498년). / 지금까지 살펴본 위 ❶ ~ ❹는

견해가 상이하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공히 유의미하다. 설화 해석이란 일종의 설화 향유(곧, 꿈꾸기)이니까. 물론 꿈은 제각각일 수 있다. 그럼, 이제 '고을나 · 량을나 · 부을나' 말뜻에 관한 새로운 꿈을 어디 한번 꾸어 보자. 덤으로 말이다. 『탐라기년』(김석익, 1918년)은 전한다. "金楓阜祖淳曰 良乙那生于漢拏山石窟中 與檀君同時開國 其後曰 宕始通新羅"[김풍부 조순이 이르기를, 양을나가 한라산 석굴 속에서 나와 단군과 같은 때에 개국하고, 그 후 (양)탕이 비로소 신라와 통했다고 했다]라고. 이는 탐라기원(곧, 모라건국)이 B.C.2333년이라는 말이다. 『탐라성주유사』(고씨종문회총본부, 1979)도 탐라기원은 단군기원(B.C.2333년)보다 4년 앞선 B.C.2337년이라고 단언한다. 한편, 사학계는 추론한다. 탐라기원은 70년경이라고. 70년경은 후한後漢(25~220) 명제明帝(57~75) 연간에 해당된다. 물론 사학계 추론이 탐라기원에 대한 작금의 중론이다. 하지만 탐라건국 맹아는 서불이 내도來島한 B.C.220년경부터 움텄을 것이다. 예컨대, 초보적 단계의 농경 · 목축, 몇몇 성씨 · 국호에 대한 한자 사용, 기초적 풍수설 등이 그때부터 탐라에 등장했을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삼을나(곧, 모라건국)>는 어쩌면 세 부류 공동체(곧, 본토박이, 남방계, 중국계 등으로 대별되는 집단들)의 융화 과정이 담긴 내력담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본토박이(한반도계 포함) 공동체는 지신地神이나 숨굴(곧, 지신이 숨쉬는 굴) 따위에 대한 신앙을 지닌 수렵사회였고, 남방계 공동체는 용출종지 신앙이나 뱀 토테미즘 따위에 대한 사상을 지닌 어렵사회였고, 그리고 중국계 공동체는 한자, 풍수설, 농경, 목축 따위에 대한 지식을 지닌 농경사회였을 것이다. 물론 중국계 공동체는 중국 고대국가 은殷에 대한 기억(예: 은나라 제일가는 성군聖君 대을大乙에 관한 기억 등)이나 중국 사상에서의 乙의 정체에 대한 인식 따위도 어렴풋이나마, 아니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참, 대을이 세운 은왕조는 씨족연합체 국가였고, 농업중심 사회였고, 각처의 씨족마다 왕자제도를 두었고, 그리고 주변 나라 · 종족 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구전에 의하면, 탐라국도 이와 대동소이한 사회였다. 내처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B.C.220년경을 무심코 원시시대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현대인의 한낱 오만 · 편견 · 무지 등의 발로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현대

들인은 항해를 할 때에는 전파탐지기나 나침반 같은 장비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장비들이 없으면 속수무책이다. 반면, 고대인들은 축적된 경험, 단련된 몸, 노련한 기술, 자연적인 지형 · 지물 따위에 의거하여 자유자재로 바다를 누비고 다녔다. 이는 탐라인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니, 만일 탐라후예가 지난날 탐라는 절해고도였을 것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한낱 자기비하 의식의 발로일 따름이다. 부언하면, 지난날은 육로보다 해로로의 이동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육로에서는 갖은 장애물(곧, 울창한 숲, 공격적인 맹수들, 호전적인 토착민들, 험준한 지형 · 지물 등) 탓에 이동이 지난했겠지만 해로에서는 해류를 잘 알고 풍랑을 익히 다스리기만 하면 이동이 무난했을 테니까. 따라서 탐라건국 무렵에도 탐라 · 중국 · 한반도 · 일본 등은 상호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구 · 대만 · 동남아 지역도 왕래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흑조黑潮(곧, 쿠로시오)가 있으니까. 참, B.C.220년경은 서양에서는 로마제국이 지중해 통일시대를 열고 민주공화정을 실시하던 시절이다. 아무튼, 서불의 두 차례 내도來島가 탐라국 창건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高乙那 · 良乙那 · 夫乙那'의 정체(곧, 말뜻)는? ⑴ 그중 '高 · 良 · 夫'의 정체는? 그것은 전술한 바대로 본디 한자 성씨였을 것이다. ⑵ 그중 '乙'의 정체는? ① '乙'과 '一'의 중국어 발음은 한어병음자모로는 각각 yǐ(제3성)와 yī(제1성)이다. 즉, 성조聲調만 다르다. 고로, 乙과 一은 상통한다. ② 글자 乙의 근원(곧, 자원字源 𠂇 )은 음기陰氣가 여전히 강한 초봄에 초목의 싹이 곧게 돋아나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음을 본뜬 것이다. 이는 乙이 소생[곧, (새로운) 시작이나 혁신 따위]의 상징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작(예: 창조)에는 근원[예: 하느님 · 태극(곧, 무극)]이 있고, 그리고 근원은 하나(一)이다. 고로, 乙과 一은 상통한다. 참, 은나라 왕 도합 30명 중 무려 5명(곧 대을大乙, 조을祖乙, 소을小乙, 무을武乙, 제을帝乙)이나 혁신革新[곧, (새로운) 시작]을 표명하려고 자신들 칭호로 글자 乙을 사용했다. ③ 태극은 태일太一 · 태을太乙 · 도道 따위와 유사한 개념이다. 『장자』「천하편」에 "노자의 중심 사상은 태일 · 유무有無 · 상常인데, '태일'은 '도'이고 '도'에서 '一'이 나오므로 도 자체가 태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一이 태극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고로, 乙(근원: 태극, 태을, 태일, 도 따위)과 一은 상통한다. ④ 주희朱熹(1136~1200)의 『주자어류朱子語類 卷94』에 "사물마다 모두 '하나의 표준' 곧 '극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이치이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이치를 총괄하는 것은 바로 태극이다. (중략) 무극無極이란 단지 맨 끝에 이르러 더 이상 갈 데가 없음을 표시한다. 지극히 높고 지극히 현묘하고 지극히 정교하고 지극히 신비로워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음을 뜻한다. 주렴계는 사람들이 태극은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을 우려하여 '무극이 곧 태극이다'라고 말하였다. 주렴계의 이 진술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극한 이치가 있음을 뜻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태극은 무극無極(곧, '형체가 없는 것')으로 '一 직전直前의 것'이라는 말이다. 고로, 乙과 一은 상통한다. 참, 극極이라는 글자는 본디는 건물 지붕의 맨 꼭대기에 있는 용마루를 가리켰는데 이를 신유가新儒家에서 사물의 최고의 이상적 모범을 뜻하는 용어로 차용하면서 무극이나 태극 따위에 쓰이게 되었다. 신유가란 유가를 도가에 접근시키려는 11~12세기 중국 유가 조류를 일컫는 용어이다. 도가를 유가에 접근시키려는 3~4세기 중국 도가 조류는 신도가新道家라 한다. 이상의 ①, ②, ③, ④에 의하면 乙은 하나[一]의 상징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乙은 지난날 탐라에서는 '巳[뱀]'를 상징하는 글자로 쓰였을지도 모른다. 이는 乙이 제정일치 시대 탐라에서는 제사장(곧, 성주星主)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뱀은 지난날 탐라의 토템이었으니까. 또한, 乙의 자원字源(곧, 초봄 초목의 싹이 돋아나는 모양에 대한 상형 𠃌)은 '동면에서 깬 뱀이 머리를 곧추들고 솟아나는 모양'을, 나아가서 '뱀을 토템으로 여기는 삼을나의 용출종지 모양'을 연상시켰을 테니까? 그런데 乙이 巳의 상징으로 쓰였을 개연성은 열려 있을까? 물론 열려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숭배대상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행위는 통상 불경스러운 짓으로 간주되었으니까. 예컨대, 히브리인들은 하느님 이름 יַהְוֶה(Yah-weh, 야훼) 대신 '나의 주님'(곧, 주인님)이라는 뜻의 글자 אֲדֹנָי(Adonai, 아도나이)를 차용했다. 즉, 필기할 때에는 '야훼의 자음子音' יהוה에 '아도나이의 모음母音' ָ ֹ ָ(곧, 외부모음 a-o-a)을 붙여 יְהֹוָה(Jehovah, 여호와)로 적어 놓고, 독서할 때에는 그 외부모음

을 따라 '아도나이'라 읽었다. 물론 불경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친김에 말하면 יְהוָה(여호와)라는 조어造語는 그런 사연을 모른 훗날의 그리스도인들, 즉 『구약성경』의 방계傍系 상속자들에 의해 곧이곧대로 수용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여호와'라는 인위적인 호칭이 안타깝게도 통용되게 되었다. 내처 말하면, 히브리어는 본래는 자음만으로 필기되던 언어였다. 그런데 로마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다. 그러자 히브리인들은 식민지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 압제를 피해 로마제국 내의 타 지역으로 흩어져 가 소위 '이산離散(곧,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리고 언어로는 주변의 다른 공동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세계 일상용어였던 희랍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히브리어는 희랍어에 밀려 사장되었고, 그리고 모음표기가 없는 탓에 점차 발음마저 혼탁해져 갔다. 그래서 마소라(Masorah: 전통적인 주석) 학자들이 주로 『구약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존할 목적으로 자음 외부(곧, 주로 자음 위쪽 또는 아래쪽)에다 새로 고안한 열 개의 모음을 첨부해 놓았다. 여기서 '외부모음'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요는 乙이 지난날 탐라에서는 어쩌면 巳의 상징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⑶ 그중 '那'의 정체는? 그것은 『시경詩經』 상송商頌의 편명篇名 '那一章'에서의 那와 유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위 상송은 도합 5편으로 되어 있다. 일설은 말한다. 이 5편은 주周 제후국인 춘추시대 송宋의 대공戴公 때 정고부正考父가 주조周朝 악사樂師에게서 얻어 온 상송 12편을 공자가 편시編詩한 것이라고. 이는 이 상송은 은대가 아니라 주대의 작품이라는 말이다. 상송에서의 '상'은 은의 처음 국명인데, 상의 은으로의 개칭은 제19대 왕 반경盤庚이 도읍을 은(곧, 지명이자 씨족 연합체 명칭)으로 옮긴 데서 유래했다. 주周 무왕은 국호 은을 폐하고, 미자微子를 송宋의 제후로 봉하여 은의 뒤를 잇게 했다. 여하튼, '那一章'(那의 뜻: 칭송)은 위 5편 중 첫째 편[22구句의 사언시四言詩(곧, 한 句가 넉 자로 된 한시漢詩)]으로 성탕(곧, 대을)을 위한 제사 때 읊는 일종의 축문이다. 그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猗與那與, 置我鞉鼓, 奏鼓簡簡, 衎我烈祖, 湯孫奏假, 綏我思成[참으로 칭송하여 마지않을 분이 아닙니까! 우리 앞에 도고를 늘어놓고, 둥둥둥 북을 쳐, 빛나는 우리 조상 즐겁게 해 드립니다. 탕왕의 손자가 이 풍악을 드리오니,

편안히 우리에게 예를 이루게 하소서!]" 여기서의 '첫 구 넉 자'(곧, 猗與那與)를 분석하면, 猗[ㅣ, 의]는 '탄미歎美의 말'이고, 與[ㅣ, 여]는 '의문의 어기사語氣詞'이고, 그리고 那[nà, 나]는 뜻이 '(칭송하여 마지않을) 분'이다. 바로 여기서의 那가 三乙那에서의 那일지도 모른다. 이는 三乙那에서의 那의 정체가 의존명사 '분'(또는 접미사 '님')이라는 말이다. 이상의 (1) · (2) · (3)에 의거하면, 高乙那 · 良乙那 · 夫乙那에서의 高 · 良 · 夫는 한자 성씨들이고, 乙은 一(또는 巳)의 상징이고, 그리고 那는 뜻이 분(또는 님)이다. 그러고 보면, 高乙那는 '고씨라는 성씨를 가지고서 모라건국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신 분', 良乙那는 '량씨라는 성씨를 가지고서 모라건국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신 분', 그리고 夫乙那는 '부씨라는 성씨를 가지고서 모라건국에 참여하여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뜻인 셈이다. 따라서 三乙那는 '셋(三)이 하나(乙)가 되신 분들', 부연하여 설명하면 '세 개의 숨굴(곧, 세 부류의 공동체)에서 각각 태어났지만 하나의 근원에 닿아 있어서 일체이신 분들'인 셈이다, 환언하면, 모흥정신(곧, 다양성의 일원화)의 화신인 셈이다. 물론 이 꿈(곧, 추론)도 기존 꿈들, 즉 위 ❶ ~ ❹처럼 가설이란 운명에 갇혀 그 속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탐라국 사료 일체가 소위 '무근성 큰불'(1434년)로 전소되어 버려서, 게다가 탐라국이 망국이라 탐라어가 가뭇없이 소실되어 버려서 그 가설들에 대한 검증 수단이 전무한 형편이니 말이다.

**제일도第一都**, **제이도第二都**, **제삼도第三都**를 혹자는 서열화 논리로 해석하려 든다. 이를테면, 여기서의 제일 · 제이 · 제삼을 각각 첫째(예: 맏이) · 둘째(예: 버금) · 셋째(예: 막내)라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서열화 논리는 <삼을나> 이면 정신인 모흥정신의 취지에 배치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열화 논리 대신 모흥정신 구현에 유용한 음양오행설[오행五行과 사시四時(곧, 사계四季)] 논리로 위 대목을 해석하려 한다. 음양오행설은 말한다. "오덕五德, 즉 오행(곧 목, 화, 토, 금, 수)은 서로 낳고(相生) 서로 이겨낸다(相克)"라고. 그리고 "사계가 이 오덕의 생성 과정에 맞추어 발생하여 봄의 목기木氣는 여름의 화기火氣를 낳고(木生火), 여름의 화기는 중앙의 토기土氣를 낳고(火生土), 중앙의 토기는 가을의 금기金氣를 낳고(土生金), 가을의

금기는 겨울의 수기水氣를 낳고(金生水), 겨울의 수기는 봄의 목기를 낳는다(水生木)"라고. 또한, "오행 · 사계 · 방위方位는 시작도 끝도 없이 다만 순환할 따름이고, 이 순환 과정에서 만물이 생긴다"라고. 덧붙여 말하면, 『노자; 第42章』에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도에서 1이 생기고, 1에서 2가 생기고, 2에서 3이 생기고, 3에서 만물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여하튼, ⑴ 여기서의 '제일 · 제이 · 제삼'의 정체는? 제일도 · 제이도 · 제삼도의 대체적인 실제 위치(곧, 방위)는 차례로 동쪽 · 남쪽 · 서쪽이다. 이는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제일도(春, 木; 동쪽)는 제이도(夏, 火; 남쪽)를, 제이도는 가상假想의 도都(가상의 계절, 土; 중앙)를, 가상의 도는 제삼도(秋, 金; 서쪽)를, 제삼도는 또 다른 가상의 도(冬, 水; 北)를, 그리고 또 다른 가상의 도는 제일도(春, 木; 동쪽)를 낳는다'(이하: ①)라는 말이다. 동쪽에 위치한 제일도는 춘春이며 목木이고, 남쪽에 위치한 제이도는 하夏이며 화火이고, 서쪽에 위치한 제삼도는 추秋이며 금金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상의 도'를 제외하고 '실제의 도'만 추려내어 재정리하면, 위 ①은 '제일도는 제이도를, 제이도는 제삼도를, 그리고 제삼도는 제일도를 낳는다'가 된다. 이는 그 세 개의 도는 '서로를 낳는다'(곧, 상생相生한다)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위 '제일 · 제이 · 제삼'은 음양오행설에서의 오행 · 사계 · 방위 등의 상징인 셈이다. 물론 그것들 상생의 이면에는 모흥정신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 상생사상(곧, 모흥정신)의 기반 위에서 <삼을나>에서의 '부서富庶'(곧, '삼을나의 건국이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⑵ 여기서의 '도'의 정체는? 이 '도'는 삼을나 설화에 관한 두 최고最古 문헌, 즉 『고려사』와 「영주지」에는 공히 '都'로 되어 있다. 그런데 훗날의 편저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 『탐라지』(1653) · 『남환박물』(1702) 등에서의 삼을나 설화에는 '徒'로 되어 있다. 제주 목사牧使를 지낸 적 있는 이형상李衡祥은 숙종 28년(1702) 펴낸 『남환박물』 지적조誌蹟條에서 이 '徒'를 두고 "徒字疑是都字之誤 而方言稱徒曰乃"[徒자는 都자의 잘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방언은 徒를 乃라고 일컫는다]라 진술하고 있다. 물론 이 인용문 전반부(곧, '徒는 都의 오기誤記이다')는 지당한 발언이다. 『고려사』와 「영주지」에 공히 '都'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의 오기 徒

는 고의적인 왜곡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까? 물론 전자이다(이는 곧 재론함). 그럼, 그 후반부(곧, '방언은 徒를 乃라고 일컫는다')는? 「三姓神話研究」(현용준, 1983년)는 말한다. "오늘날 제주도 巫歌에서 '일내 일도一徒, 이내 이도二徒, 삼내 삼도리三徒里'라 노래 불려지고 있는데, 이 '일내 · 이내 · 삼내'는 一徒 · 二徒 · 三徒의 원음의 잔영일 것이니, 이로써도 '徒'가 '내'의 표기임을 알게 한다"라고. 그리고 주註에다 덧붙여 놓았다. "徒가 '내'의 借字表記이면 都로 쓰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의문이 남는데, 都도 封邑 占有의 뜻이니, 결국 居住地의 뜻으로 '내'의 異字表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또한, 위 「三姓神話研究」는 『고가연구』(양주동, 박영사, 1943, pp.492~493)에 의거하여 "양주동도 '徒'의 古訓은 '내'라고 하고 그것이 地名, 人名에 많이 쓰인 것을 예증하고 있다"라 말한 연후에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이로써 '~내' 위에 序數를 붙여 所居地 이름으로 삼은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所居地를 일컫는 '~내(徒)'가 三神人을 일컫는 '~닉(那)'와 동사음同似音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어원의 '내 · 닉' 따위 類似音에 價値槪念語 또는 序數를 관형하여 神人名 또는 所居地名을 만들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神人名은 '높다' · '어질다' · '밝다' 등의 가치개념을 '~닉' 위에 관형하여 만들었고, 所居地名은 이 가치개념을 첫째 · 둘째 · 셋째 식으로 서열화하여 '~내' 위에 관형하여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所居地名은 神人名의 가치관적 서열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요, 神人名과 所居地名은 대응되는 것으로서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임을 알게 된다." 이상의 「삼성신화연구」 견해는 다음 넷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이하: ❶), 徒는 '내乃'의 차자표기이다. 둘째(이하: ❷), 都와 徒는 공히 봉읍封邑(곧, 제후諸侯 영지領地)을 뜻한다. 셋째(이하: ❸), '~닉'(那)와 '~내'(徒)는 유사한 음音이니 동일 어원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넷째(이하: ❹),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는 '가치개념어(곧 높음, 어짊, 밝음)+닉(那)'이고 '제일도, 제이도, 제삼도'는 '위 가치개념어들의 서열화(곧 첫째, 둘째, 셋째)+내(徒 또는 都)'이니 거주지명은 신인명의 가치관적 서열 표현에 불과한 것인 셈이다. 참, 위 「三姓神話研究」는 위 네 가지 견해에다 두 가지 견해(이하: ❺ · ❻)를 덧붙여 놓았다. ❺ 良 · 高 · 夫(또는 高 · 良 · 夫)가 長 · 次 · 三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또 君 · 臣 · 民으로 계층화(곧, 서열화)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신인명新人名의 가치개

념과 소거지명所居地名의 서수序數에 의한 서열화에 대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 「三姓神話硏究」는 아래 도표로 제시해 놓았다.

| | 長幼(또는 倫理) | 氏族 | 居住地 | 身分 |
|---|---|---|---|---|
| 崇高 | 長 | 高氏 또는 良氏 | 第一都 | 君 |
| 善良 | 次 | 良氏 또는 高氏 | 第二都 | 臣 |
| 光明 | 三 | 夫氏 | 第三都 | 民 |

❻ 위 도표는 '고대 제주인의 사고 체계'를 도식화해 놓은 것이다. 그럼, 이제 위 ❶ ~ ❻에 대한 진위眞僞(또는 호오好惡)를 따져보자. 설화 해석이란 '옳음과 그름'(또는 '좋음과 나쁨')의 대상이니까. 물론 설화 해석은 설화가 그렇듯 일종의 꿈꾸기이다. 그리고 그 꿈꾸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인 동시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는 설화 해석은 모름지기 과거와 개인이 아니라 미래와 공동체를 지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설화연구가의 설화 해석은 민중이 설화를 향유(곧, 구전)하듯이 설화를 향유하는 것(곧, 미래와 공동체를 위해 꿈꾸는 것)인 셈이다. 여하튼, 위 ❶(곧, 徒는 '내乃'의 차자표기라는 견해)에 대한 진위(또는 호오) 여하는? ⅰ. 『삼국사기』(권 제35, 잡지 제4 지리2)에 "槐壤郡, 本高句麗仍斤內郡, 景德王改名 / 黑壤郡(一云黃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 景德王改名"[고구려 때의 仍斤內郡 · 今勿奴郡이 신라 경덕왕 때 각각 槐壤郡 · 黑壤郡으로 개칭되었다]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의하면, 신라어 '땅이나 흙 등'(壤)에 해당하는 고구려어는 '내內' 또는 '노奴'이다. ⅱ. 『삼국유사』(권1 진한)에 "辰韓(亦作秦韓):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適韓國 而馬韓害東界地以興之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十二小國 各萬戶 稱國"[辰韓(또는 秦韓이라고도 쓴다): 後漢書에 辰韓耆老가 말하되 秦의 流亡人이 韓國에 오매 馬韓이 東界의 땅을 베어 주었다 하고 서로 불러 徒라고 하는 등, 秦語에 近似하므로 혹은 秦韓이라고 하였으며, 十二 小國이 있어, 각각 萬戶로서 나라라 일컬었다]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의하면, 진한辰韓의 여러 소국小國은 서로를 '徒', 나아가서 '나라(國)'라 불렀다. ⅲ. 한국(곧 마한, 진한, 변한 등)에서의 '國'에 상당하는 말은 '羅羅'[나라(←나나 또는 라라)]이다. ⅳ. '땅 · 토지 등'의 만주어 발음은 'na'이다, ⅴ. 지진地震의 일본어 발음은 'ない'[na-i](古語: なる)이다. 이상 ⅰ~ⅴ에 의하면, 지

난날의 탐라에서도 땅이나 나라 따위에 해당하는 낱말들 발음은 '내內(또는 乃) · 노奴 · 나羅 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徒'의 고음古音이 '내乃'라는 이형상 · 양주동 · 현용준의 견해는 의심의 여지가 추호도 없어 보인다. 내친김에 말하면, 「삼성신화연구」가 앞에서 제시한 무가巫歌 '일내 일도, 이내 이도, 삼내 삼도'는 '첫째(一)가는 땅(乃)은 일도, 버금(二)가는 땅(乃)은 이도, 셋째(三) 가는 땅(乃)은 삼도'라는 뜻이다. 이는 땅을 서열화함으로써 땅에다 고저高低 또는 귀천貴賤의 등급을 매긴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무가는 제주 무격들이 삼을나 공동왕권의 분열을 조장해댔음을 말해 주는 증거인 셈이다. 지난날 무격들이 굿에서 이 무가를 구송해댐으로써 삼을나 간의 서열화(곧, 경쟁)를 부추겨댔을 테니까. 또한, 위 「삼성신화연구」에서 발췌한 다음 대목도 삼을나 간 서열화 조장의 증거일 것이다. "현재 무당굿의 초감제에서 노래 불려지는, 三姓開國에 관한 대목도 (중략) '영평永平 팔년八年 을축乙丑 삼월 열사흘날 ᄌᆞ시子時에는 고의왕(高爲王), 축시丑時에는 양의신(良爲臣), 인시寅時에는 북의면(夫爲民) 설립ᄒᆞ던 섬이우다. 양의왕도 왕이노라, 북의왕(夫爲王)도 왕이노라, 성(兄)광 아시(아우)를 ᄀᆞᆯ리저 ᄒᆞ옵건, 고의왕은 할로영주(漢拏瀛洲山) 어싱생(御乘生岳) 단골머리(골머리봉) 쌀(矢)을 ᄒᆞᆫ대 노니, 동이와당(東海바다) 광덕왕 진도받졌고나, 양의신내(良爲臣下) 쏘는 쌀 서이와당(西海바다) 광인왕 진도받졌고나, 북의면(夫爲民) 쏘은 쌀은 동문밧겻(東門 바깥) 사봉(紗羅峰) 넘엉 쌀쏜 거리 지엇고나. 성(兄)광 아시를 ᄀᆞᆯ릴 때에 고의왕은 왕이 되고, 양의왕은 신내(臣下)되고, 북의면(夫爲民)은 면(民)이 설립헤여 제주절도 설립ᄒᆞᆸ데다.' (중략) 永平八年 毛興穴에서 솟아난 三姓始祖가 활쏘기로써 君 · 臣 · 民의 서열을 정해 건국했다는 내용으로 노래 불려진다." 내처 말하면, <삼을나>는 핵심화소 '모흥혈'에서 움텄을 것이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되는 가운데 역사적 상황들이 반영된 '부차적인 화소들'이 하나씩 둘씩 달라붙어 현 <삼을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차적 화소들 중 어떤 것들은 화소 모흥혈 이면의 모흥정신에 반反하는 것들(예: 서열화 · 경쟁 논리)이다. 이는 <삼을나>가 탐라사회 미래의 이정표(또는 길라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모흥정신에 배치된 화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훌륭한 설화 해석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이다. 훌륭한 설화 해석가란 마치 복사나무에서 빛나는 보석 따위가 아니라 맛있는 복

숭아를 수확해 내는 훌륭한 농부처럼 설화 이면에서 기발한(예: 부정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정신이 아니라 바람직한(곧, 시의적절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선별하여 추출해 내는 자이다. 그럼, 위 ❷(곧, 都도 徒도 공히 봉읍封邑을 뜻한다는 견해)에 대한 진위(또는 호오) 여하는? ⅰ. 위 「삼성신화연구」의 봉읍 발언에는 탐라국은 본디 제후국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어불성설이다. 탐라국(곧, 모라)은 본디 자주독립국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발언은 탐라국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까, 아니면 자기비하 의식의 발로일까? 아무튼, 모라를 제후국으로 폄훼하는 이런 발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ⅱ. 『고려사』와 「영주지」의 <삼을나>에서는 都 · 徒 중 都만 쓰였다. 이는 '제일도 · 제이도 · 제삼도'에서의 '도'는 본디는 徒가 아니라 都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都는 한반도인들 사찬私撰인 1530년대 이후 저술들에서는 徒로 대체되었다. 생각건대, 그것은 1530년대 무렵이 모라가 한반도 속지로 아주 전락해 버린 이후의 시대[곧, 탐라국 흔적지우기인 성주제도 폐지(1402), 도지관제도 폐지(1445) 등이 마무리된 시대]라서였을 것이다. ⅲ. 삼한三韓 일원에서는 소위 '72(실은 78)개의 소국小國'(곧, '씨족 · 부족 집단들')이 서로를 '徒'라고 불렀다. 그런데 '徒들의 통합체'인 신라新羅 · 백제百濟 · 가야伽倻 등이 등장하면서 그것들의 중심 '徒'들은 자연스럽게 '都'(곧, 도읍)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타 徒들은 都(곧, 도읍)에 딸린 봉읍 정도로 인식되게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徒라는 호칭은 비칭卑稱 취급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즉, 도당徒黨(뜻: 떼지은 무리를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도 띠게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ⅰ~ⅲ에 의거하면, 문제의 都는 '탐라국 도읍'이라는 뜻으로 '탐라인들 용어'였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의 徒는 '비칭화卑稱化된 소국小國'인 동시에 '봉읍'이라는 뜻으로 '한반도인들 용어'였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 변경(곧, 都→徒)은 한반도의 탐라에 대한 비하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즉, 탐라국을 본디 한반도 봉읍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의 발로인 동시에 탐라건국 주역인 삼을나 집단을 한낱 도당(곧, 섬 오랑캐)으로 매도하려는 속셈의 발로인 셈이다. 이는 그 변경은 실수에 기인한 오기誤記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말이다. 그럼, 위 ❸[곧, '~내'(徒)와

‘~닌’(那)는 유사한 음音이니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견해]에 대한 진위(또는 호오) 여하는? 뭐, ‘일정 거주지를 뜻하는 명사’ 내[徒](곧, 땅 · 나라 등)와 ‘동일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닌[那](예: 우리네에서의 ‘네’)가 어원이 동일하다고? 이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 아니, ‘내’와 ‘닌’의 자형상(또는 발음상)의 유사함은 어원의 동일함 때문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가 아닐까? 그럼, 위 ❹(곧, 신인명神人名은 가치개념어이고 거주지 명칭은 신인명의 가치관적 서열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진위(또는 호오) 여하는? 이 견해도 수용하기 쉽지 않다. 신인명, 즉 삼을나(뜻: ‘셋이 하나가 되신 분’)는 모흥정신(곧, 상생논리)을 표명하는데, 거주지 명칭은 모흥정신에 반하는 서열화 논리(곧, 신인명의 가치관적 서열 표현)를 표명하니까. 그럼, 위 ❺(곧, 서열화 논리로 일관한 위 도표)에 대한 진위(또는 호오) 여하는? 이 견해 또한 수용하기 쉽지 않다. 아니, 서열화 논리로 일관한 위 도표가 과연 <삼을나>의 존재의의인 모흥정신과 양립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지난날(곧, 모라 몰락 이래) 탐라후예는 한반도 조정의 무자비한 무단통치 탓에 먹고살기에 급급했다. 그러니, 이 땅의 당대 시대정신을 대변한 무격 대다수도 하릴없이 먹고살기에 급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탐욕(예: 권력욕 · 축재욕 등)에 사로잡힌 나머지 삼을나 공동왕권 일각에 빌붙어 이간질로 그 왕권의 분열을 조장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설화의 변조나 날조 따위(예: 고을나 · 양을나 · 부을나의 군 · 신 · 민으로의 서열화)도 마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공동왕권(나아가서, 모흥정신)의 와해를 촉진시켰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위 도표는 <삼을나> 이면 정신(곧, 모흥정신)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숭고 · 선량 · 광명이라는 개념도 서열화 대상이 되거나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 위 ❻[곧, 고대 제주인의 사고체계를 서열화(곧, 경쟁) 논리로 도식화한 견해]에 대한 진위(또는 호오) 여하는? 물론 이것도 또한 수용하기 쉽지 않다. <삼을나> 핵심 화소는 모흥혈이고, 모흥혈은 모흥정신의 상징이고, 그리고 모흥정신은 서열화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니까. 생각건대, 탐라에서의 경쟁논리(예: 高 · 良 · 夫氏의 君 · 臣 · 民으로의 왜곡)는 처음

에는 무격들(곧, 억불책에 밀려 유입된 한반도인들)에 의해 싹텄을 것이다. 사실, 제주민중에게 있어서 이런 경쟁논리는 꿈속에서도 상상 못 할 일이었을 것이다. 생활상이 한반도 조정의 무단통치 탓에 콩밥쪽도 나눠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테니까. 요컨대, 바람직하지 않은(곧, 시의적절하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은) 서열화 논리로 <삼을나>를 재단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부가 많아졌다富庶**에서의 부富의 뜻은 '재산'이고, 서庶의 뜻은 '많다'이다. 그러고 보면, 화소 富庶가 뜻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삶이 윤택해지다'인 셈이다. 한편, 삼을나 설화가 화소 모흥혈(←용출종지)에서 움텄다면 화소 富庶는 삼을나 설화 골격이 거의 다 구비된 연후에, 즉 삼을나 공동왕권이 공고했던 시절(곧, 모라毛羅가 모라乇羅로 바뀌기 이전 시절), 환언하면 민중 삶이 윤택했던 시절에 덧붙여졌을 것이다. 참, 화소 富庶는 가히 삼을나 설화에서의 건국이념이라 함직한 것이다. 마치 홍익인간이 단군신화에서의 건국이념이듯이.

**※ <삼을나(곧, 모라건국)>의 이해를 위한 도움말:**

⑴ 지난날 탐라 토박이들은 지신地神과 지신 출입구 숨굴을 경외하며 주로 수렵으로 삶을 영위했을 것이다. 그런데 용출종지 신앙과 뱀 토테미즘을 지니고 주로 어렵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남쪽 바다를 건너 도래했을 것이다. 또, 농사 · 목축 · 한자 · 풍수설 등의 지식을 지니고 주로 농경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이따금 서쪽 바다를 건너 도래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진 문물을 지닌 서불 일행이 도래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진 문물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건국 기틀을 마련했을 것이다. 이어, 위 세 공동체가 부족국가 모라乇羅를 함께 창건했을 것이고, 통치는 삼을나(곧, 그 세 집단 대표자)가 맡았을 것이다. 이리하여, 탐라인이라는 겨레(곧, 괸당)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여하튼, 그때부터 탐라인들은 수렵 · 어렵 · 목축 · 농경 등에 종사했을 것이고, 주변국들과 통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초보적 단계의 한자 · 풍수설 등도 향유했을 것이다.

⑵ 오늘날 강진이라 불리는 탐진은 지난날 한때 탐라국 세력권 아래 있었을 것이고, 탐라와 한반도 간 통상의 거점 노릇을 했을 것

이다. 그런데 그 통상은 탐라에는 화근이었을 것이다. 그 통상과정에서 백제 · 신라 · 고구려의 무력투쟁이 탐라인들 눈에 띠었을 테니까. 그리하여, 급기야는 삼을나 간에도 한반도식 권력투쟁이 싹텄을 것이고, 협의가 아니라 무력이 난무했을 것이고, 그리고 정의가 곧 힘이 아니라 힘이 곧 정의라는 사고방식이 판쳤을 테니까. 한편, 그 권력투쟁 과정에서 세력이 열세인 夫氏가 3자 공동왕권에서 밀려나 신하 직을 맡았을 것이고, 그래서 삼을나 상징인 국호 毛羅가 모라毛羅로 개칭되었을 것이다. 물론 탐라왕권을 두고 본격화한 각축은 高氏 · 良氏 간에도 그칠 줄 몰랐을 것이고, 엎치락뒤치락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각축은 세력이 우세한 고씨가 왕 직을, 세력이 열세인 량씨가 왕자 직을 맡는 선에서 일단락되었을 것이다.

⑶ 탐라는 탐진이 백제 관할 아래 있던 동음冬音 시절에는 백제와 교류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후 冬音이 신라 관할 아래 놓이고 탐진으로 개명되면서 탐라는 신라와 교류했을 것이다.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 시절의 인물로 훗날 제15대 탐라국 왕위에 오른 고후高厚가 태자 시절에 탐진을 경유하여 처음으로 신라 조정에 들렀다 하니까. 이는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660년을 기점으로 하여 탐라의 통상 대상이 백제에서 신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탐라의 국운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것은 탐라와 탐진이 실상은 불가분의 관계(곧, 본국과 자치령自治領의 관계)이니 탐라도 탐진처럼 고려를 섬기라는 것이었다. 이는 탐라로 하여금 고려 속국, 즉 제후국이 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당시 탐라왕 고자견高自堅은 하릴없이 태자 말로末老로 하여금 938년(태조 21) 음력 12월 고려 조정에 입조入朝하게 했다. 이는 고말로가 기인其人이 되었다는 말이다. 참, 고말로가 왕자가 아니라 태자라 불리게 된 것은 양씨가 왕자 직을 맡고 있어서였다. 내친김에 말하면, 왕자 직을 맡고 있던 양씨는 고말로가 고려 조정에서 태자가 아니라 왕자라 불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고려 조정을 등에 진 고씨의 맘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왕자 직에서 내몰릴 판국이었으니까.

⑷ 1105년(고려 숙종 10) 한반도 조정은 93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해 온 탐라국호 모라毛羅를 폐하고 탐라군耽羅郡을 두었다. 그리고 성주星主(곧, 제후국왕)와 지방관이 공동으로 다스리는 이원二元집정제도를 실시했다. 그런데 고려를 승계한 조선은 1402년(태종 2) 무렵 성주제도(곧, 성주 · 왕자 칭호)를 폐하고 당시 성주 · 왕자를 각각 조선 일개 군郡의 관리 격인 좌左도지관都知官 · 우右도지관에 봉했다. 즉, 도지관과 지방관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도지관 제도를 실시했다. 물론 이는 탐라가 고려 제후국에서 고려 일개 군으로 전락했다는 말이다. 태종 2년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가 태종조에 여쭈어 "星主 · 王子의 號가 분수에 지나친 것 같으니 청하건데 고쳐 주소서"라 했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있다. 이는 고씨가 성주 직에서, 그리고 양씨(또는 문씨文氏)가 왕자 직에서 축출된 것은 1402년경 일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종주국 사서 속의 종속국 역사인 위 기사는 액면 그대로의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종주국이 말하는 종속국 역사란 왕왕 왜곡되기 마련이니까. 참, 탐라왕가(곧, 高氏 집안)에 부마駙馬를 들인 문씨가 양씨를 왕자 직에서 밀어냈다는 전언이 있다.

⑸ 1445년(세종 27) 조선은 도지관 제도마저 폐지하고 탐라왕가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해 온 고씨를 좌도지관에서 아주 축출했다. 이로써, 탐라왕권은 가뭇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탐라후예들은 종주국 조선의 무단통치로 갈수록 헐벗고 굶주렸다. 그리고 그 와중에 모라건국 이후 이룩한 천여 년 간의 정신문화 유산도 물질문화 유산은 깡그리 초토화되었다. 그래서 탐라는 본디 문맹의 땅이며 불모의 땅으로, 섬 오랑캐의 땅으로, 그리고 절해고도로 그릇 인식되게 되었다. 참, 탐라(곧, 왕후지지王侯之地)는 오늘날 제주라 불린다. 1211년(희종 8년)경 고려 조정(곧, 무신정권)에 의해 명명된 이 호칭은 '고려(곧, 한반도)의 구제救濟를 받아야 할 고을[州]'이라는 뜻이다. 생각건대, 그 개명은 어쩌면 탐라를 '자의 그대로의 제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고려 조정 의지의 표출이었는지도 모른다.

⑹ <삼을나>에는 모흥정신 · 용출종지 사상 등이 있다. 그러고 보면, <삼을나>는 탐라후예들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탐라인은 다민족 후예이니, 그리고 삼라만상은 근원이 하나이니 대내적으로는 단결 · 결속 등을, 대외적으로는 화합 · 일치 등을 견지해야 한다고.

또한, 인간이란 땅(곧, 자연)의 위대한 지배자가 아니라 땅의 비천한 소산이니 모름지기 ᄌᆞ냥(곧, 겸손)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각설하고, 탐라인 심연에 외세에 대한 지독한 배타심, 아니 적개심이 있다. 생각건대, 그 악감정의 원인은 지난 왕조시대 외세의 학정 · 모멸 · 수탈 등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그 적개심 불식을, 아울러 이어도(곧, 탐라 미래) 구현을 위해 <삼을나>를 디딤돌로 삼으면 어떨까?

⑺ 탐라국은 망국亡國이다. 아니, 액면 그대로의 망국이다. 그 역사가 오늘날의 한국 역사에 계승되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동시대의 백제 · 신라 · 고구려 등도 망국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액면 그대로의 망국은 아니다. 그것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일단락이니까. 즉, 그것들 역사는 오늘날 한국 역사에 계승되고 있으니까.

⑻ 미래를 위해서 과거(곧, 역사)를 돌아다보는 것, 아울러 망각된 역사를 되살리고 사장된 역사를 꺼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두말없이 유의미한 일이리라.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라 하니 말이다. 아니, 만물은 회귀하게 마련이라 하니 말이다.

⑼ 1105년 고려 조정은 탐라국호 모라乇羅를 폐했다. 이로써, 탐라국은 몰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이는 탐라 신화가 종말을 고했다는 말이다. 망국 신화(곧, 선사시대 역사)는 종주국 신화에 밀려 축출되게 마련이니까. 한편, 탐라 전설(곧, 주로 '역사적 전설')이 격변기를 맞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저항적 색채를 짙게 띠었다는 말이다. 탐라 민중사는 모라 폐지 이후 외세(곧, 소위 육짓놈들) 핍박과 토박이들 저항으로 점철되었다 하니까. 그러고 보면, 모라 몰락은 탐라설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셈이다. 참, 탐라 신화와 제주 신화는 별개이다. 전자는 탐라에서 자생한 것이고, 후자는 한반도에서 제주로 유입되어 토착화한 것이니까. 부언하면, 전자는 오늘날은 <삼을나(곧, 모라건국)>뿐이고, 후자 중에서 전자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후술할 <송당(곧, 금벡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뿐이다.

⑽ 탐라 신화와 한반도 신화는 상이점이 있다. 그것은 남신男神 등장이 전자에서는 용출종지로, 그리고 후자에서는 강림 · 난생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본풀이와 그리스 · 로마 신화도 상이점이 있다. 그것은 전자는 축원사항 성취라는 공리적功利的

기능을 필히 요하고, 그리고 후자는 그런 기능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이점들은 민중사(곧, 민중 생활상)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올바른 신화 해석에는 올바른 민중사가 꼭 필요한 셈이다. 사실, 민중사를 도외시한 신화 해석은 자칫 신화 왜곡을, 나아가서 역사 왜곡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본풀이와 그리스 · 로마 신화의 또 다른 상이점은 전자는 오늘날도 여전히 신앙(곧, 종교)과 미분화未分化되어 있고, 그리고 후자는 오늘날은 신앙과 분화되어 문학으로 거듭나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그 상이점은 아마도 탐라사회는 모라 몰락 이후 외세 핍박 · 수탈 · 모멸 등에 시달리느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구습을 타파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한 때문이고, 그리스 · 로마 사회는 광대한 제국 건설에 따른 물질적 · 정신적 풍요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구습을 타파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달한 때문일 것이다. 환언하면, 제주사회는 본풀이를 시대 조류에 맞게 쇄신할(곧, 본풀이에서 신앙을 걸러낼) 탁월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갖지 못한 반면, 그리스 · 로마 사회는 신화를 시대 조류에 맞게 쇄신할 탁월하고 개혁적인 인물(예: 호메로스Ηομερος, 헤시오도스Ηεσιοδος 등)을 갖은 때문일 것이다.

# 제2장 전래되어 토착화한 본풀이

##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

태초에 천지는 혼돈混沌으로 있었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서로 맞붙고, 암흑과 혼합으로 휩싸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 이 혼돈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년甲子年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子方으로 열리고, 을축년乙丑年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丑方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금이 생겨났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는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려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점점 분명해져 갔다. / 이때, 하늘에서 청靑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또는 물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合水되어 음양상통陰陽相通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먼저 생겨난 것은 별이었다. 동쪽에는 견우성, 서쪽에는 직녀성, 남쪽에는 노인성, 북쪽에는 북두칠성, 그리고 중앙에는 삼태성 등등 많은 별들이 벌이어 자리를 잡았다. / 그러나 아직 암흑은 계속되고 있었다. 동쪽에선 청靑구름이, 서쪽에서 백白구름이, 남쪽에서 적赤구름이, 북쪽에서 흑黑구름이, 그리고 중앙에선 황黃구름이 오락가락하는데, 천황닭[天皇鷄]이 목을 들고, 지황닭[地皇鷄]이 날개를 치고, 인황닭[人皇鷄]이 꼬리를 쳐 크게 우니, 갑을동방甲乙東方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때 하늘의 옥황상제玉皇上帝 천지왕이 해도 둘, 달도 둘을 보내어 천지는 활짝 개벽이 되었다. / 그러나 천지의 혼돈이 아직 완전히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는 해도 둘, 달도 둘이 떠 있으므로, 낮에는 만민 백성이 더워 죽게 마련이고, 밤에는 추워 죽게 마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모든 초목이나 새 · 짐승 등이 말을 하고, 귀신 · 인간 구별이 없어 사람 불러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 불러 사람이 대답하는 그야말로 혼잡한 판국이었다. / 이러한 혼란한 세상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천지왕에게는 항상 걱정이었다. 묘책이 얼른 생각나지가 않았다. 어느 날 천지왕은 길한 꿈을 얻었다. 하늘에 떠 있는 해 둘, 달 둘 중에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켜 먹어 뵈는 꿈이었다. 이 꿈이야말로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귀동자를 얻을 꿈임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천지왕은 곧 지상의 총맹왕 총맹부인과 천정배필을 맺고자 지상으로 내려왔다.

총맹부인은 매우 가난하였다. 모처럼 천지왕을 맞이하였으나, 저녁 한 끼 대접할 쌀이 없었다. (중략) 아들 형제를 두었으니 솟아나거든 큰아들 이름

은 대별왕으로, 작은아들 이름은 소별왕으로 지어 두라는 말을 남기고 훌훌 떠나려는 천지왕을 총맹부인은 붙잡아 놓고서 무슨 증거물이라도 주고 가라고 애원했다. 그제야 박 씨앗 두 개를 내어 주며 '아들들이 나를 찾거든 정월 첫 돝날(亥日)에 이 씨앗들을 심으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 아닌 게 아니라, 총맹부인은 천지왕의 말대로 태기가 있어 아들 형제를 낳았다. (중략) 형제는 벗들 사이에서 항상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나무람을 받았다. (중략) 형제는 아버지가 두고 간 박 씨를 정월 첫 돝날에 정성껏 심었다. 박 씨는 얼마 안 되어 움이 돋아나 덩굴이 하늘로 죽죽 뻗어 올라갔다. 아버지가 박 씨를 주고 간 것은 이 줄기를 타고 하늘로 찾아오라는 것임을 곧 알았다. (중략) 귀동자 형제를 맞은 천지왕은 희색이 만면했다. (중략) 천지왕은 곧 이승은 형인 대별왕이, 저승은 동생인 소별왕이 차지해서 질서를 바로잡아 통치하도록 했다. (중략) 이승은 누구나 욕심이 나는 곳이었다. 소별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승을 차지하고 싶었다. (중략) 소별왕은 이승의 혼란을 바로잡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 끝에 형에게 가서 이 혼란을 바로잡아 주도록 간청했다. (중략) 대별왕은 먼저 천근 활과 천근 살로 하늘에 두 개씩 떠 있는 해와 달 중 앞에 있는 해는 남겨 두고 뒤에 오는 해를 쏘아 동해바다에 던져두고, 앞에 오는 달은 남겨 두고 뒤에 오는 달을 쏘아 서해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는 해와 달이 하나씩 뜨게 되어 백성이 살기 좋게 된 것이다. / 초목과 새 · 짐승이 말하는 것은 송피松皮 가루로써 눌렀다. 송피 가루 닷 말 닷 되를 세상에 뿌리니, 모든 금수 · 초목의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하고 사람만이 말을 하게 되었다. / 다음은 귀신과 생인의 분별을 짓는 일이었다. 이것은 우선 그 무게로 가르기로 했다. 저울을 가지고 하나하나 달아서 백 근이 차는 놈은 인간으로, 백 근이 못 되는 놈은 귀신으로 처리했다. / 이로써, 자연의 질서는 바로잡혔다. 형은 더는 수고를 해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 세상에는 역적 · 살인 · 도둑 · 간음 등이 여전히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ㅡ朝天面 朝天里 박수 鄭周柄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 『濟州島神話』(현용준, 서문당, 1976, 11-21쪽)에서 당해 신화(또는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하였다.

Ⅱ. 위 본문은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당해 본문을 두 단락

[첫 단락: '창조(곧, 천지개벽)' 관련 사항 / 둘째 단락: '(자연 또는 사회의) 질서' 관련 사항]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당해 본문(곧,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은 모계사회신화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란 창조 관련 사항(곧, 첫 단락)이 인격신 능력에 의거하는 모계사회신화와는 달리 음양오행설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해 본문(곧, 제주본풀이)에서의 창조(곧, 천지개벽)는 모계사회신화에서의 창조(곧, 천지분리)와는 달리 인격신 소관사항이 아니라 음양오행설(곧, 도교 교의에 의한 '동動과 정靜의 상호작용') 소관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는 모계사회 소산이 아니라 부계사회 소산인 셈이다. 도교 교의(예: 음양오행설)가 부계사회 소산이니까.

Ⅲ. 무격사회에서는 당해 본문 중 '천지왕이 총맹부인을 배필로 삼는 대목'부터 대단원까지를 천지왕 본풀이란 제하에 따로 분리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굳이 분리한다면 천지왕 등장 대목부터 대단원까지를 천지왕 본풀이로 분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하다. 천지왕 등장 직전까지는 인격신과는 무관한(곧, 음양오행설에 의한) 천지개벽 관련 이야기이고, 천지왕 등장부터는 인격신(예: 천지왕 · 대별왕 · 소별왕) 관련 이야기(곧, 내력담來歷談)이니까. 물론 당해 본문 중 천지개벽 관련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 내어 '(천지개벽) 본풀이'라 하지는 않는다. 천지개벽은 인격신 내력담이 아니고, 내력담이 아닌 것은 본풀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천지왕 등장 이전을 신화로, 그 이후를 본풀이로 취급하는 것도 예의 그 분리를 위한 일 방법인 듯하다.

Ⅳ. 당해 본문은 큰굿 첫 제의祭儀인 초감제에서 구송된다. 초감제는 심방(←신방: 신神의 형방刑房), 즉 무격이 장구 치며 천지왕天地王과 제신諸神을 제상祭床으로 초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흠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굿하게 된 까닭을 고한 후 기구祈求사항을 비는 제의이다. 그런데 그 구송에서 신들을 초청할 때에는 천지개벽에서 시작하여 삼황 · 오제 · 단군 · 기자 · 삼을나를 차례로 거쳐 현 시점(곧, 굿하는 장소 · 시각)까지로 내려온다. 그러고 보면, 그 구송은 당해 본문이 중국(천지개벽, 삼황, 오제)에서 싹터 한반도(단군, 기자)로 전래되어 토착화했음을, 그리고 또다시 제주(삼을나)로 전래되어 토착화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인 셈이다. 물론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여기서의 천지개벽은 도교적인(곧, 중국적인) 요소이다.

Ⅴ. 제주 신화(또는 본풀이)인 당해 본문에서도 도교 교의에서처럼 창조(곧, 천지개벽)는 음양오행설[예: <태극도설>(주돈이)]에 의거하고, 그리고 옥황상제는 최고신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본문은 부계사회 소산인 셈이다. 천지개벽은 천지분리(곧, 모계사회 소산)와는 달리 부계사회 소산이니까. 아울러, 옥황상제는 남신男神이니까.

Ⅵ. 옥황상제는 제주본풀이에서도 마치 도교 교의에서처럼 본디 신(↚인간)이다. 하지만 제주본풀이에서의 여타 주요 등장인물들(곧, 주역 · 조역)은 모두 하나같이 본디 신이 아니다. 즉, 본디는 인간이었다. 이는 제주본풀이 등장인물들 직능(곧, 신적 능력)은 옥황상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는 부계사회 소산인 셈이다. 옥황상제가 부계사회 소산이니까. 아무튼, 제주본풀이에서 옥황상제(대별왕 · 소별왕 포함)는 신적 존재(←사람)가 아니라 신(↚인간)이다. 한편, 제주본풀이에서의 주역 또는 조역은 마치 도교에서 불로장생술을 터득하고 불로불사의 선단仙丹을 먹은 인간이 신선(곧, 신적 존재)의 반열에 오르듯이 모두 하나같이 대단원에서 신, 아니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제주본풀이의 주역과 선善한 조역은 본풀이 대단원에서 반드시 산 채(다만 선한 조역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주역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선한 신적 존재로 좌정하고, 그리고 악惡한 조역은 반드시 주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연후에 악한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 참, 제주본풀이에서의 단역은 어떤 경우에도 신적 존재로 좌정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Ⅶ. 위 본문 중 첫 단락은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창조(곧, 천지개벽)를, 그리고 둘째 단락은 인격신 옥황상제 능력에 의거한 질서를 설명한 이야기이다. 그러고 보면, 그 양자는 창조와 질서라는 하나의 쌍으로 배치된 것, 즉 분리될 수 없는 것인 셈이다. 물론 그 양자는 공히 도교(곧, 부계사회) 소산이다. 음양오행설도 남신 옥황상제도 부계사회 소산이니까. 그런데 혹자는 소위 제주사濟州史를 다루면서 첫 단락(곧, 천지개벽 이야기)과 둘째 단락(곧, 천지왕 본풀이)을 분리해 놓고 그 사이에다 위신僞神 설문대할망을 삽입시킨다. 천지개벽은 모계사회 시절보다 앞선 시대의 일이고, 그리고 모계사회 소산인 여신

女神 설문대할망은 부계사회 소산인 남신 옥황상제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이라고 우격다짐해 가며 말이다. 어불성설이다. 물론 설문대할망이 모계사회 여신이란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설문대할망은 모라 몰락(1105년) 이후 외세 핍박과 토박이 민중 저항으로 점철된 참담한 탐라 민중사가 낳은 '여자 장두'(곧, '억척스럽고 서럽게 민중을 이끈 민란 선봉')이니까(이는 전술한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아니, 한 쌍의 도교 산물(곧, 부계사회 소산)인 '천지개벽 이야기'와 '천지왕 본풀이'를 분리시켜 놓고 그 사이에다 위신僞神, 즉 '자의적으로 왜곡(곧, 조작 · 날조)해 놓은 모계사회 여신'을 끼워 넣다니! 이는 분명 설화 왜곡이자, 나아가서 역사 왜곡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어쩌다 이런 왜곡이 생긴 것일까? 생각건대, 한반도인들에 의한 이런 왜곡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지난 왕조시대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탐라사 왜곡(예: 탐라를 본디 한반도 속지로 폄훼하려는 역사 침탈)의 일환이니까. 하지만 탐라후예는 왜 그것에 동참한 것일까? 한반도의 구제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주인이라서? 또는, 일종의 설화인 민중사를 잃어버려서?

Ⅷ. 옥황상제는 도道 · 태극 · 태일 등을 근원으로 하는 도교에서는 물론이고 제주본풀이에서도 최고신이다. 이는 도교와 제주본풀이 간에는 유사점이 있다는 말이다. 그 유사점 중 하나는 도교에서도 제주본풀이에서도 옥황상제는 창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곧,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창조는 도교에서도 제주본풀이에서도 인격신에 의거한 천지분리天地分離로가 아니라 음양오행설(곧, 자연 이치)에 의거한 천지개벽天地開闢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셈이다.

Ⅸ. 중국 도교는 기존 도가道家가 인도로부터 전래된 불교의 영향을 받아 한말漢末에 성립된 종교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본문은 한말 이후(곧, 도교 성립 이후) 성립된 것인 셈이다. 도교 소산인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천지개벽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해 본문은 한말 이후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북방에서 남하하여 이미 한반도에 정착해 있던 굿과 조우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당해 본문은 굿의 새로운 내용물이 되고, 굿은 당해 본문의 새로운 그릇이 되었을 것이다. 이어서, 당해 본문은 굿과 일체화된 채로 한반

도에서 토착화했을 것이고, 여차여차한 이유(예: 모라 몰락, 조선 억불책 등)로 제주로 흘러들어 또다시 토착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X. 위 본문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곧, 전승 범위)는 각각 신화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인 포괄적 증거물(예: 이 세상의 모든 별, 하늘, 땅, 해, 달 등), 숭고미, 제주(곧, 속지 탐라) 전역이다.

XI. 제주본풀이의 존재의의는 민중(곧, 향유자 집단인 전승 공동체)의 축원사항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것(곧, 공리적功利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당해 본문의 존재의의는? 그것은 자연(곧, 우주) 또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축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옛말(≒전설)의 존재의의는? 그것은 민중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함과 동시에 민중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XII. 제주본풀이는 일종의 내력담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일정 플롯[곧, 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적神的 존재로의 좌정坐定]을 지닌 이야기이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천지왕 본풀이는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대별왕이 천상의 천지왕(위 ❶)과 지상의 총맹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고(위 ❷) 아버지 천지왕으로부터 버림받고(위 ❸) 아비 없는 자식이라 나무람 받으며 살다가 박 씨앗을 심어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위 ❹ · ❺ · ❻) 마침내 신적 존재로 좌정하니까(위 ❼). 물론 여기서의 주역은 대별왕이다. 자연 질서를 위해 가장 공헌한 자가 대별왕이니까. 그러고 보면, 소별왕도 천지왕(곧, 옥황상제)도 여기서는 조역인 셈이다. 참, 대별왕이 천지왕 아들이라는 설정은 한반도적인 화소이다. 환웅桓雄이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아들이라는 단군신화의 설정과 일맥상통한 것이니까.

<삼승할망(곧, 산신産神)과 마누라(곧, 마마신媽媽神)>

동해용왕이 서해용왕 따님과 천정배필을 맺었다. (중략) 동해용왕은 관음사에 가서 석 달 열흘 백일 간의 기도를 정성껏 올렸다. (중략) 월궁 선녀

같은 딸아기가 태어났다. (중략) 너무 모셔 가며 키운 까닭에 딸아기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한 살 적엔 어머니 젖가슴을 때린 죄, 두 살 적엔 아버지 수염을 뽑은 죄, (중략) 이렇게 죄목이 많아 가니, 동해용왕은 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 동해용왕 부인은 남편을 달래었다. (중략) 부인은 딸아기를 인간세상으로 보내어서 살리려는 심산이었다. (중략)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님아, 난 인간에 강(가서) 뭣을 허영(해서) 삽네까?" / "인간에 생불왕生佛王(곧, 삼승할망: 인간을 잉태시켜 낳게 해 주고 길러주는 신)이 읏이매(없으므로) 생불왕으로 들어상(들어서서) 얻어먹기 설연하라(마련하라)." / "생불生佛(곧, 잉태)은 어떵(어떻게) 주멍(주며) 환생은 어떵 줍네까?" / "아방(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돌 열흘, 어멍(어머니) 몸에 감온(黑) 피 석 돌 열흘, 아홉 돌 열 돌 준삭準朔 채왕(채워서) 해복解腹시기라(해산시켜라)." / 어디로 해복시키는가를 미처 듣기 전에 아버지의 벽력같은 호통 소리가 떨어졌다. 따님아기는 석함 속에 담겨지고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졌다. 석함에는 '임 박사가 열어 보아라'라는 글자가 씌어졌다. (중략)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중략) 임 박사 부인에게 잉태를 주었다. 아홉 달 열 달 만삭이 되었으나 딱한 일은, 어디로 해산시켜야 하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중략) 겁이 난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임 박사의 집을 빠져나와 처녀물가로 달려와 수양버들 밑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있었다. / 한편, 임 박사는 (중략) 옥황상제께 신원伸寃했다. / 옥황상제는 곧 인간 세상의 생불왕으로 들어설 만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명했다. 얼마 후, 지부사천대왕의 추천이 올라왔다. "인간에 명진국 따님아기가 태어나 (중략) 부모에 효심ᄒᆞ고, 일가방답一家親族 화목ᄒᆞ고, 짚은(깊은) 물에 ᄃᆞ리(橋) 놓아 월천越川 공덕ᄒᆞ고, ᄒᆞᆫ착(한쪽) 손엔 번성꽃, ᄒᆞᆫ착 손엔 환생꽃 거느려, 이 아기씨 생불왕으로 들여세우기 어찌ᄒᆞᆸ네까?" (중략) "옥황상제님아, 아무 철도 때도 모르는 어리고 미혹ᄒᆞᆫ 소녀가 어찌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줍네까?" / "아방 몸에 흰 피 석 돌 열흘, 어멍 몸에 감온 피 석 돌 열흘, 술(肉) 술아(설어) 석 돌, 뼈(骨) 술아 석 돌, 아홉 돌 열 돌 준삭 채왕, 아기 어멍 늦인(느슨한) 뼈 ᄇᆞ띄우곡(빳빳하게 하고), ᄇᆞ뜬 뼈 늦추왕(늦추어), 열 두 구에문(宮의 門, 곧 陰門)으로 해복시기라." (중략) 명진국 따님아기가 처녀물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앉아 슬피 울고 있었다. 명진국 따님아기는 가까이 다가가 사정을 물었다. (중략) 두 처녀는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께 각각 등장을 들었다. 옥황상제는 시험해 보기로 했다. (중략) "꽃씨 두 방울을 내어 주거든 서천서역국西天西域國 계모살왓디(모래밭에) 심어 꽃 번성ᄒᆞ는 대로 생별왕을 구별하리라." (중략) 동해용왕 따님아기의 꽃은 이울어 가는 꽃이 되었으니, 저

승할망(이승에서 죽은 아이 영혼을 차지하는 神, 곧 구삼싱할망이라고도 함)으로, 그리고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은 번성한 꽃이 되었으니 삼승할망(생불왕,곧 産神)으로 들어서게 했다.

(중략)

어느 날 삼승할망은 (중략) 마마신인 대별상 행차와 마주쳤다. (중략) 삼승할망은 깍듯이 인사를 올렸다. "대별상님아, 제가 생불 주고 환생 준 ᄌᆞ손에게 고온 얼굴로 호명허여(마마를 시켜) 주십서." / 대별상이 호통쳤다. "이게 어떤 일이냐! 예성女性이라 ᄒᆞᆫ 건 꿈만 시꾸와도(꾸어도) 새물邪物인디, 남ᄌᆞ男子 대장부 행ᄎᆞ질(행차길)에 사망邪妄한 예성이라 ᄒᆞᆫ 게 웬일이냐?" (중략) 삼승할망이 내어 준 자손들의 고운 얼굴을 아주 뒤웅박같이 만들어 놓았다. 삼승할망은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중략) 삼승할망은 생불꽃을 하나 가지고 대별상 집으로 가서 대별상 부인인 서진국 마누라에게 그 꽃으로 태기胎氣를 불러 줬다. (중략) 열 두 달이 지나도 해산을 못하는 것은 삼승할망이 해산을 시켜 주지 않아서였다. 서진국 마누라는 죽게 되었다. (중략) 대별상은 몇 번이고 빌었다. 삼승할망은 "꼭 모셔 가고 싶으면 서천강에 명주로 다리를 놓으라"라고 했다. (중략) 서진국 마누라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삼승할망은 은결 같은 손으로 서진국 마누라 허리를 두세 번 쓸어내렸다. 그러자 구에문이 열리고 해산이 되었다. (하략) ㅡ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 『濟州島神話』(앞의 책, 25-36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하였다.

Ⅱ. 당해 본풀이는 불도맞이에서 구송된다. 불도맞이란 산신産神인 명진국 따님아기에게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비는 굿이다. 명진국 따님아기는 제주에서는 삼승할망(여기서의 삼승은 산신의 와음訛音임) · 삼성할망(여기서의 삼성도 산신의 와음임) · 불도할망 · 불법할망 · 생불할망 · 생불왕 · 이승할망 · 인간할망 등으로도 불린다. 내친김에 말하면, 명진국 따님아기에서의 '국'도 대별상 부인인 서진국 마누라에서의 '국'도 공히 '땅'이라는 뜻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국'의 발음은 본디는 '나羅 · 내內(또는 乃) · 노奴 등'이었을 것이다.

Ⅲ. 할망은 지난날 한때 '할머니'의 제주 방언이었다. 그런데 제주

설화에서는 할망이 할머니(곧, 노파)인 경우는 없다. 삼승할망(곧, 명진국 따님아기)과 저승할망(곧, 동해용왕 따님아기)은 당해 본문에 의하면 아무 철도 때도 모르는 어리고 미혹혼 소녀, 즉 아기씨(뜻: 여자 아이의 높임말)이니까. 그리고 조왕할망과 설문대할망은 각각 후술할 <문전 본풀이>와 전술한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에 의거하면 부녀자(곧, 중년 여자)이니까. 참,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의 성년 여자들은 '엉뚱한 짓을 해대는 미성년 여자(예: 여아女兒)'를 목격하면 혀를 차 가며 비난조로 책망하곤 했다. "쯧쯧, 저 할망 보라! 저 할망!"이라고. 여하튼, 제주본풀이 신적 존재로서의 할망들은 노파가 아니다. 마치 젊어서 불로장생술不老長生術을 터득한 연후에 불로장생약不老長生藥인 단사丹砂를 먹고 신의 반열에 오른 신선들처럼. 물론 그들은 옥황상제 휘하(곧, 도교 체제하)의 존재들이다. 그러고 보면, 문제의 할망은 노파 지칭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제유법적提喩法的 표현'인 동시에 '여성 신적 존재에 대한 존칭 표시'인 셈이다.

Ⅳ. 무격사회에서는 위 본문 전반부(곧, 첫 단락)를 '삼승할망 본풀이'라 하고, 그리고 그 후반부(곧, 둘째 단락), 즉 '마마신媽媽神인 대별상이 등장하여 삼승할망과 경쟁하는 부분'을 '마누라 본풀이'라 한다. 내친김에 말하면, 위 마누라 본풀이에서의 '마누라'는 남신男神 대별상의 별칭이다. 그리고 후술할 내왓당 당신堂神들 중 '천자또 마누라'(곧, 김녕리 궤눼깃당 당신 궤눼깃한집의 이칭)도 남신 호칭이다. 한편, 민속에서의 마누라(곧, 마마媽媽)는 '집집이 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女神'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누라는 '중년을 넘긴 여자'의 호칭이다. 그러고 보면, 용어 마누라는 지난날은 성별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쓰였던 셈이다. 마치 용어 마마가 상감(마마)과 중전(마마)에 공히 덧붙여 쓰였듯이. 참, 용어 심방(←신방神房: 신의 형방)도 남녀 공용이다. 내처 말하면, 관官을 연상시키는 마마니 심방이니 하는 용어가 무격사회에서 쓰였다는 것은 지난날 무격들이 자신들을 신적 존재 관련 직능들의 관리자로 여겼다는 뜻이다.

Ⅴ. 위 본문에 의하면, 동해용왕 따님아기는 삼승할망 직책 수행 중에 해산解産시키는 곳을 몰라서, 즉 자신이 점지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서 삼승할망 직책을 명진국 따님아기에게 물려주고 그 대

신에 죽은 아이 영혼을 관장하는 저승할망(곧, 구舊삼싱할망) 직책을 맡게 된다(여기서의 '삼싱'은 산신産神의 와음임). 물론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저승할망 직책에 제수除授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옥황상제 권능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혹자는 옥황상제를 위신僞神 설문대할망으로 대체하려 든다. 언어도단이다. 그 대체는 설화를 왜곡함으로써 궁극에 가서는 민중사民衆史를 왜곡하는 섣부른 작태이니까.

Ⅵ.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곧, 잉태 · 천연두 등),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Ⅶ. 제주본풀이의 존재의의는 민중(곧, 향유자) 축원사항의 성취, 즉 공리적 기능의 수행이다. 이를테면, 삼승할망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아이 점지點指'이다. 이는 제주본풀이의 신적 존재들은 공리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저마다 관장하는 영역(예: 치병 · 축재 · 잉태 · 풍어 등), 즉 구체적인 직능職能을 꼭 갖는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 신적 존재들은 모두 하나같이 직능신職能神인 셈이다.

Ⅷ.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위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동해용왕 따님아기가 동해용왕(위 ❶)과 서해용왕 따님 사이에서 태어나고(위 ❷) 부친에게서 버림받고(위 ❸) 해복시킬 곳을 몰라 방황하다가 명진국 따님아기를 만나 옥황상제 앞으로 나가고(위 ❹ · ❺ · ❻) 결국 저승할망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Ⅸ. 위 본문 중 처녀물가로 달려와 수양버들 밑에 주저앉아 · 서천강에 명주로 다리를 놓으라란 화소들은 당해 본풀이가 한반도에서 유입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물가 수양버들' · '강 위 다리'는 지난날 한반도에서는 흔한 광경이었겠지만 제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었을 테니까. 생각건대, 위 본풀이가 제주에서 자생한 것이라면 '물가 수양버들'은 '내창가 푹낭'쯤으로, 그리고 '강 위 다리'는 '바닷가 빌레왓'쯤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Ⅹ. 위 본문 중 예성女性이라 흔 건 꿈만 시꾸와도(꾸어도) 새물邪物인디란 대목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데 남존여

비 사상은 위 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설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위 대목은 당해 본풀이가 억불숭유정책과 함께 한반도로부터 흘러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XI. 본풀이란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인 굿이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해서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거나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 등재는 미래를 위한 유용성 여부는 일단 제쳐놓고 과거(곧, 인류의 궤적)를 보존하려는 것이니까. 여하튼, 오늘날 굿은 본풀이를 정형화定型化하는(곧, 옥죄는) 한갓 틀에 불과하다. 세상은 부단히 변하는데 굿은 골동품인 양 전혀 변할 줄 모르니까. 고로, 본풀이는 이제 그만 굿이라는 그릇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모해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본풀이는 신앙(곧, 종교)의 색채를 불식하고 문학의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테면, 운명론 대신 자유의지로, 그리고 기복신앙 대신 이타주의로 거듭나야 한다.

## <초공(곧, 본맹두 · 신맹두 · 삼맹두 및 유씨 부인)>

초공의 할아버지는 석가여래, 할머니는 석가모니, 외할아버지는 천하天下임정국 대감, 외할머니는 지하地下 짐진국 부인이다. 초공의 아버지는 황금산 도단 땅의 주자선생이고, 어머니는 저 산 줄이 벋고 이 산 줄이 벋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ᄌᆞ지맹왕아기씨다. 초공의 큰아들은 구월 초여드렛날 태어난 본맹두요, 둘째아들은 구월 열 여드렛날 태어난 신맹두이며, 막내아들은 구월 스무 여드렛날 태어난 살아살축삼맹두이다.

옛날 옛적 천하 임정국 대감과 지하 짐진국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논밭이 많고 (중략) 자식이 없어 근심이 대단했다. (중략) 백일 불공이 끝나자 (중략) 태어난 걸 보니 딸아이였다. 앞이마는 해님이요, 뒤통수는 달님이요, 두 어깨에는 샛별이 오송송 박혀진 듯한 미모의 아가씨가 태어난 것이다. / 때는 보니, 구시월이 되어 저 산 줄기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저 산 줄이 벋고 이 산 줄이 벋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ᄌᆞ지맹왕아기씨'라고 기다랗게 지었다. / 아이 나이 열다섯이 되는 해의 일이다. 임정국 대감은 천하공사 살러 오고, 짐진국 대감은 지하

공사 살러 오라는 옥황상제의 분부가 떨어졌다. (중략) 쥐도 새도 까딱할 수 없는 방을 꾸며 딸아이를 들여놓고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는 계집종에게 당부했다. 결코 문을 열지 말고,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잘 키우고 있으면, 공사公事를 살고 와서 종 문서를 돌려주마고 약속했다. (중략) 황금산 도단 땅에서는 삼천 선비들이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중략) 선생인 대사가 말했다. "삼천 선비 가온데(가운데), 노가단풍 ᄌᆞ지맹왕아기씨 안티(한테) 강(가서) 권재삼문勸齋三文 받아 오는 자가 이시민(있으면), 삼천 선비안티서 돈 서 푼씩 삼천 량(냥)을 메와(모아) 주마." 그 말에 주자선생은 중의 복장을 하고 주년국 땅으로 내려왔다. (중략) 주자선생은, 만일 그 방문 자물쇠가 열려진다면 아기씨가 손수 보시쌀을 내올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기씨가 승낙했다. 주자선생은 요령을 (중략) 세 번을 흔들어대니 자물쇠가 저절로 성강하며 열려졌다. (중략) 아기씨가 쌀을 전대에 붓는데, 주자선생은 소맷자락 속의 손을 꺼내어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댔다. (중략) "이 중 저 중 괘씸ᄒᆞᆫ 중이여!" (중략) "아기씨 상전님아, 영(이렇게) 욕을 마옵소서. 석 돌 열흘 백일만 되염시면(되고 있으면) 날 ᄎᆞᆺ을(찾을) 일 저절로 나오리다." 아기씨는 방 안으로 돌아와 생각하니, 아까 중의 말이 꼭 무슨 곡절이 있는 듯했다. 계집종에게 중을 붙잡고 무슨 증거물이라도 확보해 두라고 했다. 종은 달려가 주자선생을 붙잡고, 고깔 귀와 장삼 자락을 한쪽씩 끊어 두었다. 달포가 흘러갔다. 아기씨 육신엔 전에 없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밥에는 밥 냄새, 국에는 국 냄새, 물에는 개펄 냄새가 나서 음식을 못 먹는다. (중략) 임정국 대감은 딸과 계집종을 내쫓기로 했다. (중략) 아기씨와 계집종은 한정 없이 걸었다. (중략) 무정無情 눈에 잠이라, 울다가 둘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아기씨는 얼굴에 선뜩선뜩하는 감각을 느꼈다. 깨고 보니, 어떤 백강아지가 꼬리로 물을 적셔다가 얼굴을 쓸고 있는 것이었다. (중략) 강아지는 아기씨를 '상전'이라 부르며 말을 이었다. 본래 아기씨가 사랑하여 기르던 강아지인데, 병이 들어 죽으니 바다에 던져 버리자, 용왕국에 들어가 거북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둘은 거북사자의 등에 올라탔다. 거북사자는 단숨에 수삼천 리 바닷길을 넘겨줬다. 둘은 다시 한참 걸었다. (중략) 어떤 절의 문 앞에 다다랐다. 절문을 바라보니 한쪽 귀가 없는 고깔과 한쪽 자락이 없는 장삼이 걸려 있었다. (중략) 주자선생은 벼를 두 동이나 가져 왔다. 나를 찾아온 인간이면 이 벼를 손톱으로 다 까올리라는 것이다. (중략) 벼를 까기 시작했다. (중략) 언뜻 잠이 들었다. (중략) 참새들이 모여들어 벼를 까먹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까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제야 주자선생은 인정을 해 주었다. 그러나 '중은 부부 살

림을 하는 법이 없어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불도 땅에 내려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다. / 아기씨는 불도 땅으로 내려갔다. (중략) 9월 초여드레가 되니, 산기가 일기 시작했다.

큰아들(본맹두)은 어머님의 아래쪽陰門으로 나오고 싶되, 아버님도 아니 보았던 길이라 거기로 나올 수가 없고, 어머님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허위 뜯어 솟아나왔다. 열여드레가 되니, 둘째아들(신맹두)이 (중략) 왼쪽 겨드랑이를 허위 뜯어 솟아났다. 스무 여드레가 되니, 막내아들(살아살축삼맹두)이 (중략) 어머님의 애달픈 가슴을 허위 뜯어 솟아나왔다. (중략) 삼형제는 가난하니 서당에 갈 수 없었다. / 삼형제는 서당 선생님께 애원했다. 어깨너머로 글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으로 써 달라고. (중략) 삼형제가 열다섯이 되는 해였다. 삼천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다. (중략) 삼형제는 선비들의 짐꾼으로 따라나섰다. (중략) 서울이 눈앞에 보일 때 삼천 선비들은 삼형제를 떨어뜨려 두고 가려고, 배 좌수 집의 배나무 위로 삼형제를 올려놓았다. (중략) 배를 잔뜩 딴 삼형제는,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못하여 배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다. / 이때 배 좌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중략) 배 좌수는 저녁밥을 하여 잘 먹이고, 삼형제에게 돈 열 냥씩을 내어 주며 격려했다. 어서 가서 과거를 보라고. (중략) 동문 · 서문 · 남문이 꽉 잠겨 있었다. 삼형제는 성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 때마침 문 밖에서 팥죽 파는 할머니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자기 딸이 지금 선비들의 벼룻물을 떠 놓는 일을 하고 있으니, 글을 지어 주면 딸로 하여금 상시관上試官에게 넘기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략) "삼형제 과거여!" (중략) 삼형제가 장원급제하자 삼천 선비는 배가 아파 상시관에게 탄원했다. 중의 아들들은 급제시키고 양반 자식들은 낙방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중략) "삼형제 과거 낙방이여!" (중략) 상시관은 삼천 선비들에게 과거를 줄 구실을 만드느라고, 이번에는 활 잘 쏘는 자에게 과거를 주겠다고 영을 내렸다. (중략) 삼형제가 나섰다. (중략) "하늘에서 태운(내려 준) 과거로다! 과거를 내어 주라!" (중략) 삼천 선비들은 흉계를 꾸몄다. 먼저 ᄌᆞ지맹왕아기씨를 명주전대로 목을 묶어 삼천천제석궁三天天帝釋宮의 깊은 궁에 가두었다. 그리고 계집종으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게 했다. 계집종은 머리를 풀어 짚으로 묶고, 상사가 난 것처럼 '아이고대고' 울고 있었다. (중략) 삼형제가 외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외할아버지는 돗자리를 깔아 주며 앉으라고 했다. 그 법으로 오늘날도 심방이 굿을 하러 어느 집안에 가면, 먼저 신神자리라 해서 돗자리를 깔아 주는 법이다. (중략) 삼형제는 주자선생을 찾아갔다. (중략) 주자선생은 동그란 놋쇠에 '天地門'이라 새겨서 천문(점치는 기구)을 만들어 주었다. (중

략)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굿을 마련했다. (중략) 주자선생은 말했다. 북을 만들어 계속 울려대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고. 삼형제는 너사메도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불도 땅으로 들어갔다. (중략) 삼형제는 삼천천제석궁으로 들어가 두 이레 열나흘 동안 북과 장구를 마구 울렸다. 삼천천제석궁에서는 그 소리의 연유를 조사했다. 결국 ᄌᆞ지맹왕아기씨는 풀려나오게 되었다. 삼형제는 큰 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북 · 장고 등 악기는 너사메도령에게 지키게 했다. 그래서 너사메도령은 악기의 신이 되었다. 삼형제는 동해바다 쇠철이(대장장이) 아들을 불러다 요령과 점치는 기구인 천문 · 상잔 등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일흔 다섯 자 되는 칼을 만들었다. 삼형제는 그 칼로 삼천 선비의 목을 쳤다.

그때 아랫녘 유 정승이 딸을 낳았다. 유 정승 따님아기가 여섯 살 되었을 때, 삼거리에서 놀고 있는데 육관대사가 지나가다가 아가씨를 보더니 '이 아기씨, 팔자를 그르쳐야(곧, 무당이 되어야)겠어'라며 엽전 여섯 푼을 주었다. 아기씨는 좋아하며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 (중략) 유씨부인(곧, 유 정승 따님아기)이 삼시왕을 찾아가서 기구를 내어 달라고 소원하니, 삼시왕은 너사메도령이 지키는 북 · 장고 · 징 등과 요령 · 천문 · 상잔 · 신칼 등을 내어 주었다. 그래서 유씨부인은 처음으로 굿을 한(곧, 굿법을 마련한) 심방선생(곧, 무당선생)이 되었다. ㅡ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36-64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 즉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용어 '초공 본풀이'는 '본풀이(곧, 당해 본문) 명칭'으로도 '큰굿 중 초공 본풀이라는 제의祭儀 명칭'으로도 쓰인다. / 심방은 큰굿 중 초공 본풀이라는 제의祭儀에서 제상 앞에 앉아 시종 장구 치며 '초공인 무조巫祖신들(곧, 본맹두 · 신맹두 · 삼맹두 및 유씨부인)의 내력담', 즉 초공 본풀이(곧, 당해 본문)를 구송한 후 그들에게 축원한다.

Ⅲ. 위 본풀이는 네 부분(① 가계家系 ② ᄌᆞ지맹왕아기씨 이야기 ③ 삼형제 이야기 ④ 유씨부인 이야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②의 전반부 중 일부는 후술할 <사신蛇神 칠성> 전반부 중 일부와 흡사하다.

Ⅳ.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예: '굿법', '굿이나 점에 쓰이는 기구들인 북 · 장

고 · 징 · 신칼 · 요령 · 천문 · 상잔 등'),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Ⅴ.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심방의 굿이나 점복 행위 따위에 대한 정당성(곧, 심방 자격 · 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Ⅵ.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 ❻ 구원(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으로의 좌정]을 지닌다. 이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초공 삼형제는 할아버지가 석가여래이고(위 ❶) 어머니 양쪽 겨드랑이와 가슴을 통해 태어나고(위 ❷) 아버지 주자선생에게서 버림받고(위 ❸) 홀어머니 슬하에서 고생하다가 서당 선생 · 배좌수 · 팥죽 파는 할머니의 도움 등으로 과거에 급제하고(위 ❹ · ❺ · ❻) 마침내 무조신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무격사회에서 무격을 심방(←신방: 신의 형방)이라 한 것은 초공 삼형제가 과거 급제 후 무조신巫祖神이 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일 것이다.

Ⅶ. 위 본문 중 초공의 큰아들에서의 '의'(소유격조사)는 '인'(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이다. 큰아들(곧, 본맹두)은 초공 셋 중 하나이니까. 따라서 위 오류 '의'는 제보자(곧, 박수 안사인)의 실언失言이나 조사자(곧, 현용준과 그의 제자들)의 오기誤記에 의한 것일 것이다.

Ⅷ. 위 본문 중 주자선생은 주역선생周易先生의 오류일 것이다. 주자朱子(곧, 주희朱熹)는 유학儒學 일파인 주자학朱子學(곧,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한 인물이고, 그리고 주역선생은 주역周易 원리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곧, 점쟁이)이니까.

Ⅸ. "우리 애기 웡이자랑 / 본멩뒤도 웡이자랑 / 삼멩뒤도 웡이자랑 / 잘 커 가라 웡이자랑 / (하략)"(『제주도민요연구 · 상上』, 김영돈, 일조각, 1965)은 본맹두(본멩뒤)와 삼맹두(삼멩뒤)가 등장하는 제주 민요(곧, 자장가)이다. 그런데 이 민요에 '본멩뒤는 초공이고, 삼멩뒤는 삼공이다'란 주註가 달려 있다. 이는 오류이다. 본맹두도 삼맹두도 공히 초공이고, 삼공은 후술할 <삼공(곧, 가믄장아기)>에서의 '가믄장아기'이니까.

Ⅹ. 위 본문 중 논밭이 많고 · 벼를 까기 시작했다 · 배 좌수 집의 배나무 위로란 대목들은 당해 본풀이가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일 것이다. '논' · '벼 까기' · '배나무 있는 집' 등

은 지난날 제주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었으니까. 사실, 지난날 제주에서는 '벼'(곧, 쌀)는 강이 없는 탓에 '논'이 없어서 귀물貴物이라, 그리고 '배'는 가혹한(곧, 터무니없는) 과세 탓에 '배나무'(곧, 과일나무)가 애물단지나 진배없어서 귀물이라 제수祭需용 등으로 쓰려면 주로 탐진을 통해 나주 등지로부터 들여왔다. 그러니, 당해 본풀이가 제주에서 자생한 것이라면 위 '논'·'벼'·'배나무'는 각각 '밭'·'좁쌀'·'야생野生 귤나무' 정도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참, 참새 떼가 볍씨를 까는 대목은 콩쥐팥쥐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이 또한 당해 본풀이가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지난날 탐라에는 골계미가 투영되어 있는 민담 따위는 없었으니까.

XI. 초初공에서의 '공'의 뜻은? 무격이 제주에서 심방(←신방: 신의 형방), 즉 '신이나 신적 존재의 업무(곧, 직능)에 관여하는 형방'이라 불려 왔으니, 그것은 아마도 관작을 뜻하는 용어 公(뜻: 성이나 시호, 관작 뒤에 붙어 존대하는 말)일 것이다. 이는 초공에서의 공의 뜻이 선생(곧, 굿과 점을 가르쳐 준 주역선생) 또는 우두머리(곧, 무속의 시조)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초공은 첫 선생 또는 최고 우두머리인 셈이다. 그럼, 초공 3형제인 본本맹두(곧, 맏이 멩뒤)·신新맹두(곧, 버금 멩뒤)·삼三맹두(곧, 막내 멩뒤)에서의 '맹두'의 뜻은? '맹'은 '명命'(뜻: 부리다·명령하다·가르치다)의 와전이고 '두'는 '頭'(뜻: 장두·우두머리 등)이니, 그것은 명령이나 가르침 따위를 내리는 선생 또는 우두머리일 것이다. 이는 맹두도 전술한 공公처럼 선생 또는 우두머리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본맹두·신맹두·삼맹두도 전술한 초공처럼 첫 선생 또는 최고 우두머리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설화에 맹두와 일맥상통하는 용어 '만두'가 있다. 설문대할망 전설에서의 사만두고沙曼頭姑와 설만두고雪曼頭姑의 둘째·셋째 음절에 해당하는 만두曼頭가 바로 그것이다. 생각건대, 예의 그 맹두가 제주의 참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만두曼頭(곧, 제주민중의 갖은 질곡을 해소시켜 줄 구원자)로도 변용되어 쓰인 것은 혹여 아닐까? 돌이켜보면, 탐라국(곧, 모라毛羅)은 1105년 몰락했다. 그러자 작금의 제주본풀이 모태인 일련의 한반도 신화가 탐라로 유입되었고, 이어서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신화들이 그 신화들에 밀려 시나브로 축출되었

다. 국가가 망하면 망국(곧, 속지)의 언어 · 신화 · 역사 등은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축출되게 마련이니까. 한편, 속지 탐라의 민중사회에서는 봉기(곧, 토박이 저항)가 종주국 한반도의 무단정치(곧, 외세 핍박) 탓에 두고두고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염원이 갈수록 팽배해져 갔을 것이다. 그 와중에 초공 본풀이 주인공 호칭 맹두가 탐라민중 봉기를 이끄는 선봉(곧, 장두)이자, 나아가서 탐라민중의 갖은 질곡을 해소해 줄 구원자(곧, 만두)란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호칭 사만두고沙曼頭姑[뜻: 거칠게(沙) 민중을 이끄는(曼) 장두(頭) 여자(姑)], 즉 세명두할망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세명두할망은 지역(곧, 주로 한라산 동서남북)에 따라 세명뒤할망 · 쒜멩뒤할망 · 세명주할망 · 세멩지할망 등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리고 사만두고는 설만두고雪曼頭姑[뜻: 서럽게(雪) 민중을 이끄는 장두 여자], 즉 설명두할망을 파생시켰을 것이다. '거칠게(곧, 억척스럽게) 살아간다'란 말은 '서럽게 살아간다'란 말과 진배없는 말이니까. 물론 설명두할망도 세명두할망처럼 지역(곧, 주로 한라산 동서남북)에 따라 설멩뒤할망 · 설명주할망 · 설명지할망 · 설문대할망(→ 선문대할망) 등으로 불렸을 것이다. 참, 사만두고(또는 설만두고)에서의 '고姑'는 세명두할망(또는 설명두할망)에서의 '할망'의 역어譯語로 여자에 대한 제유법적 표현이자 존칭 표시이다. 그러고 보면, 초공 본풀이에서의 공(곧, 선생 또는 우두머리)이란 의미의 맹두(곧, 명두)는 설문대할망 전설에서는 민란 장두 또는 구원자란 의미를 함축한 용어 '만두'로 변용되어 쓰인 것인 셈이다(이는 전술한 <설문대할망; 세명뒤할망> 참조). 이는 당해 본풀이에서의 맹두와 설문대할망 전설에서의 만두(곧, 장두)는 탐라설화란 한 모감주염주의 모감주들이라는 말이다.

<이공(곧, 꽃감관: 사라도령 · 원강암 · 할락궁이)>

옛날 옛적 김진국과 임진국이 한 마을에 살았다. 김진국은 몹시 가난했고, 임진국은 천하 거부로 잘살았다. (중략) 김진국과 임진국은 저마다 합궁일合宮日을 받아서 천생배필天生配匹을 맺었다.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

은 딸을 낳았다. 김진국 아들은 사라도령이라 이름 짓고, 임진국 딸은 원강암이라 이름이 지어졌다. 김진국과 임진국은 사돈을 맺어 '구덕(요람)혼사'(곧, 아기구덕 아이들의 결혼)를 치렀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원강암이 태기가 있었다. 한 달 두 달 지나자 몸은 항아리처럼 무거워 갔다. / 이때 사라도령한테 서천꽃밭西天花田 꽃감관花監官을 살러 오라는 옥황상제의 전갈이 내려왔다. (중략) 부부는 함께 서천꽃밭으로 향해 출발했다. (중략) 연약한 여자인 원강암은 아이를 항아리처럼 배어 놓고, 발은 콩구슬같이 부풀어 더는 걸을 수 없었다. (중략) "남인男人님아, 남인님아, 난 이제 더 걸을 수가 읏이매(없으므로) 저 둑 소리 나는 장재長者 칩家의 강(가서) 종으로 풀아(팔아) 둬(두고) 가기 어찌홉네까?" (중략) 제인장재 작은딸의 제언으로 흥정이 되었다. (중략) 원강암은 우선 배 속 아이의 이름이라도 지어 주고 가시라고 했다. 사라도령은 만일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할락궁이'라 이름하고, 딸을 낳거든 '한락댁이'라 이름 지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얼레빗을 반으로 꺾어, 한쪽을 부인에게 증거물로 남겼다. (중략) 그날부터 원강암은 종살이가 시작되었다. 날이 저물어 초경 · 이경을 당하니, 원강암의 방문을 두들기는 자가 있었다. "이 고을 풍십(풍습)은 어찌ᄒᆞ나 모르되, 우리 ᄆᆞ을 풍십은 밴 아이가 나사(나야) 몸 허락을 ᄒᆞ는 법입네다." (중략) 할락궁이는 제법 자라서, 막대기로 말타기를 하며 마당에서 놀게 되었다. 어느 날 초경 · 이경이 되니 제인장재가 또다시 와서 문을 두들겼다. "이 고을 풍십은 어찌ᄒᆞ나 모르되, 우리 ᄆᆞ을 풍십은 낳은 아기 열다섯 십오 세가 되여사 몸 허락을 ᄒᆞ는 법입네다." (중략) 이튿날부터 모자에겐 고역이 떨어졌다. 할락궁이에게는 낮에는 소 쉰 마리를 몰고, 심심산중에 들어가 나무 쉰 바리를 해 오고, 밤에는 새끼를 쉰 동을 꼬아 놓게 하고, 원강암에게는 낮에 명주 다섯 동, 밤엔 명주 석 동을 짜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고역은 참으로 힘겨운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서 할락궁이도 열다섯 살이 되었다. 할락궁이도 이젠 자랄 만큼 자랐으니 집안의 눈치를 알게 되었다. (중략)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중략) 할락궁이는 아버지가 두고 간 얼레빗 한 쪽과 메밀 범벅 세 덩이를 가지고 어머니를 작별했다. 아무도 몰래 집을 떠나는데, 장자 집의 개들이 먼저 알고 쫓아온다. 먼 문 밖에 나서니 먼저 천리둥이가 짖어대며 쫓아왔다. 할락궁이는 얼른 메밀 범벅 한 덩이를 집어 던졌다. 그것을 먹는 새에 천 리를 뛰어갔다. (중략) 한참 가다 보니 무릎에 차는 물이 있어 그 물을 지나가고 (중략) 서천꽃밭이 보였다. (중략) "너 본메본장(증거가 될 물건) 가졌느냐?" 할락궁이가 내어 놓는 것을 보니 얼레빗 반쪽이었다. 꽃감관은 자신이 가지

고 있는 반쪽하고 맞대어 보았다. 빈틈없이 맞았다. (중략) 할락궁이는 아버지 말을 듣고, 어머니가 이미 장자에게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서천꽃밭에 있으면서도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중략) 아버지는 곧 할락궁이를 데리고 꽃밭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내는 환생꽃, 앙천仰天 웃음이 터지게 하는 웃음웃을꽃, 아버지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그 꽃들을 따 주었다. 어서 바삐 내려가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다. (중략) 제인장재 작은딸이 나서며 "날랑 살려 줍서!" 하고 애원했다. (중략) 어머니는 이미 머리는 끊어 청대밭靑竹田에 던져 놓고, 잔등이는 끊어 흑대밭에 던져 놓고, 무릎은 끊어 푸른 띠밭에 던져 놓아 뼈만 살그랑하게 있는 것이다.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뼈를 차례차례 모아 놓고 환생꽃을 뿌렸다. "아이고, 봄잠이라 오래도 잤저(잤다)." 머리를 긁으며 어머님이 살아났다. 그때 할락궁이 어머니 시신이 대밭 · 띠밭에 던져졌던 법으로, 오늘날도 굿을 할 때에는 대 한 줌, 띠茅 한 줌을 두 손에 들어 이를 수레멜망악심꽃이라 하고, 이 꽃이 갖은 사악한 재해災害를 준다고 한다. /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죽었던 그 자리에 제인장재 작은딸을 죽여 묻어 두고, 어머니를 모셔 서천꽃밭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를 상봉하고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아 잘살았다. ㅡ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65-76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하였다.

Ⅱ. 심방은 큰굿 중 이공 본풀이라는 제의에서 제상 앞에 앉아 시종 장구를 치며 이공 본풀이(곧, 당해 본문), 즉 이공인 꽃감관들 내력담을 구송한 연후에 그들에게 축원한다. 그러고 보면, 이공 본풀이는 본풀이 명칭인 동시에 큰굿 중 이공 본풀이라는 제의 명칭인 셈이다. 물론 이공은 둘째 선생(또는 우두머리)이라는 뜻이다

Ⅲ. 명진국 따님아기는 소녀 시절에 삼승할망(곧, 신적 존재)이 되었고, 그리고 원강암은 서른다섯 살(곧, 아들 할락궁이 나이 열다섯 살)에 꽃감관(곧, 신적 존재)이 되었다. 즉, 양자가 공히 젊은 나이에 신적 존재가 되었다. 그러고 보면, 제주본풀이의 신적 존재는 통상 젊은이인 셈이다. 이는 당연지사이다. 옥황상제를 최고신으로 받들고

있는 제주본풀이는 도교 교의(예: 신선 사상)의 제약을 받으니까.

Ⅳ. 서천꽃밭 꽃감관은 누구일까? 당해 본풀이 조역 원강암은 죽었다가 환생하여 서천꽃밭에 들어갔다. 즉, 신적 존재인 꽃감관이 되었다. 당해 본풀이 조역 사라도령은 옥황상제 소명을 받고 산 채로 서천꽃밭에 들어갔다. 즉 신적 존재인 꽃감관이 되었다. 당해 본풀이 주역 한락궁이는 산 채로 서천꽃밭에 들어가 아버지 사라도령으로부터 신적 존재인 꽃감관 직책을 물려받았다. 그러고 보면, 당해 본풀이에서의 서천꽃밭 꽃감관, 즉 이공二公(곧, 둘째 선생 또는 우두머리)은 사라도령 · 원강암 · 할락궁이인 셈이다. 그런데, 후술할 <세경(곧, 자청비 · 문도령 · 정수남이)>에서는 서천꽃밭 꽃감관이 '황새곤간'으로 되어 있다. 아니, 왜 제주본풀이라는 동일한 체계 안에서 서천꽃밭 꽃감관이 상이할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제주본풀이들이 제주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따로따로 유입된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당해 본풀이는 불도맞이(곧, 산신에게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축원하는 굿)에서도 구송된다. 이는 산신産神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본풀이에 있다는 말이다. 그 인물이란 바로 임신 · 출산 · 양육 등을 경험한 원강암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사람 생살'(이는 사라도령 · 할락궁이 · 원강암의 직능임)이나 '아이 점지'(이는 원강암의 직능임)를 관장하기 위한 것인 셈이다. 참, 서천꽃밭 꽃감관은 사람 생살권生殺權을 가지고 있다. 옥황상제로부터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 ·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환생꽃의 관리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 / 참고삼아 말하면, 제주본풀이 등장인물 중 단역은 모두 하나같이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제주본풀이 단역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곧, 인간)이니까. 한편, 제주본풀이 주역은 결코 죽지 않고 산 채로 선한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 마치 죽지 않고 산 채로 신의 반열에 오르는 도교 신선들처럼. 다른 한편, 제주본풀이 조역 중 선한 조역은 죽지 않고 산 채(만일 악역에 의해 살해되었다면 필히 주역에 의해 환생된 후) 선한 신적 존재로, 그리고 악한 조역(예: 후술할 <세경(곧, 자청비 · 문도령 · 정수남이)>에서의 정수남이,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 정낭지신 · 측도부인)>에서의 정낭지신 · 측도부인)은 반드시 주역에 의한 살

해 · 환생을 차례로 겪은 연후에 악한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 그런데 악한 조역이 살해와 환생을 거쳐 가면서까지 악한 신적 존재로 나마 좌정하는 까닭은 아마도 그에게 부여된 직능이 선한 조역에게 부여된 직능처럼 인간 삶에 필요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Ⅴ.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곧, 전승 범위)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곧, 생살生殺 · 잉태 · 환생 따위; 서천꽃밭 · 저승 따위),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Ⅵ.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할락궁이는 서천꽃밭 꽃감관 아들이고(위 ❶) 아버지에게서 잠시 버림받고(위 ❸) 홀어머니 슬하에서 고생하고(위 ❹) 메밀범벅 세 덩이의 도움으로 장자 집 개 세 마리의 추격을 따돌리고(위 ❺ · ❻) 마침내 서천꽃밭에 당도하여 꽃감관이 되니까(위 ❼). 그런데 위 ❷ 관련 내용이 유실(또는 생략)되어 있다. 물론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유실(또는 생략)되었을 것이다.

<삼공(곧, 가믄장아기)>

옛날 옛적 강이영성이서불이라는 거지와 홍은소천궁에궁전궁납이라는 여자 거지가 우연히 만나 부부가 되었다. (중략) 홍은소천은 태기가 있었다. (중략) 첫째딸은 동네 사람들이 은그릇에 담아 온 죽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은장아기'라 이름이 지어졌다. (중략) 둘째딸은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에 담아 온 죽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놋장아기'라 이름이 지어졌다. (중략) 셋째딸은 나무바가지에 담아 온 죽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가믄장아기'라 이름이 지어졌다. (중략) 가믄장아기를 낳고서 잠깐 사이에 천하 거부가 되었다. (중략) "은장아기, 너는 누게(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ᄒᆞ느냐?" "하늘님도 덕이외다, 지애地下님도 덕이외다. 아바님도 덕이외다, 어머님도 덕이외다." (중략) "놋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ᄒᆞ느냐?" "하늘님도 덕이외다, 지애님도 덕이외다. 아바님도 덕이외다, 어머님도 덕이

외다.” (중략) “가믄장아기, 너는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ᄒᆞ느냐?” 가믄장아기의 대답은 딴판이었다. “(중략) 나 배또롱(배꼽) 아래 선그믓(곧, 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금)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홉네다.” “이런 불효막심ᄒᆞᆫ 예ᄌᆞ식女子息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ᄲᆞᆯ리 나가라!” (중략) 불효의 딸자식이기는 하나 내보내고 보니 부모의 마음은 섭섭해졌다. “큰똘아기야! 설운 똘아기 식은 밥에 물줌이(물 말아 놓은 것)라도 먹엉(먹고) 가랭(가라고) 골으라(말해라).” 은장 아기는 문 밖으로 내달아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외쳤다. “설운 아시(아우)야, ᄒᆞᆫ저(어서) 가(가) 불라(버려라). 아방(아버지), 어멍(어머니) 늘(너를) ᄯᆞ리레(때리러) 나왐쩌(나온다).” 가문장아기는 이렇게 외치는 언니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고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운 큰 성님, ᄆᆞᆯ팡돌(노둣돌) 알로(아래로) ᄂᆞ려사건(내려서거든) 청주녱이(靑지네) 몸으로나 환생홉서.” 이렇게 중얼거리자 은장아기는 노둣돌(下馬石) 아래로 내려서더니 지네 몸이 되어 노둣돌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중략) 이번에는 둘째딸 놋장아기를 보냈다. 놋장아기도 시기심이 나서 문 밖에 나와 두엄 위에 올라서더니 은장아기와 똑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놋장아기의 고약한 마음씨를 아는 가믄장아기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두엄 아래로 내려서거든 버섯 몸으로나 환생ᄒᆞ라.” (중략) 부부는 방 안에 마주앉아 한참을 기다렸으나, 데리러 간 놋장아기마저 소식이 없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을 밀치며 밖으로 내닫다가 그만 액방(윗중방)에 눈이 부딪쳐 부부는 봉사가 되어 버렸다. 한편, 가믄장아기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다. (중략) 한참 걷다 보니, 다 쓰러져 가는 초가 한 채가 멀리 보였다. (중략) 할머니 ·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집엔 아들이 세 형제나 있어 누워 잘 방이 없으니 딱하다.” “부엌이라도 좋으니, 머물게 해 주십서.” (중략) 알고 보니, 마퉁이네 집이었다. 아들 3형제가 마를 파다가 그것으로 구명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중략) 가믄장아기는 혼자 자는 것이 섭섭했다. 할머니 · 할아버지더러 ‘나하고 발 막아 누울 아들이나 하나 보내십사’라고 했다. (중략) 할머니 · 할아버지는 큰 마퉁이더러 가라고 했다. 아니 갔다. (중략) 하릴없이 막내 마퉁이더러 가라 했다. 막내 마퉁이는 기뻐하며 들어갔다. 백년가약이 맺어졌다. (중략) 막내 마퉁이가 마 파던 데를 가 보았다. 자갈이라 해서 던져 버린 것을 주워 닦고 보니, 금덩이요 은덩이였다. (중략) 살림이 좋아지자 가믄장 아기는 부모 생각이 간절했다. ‘내가 집을 나왔으니, 봉사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겠지?’ (중략) 거지잔치를 열면 찾아올 것이다. (중략) “설운 어머님아, 아바님아, 나 가믄장아기우다.” 부부는 깜짝 놀라 눈이 팔롱하게 밝아졌다. ㅡ朝天面 咸德里 박수 金萬寶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77-90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풀이에 다음과 같은 주註(앞의 책, 90쪽)가 달려 있다. "'삼공맞이'는 일명 '전상놀이'라고도 한다. '전상'이란 '前生'의 와음訛音인 듯한데, 그 의미는 아주 다르게 쓰이고 있다. '전상'의 일반적인 뜻은 평상시와 달리 이상하게 술을 마구 먹거나, 도박 · 도둑질 등을 하여 가산家産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가짐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몇 번 감옥에 출입해도 역시 도둑질을 계속하는 것이나, 가산이 탕진되어 가도 자꾸 놀음판에 가고 싶어지는 것 따위가 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은 "저거 전상이다!", "전상 들어서 저런다!"라고 말한다. 한편, 사람에 따라 농업 · 어업 · 상업 등 서로 다른 직업에 열중하여 살아가는 것도 전상 때문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전상'은 '전생인연前生因緣'이고, 그리고 '삼공'은 이 '전상'(곧, '전생인연)을 차지하고 있는 신'인 셈이다."

Ⅲ. 삼공 본풀이는 본풀이 명칭이자 큰굿 중 삼공 본풀이 제의 명칭이다. 심방은 당해 제의에서 제상 앞에 앉아 시종 장구 치며 당해 본문을 구송한다. 한편, 당해 본문은 삼공맞이에서도 구송된다. 삼공맞이란 부부 거지가 거지 잔치에서 술상을 받고 앉아 자신들 내력을 털어놓는 형식(곧, 마당놀이 형식)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굿이다.

Ⅳ.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예: 전생인연前生因緣),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Ⅴ.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전상(←전생前生), 즉 전생인연(곧, 전생업보前生業報인 길흉화복)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Ⅵ.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라 할 수 있다. 가믄장아기 집안은 가믄장아기 덕에 천하 거부가 되고(위 ❷), 이어 가믄장아기는 부모에게서 버림받고(위 ❸) 외톨이

신세가 되어 남의 집에서 얻어먹게 되고(위 ❹) 마퉁이들 부모 도움으로 막내 마퉁이와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도 꾸리고 부모와도 재회하니까(위 ❺ · ❻). 그런데 위 ❶ · ❼ 관련 내용이 유실(또는 생략)되어 있다.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일부 유실(또는 생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여기서의 생략(또는 유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인 듯하다. 즉, 위 ❶의 생략은 거지 부부(곧, 못난 부모)를 조역으로 등장시켜 놓아서, 그리고 위 ❼의 생략은 그 무능력한 조역이 덩달아 신적 존재로 오르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아서인 듯하다.

Ⅶ. 당해 본문 중 가믄장아기와 막내 마퉁이의 백년가약 대목 이후는 한반도 판소리 심청전을 연상시킨다. 그럼, 당해 심청전 대목은 당해 삼공본풀이 대목을 모방한 것이 혹여 아닐까? 이는 당해 본풀이가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심청전은 한반도의 것이지 탐라의 것이 아니니까.

Ⅷ. 가믄장아기에서의 '가믄'(←감은)은 '감다(黑)'의 관형사형이고, 그리고 '장'은 접미사 '장이', '아기'는 아기씨(뜻: 여자 아이에 대한 높임말)이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의 '장'(예: 노동자)은 민중에 대한 제유법적 표현인 셈이다. 한편, '감다'의 여기서의 뜻은 '(빛이 나지 않아) 어둡다'이다. 이는 당해 본문에서의 은그릇과 놋그릇은 선택받은(곧, 은 · 놋처럼 빛나는) 자들(예: 양반)의 상징이고, 나무바가지는 버려진(곧, 암담한 상황에 처한) 자들(곧, 민중)의 상징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해 본문 주역으로 가믄장아기가 등장한 것은 당연지사인 듯하다. 본풀이(곧, 설화)는 민중(곧, 암담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기복신앙 · 운명론 등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자들) 삶의 소산이니까.

Ⅸ. 제주 여자들은 자랑스러워하는 어조로 말한다. 가믄장아기의 배또롱(배꼽) 아래 선그믓 발언이야말로 제주 여성의 진취적 기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 격의 발언이다. 그 발언 취지는 실은 '인간 삶은 타고난다'(곧, '인간 삶은 숙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고 보면, 당해 본풀이는 자유의지의 상극인 운명론을 조장하는 것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운명론은 마치 마약이 인간 의지를 무력화시키듯이 지배층이 피지배층(곧, 민중)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수단(곧, 지배 논

리의 근간)이었고, 그리고 무격이 자기 사익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일종의 수단(곧, 재물을 들여 삼공에게 축원하는 굿판을 벌임으로써 길흉화복을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정신은 운명론을 청산하고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기복신앙을 청산하고 이타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21세기 초엽인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일본국 제주특별자치도인양 한국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둔 채 필히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가르침(예: 친일식민사관)에 의거하여 제주돌문화공원에다 운명론과 기복신앙의 소굴인 설문대할망 신화관을 세금 930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실로 통탄하여 마지않을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생각건대, 21세기의 제주는 여전히 의식이 일제 식민치하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아니면, 청산해야 할 시대착오적인(곧, 구태를 답습하는) 본풀이(곧, 기복신앙 · 운명론 따위를 조장함으로써 자유의지 · 이타주의 등을 좀먹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일까?

<차사(곧, 강님)>

옛날 옛적 동경국에 버무왕이 살았다. (중략) 아들 일곱 형제 중 세 형제는 사주팔자가 안 좋아 장가를 들이지 못했다. (중략) 어느 날 동개남절(東觀音寺) 대사大師는 『주역』을 펴 놓고 자신의 사주四柱를 보았다. (중략) 대사는 소사小師(곧, 상좌上佐중)를 불러 지시했다. "나는 모래 사巳 · 오시午時가 되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다. (중략) 버무왕 아들 셋은 십오 세가 정명定命이니, 그들을 데려다 법당공양法堂供養을 시켜 명과 복을 이어줘라. 그리고 너는 대사가 되고, 세 형제는 소사로 우리 법당을 공양하게 해라." (중략) 삼형제는 소사중을 따라 동개남절로 올라가 삼년 불공을 시작했다. (중략) 삼년 불공이 끝나자 대사는 삼형제의 일시 귀가를 허락했다. 대사님이 내어주는 명주와 비단 아홉 필을 짊어지고 삼형제는 절을 떠났다. (중략) 과양땅에 들어서자 삼형제는 갑자기 시장기가 일었다. (중략) 삼형제는 과양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중략) 과양생의 처는 부엌으로 가더니, 개 밥 주는 바가지에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내어 주었다. 삼형제는 부엌 문 앞에 앉아 두세 술씩 나눠 먹으니, 눈이 배롱해졌다. (중략) 큰형의 의견을 따라 명주 · 비

단 아홉 자씩을 끊어 과양생의 처에게 가져갔다. 고맙다는 사례였다. 과양생의 처는 그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 청너울을 쓰고 공손히 걸어 나왔다. “어서어서 들어오소서.” (중략) “이 술 한 잔 드옵소서.” (중략) 공복이라, 술기는 금방 돌아 담뿍 취해 버렸다. 동으로도 비실, 서로도 비실 쓰러져, 머리 간 데 발 가고 발 간 데 머리 가서 깊은 잠이 들어 버렸다. / 과양생의 처는 얼른 광으로 달려가 참기름을 꺼내 왔다. 청동화로 불에 기름을 올려놓고 오송오송 끓여다가, 왼쪽 귀로부터 오른쪽 귀로 소로록 부어 넣었다. 삼형제는 구름 산에 얼음 녹듯 죽어 버렸다. (중략) 과양생의 부부는 시체들을 주천강 연못에다 수장했다. (중략) 주천강 물 위에 고운 꽃 세 송이가 두둥실 떠 있었다. (중략) 과양생의 처는 그 꽃들을 오도독 꺾어 와 앞문 · 뒷문 · 대청 기둥에다 하나씩 걸어 놓았다. 그런데 그 꽃들은 과양생의 처가 앞으로 지나칠 때면 머리칼을 박박 잡아채는 것이다. 과양생의 처는 화가 나 그 꽃들을 복복 비벼 청동화로 불에 넣어 버렸다. 뒷집의 청태국 마구할망이 불을 빌러 왔다. 과양생의 처는 청동화로 속을 보라고 했다. 청동화로 속에는 불은 없고 삼색三色 구슬 세 개가 오골오골 나오는 것이다. 과양생의 처는 그 구슬들을 입에 넣고 이리 도굴 저리 도굴 굴려 보았다. (중략) 구슬들이 목 아래로 소로록 내려가 버렸다. (중략) 과양생의 처는 몸이 이상해져 갔다. 태기가 완연히 나타난 것이다. (중략)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 (중략) 쌍둥이 삼형제는 과거를 보러 갔다. (중략) 과양생의 처는 망측스럽게도 베치마를 입고 나서서 동헌 마당 쪽을 바라보다가 과거기科擧旗가 눈에 띄자 중얼거렸다. “아따, 어떤 놈의 집안은 산천이 좋아서 과거를 하고 오는가? 저기로 과거하고 오는 놈일랑 내 앞에서 모가지가 세 도막에 부러져 뒈져라!” (중략) 삼형제의 장원급제 소식이 곧 날아들었다. (중략) 삼형제는 문제상門祭床을 향하여 삼배를 하고는 머리를 들지 아니 한다. (중략) 달려들어 큰아들 머리를 들어 보니 눈동자가 저승으로 돌아갔고, 둘째아들 머리를 들어 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있고, 막내아들 머리를 들어 보니 손톱 발톱에 검은 핏발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중략) 아들 삼형제의 무덤 앞에 앉아 생각하니, 정말 억울했다. 그래서 고을 김치金緻 원님에게 소지所志를 올리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나자, 소지는 아홉 상자 반이나 되었다. 하루는 과양생의 처가 동헌 마당으로 나와 욕설을 퍼부어댔다. “개 같은 김치 원아, 고을을 봉고파직하고 어서 나가거라. 다른 원님 놓아서 우리 아들 죽은 소지 결처決處나 하겠다.” (중략)

관속官屬 중에는 강님이 영걸이었다. (중략) “강님이 궐闕이여!” 그 시각, 강님은 남문 밖 열여덟째의 미모의 기생호첩妓生好妾에게 빠져 늦잠을 자고

있었다. (중략) 강님이 헐레벌떡 동헌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는 이미 형틀이 준비되고 곤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중략) "이승에서 목숨을 바칠 터이냐, 저승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 올 터이냐?" 원님의 호통에 강님이 엉겁결에 대답했다. "저승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 오겠소이다!" (중략) 강님은 눈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염라대왕을 잡아온단 말인가? (중략) 강님은 남문 바깥 동산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니 큰 부인 생각이 났다. (중략) "강님의 큰 부인아, 어찌 무정한 눈에 잠을 자겠느냐? 어서 바삐 머리를 들어 나가보아라. 새벽 닭이 자지반반 울게 된다. 강님의 행차行次길이 바빴으니, 빨리 저승으로 내보내어라." 조왕님의 말이었다. 벌떡 깨고 보니 꿈이었다. 큰 부인은 얼른 강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인님아, 어서 잠을 깨옵소서. 저승 행차길이 당도했습니다." (중략) 강님이 남문 밖의 동산에 올라서니, 어느 것이 저승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중략) 그때 어떤 할머니가 불붙던 행주치마를 입고 꼬부랑 막대기를 짚고서 강님의 앞을 허울허울 걸어가는 것이었다. (중략) "이놈아, 나를 모르겠느냐? 네놈 하는 일은 괘씸하나, 네 큰 부인의 정성이 기특하여 네 저승길을 인도하러 왔노라. 나는 네 큰 부인 집 조왕할멈이노라." (중략) 강님은 조왕할머니가 가리켜 준 대로 한없이 걸어갔다. 드디어 일흔여덟 갈림길이 나타났다. (중략) 잠시 후 백발 성성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중략) "나는 네 큰 부인 집 일문전一門前(곧, 앞문의 신神)이다." (중략) "강님아, 이게 일흔여덟 갈림길이다." (중략) 일문전은 길을 일일이 가리키다가 한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길이 바로 네가 들어갈 길이다." (중략) 한참을 가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길토래비(곧, 길을 보수하는 사람)가 길가에 앉아 소닥소닥 졸고 있었다. 전대에서 떡을 꺼내어 길토래비 앞에 놓아 주었다. 길토래비는 떡을 보자, 시장한 김에 허겁지겁 삼 세 번을 끊어 먹는다. 그제야 눈이 배롱해졌다. 정신이 나서인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뒤에 서 있는 강님을 보자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길토래비는 저승차사인 이원 사자였다. (중략) 이원 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남의 음식을 공으로 먹어 목 걸리는 법이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삼혼三魂을 불러 드리거든 혼정으로나 저승 초군문에 가 보십시오. 모레 사巳 · 오시午時면 염라대왕이 아랫녘의 자부장자 집에 외딸아기 신병 들어 전새남(곧, 굿의 일종)을 하는 데에 내려올 것입니다. 초군문에 적패지赤牌旨 붙였다가, 염라대왕 행차가 지나가게 되거든 세 번 · 네 번째 가마까지랑 내버리고, 다섯 번째 가마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가마에 염라대왕이 탔으니 잘해서 잡아 보십시오." (중략) "어떤 놈이 나를 잡겠느냐!" 강님은 '이때다!' 하며 달려들어 가마 문을 열어젖혔다. 염라대왕의 손

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목에 차꼬가 끼워지고, 몸에는 밧줄이 감겨졌다. (중략) 염라대왕이 말했다. “강님아, 네가 먼저 이승에 가 있어라. 내가 곧 뒤따라가마.” (중략) 염라대왕은 흰 강아지 한 마리를 내어 주고, 돌래떡(곧, 쌀로 만든 동그란 떡) 셋을 겨드랑이에 품겨 주며 말했다. “이 떡을 조금씩 끊어 강아지를 달래며 뒤따라가다 보면 이승에 닿게 될 것이다.” (중략) 행기못이 보였다. 앞장서서 가던 강아지는 행기못이 보이자 달려들어 강님의 모가지를 물고 행기못으로 풍덩 빠지는 것이었다. 강님은 정신이 아찔했다.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강님은 이미 이승길에 와 있었다. (중략) 강님은 불빛을 향해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걸어갔다. 어떤 집에서 비치는 불빛이 있었다. 강님은 그 집 앞으로 다가갔다. 때마침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음식물을 뿌리는 것이었다. 제사를 지내고 걸명(곧, 제사를 끝낸 후에 음식물을 바깥에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중략) “우리 집 낭군님이 강님이 되는데, 저승 가서 삼년상三年喪 첫 제사가 됩니다.” (중략) 염라대왕 행차가 동헌 마당으로 내려섰다. (중략) 강님이 아뢰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양 땅에 사는 과양생이 아들 삼형제를 한날 한시에 낳고, 그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과거에 급제하고, 또 한날 한시에 죽은 소지를 결처하고자 염라대왕님을 청하였습니다.” (중략) 염라대왕이 말했다. “과양생의 부부는 직접 아들들의 무덤을 파 보아라.” 무덤 속에는 칠성판七星板만 있었다. (중략) 염라대왕은 곧 연화못으로 갔다. 금부채를 내어 연화못 물을 세 번 때리니, 못 물이 순식간에 말라 들어갔다. 밑바닥에는 버무왕 아들 삼형제의 뼈가 살그랑하게 남아 있었다. 버무왕이 뼈들을 차례차례 모아놓고 금부채로 세 번 때렸다. 삼형제가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삼형제는 과양생의 부부를 죽일 판으로 설친다. 염라대왕이 삼형제에게 말했다. “원수는 내가 갚아 주마. 어서 부모님을 찾아가거라.” (중략) 염라대왕은 과양생의 부부의 처형을 끝내고 김치 원님에게 다가갔다. “김치 원님아, 강님을 조금만 빌리십시오. 저승에 데려가서 일 시키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러거든 우리 반 조각씩 노나 가지기 어떻습니까? 육신을 갖겠소이까, 정혼精魂을 갖겠소이까?” 어리석은 김치 원이 말했다. 육신을 갖겠다고. 염라대왕은 강님의 삼혼三魂을 뽑아 저승으로 가져가 버렸다. (중략) 강님의 큰부인이 달려들었다. “원님아, 우리 낭군이 잘못한 일이 뭣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김에 원님을 마구 쥐어뜯다 보니, 원님도 죽어 갔다. (중략)

한편, 강님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의 사자使者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루는 염라대왕의 분부를 받았다. 이승에 가서 여자는 칠십, 남자는 팔십이 되거든 차례차례 저승으로 오도록 전갈을 하라는 것이다. 강님은 분부대로

적패지赤牌旨를 등에 지고 이승으로 향했다. 길이 하도 먼지라 몇 번이고 쉬어야 했다. 반쯤은 왔을까? 강님은 길가에 앉아 다리를 뻗고 쉬노라니, 까마귀 한 마리가 '까옥까옥' 하며 날아왔다. "형님아, 그 적패지를 내 날개에 끼어 넣으십시오. 이승에 가서 붙여 두고 오리외다." (중략) 까마귀는 이승으로 향해 날아가다 보니, 마침 말 죽은 밭에서 말을 잡는 것이 보였다. 까마귀는 말피나 한 점 얻어먹으려고 나뭇가지에 앉았다. (중략) 까마귀는 기다리다 지쳐서 '까옥까옥' 울었다. 그러자 말을 잡던 백정이 말발굽을 끊어서 휙 던졌다. 까마귀는 엉겁결에 퍼뜩 날아올랐다. 벌린 날개에서 적패지가 그만 도록히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담 구멍에 있던 뱀이 그 적패지를 받아 옴찍 삼키고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뱀은 죽는 법이 없어 아홉 번 죽었다가도 열 번 다시 살아나는 법이다. 까마귀는 적패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방금 떨어뜨린 적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옆으로 보니, 솔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요놈이 훔친 게 틀림없다고 까마귀는 생각했다. "내 적패지 달라, 까옥." / "아니 보았노라, 뱅고로록." 까마귀와 솔개는 한참 다투었다. 그래서, 까마귀와 솔개는 지금까지도 만나면 서로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되는 것이다. 까마귀는 한참 다투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자, 이승으로 날아와 아무렇게나 외쳐댔다.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까옥.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까옥.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까옥. 자식 갈 때 부모 가십시오, 까옥. 자손 갈 때 조상 가십시오, 까옥. 조상 갈 때 자손 가십시오, 까옥." 이래 버렸기 때문에 순서 없이 누구나 죽어 가게 된 것이다. / 까마귀는 궂게 울면 좋지 않은 법이다. 아침에 우는 까마귀는 아이 죽을 까마귀, 낮에 우는 까마귀는 젊은 사람 죽을 까마귀, 오후에 우는 까마귀는 노인 죽을 까마귀, 지붕 용마루에서 우는 까마귀는 상인上人 죽을 까마귀, 중간 지붕에서 우는 까마귀는 중인 죽을 까마귀, 처마에서 우는 까마귀는 하인 죽을 까마귀, 여러 마리가 함께 우는 까마귀는 싸움이 날 까마귀, 동쪽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는 양식 없는 집에 손님이 올 까마귀, 서쪽으로 앉아 우는 까마귀는 소문 기별 올 까마귀, 초저녁에 우는 까마귀는 화재 날 까마귀, 밤중에 우는 까마귀는 역적 · 살인 날 까마귀다. / 까마귀가 되는 대로 전달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어른 · 아이 할 것 없이 자꾸 죽어 갔다. 며칠 새에 저승 초군문이 가득하게 몰려드는 것이다. 저승 죄판관은 판결을 하다가, 남녀 노소가 마구 몰려드니 어리둥절했다. 죄판관은 강님을 불러들여 문초하는 것이다. (중략) 강님은 까마귀를 불러다 문초했다. (중략) 강님은 화가 나서 까마귀를 보릿대 형틀에 묶어 놓고 밀대 곤장으로 아랫도리를 후려갈겼다. 그랬기 때문에 까마귀는 바로 걷지

못하고 아장아장 걷는 법이다. (중략) 염라대왕은 정명定命이 다 되어도 동방삭東方朔을 잡아 오지 못하여 곤경에 빠져 있었다. "동방삭을 잡고자 해서 아이 차사를 보내면 어른이 되고, 어른 차사를 보내면 아이가 되어도 잡아 오지를 못하니 어쩐 일인가? 네가 가서 동방삭을 잡아 오너라." 염라대왕의 분부를 받은 강님은 묘책을 떠올렸다. (중략) 강님은 사람 왕래가 가장 많은 길가 시냇물에 숯 몇 말을 담그고 바드득바드득 씻기 시작했다. (중략) 어떤 건장한 사내가 지나가다가 물었다. "뭘 하는 것이냐?" / "검은 숯을 백일만 씻으면 백탄白炭이 되어, 백 가지 약이 된다 하길래 씻고 있습니다." / "이 놈아, 나 동방삭이 삼천 년을 살아도 그런 말 듣기는 처음이다." (중략) 강님은 날쌔게 달려들어 동방삭을 밧줄로 묶어 놓았다. (중략) "강님이 똑똑하고 역력하니(영리하니), 사람 잡아 오는 인간차사로 들어서라." 이로써, 강님은 사람 잡아 가는 인간차사가 되었다. ㅡ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 『濟州島神話』(앞의 책, 91-140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문은 큰굿의 시왕맞이 제의들 중 차사본풀이 제의에서 구송된다. 물론 차사본풀이란 용어는 본풀이 명칭인 동시에 당해 제의 명칭이다. 심방은 시종 제상 앞에 앉아 장구를 치며 당해 본풀이를 구송한 연후에 강님 차사에게 사자死者의 영혼을 고이 인도하여 저승의 좋은 곳으로 가게 해 달라고 축원한다. / 시왕十王은 명계에서 사자死者의 생시죄보生時罪報(곧, 이승에서 지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를 관장하는 십대왕十大王(곧, 제1 진광대왕秦廣大王, 제2 초강대왕初江大王, 제3 송제대왕宋帝大王, 제4 오관대왕五官大王, 제5 염라대왕閻羅大王, 제6 변성대왕變成大王, 제7 태산대왕泰山大王, 제8 평등대왕平等大王, 제9 도시대왕都市大王, 제10 전륜대왕轉輪大王 또는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등)이다.

Ⅲ. 당해 본풀이는 세 부분[곧, 버무왕 세 아들과 과양생이 처의 이야기, 차사差使(곧, 고을 원員이 죄인 체포를 위해 부리던 관속)로서의 생인生人 강님의 이야기, 저승차사(이를 제주 여항간에서는 '채시' 또는 '저승채시'라 함)로서의 혼백魂魄 강님의 이야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Ⅳ. 당해 본풀이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

들인 포괄적 증거물(예: 사자死者 · 저승차사),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Ⅴ.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사자死者 혼백을 저승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저승차사 강님의 직능은 '정명定命이 다한 성인成人 넋을 관장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참, '사산아死産兒나 죽은 어린아이 넋을 관장하는 것'은 저승할망 직능이다.

Ⅵ.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강님은 옥황상제 체포를 위해 천신만고 끝에 저승에 다다르고(위 ❹) 조왕할망 · 일문전 · 이원차사의 조력을 받아 옥황상제를 체포하고(위 ❺ · ❻) 옥황상제를 체포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신적 존재인 저승차사로 임명되니까(위 ❼). 그런데 위 ❶, ❷, ❸ 관련 내용이 유실(또는 생략)되어 있다.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부분적으로 유실(또는 생략)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일 것이다.

Ⅶ. 당해 본문에 조왕할멈(곧, 조왕할망)과 일문전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들의 여기서의 역할은 단역이다. 하지만 이 단역은 실은 이른바 카메오cameo이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 정낭지신 · 측도부인)>에서의 그들 역할은 공히 조역들이니까. 한편, 일문전은 백발 성성한 할아버지로, 그리고 조왕할망은 어떤 할머니로도 등장한다. 이는 왜곡(곧, 오류)이다. 위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등)>에서의 일문전은 '젊은 남자'이고, 그리고 조왕할망은 '중년 여자'이니까(이는 후술할 <문전> 참조). 물론 이 왜곡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당해 본풀이가 외지에서 흘러든 것이니까.

Ⅷ. 당해 본문에 청태국 마구할망이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녀 역할은 단역이다. 하지만 이 단역은 실은 카메오이다. 청태산 마고할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한반도 전설에서의 그녀 역할은 주역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여기서의 청태국은 청태산이다. 제주 본풀이에서의 국國(곧, 나라羅羅)은 땅(羅)이나 산山 따위에 대응되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국'의 본디 발음은 '나羅 · 내內(또는 乃) · 노奴 등'

일 것이다. 물론 청태산은 중국 천태산(또는 천태산맥)의 와전이다. 부언하면, 천태산맥 일원은 중국 도가道家의 남상이었고, 인도 불교의 중국 · 일본 · 한국 등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예: 천태종의 근거지)였고, 그리고 도가와 불교의 융화로 싹튼 중국 도교의 온상이었다. 여하튼, 청태국 마구할망은 제주본풀이 중 <차사(곧, 강님)>와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 정낭지신 · 측도부인 등)>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 등장은 위 본풀이들, 나아가서 작금의 제주본풀이들이 한반도에서 제주로 유입된 것임을 암시해 주는 증좌일 것이다. 청태국 마구할망은 한반도 민중의식의 발로인 청태산 마고할미가 제주로 유입되어 토착화한 것이니까. 각설하고, 혹자는 주장한다. 중국 천태산 마고麻姑가 한반도에서 모계사회 여신女神 청태산 마고할미로 되고, 그리고 청태산 마고할미가 제주에 전래되어 모계사회 여신 설문대할망(곧, 설만두고)으로 되었다고. 따라서 마고 · 마고할미 · 설문대할망 등은 동계同系 신화의 인물들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터무니없는 발상(곧, 가설)이다. 마고는 도교 소산(곧, 부계사회 소산)이고, 그리고 마고할미와 설문대할망도 공히 부계사회 소산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중국 천태산 마고는 평범한 인간 모습을 한 신적 존재로 나이 18세에 선녀의 반열에 오른 미모의 인물(곧, 전설상의 인물)이고, 청태산 마고할미는 거녀巨女로 한반도 전설상의 인물이고, 그리고 설문대할망도 거녀로 제주 전설상의 인물(곧, 1105년 모라 몰락 이후 거듭거듭 반복되는 제주 민란이 낳은 중년의 여자 장두)이니까. 또, 마고할미는 제주로 유입되어 설문대할망이 아니라 마구할망(곧,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는 본풀이 단역)으로 토착화했으니까. 또한, 설화상의 신은 종족이나 지역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어서 종교상의 신과는 달리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법이니까. 참고로 말하면, 설문대할망 이칭인 설명두할망(곧, 설만두고雪曼頭姑)에서 관형사형 '설雪'과 '할망(곧, 고姑)'을 빼면 '명두命頭'(곧, '만두')만 남는다. 이는 명두와 만두는 동의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명두가 '명命을 내리는 민란 장두狀頭'란 뜻이니 만두도 민란 장두인 셈이다.

<멩감(곧, 사만이)>

옛날 옛적 주년국에 소사만이가 살았다. 집안이 가난한 터에 세 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다섯 살 적에 아버지를 여의어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하릴없이 집집마다 돌며 문전걸식門前乞食을 했다. 비록 거지 생활을 하여도 사만이는 행실이 얌전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열다섯 살이 되니, 동네 어른들이 의논하여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장가를 보내 주어 새 살림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만이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바느질 품팔이를 하여 푼푼이 모은 것으로 부부는 끼니를 이어나갔다. 세월이 지나가자 자식도 하나 둘 생겨났다. 자식이 늘어나자 살림은 힘이 겨웠다. 하루는 부인이 가위로 치렁치렁한 자신의 머리를 잘라 놓고 남편을 불렀다. "남인님아, 이렇게 놀아서 어떻게 사옵니까? 이 머리나 장에 가지고 가서 돈 석 냥兩만 받고 그 돈으로 아기들 먹여 살릴 쌀이나 사 오십시오." 사만이는 부인의 머리를 팔아 돈 석 냥을 쥐고 보니 이만저만 큰 돈이 아니었다. (중략) "조총鳥銃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먹고 입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도 말고 돈 석 냥만 내십시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사만이는 짐승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황혼이 지는 산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연히 왼쪽 발이 툭 채였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 놓으려 하니 또 왼쪽 발이 툭 채였다. 세 번을 거듭 왼쪽 발이 차이는 것이다. (중략) 풀숲을 헤쳐 보니 백 년 해골이 나왔다. '혹시 우리 집안을 지켜 줄 조상은 아닐까?' 사만이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 백골을 고팡庫房에 곱게 모셔 놓고 마치 조상님 대하듯 대했다. (중략) 사만이는 재수가 대통하기 시작했다. (중략) 사만이는 삽시에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사만이는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고팡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만이 부부야, 사만이 정명定命이 서른셋 만기가 되어 너를 잡으러 염라대왕 삼 차사가 내릴 듯하다. 어서 바삐 일어나 전조단발剪爪斷髮하고, 요 위쪽 삼거리에 가서 정성을 드려라. 내일 모레 밤이면 삼 차사가 내려온다. 삼거리 길에 족자병풍을 두르고 비자나무 겹상에다 맑은 음식을 단정히 차려 향촉香燭을 돋우고, 네 성명 석 자를 써서 제상 밑에 붙여 놓아라. 그래서 너는 백 보 바깥에 엎드리어 조용히 기다리되, 누가 와서 불러도 얼른 대답을 말다가, 세 번째 부르거든 머리를 들어 대답을 하여라." (중략) 세 차사는 가까이 오더니, 음식상을 발견하고 청감주며 계란 안주며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다. 시장기에 몰려 앞뒤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중략) 배가 부른 차사들은 그제야 정신이 나서 제상 밑을 보는 것이었다. '사만이'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다.

(중략) “남의 음식 공짜로 먹어 목 걸리는 법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천황차사가 불렀다. “사만이야!” 대답이 없다. 지황차사가 “소사만이야!”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인황차사가 “소사만이야!”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백 보 바깥에서 “예!” 하며 얼굴을 드는 것을 보니 사만이가 틀림없었다. (중략) 묘안이 떠올랐다. 저승으로 돌아가서 동자판관실童子判官室의 장적帳籍에 있는 사만이의 정명定命을 고쳐 버리자는 의견이었다. (중략) 세 차사는 사만이를 잡지 않고 저승길에 올랐다. 그리고 염라대왕 이하 동자판관이 시왕맞이 굿을 받으러 인간 세계로 내려가 버린 틈을 타서 아무도 몰래 저승으로 들어가 동자판관실의 장적을 펴 놓았다. 장적에는 사만이의 정명이 ‘三十’(삼십)이라 씌어져 있었다. 차사들은 ‘三十’에서의 ‘十’ 위에다 눈을 딱 감고 한 획(丿)을 싹 비껴 그어 버렸다. 이제 사만이의 정명이 ‘三千’(삼천) 년이 된 것이다. (중략) 이렇게 하여 주년국 땅 소사만이가 삼 차사에게 액을 막아 삼천 년을 산 법이 있다. —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 『濟州島神話』(앞의 책, 141-149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풀이는 큰굿 중 시왕맞이 제의에서 사람의 죽을 액을 막아 장수하게 해 달라고 빌기 위해 구송된다. 이때 심방은 소사만이가 세 차사로 하여금 액을 막게끔 하여 정명定命 삼십 년을 삼천 년으로 연장하여 산 것을 근거로 댄다. 한편, 음력 정월 제주에서의 신년가제新年家祭인 멩감 제의 중 액막이 순서에서 잡귀를 물리치고 집안의 무사無事 · 행운 · 풍년 등을 기원하기 위해서도 구송된다.

Ⅲ.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곧, 명命 · 액厄 등),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Ⅳ. 당해 본풀이 존재의의는 ‘사람의 죽을 액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당해 본풀이 주역 사만이 직능이 ‘액막이’란 말이다.

Ⅴ.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사만이는 가난하고 정명도 짧았지만(위 ❹)

우연히 조우한 백골을 잘 모신 덕에 그 백골(곧, 어떤 노인)의 도움으로 부자도 되고 삼십 년 정명도 삼천 년으로 연장하여 장수하게 되었으니까(위 ❺ · ❻). 그런데 위 ❶ · ❷ · ❸ · ❼ 관련 내용이 유실(또는 생략)되어 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Ⅵ. 멩감에서의 '멩'은 '명命'(곧, '목숨')이고, 그리고 '감監'은 신라 춤에서의 춤재비才婢 · 노래재비 · 가야금재비 등과 어울려 어떤 역할을 맡아 보던 자이다. 그러고 보면, 멩감은 명감命監(뜻: 목숨을 관장하는 자)인 셈이다. / 참고삼아 말하면, 재비는 국악에서 춤 · 노래 · 악기 등의 기능자를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굿에서의 제비는 위 재비才婢가 아니라 수습修習 무녀인 祭備(뜻: 굿에 쓰일 물건들을 준비하는 어린 무녀)를 일컫는 말이다.

<세경(곧, 자청비 · 문도령 · 정수남)>

세경의 할아버지는 천황제석天皇帝釋이고, 세경의 할머니는 지황地皇제석이며, 세경의 아버지는 김진국 대감, 어머니는 자지국 부인이다. (중략)

옛날 옛적 김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가재家財와 전답田畓이 많고 비복婢僕들이 갖추어져 부러울 것 없는 살림이었다. 그런데 부부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중략) 김진국 대감은 송낙지 · 가사지 · 상백미 · 중백미를 차리고 동개남 은중절로 올라갔다. 아침엔 아침불공, 점심엔 점심불공, 저녁엔 저녁불공 (중략) 그렇게 백일이 지났다. 대사님은 부처님께 바치는 시주를 법당에서 달아 올리도록 했다. 아흔아홉 근이었다. 백 근이 못 차서 여자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했다. (중략) 앞이마엔 햇님이요 뒷이마엔 달님이요 두 어깨엔 금샛별이 송송히 박힌 듯한 귀여운 여자 아이였다. 자청하여 낳은 자식이니 이름은 '자청비'라 지었다. / 세월이 흘러 열다섯 살이 되었다. (중략) 이때, 하늘 옥황 문곡성文曲星의 아들 문도령이, 아랫녘의 거무 선생에게 글공부를 하려고 내려오고 있었다. 주천강 연못에 와서 문도령은 빨래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하였다. "아가씨, 길 가는 사람이온데 물 좀 얻어먹을 수 없을는지요?" 자청비는 부끄러워하며 바가지에 물을 뜨고, 버드나무 잎을 훑어 놓아 드렸다. (중략) "도령님은 어딜 가시는 길입니까?" (중략) "도령님아, 우리 오라비동생도 마침 거무 선생께 글공부 가려는 참인데, 같이 벗하여 가기 어쩝니까?" (중략) "아버님아, 어

머님아, 늘그막에 딸자식 하나 얻고, 내일이라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기일忌日 제사 때 축祝 · 지방紙榜은 누가 쓸 겁니까? 제가 공부하여 쓰렵니다." (중략) 자청비는 여방女房으로 달려가 여자 의복을 벗어 두고, 남방男房으로 달려가 남자 의복을 갈아입고 휭 내달았다. (중략) 그날부터 둘이는 한 솥의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 잠을 자고, 서당에 같이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다. (중략) 날이 갈수록 문도령이 의심하는 눈치였다. 자청비는 꾀를 한 가지 생각해 냈다. 자청비는 밤이면 은대야에 물을 가득 떠다 놓고 은저 · 놋저를 걸쳐 두고 잠을 잤다.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잠을 자느냐?" / "글공부 올 때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자야 글공부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 자청 도래에게 항상 성적이 떨어지는 문도령은 자기도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었다. (중략) 문도령은 대야의 젓가락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 조심하다 보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당에 가면 글 읽을 생각은 없고 자꾸 졸음만 찾아드는 것이다. 한편, 자청비는 옷을 홀랑 벗어 던져두고, 동쪽으로 돌아누워 한잠, 서쪽으로 돌아누워 한잠, 푸진 잠을 자니 성적은 점점 올라갔다. (중략) 문도령은 글공부로 판판이 떨어지자, 무엇이든 한 가지 이겨서 자청 도래의 기를 꺾어 놓고 싶었다. 그보다도 자청 도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문도령은 내기를 하나 생각해 냈다. "우리 오늘 오줌 갈기기 내기를 해 봄이 어떨까?" (중략) 문도령은 오줌을 갈기는데, 여섯 발 반이나 갈기고는 이만하면 어떠냐고 뽐내는 것이었다. 자청비는 대 막대기를 잘라다 바짓가랑이에 넣고, 한 번 맥(힘)을 써 오줌을 갈겼더니 열두 발 반이나 나갔다. (중략) 며칠 후, 문도령은 그만 돌아오라는 하늘 옥황의 전갈을 받았다. (중략) "문도령님아, 여자 몸으로 오늘날까지 속여 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올 터이니, 제 방으로 가서 아픈 다리나 쉬어 가기 어쩝니까?" (중략) 자청비는 병풍 안에 문도령을 앉혀 놓고 손수 저녁상을 차려다 맞상을 받았다. 만단정화를 나누다가 한 이불 한 요에 잣베개 같이 베고 연 삼년 속여 오던 사랑을 풀었다. 어느새 두 사람의 이별을 재촉하는 새벽닭이 목을 들기 시작했다. (중략) 문도령은 박 씨앗 한 알과 얼레빗 반쪽을 꺾어 자청비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박이 익을 때까지는 돌아오겠다고. (중략) 자청비는 자기 방 창문 앞에다 박씨를 심었다. (중략) 박이 익어도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청비는 양지 바른 데 앉아 바지 허리를 뒤집어 놓고 이를 뚝뚝 잡고 있는 정수남이(곧, 남종)를 보았다. "정이으신정수남아, 추접하고 누추하다! 먹고 놀며 이 사냥만 하기냐?" (중략) 이튿날 정수남은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를 끌고 굴미산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에 소와 말을 매어 놓고, 잠시 쉬려고 누운 것이 그만 깊이 잠들고 말았다. (중략) 며칠을 잤는지 깨어 보니 마소들은 애가 말라 소곡소곡 죽어 갔다. (중략) "상전님아, 그리 욕만 하지 마옵소서. 굴미굴산 올라가 보니 문도령님이 궁녀 · 시녀 데리고 내려와 놀음놀이하고 있기에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도령' 소리에 자청비는 정신이 번쩍 나고 말소리가 누그러졌다. "문도령이 …? 언제 또 오겠다고 하더냐?" / "모레 사 · 오시에 또 오겠다고 합디다." (중략) "정수남아, 점심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 "상전님 점심은 메밀가루 닷 되에 소금 다섯 줌 집어넣고, 나 먹을 점심은 메밀가루 찌꺼기 닷 말에 소금일랑 넣는 듯 마는 듯 하옵소서." (중략) 정수남이는 꼴 한 묶음을 말에게 던져 주며 흥얼거렸다. "이 말아, 이 꼴 잘 먹고 모레 상전님을 태워 가자. 굴미굴산 들어가서 촛대 같은 상전님 허리나 안아 보자." (중략) 모레 아침이 밝았다. 정수남이는 말에 안장을 지울 때, 소라 껍데기를 하나 안장 밑에 놓아 지웠다. 자청비는 말을 타려 했다. 말은 등이 아파 피들락 뛰었다. (중략) "상전님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심을 저 대신 지옵소서. 제가 말안장 금을 내오리다." 버릇 나쁜 말을 좀 숙달시키겠다는 것이다. (중략) 정수남이는 안장을 잘 지우는 척하면서 소라 껍데기를 빼 던지고, 말을 타고 첫 채를 놓으니, 말은 단숨에 십리를 달려갔다. / 자청비는 발뒤꿈치가 벗겨져 가며 겨우겨우 올라가 보니, 정수남이는 말을 나뭇가지에 매어 놓고 좋은 나무 그늘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중략) 정수남이는 점심을 꺼내어 상전 점심은 자청비 앞에 놓고, 제 점심은 들고 아래쪽으로 달아나 버린다. (중략) 자청비는 메밀 범벅을 꺼내어 한 술을 뜨니 목이 칼칼하게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가루 닷 되에 소금을 다섯 줌이나 넣었으니 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략) 자청비는 짠 범벅 탓에 목이 몹시 말랐다. (중략) "상전님아, 그 물은 총각 죽은 물입니다. 상전님이 먹으려면 옷을 위아래로 벌거벗고 엉덩이를 물에 보이면서 먹어야 합니다." (중략) 자청비는 하릴없이 옷을 홀랑 벗고 엉덩이를 치켜들어 엎드리고서 물을 먹으려 했다. "상전님아, 그 물 아래를 보십시오. 그림자가 아리롱다리롱 곱지 아니합니까? 그게 하늘 옥황 문도령님이 궁녀 · 시녀 거느리고 놀음놀이하는 그림자입니다." / '아이고, 저놈한테 속았구나!' (중략) 아무래도 저놈을 달래어 이 위기를 넘기는 도리밖에 없다. (중략) "정수남아! 오늘밤을 새우려면 움막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중략) 정수남이는 돌을 모아다 담을 둥글게 쌓고 그 위에다 나뭇가지들을 덮어 놓았다. "정수남아, 돌담 구멍으로 찬바람이 든다. 내가 안에서 불을 피울 테니, 너는 바깥에서 불빛

비치는 구멍마다 풀을 베어다 막는 게 어떠하냐?" (중략) 자청비는 정수남이가 다섯 구멍을 막으면 두 구멍을 빼곤 했다. 먼동이 떴다. (중략) "정수남아, 이리 와서 내 무릎이나 베고 누워라. 머리에 있는 이나 잡아 주마." (중략) 정수남이는 은결 같은 무릎을 베고 눕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중략) 자청비는 청미래덩굴을 꺾어 정수남이의 왼쪽 귀로 오른쪽 귀까지 찔렀다. 정수남이가 사르르 죽어 갔다. (중략) "아니, 계집년이 사람을 죽이다니! 네 년은 시집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종은 살려 두면 우리 두 늙은이 걱정 없이 먹여 살려 준다." (중략) 자청비는 남장男裝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중략) 서천꽃밭 꽃감관인 황새곤간이 말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밤중만 되면 부엉이가 와 울어대어 이 꽃밭에 멸망을 줍니다. 그 부엉이 잡아 주기만 한다면 우리 집의 사위를 삼으리다." 자청비는 황세곤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중략) 밤이 이슥해지자, 자청비는 문간으로 나갔다. 옷을 홀랑 벗어 던지고 노둣돌 위에 누워 정수남의 혼령을 불렀다. "정수남의 혼령아, 부엉이 몸으로 환생하여 원怨진 내 가슴 위에나 올라앉아 보아라." 부엉이 하나가 날아와 자청비 젖가슴 위에 앉았다. 자청비는 부엉이 두 다리를 꼭 잡고 화살 한 대를 찔러 예의 그 꽃밭으로 던져 놓았다. (중략) 이튿날 아침 황새곤간은 크게 기뻐하며 남장男裝 자청비를 막내딸 사위로 삼았다. (중략) 자청비는 부인을 앞세워 서천꽃밭 꽃구경을 나갔다. (중략) "…… 이것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 도환생꽃입니다." (중략) 자청비는 정수남의 뼈들을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뿌렸다. 정수남이가 와들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중략) 부모가 말했다. "아니, 계집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다니! 이런 년을 집에 두었다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어서 바삐 나가거라!"

자청비는 집을 나섰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중략) 한참 걷다 보니, 어디선가 베틀 소리가 들려왔다. (중략) 자청비는 가만히 앉아 있기가 심심하여 주모할머니가 짜던 베틀에 올라앉아 비단을 짜기 시작했다. 주모할머니가 저녁상을 들고 와 보고는 몇 번이고 칭찬하다가 "내 수양딸로 드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중략) 하루는 자청비가 양모에게 물었다. 자기가 지금 짜는 비단은 무엇에 쓸 비단이냐고.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이 서수왕 따님에게 장가드는 데에 폐백으로 쓸 비단이다." 자청비는 깜짝 놀랐다. (중략) 그 비단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였다. 자청비는 '가령하다 가령비, 자청하다 자청비'라는 글자무늬를 짜 넣어 그 비단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양모에게 신신당부했다. 이 비단을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 바칠 때, 주년국 땅 자청비가 짰다고 말해 주십사고. (중략) 문도령이 말했다. "자청비를 만나러 내려

갈 테니, 상면하게 해 주십시오." (중략) 자청비가 베틀에 앉아 비단을 짜고 있는데, 겉창에 어둑어둑 그림자가 어리었다. "하늘 옥황 문도령이노라. 이 문 열어라." 하도 반가운 나머지 자청비는 장난이라도 걸고 싶어졌다. "겉창 구멍으로 손가락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손가락을 내어놓으니, 자청비는 웃으며 바늘로 손가락을 콕 찔렀다. "사람 다닐 곳 아니로다." 문도령은 화를 내며 핵 돌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중략) 주모할머니가 말했다. "저렇게 말괄량이니까 부모 눈에도 거슬린 게지. 보기도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중략) 자청비는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하늘 옥황의 궁녀들이 앉아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중략) "문도령이 인간세상에 내려와 어디선가 어떤 여자와 같이 목욕을 했던가 봅니다. 문도령이 그 물을 떠 오면 물맛이나 보겠다 하여 내려왔으나, 그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웁니다." (중략) 자청비는 그 물을 떠 주고 궁녀들과 함께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중략) 문도령은 이별할 때 노나 준 얼레빗 한 조각을 맞추어 보니 꼭 들어맞았다. (중략) 옥황 문곡성이 말했다. "이놈아,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쉰 자 구덩이를 파놓고, 숯 쉰 섬을 묻어 불을 피워 놓고 불 위에 작도를 걸어, 칼날 위를 타 나가고 타 들어와야 며느릿감이 된다." (중략) 자청비는 눈물로 세수하며 백릉 버선을 벗고 박씨 같은 발로 작도 위에 올라섰다. 아슬아슬하게 칼날 위로 걸어 나갔다. (중략) 자청비와 문도령은 백년가례를 올렸다. (중략) 자청비네 살림이 하도 아기자기해 가니, 하늘 옥황에서는 시기하는 패가 생겨났다. 하루는 이 패들이 궁 안에서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쌈하기로 모의를 한 것이다. (중략) 예의 그 패들은 다시 외눈박이 할머니를 보냈다. 외눈박이 할머니는 배고파 달달 떠는 시늉을 해 가며 문도령 앞에 다가섰다. "문도령님아, 이 술 한 잔 드옵소서. 술값 한 푼만 동정하여 주시면 저녁준비나 하오리다." 문도령은 그 외눈박이 할머니가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말 위에서 술값 한 푼을 던져 주고 술 한 잔을 받아먹었다. 그 술이 독약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중략) 자청비는 남편의 시체를 업어다 방에 눕혀 이불을 덮어 놓았다. (중략) 자청비는 매미와 등에를 많이 잡아왔다. (중략) 자청비는 태연히 베틀에 앉은 채로 입을 열었다. "당신네들이 나를 푸대쌈하러 온 것 같은데, 그럴 것 없이 우리 낭군 먹는 음식이나 먹으면 내 자청하여 가지요." (중략) 이렇게 한참 판씨름을 할 때 한 놈은 문도령 방의 동정을 보려고 방 앞에 가 기웃거렸다. 문도령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콧소리를 하며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미와 등에가 일제히 울어대니 코 고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이놈이 새파랗게 질려서 도망가니, 나머지 패거리도 덩달아 도망가는 것이다. (중

략)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도환생꽃을 남편 시체에 뿌려 남편을 살려냈다. (중략) 하늘 옥황에 큰 사변이 일어났다. (중략) 자청비는 멸망꽃을 뿌려 그 난을 수습했다. (중략) "저에겐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도 과하십니다. 주실 것이 있으면 오곡의 씨앗이나 내려주시옵소서." 자청비는 천자로부터 오곡 씨앗을 받아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중략) "아이고, 상전님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큰 상전님넨 돌아가시고 나는 갈 데 없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시장기가 한이 없으니 점심 요기나 시켜 주십시오." 거지꼴의 정수남이는 우선 밥부터 먹여 달라는 것이다. (중략) 자청비는 오곡의 씨를 뿌렸다. (중략) 이렇게 하여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신農神인 세경이 되고, 정수남이는 축산신畜産神이 되어 많은 목자牧者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이으신정수남이는 하세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149-192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심방은 '큰굿 중 세경본풀이 제의' 또는 '농신農神을 위하는 굿'에서 제상 앞에 앉아 시종 장구 치며 당해 본풀이를 구송한다.

Ⅲ. 위 본풀이는 네 부분(곧 가계家系,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 자청비와 정수남이 이야기, 자청비와 문도령과 정수남이 이야기)으로 되어 있다.

Ⅳ.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곧, 농경 · 목축),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Ⅴ.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농경과 목축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한 것이다. 물론 농경 관장은 농신農神 자청비 · 문도령의 직능이고, 그리고 목축 관장은 목축신畜牧神 정수남이의 직능이다.

Ⅵ.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주인공 자청비는 할아버지가 천황제석이고(위 ❶) 정수남이를 죽였다 살리고(위 ❷) 그 죽임과 살림 탓에 집에서 쫓겨

나고(위 ❸) 문도령과 헤어지고(위 ❹) 황새곤간 · 양모養母의 도움으로(위 ❺) 옥황상제를 만나고 문도령과 결혼하고 옥황상제로부터 오곡 씨앗을 하사받고(위 ❻) 마침내 농신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Ⅶ. 당해 본풀이 대단원에서 문도령 · 자청비 · 정수남이는 각각 신 또는 신적 존재인 상上세경 · 중中세경 · 하下세경으로 좌정한다, 물론 문도령은 본디 신이다. 옥황상제 아들이니까. 한편, 여기서의 '세경'은 '사경私耕'의 변한 말이고, 그리고 사경의 사전적 정의는 '새경'(곧, 농가에서 일 년 간 일한 머슴에게 대가로 주인이 주는 곡물이나 돈) 또는 '사래'(곧, 지난날 묘지기나 마름이 보수로 소작료 없이 부쳐 먹던 논밭)이다. 그러고 보면, 상세경 · 중세경 · 하세경은 농사나 목축을 마련해 놓은 대가로 농부나 목자牧者 등으로부터 '사경私耕(곧, 새경이나 사래)', 환언하면 '제사祭祀'를 받는 신적 존재들인 셈이다. 그런데 옥황상제 아들이 당해 본풀이에서는 문도령이고, 그리고 전술한 <천지개벽과 천지왕(곧, 옥황상제)>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다. 아니, 왜 양자가 상이할까? 생각건대, 그것은 아마도 그 두 내력담이 출처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하나는 중국에서 자생하여 한반도를 거쳐 탐라로 유입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서 자생하여 탐라로 유입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그 두 본풀이가 공히 탐라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언하면, 자청비 할아버지가 천황제석이고 문도령 아버지가 하늘 옥황이라는 설정은 한반도적인 화소(곧, '한반도에서 자생한 것'이거나 '대륙에서 유입되어 한반도에 토착화한 것')일 것이다. 그 설정은 단군의 할아버지가 천제天帝 환인이라는 단군신화 설정과 일맥상통하니까.

Ⅷ. 오곡 씨앗의 제주 유입을 당해 본풀이는 '옥황상제 선물'[이 이면에는 '도교 교의(곧, 음양오행) 소산'이란 뜻이 들어 있음]이라 하고, 전술한 <삼을나(곧, 모라건국)>는 '벽랑국 세 왕녀 선물'이라 한다. 이는 오곡 씨앗을 한반도인은 하늘(곧, 자연)이 선사한 것으로, 탐라인은 벽랑국(곧,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서불 일행)이 선사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당해 본풀이는 모라 몰락(1105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이고, 삼을나 신화는 탐라 자생적인 것이니까. 참, 신화는 선사시대 역사이고, 그리고 역사는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IX. 하늘 옥황 문곡성文曲星의 아들 문도령도 하늘 옥황 문왕성 문도령도 '옥황상제 아들인 문곡성 문도령'의 와전일 것이다. 옥황상제를 상징하는 별(또는 중국 천자의 운명에 관련된 별)은 자미성紫微星이고, 문곡성은 민속에서의 구성九星 중 하나이니까. 게다가, 문왕성은 정체불명의 별이니까. 물론 선사시대 역사인 신화도 논리적(또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즉, 비논리적이어서는 안 된다. 참, 九星은 북두칠성(곧,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廉貞, 무곡武曲, 파군破軍)과 그 괴魁(곧, 북두칠성 머리 부분) 바로 옆의 좌보佐輔 · 우필右弼(또는 존성尊星 · 제성帝星)에 대한 총칭이다(이는 전술한 <칠성골> 참조).

X. 하늘 옥황 문도령님. 문도령을 옥황이라 칭한 것은 옥황상제 아들이 옥황상제 분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전(곧, 일문전 · 조왕할망 · 정살지신 · 측도부인 등)>

문전門前의 할아버지는 해만국, 할머니는 달만국이요, 아버지는 남선비, 어머니는 여산부인이며, 일문전一門前은 똑똑하고 영리한 녹디생이다.

옛날 옛적 남선 고을 남선비와 여산 고을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은 가난하여 살림이 궁한데 아들은 일곱 형제나 태어났다. (중략) "우리 이래서는 살 수가 없으니, 무곡貿穀 장사나 해보기 어찌합니까?" (중략) 남선비는 배 한 척을 마련했다. 쌀 살 밑천이 마련되자 남선비는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갔다. (중략) 남선비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라는 간악하기로 소문난 여인에게 빠져 배도 돈도 다 잃고, 그녀를 첩으로 삼아 그녀에게 빌붙어 살게 되었다. (중략) 남선비는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결국 눈까지 어두워져 버렸다. (중략) 한편, 여산부인은 남편 남선비를 찾아 오동고을로 갔다. (중략)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이 하나 있었다. 여산부인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겨죽 단지를 끼고 앉아 있는 남선비는 눈이 어두워 여산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중략) "설운 남선비님아, 나를 모르겠습니까? 여산부인이 됩니다." (중략) "아이고, 형님아, 오뉴월 한더위에 우릴 찾아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디까? 우선 시원히 목욕이나 하고 와서 저녁밥 해 먹고 놀기 어쩝니까?" (중략) 여산부인은 귀일의 딸이 시키는 대로 적삼을 벗어 엎드려 굽혔다. 귀일의 딸은 옆에 서서 물을 한 줌 쥐어 놓아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물속으로 와락 밀어 넣어 버렸다. 여산

부인은 주천강 연못의 수중고혼이 되고 말았다. / 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큰부인인 체하며 남선비 집으로 돌아갔다. (중략) 막내아들 녹디성인이 말했다. “설운 형님들아,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 같지가 않습니다.” (중략) 그날부터 일곱 형제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귀일의 딸도 이 눈치를 알아차렸다. (중략) 어느 날, 귀일의 딸은 삽시에 배가 아프다며 방 네 귀를 팽팽 돌더니 남선비를 향해 말했다. “설운 남인님아, 나를 조금이라도 살릴 마음이 있거든 요기로 요길 가다 보십시오. 대로변에 멱서리를 쓰고 앉은 문복問卜장이가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문복이나 해 보아 주십시오.” 남선비가 문간 바깥으로 나가자, 귀일의 딸은 얼른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름길을 통해 그 대로변으로 가 멱서리를 뒤집어쓰고 앉았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신병이 좋으리다.” (중략) 남선비는 은장도를 꺼내어 슬근슬근 갈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뒷집의 청태산 마구할망이 불을 빌러 들어왔다. (중략) 마구할망이 말했다. “설운 아기들아, 아버지가 너희들 간을 내려고 칼을 갈고 있더라.” (중략) 녹디성인은 형들을 네거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집으로 갔다. “아버님아, 아버님 손으로 우리 일곱 형제의 간을 내면 송장 일곱을 묻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 칼을 이리 주십시오. 제가 형님들 간을 내어 오겠습니다. 어머님이 먹어 봐서 효과가 있거든 저 하나는 아버님 손으로 간을 내옵소서.” (중략) 일곱 형제는 산돼지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었다. (중략) “어머님아, 이걸 잡수어 보십시오. 형님들 간을 내어 왔습니다.” (중략) 녹디성인은 방 밖으로 나오면서 집게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리고 몰래 창구멍으로 거동을 살폈다. 귀일의 딸은 간 여섯을 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소롱소롱(살금살금) 묻어 놓고, 피를 입술에 바르는 것이다. (중략) 녹디성인은 달려들어 귀일의 딸의 머리를 잡아채어 엎질렀다. (중략) 남선비는 겁결에 올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었다. 그래서 주목지신柱木之神[또는 정살(곧, 정낭)지신]이 되었다. 귀일의 딸은 벽을 허위허위 뜯어 구멍을 뚫고 변소로 도망쳐 쉰 대 자 머리털로 목을 매어 죽었다. 변소의 신神인 측도부인厠道婦人이 된 것이다. (중략)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에 들러 도환생꽃을 얻고 주천강 연못으로 갔다. 그리고 어머니 뼈들에 도환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려냈다. “어머님아, 춘하추동 사시절을 물속에서만 살았으니 몸인들 안 추울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일랑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면서 조왕竈王할망으로 앉아 얻어먹기 마련하십시오.” (중략)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 직분을 차지해 좌정했다. 큰형은 동방청대장군東方靑大將軍(곧, 동방東方으로 나 있는 문을 지키는 문신門神), 둘째형은 서방백대장군西方

白大將軍, 셋째형은 남방적대장군南方赤大將軍, 네째형은 북방흑대장군北方黑大將軍, 다섯째형은 중앙황대장군中央黃大將軍, 여섯째형은 뒷문전(곧, 뒷문을 지키는 문신), 그리고 녹디성인은 일문전一門前(곧, 앞문 또는 정문을 지키는 문신)이 되어 들어섰다. (하략) -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193-211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풀이는 '큰굿 중 각도비념'(곧, 집안 제신諸神에게 축원하는 제의)이나 '신년가제新年家祭인 문전비념'(곧, 문신門神을 위시하여 집안 제신에게 축원하는 제의)에서 구송된다. 심방은 제상 앞에 앉아 장구 치며 위 본풀이를 구송한 후 집안 제신에게 일일이 축원한다.

Ⅲ.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예: 건물의 칸살들),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Ⅳ.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집안의 무사태평無事泰平 · 길흉화복吉凶禍福 등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전門前(곧, 문신門神)의 직능은 집안의 제반사諸般事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Ⅴ.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녹디선생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위 ❸) 노일제대귀일 딸의 흉계에 빠지고(위 ❹) 청태산 마구할망 도움으로 그 흉계를 눈치 채고(위 ❺) 기지奇智를 발휘하여 그 흉계를 이겨내고(위 ❻) 마침내 일문전一門前(곧, 으뜸 문신)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Ⅵ. 조왕竈王할망은 선신善神이다. 그녀는 산 채(부연하여 설명하면, 조역 노일제대귀일의 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만 주역 녹디선생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신적 존재로 좌정하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조왕할망에서의 '할망'은 노파가 아니다. 당해 본풀이에 따르면 조왕으로 좌정한 여산부인은 중년 여자이니까. 내처 말하면, 여기서의 할망은 여자에 대한 제유법적 표현이자, 나아가서 여자에 대한 경칭敬稱 표시이다.

/ 측도부인厠道婦人은 악신惡神이다. 그녀는 죽임을 당한 연후에 신적 존재로 좌정하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측도'에 '할망'이나 '夫人'이 아니라 '婦人'이 붙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가 악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본풀이에서 '할망'과 '夫人'은 경칭 표시이고 '婦人'은 비칭 표시라는 말이다. / 주목지신柱木之神[또는 정살(곧, 정낭)지신]도 악신이다. 측도부인처럼 죽임을 당한 연후에 신적 존재로 좌정하니까. 물론 노천에서 풍상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악신의 운명이다. 주목은 올래[←오래(곧, 문門)] 어귀 양 가장자리에 하나씩 박아 놓은 말뚝이고, 정살(곧, 정낭)은 그 두 말뚝 사이에 걸쳐 놓는 두어 개의 장목長木이다. / 여하튼, 제주본풀이에서의 조역은 주역처럼 신선 사상(곧, 도교 교의)에 따라 죽지 않고 산 채(만일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환생하여)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 다만, 악신인 조역은 환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은 채 신적 존재로 좌정하기도 한다.

Ⅶ. 청태산 마구할망은 전술한 <차사(곧, 강님)>에서 설명했다.

Ⅷ. 녹디생 · 녹디성인은 '녹디선생'의 와전이다.

## <사신蛇神 칠성>

칠성의 아버지는 장나라 장설룡이고, 어머니는 송나라 송설룡이다. 옛날 옛적 장설룡과 송설룡이 부부가 되어 살았다. 집안이 천하거부여서 생활은 유족했으나, 한 가지 걱정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 부부는 동관음사東觀音寺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드렸다. 불공을 끝마치는 날 스님은 보시가 백 근이 못 차 딸자식을 점지하신다고 일러 주었다. (중략) 태어난 아기씨가 일곱 살이 되는 해였다. 장설룡은 천하공사, 송설룡은 지하공사 벼슬살이를 가게 되었다. (중략) 아기씨를 방 안에 놓아 사방 문을 단단히 잠그고, 느진덕정 하님에게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잘 키우라고 했다. (중략) 아기씨는 부모님이 그리워 살창 구멍으로 빠져나와 산길을 달려가다가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중략) "하하, 우리 법당에 와서 불공 드려 탄생한 아기씨로구나." 스님은 아기씨를 돌돌 싸서 장나라로 향했다. 한편, 장설룡 부부는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아기씨를 백방으로 찾고 있었다. (중략) 스님은 아기씨를 데리고 다니며 희롱하다가, 문 밖의 노둣돌 밑에 숨겨

놓고 아기씨 집으로 들어갔다. (중략) “아기씨는 부르면 들릴 듯 말 듯한 곳에 있을 듯합니다.” 스님의 그 말에, 장설룡 대감은 화를 발칵 내었다. “재화災禍가 저 중 재화로다. 저 중을 엎질러라.” 스님은 술법을 써서 천리 길을 달아나 버렸다. 노둣돌 밑을 헤쳐 보니 과연 아기씨가 있었다. 얼굴엔 기미가 거멓게 끼었고, 몸은 마치 뱀처럼 아리롱다리롱하고, 배는 불룩해져 있었다. 임신이 분명했다. (중략) 장설룡 대감은 아기씨를 무쇠석갑에 담아 동해바다에 띄워 버렸다. (중략) 함덕리 서무오름 밑에 이르고 보니, 보던 중 제일 올라갈 만한 곳이었다. 무쇠석갑은 서무오름 밑의 썩은 개(浦)로 올라갔다. 그때 함덕리에는 일곱 좀수(해녀)가 살고 있었다. 일곱 해녀는 물질을 가다가 무쇠석갑을 발견하고는 하나같이 다 자기가 먼저 보았다며 아귀다툼을 시작했다. (중략) 송첨지 영감이 무쇠석갑을 세 번 메어치니 저절로 설강 뚜껑이 열렸다. 뱀 여덟 마리가 들어 있었다. 아기씨가 뱀 일곱 마리를 낳고 뱀으로 환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칠성이다. “아따, 누추하고 재수 없는 놈이 다 뵈는구나!” 송첨지 영감이 낚싯대로 이리저리 헤치고 일곱 잠수가 비창으로 여기저기 걸려 던졌다. 그날부터 일곱 잠수와 송첨지 영감은 몸이 아파 사경에 이르렀다.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이원신이 점괘를 내렸다.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신神을 박대한 죄목이니, 그 신을 청해 굿을 하라.” 일곱 잠수와 송첨지 영감이 큰굿을 하니, 신병身病이 씻은 듯이 좋아지고, 재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 한편, 칠성들은 여덟 식구가 살기에는 함덕리가 좁은 듯하여 제주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중략) 칠성들은 제주성 안의 산지 금산물에 이르자 안도하여 한 숨 쉬고 있었다. 마침 칠성골(七星洞) 송宋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인이 물을 길러 오다가 물 어귀에 소랑소랑 누워 있는 칠성들을 목격했다. (중략) “나한테 내려진 조상님이거든 어서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부인은 칠성들을 고팡庫房으로 모셔 들였다. 이로써, 송 현감 집은 삽시에 부자가 되었다. (중략) 하루는 이 칠성들이 배부른동산(곧, 고릉高陵)에 가서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 관원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에이, 누추하고 더럽다!” 하고 침을 퇴퇴 뱉었다. (중략) 그 관원이 무당의 점괘에 따라 큰굿을 하니, 신병도 씻은 듯이 났고 재물도 일시에 들어왔다. 칠성들은 잘 얻어먹어 배가 부르니 등짓딱배짓딱하며 놀았다. (중략) 하루는 어머니(곧, 아기씨)가 일곱 아기를 불러 놓고 말했다. “각자 갈 곳을 찾아 들어서는 게 좋겠다” (중략) 이리하여 큰딸은 추수할머니로, 둘째딸은 이방 · 형방 차지로, 셋째딸은 옥지기로, 넷째딸은 과원할머니로, 다섯째딸은 창고지기로, 그리고 여섯째딸은 광청할머니로 좌정했다. “일곱째 딸아기,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 “어머님아, 저는 억대부군

칠성이 되어 집 후원 귤나무 밑 주젱이(곧, 이엉으로 덮은 위에 빗물이 들지 않도록 덧덮는 것) 아래 청기와 · 흑기와 속으로 들어가 구시월 귤을 진상받겠습니다. 시원한 귤을 받아 올리거든 답답한 어머니 가슴이나 시원석석히 가라앉히십시오." (중략) "나는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큰 뒤주 작은 뒤주, 곡식을 섬으로 지키는 이, 말로 지키는 이, 되로 지키는 이 다 거느려 고팡庫房 안칠성으로 들어서겠노라." 이리하여, 어머니는 고팡의 안칠성(곧, 모든 곡식을 거두어 지켜 주는 신)이 되었다. ㅡ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口演에서.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211-222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풀이는 '큰굿 중 각도비념이라는 제의', '칠성신七星神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집안의 굿 중 칠성신을 위하는 제의', 그리고 '칠성신을 마을 당신堂神으로 모시는 당堂의 제의'에서 구송된다.

Ⅲ.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예: 집뱀 · 칠성눌), 숭고미, 제주 전역이다.

Ⅳ.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축재蓄財 · 치병治病 따위를 관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칠성(곧, 신적 존재로서의 황구렁이)의 직능이 집안이나 마을의 재물 · 질병 따위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Ⅴ.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주인공 아기씨는 장설룡(곧, 훗날의 천하공사) 딸이고(위 ❶) 부모 몰래 한 임신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위 ❸) 뱀으로 환생하고(위 ❷) 무쇠석갑에 담겨진 채 바다를 건너고 송첨지 영감과 일곱 명의 해녀로부터 모욕당하고(위 ❹) 이원신 · 대정현감 부인 · 관원 등의 도움으로(위 ❺) 역경을 극복하고(위 ❻) 마침내 신적 존재인 안칠성(곧, 곡신穀神)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Ⅵ. 뱀으로 환생은 뱀 토테미즘의 반영일 것이다. 여하튼, 제주의 뱀 토테미즘은 남방계 종족 도래의 증거일 것이다. 뱀 토테미즘이

추운 북방계 종족의 소산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제주본풀이에는 뱀 토테미즘이 한반도에서 도래했음을 암시하는 사례들이 있다. <사신 칠성>을 위시하여 <월정 본향당>(『濟州島神話』, 앞의 책, 250-256쪽), <토산 여드렛당>(『濟州島神話』, 앞의 책, 280-288쪽), <나주 기민창 조상>(『濟州島神話』, 앞의 책, 289-294쪽) 등이 그것들이다. 그렇다면, 지난날 한반도 남부 지방에도 남방계 종족의 도래가 있었던 것은 혹여 아닐까? 물론 한반도 남동부 지방은 쿠로시오 지류인 대마난류 연안에 속한다. 내친김에 말하면, 후술할 <나주 기민창 조상>(이는 소위 조상본풀이임) · <토산 여드렛당>(이는 소위 당堂본풀이임) 등에는 쌀 · 뱀 · 나주 지방 따위가 함께 등장한다. 이는 지난날 '제주인들이 쌀을 구하러 나주 지방까지 갔음'과 '나주 지방에서도 뱀이 곡신 취급을 받았음'을, 나아가서 한반도 본풀이들이 제주로 유입되어 작금의 제주본풀이로 토착화했음'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Ⅶ.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신神은 신이 외지에서 유입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설화상의 신은 종족 정체성의 상징이라서 종교상의 신처럼 쉬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해 대목은 모종의 신앙(예: 뱀 토테미즘)을 지닌 유·이민이 도래했음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이는 당해 본풀이가 탐라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외지(예: 한반도)에서 유입되어 토착화한 것이라는 말이다.

Ⅷ. 칠성골(七星洞)은 구전에 의하면 북두칠성 형국을 본떠 축조한 일곱 기의 사직단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는 칠성골에서의 칠성은 북두칠성이라는 말이다. 한편, 당해 본풀이에서의 칠성은 뱀 여덟 마리(곧, 어미 한 마리와 새끼 일곱 마리)의 호칭이다. 그런데 북두칠성에서의 칠성이 어쩌다가 뱀 여덟 마리의 명칭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 뱀 여덟 마리(곧, 뱀 토테미즘을 지닌 유·이민)가 칠성골(곧, 소위 성안[城內]) 사람들에게 수용되어 융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Ⅸ. 추수할머니 · 과원할머니 · 광청할머니에서의 '할머니'는 본풀이 용어 '할망'의 와전일 것이다. 이는 여기서의 할머니는 노파가 아니라는 말이다. 당해 본풀이에 의하면, 그녀들은 '아기씨'이니까.

Ⅹ. 주젱이(곧, 이엉으로 덮은 위에 빗물이 들지 않도록 덧덮는 것) 아래 청기와 · 흑기와 속은 소위 칠성눌에 대한 묘사이다. 칠성눌이란

추위나 비를 막기 위해 뒤뜰 으슥한 곳에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기왓장을 얼기설기 쌓아 놓고 그 위에 이엉을 얹고 다시 그 위에 주젱이를 덧덮은 것이다. 물론 칠성눌에서의 '눌'은 가리의 일종이다. 참, 칠성눌은 지난날 제주 집집마다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 내친김에 말하면, 지난날 제주에는 울안에 칠성눌을 조성해 놓고 칠성신, 즉 황구렁이(곧, 소위 '집뱀')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 황구렁이는 지난날 제주에서는 조상 넋의 화신(곧, 곡신 · 지신 ·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니까. 따라서 황구렁이는 제주에서는 1960년대 말엽까지만 해도 집 안팎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방안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소위 새마을운동의 기치 아래 초가지붕(곧, 겨울철 구렁이 터전)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안식처도 잃고, 게다가 나무 · 솔잎 · 말똥 같은 땔감이 연탄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유독성 연탄가스에도 쫓겨 하릴없이 옥외(곧, 여름철 구렁이 터전인 노천의 칠성눌 · 숨굴 등지)로 터전을 옮겼다. 하지만 겨울 혹한을 견디지 못해 결국 멸종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인가 담장을 넘어 옥외로 빠져나가는 집뱀들을 바라다보며 탄식조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이젠 망ᄒᆞ였져, 조상님이 등져시난!"이라고.

XI. 억대부군 칠성 · 고팡庫房 안칠성. 당해 본풀이에 의하면, '일곱째 딸아기'는 억대부군 칠성으로 좌정한다. 억대는 대대손손이고, 부군府君은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에 대한 존칭이다. 이는 딸아기(곧, 여자)가 밭칠성(곧, 남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성이 남신이 되었으니까. 여하튼, 당해 본풀이에 의하면 일곱째 딸아기는 울안 뒤뜰의 칠성눌을 터전으로 삼는다. 이는 일곱째 딸아기가 집안의 터주(곧, 지신)가 되었다는 말이다. 한편, '어미 칠성'은 고팡 안칠성으로 좌정한다. 고팡은 고방庫房이고, 안칠성은 죽은 어머니나 여자 조상 넋의 화신이다. 이는 어미 칠성이 집안의 곡신(예: 쥐 · 벌레 · 참새 같은 미물로부터 곡식을 지키는 신적 존재)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날 제주에서는 황구렁이가 지신이자 곡신이었던 셈이다. 내처 말하면, 황구렁이는 훗날 집안과 마을의 제반사(곧, 축재 · 치병 · 장수 · 혼사 · 풍년 · 풍어 등)를 관장하는 신적 존재로까지 직능이 점차 확장되었다. 한반도 무단통치 아래

서 허덕이는 제주인들에게는 황구렁이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쉽게 의탁할 수도 있는 유일한 신적 존재(곧, 구원자)로 여겨졌으니까.

## <나주羅州 기민창饑民倉 조상>

옛날 순흥順興에서 3형제가 제주에 내려왔다. / (중략) 작은아우는 조천면 서늘善屹里에 자리를 잡아 그 자손이 벌어져 갔다. / 그 후 작은아우의 후손이 조천관(朝天面 朝天里)에 살게 되었다. / 처마 높은 청기와집에 전답이 많고 또 상선上船도 아홉, 중선도 아홉, 하선도 아홉 척을 부리니 안씨선주安氏船主라 불렀다. / 안씨선주는 천하거부로 살면서 마음씨도 고와서, 조천면 일대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배를 빌려 주어 포구마다 안씨선주의 배로 가득 찼었다. / 이때 제주에는 칠 년 가뭄이 들어 밭마다 먼지가 보얗게 올랐다. 제주 백성이 다 굶어 죽게 되어 가는 판이었다, / 제주목사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어느 날 "조천관 안씨선주의 재산이면 제주 백성이 사흘은 먹고 남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목사 귀에 들어갔다. / 목사는 사령을 시켜 안씨선주를 동헌으로 불러들였다. (중략) 안씨선주는 빌려 줬던 배들을 다 거두어 돈 창고의 돈을 상선 · 중선 · 하선에 가득 싣고 쌀을 사러 떠났다. (중략) 어느 날 나주 고을에 들어섰다. (중략) "나는 나주 기민창의 삼 년 묵은 무곡을 나라에서 팔아 올리라 하되 팔지 못하여 수심입니다." 안씨선주는 그 쌀을 사기로 하고 실을 준비를 서둘렀다. (중략) 명주 바다에 실바람 이는 날, (중략) 배에 깃발을 올렸다. (중략) 배를 띄우는 순간이었다, 안씨선주는 배 위에 앉아 전송하는 나주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다 보니, 갑사 댕기에 머리를 땋아 늘인 처녀아기씨가 발판으로 배에 올라오는 것이 언뜻 보였다. (중략) 제주 물마루가 가까워졌을 무렵이었다.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에 회오리바람이 한 번 치더니 산 같은 파도가 연이어 밀어닥치어 배가 몇 번을 구르더니 그만 뱃전 밑으로 구멍이 터졌다. 귀중한 쌀섬이 물에 잠겨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안씨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중략) 두 손 모아 빌고 있더니, 가라앉던 배가 둥둥 뜨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안씨선주는 터진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무지무지하게 큰 뱀이 뱅뱅 서리어서 물구멍을 꽉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조상님이 분명하다.' 안씨선주는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 배는 무사히 조천 포구에 닿았다. (중략) "조상님아, 조상님아! 우리 조상이거든 어서 발판으로 내려서 집으로 가십시다." 꿇어앉아 빌었으나 뱀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안씨선주는 어쩔 줄을 몰라 그 앞에 지켜 앉았다. 날이 어둡고 밤이 깊어 갔다. 이경二更이 넘어가니 그제야 뱀은 몸을 움직여 뭍으로 내려왔다. 안씨선주는 길 인도를 하여 집으로 안내했다, 뱀은 집안 울타리 안을 휘휘 한 번 둘러보고는 다시 포구 쪽 새콧알로 내려갔다. 안씨선주는 다시 그 뒤를 따라 내려갔다. / 새콧알까지 내려간 뱀은 다시 가만히 머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안씨선주는 곁에 지키고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다. / 시간이 흐르자 안씨선주는 깜박 잠이 들었다. "선주들아, 선주들아, 몸이 고단하여 잠이로다. 나는 나주 기민창 동서남북 창고를 지키던 조상이다. 기민창고가 비어가니 내 갈 길이 없어져 무곡을 따라왔다. 안씨선주 집안을 돌아봐도 내 몸 감출 데가 없어 내 갈 데로 갈 터이니, 송씨선주 중단골, 박씨선주 하단골을 맺어 삼명일三名日 · 기일제사忌日祭祀와, 일년 한 번 철갈이祭名로 나에게 상床을 바치면 좋은 재산 일으켜 주고 천하거부 시켜 주마. 나는 조천관 새콧알로 좌정하여, 가는 배, 오는 배, 삼천 어부 · 일만 잠수潛嫂 차지하겠노라." 깨고 보니 꿈이었다. 뱀은 새콧알의 굴 속으로 무서운 몸을 감추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 이렇게 하여 가는 배, 오는 배, 삼천 어부 · 일만 잠수를 차지하고, 정월엔 신과제新過歲(곧, 신년제新年祭)를 받고, 큰굿하면 큰 밭 사고 작은굿 하면 작은 밭 사게 해 주는 새콧알할망이 되었다. / 또한 안씨선주 상단골에서는 고방庫房에 이 신을 부군칠성富君七星으로 모셔서, 명절과 기일제사 때마다 메 한 그릇 정성을 하여 왔다,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키고 거부가 되게 도와 주는 조상이 되었다. ㅡ濟州市 龍潭洞 박수 安仕仁 提供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226-232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풀이는 소위 '조상본풀이'로 당해 집안의 명절과 기일에 심방이 자손 번성 · 축재 등을 기원하며 구송한다.

Ⅲ.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포괄적 증거물(예: 집뱀 · 고팡), 숭고미, 당해 집안이다.

Ⅳ. 당해 본풀이의 존재의의는 자손의 번성 · 축재 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새콧알할망 직능은 안씨 집안의 번성 · 축재 등을 관장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참, 이 조상본풀이(곧, 집안 수호신 내력담)는 뱀이 소위 육지에서 살길 찾아 제주로 흘러들어 터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일반본풀이인 전술한 <사신 칠성>과 유사하다.

Ⅴ.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위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주인공 새콧알할망은 본디 나주 기민창 동서남북 창고를 지키던 조상이고(위 ❶ · ❷) 나주 기민창 창고가 비어 몸 감출 데가 없고(곧, 버림받고)(위 ❸) 밑창에 구멍 난 배로 바다를 건너고(위 ❹) 안씨 선주의 도움으로(위 ❺) 정착할 곳을 찾고(위 ❻) 마침내 고팡의 부군칠성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Ⅵ. 갑사댕기에 머리를 땋아 늘인 처녀아기씨는 새콧알할망에서의 '할망'이 노파가 아니라 아기씨라는 말이다.

Ⅶ. 부군칠성富君七星에서의 富君은 府君(뜻: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에 대한 존칭)의 오류(곧, 와전)일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의 부군칠성도 전술한 <사신蛇神 칠성>에서의 용례用例에 의하면 안칠성의 오류(곧, 와전)일 것이다. 새콧알할망은 곡신인 동시에 여성이니까.

Ⅷ. 전언傳言에 의하면, 지난날 제주 상인들은 주로 탐진(곧, 오늘날의 강진)과 탐진강耽津江을 거쳐 나주로 쌀을 구하러 다녔다. 그러고 보면, 이 본풀이는 그 전언을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 <송당(곧, 금벡주 · 소천국) · 궤눼깃당(곧, 궤눼깃한집)>

소천국은 알송당下宋堂里 고부니마를에서 솟아나고, 벡주또는 강남천자국의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벡주또가 십오 세 되어 천기天機를 짚어 보니, 천정배필 될 짝이 조선국 제주도 송당리에 탄생하여 사는 듯했다. 벡주또는 송당리로 내려와 소천국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 부부는 아들 5형제를 낳고 여섯째를 포태 중인 때였다. "소천국님아, 아기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농사를 지으십시오." 소천국은 오붕이굿왓을 돌아보았다. 피 씨앗 아홉 섬지기나 되는 넓은 밭이었다. 소를 몰고 쟁기를 지워서 밭을 갈러 갔다. (중략) 태산절 중이 지나가다 배가 고프다며 들렀다. "밭가는 선관仙官님아, 잡수던 점심이나 있거든 조금 주십시오." 중은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를 모조

리 쓸어 먹고 도망가 버렸다. / 소천국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밭 갈던 소를 잡아먹었다. 하지만 초요기도 되지 않았다. 근처의 묵은각단밧을 보니 검은 암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소천국은 그 소도 잡아먹었다. (중략) "당신 소 잡아먹은 건 예상사지만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소도둑놈이 아니냐. 살림을 분산합시다." 벡주또는 화를 내며 바람 위로 올라서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로 내려서서, 벡주또는 당오름上松堂里(곧, 언덕배기)에 가 좌정하고,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마를에 와 좌정했다. 소천국이 배운 것은 본래 사냥질이었다. (중략) 소천국은 사냥을 다니다가 정동칼쳇 딸을 만나 첩으로 삼고 고기를 삶아 먹으며 새 살림을 꾸몄다. 한편, 벡주또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세 살이 되자 제 아비나 찾아 주려고 아이를 업고 소천국을 찾았다. (중략) 아이(곧, 궤눼깃한집)는 아버지를 만났으니 어리광을 부리느라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 삼각수三角鬚를 뽑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이 자식 밴 때도 일이 글러서 살림이 분산되더니, 나서도 이런 불효한 행동을 한다." 소천국은 홧김에 세 살 난 아들을 무쇠석갑에 담아 자물쇠로 잠그고 동해바다에 띄워 버렸다. 무쇠석갑은 용왕국에 들어가 산호수 가지에 걸렸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용왕국엔 풍운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중략) 용왕국 대왕의 작은딸 아기가 꽃당혜 신은 발로 세 번을 돌아가며 둘러 차니 무쇠석갑이 저절로 설강 열렸다. 속에는 옥 같은 도련님이 앉아 있었다. (중략) "강남천자국에 국란이 났다 하기로, 세변을 막으러 가다가 풍파에 쫓겨 들렀습니다." 용왕국 대왕은 천하 맹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작은딸 방으로 드십시오." (중략) 날마다 돼지와 소를 잡아 석달 열흘을 먹여 가니, 용왕국 창고가 다 비어 갔다. 용왕국이 거덜날 판이었다. (중략) 용왕국 대왕은 사위 부부를 무쇠석갑에 들여놓아 물 바깥으로 띄워 버렸다. / 무쇠석갑은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 떠올랐다. 그날부터 강남천자국에 풍운조화가 일기 시작했다. (중략) 천자님이 정중히 물었다.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 "소장少將은 남북적을 격파하고 귀국의 세변世變을 막으러 왔습니다." (중략) 궤눼깃한집은 천자님의 억만 대병을 거느리고 싸움판으로 나아갔다. (중략) 천자님은 대희하여 벼슬을 하사하려 했다. (중략) "소장은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중략) 궤눼깃한집은 들판을 거슬러 비자림으로 올라가 방포일성放砲一聲을 놓았다.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벡주또는 그 방포일성에 깜짝 놀랐다. (중략) 궤눼깃한집이 들이닥쳤다. 소천국은 엉겁결에 알손당下松堂 고부니마를로 도망가 죽어 당신堂神이 되고, 벡주또는 웃손당 당오름으로 도망가 죽어 당신이 되었다. (중략) 궤눼깃한집은 풍운조화를 내려줬다. 한 심방이 점을 치더니 말했다. "소천국 여섯째 아들이 알궤눼기에

좌정하려고 내려 준 풍운조화입니다." (중략) 김녕리金寧里 알궤눼기에 당 하나가 들어섰다. 그 당은 1년에 한 번 돼지를 잡아 물 한 방울도 덜지 아니하고 궤눼깃한집을 위하는 신당이 되었다. -濟州市 健入洞 박수 李達春 提供.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239-250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풀이는 소위 당堂본풀이로 심방이 일 년에 한 번 당해 당堂에서 당해 마을의 무사안녕 · 번영 등을 기원하며 구송한다.

Ⅲ. 당해 본풀이의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송당과 궤눼깃당, 숭고미, 송당리와 김녕리 일원이다. 물론 위 두 굿당은 전설 증거물인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 증거물인 포괄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마치 국가가 그렇듯이.

Ⅳ.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당해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주인공 궤눼깃한집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위 ❸) 무쇠석갑에 담긴 채 바다를 건너고(위 ❹) 용왕국 대왕과 천자님의 도움으로(위 ❺) 남북적을 격파하고 천자국 세변世變을 막고(위 ❻) 마침내 궤눼깃당 당신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Ⅴ. 소천국은 당해 본문에 의하면 남신으로 땅에서 솟아났다. 물론 '남신의 용출종지聳出從地' 화소는 탐라설화의 고유 화소이다. 그런데 이 화소는 작금의 제주본풀이에서는 아주 드물다. 그 까닭은 모라 몰락(1105년)과 더불어 한반도 신화들이 탐라로 유입되면서 탐라 고유의 신화들이 탐라에서 축출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모흥혈에서 용출한 삼을나'나 '알송당 고부니마를에서 용출한 소천국'처럼 용출종지로 등장한 남신들은 탐라 고유의 신적 존재이고, 여타는 대체로 외부에서 도래渡來한 신적 존재라는 말이다.

Ⅵ. 송당리는 한때 제주 굿당의 남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는 작금의 제주무격사회 일방적 주장을 곧이곧대로 수용한 결과일 것

이다. 송당 일대는 무속이 억불숭유정책으로 탄압받던 시절의 한낱 피난처에 불과했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송당이 제주 굿당의 남상이라는 것은 단견인 셈이다. 사실, 송당은 산간오지이다. 한편, 문화(곧, 무속이나 신앙 포함)란 통상 강변에서, 아울러 역사 속에서 움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무속(곧, 굿당)의 남상은 송당리가 아니라 '산저천 일대'(곧, 칠성골)일 것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사회 일각에 "송당리란 마을은 여신 금백주 · 세명주와 남신 (소로)소천국이 각각 관장하는 웃송당 · 샛송당 · 알송당으로 되어 있다"라는 전언(곧, 전설)이 있다. 그런데 이 전언은 실은 본풀이와는 무관한 것이다. 본풀이는 본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전언은 관련 본풀이 본문이 전무하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본풀이 본문이 금백주 · 소천국 · 세명주 중에서 금백주와 소천국이 등장하는 것은 있지만 세명주가 등장하는 것은 없으니까. 내처 말하면, 세명주는 탐라 도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설상의 인물 사만두고에서의 '사만두'의 이칭이다. 그러고 보면, '샛송당 당신 세명주 운운'은 '표선리 당개할망 본풀이'처럼 누군가에 의해 날조된 것인 셈이다.

Ⅶ. 마을과 그 구성원을 위한 굿당堂은 지난날 제주에는 단위마을마다 한두 기基씩은 꼭 있었다. 그런데 굿당은 당해 마을 구성원 간에는 강력한 결속의 원동력 역할을 했지만 마을들 간에는 철저한 분열 · 단절 등의 요인 역할을 했다. 당신堂神이 당堂마다 달랐으니까. 물론 굿당마다 당신이 다르다는 말은 굿당들이 각각 별개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제주의 굿당들은 탐라 공동체 결속의 최악의 걸림돌 역할을 단단히 해 온 셈이다. 생각건대, 망국 탐라의 소생을 아주 불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굿당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것들은 마을들 간 결속의 장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운명론(곧, 노예근성)과 기복신앙(곧, 이기주의)의 소굴이기도 했으니까. 물론 한 국가 · 민족 결속의 이상적인 구심점은 유일신[예: 이스라엘의 יהוה(야훼)]이다.

Ⅷ. 혹자는 소천국의 생활상을 두고 의도적으로, 아니 악의적으로 단언한다. 당해 본풀이는 진취적인 제주 여자들(예: 벡주또)이 게으르고 무모한 제주 남자들(예: 소천국)을 먹여 살린 사례라고. 어불성설이다. 그 단언은 신화를 신화시대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날의

눈으로 본 유치하기 그지없는 단견의 발로인 동시에 탐라 남자들을 폄훼하려는 고의적인 편견의 발로이니까. 여하튼, 위 본풀이에서의 소천국은 농경시대 인물 벡주또와는 달리 수렵시대 인물이다. 물론 수렵시대에는 소유 개념(곧, 자신 것과 타인 것에 대한 구분)도 없었고, 부지런을 떨며 재물을 모으는 것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짓이었다. 그래서 소천국은 닥치는 대로 소도 잡아먹고, 게으름도 부렸던 것이다. 즉, 그는 수렵시대 인물답게 행동했던 것일 뿐이다. 그러고 보면, 당해 본풀이야말로 자생적 탐라신화의 흔적을 그나마 간직하고 있는, 즉 수렵시대에서 농경·목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제주본풀이인 셈이다. 참, 당해 본풀이 조역 벡주또 · 소천국은 악신이다. 죽어 신적 존재로 좌정하니까.

<내왓당(곧, 천자또마누라)>

웃송당(곧, 구좌면舊左面 상송당리上松堂里)의 당신堂神 금벡주와 알송당下松堂里의 당신 소로소천국이 부부가 되어 아들 18명, 딸 28명을 낳고 손자가 378명으로 벌어졌다. 이 자손들이 퍼져 제주 각 마을의 당신이 된 것이다. / 소천국은 제주섬에서 솟아나고, 아내 금벡주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 / 벡주또(곧, 금벡주)는 점점 자라 열다섯 살이 되니 낭군 감을 찾고자 했다. 가만히 천기天機를 짚어 떠보니, 조선 남방국 제주 땅에 가야 배필이 있을 듯했다. / 벡주또는 제주섬으로 내려와 소천국과 천정배필을 맺었다. 슬하에 아들딸들이 많이 태아나 가니 생활이 곤란해져 갔다. 어느 날 벡주또는 남편에게 농사짓기를 권유했다. (중략) 소천국은 한참 밭을 갈다가 점심이나 먹을까 해서 소 길마를 걷어 보았다. 밥도 국도 하나도 없었다. 중이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를 모조리 먹고 가 버린 것이었다. / 소천국은 시장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밭 갈던 자기 소를 잡아먹기로 했다. (중략) 또 잡아먹을 소나 없는가 해서 바라보니, 묵은각단밧에 암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중략) 남의 소까지 잡아먹으니 소도둑놈 아닙니까? 살림을 분산합시다.”(중략) 벡주부인은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벡주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소천국을 찾아갔다. 세 살 아들은 어리광을 부린다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 삼각수를 뽑는다 가슴팍을 두드린다 난리법석이었다. “이런 불효의 자식이 어디 있느냐? 동해바다로 띄워 버리자.”(중략: 이

부분은 전술한 '궤눼깃당 본풀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용왕황제국을 거쳐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세변世變을 진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주인공 이름이 궤눼깃한집에서 천자또마누라로 바뀌었을 뿐이다.) (중략) 옥황상제가 "너는 제주 땅에 들어가서 내왓당에 좌정하여 소 잡아 전물제拴物祭, 닭 잡아 전물제를 받아라"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 그래서 제주로 내려와 내왓당에 좌정하게 되었다. 이가 천자또마누라인 것이다. ㅡ濟州市 健入洞 박수 李達春 口誦

[본문本文 관련 해설]

Ⅰ. 위 본문은『濟州島神話』(앞의 책, 226-232쪽)에서 당해 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곧, 근간이 되는 화소들)을 발췌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여타 화소들은 '(중략)'으로 처리하여 생략했다.

Ⅱ. 당해 본문은 소위 당본풀이로 당해 마을 굿당에서 일 년에 한 번 심방이 당해 마을의 무사안녕 · 번영 등을 기원하며 구송한다.

Ⅲ. 당해 본풀이 증거물 · 미적 범주 · 분포는 각각 신화의 그것들인 내왓당, 숭고미, 용담동 일대이다. 물론 여기서의 내왓당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마치 <삼을나(곧, 모라건국)>에서의 국가가 포괄적인 것으로 취급되듯이.

Ⅳ. 본풀이는 일정 플롯[❶ 고귀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 ❺ 의인(곧, 구원자)과 조우 및 그에 의한 양육養育→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을 지닌다. 이 플롯에 의하면, 위 본문은 본풀이(곧, 내력담)임에 틀림없다. 주인공 천자또마누라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위 ❸) 무쇠석갑에 담긴 채 바다를 건너고(위 ❹) 용왕국 대왕과 천자님의 도움으로(위 ❺) 남북적을 격파하고 천자국 세변世變을 막고(위 ❻) 마침내 내왓당 당신으로 좌정하니까(위 ❼).

Ⅴ. 당해 본풀이와 전술한 <송당 · 궤눼깃당>은 내용이 아주 흡사하다. 그렇다면, 궤눼깃당(김녕리 소재)에서 분가한 심방이 내왓당(용담동 소재)으로 이주한 것일까, 아니면 그 역일까? / 내왓당에서의 '왓'은 왙, 즉 밭['밭>밧>왙'(ㅂ>ㅸ>오/우)]의 와전이다.

Ⅵ. 천자또마누라에서의 '마누라'는 남녀를 불문하고 존대의 뜻을 나타내려고 붙인 말(예: 마님, 님 따위)이다.

## <결어結語>

Ⅰ. 조선사회는 일제강점기를 20세기 초엽 맞았다가 20세기 중엽 벗어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초엽인 지금 한국사회 일각은 일제 정치구호(예: 대동아공영권 · 내선일체)에 연연하는 듯하다. 한국사회 일각에서 일제 시절 일본인이 조선사회에 부식한 일본설화이론에 의거하여 제주설화인 설문대할망 전설을 본디는 신화였다며 억지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일제강점기는 아직 종언을 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일단락된 셈이다. 한편, 제주사회는 일제강점기 직후부터 4·3사건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주사회는 다방면에서 급변을 맞았다. 구비문학 분야에서도 그랬다. 예컨대, 구비문학의 문헌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리고 민중 공동작인 설화가 마치 개인작인 기록문학인 양 취급되면서 예의 그 한국사회 일각과 한통속이 되어 몇몇 전설의 신화화를 시도했다. 이에,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는 1960년대를 전후하여 여름 · 겨울 방학을 틈타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학술조사(곧, 설화 채록)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濟州島傳說』(현용준)과 『濟州島神話』(현용준)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내친김에 말하면, 그 무렵 제주사회에서는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는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설문대할망 설화를 본풀이(≒ 신화)라 일컫는 제보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

Ⅱ. 예의 그 『濟州島神話』는 위 학술조사에서 채록된 신화 총 29편을 일반본풀이 · 당본풀이 · 조상본풀이로 분류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제2부 본풀이(곧, 신화)'에서 이미 언급한 것 11편(곧, 삼을나 신화와 본풀이 10편)을 일반본풀이로, '제2부 본풀이(곧, 신화)'에서 이미 언급한 것 2편과 미未언급한 것 11편[곧, <내왓당 · 궁당>(앞의 책, 223-226쪽), <각시당>(앞의 책, 232-233쪽), <칠머릿당>(앞의 책, 233-234쪽), <함덕 본향당>(앞의 책, 234-236쪽), <눈미 불돗당>(앞의 책, 236-238쪽), <김녕 큰당>(앞의 책, 238쪽), <월정 본향당>(앞의 책, 250-256쪽), <세화 본향당>(앞의 책, 256-269쪽), <삼달 본향당>(앞의 책, 269-273쪽), <토산 일뤳당>(앞의 책, 274-280쪽), <토산 여드렛당>(앞의 책, 280-288쪽)]을 당본풀이로, 그리고 '제2부 본풀이(곧, 신화)'에서 이미 언급한 것 1편과 미未언급한

것 4편[곧, <구슬할망>(앞의 책, 295-299쪽), <광청아기>(앞의 책, 299-303쪽), <안판관 · 고대정>(앞의 책, 304-308쪽), <영감(도채비)>(앞의 책, 308-309쪽)]을 조상본풀이로 처리했다. 내처 말하면, 작금의 제주 무격사회에서 구전되는 신화(또는 본풀이)는 위 29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구비문학계 일각에서는 그 29편 이외의 것들(곧, 모종의 저의를 가지고 왜곡해 놓은 전설이나 위僞 신화)도 제주신화로 다룬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구비문학 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이다. 나아가서, 설화는 민중 삶의 소산(곧, 민중의식의 발로)이라는 설화 논리마저 저버린 무분별한 작태이다.

Ⅲ. 위 '제2부 본풀이(곧, 신화)'에서는 예의 그 29편 중 14편만 설명했고, 나머지 15편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 15편이 천편일률적인 당본풀이 또는 조상본풀이라서 그 14편 설명에다 그 15편 설명을 가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Ⅳ. 위 학술조사 도중에 토론회가 있었고, 그때 본풀이 관련 사항으로 두 가지가 거론되었다. 하나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는 본풀이(곧, 신적 존재의 내력담)라는 용어만 있고 신화라는 용어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본풀이와 신화가 일치된 개념은 아니다. 본풀이는 설화이론 3분법에 따른 갈래에서의 신화에 대응된(아니, 내포된) 개념이니까. 다른 하나는 본풀이는 부계사회 소산이라는 것이다. 본풀이에서의 최고신이 남신男神 옥황상제이니까. 게다가, 본풀이를 관통하는 도교 교의(예: 신선 사상)의 출현 시기가 중국 한말漢末 이후이니까.

Ⅴ. 본풀이는 흡사 골동품인 양 변화를 모른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도 본풀이는 신화시대 이상인 기복신앙과 숙명론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모르는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본풀이는 굿(곧, 신앙)이 지향하는 기복신앙과 운명론은 그만 털어 버리고 이제는 문학이 지향하는 의타주의와 자유의지로 단장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작금의 시대정신을, 나아가서 탐라후예의 꿈(곧, 이어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요컨대, 본풀이는 더 늦기 전(곧, 시대착오적 맹신이란 낙인이 찍히기 전)에 신앙의 색채를 떨쳐 버리고 문학의 색채로만 거듭나야 한다.

# 발 문

Ⅰ. 제주구비문학계의 한 인사가 연전에 TV에 출연하여 제주본풀이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불쑥 단언했다. “본풀이란 별것 아닙니다. 신명神名만 있으면 본풀이이니까.”라고. 그러자 필자는 당혹감을 금할 길 없었다. 물론 이 단언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본풀이는 반드시 본문을 요하니까. 물론 신앙은 신명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고 보면, 그 단언은 신앙(곧, 종교)과 본풀이(곧, 문학)를 혼동한 것인 셈이다. 여하튼, 그때 뜻밖의 당혹감에 봉착한 필자는 한국구비문학계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은 야인野人이면서도 설화 관련 저술 의욕에 불현듯 사로잡혔고, 그리고 한동안 속을 끓였다. 그러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문대할망 전시관(실은 신화관) 건립 소식에 접하면서 하릴없이 설화 관련 집필이라는 험로로 발을 내딛게 되었다.

Ⅱ. 제주사회 일각은 곡해한다. 신화는 뛰어난 것이고 전설은 하찮은 것이라고. 그래서 설문대할망 전설은 본디 신화였다는 허언에 가슴 뿌듯해한다. 하지만 이는 편견 · 단견 · 무지 등의 소치이다. 제주설화에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것은 모라毛羅 몰락 이후 제주의 민중사가 투영되어 있는 역사적 전설들이니까. 게다가, 제주의 역사적 전설은 주체적 역사가 없는 제주에서 주체적 역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주는 속지屬地라서 사서에는 주체적인 탐라역사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 전설(곧, 민중사)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

Ⅲ.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사회에서는 오늘날의 설화를 ‘본풀이’와 ‘본풀이 아닌 것’(곧, 옛말)으로 이분하여 인식했다. 그런데 옛말은 본풀이와는 달리 갈래(곧, 하위개념)가 있다. 이를테면, ‘놈의 밭 호박 따먹으민 배불렁 죽으덴 ᄒᆞ는 옛말이 잇저’에서의 옛말은 속담이고, ‘문지방 붋지 말랜 ᄒᆞ는 옛말이 잇저’에서의 옛말은 금기어禁忌語이고, ‘설문대할망은 민란 장두랜 ᄒᆞ는 옛말이 잇저’에서의 옛말은 민중사民衆史이니까. 그런데 속담이나 금기어로서의 옛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되지만 민중사로서의 옛말은 구비문학계에서조차 배척되기 일쑤이다. 그래서 ‘제주는 속지(곧, 구제해야 할 고을)이다’란 옛말도 배척되는 실정이다. 물론 사서 기록에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아니,

어찌 종주국 조선의 속지 탐라에 대한 지난날 핍박 사실(곧, 제주=속지)이 오늘날까지 한국 사서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제주구비문학계는 옛말인 민중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중사도 설화(예: 역사적 전설)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민중 삶의 소산이니까.

Ⅳ.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구비문학계 일각(곧,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시도하는 신화론자들)을 앞세워 설문대할망 신화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신화관 건립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물장오리 익사'란 제하에 구전되는 설문대할망 설화 본문에 따르면 설문대할망은 결코 신적 존재일 수 없으니까. 즉, 익사溺死로 끝장나는 비극적인 존재이니까. 물론 설문대할망은 모라 몰락(1105년) 이후 한반도 조정의 가혹한 무단통치 탓에 거듭된 민란이 낳은 여자 장두, 즉 전설 주인공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인 양 물장오리 익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일본설화에 여신 발에 밟혀 생긴 호수가 있으니 물장오리 익사 화소도 '호수 형성 화소'의 와전이라고. 기막힐 노릇이다. 아니, 일본설화는 오리지널이고 제주설화는 이미테이션이란 말인가? 부연하여 설명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구비문학 설화이론과 제주민중 설화의식은 제쳐놓고 설문대할망 신화론자들의 빗나간 견해, 즉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반도에 주입한 일본설화이론(곧, '거인 또는 표류하는 섬에 의한 지형형성 설화는 신화이다'라는 일제식민잔재)에 의거하여 설문대할망이 선사시대 소산(곧, 모계사회 인물로 제주도를 창조한 여신)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설화의 신화 · 전설 여하를 가름할 기준은 오직 셋(곧, 설화 본문 · 제주민중 설화의식 · 한국설화이론)이다. 설화란 민중 삶의 소산이니까. 그러니, 위 셋 이외의 것(예; 외지 설화 · 설화이론)은 그 가름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곧,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으로 위 셋은 묵살한 채 그 외의 것만을 그 가름을 위한 기준이라며 마구 들이댄다. 진리란 단순명료한 것, 즉 논거를 중언부언 요구하지 않는 것인데도 말이다.

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문대할망 신화관 건립에 착수하자 모라 몰락(1105년) 이후 처참한 삶을 산 탐라선조들 모습이 내 시야로 성큼 다가들었다. 아울러, 지난날 틈틈이 모아둔 역사적 전설들도 성

큼성큼 다가들었다. 이에, 필자는 설문대할망이 '모계사회여신이 아님'(곧, 1105년 이후 생겨난 민란 장두임)을 알리려고『耽羅說話理解』(2012년) ·『탐라 설화 · 비사』(2017) ·『설문대할망 허상 · 농간』(2017) 등을 급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시했다. 또, 질의서도 십여 차례 접수시켰고 도청 청사 정문에서 한동안 1인시위도 벌였다. 질의서 · 1인시위 등에서의 요구사항은 세금 93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국가적 · 민족적 사업이니 설문대할망 설화의 전설 · 신화 여하를 밝힐 학술토론회는 의당 거치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어찌 이런 사업에 학술토론회를 생략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위한 가설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때문이었으리라.

Ⅵ. 이 졸고가 지구 종말을 맞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지구 종말이란 어느 날 불쑥 들이닥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일 것이다. 여하튼, 이 집필이 유의미하기는 한 것일까? 생각건대, 지금은 외부를 향해 문을 열어놓아야 할 통합의 시대이다. 그런데 지구 종말이 무르익으면 곳곳에서 재앙이, 이어 분열의 시대가 닥칠 것이다. 아울러, 곳곳에서 공동체들 간에 욕망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치열히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탐라 공동체도 타 공동체들처럼 하릴없이 생존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이 글은 유의미한 역할, 즉 탐라후예들 간 결속의 구심점 노릇을 해 줄 것이다. 이 글은 탐라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설화들(곧, 삼을나 신화와 역사적 전설들)을 다룬 것이니까. 게다가, 이 글 이면에는 탐라민중 궤적은 물론이고 탐라민중 동질성 유지를 위한 민중의식 · 이상 등이 들어 있으니까.

Ⅶ.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는 빗나간 애국을 위한 일종의 정치구호이다. 물론 참(예: 진리 · 정의)을 위한 도구인 설화(곧, 학문)는 빗나간 애국을 위한 정치구호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2026년 2월 어느 날 별도봉 기슭 우당도서관에서

**저자**

# 참 고 문 헌

-인명(가 · 나 · 다 순)-


강영계 · 송병옥 공저,『논리학개론』, 박영사, 1986
고씨종문회총본부,『탐라성주유사』, 1979
구보 노리타다,『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기』, 뿌리와이파리, 2004
구양수 등,『新唐書』, 1044
김두봉,『濟州島實記』, 濟州實跡研究社, 오사카, 1932
　　ㅡ,『耽羅誌』, 1933
김봉옥,『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김부식,『삼국사기』, 1145
김석익,『耽羅紀年』, 1918
김순이 · 표성준,『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2012
김영돈,『제주도 민요 연구 · 상』, 일조각, 1984
김영화,『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김종서 등,『고려사』, 1451
淡水契 편,『增補耽羅誌』, 1954
未詳,『編禮抄』, 연대 미상
석주명,『제주도 수필』, 보진제, 1968
양주동,『고가연구』, 박영사, 1943
위징,『隋書』, 636
이건,「제주풍토기」,『규창집』, 1712
이연수,『北史』, 659
이원조,『耽羅誌草本』, 1843년경
이원진,『耽羅志』, 1653
이형상,『남환박물』, 1702
이홍식,『증보 새국사사전』, 교학사, 1998
일연,『삼국유사』, 1281
장성철,『탐라설화이해』, 제주문화, 2012
　　ㅡ,『탐라 설화 · 비사』, 태한, 2017
장주근,『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장한철,『표해록』, 1771
전경수,『탐라 · 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정태현 편역,『성서비평사전』, 성서와함께, 1993
주강현, 「탐라와 제주의 해양문명사적 성찰」,『탐라문화』 제4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진성기,『남국의 민담』(6판), 형설출판사, 1982
ㅡ,『신화와 전설』(20판), 제주민속연구소, 태화인쇄사, 2001
표선리원로회,『표선리 향토지』, 1996
馮友蘭 저, 정인재 역,『중국철학사』, 형설출판사,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구비문학대계』9-2, 1981
한치윤,『해동역사』, 1823
현승환,「설문대할망 설화 재고」,『영주어문』 제24집, 2012
현용준,『濟州島神話』, 서문당, 1976
ㅡ,『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ㅡ,「삼성신화연구」,『탐라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ㅡ,『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현평효,「지명을 통해서 본 탐라언어의 원류」,『제주도』 53호, 1990

[부록]

■ 제주설화의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Ⅰ. 구비문학(416) / Ⅱ. 설화(418) / Ⅲ. 전설(424) / Ⅳ. 신화(428) / Ⅴ. 민담(432)

## Ⅰ. 구비문학

Ⅰ.ⅰ. 문학은 기록문학記錄文學(곧, 글로 된 문학)과 구비문학口碑文學(곧, 말로 된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문학에는 소설 · 수필 · 희곡 · 시 · 시나리오 등이, 그리고 구비문학에는 설화 · 민요 · 판소리 · 민속극 · 무가 · 수수께끼 · 속담 등이 속한다.

Ⅰ.ⅱ. 구비口碑는 뜻이 '말로 된 비문碑文', 즉 '비문처럼 오래도록 지워지지(곧, 잊히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이다. 구비는 문학인 구비(곧, 구비문학)와 문학 아닌 구비(곧, 욕설 · 금기어 · 명명법 등)로 나눌 수 있다. 구비의 동의어는 구전口傳 · 구승口承 · 구비전승口碑傳承 등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민간전승民間傳承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지는 언어(곧, 구비) · 생활 · 풍속 · 예능 등등 유·무형의 문화재를 망라한 용어이다.

Ⅰ.ⅲ. 기록문학은 마치 글이 말이 생긴 후 생겼듯이 구비문학이 생긴 후 생겼다. 이는 문학이 생목이라면 구비문학은 뿌리이고, 글로 된 구비문학은 줄기이고, 그리고 기록문학은 가지 · 잎 · 열매 따위라는 말이다. 글로 된 구비문학이란 화석화된 구비문학, 즉 문헌에 실린 구비문학(곧, 문헌설화)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한편, 구비문학은 흡사 생목처럼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책에 실리면 기록문학처럼 더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비문학도 글로 기록된 순간부터 기록문학 취급을 한다. 물론 구비문학이 변한다는 것은 지엽(곧, 여타 화소들)이 변한다는 것이지 근간(곧, 핵심화소)이 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근간(곧, 설화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마치 귤나무가 감나무 따위로 변하는 것처럼 설화 자체가 변하는 것이니까.

Ⅰ.ⅳ. 민족은 지배층 · 정부 · 나라 등이 결딴나도 소멸되지 않지만 민중이 결딴나면 그만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민족의 뿌리는 민

중이니까. 일국一國의 기록문학도 구비문학이 살아 있는 한 시련은 겪을망정 소멸되지 않는다. 기록문학의 뿌리는 구비문학이니까. 물론 기록문학이 갈 길 잃고 방황할 때, 공허한 언어유희에 빠져 정체일로를 걸을 때, 그리고 주체성 · 정체성 · 자긍심 등도 없이 이민족 문학의 아류로 전락하여 눈치놀음이나 할 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바로 구비문학이다. 마치 연어의 회귀성 같은 인연의 줄을 꼭 부여잡은 채 잠재의식 속에 늘 깃들이며 자식의 무사 귀향만을 오매불망 축원하는 어머니(곧, 고향의 강)처럼. 그러고 보면, 기록문학이 망망대해를 여행하는 연어라면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이 세대교체의 순간마다 하릴없이 되돌아가게 되는 '고향의 강'인 셈이다.

Ⅰ.ⅴ. 구비문학에서는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즉, 작자作者인 화자와 향유자享有者인 청자가 대면해야 한다. 할아버지(곧, 화자)가 손자(곧, 청자)에게 옛말을 들려주는 경우가 그 일례이다. 단, 민요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민요의 화자는 청자 유무에 구애됨 없이 민요를 읊는다. / 한편, 기록문학에서는 작자와 독자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쓰고 읽는다.

Ⅰ.ⅵ. 구비문학에서는 작자와 향유자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작자(곧, 화자)인 어떤 사람에게서 옛말을 들을 때에 향유자(곧, 청자)였던 사람이 그 옛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에는 작자가 되니까. / 한편, 기록문학에서는 작자와 독자가 엄격히 구별된다.

Ⅰ.ⅶ. 구비문학 작품(곧, 본문)은 구연口演에 의해서 전달된다. 구연이란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표정 · 몸짓 등을 곁들여 가며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노래하는 것이다. / 한편, 기록문학 작품은 통상 독서로 전달된다.

Ⅰ.ⅷ. 구비문학 작품은 구연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남에게서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연하는 사람을 단순히 화자라 하지 않고 작자 취급을 한다. / 한편, 기록문학 작품은 글로 전달되므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Ⅰ.ⅸ. 구비문학 본문은 불변不變 부분과 가변可變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민중공동체 내에서 두고두고 반복되어 온 것이고, 그리고 후자는 민중 개개인의 개성 · 재능 · 의도 등에 의거하

여 가감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를 공동작共同作, 후자를 개인작個人作이라 한다. 여기서의 개인작 부분은 구연 때마다 통상 달라진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구비문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어서 대체로 무시된다. 따라서 구비문학은 공동작의 문학으로 간주된다. / 한편, 기록문학은 두말할 나위 없는 개인작이다.

Ⅰ.x. 구비문학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이므로 말하고 듣는 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일회적一回的(또는 시간적時間的) 의미意味 예술'이라 한다. 물론 '의미 예술'이란 객관적인 언어(곧, 말 · 글)를 표현수단으로 하는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주관적인 음音 · 색色 등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음악 · 미술 등에 상응한 용어 말이다.

Ⅰ.xi. 구비문학은 단순성單純性 · 보편성普遍性 등을 지향(곧, 추구)한다. 왜냐하면, 복잡성複雜性 · 특수성特殊性 등을 띠어서는 민중 사이에서의 구전이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중도 복잡하거나 특수하지 않다. 마치 사랑이나 공기나 물처럼. 그런데 사랑이나 공기나 물은 모두 하나같이 위대한 것들이다. 그러고 보면, 단순성 · 보편성 등이야말로 위대성과 상통하는 것인 셈이다. 민중이 추구하는 단순성 · 보편성 등도 또한 그렇다. 이는 민중은 미욱하고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라는 말이다.

Ⅰ.xii. 구비문학은 민중문학이다. 구비문학은 민중 삶의 소산, 즉 민중의식의 발로이니까. 부연하여 설명하면 민중의 이상과 염원, 고통과 좌절, 생활상과 가치관, 지배층에 대한 비판정신 · 저항의식 등의 표출이니까. 물론 기록문학도 오늘날은 일종의 민중문학이다. 민중의 삶 · 의식 등에 주안점을 두니까. 그러고 보면, 구비문학도 작금의 기록문학도 공히 민중문학인 셈이다. 하지만 구비문학 작자(곧, 민중으로서의 화자)와 기록문학 작자는 판이하다. 전자는 다만 고달픈 생활고를 이겨내려고 민요를 부르고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려고 전설(곧, 꿈 · 희망 · 구원)을 말하는(곧, 염원하는) 무의식적인 작자이고, 그리고 후자는 의식적인(곧, 의도적인) 작자이니까.

Ⅱ. 설화

Ⅱ.ⅰ. 한국설화 분류이론에서는 설화(story)가 신화(myth) · 전설(legend) · 민담(folk-tale)으로 삼분된다. 한편, 제주설화 분류이론에서는 설화가 특수민중(곧, 무격사회巫覡社會) 사이에서 구전되는 설화인 본풀이(곧, '신적 존재의 내력담')와 일반민중 사이에서 구전되는 설화인 옛말(또는 옛날이야기, 옛이야기, 이야기 등)로 이분된다. 그러고 보면, 위 2분법에서의 본풀이는 위 3분법에서의 신화에, 그리고 위 2분법에서의 옛말은 위 3분법에서의 전설과 민담에 상응되는 셈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날 탐라에서는 전설과 민담 간 구분이 없었다는 말이다. 아니, 실은 민담이란 장르가 없었다. 지난날 탐라에서는 '삶의 처참함' 탓에 민담(곧, 골계미)을 향유할(곧, 민담이 생성될)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으니까. 물론 '삶의 처절함'은 전설(곧, 비장미) 발생의 토양이다. 부언하면, 위 이분법에서의 옛말과 본풀이는 실은 본디 별개였다. 따라서 그 양자의 상위개념으로 설화란 용어를 상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제주민중 설화의식에는 이분법이니 설화니 하는 개념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말이다.

Ⅱ.ⅱ. 설화의 말뜻은 '이야기'이다. 바로 그래서 설화는 또 다른 구비문학인 민요와 상이점을 갖는다. 첫째, 설화는 '이야기 구조'(곧, 인과관계)에 의해 구전된다. 그러나 민요는 이야기 구조와는 무관하다. 둘째, 설화는 산문으로 되어 있다. 단, 율문의 부분적 삽입은 허용된다. 그러나 민요는 율문만으로 되어 있다. 셋째, 설화는 통상 때와 장소에 구애됨 없이 구전된다. 그러나 민요는 일상생활(곧, 노동 · 의식 · 유희 등)의 필요에 따라 불려진다. 넷째, 설화는 화자와 청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민요는 화자만으로 족하다. 다섯째, 설화는 본디 민중의 것이지만 상류층(곧, 양반 · 지배층 · 지식인 등)도 향유한다. 그러나 민요는 오직 민중만이 향유한다.

Ⅱ.ⅲ. 설화는 본질적으로 미완성품이다. 설화는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중 가변부분이 구전될 때마다 달라지기 십상이니까. 그러고 보면, 민중은 설화의 '종점 없는 완성'에 무의식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설화가 종점 없다는 말은 종언 없다는 말이고, 종언 없다는 말은 설화가 완성을 위해 계속 성장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설화가 계속 성장한다는 말은 민중이 부단히

좌절하며 꿈꾸며 살아간다는 말이다. 참, 여기서의 완성이란 궁극적으로는 설화 이면 정신의 구체화 · 심화 등이다.

Ⅱ.ⅳ. 설화의 존재의의인 설화 이면 정신은 설화 화자 · 해석자 등의 논리 때문에 희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화 이면 정신은 설화라는 생목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희생되어야 할 것은 설화 이면 정신이 아니라 설화 화자 · 해석자 등의 논리이다. 부언하면, 훌륭한 농부(곧, 설화 화자 · 해석자)는 복사나무에서 당해 설화 본질과 무관한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당해 설화 본질에 부합한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하는 자이다.

Ⅱ.ⅴ. 한국설화 분류이론 3분법에서의 분류기준(곧, 시금석)들 중 일차적인 것으로는 ① 증거물證據物 ② 미적 범주美的範疇 ③ 본풀이 플롯plot과 민담 고유 형식形式 따위를 들 수 있다. ① 증거물: 신화는 포괄적인 증거물(예: 개벽신화에서의 천지, 건국신화에서의 국가, 여타 신화들에서의 모든 산 · 강)을 갖는다. 전설은 자연물 · 인공물 · 인물 같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예: 설문대할망 전설에서의 오름 · 물장오리, 오백장군 전설에서의 기암괴석)을 갖는다. 그리고 민담은 통상 증거물을 갖지 않지만 아주 드물게는 포괄적인 증거물(예: 바닷물이 짜게 된 까닭 관련 민담에서의 '바닷물')을 갖는다. 내친김에 말하면, 신화에서는 신화 본문이 먼저이고 증거물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건국신화에서는 신화 본문이 선행하고 증거물(곧, 국가)이 후행한다. 즉, 국가는 신화 본문의 결과이다. 한편, 전설에서는 증거물이 먼저이고 전설 본문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설문대할망 전설에서는 증거물(곧, 물장오리 등)이 선행하고 전설 본문이 후행한다. 즉, 설문대할망 전설은 증거물의 소산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전설이 본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증거물을 끌어댄 것이 아니라 증거물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전설 본문을 꾸며내게 했다는 말이다. ② 미적 범주: 신화는 장미壯美(곧, 숭고미 또는 신성미)를, 전설은 비장미悲壯美(곧, 비극미)를, 그리고 민담은 골계미滑稽美(곧, 희극미)를 지향(곧, 추구)한다. ③ 본풀이 플롯과 민담 고유 형식: 본풀이 주인공은 통상 '일곱 단계의 정형화定型化된 삶'[곧, "❶ 고귀高貴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奇異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幼年期→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逆境

또는 투쟁→ ❺ 의인義人인 양육자 또는 구원자와 조우遭遇→ ❻ 구원救援(곧,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이라는 과정을 차례로 거치고, 그리고 민담 주인공은 후술할 '민담 고유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행동한다. 부언하면, 전설 주인공은 하등의 구조나 형식 따위에 구애됨 없이 다만 증거물 설명에만 진력한다.

Ⅱ.vi. 한국설화 분류이론 3분법에서의 시금석으로는 일차적인 것(곧, 위 ① · ② · ③) 외에도 이차적인 것[곧, ④ 분포(곧, 전승범위) ⑤ 신성성과 진실성 ⑥ 주인공 ⑦ 시간과 공간]을 더 들 수 있다. ④ 분포: 신화의 분포(곧, 전승범위)는 통상 종족(곧, 씨족 · 부족 · 민족)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신화는 당해 종족을 응집시켜 준다. 하지만 타 종족에게는 제대로 된 신화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를테면, 탐라건국설화(곧, 삼을나 신화)는 탐라민중은 응집시켜 주지만 한반도 민중에게는 전설쯤으로 받아들여진다. 전설의 분포는 지역(곧, 좁게는 단위 마을이고 넓게는 단위 국가임)이다. 물론 전설도 당해 지역의 주민들 간에 신화처럼 유대감을 준다. 민담의 분포는 세계이다. 이는 민담은 분포에 한계가 없다는 말이다. 민담은 오로지 흥미만을 추구하기에 모든 종족 · 지역 등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니까. 참, 민담에는 지역 · 종족 등에 따른 유형類型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콩쥐팥쥐와 유럽의 신데렐라가 그 일례이다. ⑤ 신성성神聖性과 진실성眞實性: 신화의 세계는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해한 세계이다. 하지만 신화 구연자는 그것을 '신성하고 진실한 이야기'라 믿는다. 전설의 세계는 그럴싸한 세계이다. 그래서 전설 구연자는 그것을 '진실한 이야기'라 믿는다. 한편, 민담의 세계는 불가해한 세계도 그럴싸한 세계도 아니다. 따라서 민담 구연자는 그것을 신성하거나 진실한 이야기라 여기며 구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흥미만을 위해 구연한다. ⑥ 주인공: 신화 주인공은 '신 또는 신적 존재(곧,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간)'이다. 즉, 신화 주인공은 초인적이고 의지적인 존재로 증거물 · 운명 · 환경 등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그것들을 좌우한다. 이를테면, 우주를 창조하고 국가를 창건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한다. 그런데 신화 주인공도 역경에 처한다. 하지만 그것은 후속 승리를 위해 마련된 일시적 장치에 불과하다. 전설 주인공은 비극적 인간이

다. 즉 전설 주인공은 난관에 부딪히면 결국에는 좌절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간이다. 따라서 전설 주인공은 증거물 · 환경 · 운명 등을 위해 헌신한다. 이를테면, 붉은오름 전설에서는 산의 흙이 붉은 까닭을 설명하려고 김통정으로 하여금 자결하게 한다. 물론 삼별초 장수인 김통정은 평범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실은 비범한 인간(곧, 신적 존재)이다. 하지만 전설 세계에서는 인간 능력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인생이란 종내는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비극이니까. 내친김에 말하면, 붉은오름은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의 상징이고, 그리고 자결하는 김통정은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간의 상징이다. 민담 주인공은 신화 주인공 같은 초인적 존재가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간이다. 하지만 의지적 인간이다. 그래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리고 증거물 · 운명 · 환경 등에 대해 의지적 ·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신화 주인공처럼 훼방꾼 · 장애물 등에 별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따라서 민담 주인공의 패배도 신화 주인공의 패배처럼 후속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일시적 장치에 불과하다. ⑦ 시간과 공간: 신화와 민담의 시공時空은 개념적(곧, 추상적 · 비현실적 · 비역사적) 시공이다. 이를테면, 신화 「창세기」의 시공은 '한 처음; 에덴동산'이고, 그리고 어느 민담의 시공은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어느 곳'이다. 한편, 전설의 시공은 구체적 · 현실적 · 역사적 시공이다. 이를테면, 김녕 뱀굴 전설의 시공은 '조선조 중종 시절; 김녕리金寧里'이고, 설문대할망 전설의 시공은 '왕조시대; 제주도'이다. / 이상의 ① ~ ⑦은 설화를 완벽히 분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시금석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타당한 설화분류방식은 설화 상호간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 시금석들을 동원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Ⅱ.ⅶ. 설화는 소설을 낳았다. 그런데 소설과 설화의 차이점 중 하나는 통상 설화는 단순성 · 보편성을, 그리고 소설은 복잡성 · 특수성을 지향(곧,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 양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둘 다 허구虛構라는 것이다. 허구란 허위虛僞라는 뜻이 아니다. 물론 사실도 아니다. 다만 사실적인 이야기일 따름이다. 즉, 사람들에게 흥미 또는 교훈을 주기 위해 '현실에서 있었던 일' 또는 '있음

직한 일'을 '일정한 틀' 속에 집어넣어서 새로이 꾸며낸 이야기이다. 따라서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별개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일정한 틀'이란 '이야기 구조'(곧, 플롯)이고, 그리고 플롯이란 소설(또는 설화) 속 등장인물들 행동이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소설(또는 설화)에서는 우연한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사건은 필연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쩌면 우연偶然투성이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과 우연히 만나 결혼도 하고, 우연히 교통사고로 죽기도 한다. 하지만 소설(또는 설화)에서는 우연이란 통하지 않는다. 결혼을 해도 교통사고로 죽어도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Ⅱ.viii. 21세기 제주에서의 설화채록은 시대착오적인 짓이다. 제주에서의 설화채록(곧, 구비문학의 문헌화)은 1970년대를 전후하여 이미 종료되었으니까. 이는 작금의 제주에는 이미 설화채록 시대는 가고 설화해석 시대가 와 있다는 말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설화해석은 설화를 왜곡(곧, 조작 ·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나아가서, 설화 이면 정신)를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것이다. 물론 설화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화왜곡은 아무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짓이지만 말이다. 내처 말하면, 기록문학 시대에는 설화왜곡이 넘쳐나게 마련이다. 사익私益을 위해 설화를 마치 소설처럼(곧, 공동작이 아니라 개인작처럼) 왜곡해대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테니까. 사실, 제주에서도 언젠가부터 빗나간 설화연구가들, 즉 설화왜곡에 골몰하는 자들과 왜곡된 설화에 한눈파는 자들이 적잖이 생겨났다. 부언하면, 설화(특히 설문대할망 전설 같은 역사적 전설)를 왜곡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중사(곧, 역사)를, 나아가서 민중의식이나 민족정체성 따위를 왜곡하는 처사이다. 이는 설화왜곡은 반민족적 행위를 조장하는, 아니 범하는 작태라는 말이다.

Ⅱ.ix. 문헌설화는 마치 고사목枯死木처럼 성장을 멈춘 것(곧, 더는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마치 공룡이나 쟁기처럼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물론 삼라만상은 사물이든 정신이든 성장을 멈추면, 즉 변화를 등지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리게 마련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오늘날 탐라설화들은 거의 다 활자화되면서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

이를테면, 삼을나 신화는 박물관의 박제품이나 골동품 따위 같은 신세로 영락한 채 근근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탐라민중은 설화들을 무덤이라는 문헌에서 꺼내어 '향유함으로써'(즉, '거듭거듭 재해석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되살려야 한다. 신화나 전설은 민담과는 달리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 민중사民衆史이니까. '삶의 자리'(곧, 역사적 · 사회적 · 문화적 환경)에서의 민중 공동체의 정신 · 이상 · 염원 등의 발로 말이다. 내처 말하면, 탐라민중은 모흥정신毛興精神, 즉 '셋(곧, 모두)이 하나 되어[毛] 일어나는[興] 정신'을 이면에 간직한 삼을나 신화가 탐라민중 공동체 삶의 시점始點이자 종점終點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탐라인은 그 두 시점時點 사이에서 회귀라는 여행을 하며 날로 모흥정신의 완성을 꿈꾸는, 아울러 날로 그 정신으로 살찌는 연어鰱魚이니까.

Ⅱ.x. 설화 없는 민중은 꿈 없는 민중이고, 그리고 꿈 없는 민중은 미래 없는 민중이다. 미래가 없다는 말은 슬프게도 민중 공동체가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갈 곳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말이다.

## Ⅲ. 전설(≒옛말)

Ⅲ.i. 전설은 흡사 복숭아가 핵과 과육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근간根幹인 핵심적인 화소와 지엽枝葉인 여타 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핵심화소는 흡사 복숭아 핵이 하나의 복숭아를 그 복숭아일 수 있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듯이 하나의 전설을 그 전설일 수 있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핵심화소는 어떤 경우에도 마치 복숭아 씨앗이 자라나 복숭아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듯이 변모되거나 첨삭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화소가 변모되거나 첨삭되는 것은 본질이 달라지는 것, 즉 전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한편, 여타 화소는 변모되거나 첨삭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편의 전설을 구전하거나 해석할 때 첨삭하거나 변모시킬 수 있는 것은 다만 여타 화소뿐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전설은 마치 복숭아가 과육이 풍부할수록 뛰어난(곧, 맛있는) 것이듯이 여타 화소가 풍부할수록 뛰어난(곧, 흥미진진한) 것이다. 이는 품질(곧, 흥미 등)

을 결정하는 것은 핵심화소가 아니라 여타 화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여타 화소는 흡사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듯이 주역인 핵심화소를 돋보이게 하는 한낱 조역이나 단역 같은 것에 불과하다.

Ⅲ.ⅱ. 전설은 증거물을 먹고 산다. 따라서 증거물이 소멸하면 전설도 그만 아사해 버리고 만다. 이는 전설은 증거물을 꼭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한편, 전설은 증거물을 설명해 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전설은 신화나 민담과는 달리 구조 · 형식 등에 개의치 않는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전설 이해에는 신화나 민담처럼 구조를 분석하여 일반적 유형을 걸러내어 보는 것도 공식적 · 관용적 표현을 찾아내어 일반적 형식을 짜 보는 것도 아무 도움이 못 된다.

Ⅲ.ⅲ. 전설의 전형典型은 '꿈 있는 비극'이다. 전설은 민중 삶의 기록이고, 민중 삶이란 일련의 비극적인(곧, 꿈꾸며 좌절하고 좌절하며 꿈꾸는) 과정이니까. 여하튼, 전설은 '꿈 있는 비극'을 지향한다. 이는 민중 공동체는 꿈이 좌절되어도 체념하지 않고 또다시 꿈을 꾼다는 말이다. 생각건대, 이는 당연지사이다. 가진 것 없는 민중으로서는 꿈마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도리가 없으니까. 아니, 죽은 거나 진배없으니까. 그런데 전설이라 해서 다 비극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극은 주인공 운명이 비극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전설은 주인공 운명은 제쳐놓고 다만 증거물 설명에만 진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설이라 해서 다 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주인공 운명은 비극적인데 꿈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증거물 설명을 위한 한낱 하나의 장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언하면, 전설(곧, '꿈 있는 비극')에서의 비극이란 용어는 한갓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일상적 의미의 말이 아니라 비장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미학적美學的 의미의 말이다. 애기업은여자바위 전설을 예로 들어 보자. 주인공 여자는 아들과 함께 죽어 돌이 된다. 이는 민중 좌절의 상징이니 비극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훗날 소생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민중 구원 열망의 상징이다. 그러고 보면, 이 전설은 주인공의 죽음을 민중의 신념(곧, 꿈)으로 승화시킨 연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셈이다. 따라서 이 전설은 말초적(곧, 절망적) 비극이 아니라 원초적(곧, 꿈 있는) 비극이다. 물론 이런 전설의 주인공

은 원초적으로 비극적인 '꿈꾸는 인간', 즉 인간 전형典型이다.

Ⅲ.ⅳ. 전설(아울러, 전설 이면 정신)은 생목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전설은 자라나지 않으면 마치 생목이 자라나지 않으면 고사하듯이 고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전설이 자라난다는 말은 전설이 구전된다는 말이고, 전설이 구전된다는 말은 민중이 꿈꾸기와 좌절을 반복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민중이 꿈꾸기와 좌절을 반복한다는 말은 민중이 죽어 가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꿈꾸기와 좌절 없이 산다는 말은 기실 죽어 간다는 말일 테니까. 그러고 보면, 전설 있는 사회는 민중이 나날이 죽어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인 반면, 전설 없는 사회는 민중이 나날이 살아가지 않고 죽어 가는 사회인 셈이다.

Ⅲ.ⅴ. 전설은 본문 그대로는 십상팔구 허무맹랑한 괴담이다. 그러니, 전설은 올바른 해석[곧, 전설 발생 토양인 민중사(곧, 삶의 자리)에 부합된 해석, 당해 민중사 속 타 전설들과 비교를 통한 해석, 한국설화이론에 의거한 해석 따위를 동시에 고려한 해석]을 꼭 필요로 한다.

Ⅲ.ⅵ. 전설은 전승 장소에 따라서는 지역적 전설(①) · 이주적移住的 전설(②)로, 그리고 발생목적에 따라서는 설명적 전설(③) · 역사적 전설(④) · 신앙적 전설(⑤)로 분류된다. 그런데 후자(곧, 발생목적에 따른 분류)의 경우에는 중복적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설명적 전설인 동시에 역사적 또는 신앙적 전설일 수 있다. ① 지역적 전설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전설(예: 이어도 전설, 김녕 뱀굴 전설, 붉은오름 전설, 별도봉 전설, 설문대할망 전설)은 당해 지역의 지리적 특징, 명칭의 유래, 습관의 기원 등을 알려준다. ② 이주적 전설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전설(예: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전설, 망부석 전설)이다. 그런데 이주적 전설이 이주에 의한 것인지, 또는 각기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즉 구비문학계 중론이다. 인간의 삶이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즉, 음식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일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니까. ③ 설명적 전설은 지리상의 특징, 자연현상, 특수한 습관, 어느 지역 동·식물의 특이한 형태, 산이나 바위 등의 생김새 따위를 설명하는 이야기(예: 붉은오름 전설 · 아흔아홉골 전설 등)이다. 그런데 설명적 전설은 설명적 민담과 간혹 혼동된다. 양자 공히 사물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덤에 피어난 할미꽃이나 솥이 적다고 우는 소쩍새에 관한 민담도 물장오리와 아흔아홉골에 관한 전설도 공히 사물 특징을 설명한다. 그럼, 전자는 민담으로, 후자는 전설로 분류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의 그 삼분법에서의 분류기준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것들 중 증거물은 말한다. 증거물이 할미꽃과 소쩍새처럼 종種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곧, 포괄적)인 것이면 민담이고, 물장오리(곧, 하나의 호수)나 아흔아홉골(곧, 일련의 골짜기)처럼 종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것이면 전설이라고. 내친김에 말하면, 민담은 증거물이 없거나 간혹 포괄적인 증거물을 지니고, 전설은 특정하거나 개별적인 증거물을 꼭 지닌다. ④ 역사적 전설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생겨난 이야기(예: 설문대할망 전설, 이어도 전설, 붉은오름 전설, 용ᄆᆞ루 전설, 뱀굴 전설, 관덕정 전설), 즉 일종의 민중사이다. 한편, 민중은 민족의 뿌리이다. 그러고 보면, 역사적 전설은 민중사인 동시에 민족사인 셈이다. 내친김에 말하면, 역사적 전설은 때로는 영웅담(곧, 야담野談 · 야사野史 · 패사稗史 따위) 성격도 띤다. 여기서의 영웅이란 국가적(또는 지방적) 영웅일 수도 있고 무명인無名人일 수도 있다. 내처 말하면, 오늘날 탐라국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탐라국 관련 사료가 전무한 형편이라서 말이다. 하지만 역사적 전설이 제법 있다는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것들이 그 난관의 돌파구 노릇을 해 줄지도 모르니까. 아니, 그것들이야말로 탐라의 주체적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窓 노릇을 해 줄 테니까. 주체적인 역사란 나라의 뿌리인 민중의 시각에서 본 역사이다. ⑤ 신앙적 전설(예: 뱀굴 전설, 칠머리 전설)은 탐라에서는 민간신앙 관련 전설에 대한 지칭이다. 그리고 그 소재는 주로 뱀(곧, 주로 황구렁이)과 풍수지리에 관한 것이다. / 부언하면, 신앙과 신앙적 전설(또는 신화)은 별개이다. 전자는 종교 범주에, 그리고 후자는 문학 범주에 속하니까. 물론 신앙적 전설과 신화도 별개이다. 전자는 비장미를, 후자는 숭고미를 지향하니까. 그런데 혹자들은 때로는 안타깝게도 예의 그 셋을 뭉뚱그려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려 들기도 한다. 어불성설이다.

Ⅲ.ⅶ. 전설이란 생시에 꾸는 일종의 꿈이다. 그렇다면, 생시의 꿈

에서 시비를 따질 수 없듯이 전설에서도 시비를 따질 수 없다. 그런데도 조작되거나 날조되지 않은 전설의 내용 · 표현 등에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다.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획책하는 자들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시비는 단견(또는 편견)의 소치, 아니 설화를 왜곡하려는 불순한 저의의 소치이다. 전설의 신화화(또는 신화의 전설화)란 설화 본질이 달라졌다는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물론 설화 이면 정신의 적합성에 관한 시비는 당연지사이다.

Ⅲ.ⅷ. 전설을 구연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전설(나아가서, 그 이면 정신)을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것으로 일종의 창작 행위이다.

Ⅲ.ix. 옛말은 민중 공동체의 동질성 형성 · 유지 등을 위한 것이다. 부언하면, 본풀이는 기복신앙과 운명론을 위한 것이다.

## Ⅳ. 신화(≒본풀이)

Ⅳ.ⅰ. 제주민중 설화의식에서의 본풀이는 한국설화 분류이론 3분법에서의 신화에 얼추 대응되는 개념이다.

Ⅳ.ⅱ. 본풀이는 복합명사(곧, '본+풀이')로 본本의 뜻은 신神의 근본(곧,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來歷)이고, 풀이는 '풀다[解]'의 전성명사이다. 이는 본풀이는 '신의 근본(곧, 내력)을 밝힌 이야기'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의 내력담이 아닌 것은 본풀이가 아닌 셈이다.

Ⅳ.ⅲ. 본풀이의 특이점은 ① 기복신앙과 운명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 ② 본풀이 신적 존재들은 민중의 축원사항 성취라는 공리적功利的 기능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구체적 직능職能을 꼭 지닌다는 것, ③ 본풀이 신적 존재들 정점에는 옥황상제(곧, 도교 최고신)가 있다는 것, ④ 본풀이 신적 존재들은 도교 교의(예: 신선 사상)에 따라 마치 신선처럼 죽지 않고 신적 존재로 좌정한다는 것, 부연하여 설명하면 본풀이의 선한 주역 · 조역은 죽지 않고(단, 조역의 경우에 죽었을 때는 꼭 환생하여) 선신善神으로 좌정하고 본풀이의 악한 조역은 통상 주역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연후에 환생하거나 죽은 상태 그대로 악신惡神으로 좌정한다는 것, ⑤ 본풀이 단역은 마치 도교사회에서의 범인凡人처럼 예외 없이 신적 존재로 좌정하지 않는다는(곧,

못한다는) 것 등이다.

Ⅳ.iv. 본풀이의 미적 범주는 장미(곧, 숭고미 · 신성미)에 속한다.

Ⅳ.v. 본풀이는 통상 "❶ 고귀高貴한 혈통→ ❷ 비정상적이거나 기이奇異한 탄생과 비범한 유년기幼年期→ ❸ 기아棄兒 또는 유아遺兒→ ❹ 역경逆境 또는 투쟁→ ❺ 의인義人인 양육자 또는 구원자와 조우遭遇→ ❻ 구원救援(즉,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❼ 신神으로의 좌정坐定"이라는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즉, 본풀이 주인공은 '혈통이 고귀하고, 탄생이 비정상적이거나 기이하고,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역경에 처하고, 의인(또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역경을 다스리는 신으로 좌정한다'라는 일곱 과정의 삶을 겪는다. 따라서 본풀이는 적어도 이런 이야기 구조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내친김에 말하면, 제주본풀이는 극히 현실주의적이라서 위 '역경 극복 또는 투쟁에서의 승리' 과정(곧, 위 ❻)에서 이상理想 따위는 제쳐놓고 현실에만 골몰한다. 즉, 대의명분 · 종교이념 · 철학사상 등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승리에만 진력한다. 그래서 본풀이는 비장미보다 숭고미가 더 두드러진다. 숭고미는 숭고한 투쟁(또는 승리)의 산물이다. 한편, 유럽 신화는 이원론(곧, 현세는 불완전한 세계이고 내세는 완전한 세계라는 사상)에 따라 현세의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한 연후에 비장한 패배를 한다는 결말을 갖는다. 그래서 유럽 신화는 숭고미보다 비장미가 더 두드러진다. 비장미는 비장한 투쟁(또는 패배)의 산물이다. 그러고 보면, 신화의 미적 범주는 종족 · 지역 등에 따라 상이점이 있는 셈이다.

Ⅳ.vi. 신화의 신성성(곧, 숭고성)을 위한 장치에는 난생卵生 · 강림降臨 · 용출종지聳出從地 등의 화소가 있다. 이것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던 신화시대 사람들의 자연숭배[예: 난생(←태양 숭배), 강림(←하늘 숭배), 용출(←대지 또는 굴 숭배)] 사상의 소산이다.

Ⅳ.vii. 신화에서의 신성성은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하고 근원적인 어떤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신 또는 신적 존재(곧, '용감하거나 위대한 인간' 포함)의 '현실에서의 위대한(곧, 용감무쌍한) 행위'에 반응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신성한 느낌이다. 이를테면, 삼을나 신화 · 주몽 신화 · 탈해 신화 등(이 신화들은 탐라 · 고구려 · 신라라는

역사상의 무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한 것들임)의 신성성은 삼을나 · 주몽 · 탈해 등이 각자 자신의 숙명적 시련에 맞서는 그 투지 넘친 용감무쌍한(곧, 위대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Ⅳ.viii. 신화에서의 신성성은 개인적 느낌이 아니라 집단적 느낌이다. 이는 신화란 민중 개개인 생활이 아니라 민중 공동체 생활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삼을나 신화는 탐라 종족의 집단생활에 관한 기록인 셈이다. 아무튼, 신화의 신성성은 집단적인 것이다. 한편, 한韓민족은 타민족 신화를 신화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단군신화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숭고성을 그것에서 느끼지는 않는다. 이는 신성성이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것이라는 말이다.

Ⅳ.ix. 신화는 민족 또는 국가의 뿌리이다. 이는 신화의 전승傳乘 집단은 일반적으로는 민족이나 국가의 영역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화는 민담이나 전설과는 달리 이주移住에 의한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주국 신화가 종속국에 이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물론 종교 범주에 속하는 신앙은 문학 범주에 속하는 신화와는 달리 곧잘 이주에 의해 전파된다.

Ⅳ.x. 신화 전승집단은 집단의 흥망성쇠에 따라 영역이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예컨대, 단군신화는 발생기에는 씨족 신화였는데 고려시대에는 민족 · 국가 신화로 확대된다. 반면, 삼을나 신화는 발생기에는 민족(곧, 탐라민족) · 국가(곧, 탐라국) 신화였는데 고려시대 들어 씨족 신화, 즉 소위 삼성三姓(곧, 고 · 량 · 부) 신화로 축소된다.

Ⅳ.xi. 신화시대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역사가 있기 이전의, 신화로만 알려져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구비문학 설화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대한 자연 속의 위대한 행위로 여김과 동시에 자신들 중 위대하게(곧, 용감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의 넋은 소멸되지 않고 신적 존재(곧, 숭배 대상으로서의 또 하나의 자연)로 환생한다고 여겼던 시대”이다.

Ⅳ.xii. 신화는 신화시대의 산물이다. 즉, 신화는 신화시대 사람들의 생활(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대하고 신성한 자연 속의 위대하고 신성한 행위로 여겼음)과 의식(그들은 위대하고 신성하게 산 자의 넋은 죽어서 신적 존재, 즉 숭배대상으로서의 또 하나의 자연이 된다고 여겼

음)의 소산이다. 이는 신화의 밑바탕에는 신화시대 사람들의 사상(곧, 자연숭배 · 정령숭배 · 영혼불멸 등)이 깔려 있다는 말이다.

Ⅳ.xiii. 탐라에서 신화시대가 막을 내린 것은 언제쯤일까? 그것은 아마도 모라 몰락(1105년)에서 지명 모라(곧, 탐라)의 제주로의 개칭(1211년경) 무렵 사이였을 것이다. 그 무렵은 치욕스럽고 비참하게도 신성한 탐라인 삶이 고려 무단통치로 말미암아 축생의 삶 같은 예속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린 시절이었을 테니까.

Ⅳ.xiv. 신화는 역사시대의 눈이 아니라 신화시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 신화는 당대에는 최선의 것이었다. 즉, 신화는 당대라는 몸에 꼭 알맞은 옷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이 자란 탓에 쓸모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신화는 마치 배내옷이 추억을 자극하듯이 때로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대내적으로는 결속 · 통제 등의 확립에, 대외적으로는 정체성 · 주체성 · 자긍심 등의 확립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Ⅳ.xv. 제주본풀이 면모를 본격적으로 밝힌 현용준(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구비문학 강의실에서 간혹 문학인 본풀이와 신앙을 혼동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작금의 제주에서 시대착오적이게도 혹세무민하는 무속을 조장하는 역할을 단단히 한 셈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그는 논문 등에서도 서슴없이 한반도를 본토, 그리고 탐라를 변방이라 일컬었다. 생각건대, 지구는 하나의 구球이다. 따라서 지구 표면 어디에도 중심(또는 본토)은 없다. 그러니, 굳이 따진다면 자신에게는 자신이 있는 곳이 곧 중심이다. 이는 인간사의 중심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즉, 중심은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고로, 탐라는 변방이라 여기는 한 본토일 수 없고, 본토라 여기는 한 변방일 수 없다.

Ⅳ.xvi. 작금의 제주사회가 제주신화라며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본풀이는 실은 삼을나 신화를 제외하면 다 모라 몰락(1105년) 이후 한반도에서 유입되어 토착화한 것들이다. 국가가 망하면, 망국(또는 종속국)의 신화 · 역사 · 언어 등은 종주국의 그것들에 밀려 구축되게 마련이니까. 이는 본풀이는 탐라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설화가 아니라는 말이다. 참고삼아 말하면, 국가 몰락과 함께 종언을 고했던

히브리어는 무려 2천 년이 지난 후 뜻밖에도 소생했다. 이는 일단 사장(또는 소멸)된 언어가 소생한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아마도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이 『구약성서』를 금과옥조인 양 여김과 동시에 전통을 중시하는 마소라masorah 학자들이 『구약성서』 언어인 히브리어를 한 점 한 획의 왜곡도 없이 보존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작금의 제주사회 일각에서는 부끄럽게도 탐라어가 축출되어 종적을 아주 감추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황당하게도 현 제주어(곧, 왕조시대 한반도어)를 탐라어로 알고 애지중지하고 있다.

## Ⅴ. 민담

Ⅴ.ⅰ. 민담은 오늘날은 전래동화傳來童話라 불리기도 한다.

Ⅴ.ⅱ. 민담에서는 유형類型(type)과 화소話素(motif)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유형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이고, 화소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를테면, 콩쥐팥쥐 이야기는 하나의 유형이고, 그 이야기 속의 신발은 하나의 화소이다. / 화소는 특이한 것(예: 뱀굴, 한라산, 날개 달린 아이, 부모가 자식을 죽임)이다. 따라서 특이하지 않은 것(예: 굴, 산, 아이, 사람이 사람을 죽임)은 화소가 될 수 없다. / 동일한 화소가 상이한 유형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민담에 국한되지 않고 신화 · 전설 등에도 나타난다. 즉, 화소는 마치 프리랜서인 양 자립한 채 이리저리 이동한다. / 화소는 세계적인 공통성을 가진다. 한편, 유형은 대체로 문명권(곧, 유럽 · 아시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여하튼, 유형과 화소를 수학 기호로 표시하면 "유형≧화소, 즉 유형={x|x는 화소, x≧1, x는 자연수}"이다.

Ⅴ.ⅲ. 민담 주인공은 민중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고로, 민담이 추구하는 미적 범주는 골계미이다.

Ⅴ.ⅳ. 민담은 다음과 같은 유형類型으로 분류된다. ① 동물 유래담由來談: 동물의 생김새 · 습성 · 이름 등을 설명하는 이야기. 여기서의 동물은 개체個體로서가 아니라 종種으로서의 동물이다. ②본격本格 동물담: 의인화擬人化된 동물(예: 미련한 곰 · 교활한 여우) 이야기.

여기서는 때로는 인간도 함께 등장하여 사건을 진행시킨다. 그런데 이때의 동물은 종種으로서가 아니라 개체로서의 동물이고, 동물 세계에서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행동한다. ③ 동물 우화寓話: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동물에 빗대어 엮은 이야기. 즉 인간의 과오나 비리, 인간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동물 또는 동물 세계를 통하여 풍자한 이야기. 여기서의 주인공은 본격 동물담에서처럼 의인화된 동물이 아니라 동물 모습을 한 인간이다. ④ 현실담現實譚: 현세의 인간이 현세에서 지혜 · 용기 등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 ⑤ 공상담空想譚: 초자연적인 인간이 초현실의 세계에서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 ⑥ 과장담誇張譚: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 ⑦ 모방담模倣譚: 정직한 사람의 흉내를 내다가 실패하는 부정직한 사람의 이야기. ⑧ 치우담癡愚譚: 바보나 바보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⑨ 사기담詐欺譚: 꾀(곧, 거짓말이나 지혜)로 상대를 속여 뜻하는 바를 이루는 이야기. ⑩ 경쟁담競爭譚: 내기나 시합에 관한 이야기.

Ⅴ.ⅴ. 민담 형식: 민담 형식에는 화자話者의 독창적 표현들(곧, 설화 일반에 통용되는 것들)과 민담 고유의 관용적 · 공식적 표현들(곧, 흥미를 위해 고안된 장치들)이 있다. 그런데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라서 주로 후자(곧, 관용적 · 공식적 표현)에 의존한다. 관용적 표현: 이는 사람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쓰이는 관용구쯤으로 보면 된다. '봄이었다' 대신 '지금이 어느 땐고 하니, 놀기 좋은 춘삼월 호시절이었다', '부자였다' 대신 '천석꾼도 부럽지 않을 부자였다'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화자에 따른 개인적 차이로 인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표현: 이는 본격적인 민담 형식이다. 이에는 ⑴ 서두형식과 결말형식 ⑵ 진행형식 ⑶ 반복형식 ⑷ 대립형식 등이 있다. ⑴ 서두序頭 형식과 결말結末 형식: 서두형식은 이야기 시작에 쓰이는 표현(예: '옛날 한 옛날에')이고, 결말형식은 이야기 끝에 쓰이는 표현(예: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대')이다. 이 형식은 청자의 흥미를 돋우어 주고, 이야기가 허구임을 분명히 하고, 이야기 세계를 현실세계로부터 분리시켜 주고, 그리고 청자를 이야기 시작에서는 '이야기 속 과거'로 끌어갔다가 이야기

끝에서는 '현실'로 되돌아오게 해 준다. ⑵ 진행 형식: 이 형식에는 ① 단선적單線的 진행방식 ② 병립적竝立的 진행방식 ③ 누적적累積的 진행방식 ④ 연쇄적連鎖的 진행방식 ⑤ 회귀적回歸的 진행방식 등이 있다. ① 단선적 진행방식은 등장인물이 하나인 경우에 그의 행동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등장인물이 대립관계의 둘인 경우에는 하나의 행동을 먼저 진행시킨 연후에 다른 하나의 행동을 진행시켜 나간다. ② 병립적 진행방식은 주요 등장인물이 두서넛인 경우에 그들의 행동을 나란히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③ 누적적 진행방식은 등장인물의 행동이 인과관계에 의해 얽혀 있는 경우의 진행방식이다. 즉, 앞 행동의 결과가 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중간의 한 행동이 빠지면 이야기는 더는 진행되지 못한다. ④ 연쇄적 진행방식은 유사한 행동들이 이어지는 경우의 진행방식이다. 여기서는 중간 행동 하나가 빠져도 이야기는 진행된다. ⑤ 회귀적 진행방식은 '두더지의 결혼 이야기'에서처럼 두더지 결혼 상대가 해 · 구름 · 바람 · 벽 등을 거쳐 두더지에게로 되돌아오는 경우의 진행방식이다. ⑶ 반복 형식: 이 형식은 주로 상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데, 그중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 번의 반복'과 '세 번의 반복'이다. 전자의 예는 '흥부 · 놀부가 차례로 제비 다리를 고쳐 주는 상황'이다. 물론 이 두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반복은 아니다. 놀부의 행위는 흥부의 선한 행위를 흉내 낸 위선적인 행위이니까. 후자의 예로는 '세 가지의 소원', '세 가지의 시련', '삼 형제의 선택'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민담에서의 반복은 동질적일 수도 발전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 이상의 반복에는 통상 맨 마지막 반복에 역점이 주어진다. 즉, 앞쪽의 반복들은 맨 마지막 반복을 두드러지게 하는 일련의 장치 구실을 한다. 반복형식은 대립형식과 함께 민담의 내용(곧, 주제 · 인물 · 상황 등)을 강조하고, 청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화자가 그 내용을 쉽게 기억하여 구연口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⑷ 대립 형식: 이는 등장인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은 선악善惡 대립, 즉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다. 흥부 대 놀부, 평민 대 양반, 인간 대 괴물 등이 그 예이다. 물론 민담 인물은

입체적이 아니라 평면적이다. 이를테면, 민담 인물은 선과 악을 함께 행하지 않는다. 즉, 선한 인물은 시종 선한 행동을, 그리고 악한 인물은 시종 악한 행동을 한다. 참, 인물의 평면성과 입체성은 민담(아니, 설화 전반)과 현대소설을 구별할 수 있는 한 시금석이다. 한편, 민담에서의 선은 처음에는 악에 억눌리다가 종내는 악을 억누른다. 꾀와 힘의 대립(토끼 대 호랑이), 미美와 추醜의 대립(콩쥐 대 팥쥐) 등이 그 예이다. 여하튼, 이 형식은 청자에게 현실 문제를 선명히 보여 줌과 동시에 청자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한다는 신념을 갖게 해 준다.

Ⅴ.vi. 민담에는 각종 민중의식(곧, ① 인간주의 ② 현실주의 ③ 낙천주의 ④ 개척 · 도전 · 저항 등의 정신 ⑤ 권선징악적 가치관 ⑥ 비폭력적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① 민담은 인간주의적이다. 민담 주인공인 인간은 비인간적 존재(예: 신 · 괴물)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보면, 민담의 중심에는 늘 인간(곧, 민중)이 있는 셈이다. ② 민담은 현실주의적이다. 민담에서는 현실이 내세 · 이상 · 명분 등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는 법이 없으니까. ③ 민담은 낙천주의적이다. 민담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난관을 당하여도 결코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으니까. ④ 민담은 개혁적이고 도전적이고 저항적이다. 민담의 주인공은 파렴치한 지배층, 경직된 관념, 시대착오적인 권위 등과 싸워 이겨 끝내는 행복(곧, 민담의 궁극적인 목표)을 획득하고야 마니까. 물론 행복에로의 도달이 간혹 주인공의 자력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의 행운도 요행이 아니라 진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늘이 돕게 마련이라는 의미에서의 행운이다. 그러고 보면, 민담 속 민중의식에서의 행복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인 셈이다. ⑤ 민담은 권선징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달성한다. ⑥ 민담은 통상 힘이 아니라 비폭력, 즉 꾀(곧, 지혜)로써 권선징악을 이룬다.

Ⅴ. vii. 설문대할망 전설의 신화화를 획책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소섬 분리'란 제하의 설문대할망 설화는 민담이라고. 하지만 이상에서의 민담 이론은 말한다. 그것은 민담일 수 없다고.

저자 약력

- 고향: 제주(1952년생)
- 학력: 대졸(국어국문학) / 가톨릭 교리 신학원 졸업(신학)

[제주설화 해설서] 이어도移御島

2026년 2월 13일 인쇄

2026년 2월 13일 발행

발행처 도서출판 태한

저 자 장성철

연락처 (064) 722-0673 / 010-2527-0673